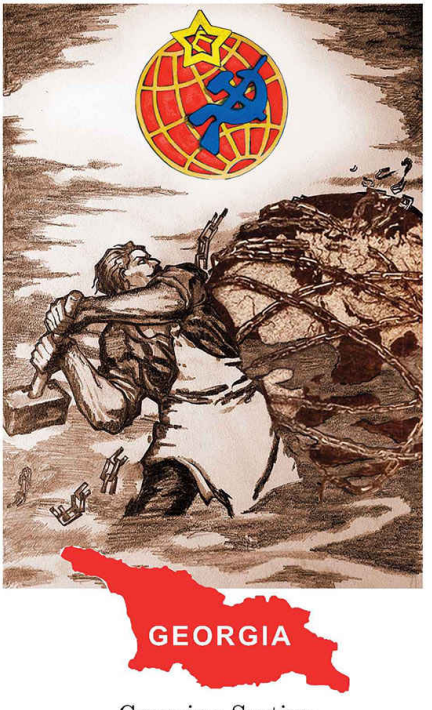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자본론 Ⅳ

잉여가치학설사 ①

K.맑스 지음/편집부 옮김

Theorien
über den Mehrwert
(Vierter Band des „Kapitals")



이·침

이 책 『잉여가치학설사』는 『자본론』의 마지막 제4권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초고이다. 이 제4권은 이론적인 1~3권과 달라서, 맑스가 자기 저작의 '역사적-비판적' 또는 '역사적-문헌적' 부분이라고 불렀듯이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맑스는 『자본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그의 천재적 저작 『잉여가치학설사』에서는 전체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과학적인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이 위대한 저작이 가지는 의의는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논리의 핵심과 그 역사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자본가계급은 가장 중요한 생산적 노동을 하고 있다."

"공황의 대책으로 비생산적 소비의 무제한적 증가가 유익하다." 운운하며 이미 19세기에 분쇄된 사이비 이론들을 한계효용가치설, 수요공급설, 생산비용설 등으로 재생하고 있는 현대 부르조아 경제학을 결정적으로 파산시키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라는데 있다.

아침 새책 27

잉여가치학설사

(자본론Ⅳ)

K. 맑스 지음

도서출판 아 침

일러두기

1. 이 책은 조선노동당출판사간 1967년판 『잉여가치학설사』를 번각한 것이다. 표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에 맞게 고쳤고, 『Theories of Surplus-Value』(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3)과 『Theorien über den Mehrwert』(Dietz Verlag, Berlin, 1974)를 참조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2. 조선노동당출판사 간 『잉여가치학설사』는 러시아어판을 주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3. 주
   ① ✳ : 각주로서 맑스의 주와 러시아어판 편집자의 주와 노동당출판사판의 역자의 주가 있다. 각각 주 말미에 '-편집자', '-역자'. 라고 표시하였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맑스의 주이다.
   ② 1,2,… : 러시아어판 편집자의 주이다. 몇몇 부분에서는 조선노동당 출판사판의 역자가 가필을 하기도 하였다.
4. 부호
   ① [ ] : 러시아어판 편집자가 삽입한 말.
   ② 〈 〉 : 맑스 초고에 있는 괄호.
   ③ 맑스의 초고 노트의 번호는 로마숫자로, 페이지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 페이지가 시작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예 : ‖ Ⅹ Ⅱ -659 ‖) 해당 페이지의 말미를 표시할 때에는 ‖ Ⅹ Ⅱ - 659 ‖라고 표시하였다.
5. 기타
   ① 맑스 초고에서 밑줄이 쳐진 부분은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② 맑스가 인용한 글에 있는 격자체(隔字體)는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③ [ ]안에 들어 있는 장제목 절제목은 맑스의 정식에 기초하여 모스크바의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에서 붙인 것이다.
   ④ 본문의 좌우측에 붙인 숫자는 영어판의 페이지이다.

■ 일러두기 / 2
■ 서문(C. P. S. U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 11

잉여 가치 학설사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의 차례] ····· 37
[일반적 주] ····· 40
[제1장] 서 제임스 스튜어트 ["양도 이윤"과 부의 적극적인 증가와의 구별]····· 43
[제 2 장] 중농주의자들 ····· 47
[1. 잉여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유통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옮겨 놓은 것. 지대를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로 보는 견해]····· 47
[2. 중농주의자들의 체계에서의 제 모순: 체계의 봉건적 외피와 그것의 부르조아적 본질; 잉여 가치의 서술에서의 이중성] ····· 53
[3. 사회의 세 계급에 관한 케네의 견해. 튀르고에 의한 중농주의 이론에 가일층의 발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한 보다 심오한 분석의 제 요소] ····· 57
[4. 가치와 자연의 소재와의 혼동(파올레티)] ····· 64
[5. 아담 스미스에게 있는 중농주의 이론의 제 요소] ····· 65
[6. 자본주의적 대농업의 지지자로서의 중농주의자들]····· 69
[7. 중농주의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있는 제 모순. 중농주의자들과 프랑스 혁명] ····· 71
[8. 프러시아의 반동 분자 쉬말쯔에 의한 중농주의 학설의 비속화] ····· 72

[9. 농업 문제에 있어서의 중농주의적 편견에 대한 초기의 비판(베리)] ····· 73
[제 3 장] 아담 스미스 ····· 75
[1. 가치에 대한 스미스의 상이한 두 가지 규정 :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된 노동량에 의한 가치의 규정과 이 상품과의 교환에서 구매되는 산 노동량에 의한 가치의 규정] ····· 75
[2. 잉여 가치에 관한 스미스의 일반적 개념. 이윤, 지대, 이자를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로 보는 견해] ····· 84
[3. 스미스가 잉여 가치의 개념을 사회적 노동의 모든 분야에 확대한 것] ····· 92
[4. 자본과 임금 노동 간의 교환에서의 가치 법칙의 특수한 작용에 대한 스미스의 몰이해 ····· 94
[5. 스미스에 의한 잉여 가치와 이윤과의 혼동. 스미스의 이론에 있는 비속한 요소] ····· 96
[6. 이윤, 지대, 임금을 가치의 원천들로 보는 스미스의 그릇된 견해] ····· 101
[7. 가치와 소득의 상호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의 이중성. 임금 및 지대의 총액으로서의 "자연 가격"이라는 스미스의 개념에서의 악순환] ····· 103
[8. 사회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키는 스미스의 오류. 총 소득과 순 소득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에 있는 모순] ····· 106
[9. 스미스의 이론을 비속화한 자로서의 세이, 세이에 의한 사회적 총 생산물과 사회적 소득의 동일시. 이것들을 구별하려는 슈토르흐와 램지의 시도] ····· 112
[10. 이윤과 임금 이외에 불변 자본도 포함하고 있는, 연간에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연 이윤과 연 임금이 구매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 116
[a. 소비품 생산자들의 불변 자본은 이들 간의 교환으로써는 보상될 수 없다] ····· 116
[b. 사회의 전체 불변 자본은 소비품 생산자와 생산수단 생산자 간의 교환으로써는 보상될 수 없다] ····· 136

[c. 생산 수단 생산자들 간에서의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연간에 생산된 노동 생산물과 해당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생산물] ····· 150
[11. 보충:가치 척도 문제에서의 스미스의 혼란.
스미스의 제 모순의 일반적 성격] ····· 163
[제 4 장]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제 이론 ····· 165
[1. 자본주의 하에서의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으로서의 생산적 노동] ····· 165
[2. 중농주의자와 중상주의자의 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의 제기] ····· 166
[3.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개념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첫째 설명:생산적 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라는 견해] ····· 168
[4. 문제에 대한 스미스의 둘째 설명:생산적
노동은 상품에 실현되는 노동이다] ····· 174
[5. 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에서의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비속화 과정] ····· 189
[6.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의 지지자들.
문제의 역사에 대하여] ····· 191
[a. 첫째 설명의 지지자들: 리카르도, 시스몽디] ····· 191
[b.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별하려는
초기의 시도들(대비난트, 페티)] ····· 193
[c.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둘째 설명의
지지자-존 스튜어트 밀] ····· 198
[7.] 제르맹 가르니에 [스미스와 중농주의자들의 이론의
비속화] ····· 199
[a.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과, 소득과 교환되는 노동과의
혼동. 전체 자본이 소비자의 소득으로써 보상된다는
그릇된 개념] ····· 199
[b.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과정에서의 불변 자본의
보상에 관한 문제] ····· 205
[c. 스미스에 대한 가르니에의 논쟁의 비속한 제 전제.
중농주의적 표상으로의 가르니에의 복귀. 비생산적 노동자

들의 소비가 생산의 원천이라는 견해는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일보 후퇴다]……217
[8.] 샤를 가닐 [교환과 교환 가치에 대한 중상주의적 견해. 보수를
받는 온갖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 … 222
[9. 가닐과 리카르도의 "순 소득"론.
생산적 인구의 감소의 지지자로서의 가닐;
자본의 축적 및 생산력의 성장의 지지자로서의 리카르도]……233
[10.]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 [연간 총 생산물량의 보상:
a.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 b.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
c.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 253
[11.] 페리에[스미스의 생산적 노동 및 자본 축적론을
반대하는 페리에의 논쟁의 보호 관세주의적 성격.
축적 문제에서의 스미스의 혼란. "생산적 노동자"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 중의 비속한 요소]……277
[12.] 로더데일 백작 [지배 계급들은 가장 중요한
종류의 생산적 노동의 대표자로 보는 변호론적 견해]……291
[13. 세이의 "비물질적 생산물"의 개념. 비생산적
노동의 걷잡을 수 없는 성장의 정당화]……293
[14.] 데스튜드 드 트라시 백작 [이윤 성립에 관한
비속한 견해. "활동적 자본가"를 유일한 생산적
노동자라고 선포] …… 296
[15. 스미스에 의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반대하는 논쟁의 일반적 특징. 비생산적 소비를 생산에 대한
필요한 자극으로 보는 변호론적 견해] …… 311
[16.] 앙리 슈토르흐 [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 간의
상호 관계 문제에 대한 반역사적 태도. 지배
계급이 수행하는 "비물질적 노동"의 개념] …… 314
[17.] 낫소 시니어 [부르조아지에게 유용한 모든 기능이
생산적이라고 선포. 부르조아지와 부르조아 국가에 대한 아첨] 318
[18.] P. 로씨 [경제적 제 현상의 사회적 형태에
대한 무시.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의
절약" 이라는 비속한 견해]……324
[19. 부자의 낭비에 대한 맬더스주의자 챌머즈의 변호]……332

[20. 아담 스미스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그의 견해에 관한 결론적 지적] ····· 333
[제 5 장] 네케르 [자본주의 하에서의 계급들의 대립을
빈곤과 부 간의 대립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 339
[제 6 장] 케네의 경제표(보론) ····· 343
[1. 총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표시하려는 케네의 시도] ····· 343
[2.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유통. 재생산을
표현하지 않는, 차지인으로의 화폐의 복귀] ····· 344
[3.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화폐 유통 문제에 대하여] ····· 350
[a. 임금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선대로 보는 황당한 견해.
이윤을 모험에 대한 상금으로 보는 부르조아적 관념] ····· 350
[b. 자본가에게서의 노동자들의 상품 구매 · 재생산을
표현하지 않는 화폐의 환류] ····· 358
[4. 『경제표』에서의 차지인과 산업가 간의 유통] ····· 366
[5. 『경제표』 에서의 상품 유통과 화폐 유통.
화폐가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다양한 경우] ····· 371
[6. 정치 경제학사에서 『경제표』가 가지는 의의] ····· 382
[제 7 장] 렝게 [노동자의 "자유"에 관한 부르조아 -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한 초기의 비판] ····· 385

부 록

[1. 노동, 가치, 과학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홉스의 견해] ····· 395
[2.] 역사 영역에서 : 페티 [비생산적 직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동 가치론의 맹아. 노임, 지대, 토지 가격 및
이자를 가치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려는 시도] ····· 396
[3.] 페티, 서 더들리 노스, 로크 ····· 407
[4.] 로크 [부르조아적 자연법 이론의 견지에서의
지대와 이자의 해석] ····· 408
[5.] 노스 [자본으로서의 화폐. 이자율의 저하의

원인으로서의 상업의 성장] ····· 412
[6. 부의 원천으로서의 노동 활동에 관한 버클리의 견해]·····417
[7. 흄과 매시] ·····418
[a. 이자 문제에 관한 매시와 흄의 견해] ····· 418
[b. 흄. 상업 및 공업의 발전에 따르는 이윤 및 이자의 저하]·····418
[c. 매시. 이윤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자. 이윤의 수준에
의한 이자의 높이의 설명] ····· 420
[d. 결론]·····423
[8.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장들에 대한 보충] ····· 424
[a. 『경제표』에 관한 보충적 지적. 캐네의 그릇된
제 전제]·····424
[b. 개별적 중농주의자들의 중상주의적 견해로의 부분적
복귀. 경쟁의 자유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요구]·····425
[c. 교환에서는 가치가 증대될 수 없다는 데 대한
최초의 정식화] ····· 426
[9. 중농주의자들의 아류인 듀 뷰아 백작의
토지 귀족에 대한 찬양] ····· 427
[10. 중농주의의 견지에서 토지 귀족을 반대하는
논쟁(영국의 한 익명 저자)] ····· 429
[11. 모든 직업의 생산성에 관한 변호론적 견해] ····· 434
[12.] 자본의 생산성.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 436
[a.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표현으로서의
자본의 생산성]·····436
[b.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에서의 생산적 노동]·····440
[c. 자본과 노동과의 교환에 있어서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계기]·····444
[d. 자본을 위한 생산적 노동의 특수한 사용 가치]·····447
[e. 봉사를 제공하는 노동으로서의 비생산적 노동.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의 봉사의 구매.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봉사의 교환으로 보는 비속한 견해] ····· 449
[f.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공업자와 농민의 노동]·····455
[g. 물질적 부에 대상화되는 노동으로서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보충 규정] ····· 458

[h. 비물질적 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의 현상] ····· 458
[i. 전체 물질적 생산 과정의 견지에서 본
생산적 노동의 문제] ····· 459
[j. 물질적 생산 부문으로서의 운수 공업. 운수 공업에서의
생산적 노동] ····· 460
[13. 『자본론』 제1부 및 제3부의 계획 초안] ····· 463
[a. 『자본론』 제1부, 또는 제1편의 계획] ····· 463
[b. 『자본론』 제3부, 또는 제3편의 계획] ····· 463
[c. 『자본론』 제3부, 제2장 계획] ····· 464

주와 색인

주 ····· 469
문헌 색인 ····· 493
인명 색인 ····· 503

서 문

『잉여가치 학설사』는 맑스가 1862년 1월부터 1863년 7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것이다. 이 저서는 맑스가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리고 1859년에 출판한 『정치경제학 비판』 제1분책의 직접적 계속으로서 집필한 1861~1863년의 방대한 원고의 일부분이다. 1861~1863년의 원고는 전체 분량이 인쇄 전지로 약 200매에 달하는 23개의 노트(1부터 1,472까지의 페이지 연번호가 달려 있다)로 되어 있으며 『자본론』 전 4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으로 작성된 초고—그것이 아직 초고이며 미완성물에 불과하지만—이다. 『잉여가치 학설사』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인쇄 전지로 약 110매) 가장 완성된 부분이며 『자본론』의 마지막 제4권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초고이다. 이 제4권은 이론적인 세 권과 달라서 맑스가 자기 저작의 역사적, 역사적-비판적 또는 역사적-문헌적 부분이라고 부른 것이다.

맑스는 1858~1862년에 그가 수립한 자기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최초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잉여 가치 학설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제1분책에 대한 서문, 1858~1862년 간의 서한들, 1861~1863년의 원고에서 자기 저작의 구조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시할 수 있다.

1858~1862년에 맑스에 의하여 수립된 『정치경제학 비판』 계획

Ⅰ. 자본

[서문 : 상품과 화폐]

a.) 자본일반 : 1. 자본의 생산과정
- 1.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 2. 절대적 잉여가치
- 3. 상대적 잉여가치
- 4. 양자의 결합

2. 자본의 유통과정
3. 양자의 통일, 또는 자본의 이윤
5. 잉여 가치 학설사

b.) 자본들의 경쟁

c.) 신용

d.) 주식 자본

Ⅱ. 토지소유

Ⅲ. 임금 노동

Ⅳ. 국가

Ⅴ. 대외 무역

Ⅵ. 세계 시장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맑스는 처음에는 『잉여 가치 학설사』를 자본의 생산 과정 문제에 바친 "자본 일반"에 관한 자기의 이론적 연구 편에 대한 역사적 보유(補遺)로서 쓰려고 의도하였다. 이 역사적 보유는,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에서 상품에 관한 장이 「상품 분석의 역사」라는 역사적 보유로써 끝을 맺었고 화폐에 관한 장이 「유통수단 및 화폐의 학설사」라는 역사적 보유로써 끝을 맺었듯이 자본의 생산 과정에 관한 편의 끝을 맺기로 된 것이었다.

맑스의 처음의 의도는 이러하였다. 그러나 이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잉여 가치 학설에 관한 역사적 보유는 이 의도의 범위를 훨씬 넘었다. 맑스가 연구 비판한 학설들의 자료자체가 연구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잉여 가치에 관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맑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그들의 이윤에 관한 표상의 분석과 엉키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윤에 관한 표상은 지대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결부되어 있었던만큼 또한 지대 이론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등등. 다른 한편 그릇된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맑스는 이 이론들에 맑스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 경제 이론 중 해당 부분의 긍정적 연구 결과를 대치시켰는데, 맑스의 이 경제 이론은 전체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적 전환으로 된다.

『잉여 가치 학설사』의 구성 부분들과 구조의 모든 특색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맑스가 『학설사』 집필에 착수할 무렵에 『자본론』의 3개 이론적 부분들 중 다만 제1부 「

자본의 생산 과정」(이 문제는 1861~1863년의 원고 중에서 첫 다섯 개 노트에서 연구되고 있다)만이 다소간 문장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제2부와 제3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개별적인 편들은 다만 1857~1858년 원고에서 예비적으로 대강 써 놓은 것들이었다. 그리하여 맑스는 자기 저작의 역사적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 간단히 이론적 부분의 이러저러한 페이지를 인용하는 데 그칠 수는 없었고 거기에서 종전의 전체 정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이론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잉여 가치 학설사』라는 역사적 보유를 거대한 규모로 확대시켰다. 1861~1863년의 방대한 원고에서 역사적, 또는 역사적-비판적 부분은 제 Ⅳ권부터 제 ⅩⅤ권까지를 포함하는 노트들과 제 ⅩⅤⅢ권의 노트 그리고 제 ⅩⅩ~제ⅩⅩⅢ권의 일련의 개별적인 역사적 개관을 합한 것이다.

『잉여 가치 학설사』의 기본 본문은 1862년 1월부터 1863년 1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노트 제Ⅵ~제ⅩⅤ권과 제 ⅩⅤⅢ권에 담겨 있다. 이 본문에는 또한 맑스가 작성하여 노트 제Ⅵ~제ⅩⅤ권의 표지에 기입한 목차도 들어 있다. 이 목차는 맑스의 저작의 전체 구조와 그 구성 부분들, 그리고 그 계획을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판에서는 이 목차는 제1부의 서두(3~5페이지)에 가져 왔다. 원고의 마지막 노트들에 들어 있으며 1863년 봄과 여름에 집필한 역사적-비판적 개관과 주들은 기본 본문에 대한 보충이다.

『잉여 가치 학설사』 집필 과정에서 맑스가 연구하는 문제들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결국 맑스는 전체 역사적-비판적 자료를 분리하여 따로 『자본론』 제4권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본론』을 집필하는 과정에 맑스가 처음에는 "자본 일반"이라는 부분으로 예견하였던 것을 세 부분으로(1. 자본의 생산 과정, 2. 자본의 유통과정, 3. 양자의 통일)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히 되었다. 세 부분으로의 이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오한 것이어서 처음 계획에 의하면 맑스가 "자본 일반"이라는 부분에 소속시킨 문제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목들(예컨대 자본가들의 경쟁, 신용, 지대)도 또한 그 구분에 점차 포함되게 되었다. 자본주의 정치 경제학의 모든 이론적 문제들을 점차 끌어 들인 『자본론』의 세 이론적 부분의 형성 과정과 병행하여 역사적-비판적 연구는 별개의 책,

즉 『자본론』 제4권으로 하여야 하겠다는 맑스의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하게 되었다.

1861~1863년의 원고 집필을 끝낸 지 약 4개월 후에 맑스는(1863년 8월 15일 자 편지에서) 자기의 이 원고에 관하여 엥겔스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냈다. "나는 지금 이 방대한 저작을 검토하면서 내가 모든 계획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과 역사적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역사적 부분"이라 할 때에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때에 벌써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를 따로 자기 저작의 별개 부분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863년 1월에는 아직 맑스는 이 역사적-비판적 자료를 "자본일반"에 관한 자기 연구의 이론적 편들 다음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작성한 『자본론』 제1부 및 제3부 계획들에서 볼 수 있다(이 책 pp.463~465를 보라).

17세기 중엽 이래의 정치 경제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 맑스의 의도에 관하여서는, 1863년 5월에 집필한 원고 노트 제 XX Ⅱ권에 들어 있고 「역사 영역에서 : 페티」라는 특징적인 제목이 붙은 페티에 관한 상세한 역사적-비판적 개요가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개요는 그 이전에 된 본문과도, 그 이후에 나온 본문과도 아무런 내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맑스가 그것을 자기 저작의 역사적-비판적 부분으로 삼으려고 예정한 것이 명백하다. 페티에 관한 개요에서는 가치, 임금, 지대, 토지 가격, 이자 등등에 대한 그의 견해가 분석되고 있다. 페티의 경제적 견해를 이와 같이 광범히 포괄하고 있는 것은, 1863년 5월에 벌써 맑스가 4년 후(1867년 4월 30일)에 자기의 『자본론』의 구조를 알리면서 지그프리드 마이에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확하게 쓴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권은 '자본의 생산과정'을 포괄합니다… 제2권에서는 이론의 결속과 결론을 주며 제3권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의 정치 경제학의 역사를 줄 것입니다…"(당시 맑스는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을 한 권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본론』 제4부 즉 '역사적-문헌적' 부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언급을 우리는 1865년 7월 31일 자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에서 보게 된다. 맑스는 자기의 『자본론』 집필과정에 관하여 엥겔스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이론적 부분(처음의 세 책)을 끝내려면 아직 세 개 장

을 더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4부 즉 역사적-문헌적 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서는 비교적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처음의 세 부들에서 해결되었고 따라서 이 마지막 부는 오히려 역사적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1863년 8월 15일 자 편지에서 맑스는 "역사적 부분"을 이미 집필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자본론』 제4부를 지금부터 써야 한다고 왜 말하였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 1863년에 말한 것과 1865년에 말한 것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써 설명된다. 즉 1863년과 1865년과의 중간, 1864~1865년 간에 맑스는 자기 저작의 세 이론적 부분을 모두 다시 연구하고 집필하였는데 제4부 즉 역사적-문헌적 부분은 1862~1863년에 집필된 시초 형태 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본론』 첫 세 부의 새로운 편집에 상응하게 재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877년 11월 3일 자 지그문트 쇼트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맑스는 그 후에도 『자본론』의 역사적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집필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맑스는 자기의 『자본론』 집필 사업에 관하여 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사실상 나는 나 자신으로서는 『자본론』을(세번째의 역사적 부분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그것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과는 전혀 반대 순서로 시작하였읍니다. 그런데 다만 말하여 둘 것은 마지막으로 착수한 제1권은 곧 인쇄에 들어가게 준비되었는데, 다른 두 권은 모든 연구가 처음에는 다 그렇듯이 조잡한 형태로 남아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부분을 세 번째 부분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맑스가 『자본론』 제2부와 제3부를 한권으로 묶어 제2권으로 내고 제4부 『학설사』는 제3권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맑스의 이 언명은 『잉여 가치 학설사』(노트 ⅩⅩ~ⅩⅩⅢ권 중의 역사적 개요와 주들로써의 보충을 포함한)를 『자본론』 제4부 또는 제4권의 최초의 유일한 초고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잉여 가치 학설사』를 『자본론』 제4권이라고 부른 것은 엥겔스와 레닌이었다.

이상의 모든 것에 근거하여 본 판에서는 1861~1863년의 원고에서 맑스가 단 『잉여 가치 학설사』라는 표제에 『자본론』 제4권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 첨부한다.

*　　*　　*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에 관하여 엥겔스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884년 2월 16일 자와 3월 24일 자 카우츠키에 보낸 그의 편지들에서였다. 그 중 둘째 편지에서 엥겔스는 『자본론』 제2부와 제3부 그리고 전체 저작의 종결 부분으로서 『잉여 가치 학설사』를 발행하는 순서에 대하여 『자본론』출판업자인 마이스네르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

엥겔스는 『자본론』의 이 종결 부분에 관하여 1884년 8월에 베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게 된다 : "…『학설사』도 우리 사이에서이니 말이지 요점은 이미 집필되었소. 『정치경제학 비판』 원고 중에는… 내가 자네에게 여기에서 이미 지적하였다고 생각하지만, 4절지로 약 500페이지 분의 『잉여 가치 학설사』가 들어 있네. 그 중에는 물론, 후에 달리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것이 대단히 많지만 그래도 역시 충분히 많은 분량이 남을 것이요."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와 그것을 엥겔스가 어떻게 출판하려고 생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본론』 2권에 대한 그의 서문(이 서문은 1885년 5월 5일 자로 되어 있다)에서 가장 상세히 설명되었다. 『잉여 가치 학설사』는 1861~1863년에 집필된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는 방대한 원고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 엥겔스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이 편은 정치 경제학의 핵심인 잉여 가치 학설의 상세한 비판적인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나중에 제2부 및 제3부를 위한 원고에서 특별히 그리고 논리적 연관 하에서 연구된 점들을 선행자들에 대한 논쟁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 이 원고의 비판적 부분을 제2부 및 제3부에서 이미 남김 없이 해설된 허다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자본론 제4부로서 발간하기 위하여 보류한다. 이 원고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지만 제2부의 본 판에서는 거의 이용될 수 없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자기 편지들에서 엥겔스는 『자본론』 제3권을 출판한 다음에는 제4권인 『잉여 가치 학설사』의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자기의 의향에 관하여 누차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벌써 『잉여 가치 학설사』원고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인 보유를 삭제하는 데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잉여 가치 학설사』원고에 관한 엥겔스의 마지막 언급은 1895년 4월 10일 자 스테판 바우어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보게 된다.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엥겔스는 1894년에도 아직 맑스의 이 저작은 자기가 출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엥겔스는 『자본론』의 이 종결 권을 인쇄에 회부하도록 준비할 수 없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지 4개월도 못되어 서거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엥겔스의 언명들에서 그가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에 아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을 『자본론』제4권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그러나 그 언명들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1884~1885년에는 엥겔스는 이 원고의 본문 중에서 "제2부와 제3부에서 이미 남김 없이 해명된 허다한 부분들"을 제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 엥겔스의 상술한 예정 또는 의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 중에서 일련의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맑스의 위대한 전우이며 협조자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자본론』의 공저자인 엥겔스 혼자만일 것이다. 원고에서 이 귀절들을 제외한 후에 남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편들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다시 손을 대고 특별히 쓴 삽입들로써 서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맑스의 본문에 그렇게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엥겔스만이었다.

『잉여 가치 학설사』 본문에 상술한 "허다한 부분들"을 보존하는 것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 부분들을 제외하려는 엥겔스는 의향은 다만 그가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그에게서 생긴 그의 애초의 의향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론』 제3권에 대한 엥겔스의 서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맑스의 원고를 인쇄에 회부하기 위한 직접적 준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엥겔스는 때때로 자기의 애초의 의도와 예정을 재검토하였다. 예컨대 엥겔스는 『자본론』 제3권 제5편은 맑스의 원고에서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자기 자신이 그것에 다시 손을 대려고 하였다. 엥겔스는 자기의 서문에서 그가 적어도 세 번이나 그 편에 근본적으로 다시 손을 대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그 의도를 단념하고 "현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데 그치고 다만 아주 필요한 보충만을 가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엥겔스가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의 인쇄 회부 준비에 직접 착수하였다면 그는 원고에 포함된 이론적 보유들을 그대로 보존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들 가운데에는 거기에 예컨대 『자본론』 제3권, 특히 지대에 관한 편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충하는 맑스의 아주 중요한 이론적 연구를 담은 보유들이 있는만큼 더욱 그렇게 추측할 만하다.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 중에 있는 이론적 연구를 V. I.레닌은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저작들에서 『잉여 가치 학설사』에 여러 번 언급하였고 이에 있어서 맑스의 이 저작의 역사적-비판적 내용도, 순수 이론적 내용도 한결같이 높이 내세웠다.

V.I. 레닌은 특히 『잉여 가치 학설사』중에서 맑스가 지대의 본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는 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레닌, 『농업문제와 "맑스의 비판자들"』, 영역본, 모스크바, 1954, pp.29, 158 : 『제1차 러시아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 영역본, 모스크바, 1954, pp.101, 140, 143을 보라). V. I. 레닌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의미에 있어서의 토지 국유화의 혁명적 의의도 특히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는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의 맑스의 해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 영역본, 모스크바, 1952, p.152 : 『제1차 러시아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 영역본, 모스크바, 1954, pp.145, 175~76 ; 『전집』, 러시아어 제4판, 제15권, p.148, 제16권, p.104 등을 보라). V. I. 레닌은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절대 지대에 관한 맑스의 기본적 명제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 명제들은 『잉여 가치 학설사』가 출판되기 수년 전에 레닌의 저작 『농업 문제와 "맑스의 비판자들"』에서 가해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영역본, 모스크바, 1954, p. 29를 보라).

* * *

『잉여 가치 학설사』는 1905~1910년에 카우츠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카우츠키가 편집한 이 판에 의하여 독일어 기타 언어들로 여러 번 재판되었고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여러 번 재판되었다.

카우츠키 판은 허다한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가 마치 정연한 계획이 없고 어떤 "혼돈물"이나 되는 듯이 아주 그릇된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카우츠키는 제멋대로 그 원고에 "가필"하였고 그러면서 혁명적 맑스주의의 극히 중요한 명제들을 수정하였다.

우선 카우츠키는 맑스 자신이 작성한 『잉여 가치 학설사』의 목차에서 그가 지적하였고 그의 저작에서 실지로 실시된 그러한 자료 배열을 난폭하게 위반하였다. 이 목차는 출판 준비 과정에서 카우츠키에 의하여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책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맑스의 원고에서는 자료가 일정한 논리적 연계와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었다. 맑스는 정치 경제학의 기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시도를 분석하면서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에까지도 고유한 계급적 제한성과,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선 중심 문제인 잉여가치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내적으로 철저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해결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발전 과정은 맑스의 원고에서 극히 모순적인 과정으로서 해명되고 있다. 예컨대 맑스는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이론을 고찰하면서 그들이 어떤 점들에서는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과학을 전진시켰으나 다른 점들에서는 그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였고 물러서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맑스의 이러한 심오한 변증법적 견해를 카우츠키는 왜곡하였으며 원고의 전체 자료를 외면적이고 순전히 연대순적 순서에 종속시키고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발전과정을 거침 없는 진화 과정으로서 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카우츠키는 자기의 연대순적 도식에 따라서 자기 판의 맨처음에 맑스의 원고에서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장에 대한 서론으로 되어 있는 제임즈 스튜어트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로 노트 제 XX권과 XXⅡ권에서 취한 네 개의 소단편들(페티, 대비난트, 노스와 로크, 흄과 매시에 관한)을 놓고 있다. 카우츠키는 이 단편들(기타 몇 개 단편들도)을 기계적으로 제1권 제1장에 넣었으며 그리하여 노트 제 Ⅵ권~제 XⅤⅢ권에 있는 연결된 서술(제임즈 스튜어트로부터 리처드 존즈까지의)을 노트 제 XX~XXⅢ권에 들어 있는 보충적 초고와 바꾸어 놓았다.

맑스의 원고에서는 총 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에 관한 케네의 이론에 대한 분석이 스미스의 이론에 대한 분석 다음에 놓여 있는데, 카우츠키 판에서는 원고의 이 부분이 스미스에 관한 장보다 앞에 놓여 있다. 카우츠키는 이 부분을 개작한 형태로 싣고 있는데, 그 경우에 그는 제멋대로

이 편의 10분의 9를 기본 본문에서 떼어 내서 소활자로 인쇄하였고 기본 본문에 무리하게 집어 넣은 부록에 옮겨 놓았다.

카우츠키는 맑스가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론적 보유들도 소활자로 인쇄하여 책의 본문에 삽입한 개별적 부록으로 만들었다. 카우츠키는 그것들을 원고의 각처에서 떼어 냄으로써 맑스의 역사적-비판적 및 이론적 연구들 간의 내적 연계를 난폭하게 파괴하였다.

맑스의 원고의 자료 배열 순서는 카우츠키 판 제2권에서도 노골적으로 위반되고 있다. 맑스의 원고에서는 이 부분이 로드베르투스의 지대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카우츠키 판에서는 리카르도가 취급되고 있는 「잉여 가치와 이윤」이라는 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 장의 다음에야 비로소 로드베르투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맑스의 원고에서는 잉여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윤률의 변동 과정에 관한 리카르도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리카르도의 지대론에 대한 비판 다음에 놓여 있는데, 카우츠키 판에서는 그것은 권두에 나오고 있는 「잉여 가치와 이윤」이라는 장으로 그 위치가 옮겨지고 있다. 카우츠키는 원고에 있는 자료 배열을 위반함으로써 이번에도 맑스 저작에서의 원칙적으로 중요한 계기들, 특히 리카르도의 지대론의 오류가 리카르도의 이윤론에 심각한 흔적을 남겨 놓았다는 맑스의 사상을 말살하고 있다.

카우츠키 판에서는 원고의 각 부분들을 이렇게 제멋대로 옮겨 놓은 결과로 내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서로 분리되게 되었다. 예컨대 맑스의 원고에서는 「리카르도의 이윤론」이라는 장에는 평균 이윤 형성 과정에 관한 리카르도의 견해와 평균 이윤의 저하 원인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다. 그런데 카우츠키 판에서는 맑스의 원고의 동일한 장의 이 두 부분이 본문으로 350페이지나 서로 떨어져 있다.

원고의 모든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카우츠키는 계급 투쟁문제를 모호하게 하고 경제 이론들과 그것들이 발전한 사회-정치적 환경과의 심오한 연계를 말살하였다. 예컨대 카우츠키 판 제2권에서는 그가 「앤더슨, 맬더스, 로세르」라고 제목을 단 편이 있다. 원고의 해당 부분에서 맑스는 지대에 대한 앤더슨의 견해가 맬더스에 의하여 지배 계급의 가장 반동적인 요소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었는데, 리카르도의 결론들은 토지 소유 귀족 층을 반대하는 데 돌려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뒤이어 맑스는 그 문제의 전체 역사를 난폭하게 왜곡한 속류 경제학자 로세르를 고찰하고 있다. 정치 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심오한 계급적 분석의 모범으로 되는 원고의 이 편이 가지고 있는 명석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내용을 카우츠키는 단순한 이름의 열거에 불과한, 극히 생기가 없는 한 개의 일반적인 제목 하에 정리되지 않는 형태로 주었다.

이러한 종류의 편집상의 제목이 카우츠키 판에서는 아주 특징적이다. 카우츠키가 자기 판의 장 절에 단 거의 모든 제목은 객관주의적인 냉담한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아담 스미스와 생산적 노동의 개념」, 「가치에 관한 리카르도의 개념」, 「잉여 가치에 관한 리카르도의 표상」, 「이윤률」, 「가치와 잉여 가치」, 「가변 자본과 축적」이라는 제목 등등이 그러하다. 맑스가 적발한, 스미스에 있어서의 가치에 관한 두 개의 상이한 규정, 가치와 소득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의 양면성, 리카르도에게 평균 이윤률의 법칙과 가치 법칙을 연결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 등등을 카우츠키는 제목에서 어디서나 뚜렷이 내놓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제목에서 또한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견해 중에 있는 속류적인 것도 호도하였으며 램지, 세르블리에, 리처드 존즈에 관한 장들에서는 마치도 이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이미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듯한 전혀 그릇된 관념을 독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제목들을 달고 있다.

카우츠키가 맑스의 본문을 가장 난폭하고 공공연한 형태로 왜곡 수정하였다는 것은 그가 많은 것을 삭제한 데서 나타났다. 카우츠키는 자기 판에서 개개의 단어와 문구 뿐만 아니라 온 단편들도 빼놓았는데, 그 단편들 중 약간은 원고에서 맑스가 잔 글씨로 쓴 3~4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이다. 카우츠키가 빼놓은 원고 부분 중에는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로서의 브레이」라는 제목 하에 맑스가 작성한 목차에 나타나고 있는 온 한 장도 있다. 카우츠키는 다른 많은 부분들과 함께 또 원고 중에서 맑스가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의 경제적 전제 조건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빼놓았다. 노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부인한 수정주의자 카우츠키는 허위 날조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이러한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맑스의 논거를 독자에게 감추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맑스의 원고를 "편집"하면서 맑스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전개한 섬멸적 비판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부르조아지의 변호론자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무자비한 맑스의 분노에 찬 열정적이며 신랄한 말을 "점잖고" 매끈한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카우츠키는 맑스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을 특징짓기 위하여 쓴 "천치", "주구", "협잡군" 등과 같은 형용어를 어디서나 빼버렸다.

마지막으로 카우츠키 판 전반에 걸쳐서 특징적인 것은 원고 본문의 해명에서 많은, 때로는 극히 엄중한 오류가 있는 것이며, 원고 중에 나타나는 영어와 프랑스어 표현의 번역이 부정확하고 일련의 경우에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맑스의 사유과정과는 모순되게 편집에서 제멋대로 삽입한 것이며, 맑스의 어떤 용어들을 전혀 허용될 수 없게 다른 용어들로써 바꾸어 놓고 있는 것 등등이다.

맑스가 작성한 목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 원고의 자료를 제멋대로 부당하게 배열한 것,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개념의 계급적 본질을 회피하며 맑스의 경제학설과 전체 부르조아 정치경제학과의 근본적 대립을 모호하게 하는 객관주의적인 제목을 단 것, 카우츠키가 혁명적 맑스주의에서 점점 더 물러 서면서 그 중요한 명제들을 담고 있는 일련의 단편들을 제거한 것—이 모든 것은 문제가 비단, 과학적 출판물의 기본적 요구를 난폭하게 위반하였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를 직접 허위 날조하였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 *

본 판에는 맑스에 의하여 작성된 목차가 들어 있고 제임즈 스튜어트로부터 리처드 존즈까지의 『학설사』에 대하여 연결된 서술을 주고 있는 『잉여 가치 학설사』의 기본 본문과, 노트 제Ⅴ, ⅩⅤ, ⅩⅩ, ⅩⅩⅠ, ⅩⅩⅡ에 있는 그 기본 본문에 추가한 보유들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 추가적 보유들은 본 판에서는 기본 본문에서 주고 있는 서술의 순차성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부록으로 넣었다.

이 자료 전체의 분량(인쇄 전지로 약 110매)으로 보아 책을 3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부록들은 매개 부가 그 내용에 직접 관계되고 있는 추가적 보유와 비고들로 끝나도록 이 3부들 사이에 배치되었다.

기본 본문은 맑스가 작성한 목차에 엄격히 일치하게 배열하였다. 몇 개 노트의 본문에서 옮겨 놓은 것은 맑스 자신이 지적한 극소수의 것들

만이다. 예컨대 맑스는 노트 제 Ⅶ 권에서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의 견해를 비속화한 제르멩 가르니에에 언급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하여 본론에서 대단히 벗어나서 논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되고 있다. "가르니에의 견해들을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 위에서 인용한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하여 에피소드적으로[즉 보유의 형태로] 약간 서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직 A. 스미스를 고찰하고 있는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리카르도의 잉여가치론에 관하여 언급하게 될 부분에 속한다는 것이다". 맑스의 이 지적과 맑스가 후에 작성한 노트 제 ⅩⅣ권의 목차에 따라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보유는 본 판에서는 『학설사』 제3부, 존 스튜어트 밀을 위하여 맑스가 특별한 편을 할당한 리카르도 학파의 붕괴에 관한 장으로 옮겨 놓았다. 옮겨 놓은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노트 제 Ⅹ권에는 영국 사회주의자 브레이에 관한 조그마한 장이 있다(원고 pp.441~444). 그런데 후에 작성된(노트 제 ⅩⅣ권의 표지에 있는) 『잉여 가치 학설사』 마지막 장들의 목차 안에서는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로서의 브레이」라는 편을 맑스는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들」이라는 장에 집어 넣고 있다. 맑스의 이 지적에 따라 브레이에 관한 441~444페이지는 본판에서는 역시 제3부로 옮겨 놓았다.

본문의 장별 편성은 맑스 작성한 원고 목차와 원고 자체의 개별적 부분들에 있는 맑스의 지적에 의거하였다. 원고의 개별적 부분들의 제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용되었다. 1) 맑스의 목차에 있는 제목들, 2) 맑스가 작성한, 『자본론』 제1부 및 제3부의 계획 초안 중에서 『학설사』 원고의 이러저러한 편들에 관계되는 제목들, 3) 『학설사』 본문자체에 있는 소수의 제목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편들과 장, 절들에 달아야 할 모든 제목들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할 따름이다. 제목 중 나머지 많은 부분은 맑스 자신의 술어와 정식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원고의 해당 부분들의 본문에 기초하여 편집부가 달았다. 편집부가 단 제목은—일반적으로 편집부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맑스가 단 제목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에 넣었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의 원고에서 간혹 나오는 중괄호는 본 판에서는 〈 〉로 바꾸었다.

맑스의 원고 노트 번호는 어디서나‖ ‖ 안에 넣고 로마숫자로 표시하였으며 원고의 페이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본문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 번호는 원고 매 페이지의 서두에 한 번만 달았다. 본문이 연속된 대로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하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페이지 번호(다른 노트로 옮겨 놓는 경우에는 또 노트의 번호도)는 단편의 서두와 그의 말미에 달았다.

원고에 있는 명백한 오기들은 원고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보통 이에 대하여 주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시정하였다. 노트 제Ⅵ권과 제Ⅹ권 부문에 있던 약간의 명백한 오기들은 원고 자체에서 엥겔스의 손에 의하여 시정되어 있었다.

원고 본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함에 있어서는 레닌이 사용한 술어 대로 하였다. 레닌이 자기 저작들에서 자기 자신이 번역하여 인용한 단편들은 레닌의 번역대로 넣었다(그 경우에 레닌이 인용한 카우츠키 판의 본문이 원고 본문과 일치하는 한에서). 1861~1863년의 원고에서 맑스가 사용한 전문 술어들은 주에서 설명하였다. 맑스가 인용 언급하고 있는 서적들과 소책자들의 표제는 본판 본문에서는 원어로 넣고, 『학설사』 각각의 부의 권말에 단 문헌 색인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괄호에 넣었다.〈본국역 판에서는, 본문에는 번역문만을 넣고, 문헌 색인에서는 번역문 다음에 원어를 넣었다—역자〉

맑스가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기타 경제학자들의 저서들에서 인용한 것들은 그 번역을 다시 검토하고 정확히 하여 넣었다. 해당 저서들의 가장 보급된 러시아 판의 페이지는 중괄호에 넣어 표시하였다.(본판에서 맑스가 인용한 부분의 번역이 이 저서들의 현존 러시아어 번역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까지도)〈본국역 판에서는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역자〉 맑스가 이러저러한 인용문을 압축하거나 자기 말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 인용문의 번역은 본판에서는 맑스의 정식화에 따라 넣었다.

*　　*　　*

『잉여 가치 학설사』는 인쇄에 회부할만큼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은 맑스의 의도에 의하면 『자본론』의 마지막 제4부의 주제를 이루는 『학설사』의 체계 정연한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는 여기에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이 발생한 순간으로부터, 맑스가 속

류 정치 경제학으로 특징 짓고 있듯이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그것의 전체 진화 과정을 해명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판에서는 『잉여 가치 학설사』와 그에 속하는 추가적 보유들의 전체 자료가 세 개 부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부들의 한계는 원고의 내용 자체에 따른 것이다.

제1부는 기본 본문의 7개 장(노트 제Ⅵ~제Ⅹ권)과 13개 부록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 권은 주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제2장과 제6장)와 아담 스미스의 견해(제3장과 제4장)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중금주의와 중상주의에 합리적인 형식을 부여하려고 한 스튜어트의 가망 없는 시도를 특징 짓고 있는 제1장(서 제임즈 스튜어트)은 중농주의 이론의 분석에 대한 서론으로 되고 있다. 맑스는 중농주의자들과 스튜어트를 대비함으로써 정치 경제학 발전에 있어서의 중농주의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의의를 아주 강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과 의의는 그들이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유통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옮겨 놓은 데 있다.

중농주의자들의 경제학적 견해를 연구하면서 맑스는 그들의 체계에서의 모순과 잉여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가치가 때로는 자연의 순전한 선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업 노동의 특수한 생산성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폭로함으로써 중농학파의 그 후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주고 있다. 맑스는 중농학파 내부에서의 사상 투쟁을 폭로하고 중농학파의 아류들이 중농주의 이론을 비속화하고 있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맑스는 중농학파 내부에서의 사상 투쟁을 중농주의적 견해의 계급적 본질 규명과 밀접히 결부시켜서 분석하고 있다.

맑스는 아담 스미스의 학설에 있어서도(제3장)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범주들의 서술에 있는 모순들과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다. 맑스는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속에 있는 속류적 요소를 적발하고 있다. 스미스의 학설에서의 과학적인 요소와 속류적인 요소와의 이 대립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그 후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로 된다. 맑스가 보여 주고 있듯이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계급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더욱더 속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킨 스미스의 독단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맑스는 사회적 총 자본의 재생산에 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며 특히 불변 자본의 보상 문제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 보유(제1부에 들어 있는 이론적 보유 중에서 가장 방대한)는 자체의 일반 이론적 의의 외에 또, 맑스가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에 관한 자기 학설에 어떻게 도달하였는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고찰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이 장에서는 스미스의 견해를 둘러싸고 전개된 투쟁을 분석하고 있으며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의 해석에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이 비속화하는 정경을 해명하고 있다. 맑스는 이 문제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 뿐만 아니라 중농주의자들의 견해도 비속화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속류적 개념들 중 많은 것들은 자본주의의 공공연한 변호론으로 떨어진 현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에서도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다.

제6장(「케네의 경제표」)에서는 중농주의자들에게로 되돌아 온다. 맑스가 이렇게 자료를 배열한 것은 그 자체가 심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맑스가 전면적으로 드러낸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전체로서는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발전에서 현저한 전진으로 되지만, 스미스는 재생산 과정에 대한 자기의 분석에서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후퇴하고 있다. 맑스의 자료 배열은 부르조아 고전 정치 경제학 발전의 지그재그한 과정과 문제 설명에서 그 경제학이 거둔 전진과 후퇴를 보여 주고 있다.

네케르와 렝게에 관한 작은 장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들의 대립을 묘사하려고 한 두 개의 초기의 시도를 분석하고 있다.

제1부의 부록에는 노트 제Ⅴ, ⅩⅩ, ⅩⅩⅠ, ⅩⅩⅡ, ⅩⅩⅢ권과 노트 제 ⅩⅢ권의 표지에 있는 역사적-비판적인 개관과 논평들이 수록되고 있다. 부록 1~7에는 홉스, 페티, 로크, 노스, 버클리, 흄, 매시의 경제적 견해에 대한 서술이 들어 있다. 맑스는 이 견해들에서 노동 가치설의 단서와 자본과 이자에 관한 학설의 맹아를 찾아 내고 있다. 부록 8~10에서는 중농학파에 관한 보충적 자료를 주고 있다. 부록 11에는 모든 직업을 생산적인 것으로 보는 변호론적인 개념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데, 이 개념은 현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에서도 광범히 보급되고 있다. 부

록 12에서는 맑스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자기 자신의 유일하게 과학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는 노트 제 ⅩⅩⅠ권 중의 방대한 이론적 개요를 주고 있다. 이 이론적 개요는 마치도 맑스가 기본 본문의 방대한 제6장에서 준 생산적 노동 문제에 관한 역사적-비판적 분석의 총결인양 싶다. 마지막으로 부록 13에서는 『자본론』 제1부와 제3부의 계획 초안이 실려 있다. 이 초안은 『자본론』의 형성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본론』의 역사적-비판적 부분에 속하는 약간의 주제들에 대한 정식화를 포함하고 있다.

『잉여 가치 학설사』 제2부에서는(제8~제18장, 노트 제Ⅹ~제ⅩⅢ권) 리카르도 학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기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비용 가격[생산비-역자]이론과 지대론에 대한 분석을 주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아담 스미스에게서 발단하고 있는, 그 체계 중의 일련의 그릇된 전제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스미스의 해당되는 견해를 특별히 고찰하고 있다.

제2부는 맑스의 원고 중에 있는 자료 배열에 따라 로드베르투스의 지대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방대한 "보유"(제8장)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의 지대론의 근본 결함의 하나는 거기에 절대 지대라는 개념이 완전히 결여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리카르도 이론의 분석에 앞서 이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한 로드베르투스의 시도에 대해 전개된 비판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절대 지대에 관한 자기 자신의 이론의 논거를 내놓고 있다.

둘째 "보유"(제9장)는 차액 지대에 관한 제 견해의 발전에 대한 요약한 역사적 개관이다. 맑스는 여기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각종 견해들의 계급적 근원들을 폭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맑스는 이 장에서 지대론의 기본 전제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주고 있으며 가치론에서의 오류가 어떻게 지대론에서의 그릇된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증명하면서 지대론과 가치론과의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상의 두 "보유"는 제10~제18장에서 주고 있는 리카르도의 이론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위한 지반을 준비하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의 거대한 이론적 공적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의 방법상의 근본 결함, 리카르도가 평균 이윤률의 법칙과 가치 법칙과를 결부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의 이윤 이론에 속류적 요소가 있다는 것,

시장 가치의 형성 과정과 평균 이윤률의 균등화 과정과의 혼동, 잉여 가치의 법칙과 이윤 법칙과의 혼동 등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결함은 맑스가 중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시 리카르도의 지대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의 지대론을 비판하면서 절대 지대에 관한 학설 뿐만 아니라 차액 지대에 관한 학설까지도 포괄하는 자기 자신의 지대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15, 16, 및 17장은 잉여 가치, 이윤 및 축적에 관한 리카르도의 제 견해의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맑스는 제17장에서 공황 문제에 관한 리카르도의 그릇된 견해에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공황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인 이해를 대치시키고 있다. 제18장은 총 소득과 순 소득 문제에 관한 리카르도의 견해에 대한 비판과 기계 도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잉여 가치 학설사』 제2부에서 맑스가 하고 있는 리카르도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리카르도의 체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리카르도의 과학적 공적을 보여줌과 함께 그의 이론적 오류들과 그의 견해의 계급적 제한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2부에 대한 부록은 맑스가 노트 제ⅩⅠ권과 제ⅩⅢ권의 표지들에 기입한 맑스의 짤막한 지적들이다. 그것들은 자본과 지대에 관한 학설사의 개별적 문제에 관한 맑스의 간단한 주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잉여 가치 학설사』 제3부(제19~제24장, 노트 제ⅩⅢ~제ⅩⅤ권 및 제ⅩⅤⅢ권)는 주로 리카르도 학파의 붕괴와, 맑스가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치 경제학자들을 프롤레타리아트적 입장에서 반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영국사회주의자들의 경제적 견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맑스는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비속화를 다만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하여서만 폭로하였는데, 제3부에서는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따라 비속화 과정이 어떻게 정치 경제학의 기초 자체, 그의 출발적 명제, 그의 기본 범주들을 포괄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있다.

맬더스에 관한 방대한 장(제19장)에서 맑스는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맬더스가 찬양한 비생산적 계급들의 낭비에 대한 맬더스적 옹호의 황당성과 심각한 반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 맑스는 자기 저

작의 다른 부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맬더스를 토지 귀족과 부르조아지 중의 가장 반동적 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을 위조한, "지배 계급의 뻔뻔스러운 아첨쟁이"로서 낙인 찍고 있다.

맑스는 또한 리카르도의 체계 중에 있는 모든 귀중한 요소들을 사실상 점점 더 거부한 리카르도의 후계자들에게서도 정치 경제학의 기본 문제들에서의 퇴보를 적발하고 있다.(제20장). 맑스는 토렌즈가 노동 가치설을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제임즈 밀이 임금 문제에서 수요 공급에 관한 비속한 개념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맑스는 수요공급의 개념으로의 복귀를 웨이크필드와 스털링에게서도 폭로하고 있다.

리카르도 학파의 이러한 붕괴 과정은 맥컬로크에게서 완성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파렴치한 변호가 이론 영역에서의 "비양심적 절충주의"와 아주 밀접히 결부되어 있었다. 맑스는 맥컬로크가 노동이라는 개념을 자연 과정들에 확대시킴으로써 이 개념을 왜곡한 것은 사실상 노동 가치설의 완전한 거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맑스는 19세기 20년대 영국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리카르도를 반대한 논쟁적 저작들에서도 심각한 반동적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의 이 반대자들이 정치 경제학의 제법칙의 객관적 성격을 부인한 것, 가치와 가격과를 혼동한 것, 가치 범주 자체를 거부한 것을 밝히고 있다.

제21장에서는 맑스는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치경제학자들을 프롤레타리아트적 입장에서 반대한 사람들"(래븐스톤, 호지스킨 기타)의 경제적 견해를 분석하고 있다. 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의 단호한 강조, 이윤, 지대 및 이자를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으로 본 견해, 자본의 생산성에 관한 변호론적 이론과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존 수단을 축적한다"는 개념을 반대한 논쟁을 그들의 공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와 함께 맑스는 리카르도파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 오류들 즉 대상화된, 과거의 노동에 대한 과소 평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생산 과정에 관한 부당한 견해, 자본의 물신 숭배성과 이 물신 숭배성을 불가피하게 낳는 현실적 제 관계의 내적 연관의 몰이해 등등을 폭로하고 있다. 맑스는 리카르도파 사회주의자들이 리카르도의 이론의 부르조아적 전

제를 극복하고 그 이론의 기초 자체를 재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제 22, 23 및 24 장은 램지, 세르불리에 및 리처드 존즈의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바쳐졌다. 맑스는 이 경제학자들에게서 불법 자본과 가변 자본을 구별하려는 시도와 이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의의에 대한 추측을 밝히고 있다. 맑스는 이 개념들에 대한 자기의 비판적 분석에서 이 경제학자들은 부르조아적 시야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자본과 이윤률에 관한 비속한 표상들과 결부되고 있었던, 정당한 견해의 맹아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존즈의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서 『잉여 가치 학설사』의 기본 본문이 끝나고 있다. 노트 제 XIV권 표지에 맑스가 기입한 목차 안에는 「리처드 존즈」라는 장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제5부의 끝"(이 책 p.39를 보라).

『잉여 가치 학설사』 제3부에는 「소득과 그것의 원천, 속류 정치 경제학」이라는 표제를 단 큰 부록이 있다. 맑스의 원고에서 노트 제 XV권의 후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편의 기본주제로 되어 있는 것은 소득과 그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맑스는 이와 관련하여 물신 숭배를 받게 된 소득 형태들과 소득 원천들의 피상적 외관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거하여 자체의 변호론적 "이론"을 세우고 있는 속류 정치 경제학의 계급적 근원과 인식론적 근원을 폭로하고 있다. 맑스는 고전 정치 경제학과 속류 정치경제학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맑스는 겸사 겸사해서 속류 사회주의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견해에 대하여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편은 맑스가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서 쓴 것이지만 그것은 『잉여 가치 학설사』 제3부에 들어가는 역사적-비판적 연구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3부에 대한 부록으로서 『잉여 가치 학설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후에 맑스는 『자본론』의 마지막 역사적-비판적 권은 속류 정치 경제학의 대표자들에 관한 특별한 그리고 상세한 장을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썼다(1868년 7월 11일자 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를 보라).

* * *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자기 분석의 기본적 결론들을 맑스는 『자본론』 제1권, 제2판 발문에서(1873년 1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일반화하여 정식화하였다 : "정치 경제학이 부르조아적인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계급 투쟁이 아직 은밀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직 간혹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영국에서의 부르조아 고전 정치 경제학에 관하여 맑스는 그것이 "계급 투쟁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 속한다"고 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간의 계급 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성격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부르조아지가 정권을 쟁취한 때부터 "계급 투쟁은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표현된 그리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사심 없는 연구는 고용 문사들의 비난 공격과 교체되며 공평 무사한 과학적 탐구는 간사하고 너절한 변호론에 의하여 대치된다."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이러한 전반적 타락을 배경으로 하여 맑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가들의 정치 경제학을 이제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와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모모의 개별적 경제학자들이 출현하였다. "타협 불가능한 것을 타협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다. 맑스는, 전적으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범위를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그것의 분해와 파산을 증명한 이러한 종류의 시도가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러시아의 위대한 학자이며 평론가"인 H. T. 체르니셰프스키의 탁월한 의의를 극력 강조하였다. 체르니셰프스키는 자기의 저작 『밀의 정치 경제학의 개론』에서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파산을 "훌륭하게 해명"하였다.

체르니셰프스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에 대한 비판을 1860~1861년에 즉 맑스가 『잉여 가치 학설사』를 집필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썼다.

체르니셰프스키의 모든 경제학적 저술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치 경제학을 창건할 필요성에 관한 사상인데 그는 이것을 자신이 "자본가들의 이론"이라고 특징 지은 이전의 정치 경제학에 대립시켜 "노동자들의 이론"이라고 아주 명확히 부르고 있다.

경제학에서의 근본적인 혁명적 전환으로 되는 새로운, 진정으로 과학적인 정치 경제학은 오직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수령이며 스승인 칼

맑스만이 창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맑스만이 원천적으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자본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전체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과학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천재적 저작의 역사적-비판적 부분 즉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수행되었다.

*　　*　　*

제국주의 시기에는 자본주의 제도의 일체 모순이 최고도로 긴장되고 계급 투쟁은 극도로 첨예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호론자들의 경제 학설들에서도 아주 첨예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으며 멸망의 운명에 처하고 있는 착취자적 사회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현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거짓 사회주의적 동료들은 독점전 자본주의 시기에 그들의 선행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맑스의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섬멸적인 비판을 받은 그러한 비속한 개념들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개념들에 끝내 매달리고 있다.

예컨대 현대 부르조아 문헌에서는 마치도 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듯한 낡아 빠진 명제가 유행하고 있다. 이 명제는 그 비속성과 비과학성을 맑스가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노동 계급의 생활 수준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현대 부르조아 변호론자들(예컨대 "반(反) 공황" 안(案)으로써 떠들썩하게 한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은 비생산적 소비의 무제한한 증가가 경제 공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익하다는, 맑스에 의하여 폭로된 맬더스의 극 반동적인 사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낭비적인 비생산적 소비에 대한 찬양은 현대 조건 하에서 특히 흉악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새로운 세계 대전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예산 중에서 더욱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생산적 소비 형태가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현대 부르조아 문헌 특히 미국의 문헌은 군사주문의 강화만이 그리고 결국은 전쟁 그것만이 과잉 생산 경제 공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력을 다하여 설교하고 있다.

또한 맑스가 『잉여 가치 학설사』와 기타 다른 저작들에서 분쇄한 맬더스의 인구론이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현대 맬더스주의자들(예컨대 미국의 포그트, 영국의 헉슬리)

은 오직 파멸적 전쟁만이 지구상의 인구 수와 현존 생존 수단 간의 적절한 "적응"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 식인종적인 "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사망률이 문명을 구원하는 요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사망률이 특히 높은 나라들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개념들을 조작함에 있어서 19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었으며, 다 낡아 빠졌고, 맑스주의에 의하여 폭로 분쇄된 지 오랜 과거의 속류 정치 경제학의 견해에 의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노동 가치설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비속한 효용 "이론", 수요 공급설, 생산비설 등등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지대는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자는 자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임금은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악명 높은 "3위 1체의 공식"에 의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반적 조화"를 설교하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의 필연적 결과인 경제 공황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고 있다.

맑스는 속류 정치 경제학의 이 모든 변호론적인 간계에 대하여 『잉여가치 학설사』에서 섬멸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의 이 위대한 저작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분쇄된 지 오랜 사이비 개념들을 소생시켜 그것들을 낡아 빠진 자본주의 제도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의 인간 증오 체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더러운 일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부르조아 반동의 현대 대표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칼 · 맑 스

잉여 가치 학설사

(『자본론』 제 4 권)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의 차례][1]

‖ Ⅵ-219b ‖ 노트 제Ⅵ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2]

a) 서 제임즈 스튜어트

b) 중농주의자들

c) A. 스미스 ‖ Ⅵ-219b ‖

‖ Ⅶ-272b ‖ [노트 제Ⅶ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c) A. 스미스(계속)

(이윤과 임금 이외에 불변 자본도 포함하고 있는 연간에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연이윤과 연임금이 구매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 Ⅶ-272b ‖

‖ Ⅷ-331b ‖[노트 제Ⅷ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c) A. 스미스(끝)[3] ‖ Ⅷ-331b ‖

‖ Ⅸ-376b ‖ [노트 제Ⅸ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c) A. 스미스. 끝

d) 네케르 ‖ Ⅹ-376b ‖

‖ Ⅹ-421c ‖[노트 제Ⅹ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보론. 케네의 경제표

e) 렝게

f) 브레이

g) 로드베르투스 씨. 보론. 새로운 지대론 ‖ Ⅹ-421c ‖

‖ ⅩⅠ-490a ‖[노트 제ⅩⅠ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h) 로드베르투스

보론. 소위 리카르도 법칙의 발견 역사에 관한 부언.

i) 리카르도

리카르도와 A.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비용 가격 이론(논박)

리카르도의 지대론.

설명이 붙은 차액 지대 도표들 ‖ XI-490a ‖ ‖ XII-580b ‖[노트 제XII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i) 리카르도

설명이 붙은 차액 지대 도표들

(생활 수단 및 원료의 가치, 따라서 또 기계의 가치의 변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주는 영향의 고찰)

리카르도의 지대론

A. 스미스의 지대론

리카르도의 잉여 가치론

리카르도의 이윤론 ‖ XII-580b ‖ ‖ XIII-670a ‖[노트 제XIII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기타

i) 리카르도

리카르도의 이윤율

리카르도의 축적론. 그것의 비판(자본의 기본 형태로부터의 공황의 전개)

리카르도에게서의 잡다한 것. 리카르도에 관한 부분의 끝(존 바튼)

j) 맬더스 ‖ XIII-670a ‖ ‖ XIV-771a ‖ 노트 제XIV권의 내용과 『잉여 가치 학설사』 그 다음 장들의 계획]

5) 잉여 가치 학설사

j) 맬더스

k) 리카르도 학파의 붕괴(토렌즈, 제임즈 밀, 프레보, 논쟁적 저서들, 맥컬로크, 웨이크필드, 스털링, J. St. 밀)

l)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들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로서의 브레이)[5]

m) 램지

n) 세르불리에

o) 리처드 존즈[6].(이 제5부의 끝)

삽입 : 소득과 그 원천[7] ‖ XIV-771a ‖ ‖ XV-862a ‖ [노트 제XV권의 내용]

5) 잉여 가치 학설사

1) 리카르도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트적 반대자들

2) 레본스톤. 끝[8]

3) 및 4) 호지스킨[9]

단순한 유통 현상으로서의 소위 축적[Aufhäufung](저장품 등등—유통 저장고)

(복리[複利] : 이에 기초한 이윤률 저하의 설명) 속류 정치 경제학[10](이자를 가져 오는 자본. 생산 운동과의 관계에서 본 현존하는 부)

(이자를 가져오는 자본과, 산업 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본 상업 자본. 보다 낡은 형태들. 파생적 형태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이자를 가져 오는 자본의 전개)

(고리대. 루터 기타)[11] ‖ XV-862a ‖

[일반적 주]

‖X I-220 | 모든 정치 경제학자들은 잉여 가치를 순수하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윤과 지대라는 특수한 형태에서 고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로부터 어떠한 이론적 착오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은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서 취하는 심히 전화된 형태를 분석하는 제3장에서[12] 보다 충분히 해명될 것이다.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사」의 초고 첫페이지

(1861~1863년 초고 노트 VI권 처음)

[제 1 장]
서 제임즈 스튜어트

["양도 이윤"과 부의 적극적인 증가와의 구별]

중농주의자 이전에는 잉여 가치—즉 이윤, 이윤 형태의 잉여가치—는 오로지 교환에서 생긴다고 하였고 가치이상으로의 상품 판매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서 제임즈 스튜어트는 대체로 이 고루한 견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히려 스튜어트 자신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재생시켰다고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과학적으로" 재생시켰다고 말한다. 그것은 개개의 자본가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는 잉여 가치가 마치도 새로운 부의 창조인 듯한 환상에 스튜어트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 이윤과 상대적 이윤을 구별하고 있다. "적극적 이윤은 누구에게도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 근로 또는 숙련의 증대의 결과이며 사회적 부의 증대 또는 성장을 가져온다… 상대적 이윤은 누구에게든 손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관계자들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전체 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혼합적 이윤은 이해하기 쉽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적극적인… 그러한 이윤이다. 두 종류는 불가분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있을 수 있다(『정치경제학 원리』, 제 I 권, 서 제임즈 스튜어트 저작집, 그의 아들 서 제임스 스튜어트 장군 편찬, 6권 중의 제1권, 런던, 1805년 pp.275~276).

적극적 이윤은 "노동, 근로 및 숙련의 증대"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이 증대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스튜어트는 답변을 주려 하지 않는다. 이 이윤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그의 부언은

스튜어트가 이것으로써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생기는, 사용 가치량의 증대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는 이 적극적 이윤을 항상 교환 가치의 증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윤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설명은 그의 그 이후의 서술에 의하여 완전히 입증된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2 "나는 상품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물건, 즉 상품의 현실적 가치와 양도 이윤[Profit upon alienation]을 본다" (p.224).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두 개의 전혀 상이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니, 그것은 즉 첫째로는 상품의 현실적 가치, 둘째로는 "양도 이윤" 즉 상품이 양도되고 판매되는 경우에 실현되는 이윤이다.

‖ 221 ‖ 따라서 이 "양도 이윤"은 상품의 가격이 그것의 현실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에서의 이득은 이 경우에는 항상 다른 편에서의 손실을 의미한다. "총 재화에 대한 첨가"는 조금도 창조되지 않는다. 이윤 즉 잉여 가치는 상대적이며 "관계자 쌍방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에 귀착된다. 스튜어트는 이렇게 하여 잉여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관계자 쌍방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에 관한 그의 이론은 잉여 가치 자체의 본성과 기원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상이한 계급들 간에서의 그리고 이윤, 이자, 지대와 같은 상이한 항목들로의 잉여 가치의 분배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스튜어트가 개개의 자본가의 모든 이윤을 이러한 "상대적 이윤", "양도 이윤"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말하고 있다 : "현실적 가치"는 평균적으로 "보통 해당 나라의 노동자가 … 일, 주, 월 등등의 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노동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둘째로는 노동자의 생활수단의 가치와, 그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직업에 필요한 도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평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재료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pp.244~245). "이 세 항목만 안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규정된다. 가격은 이 모든 세 항목의 총액보다 즉 현실적 가치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것을 초과하는 모든 것이 공업가의 이윤을 형성한다. 이 이윤은 항상 수요에 비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정 여하에 따라 변동될 것이

다"(같은 책, p.245). "이 때문에 매뉴팩처의 번영을 위하여서는 많은 수요가 필요하게 된다… 산업가들은 자기의 지출과 자기의 생활 양식을 그들의 확실한 이윤에 따라 재량한다"(같은 책, p.246).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다. 즉 "공업가, 개개의 자본가의 이윤은 항상 "상대적 이윤"이며, 항상 "양도 이윤"이고, 항상 상품의 가격이 그 현실적 가치를 초과하는 데서, 상품이 그 가치이상으로 판매되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만약 모든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아무런 이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스튜어트는 이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한 장을 썼고, 그는 "어떻게 이윤이 생산비와 하나로 통합되는가"하는 것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다.(같은 책, 제3권 p.11이하).

스튜어트는 한편으로는 상품의 그 가치 이상으로의 판매와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 잉여 가치를, 즉 부의 적극적인 증가*를 조성한다고 하는 중금주의와 중상주의의 표상을 반박하고 있다. 다른쪽으로 그는, 개개의 자본의 이윤은 가격의 가치에 대한 ‖ 222 | 초과분, 즉 "양도 이윤"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그들의 견해에 의연 매달리고 있다. 다만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양도 이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편에서의 이득에는 다른 곳에서의 손실이 상응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윤의 운동은 "관계자들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튜어트는 이 점에서 중금주의 및 중상주의의 합리적인 표현자이다.

자본을 이해함에 있어서의 그의 공적은 그가 일정한 계급의 소유로서의 생산 제 조건과 노동력[13]과의 분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준 데 있다. 자본의 이 발생 과정에 스튜어트는 많은 주의를 돌렸다. 물론 그는 아직 이 과정을 직접 자본의 발생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기에서 대공업의 존재 조건을 보고 있다. 스튜어트는 이 과정을 특히 농업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정당하게도 농업에서 일어난 이러한

---

* 그런데 중금주의 자체도 이 이윤을 국내에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나라들과의 교환에서만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중상주의는, 이 가치는 화폐(금과 은)로 표시되며 그러므로 잉여 가치는 화폐에 의하여 결산되는 무역 수지에 표현된다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분리 과정에 의해서만 매뉴팩쳐 공업 자체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이 분리 과정은 벌써 기성의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다.

(스튜어트의 저서는 1767년 런던에서[출판되었다], 튀르고의 저서는 1766년에 [집필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저서는 1775년에.)

[제 2 장]

중 농 주 의 자 들

[1.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유통분야에서 생산분야로 옮겨 놓은 것. 지대를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로 보는 견해]

중농주의자들의 중요한 공적은 그들이 부르조아적 시야의 범위 내에서 자본에 대한 분석을 한 데 있다. 이 공적이야말로 그들을 현대 정치경제학의 참다운 조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자본이 존재하며 그리고 또 그것이 분해되는 다양한 대상적인 구성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중농주의자들이 그들의 모든 후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이 대상적인 존재 형태들—도구, 원료 등등—을 그것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조건들과 분리시켜 자본으로서 보고 있다고 하여, 요컨대 그것들이 노동과정의 사회적 형태와는 독립하여 노동 과정 일반의 요소들이라는 그러한 형태에서 보고 있다고 하여 중농주의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중농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를 어떠한 영원한 자연적인 생산 형태로 전화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르조아적 생산 형태는 필연적으로 자연적 생산 형태로서 나타난다. 중농주의자들이 이 형태를 사회의 생리적 형태로서, 즉 생산 자체의 자연적인 필연성에서 나오며 의지, 정치 등등과는 독립한 형태로서 본 것은 그들의 큰 공적이었다. 이것은 물질적인 법칙이다. 이 경우에 결합은 다만 사회의 하나의 규정된 역사적 단계의 물질적 법칙을 모든 사회 형태를 동등하게 지배하는 추상적인 법칙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 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을 이루는 대상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외에 중농주의자들은 자본이 유통에서 취하는 형태들(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중농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술어들은 다르기는 하지만)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자본의 유통 과정과 재생산 과정 간의 연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유통에 관한 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14]

이 두 중요한 점에 있어서 A.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의 유산을 계승하였다. 그의 공적—이 면에서의—은 그가 추상적 범주들을 고정시켰
45 고 중농주의자들에 의하여 분석된 구별들에 보다 확고한 명칭을 부여한 데 있을 따름이다.

‖ 223 ‖ 이미 본 바와 같이[15]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을 위한 기초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속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자본으로서 확고하게 분리되었으며 노동자들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 조건들에 대립하는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극히 본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창조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 시간과 동등하며 또는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격과 동등하다. 오직 이 기초 위에서만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을 적용함으로써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는 다른 어떠한 상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상품의 사용 가치, 따라서 그것의 사용도 그것의 교환 가치 또는 그것으로써 얻어지는 교환가치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분석에 종사하고 있는 현대 정치 경제학의 기초에는 노동력의 가치를 어떤 고정된 것으로서, 일정한 크기로서—노동력의 가치는 실천적으로도 일정한 모든 경우에 일정한 크기이다—보는 견해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최저한이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아직 가치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임금의 최저한이라는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노동력의 가치가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격으로, 따라서 일정한 사용 가치의 일정한 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가치 일반의 본성을 명백히 파악하지 않고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연구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서 고찰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최저한을 불변의 크기로서 즉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적으로 자연에 의하여 규정되고, 그 자체가 변화를 겪어 온 크기인 역사

적 발전 단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닌 불변의 크기로서 보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의 결론의 추상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는 노동력의 가치를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하는 데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유통 분야에서 직접적 생산 분야로 옮겨 놓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의 분석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실로 정당하게도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만이, 즉 생산물을 46
생산하는 동안에 소비된 가치액을 넘는 가치가 들어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료 및 재료의 가치는 주어진 것이고 노동력의 가치는 임금의 최저한과 동등하기 때문에 이 잉여 가치는 노동자가 임금으로서 받는 노동의 양 이상으로 자본가에게 주는 노동의 잉여분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잉여 가치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가치 일반을 그것의 단순한 실체인 노동량 또는 노동 시간에 귀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224 ‖ 중농주의자들의 서술 방식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치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 견해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가치를 인간 활동(노동)의 일정한 사회적 존재 방식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토지,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소재로써, 그리고 이 소재의 다양한 변종들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하였다.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즉 노동력을 구입한 결과에 이것을 적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잉여 가치—는 어떠한 생산 부문에서도 본원적인 생산 부문인 농업에서와 같이 그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매년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총액, 즉 그가 소비하는 소재의 총량은 그가 생산하는 생활수단의 총액보다 적다. 공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자기의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생활수단 이상으로 더 잉여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과정이 매매에 의하여, 다양한 유통 행위에 의하여 매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가치 일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농업에서는 이 과정이 직접 노동자가 소비한 사용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사용 가치의 잉

여분으로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가치 일반의 분석이 없이도, 가치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가치를 사용 가치에 귀착시키고 사용 가치를 소재 일반에 귀착시키는 경우에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농업 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이다. 그것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노동이며 지대는 그들에게 알려진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공업에서는 노동자가 소재의 양을 증대시키지 않고 다만 그것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47 재료—소재의 양—를 공업에 주는 것은 농업이다. 물론 공업은 소재에 추가적 가치를 첨가하나 그러나 자체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노동의 생산비에 의하여, 즉 그가 노동하는 동안에 소비하는 생활 수단—이것의 총액은 공업이 농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최저한과 동등하다—에 의하여 첨가한다. 농업 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과 구별케 하는 그러한 잉여 가치의 형태—지대—가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자본에 대한 고유한 의미에서의 이윤, 즉 지대 자체가 그 하나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이윤이라는 것이 없다. 이윤은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지불되며 소득으로서 자본가들에 의하여 소비되는(따라서 그것은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한과 꼭 마찬가지로 생산비에 포함된다) 일종의 보다 높은 임금으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이것은 원료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가인 공업가가 생산물을 생산하며 원료를 새로운 생산물로 전화하는 동안에 소비 비용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노(老)미라보와 같은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이윤의 다른 하나의 곁가지인 화폐 이자 형태의 잉여 가치를 자연에 배치되는 고리대금업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튀르고는 화폐 자본가가 토지를, 즉 지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화폐 자본은 그에게, 그 화폐 자본을 토지 소유로 전화하는 경우에 그가 받을 만한 잉여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로부터 화폐 이자의 정당성을 끌어 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 견해에 의하면 화폐 이자도 역시 새로 창조된 가치가 아니며 잉여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토지 소유자가 획득한 잉여 가치의 일부가 왜 이자 형태로 화폐 자본가에게 흘러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이 잉여 가치의

적 발전 단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닌 불변의 크기로서 보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의 결론의 추상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는 노동력의 가치를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하는 데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유통 분야에서 직접적 생산 분야로 옮겨 놓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의 분석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실로 정당하게도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만이, 즉 생산물을 46
생산하는 동안에 소비된 가치액을 넘는 가치가 들어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료 및 재료의 가치는 주어진 것이고 노동력의 가치는 임금의 최저한과 동등하기 때문에 이 잉여 가치는 노동자가 임금으로서 받는 노동의 양 이상으로 자본가에게 주는 노동의 잉여분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잉여 가치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가치 일반을 그것의 단순한 실체인 노동량 또는 노동 시간에 귀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24‖ 중농주의자들의 서술 방식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치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 견해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가치를 인간 활동(노동)의 일정한 사회적 존재 방식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토지,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소재로써, 그리고 이 소재의 다양한 변종들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하였다.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즉 노동력을 구입한 결과에 이것을 적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잉여 가치—는 어떠한 생산 부문에서도 본원적인 생산 부문인 농업에서와 같이 그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매년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총액, 즉 그가 소비하는 소재의 총량은 그가 생산하는 생활수단의 총액보다 적다. 공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자기의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생활수단 이상으로 더 잉여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과정이 매매에 의하여, 다양한 유통 행위에 의하여 매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가치 일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농업에서는 이 과정이 직접 노동자가 소비한 사용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사용 가치의 잉

여분으로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가치 일반의 분석이 없이도, 가치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가치를 사용 가치에 귀착시키고 사용 가치를 소재 일반에 귀착시키는 경우에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농업 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이다. 그것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노동이며 지대는 그들에게 알려진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공업에서는 노동자가 소재의 양을 증대시키지 않고 다만 그것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47 재료—소재의 양—를 공업에 주는 것은 농업이다. 물론 공업은 소재에 추가적 가치를 첨가하나 그러나 자체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노동의 생산비에 의하여, 즉 그가 노동하는 동안에 소비하는 생활 수단—이것의 총액은 공업이 농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최저한과 동등하다—에 의하여 첨가한다. 농업 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과 구별케 하는 그러한 잉여 가치의 형태-지대-가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자본에 대한 고유한 의미에서의 이윤, 즉 지대 자체가 그 하나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이윤이라는 것이 없다. 이윤은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지불되며 소득으로서 자본가들에 의하여 소비되는(따라서 그것은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한과 꼭 마찬가지로 생산비에 포함된다) 일종의 보다 높은 임금으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이것은 원료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가인 공업가가 생산물을 생산하며 원료를 새로운 생산물로 전화하는 동안에 소비 비용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노(老)미라보와 같은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이윤의 다른 하나의 곁가지인 화폐 이자 형태의 잉여 가치를 자연에 배치되는 고리대금업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튀르고는 화폐 자본가가 토지를, 즉 지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화폐 자본은 그에게, 그 화폐 자본을 토지 소유로 전화하는 경우에 그가 받을 만한 잉여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로부터 화폐 이자의 정당성을 끌어 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 견해에 의하면 화폐 이자도 역시 새로 창조된 가치가 아니며 잉여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토지 소유자가 획득한 잉여 가치의 일부가 왜 이자 형태로 화폐 자본가에게 흘러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이 잉여 가치의

일부가 ‖225‖ 왜 이윤 형태로 공업 자본가에게 흘러 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다른 이유로써 설명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농업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이며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노동이므로 농업 노동을 다른 모든 부문의 노동과 구별케 하는 잉여 가치의 형태인 지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산업 이윤과 화폐 이자는 지대로부터 분배되며 일정한 부분씩 토지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계급들의 수중으로 넘어 가는 각이한 항목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이래의 경제학자들이 견지한 견해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정당하게도 산업 이윤을 잉여 가치가 본원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형태로서, 따라서 잉여 48
가치의 본원적인 일반적 형태로서 보고 있으며 이자와 지대는 잉여 가치의 공동 소유자인 다양한 계급들 간에 산업 자본가에 의하여 분배되는 산업 이윤의 곁가지로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노동은 잉여 가치의 창조가 물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그러한 노동이라고 하는, 위에서 제시한 이유 외에도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관점을 설명하여 주는 다른 동기들도 있었다.

첫째로 농업에서는 지대가 제3의 요소로서, 즉 공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다만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잉여 가치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잉여 가치(이윤)를 넘는 잉여 가치였으며 따라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뚜렷한 잉여 가치, 자승(自乘)된 잉여 가치였다.

"농업은"—하고 소박한 경제학자 칼 아른드(『자연적 민족 경제학』, 하나우, 1845년, pp.461~462)는 말한다—"공업과 상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지대의 형태로—창조하는데, 이 가치는 지불된 전체 임금과 소비된, 자본에 대한 전체 이윤을 보상하고 남는 것이다."

둘째로 만약 대외 무역을 사상한다면—중농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였으며 또 부르조아 사회를 추상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매뉴팩쳐 등등에 종사하고 농업에서 완전히 유리된 노동자들(스튜어트가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자유로운 일군들":the free hands)의 수효는 농업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소비 이상으로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농업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수효는 완전히 농민들의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

다"(R. 존즈,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런던, 1831년, p.164). 그리하여 농업 노동은 농업 분야 자체에서의 잉여 노동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부문이 자립적인 부문들로 전화되기 위하여도,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 창조되는 잉여 가치를 위하여도 자연적 토대를 이룬다(이에 관하여서는 이전의 노트들 중 하나를 보라)[16].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추상적 노동과 그것의 척도인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구체적인 노동을 가치의 실체로서 간주한 한에서는 바로 농업 노동을 잉여 가치의 창조자로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II 226 I세째로 온갖 잉여 가치, 즉 상대적 잉여 가치 뿐만 아니라 절대적 잉여 가치도 어떠한 주어진 노동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 어떤 사람의 노동 시간으로써 겨우 그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며 그
49 자신의 생활 수단을 생산 및 재생산할 만한 정도의 발전 수준에 밖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잉여 노동과 아무런 잉여 가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노동 및 잉여 가치의 가능성은 노동력이 그 자체의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생존 과정의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노동 생산성인 일정한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것도 이 노동 생산성, 출발점인 전제로 되는 노동 생산성의 이 단계는 우리가 둘째 점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우선 농업 노동에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의 선물로서, 자연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여기, 농업에서는 처음부터 자연력의 협력,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력의 적용과 이용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증대가 광범한 규모에서 주어져 있다. 공업에서는 거대한 규모에서의 이 자연력의 이용은 대규모 공업이 발전함으로써만 나타난다. 자본의 발전의 토대로 되는 것은 자국에서든 타국에서든 농업의 일정한 발전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그 한에 있어서 절대적 잉여 가치는 상대적 잉여 가치와 합치한다.(중농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자인 뷰캐난까지도 현대 도시 공업의 발생보다도 농업의 발전이 선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A. 스미스를 반대하여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째로 가치 및 잉여 가치를 유통으로부터가 아니라 생산으로부터 끌어 내는 것이 중농주의의 공적이며 특징이므로 중농주의는 중금주의 및 중상주의와 대립하여 일반적으로 유통, 교환과는 분리되고 독립한 것으

일부가 ‖ 225 ‖ 왜 이윤 형태로 공업 자본가에게 흘러 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다른 이유로써 설명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농업노동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이며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노동이므로 농업 노동을 다른 모든 부문의 노동과 구별케 하는 잉여 가치의 형태인 지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산업 이윤과 화폐 이자는 지대로부터 분배되며 일정한 부분씩 토지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계급들의 수중으로 넘어 가는 각이한 항목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이래의 경제학자들이 견지한 견해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정당하게도 산업 이윤을 잉여 가치가 본원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형태로서, 따라서 잉여 48
가치의 본원적인 일반적 형태로서 보고 있으며 이자와 지대는 잉여 가치의 공동 소유자인 다양한 계급들 간에 산업 자본가에 의하여 분배되는 산업 이윤의 곁가지로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노동은 잉여 가치의 창조가 물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그러한 노동이라고 하는, 위에서 제시한 이유 외에도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관점을 설명하여 주는 다른 동기들도 있었다.

첫째로 농업에서는 지대가 제3의 요소로서, 즉 공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다만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잉여 가치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잉여 가치(이윤)를 넘는 잉여 가치였으며 따라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뚜렷한 잉여 가치, 자승(自乘)된 잉여 가치였다.

"농업은"—하고 소박한 경제학자 칼 아른드(『자연적 민족 경제학』, 하나우, 1845년, pp.461~462)는 말한다—"공업과 상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지대의 형태로—창조하는데, 이 가치는 지불된 전체 임금과 소비된, 자본에 대한 전체 이윤을 보상하고 남는 것이다."

둘째로 만약 대외 무역을 사상한다면—중농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였으며 또 부르조아 사회를 추상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매뉴팩쳐 등등에 종사하고 농업에서 완전히 유리된 노동자들(스튜어트가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자유로운 일군들":the free hands)의 수효는 농업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소비 이상으로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농업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수효는 완전히 농민들의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

다"(R. 존즈,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런던, 1831년, p.164). 그리하여 농업 노동은 농업 분야 자체에서의 잉여 노동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부문이 자립적인 부문들로 전화되기 위하여도,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 창조되는 잉여 가치를 위하여도 자연적 토대를 이룬다(이에 관하여서는 이전의 노트들 중 하나를 보라)[16].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추상적 노동과 그것의 척도인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구체적인 노동을 가치의 실체로서 간주한 한에서는 바로 농업 노동을 잉여 가치의 창조자로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II 226 I세째로 온갖 잉여 가치, 즉 상대적 잉여 가치 뿐만 아니라 절대적 잉여 가치도 어떠한 주어진 노동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 어떤 사람의 노동 시간으로써 겨우 그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며 그
49 자신의 생활 수단을 생산 및 재생산할 만한 정도의 발전 수준에 밖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잉여 노동과 아무런 잉여 가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적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노동 및 잉여 가치의 가능성은 노동력이 그 자체의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생존 과정의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노동 생산성인 일정한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것도 이 노동 생산성, 출발점인 전제로 되는 노동 생산성의 이 단계는 우리가 둘째 점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우선 농업 노동에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의 선물로서, 자연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여기, 농업에서는 처음부터 자연력의 협력,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력의 적용과 이용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증대가 광범한 규모에서 주어져 있다. 공업에서는 거대한 규모에서의 이 자연력의 이용은 대규모 공업이 발전함으로써만 나타난다. 자본의 발전의 토대로 되는 것은 자국에서든 타국에서든 농업의 일정한 발전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그 한에 있어서 절대적 잉여 가치는 상대적 잉여 가치와 합치한다.(중농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자인 뷰캐난까지도 현대 도시 공업의 발생보다도 농업의 발전이 선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A. 스미스를 반대하여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째로 가치 및 잉여 가치를 유통으로부터가 아니라 생산으로부터 끌어 내는 것이 중농주의의 공적이며 특징이므로 중농주의는 중금주의 및 중상주의와 대립하여 일반적으로 유통, 교환과는 분리되고 독립한 것으

로서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인간과 인간 간의 교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교환만을 전제로 하는 생산 부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시작한다.

[2. 중농주의자들의 체계에서의 제 모순 : 체계의 봉건적 외피와 그것의 부르조아적 본질 : 잉여 가치의 서술에서의 이중성]

상술한 사정들로부터 중농주의 체계에서의 모순도 흘러 나온다.

사실상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본이 생산되며 또 생산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생산의 영원한 자연 법칙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최초의 체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오히려 봉건 제도, 토지 소유의 지배의 부르조아적 재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50
제일 먼저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공업 부문들은 중농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의 "비생산적" 부문들로서, 농업의 단순한 부속물로서 나타난다. 자본의 발전의 첫째 조건으로 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토지 소유의 분리이며 첫째 노동 조건인 토지가 자립적인 역량으로서, 특수 계급의 수중에 있는 역량으로서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적 서술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진정한 자본가로서 즉 잉여 노동의 취득자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봉건주의가 부르조아적 생산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으며 농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즉 잉여 가치의 생산이 진행되는 유일한 생산 부문으로서 서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봉건주의는 부르조아적 성격을 띠게 되는 동시에 부르조아 사회는 봉건적 외관을 띠게 된다.

이 외관은 변덕스럽고 가부장적인 노(老) 미라보와 같은, 케네 박사의 귀족적 신봉자들을 속였다. 그보다 더 내다 본 중농주의 대표자들, 특히 튀르고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농주의는 봉건 사회의 틀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봉건주의를 벗어 나는 시기에 있어서의 부르조아 사회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공업, 상업 및 항해업이 지배적인 영국이 아니라 농업이 우세한 프랑스에 있다. 영국에서는 자연 관심이 유통 과정에 돌려지며, 생산물이 오직

---

* 원문 sub specie—역자.

일반적 사회적 노동의 표현으로서, 화폐로서 가치를 얻으며 상품으로 된다는 데 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 형태가 아니라 가치의 크기와 가치 증대가 문제인 한에서 여기에서는 우선 "양도 이윤" 즉 스튜어트가 묘사한 상대적 이윤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잉여 가치가 생산분야 자체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면 우선 명확히 유통 과정과는 독립하여 잉여 가치가 나타나는 노동 부문 즉 농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의 주도권은 농업이 우세한 나라에서 나타났다. 중농주의자들과 유사한 사상은 그들에 선행한 노저술가들, 예컨대 부분적으로 바로 프랑스에서는 부아길베르에게서 단편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사상은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비로소 과학에서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체계로 되었다.

"절실하게 필요한" 임금의 최저한으로써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농업
51 노동자는 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상을 재생산하며 이 잉여 분이 자연이라는 기본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에게 취득되는 지대, 잉여 가치이다. 그러므로 중농주의자들은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이상으로 노동하며 따라서 그가 창조하는 가치는 그의 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한다고, 다시 말하면 그가 주는 노동은 그가 임금 형태로 받는 노동량보다 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농업 노동자가 생산하는 동안에 소비하는 사용 가치의 총량은 그가 생산하는 사용 가치의 총량보다 적으며, 그리하여 사용 가치의 잉여 분이 남는다고— 만약 그가 그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동안만 노동한다면 아무런 잉여 분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은 토지의 생산력이 노동자에게, 일정한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는 노동일 중에 그의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그가 소비할 필요가 있는 것 이상을 생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만을 지적하며 또 고집한다. 이리하여 이 잉여 가치는 자연의 선물로서 나타나는데, 이 자연의 협력에 의하여 일정한 양의 유기 물질—식물의 종자, 약간의 동물—은 노동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양의 무기 물질을 유기 물질로 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토지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노동자에 대립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에게 노동자가 상품으로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며 그 대신에 등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을 적용함으로써 창조된 모든 가치 증가분

로서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인간과 인간 간의 교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교환만을 전제로 하는 생산 부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시작한다.

[2. 중농주의자들의 체계에서의 제 모순 : 체계의 봉건적 외피와 그것의 부르조아적 본질 : 잉여 가치의 서술에서의 이중성]

상술한 사정들로부터 중농주의 체계에서의 모순도 흘러 나온다.

사실상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본이 생산되며 또 생산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생산의 영원한 자연 법칙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최초의 체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오히려 봉건 제도, 토지 소유의 지배의 부르조아적 재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50
제일 먼저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공업 부문들은 중농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의 "비생산적" 부문들로서, 농업의 단순한 부속물로서 나타난다. 자본의 발전의 첫째 조건으로 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토지 소유의 분리이며 첫째 노동 조건인 토지가 자립적인 역량으로서, 특수 계급의 수중에 있는 역량으로서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적 서술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진정한 자본가로서 즉 잉여 노동의 취득자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봉건주의가 부르조아적 생산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으며 농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즉 잉여 가치의 생산이 진행되는 유일한 생산 부문으로서 서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봉건주의는 부르조아적 성격을 띠게 되는 동시에 부르조아 사회는 봉건적 외관을 띠게 된다.

이 외관은 변덕스럽고 가부장적인 노(老) 미라보와 같은, 케네 박사의 귀족적 신봉자들을 속였다. 그보다 더 내다 본 중농주의 대표자들, 특히 튀르고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농주의는 봉건 사회의 틀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봉건주의를 벗어 나는 시기에 있어서의 부르조아 사회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공업, 상업 및 항해업이 지배적인 영국이 아니라 농업이 우세한 프랑스에 있다. 영국에서는 자연 관심이 유통 과정에 돌려지며, 생산물이 오직

---

* 원문 sub specie—역자.

일반적 사회적 노동의 표현으로서, 화폐로서 가치를 얻으며 상품으로 된다는 데 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 형태가 아니라 가치의 크기와 가치 증대가 문제인 한에서 여기에서는 우선 "양도 이윤" 즉 스튜어트가 묘사한 상대적 이윤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잉여 가치가 생산분야 자체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면 우선 명확히 유통 과정과는 독립하여 잉여 가치가 나타나는 노동 부문 즉 농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의 주도권은 농업이 우세한 나라에서 나타났다. 중농주의자들과 유사한 사상은 그들에 선행한 노저술가들, 예컨대 부분적으로 바로 프랑스에서는 부아길베르에게서 단편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사상은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비로소 과학에서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체계로 되었다.

"절실하게 필요한" 임금의 최저한으로써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농업
51 노동자는 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상을 재생산하며 이 잉여 분이 자연이라는 기본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에게 취득되는 지대, 잉여 가치이다. 그러므로 중농주의자들은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이상으로 노동하며 따라서 그가 창조하는 가치는 그의 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한다고, 다시 말하면 그가 주는 노동은 그가 임금 형태로 받는 노동량보다 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농업 노동자가 생산하는 동안에 소비하는 사용 가치의 총량은 그가 생산하는 사용 가치의 총량보다 적으며, 그리하여 사용 가치의 잉여 분이 남는다고.— 만약 그가 그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동안만 노동한다면 아무런 잉여 분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은 토지의 생산력이 노동자에게, 일정한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는 노동일 중에 그의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그가 소비할 필요가 있는 것 이상을 생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만을 지적하며 또 고집한다. 이리하여 이 잉여 가치는 자연의 선물로서 나타나는데, 이 자연의 협력에 의하여 일정한 양의 유기 물질—식물의 종자, 약간의 동물—은 노동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양의 무기 물질을 유기 물질로 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토지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노동자에 대립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에게 노동자가 상품으로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며 그 대신에 등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을 적용함으로써 창조된 모든 가치 증가분

을 취득한다. 이 교환에 있어서는 대상적 노동 조건들과 노동력 자체가 서로 소외(疏外)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봉건적 토지 소유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본가로서 등장하며 단순한 상품 소유자—노동과 교환하는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오직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품의 등가 뿐만 아니라 등가를 넘는 잉여 분을 되받는—로서 등장한다. 그는 상품 소유자로서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립한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소유자는 본질상 자본가이다. 중농주의는 이 점에 있어서도 토지 및 토지 소유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가 ‖228‖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자본의 생산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 한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로부터 이 중농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즉 잉여 가치를 타인 노동의 취득으로써, 그것도 상품 교환에 기초한 취득으로써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한 이 주의에 있어서는 가치 일반은 사회적 노동 52
형태가 아니며 잉여 가치는 잉여 노동이 아니라는 것, 가치는 단순한 사용 가치, 단순한 소재이며 잉여 가치는 일정한 양의 유기 물질 대신에 보다 많은 양의 유기 물질을 노동에 반환하는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대—즉 토지 소유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태—는 토지 소유의 봉건적 외피를 벗게 되었으며 단순한 잉여 가치에, 임금에 대한 초과 분에 귀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잉여 가치는 다시 봉건적인 정신에서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사회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관계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가치 자체가 단순한 사용 가치에, 따라서 소재에 귀착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재에 있어서 중농주의자들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다만 양적 측면, 소비된 사용 가치를 넘는 생산된 사용 가치의 초과 분이며, 따라서 다만 사용 가치의 양적 상호 관계이고, 결국은 노동 시간에 귀착하는 그것들의 교환 가치이다.

이 모든 것은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해방되어 이 봉건 사회 자체를 벌써 부르조아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자체의 고유한 형태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시기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들이다. 이것은 마치도 철학이 처음에는 종교적 의식 형태의 한계 내에서 형성되어 나왔고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적극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아직 이 관념화되었고, 사유 속에 용해된 종교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 자신이 내리고 있는 결론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에 대한 외관상 찬양이 토지 소유의 경제적 부인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인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세금이 지대에 전가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토지 소유는 부분적으로 몰수를 당한다. 이 조치는 프랑스 혁명의 입법이 실현하려고 시도하던 것이며, 충분히 발전된 현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인 리카르도 경제학이 도달한 결론이다. 지대가 유일한 잉여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지대에 부과되므로 다른 소득 형태들에 대한 온갖 과세는 간접적일 따름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해하며 생산을 저해하는,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 방법이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과 따라서 온갖 국가적 간섭은 공업에서 제거되며 이리하여 공업은 국가로부터의 온갖 간섭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마치도 토지 소유의 이익을 위하여, 즉 공업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53 토지 소유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레쎄 페르, 레쎄 알레르*, 즉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 경쟁, 공업에 대한 온갖 국가적 간섭, 독점 등등의 제거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공업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고 농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다른 형태로 전화시킬 뿐이며, 이 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첨가하지 않고 다만 제공된 가치를 등가로서 다른 형태로 전화할 따름이므로, 자연 소원으로 되는 것은 이 전화 과정이 장애 없이 그리고 될수록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자유 경쟁에 의하여서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자체에 방임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하여 봉건 사회의 폐허 위에 수립된 절대 군주제로부터의 부르조아 사회의 해방은 자본가로 전화되었으며, 치부만을 염두에 두는 ‖ 229 ‖ 봉건적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서만 진행된다. 자본가들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자본가일 따름이며 이것은 가일층 발전한 정치 경제학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 계급을 위한 자본가로만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저술로써 상금까지 받은 중농주의자들의 편찬자 애제느 데르 씨와 같은 현대 경제학자들이,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며 지대는 유일한 잉여 가치 형태이며 토지 소유자는 생산 체계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독특한 명제들을, 중

---

*원문 laissez faire, laissez aller: 글자 그대로는 '할대로 하게 하고 될 대로 되게 하라' 경제활동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요구를 뜻함-역자.

을 취득한다. 이 교환에 있어서는 대상적 노동 조건들과 노동력 자체가 서로 소외(疏外)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봉건적 토지 소유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본가로서 등장하며 단순한 상품 소유자—노동과 교환하는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오직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품의 등가 뿐만 아니라 등가를 넘는 잉여 분을 되받는—로서 등장한다. 그는 상품 소유자로서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립한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소유자는 본질상 자본가이다. 중농주의는 이 점에 있어서도 토지 및 토지 소유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가 ‖228‖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자본의 생산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 한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로부터 이 중농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즉 잉여 가치를 타인 노동의 취득으로써, 그것도 상품 교환에 기초한 취득으로써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한 이 주의에 있어서는 가치 일반은 사회적 노동 52
형태가 아니며 잉여 가치는 잉여 노동이 아니라는 것, 가치는 단순한 사용 가치, 단순한 소재이며 잉여 가치는 일정한 양의 유기 물질 대신에 보다 많은 양의 유기 물질을 노동에 반환하는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대—즉 토지 소유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태—는 토지 소유의 봉건적 외피를 벗게 되었으며 단순한 잉여 가치에, 임금에 대한 초과 분에 귀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잉여 가치는 다시 봉건적인 정신에서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사회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관계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가치 자체가 단순한 사용 가치에, 따라서 소재에 귀착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재에 있어서 중농주의자들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다만 양적 측면, 소비된 사용 가치를 넘는 생산된 사용 가치의 초과 분이며, 따라서 다만 사용 가치의 양적 상호 관계이고, 결국은 노동 시간에 귀착하는 그것들의 교환 가치이다.

이 모든 것은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해방되어 이 봉건 사회 자체를 벌써 부르조아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자체의 고유한 형태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시기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들이다. 이것은 마치도 철학이 처음에는 종교적 의식 형태의 한계 내에서 형성되어 나왔고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적극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아직 이 관념화되었고, 사유 속에 용해된 종교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 자신이 내리고 있는 결론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에 대한 외관상 찬양이 토지 소유의 경제적 부인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인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세금이 지대에 전가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토지 소유는 부분적으로 몰수를 당한다. 이 조치는 프랑스 혁명의 입법이 실현하려고 시도하던 것이며, 충분히 발전된 현대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인 리카르도 경제학이 도달한 결론이다. 지대가 유일한 잉여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지대에 부과되므로 다른 소득 형태들에 대한 온갖 과세는 간접적일 따름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해하며 생산을 저해하는,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 방법이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과 따라서 온갖 국가적 간섭은 공업에서 제거되며 이리하여 공업은 국가로부터의 온갖 간섭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마치도 토지 소유의 이익을 위하여, 즉 공업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53 토지 소유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레쌔 페르, 레쌔 알레르*, 즉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 경쟁, 공업에 대한 온갖 국가적 간섭, 독점 등등의 제거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공업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고 농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다른 형태로 전화시킬 뿐이며, 이 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첨가하지 않고 다만 제공된 가치를 등가로서 다른 형태로 전화할 따름이므로, 자연 소원으로 되는 것은 이 전화 과정이 장애 없이 그리고 될수록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자유 경쟁에 의하여서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자체에 방임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하여 봉건 사회의 폐허 위에 수립된 절대 군주제로부터의 부르조아 사회의 해방은 자본가로 전화되었으며, 치부만을 염두에 두는 ‖229‖ 봉건적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서만 진행된다. 자본가들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자본가일 따름이며 이것은 가일층 발전한 정치 경제학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 계급을 위한 자본가로만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저술로써 상금까지 받은 중농주의자들의 편찬자 애제느 데르 씨와 같은 현대 경제학자들이,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며 지대는 유일한 잉여 가치 형태이며 토지 소유자는 생산 체계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독특한 명제들을, 중

---

*원문 laissez faire, laissez aller: 글자 그대로는 '할대로 하게 하고 될 대로 되게 하라' 경제활동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요구를 뜻함-역자.

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유 경쟁의 선포, 대공업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원칙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으로, 다만 우연적으로 결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중농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주의의 봉건적 외관이 계몽주의 시기의 귀족적 음조와 꼭 마찬가지로 다수의 봉건 영주적 생산 체계를 선포한 그러한 주의의 열렬한 신봉자 및 보급자로 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의 세 계급에 관한 케네의 견해. 튀르고에 의한 중농주의 이론의 가일층의 발전 :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한 보다 심오한 분석의 제 요소] 54

우리는 이제 위에서 인용한 명제들을 부분적으로는 해명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증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부분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케네 자신의 『경제표 분석』에 있어서는 국민이 세 공민 계급들로써 구성되고 있다. 즉 "생산적 계급"(농업 노동자), "토지 소유자 계급" 및 "비생산적 계급"("농업 이외의 온갖 다른 봉사와 온갖 다른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공민") (『중농주의자들』, 에제느 데르 편찬, 파리, 1846년, 제1부, p.58) 이 그것이다. 농업 노동자만이 생산적 계급 즉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계급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렇지 않다. "잉여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 아닌 이 토지 소유자 계급이 가지는 의의는 이 계급이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가 아니라 잉여 가치를 취득하는 데서 나온다.

튀르고에 이르러 중농주의는 가장 발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자연의 순수한 선물"이 잉여 노동으로서까지 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노동자가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건들은 그것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전화한 계급의 소유로서 노동자에 대립한다는 것으로써 설명되고 있다.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첫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온갖 종류의 노동의 자립적 존재를 위한 자연적 기초이며 전제이라는 데 있다.

"그의"(토지 경작자의) "노동이 다양한 사회 성원들 사이에 분배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노동들 중에서 차지하는 우선적 지위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이, 인간이 자기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분업 이전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다양한 노동 중에서 차지한 지위와 동일하다. 이 우선적 지위란 영예나 존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육체적 필요성에 의하여 제약된 것이다… 토지 경작자의 노동이 토지에서 그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끌어 내는 것은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이 자기 노동과의 교환으로 얻는 임금의 유일한 재화를 형성한다.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은 이 교환에서 얻는 임금을 이번에는 토지 경작자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정확히 그들이 받은 그만큼만을"(물질로) "토지 경작자에게 반환한다. 이것이 이 두 종류의 노동 간의 본질적‖ 230 1 차이이다."(「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1766년), 튀르고 전집, 데르 편찬, 제1권, 파리, 1844년, pp.9~10).

그러면 잉여 가치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유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서 실현된다. 생산물은 자체의 가치대로 판매되는
55 것이고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넘는 가격의 잉여 분이란 없다. 그러나 생산물이 자체의 가치대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잉여 가치를 실현한다. 이것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치의 대가를 그 자신은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산물의 판매자에 의하여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등가로써 보상되지 않은 가치 구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농업 노동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판매자는 그가 구입하지 않은 것을 판매한다. 튀르고는 이 구매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자연의 순수한 선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의 순수한 선물"이 그에게 있어서 슬그머니 토지 소유자가 구매하지 않았으나 그가 농업 생산물로 판매하는, 토지 경작자의 잉여 노동으로 전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농민이 자기 노동으로써 그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이상의 것을 생산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자연에 의하여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넘는 순수한 선물로서 그에게 제공되는 이 잉여 분으로써 사회의 다른 성원들의 노동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회의 다른 성원들은 그에게 자기의 노동을 판매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위한 것만큼 번다. 그런데 토지 경작자는 자기의 생존수단 외에 그가 자립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 즉 그가 구매하지 않았으나 판매할 수 있는 부를 더 번다. 그리하여 그는 유통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종류의 노동을 고무하는 부의 유일한

원천이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만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넘는 잉여분을 생산하기 때문이다."(같은 책, p.11).

이 최초의 설명에서는 첫째로, 잉여 가치의 본질이, 잉여 가치라는 것이 판매 시에 판매자가 아무런 등가도 주지 않고 즉 그가 구매하지 않고 실현하는 그러한 가치라고 이해되고 있다. 즉 부불(不拂)가치이다. 그러나 둘째로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넘는 잉여분은 "자연의 순수한 선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일 중에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상의 것 즉 그의 임금을 이루는 이상의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선물이며 자연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첫째 설명에 있어서는 전체 생산물은 아직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취득된다. 그리고 이 전체 생산물은 두 개 부분으로 분할된다. 첫째 부분은 노동자의 임금을 이루며, 노동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산물 중에서 그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즉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자기에게 지불하는 임금 노동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첫째 부분을 초과하는 둘째 부분은 자연의 선물이며 잉여 가치를 이룬다. 그러나 이 잉여 가치, 이 "자연의 순수한 선물"의 본성은 "토지 경작자-토지 소유자"라는 전제가 사라지고 생산물의 두 부분인 임금과 잉여 가치가 상이한 계급에게 즉 전자는 노동자에게, 후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자 보다 명확히 표시된다.

임금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공업에서건 농업 자체에서건(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최초에는 피고용자로써 *, "농민-소유자"의 56
임금 노동자로서만 나타난다) 노동조건들이 노동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분리의 기초로 되는 것은 토지 자체가 사회의 일부분의 사적 소유로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부분은 자기 노동의 적용을 위한 이 대상적 조건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이다.

"최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경작자와 구별되지 않았다. 근면한 사람은 누구나 그가 [1231]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토지를 발견한 먼 옛날에는 누구도 타인을 위하여 일할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지면이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토지 재산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고용 계급"(즉 수공업자 계급, 요컨대 모든 비농업 일군들의 계급) "의

*원문 stipendies-역자.

직업으로서 실현되는 자기 자신의 노동과 토지 경작자-소유자의 잉여 생산물과를 교환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같은 책 p.12). "토지 경작자-소유자"는 토지가 그의 노동에 대하여 상으로 주는 "상당한 잉여 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그들이 그의 토지를 경작하게"할 수 있었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종류의 노동으로 임금을 얻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토지 경작 노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곧 그렇게 되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경작 노동으로 부터 면제되어 그것을 고용되는 토지 경작자들에게 넘기기 시작한다"(같은 책, p.13). 이리하여 자본과 고용 노동과의 관계는 농업 자체에서 나타난다. 이 관계는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조건들—우선 토지—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게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런데 아무런 상품도 생산할 수 없고 자기의 노동 자체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임금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임금의 최소한 즉 필요 생활 수단의 등가는 필연적으로 노동 조건의 소유자와의 그의 교환에 있어서 법칙으로 된다.

"손과 노동 능력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단순한 노동자는 그가 자기 노동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밖에는 가지지 못한다… 모든 노동 부문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무조건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에 국한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 국한되게 된다"(같은 책, p.10).

그런데 고용 노동이 출현하자마자 "토지 생산물은 두 개 부분으로 분할된다. 즉 그 한 부분은 토지 경작자의 생존 수단과 이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그가 토지 소유자의 전답의 경작을 담당하게 되는 조건을 이룬다. 나머지는 토지 경작자에게 순수한 선물로서, 그가 지출한 수단과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 이상으로 토지가 주는 자립적이며 자유로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자의 몫, 즉 그가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며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57 소득을 이룬다"(같은 책, p.14). 그러나 이 "토지의 순수한 선물"은 이제는 벌써 명확하게, "토지 경작자에게" 토지가 주는 선물로서, 즉 토지가 노동에 주는 선물로서, 토지에 투하된 노동의 생산력으로서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하는 결과 노동이 가지게 되며 그리하여 노동이 토지에서 끌어 내는, 그러나 노동으로서만 토지에서 끌어 내는 그러한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수중에서는 잉여분은 벌

써 "자연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타인 노동을—등가를 주지 않고—취득한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노동을 자연의 생산성에 의하여 그 자신의 수요 이상의 생존 수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노동은 그것이 임금 노동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 생산물 중에서 "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만을 취득하는 데 국한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경작자는 자기 자신의 임금"을 생산하며 그 외에 또 전체 수공업자 기타 고용자 계급에 대한 보수로 되는 소득을 생산한다. 소유자는 토지 경작자의 노동에 의해서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따라서 자연의 순수한 선물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는 토지 경작자에게서 ‖232‖ 자기를 위한 생존 수단과 그가 다른 고용인들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데 쓰는 것을 얻는다

토지 경작자는 인습과 법률 때문에만 토지 소유자를 필요로 한다" (같은 책, p.15).

따라서 여기서는 잉여 가치가 직접 토지 경작자의 노동의 일부분으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 소유자는 등가를 주지 않고 취득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의 생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튀르고의 염두에 있는 것은 교환 가치 그 자체가 아니며, 노동 시간 자체가 아니라 토지 경작자의 노동이 그 자신의 임금 이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잉여 생산물이다. 그러나 이 잉여 생산물은 토지 경작자가 자기 임금의 재생산을 위하여 노동하는 시간 이상으로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하는 분량의 시간이 대상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농업 노동의 한계 내에서는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를 옳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잉여 가치를 임금 노동자의 노동의 생산물로서 고찰하고 있다—비록 이 노동 자체를 그들은 다시 사용 가치로 표시되는 구체적 형태에서 고찰하고 있다 하더라도—는 것을 보게 된다.

기왕이니 말하지만 튀르고는 "토지 임대"라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같은 책, p.21).

〈잉여 가치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유통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넘어 가는 것이, 즉 잉여 가치를 단순히 상품과 상품과의 교환에서가 아니라 바로 생산 내부에서 노동 조건의 소유자와 노동자 간에서 진행되는 그러 58
한 교환에서 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 즉 노동 조건의 소유자와

노동자도 상품 소유자들로서 서로 대립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코 교환과 독립한 생산이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농주의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는 "고용주"이며 기타 모든 생산부문의 노동자와 기업가는 "임금을 받는 자" 즉 "고용자"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또한 "통치자"와 "피통치자"라는 말이 나온다.〉

튀르고는 노동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어느 노동 부문에서나 노동자는 미리 노동 도구와 그의 노동 대상인 충분한 양의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그는 자기의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자기를 유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책, p.34). 이 모든 "선대들", 이 조건들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하며 따라서 그것들은 노동 과정의 전제 조건들인데, 그것들을 토지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열매, 어류, 동물 등등과, 그리고 예컨대 나무 가지, 돌, 가축과 같은 도구들로서 "최초의 선대재화를 토지는 온갖 토지 경작 전에 벌써 제공하였다". 그런데 가축의 수효는 번식 과정에 의하여 증가하며 그 뿐만 아니라 가축은 매년 "우유, 양모, 피혁 기타 재료"와 같은 생산물을 제공하는 데 "그것들은 산림에서 벌채하는 목재와 함께 공업 생산을 위한 최초의 재화를 이루었다"(같은 책, p.34).

그런데 이 노동 조건들, 이 "선대들"은 그것들이 제3자에 의하여 노동자들에게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 자본으로 되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노동자에게서 자기의 노동력 자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순간부터이다.

"다수의 사회 성원에게 있어서 그들의 손만이 생존의 유일한 원천으로 된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자기의 임금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가공을 위한 원료를 가지기 위하여서도 또 그에게 임금이 지불될 때까지 생활하기 위하여서도 미리 무엇인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다"(같은 책, pp. 37~38).

‖ 233 ‖ 튀르고는 "자본"을 "축적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책, p. 38)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경작자는 예컨대 아마 여방적공에게 매일 직접 임금을 지불하고 재료를 제공한다.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선대"를 하며 이 생산 과정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자본의 소유자들"이다. 이러한 "자본의 소유자"는 자기 생산물의 가격에서, 그가 실시한 모든 "선대"와 그가 토지의 구매에 자기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 그 화폐가
59 그에게 가져 올 이윤과 동등한 이윤, 그리고 자기의 "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동일한 이윤을 얻는다면 동일한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조금도 애쓰지 않고 사는 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책, pp.38~39).

"공업에서의 고용 계급"은 이번에는 "자본주의적 기업가와 단순한 노동자"로 구분된다. 운운(같은 책, p.39). "기업가인 차지 농업가"는 이 자본주의적 기업가와 사정이 같다. 그들도 역시 상술한 경우와 같이 모든 "선대"를 보상 받지 않으면 안 되며 그와 함께 이윤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잉여 분은 토지 경작자의 기업의 토대로 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데 쓰인다. 이것은 임차료이며 토지 소유자의 소득이고 순 생산물이다. 왜냐 하면 토지가 모든 종류의 선대와 이 선대를 실시하는 사람의 이윤을 보상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모든 것은 소득으로서 볼 수 없고 토지 경작비의 보상으로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만약 토지 경작자가 이 경작비를 입수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동을 타인의 전답을 경작하는 데 지출하지 않게 될 것이다"(같은 책, p.40).

끝으로 :

"물론 자본은 부분적으로 노동하는 계급들의 이윤의 절약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 이윤은 전부 소득 또는 이 소득의 생산비 중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토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도 역시 소득과 꼭 마찬가지로 토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은 토지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 중에서 소득의 소유자 또는 그가 자기의 소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매년 자기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출하지 않고 남겨 두는 부분의 축적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p.66).

지대는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를 이루므로 지대만이 자본 축적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자본가들이 그 외에 축적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임금"에서 떼어 내는 것이다(즉 그들의 소비에 예정된 그들의 소득에서 떼어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소득으로서 고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토지 경작비로 계산되면 잉여분만이 토지 소유자의 소득을 형성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리카르도파에 있어서와 꼭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지위에도 불구하고 토지

경작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며 그리하여 생산 대표자가 아니게 된다.

중농주의의 발생은 콜베르주의와의 대립과도, 특히는 로(John Law)의 체계의 수치스러운 파산과도 관련되어 있다.

60 [4. 가치와 자연의 소재와의 혼동(파울레티)]

‖ 234 ‖ 가치와 자연의 소재와의 혼동,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의 동일시와, 이 견해와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전체 체계와의 연계는 페르디난도 파울레티의 저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수단』(부분적으로는 베리를 반대하는 데 돌려진 저서인데, 베리는 자기의 저서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1771년)에서 중농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나섰다)에서의 다음과 같은 발췌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토스카나의 파울레티, 상술한 저서, 쿠스토디 편, 제20권, 현대편).

"토지의 산물"과 같이 "소재의 수량이 그렇게 증가하는 일은 의심할 바 없이, 소재에 형태만을 부여하며 소재를 변형시킬 따름인 공업에는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업은 소재에 형태를 부여하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재는 아니더라도 형태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나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부의 창조는 아니며 반대로 지출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 경제학은 농업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재적 및 현실적 생산을 전제로 하며 또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농업만이 부를 형성하는 소재적 대상과 생산물의 수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공업은 농업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그것을 가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업 노동은 이 원료에 형태만을 부여하며 그것에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것을 증대시키지 않는다"(pp.196~197). "요리사에게 식사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양의 완두를 주어 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잘 요리하여 먹을 수 있게 당신의 식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것과 동일한 양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동일한 양의 완두를 소채 재배인에게 파종하도록 주어 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적어도 받은 수량보다 4배나 되는 것을 돌려 줄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유일한 생산이다"(p.197). "물건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하여 가치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또는 이 가치의 증대—는 공업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지출의 결과이다"(p.198) "어떤 것이든 새로운 공업 상품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은 국내 국외로 급속히 보급된다. 그러나 실로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공업과 상인들의 경쟁은 가격을 응당한 수준으로 저하시키는데, 이 수준은… 원료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생존 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pp.204~205).

[5. 아담 스미스에게 있는 중농주의 이론의 제 요소]

자연력이 대대적으로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모든 생산 부문에서보다도 먼저 농업에서이다. 공업에서의 자연력의 적용은 공업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만 볼 수 있다. 다음에 드는 인용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A. 스미스가 여기에서 아직 대공업의 선사(先史)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리카르도가 현대 공업의 관점에서 그에게 대답하고 있는 61
가를 볼 수 있다.

‖235‖ A. 스미스는 자기의 저서(『국부론』-역자) 제2부 제5장에서 지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대는 인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제 또는 보상한 후에 남는 자연의 산물이다. 지대가 총 생산물의 4분의 1 이하를 차지하는 것은 희귀하며 왕왕 총 생산물의 3분의 1을 초과한다. 동등한 양의 생산적 노동을 매뉴팩처에 지출하더라도 결코 그만큼 많은 양의 새로 창조된 가치를 줄 수 없다. 매뉴팩처에서는 자연은 아무 것도 수행하지 않고 모든 것은 사람이 수행한다. 그리고 얻어진 생산물은 항상 그것을 창조하는 생산 대표자의 힘에 비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리카르도는 자기의 저서 『정치 경제학 원리』(1819년 제2판, pp.61~62의 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과연 자연은 공업에서 인간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의 기계와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과 물의 힘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인가? 과연 극히 놀랄 만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공기의 압력 및 증기력은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금속의 연화(軟化) 및 용해시의 열의 작용, 염색과 발효 과정에서의 공기의 작용에 관하여서는 말조차

하지 않겠다.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을, 그것도 아낌없이 그리고 무상으로 주지 않는 공업 부문이란 하나도 찾아 낼 수 없다."

중농주의자들은 이윤을 지대에서 공제한 것으로서만 고찰한다. "중농주의자들은 예컨대 한 조각의 레이스의 가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그것의 일부분은 다만 노동자가 소비한 것을 보상하며 다른 부분은 한 사람의"〈즉 토지 소유자의〉 "호주머니로부터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로 넘어 간다고"(『최근 맬더스 씨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제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 p.96).

이윤(이자도 포함하여)을 자본가의 소비로 들어 가는 소득으로서만 보는 중농주의자들의 견해로부터 또한 자본의 축적은 자본가의 개인적 검약, 절약, 금욕에 기인한다고 하는 A. 스미스와 그 후의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나온다. 중농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만 지대만이 축적의 진정한, 경제적인, 말하자면 합법적인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토지 경작자의 노동은— 튀르고는 말한다—"노동에 대
62 한 보수를 이루는 것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는 유일한 노동이다"(튀르고, 같은 책 p.11).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윤이 천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

‖ 236 ‖"토지 경작자는 이 보상"(자기 자신의 임금의) "이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득을 창조하나 수공업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아무런 소득도 창조하지 않는다"(같은 책, p.16). "토지가 온갖 종류의 선대와 이것을 실시하는 자의 이윤을 보상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모든 것은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토지 경작비의 보상으로만 볼 수 있다"(같은 책, p.40).

A. 블랑키는 『정치 경제학사』, 브뤼셀, 1839년, p.139에서 중농주의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들은 토지의 경작에 돌려지는 노동은 노동자가 노동하는 전 기간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약간의 가치 잉여분"(잉여가치) "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부의 양에 첨가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 잉여분을 순 생산물이라고 칭하였다"(따라서 그들은 잉여 가치를, 그것이 표시되는 사용 가치의 형태로 고찰하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순 생산물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였으며 그의 수중에서 그가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득을 이루었

다. 그러면 다른 생산 부문들의 순 소득은 무엇이었는가?… 공업가, 상인, 노동자,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의 최상의 창조자이며 분배자인 농업의 사용인이며 고용자로 간주되었다. 경제학자들[17]의 체계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노동 생산물은 그들이 노동하는 기간에 그들이 소비한 것의 등가만을 표시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이 끝난 후에 부의 총계는, 만약 노동자나 주인이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고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즉 저축하지만 않았다면 그 이전이나 전혀 동일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토지에 투하된 노동만이 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생산 부문들의 노동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은 사회적 자본의 어떠한 증대도 가져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잉여 가치의 생산에서 보았다. 바로 이 현상을 그들은 설명하여야 하였다. 그들이 중상주의의 "양도 이윤"을 배격한 후에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었다. "화폐를 얻기 위하여서는"—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는 말한다—"그것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 구매 이후에도 사람은 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 그는 다만 그가 상품으로 내어 준 동일한 가치를 화폐로 받았을 뿐이다"(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제2권 p.338). 이것은 ‖237‖ 구매에도 판매에도 타당하며 또한 상품의 모든 형태 변화의 결과에도, 즉 판매와 구매의 결과에도, 상이한 상품들의 가치 대로의 교환에도, 즉 등가물들의 교환에도 타당하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잉여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즉 자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농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문제는 이러하였다. 그들의 오류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라고 동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결과로서 농업 및 축산 *63*
을 공업과 구별케 하는 소재의 증가를 교환가치의 증가와 혼동한 데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용 가치가 기본이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자들의 소위 보편적인 본질에 귀착시키고 있는 모든 상품의 사용 가치는 일정한 형태에서는 농업에서만 증가되는 자연의 소재 그 자체였다.〉

A. 스미스의 번역자이며 그 자신이 중농주의자인 G. 가르니에는 중농주의적인 절약 이론 등등을 정당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공업은 중상주의자들이 온갖 생산에 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상품을 그것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양도 이윤"에 의하여서만 잉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미 창조된 가

치의 새로운 재분배가 진행될 뿐이고 이전에 창조된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첨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의 아무런 새로운 원천도 열어 주지 않는 수공업자 및 공업자의 노동은 다만 유리한 교환에 의하여서만 이윤을 낼 수 있으며 순전히 상대적 가치만을, 즉 만약 교환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가치만을 가진다"(A. 스미스의 『국부론』, 가르니에의 번역 판, 파리, 1802년, 제5권, p.266)[18].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실시하는 절약, 즉 그들이 지출한 것을 공제한 후에 자기에게 남겨 두는 가치는 그들 자신의 소비를 축소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수공업자와 공업가의 노동이 사회의 부의 총량에 대하여 임금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절약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첨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절약에 의하여 사회의 부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같은 책, p.266). 그리고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농업노동자는 자기의 노동 생산물 자체로써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공업 및 상업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소비를 희생으로 하는 절약에 의하여서만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을 구별한 결과이며 이 구별 자체와 마찬가지로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사실상 수공업자와 공업가의 노동은 소재의 가치에 그들 자신의 노동의 가치, 즉 이 노동이 어떤 나라의 어떤 시기에 통용되고 있는 임금과 이윤의 비율에 상응하게 가져 왔어야 할, 임금과 이윤의 가치를 첨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것이 높든 낮든 간에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이룬다. 이것은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예정대로 소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소비함으로써만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릴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누리는 데 사실상 그에 대한 전체 보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이윤도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자본가가 매일같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고찰되고 있으며 자본가는 그의 자본이 그에게 가져 오는 소득에 자기의 향락을 알맞게 한다는 것이 물론 전제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노동자가 그의 노동에 대하여 통용되는 임금율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편의의 약간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만약 자본가가 그의 자본이 가져 오는 소득의 일부를 절약하지 않는다면 전자도 후자도 노동이 끝난 순간에 이 노동에서 나오는 전체 가치를 소비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낭비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

면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 것, 소비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절약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동이 끝난 후에도 사회의 부의 총량은 그 이전과 동일할 것이다. 이 경우에 사회의 부의 총량은 이 절약의 전체 가치만큼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검약에 의하여서 64
만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총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같은 책, pp.263~264).

가르니에는 또한, 절약에 의해서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A. 스미스의 이론은 이 중농주의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감지하고 있다(A. 스미스는 중농주의에 몹시 감염되었는데, 이것을 그는 중농주의에 대한 자기의 비판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시하고 있다). 가르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공업과 상업은 오직 검약에 의하여서만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면 스미스도 꼭 마찬가지로, 만약 경제가 자체의 절약에 의하여 자본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공업은 공연히 움직이는 것으로 될 것이며 나라의 자본은 결코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제2부, 제3장). 이와 같이 스미스는 경제학자들과 완전히 같은 의견이다." 운운(같은 책, p.270).

[6. 자본주의적 대농업의 지지자로서의 중농주의자들]

중농주의의 보급과 그것의 발생 자체까지도 촉진시킨 직접적인 역사적 사정의 하나로서 A. 블랑키는 위에서 인용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로의) "체계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려하게 개화한 모든 가치물 중에서 파멸과 절망과 파산 이외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토지 소유 하나만은 이 폭풍우 속에서도 몰락하지 않았다"〈분명히 그 때문에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서는 토지 소유가 신용 다음에 오고 있다〉 "토지 소유의 지위는 개선되기까지 하였으니, 그것은 아마도 봉건주의 시기 이래 처음으로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넘어 갔으며 광범한 범위에서 세분되었기 때문이다"(같은 책, p.138). 즉 : "그 체계의 영향하에 진행된 무수한 소유의 변경은 토지 소유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토지소유는 그것이 봉건주의 체계로 말미암아 그처럼 오랫 동안 처하

여 있었던 고착 상태에서 처음으로 떨쳐 나왔다. 이것은 농업을 위한 토지 소유의 진정한 각성이었다… 그것은" (토지는) "죽은 손의 체제로부터 유통의 체제로 넘어 갔다"(pp.137~138).

튀르고도 역시 케네와 기타 그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튀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토지의 임대… 이 방식"(현대적인 임대 제도에 기초한 대규모적인 농업) "은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방식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튀르고, 같은책, p.21를 보라). 그런데 케네는 자기의 『농업 국가의 경제 정책의 일반적 원칙』중에서 다음
65 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곡물 경작에 돌려진 토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부유한 토지 경작자"(즉 자본가) "에 의하여 이용되는 대차지 농장에 합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농업 기업에서는 소기업에 비하여 건물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비가 비교적 훨씬 더 적고 순 생산물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중농주의자들』 데르판, 제1부, pp.96~97]. 동시에 케네는 이 부분에서 농업 노동의 생산능률의 결과는 "순 소득" 부분에 해당되며 따라서 우선 토지 소유자 즉 잉여 가치의 소유자에게 돌아 간다는 것 그리고 이 잉여 가치의 상대적인 증가는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책들, 기타 이와 유사한 대책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240 ‖ 그 이유를 그는 상기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동물, 기계, 수력 등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온갖 유리한"〈즉 "순 생산"을 위하여 유리한〉 "절약은 주민의 이익으로 된다" 운운.

동시에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는(같은 책, 제2권, p.407) 잉여 가치라는 것은 적어도 공업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튀르고는 이 점을 모든 생산부문에 확대시키고 있지만) 공업 노동자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나마 감지하고 있다. 위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

"매혹적인 공업 생산물의 맹목적인 예찬자들이여, 너희들의 열광증을 식히라! 공업의 기적을 찬양하기 전에 눈을 뜨고 이십 수*를 천 에큐**의 가치로 전화시키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 자신은 얼마나 가난하며

---

*프랑스의 동화-역자.

** 프랑스의 은화-역자.

적어도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라! 도대체 가치의 이 방대한 증대에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보라, 제 손으로 그것을 창조하는 자들은 유족함을 모른다! 이 대조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라!"

[7. 중농주의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있는 제 모순. 중농주의자들과 프랑스 혁명]

전체로서 본 경제학자들의 체계의 제 모순. 케네도 절대군주제의 지지자의 한 사람이었다. "권력은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통치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있는 제도는 파멸적이며, 그것은 다만 윗사람들 사이에서의 알력과 아래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드러내 놓을 따름이다." (위에서 인용한 "…일반적 원칙"[『중농주의자들』, 데르 판, 제1부, p.281]). 메르 66
시에 드 라 리비에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인간은 사회에서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벌써 그는 전제 제도의 권력 하에서 살게 마련이다." (『정치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제1권, p.280). 그리고 더구나 "인민의 벗"[19], 미라보 후작 즉 노(老)미라보도 그러하다! 그리고 바로 이 학파가 자기의 레쎄 페르, 레쎄 알레르*로써 콜베르주의와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온갖 간섭을 배격하고 있다. 이 학파는 마치, 에피쿠로스의 학설에 의하면 신들이 우주의 빈틈들에 거주하듯이 국가를 이 사회의 빈틈들에서만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토지 소유의 찬양은 실제로는 오직 지대에만 과세하라는 요구로 전화하며, 여기에 국가에 의한 토지 소유의 몰수의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리카르도 학파의 급진 분자들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뢰드레르 기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은 이 조세 이론을 채택하였다.

튀르고 자신이 급진적인 부르조아 대신이었으며 그의 활동이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었다. 중농주의자들은 허위적인 봉건적 외관이 농후하였지만 백과사전파와 손을 잡고 있다.‖ 240 ‖

‖ 241 ‖ 튀르고는 프랑스 혁명의 시책들을 예견하려고 시도하였다. 1776년의 2월 포고에 의하여 그는 동업 조합들을 폐지하였다.(이 포고는 발포 후 3개월이 지나 철폐되었다) 또한 튀르고는 농민들을 도로 공사 부역에

* 원문 laissez faire, laissez aller. [p.56의 각주를 보라]—역자.

서 해방하였고 지대에 대한 단일세를 실시하려고 시도하였다.[20]

‖241‖ 우리는 후에 다시 한 번, 자본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농주의자들이 세운 거대한 공적에 언급하겠다.[21]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 두는 데 그치겠다. 즉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잉여 가치는 특수한 종류의 노동인 농경의 생산성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수한 생산성은 대체로 자연 자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중상주의에 의하면 잉여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한편이 이득을 보는 것은 다른 한편이 상실하는 것이다. 즉 "양도 이윤", 또는 "쌍방 간에서의 부의 몫의 동요"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총자본을 고찰한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잉여 가치의 형성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 날 수 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실현하는 잉여 분은 화폐로(무역 수지에서) 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가 교환 가치의 직접적이며 자립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왜냐하면 중상주의는 사실상 절대적 잉여 가치의 형성을 부정하기 때문에—중농주의자들은 절대적 잉여 가치인 "순 생산물"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농주의자들은 사용 가치에 매달리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업이 이 "순 생산물"의 유일한 창조자로 되고 있다.

67

[8. 프러시아 반동 분자 쉬말쯔에 의한 중농주의 학설의 비속화]

중농주의의 가장 소박한 대표자의 한 사람을—튀르고에 이르기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다 하더라도!—우리는 데마고그[22]를 적발하는 노련한 전문가이며 프러시아 왕의 추밀 고문관이었던 쉬말쯔에게서 보게 된다. 예컨대 쉬말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만약 자연이 그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법에 의하여 설정된 화폐 이자보다 2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면 어떠한 명확한 이유에서 그의 이 소득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정치 경제학』, 앙리 쥬프루아의 번역본, 제I권, 파리, 1826년, p.90)[23].

임금의 최저한은 중농주의자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즉 노동자들의 소비(또는 비용)는 그들이 받는 임금과 동등하다고 표현되고 있다. 또 쉬

말쯔 씨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저러한 직업에서의 평균 임금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작업 기간에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것과 동등하다"(같은 책, p.120).

"지대는 국민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242이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도 온갖 종류의 노동에 대한 임금도 이 지대라는 생산물을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시킬 따름이다"(같은 책, pp.309~310).

"국부는 매년 지대를 생산하는, 토양의 능력에 불과하다"(같은 책, p. 310). "만일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모든 물건의 가치의 기초 자체, 시초적 요소에 언급한다면 이 가치는 단순한 자연 생산물의 가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은 비록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이리하여 그것들의 가격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가치 또는 이 가격은 노동자들이 소비하였거나 물건들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하게 사용한 자연 생산물 전체의 가치 총액으로써만 이루어진다"(같은 책, p.313).

"이러한 종류의 노동(본래의 의미에서의 농업) "은 생산적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새로운 물체의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가공공업에서의 노동은 자연에 의하여 생산된 물체에 다만 새로운 형태를 부여할 뿐이다"(같은 책, pp.15~16).

[9. 농업 문제에 있어서의 중농주의적 편견에 대한 초기의 비판(베리)]

중농주의자들의 편견을 반대함.

베리(피에트로)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1771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다), 쿠스토디 판, 현대판, 제15권.

"우주의 모든 현상은 그것들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나온 것이든 또는 자연의 전반적 법칙에 의하여 나온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물질의 실제적인 창조에 관한 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질의 형태 변화에 관한 사상만을 준다. 결합과 분리야말로 인간 이성이 생산에 관한 사상을 68
분석하면서 발견하는 유일한 요소들이다. 토지, 공기 및 물이 전답에서 밀로 전화되든, 인간의 손에 의하여 곤충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견직물로 전화되든 또는 몇 개의 금속 조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시계를 형

성하든 다 마찬가지로 가치 및 부의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다"(pp.21~22). 그리고 또 : 중농주의자들은 "공업 노동자 계급을 비생산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공업 제품의 가치는 원료와, 이 원료를 가공하는 시간에 공업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 수단과를 합한 것과 동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25).

‖ 243 ‖ 베리는 이와 반대로 공업 노동자들은 누진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농민은 항시적인 빈궁에 처하고 있는 데에 주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 "이것은 공업가가 그가 받는 가격에서, 소비된 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정한 액을 얻으며 그리고 이 액은 연간 생산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치 양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p.26). "생산된 가치는 농업 또는 공업 생산물의 가격 중에서 재료의 최초 가치와 재료의 가공에 필요한 소비 비용을 초과하는 잉여 부분이다. 농업에서는 종자와 토지 경작자의 소비가 공제되어야 하며 공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료와 노동자의 소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는 이러한 것을 공제하고 남는 것 만큼 매년 창조된다"(pp.26~27).

[제 3 장]

아 담 스 미 스

[1. 가치에 대한 스미스의 상이한 두 가지 규정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된 노동량에 의한 가치의 규정과 이 상품과의 교환에서 구매되는 산 노동량에 의한 가치의 규정]

주목할 만한 모든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A. 스미스는 그가 "임금의 자연 가격"이라고 부른 평균 임금의 개념을 중농주의자들에게서 취하였다 :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할 가능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다수 경우에 이 수준을 약간 초과하기까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자는 자기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노동자의 자손은 바로 첫 세대에서 멸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제1권, 제1부, 제8장, p.136).

A. 스미스는 노동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자 자신의 이익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확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게 된다(제1부, 제8장, 맥컬로크 판, 런던, 1828년) : "노동 생산물은 노동에 대한 자연적 보수, 즉 그의 임금을 이룬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과 자본의 축적에 선행하는 원시적 사회 상태 하에서는 전체 노동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속한다. 그가 같이 나누어야 할 토지 소유자도 고용주도 없다. 만약 이러한 사회 상태가 존속하였더라면 노동 보수는 분업에 의하여 생겨나는 노동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성장하였을 것이다. 모든 물건은 점차 저렴하게 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자체의 재생산

을 위하여 보다 적은 노동량을 요구하는 모든 물건은 그렇게 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더욱 더 저렴하게 되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저렴하게 되었다.〉 "그것들의 생산에는 더욱
70 더 적은 노동량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노동량의 지출로 생산된 상품들은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자연 서로 교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역시 보다 적은 노동량의 생산물로 구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기 노동 생산물의 전체를 취득하는 원시적 사회 상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와 자본의 축적이 발생한 후에는 유지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는 노동 생산력의 증대에서 아주 현저한 성과가 달성되기 훨씬 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가 노동 보수, 즉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제1권, pp.107~109).

여기서 A. 스미스는 노동 생산력이 실지 대규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전화되고 또한 노동 조건이 이미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로서, 다른쪽으로는 자본으로서 노동에 대립하게 되는 시기부터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생산력의 발전은 오직 노동자 자신이 벌써 이 발전의 결과를 취득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노동 생산물(또는 이 생산물의 가치)이 노동자 자신에게 속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생산력의 이러한 증대가 "임금"—여기서는 노동 생산물과 같다—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또는 가져 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전혀 무익하다.

A. 스미스는 심히 중농주의적 사상에 물들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농주의자들에게 속하는, 그리고 그 자신이 제기한 견해들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완전한 층이 왕왕 그의 저작을 관통하고 있다. 예컨대 지대에 관한 학설 등등에서 그러하다. 스미스의 저작 중에서 그에게 특징적이 아니며 그가 단순히 중농주의자로 나서고 있는 이 구성 부분들[24]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는 완전히 도외시될 수 있다.

이 저작의 첫 부분에서 상품 분석과 관련하여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은 것을 논증하였다.[25] 즉 A. 스미스는 교환 가치의 상이한 규정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특히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산 노동량, 즉 결국 같은 말이지만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 사이

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것, 그의 첫번째 규정은 두번째 규정과 혼동되기 도 하고 두 번째 규정에 의하여 구축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두번째 규정에서 스미스는 노동의 교환 가치, 사실은 임금을 상품 가치의 척도로 삼고 있다. 왜냐 하면 임금은 일정한 양의 산 노동과 교환하여 구입되는 상품량과 같으며 또는 일정한 양의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과 71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며 다른 상품들의 가치와 아무런 특별한 차이도 없다. 여기서는 가치 자체가 가치의 기준으로 또 가치 설명의 기초로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악순환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서술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동요와 또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규정들의 이 혼동은 잉여 가치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미스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스미스가 자기의 명제들을 전개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는 심지어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상품의 교환 가치의 정당한 규정, 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에 지출된 노동량 또는 노동시간에 의한 상품의 교환 가치의 규정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4 ‖

‖ Ⅶ-283a ‖ 〈A. 스미스가 자기의 저작 중에서—여기에서 그는 실제 사실들을 설명하면서—얼마나 자주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량을 가치로서 그리고 가치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고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실례로써 증명할 수 있다. 이 자료의 일부분은 리카르도에 의하여 인용되었다. 분업과 기계의 개량이 상품 가격에 주는 영향에 관한 스미스의 전체 학설은 이에 입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 부분만 인용하여도 충분하다. 제1부 제11장에서 A. 스미스는 지난 세기들에 비하여 그의 생존 당시에는 많은 매뉴팩처 상품들이 저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이 물건들의 제조를 위하여는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이 요구되었으며 ‖ 283b ‖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제공되자 그것들은 보다 많은 노동량의 가격과 교환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입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제2권, p.156)〉 ‖ Ⅶ-283b ‖

‖ Ⅵ-245 ‖ 그런데 다음으로는 상술한 모순과, 한 설명 방식으로부터 다른 설명 방식으로의 이행은 A. 스미스에게 있어서 보다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리카르도는 스미스의 모순을 드러내 놓기는 하였으나 보다 깊은 이 근원을 간과하였으며 그가 지적한 모순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였고 따라서 또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모든 노동자가 상품 생산자

이며 그들은 자기의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자. 이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만약 상품이 가치 대로 판매된다고 하면 노동자는 12노동시간의 생산물인 상품으로써 다시 다른 상품의 형태로 있는 12노동시간을, 즉 다른 사용 가치에 실현되어 있는 12노동시간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그의 노동의 가치는 그의 상품의 가치, 즉 12노동시간
72 의 생산물과 동등하다. 판매와 그에 뒤따르는 구매, 한 마디로 말하여 전 교환 과정—상품의 형태 변화—은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도 가져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이 12노동시간이 표시되고 있는 사용 가치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노동 생산물의 가치와 동등하다. 첫째로 상품들에 있어서는—그것들이 자기의 가치 대로 교환되는 한—동등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이 교환된다. 그런데 둘째로는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이 동등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과 교환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산 노동은 노동자에게 속하는 상품인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는 이 상품이 동등한 크기의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이 동등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과 교환된다. 그리하여 상품은 상품과, 그것들이 동등한 양의 노동 시간을 대상화된 것으로서 표시하고 있는 비율로 교환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이, 동등한 양의 노동을 대상화된 것으로서 표시하고 있는 상품과 교환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노동의 가치(일정한 노동량으로써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 또는 일정한 상품량으로써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과 꼭 마찬가지로 상품 가치의 척도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항상 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산 노동량과 동등한 노동량을 대상화된 것으로서 표현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산 노동 시간은 항상 동등한 노동 시간이 대상화된 것으로서 표시될 일정한 양의 상품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대상적 제 조건이 한 계급 또는 몇몇 계급에 속하고 있는데 다른 계급인 노동 계급에게는 노동력만이 속하고 있는 모든 생산 방식 하에서는—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하에서는—정반대의 현상이 존재한다. 노동 생산물 또는 노동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은 그와 동등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을 처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품에 대상

화된 일정한 양의 노동은 상품 자체에 포함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산 노동을 처분한다.

그런데 A. 스미스는 아주 정당하게도 상품 및 상품 교환을 출발점으로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생산자는 처음에 상품 소유자로서—상품의 판매자 및 상품의 구매자로서—만 서로 대립하고 있으 73
므로 그는 자본과 임금 노동간, ‖246‖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 간의 교환에 있어서는 일반적 법칙은 즉시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품들(왜냐하면 노동도 그것이 매매되는 한에 있어서 상품이기 때문이다)은 이미 그것들에 표시된 노동량에 따라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노동 조건이 이미 토지 소유와 자본의 형태로서 임금 노동자에게 대립하게 되자마자 노동 시간은 상품의 교환 가치를 규제하는 내재적인 척도가 아니게 된다고. 스미스는 오히려—리카르도가 그에 관하여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다음과 같은 반대의 결론을 내려야 하였을 것이다. 즉 "노동의 양"과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따라서 또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는, 그것이 비록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제되기는 하지만 벌써 후자의 표현은 그것이 전자와 동일한 것인 한에 있어서만 정당한 것이므로 더는 노동의 가치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다고.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물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의 가치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이 가치 또는 노동의 가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 자체가 가치 척도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가치 척도로 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며 무의미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서는 앞으로 맬더스와 관련하여[27]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어떠한 상품으로써 구매하는 노동은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과 동일한 의미에서 척도의 의의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는 다만 후자의 지표일 따름일 것이다.

어쨌든 A. 스미스는 상품의 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에서, 명백히 이 법칙과 완전히 대립하며 또 이와 모순되는 원칙들에 입각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 간의 교환을 도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 자본이 노동력이 아니라 직접 노동에 대립하는 한에서는 이 모순은 설명될 수 없었다. A. 스미스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에 지출되는 노동 시간은 노동력 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는 캉띠용의 저서 『상업 일반의 본성에 관한 논술』*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인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저자는" —스미스는 캉띠용에 관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힘이 센 노예의 노동은 그의 유지에 필요한 지출보다 2배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데, 가장 약한 노동자의 노동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힘이 센 노예의 노동에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첨가하고 있다."(제1부, 제8장 p.137. 가르니에 역, 제1권).

74 다른 한편으로 A. 스미스가 그를 당황케 한 사정과 상품 상호간의 교환을 규제하는 법칙과의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상품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비례하여 진행되는 그것들의 교환은 이 상품들의 생산자들이 생산물 *A*와 *B*를,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의 가치를 상호 분배하는 비율에 의하여서는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생산물 *A*의 일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일부분은 자본가에게, 세째 부분은 노동자에게 돌아 간다고 하면 그들이 얻는 몫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A* 자체가 자기 가치에 따라 *B*와 교환된다고 하는 사태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 오지 않는다. 두 개 상품 *A*와 *B* 각자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의 비율은 *A*또는 *B*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이 어떻게 상이한 인물들에 의하여 취득되는가 하는 데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마포와 나사(羅絲)와의 교환이 진행된다면 나사의 생산자는, 이전에 그가 나사에서 가지고 있던 몫과 꼭 같은 몫을 마포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철학의 빈곤』, p.29)[28]. 리카르도 학파의 사람들이 나중에 스미스를 반대하여 아주 정당하게 제기한 결론도 바로 이러하였다. ‖ 247 ‖ 또한 맬더스주의자 존 케이즈노브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상품의 교환과 분배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사정이 언제나 후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떠한 한 상품의 생산비의 감소는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한 그것의 비율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상품 자체의 분배를 반드시 변경시키거나 또는 어떻게든 다른 상품들의 분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어나는 전반적 가치 감소는 그것들 상호 간의 비율을 변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들의 분배에 반영될 수 있다—그러나 반영 안

---

* 원문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역자.

될 수도 있다"운운(존 케이즈노브, 맬더스의 저서 『정치 경제학에서의 제 정의』, 런던, 1853년의 자기 판에 대한 서문).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 자신 간의 생산물 가치의 "분배"는 상품들의 교환—상품들과 노동력 간의 교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A. 스미스에게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A. 스미스가 가치 척도로서 노동의 가치도 또는 이러저러한 상품(또는 화폐)이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취한 사정은 그가 가격 이론을 전개하며 이윤률에 대한 경쟁의 영향 등등을 연구하고 있는 곳에서 그의 사고 과정을 교란하였으며, 무릇 그의 저작에서 온갖 통일을 상실케 하였고, 그의 연구 범위에서 많은 본질적 문제들이 제외되는 원인으로까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잉여 가치에 관한 그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스미스가 여기에서는 항상 다양한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된 노동 시간에 의한 정당한 75
가치 규정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의 서술로 넘어 가자.

그러나 미리 하나의 사정에 관하여 더 언급하여야 하겠다. A. 스미스는 다양한 사물들을 혼동하고 있다. 첫째로 제1부, 제5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사람은 제1차적인 생활 수단, 편의 및 쾌락을 자기에게 보장해 주는 수단을 그가 가지는 정도에 따라 부유하거나 또는 가난하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분업이 확립된 후에는 사람은 이 물건들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만을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타인의 노동에서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구매할 수 있는 노동의 양에 따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몸소 소비하지 않고 다른 물건들과 교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거나 또는 획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노동의 양과 동등하다. 그리하여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의 현실적 척도이다."(제1권, pp.59~60)

다음으로 : "그것들"(상품들) "은 전제에 의하면‖ 248 ‖ 일정한 시기에 동등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교환하는 일정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한다… 세계의 전체 부는 처음에는 금이나 은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노동으로써 획득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치는 부를 가지

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어떤 새로운 생산물들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것들로써 구매할 수 있거나 또는 획득하여 처리할 수 있는 노동의 양과 정확하게 동등하다"(제1부, 제5장, pp.60~61).

마지막으로 : "홉스 씨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이것은 힘이다. 그러나 큰 재산을 획득하거나 상속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와 함께 민사상이건 군사상이건 간에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가 그에게 즉시로 그리고 직접 주는 힘은 구매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의 전체 노동 또는 시장에 존재하는, 이 노동의 전체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곳, p.61).

우리는 이상의 모든 부분들에서 스미스가 "타인의 노동"과 "이 노동의 생산물"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분업이 확립된 이래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상품으로, 즉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노동량, 체화된 타인의 노동량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타인의 노동량은 그 자신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과 동등하다. 스미스는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상품들은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일정한 시기에 동등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교환하는 일정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분업에 의하여 생긴 변화, 즉 부는 벌써
76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이 상품으로 획득하여 처리하는 타인의 노동량에, 즉 그가 구매할 수 있으며 또 이 생산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적 노동량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에는 교환가치의 개념, 즉 나의 노동은 다만 사회적인 것으로서만 나의 부를 규정하며 따라서 이 부는 동등한 양의 사회적 노동을 나의 처리에 내맡기는 나의 노동 생산물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따름이다. 일정한 양의 필요 노동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나의 상품은 나에게 동등한 가치를 가진 온갖 다른 상품, 따라서 다른 사용가치에 실현되고 있는 동등한 양의 타인의 노동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분업과 교환 가치에 의하여 초래된, 나의 노동과 타인의 노동, 다시 말하면 사회적 노동과의 등치(나의 노동이나 나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이미 사회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또 그것은 자체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담에게서는 간과되고 있다) 이지, 결코,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 간의 차이가 아니며 또 그것들

의 교환의 특수한 법칙이 아니다. 사실상 A. 스미스는 여기에서, 상품의 가치는 그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상품 소유자의 부는 그가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노동과 노동 생산물과의 동일시 ‖ 249 ‖는 실제상 벌써 여기에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과 이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산 노동량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 즉 노동의 가치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과를 혼동케 하는 첫째 계기로 되고 있다. 만약 A. 스미스는 "사람의 부는 이 힘의 크기, 즉 그 사람이 자기의 부로써 처리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 또는 같은 말이지만"(이것은 그릇된 동일시이다!) "그가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 생산물에 정확히 비례하여 크거나 또는 작다"(같은 곳, p.61)고 말한다면 그는 꼭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사람의 부는 그의 "부"를 이루고 있는 그 자신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량에 상응한다고. 이에 대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들"(상품들)"은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일정한 시기에 동등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교환하는 일정한 양의 노동의 가치를 포함한다"(여기에서 77
"가치"라는 말은 불필요하고 또 무의미하다). 그릇된 결론은 벌써 같은 제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리하여 노동은 그 자체의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며 비교하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이며 종국적인 척도이다"(같은 곳, p.66). 노동 자체, 따라서 그것의 척도인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 것 즉 상품의 가치는 항상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건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변화하는 노동의 가치 자체에 대하여서도 해당한다.

여기에서 A. 스미스는, 우선은 아직 상품 교환 일반, 즉 교환 가치의, 분업의, 그리고 화폐의 본성을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 교환의 참가자들은 아직 상품의 소유자로서만 서로 대립한다. 그들은 타인의 노동을 상품의 형태로서 구매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노동도 상품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리하는 사회적 노동의 양은 그들 자신이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과 동등하다. 그러나 A. 스미스는 그 다음 장들에서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교환으로 넘어 가고 또 그 경우에 상품의 가

치는 이제는 벌써 그 상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이것과는 다른, 타인의 산 노동의 양—이 상품으로 획득하여 처리할 수 있는 즉 구매할 수 있는—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은 사실상, 상품들 자체가 이제는 벌써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상응하게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만 치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의 증식, 그리고 이 증식의 정도가 대상화된 노동에 의하여 운동하게 되는 산 노동량의 다소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옳다. 그러나 이 경우에 스미스에게는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

[2. 잉여 가치에 관한 스미스의 일반적 개념 이윤, 지대, 이자를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로 보는 견해]

A. 스미스는 제1부 제6장에서 생산자들이 다만 상품의 판매자 겸 상품의 소유자로서 서로 대립한다고 가정되고 있는 관계로부터 노동 조건의 소유자와 노동력만의 소유자 간의 교환 관계에로 넘어 가고 있다.

78 "자본의 축적과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에 선행하는 원시적이며 발전되지 않은 사회 상태에서는 상이한 교환 대상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명백히 교환을 위한 규범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 보통 2일 또는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은 보통 1일 또는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되는 생산물보다 2배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연적이다"(제1권, 제1부, 제6장, pp.94~95. 가르니에 역).

그리하여 다양한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그것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 다시 말하면 그것들의 교환 가치를 규정한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전체 노동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보통 어떠한 상품의 획득 또는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량은 보통 이 상품으로 구매, 처분 또는 교환할 수 있는 노동량을 규정하는 유일한 사정이다"(같은 곳, p.96).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노동자는 상품의 단순한 판매자이며 그리고 한 사람은 그가 자기의 상품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에만 그 타인의 노동을 처리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상품으로써 그 자신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만큼의 타인의 노동을 처분한다. 왜냐 하면 양자는 다만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며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 또는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개개인의 수중에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 근면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원료와 생활 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판매에서 또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공되는 원료의 가치에 첨가하는 것에서 이윤을 끌어 내려고 그 자본을 이용하기 시작한다"(같은 곳, p.96).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인용문을 잠시 고찰하여 보자. 우선 생존 수단도, 노동하기 위한 원료도 없는 "근면한 사람들", 즉 지반을 상실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스미스의 표현에서 소박한 형태를 벗겨 버린다면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귀착된다 : 즉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조건이 한 계급의 소유로 되고 다른 계급은 노동력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동 조건으로부터의 노동의 이러한 분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둘째로 "고용주"가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판매에서 또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251‖ 가공되는 원료의 가치에 첨가하는 것에서 이윤을 끌어 내려고" 노동자들을 사용한다고 A. 스미스가 주장할 때에 그는 무 79
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는 이것으로써 이윤은 판매에서 발생한다는 것, 상품은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된다는 것, 따라서 이윤은 "관계자 쌍방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스튜어트의 이른바 "양도 이윤"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자신의 답변을 들어 보자 :

"화폐 또는 노동"(여기에 또 새로운 오류의 근원이 있다) "또는 다른 상품들과의 완제품의 교환에 있어서는 원료의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만한 것에, 이 사업에 자기의 자본을 걸고 모험을 하는 기업가의 이윤을 이루는 얼마간의 금액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곳). 이 "모험"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이윤의 변호론적 설명에 관한 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노트 Ⅶ, p.173를 보라)[29]. "완제품의 교환시에 기업가의 이윤을 이루는" 이 "얼마간의 금액"은 상품을 그가치 이상으로 판매하는 데서

---

* 이책, pp. 43~44를 보라—편집자.

발생하는가? 즉 그것은 스튜어트의 이른바 "양도 이윤"인가?

"그러므로"—하고 곧이어 아담은 계속하고 있다—"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이제는"(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생한 때로부터는) "두 개 부분으로 분할된다. 그 중 일부분은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며 다른 부분은 임금과 가공되는 원료에 선대된 자본 총액에 대한 기업가의 이윤을 지불한다."(같은 곳, pp. 96~97).

그리하여 스미스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 "완제품의 판매"시에 획득되는 이윤은 판매 자체에서,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되는 데서 발생하지 않으며, 그것은 "양도 이윤"이 아니라고. 사태는 이와 정반대이다. 가치 즉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노동량은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일부분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이미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으로 지불되었다. 노동자들은 이 부분으로써, 그들이 임금의 형태로 받은 그만한 양의 노동을 도로 줄 뿐이다. 다른 부분은 자본가의 이윤을 이룬다. 즉 그것은 자본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일정한 양의 노동이다. 따라서 만약 자본가가 상품을 그 가치 대로 즉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따라 판매한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상품과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이 가치 법칙에 따라 판매한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상품과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이 가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자본가의 이윤은 그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일부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리하여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자기의 사상, 즉 만약 노동자의 노동의 전체 생산물이 이제는 그에게 속하지 않고 그는 이 생산물—또는 그것의 가치—을 자본의 소유자와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 즉 그것들의 교환가치는 그것들에 물
80 질화되어 있는 노동 시간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법칙이 제거된다는 사상을 스스로 반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본가의 이윤을 바로, 자본가가 상품에 첨가된 노동의 일부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판매시에 자본가가 얻는 이윤은 바로 그 때문에 발생한다는 데서 끌어 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나중에 더 한층 문자 그대로 이윤을,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즉 등가로써 보상하는 노동량을 초과하여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에서 끌어 내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미스는 잉여 가치의 진정한 근원을 파악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극히 명백하게 잉여 가치는 선대 자본에서 ‖252
| 발생하지 않고 이 선대 자본의 가치는, 그 자본이 현실적 노동 과정에서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단순히 생산물에 재현될 따름이며, 잉여 가치는 이 자금이 노동 수단 또는 노동 도구로서 등장하는 새로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새로운 노동에서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화폐 또는 노동 또는 다른 상품들과의 완제품의 교환에 있어서는"이라는 표현(이것은 상술한 혼동에 기초하고 있다)은 잘못이다.

자본가가 상품을 화폐 또는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윤은 그가 지불한 것보다도 많은 노동량을 판매하는 데서, 자본가가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과 동등한 양의 산 노동과를 교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A. 스미스는 "화폐 또는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과 "노동과의 완제품의 교환"을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종류의 교환에서는 잉여가치는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즉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일부분은 지불되지 않은 노동 시간 대로 교환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본가가 일정한 양의 과거 노동과 동등한 양의 산 노동과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취득하는 산 노동의 양은 그가 지불한 산 노동의 양보다 크다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생산물의 가치와 동등하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화폐 또는 상품과의 "완제품"의 교환시에 얻어지는 이윤은 그것들이 가치 대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완제품"과 산 노동과의 교환이 다른 법칙들에 종속되는 데서, 즉 이 경우에는 등가물들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경우들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이윤은 노동자들이 노동 재료에 첨가한 가치로부터의 공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료에 새로운 노동량 이외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두 개 부분 81
으로 분할된다. 즉 그 중 한부분은 그 대가로 노동자가 자본자에게서 등가물인 임금을 받는 부분이며 다른 부분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주며 이윤을 이루는 부분이다. A. 스미스는 노동자가 재료에 새로 첨가하는 노동(가치) 부분만이 임금과 이윤으로 분할되며 따라서 새로 창조된 잉여 가치는 재료와 기구에 지출된 자본 부분과는 절대로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다.

A. 스미스는 이와 같이 이윤을 타인의 부불(不拂) 노동의 취득에 귀착시킨 다음에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에 대한 이윤은 특수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 및 관리 노동에 대한 임금의 다른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97). 그리고 그는 "감독 및 관리의 노동"에 관한 이 그릇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의 한 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30] 여기서는 다만 A. 스미스가 이윤의 기원에 관한 자기의 견해가 이 변호론적 견해와 대립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견결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립을 강조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253 ‖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노동자에게 그 노동의 전체 생산물이 언제나 속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 경우에 그는 노동 생산물을 자기를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어떠한 상품의 획득 또는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량은 이 상품으로써 보통 구매, 처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노동량을 규정하는 유일한 사정은 아니다. 추가량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선대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이 얻는 이윤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같은 곳, p.99).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을 예로 든다면 대상화된 노동—화폐 또는 상품으로 표시된—은 항상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 외에 또한 산 노동의 "추가량"을 구매하는 데, 이것은 "자본이 얻는 이윤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상화된 노동은 산 노동의 일부를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것, 즉 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리카르도보다 스미스가 우수한 점은 이 전변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정을 스미스가 정력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데 있다. 이와 반대로 스미스는 연구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반박한 견해, 즉 물질화 노동과 산 노동 간의 교환에 있어서 생기는 이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물질화된 노동,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을 서로 대표할 따름인 상품들의 상대적 가
82 치 규정에서 변화가 일어 난다는 견해를 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리카르도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스미스는 잉여 가치의 한 형태인 이윤 형태의 잉여 가치를 노동자가 그의 임금을 보상하는 노동 부분 이상으로 수행하는 노동 부분으로서 표시한 다음, 그는 또한 잉여 가치의 다른 형태인 지대에 대하여서도 동

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으로부터 소외(疏外)되었으며 따라서 타인의 소유로서 그것에 대립하고 있는 물질적 노동 조건의 하나이다. 토지 자체, 토지 소유로서의 토지는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소유자"에 관하여 말을 끝마친 다음에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이러저러한 나라에서 전체 토지가 사적 소유로 전화되자마자 토지 소유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가 씨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며 또 토지의 자연적 열매에 대하여까지도 지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그"(노동자)"는 그가 자기의 노동으로써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부분의 가격은 지대를 이룬다…"(같은 곳, p.99).

그리하여 지대도 고유한 의미에서의 산업 이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재료에 첨가하는 노동의 일부분, 즉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그가 양도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노동 시간 중, 노동자가 장기의 임금을 보상하는, 또는 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의 등가를 반환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잉여 노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A. 스미스는 잉여 가치 즉 잉여 노동—수행되어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 중 지불된 노동을 초과하는, 따라서 임금으로 자체의 등가를 받은 노동을 초과하는 잉여 분—을 일반적 범주로서 이해하고 ‖245‖ 이것에 대하여 고유한 의미에서의 이윤과 지대는 그 곁가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그는 잉여 가치 그 자체를 고유한 범주로서, 그것이 이윤과 지대로서 취하는 특수한 형태들과 구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리카르도는 보다 더 심하지만—연구에서 많은 오류와 결함들을 노출시켰다.

잉여 가치가 표시되는 다른 형태는 자본 이자, 대부 이자(화폐 이자)이다. 그러나 이 "화폐 이자는"(스미스는 같은 장에서 말하고 있다) "항상 파생적인 소득인데, 이것은 만약 그것이 이 화폐의 적용에 의하여 얻어진 이윤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다른 소득 원천에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지대에서나, 또는 임금에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의 경우에 평균 임금을 취한다면 이자는 잉여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서의 공제로서 임금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은 이윤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연구 과정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이자가 발전되지 않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보게 된다)[31] "차용자가 최초의 부채에 대

83 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채를 지는 낭비자가 아니기만 하다면 이상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곳, pp.105~106). 그리하여 이자는 우선 대부되는 자본이 얻는 이윤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자는 이윤 자체의 파생적 형태이며 그의 곁가지이다. 즉 이것은 이윤의 형태로 취득된 잉여 가치가 차후에 다양한 인물들 간에서 분배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는 이자는 지대에서도 지불된다. 이 경우에도 사태는 동일하다. 또는 마지막으로 차용자는 자기 자신의 자본 또는 타인의 자본에서 이자를 지불한다. 이 경우에 이자는 결코 잉여 가치가 아니며,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가 다르게 분배되는 것, "양도 이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관계자 쌍방 간에서의 부의 비중상 변동"에 불과하다. 이자가 결코 잉여 가치가 아닌 마지막 경우를 제외한다면(그리고 이자가 임금에서의 공제이거나 또는 그 자체가 이윤의 한 형태인 경우를 제외한다면—이 후자의 경우에 관하여는 아담은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자는 잉여 가치의 파생적 형태에 불과하며, 이윤 또는 지대의 일부에 불과하다(이윤과 지대의 분배와 관련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또한 이자도 부불 잉여 노동의 일부 이외의 다른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자부로 대부되는 화폐 자산을 대부자는 항상 자본으로 간주한다. 그는 그것이 정해진 기간에 자기에게 반환되며 그리고 그 동안 자본을 이용한 데 대하여 자기에게 차용자가 일정한 연 임료*를 지불할 것을 기대한다. 차용자는 그것을 자본으로서나 또는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자금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자본으로서 이용한다면 그는 그것의 가치를 재생산하며 이윤을 제공하여 주는 생산적 노동자의 유지에 그것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는 다른 어떠한 소득 원천도 양도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이 자본을 반환하며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직접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는 낭비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근면한 사람들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무위 도식의 유지를 위하여 낭비한다. 이 경우에는 그는 벌써, 예컨대 부동산 또는 지대와 같은 다른 소득원천을 양도하거나 다치지 않고서는 자본을 반환할 수도 없으며 이자를 지불할 수도 없게 된다"(제2권, 제2부, 제4장, p.127, 맥컬로크 판).

‖ 255 ‖ 따라서 화폐를 차용하는—이 경우에는 자본을 차용하는—사

---

* 원문 Rente—역자.

람은 자신이 그것을 자본으로서 이용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얻는다. 이 경우에 그가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특수한 명칭을 얻는 이윤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대부 받은 화폐를 소비한다. 이 경우에는 그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대부자의 재산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에는 낭비자의 수중으로부터 고리대업자의 수중으로 넘어 가는 부의 분배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는 잉여 가치의 창조 과정은 없다. 그리하여 이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잉여 가치를 표시하는 한, 이윤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윤 그 자체는 잉여 가치 즉 부불 노동의 일정한 형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A. 스미스는 또한 조세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84*
소득도 임금에서 지불되거나 즉 임금 자체로부터의 공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소득의 원천이 이윤과 지대이며, 따라서 그 모든 소득은, 그 자체가 잉여 가치의 상이한 형태에 불과한 이윤과 지대의 소비에 참가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권리를 의미할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조세와 그에 기초한 모든 소득—봉급, 연금, 각종 연 임료 소득—은 결국 이 세 개의 시초적인 소득 원천 중의 어느 것에서 파생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금이나 자본 이윤이나 또는 지대에서 지불된다" (가르니에 역, 제1부, 제6장 p.106).

따라서 화폐에서 나오는 이자와 조세 또는 조세에서 얻는 소득은—그것들이 임금 자체에서의 공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이윤과 지대에 참가하는 몫을 표시할 따름인데, 이윤과 지대 그 자체는 또 잉여 가치 즉 부불 노동 시간에 귀착된다.

잉여 가치에 관한 A. 스미스의 일반적 이론은 이상과 같다.

A. 스미스는 다시 한번 자기의 견해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명백하게 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생산비인 원료와 노동 도구의 가치를 공제한 후의)는 벌써—노동자가 이 가치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또는 생산물을 자본가 및 토지 소유자와 나누지 않을 수 없으므로—생산물에 포함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든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자들 간에 분배되는 방식은 물론 이 가치의 본성이나 상품들 상호 간의 가치 비율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토지가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 소유자는 노동자가 그 토지에서

가꾸거나 채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서 일정한 몫을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토지 경작에 지출된 노동의 생산물에서의 제1의 공제물이다. 토지 경작자가 수확할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것은 희귀한 경우에 불과하다. 그의 생활 유지에 드는 것은 보통 그를 고용하는 주인인 차지 농업가의 자본에서 선대된다. 그리고 그 차지 농업가는, 그가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에서 한 몫을 얻지 않거나 또는 그의 자본이 약간의 이윤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윤은 토지를 경작하는 데 지출된 노동의 생산물에서의 제2의 공제물을 이룬다‖ 256 |. 이윤을 지불하기 위한 이러한 공제는 기타의 거의 온갖 노동의 생산물에서 진행된다. 모든 수공업과 매뉴팩쳐에서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들에게 작업 수행을 위한 재료와 임금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의 생존 수단을 선대하는 주인을 필요로 한
85 다. 이 주인은 그들의 노동 생산물에서 한 몫을 얻거나 또는 그들이 가공하는 재료에 그들의 노동이 첨가하는 가치에서 한 몫을 얻는다. 이 몫이 바로 주인의 이윤을 이룬다(맥컬로크 판, 제1권, 제1부, 제8장, pp.109~110).

이와 같이 A. 스미스는 여기에서 기탄 없이 지대와 자본 이윤을 노동자의 생산물에서의, 또는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한 노동의 양과 동등한 그의 생산물 가치에서의 단순한 공제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제물은 이전에 A. 스미스 자신이 증명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임금만을 지불하거나 또는 그의 임금의 등가물을 제공하는 노동량 이상으로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그러한 노동 부분으로써만 이루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제물은 노동자의 잉여 노동, 부불 노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기왕이니 지적하여 두지만 이윤과 지대 또는 자본과 토지 소유는 결코 "가치의 원천"으로 될 수 없다.)

[3. 스미스가 잉여 가치의 개념을 사회적 노동의 모든 분야에 확대한 것]

우리는 A. 스미스가 잉여 가치 따라서 자본의 분석에서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얼마나 큰 전진을 하였는가를 알고 있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가치는 일정한 한 개 종류의 현실적 노동인 농업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 시간,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사용 가치를 고찰한다. 그러나 이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사실상(유기적) 물질의 증가라는 의미에서의, 소비된 물질을 초과하는 생산된 물질의 잉여라는 의미에서의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자연인 토지이다. 그들은 대상을 극히 제한된, 따라서 환상적인 표상에 의하여 왜곡된 형태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가치는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것이 어떠한 사용 가치로 표시되든 간에—에 의하여, 오직 필요 노동량에 의하여서만 창조된다. 잉여 가치는 그것이 이윤,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든 또는 파생적 이자 형태로 나타나든 이 노동중에서, 물질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들이 산 노동과의 교환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잉여 가치는 지대 형태로서만 나타난다.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지대, 이윤 및 이자는 잉여 가치의 상이한 형태로 불과하다.

내가 선대 자본 총액과 관련된 잉여 가치를 자본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자본가가 직접 잉여 가치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그가 나중에 이 잉여 가치를 어떠한 항목들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가, 즉 그가 토지 소유자와 나누어야 하는가 자본의 대부자와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예컨대 차지 농업가는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공장 86
주는 자기가 취득한 잉여 가치 중에서 자기의 공장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며 그에게 자본을 대부하여 준 자본가에게 이자를 지불한다.

‖257‖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고찰하여야 한다 : 즉 1) A. 스미스가 잉여 가치와 이윤을 혼동한 것, 2) 생산적 노동에 대한 그의 견해, 3) 그가 어떻게 지대 및 이윤을 가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의 견해에 의하면 원료와 노동 도구의 가치는 세 개 "소득 원천"의 "가격"과 분리 되어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품의 "자연 가격"에 대한 그의 분석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4. 자본과 임금 노동 간의 교환에서의 가치 법칙의 특수한 작용에 대한 스미스의 몰이해]

임금 또는 자본가가 일정한 기간 노동력의 처분권을 구매하는 데 쓰는 등가물은 직접적인 형태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이미 형태 변화를 일으킨 상품인 화폐, 즉 교환가치로서, 사회적 노동, 일반적 노동 시간의 직접적 물질화로서 자립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품이다. 물론 노동자들은 이 화폐를 가지고 다른 모든 화폐 소유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들을 구매한다(여기에서는 노동자가 보다 불리한 조건과 사정 하에서 구매한다는 등등의 세세한 것은 도외시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다른 모든 화폐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로서 상품의 소유자와 대립한다. 그는 상품 유통 과정 자체에서는 노동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극에 대립하는 화폐 극으로서, 일반적이며 언제나 교환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품의 소유자로서 나타난다. 그의 화폐는 사용 가치로서 그에게 복무하여야 할 상품들로 다시 전화된다. 그리고 교환 과정에서 그는 상품들을 그것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의 가치대로 구매한다. 이 경우에 그는 G—W 행위만을 수행하는 데 이 행위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고찰한다면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결코 가치의 크기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는 생산물에 물질화된 자기의 노동으로써, 그가 받은 화폐에 포함되어 있는만큼 노동 시간을 첨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 등가를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윤의 원천을 이루는 잉여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노동력의 판매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적인 운동은 우리가 이
87 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에는 사라진다) 그의 임금을 이루는 화폐액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준다. 그런데 그는 보다 많은 양의 노동 시간으로써, 그에게 임금으로서 들어 오는 화폐에 실현된 노동량을 구매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번 화폐(이것은 일정한 양의 사회적 노동 시간의 자립적 표현에 불과하다)가 전화되는 상품들을 간접적으로—비록 그는 다른 모든 구매자 또는 첫 전화를 수행한 상품의 소유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그 상품들을 구매한다 하더라도—역시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노동 시간으로써 구매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가가 노동을 구매하는 데 쓰는 화폐는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에 포

함되어 있는 노동량 또는 노동시간 보다 적은 노동량, 적은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을 이루는 이 화폐액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 이상으로 자본가는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추가적 노동량을, 즉 그가 지불한 화폐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을 넘는 잉여 분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이 추가적 노동량이 바로 자본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 가치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을 구매하는(결국 실제로는 이 경우에 이 구매가 직접 노동과의 교환이 아니라 노동력과의 교환에 의하여 매개된다 하더라도)데 쓰는 화폐는 ‖258‖ 다른 모든 상품들의 전화된 형태, 교환 가치로서의 그것들의 자립적 정재(定在)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므로 역시, 모든 상품들은 산 노동과의 교환에서 그것들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구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추가량이 바로 잉여 가치를 이룬다.

A. 스미스의 커다란 공적은 그가 바로 단순 상품 교환과 이에 고유한 가치 법칙으로부터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과의 교환으로, 자본과 임금 노동 간의 교환으로, 일반적인 이윤과 지대의 고찰로, 한 마디로 말하면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로 넘어 가고 있는 제1부의 장들(제6, 7, 8장)에서 파탄이 일어 난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즉 그가 이해하지 못한 매개적 고리들이 어떻든 간에 그 법칙은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파괴된다는 것,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이 보다 적은 양의 노동과 교환되고(노동자의 견지에서), 보다 적은 양의 노동이 보다 많은 양의 노동과 교환된다(자본가의 견지에서)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공적은 그가 자본의 축적과 토지 소유의 발생과 함께, 따라서 이제는 노동 자체에 대립하는 노동 조건의 자립화와 함께 하나의 전변이, 즉 가치 법칙의 그 반대물로의 외견상의(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 바로 이 때문에 그는 당황하고 있다. 만 88
약 스미스의 이론적 강점은 그가 이 모순을 감지하고 강조하고 있는 데 있다면 그의 이론적 약점은 일반적 법칙을 단순 상품 교환에 적용시켜 고찰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 모순 때문에 그는 당황하고 있으며, 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 되며 따라서 이 특수한 상품에 있어서는 그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용 가치 자체가 교환 가치를 창조하는 에네르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리카르도는 그가 외견상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이 모순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A. 스미스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본의 발생과 함께 가치 법칙이 겪는 특수한 발전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A. 스미스보다 못하다. A. 스미스에게 있어서 천재적인 것이 어떻게 리카르도의 견해와 대립하는 맬더스에게 있어서는 반동적인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것이다.[32]

그러나 물론 A. 스미스는 바로 자기의 이러한 견해 때문에 동시에 동요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며 확고한 지반을 상실하게 되고 리카르도와는 반대로 부르조아적 체계의 추상적, 일반적 기초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이론적 견해에 이르지 못한다.

‖ 259 | 상품이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구매하며 또는 노동자는 상품의 대가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한다고 상술한 A. 스미스의 명제를 호지스킨은 그의 저서 『통속 정치 경제학』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자연 가격(또는 필요 가격)은 사람이 임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자연이 그에게 요구하는 총 노동량을 의미한다… 노동은 자연과 우리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최초의 구매 수단이었으며 또 언제나 유일한 구매 수단일 것이다. 임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얼마이든 간에 노동자는—이 상품을 취득하며 점유하기 위하여—항상 현재의 사회 상태 하에서는 그것을 자연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증대된 자연 가격은 사회적 가격이다. 언제나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토마스 호지스킨. 『통속 정치 경제학』, 런던 1827년, pp.219~220). 호지스킨의 이 견해는 A. 스미스의 견해 중에서 정당한 것 뿐만 아니라 혼란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재생산하고 있다.

89

[5. 스미스에 의한 잉여 가치와 이윤과의 혼동. 스미스의 이론에 있는 비속한 요소]

우리는 A. 스미스가 잉여 가치 일반을 고찰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대와 이윤은 이 잉여 가치의 상이한 형태이며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서술에 의하면 원료와 생산 수단으로

써 이루어지는 자본 부분은 잉여 가치의 창조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잉여 가치는 오직 노동자가 그의 임금의 등가를 이룰 따름인 노동 부분 이상으로 양도하는 추가적 노동량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잉여 가치는 직접 임금에 지출된 자본 부분에서만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잉여 분"도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에 있어서는 잉여 가치가 선대 자본 총액에 대하여 계산되며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변화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상이한 분야들에서의 이윤의 균등화에 의하여 생기는 새로운 변화들이 첨가된다.

아담은 사실상 잉여 가치를 고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특수한 형태들과 구별되는 일정한 범주의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직후에 곧 아무런 매개적 고리들도 끌어 들이지 않고 잉여가치와 보다 발전된 형태인 이윤을 혼동하고 있다. 이 오류는 리카르도와 그 후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도 있다. 이 때문에 일련의 불철저성과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과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하는데(리카르도에게서는 이것이 더욱 뚜렷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가치의 기본 법칙이 보다 체계적인 통일과 철저성으로서 관철되고 있으며 따라서 또 그에게 있어서는 불철저성과 모순들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라카르도 학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윤 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스콜라 철학적으로 말의 유희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33] 조잡한 경험주의는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현상들을 직접 단순한 형식적 추상에 의하여 일반적 법칙에서 끌어 내거나 또는 그 현상들을 이 법칙에다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고심하는 허위적 형이상학과 스콜라 철학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그러한 실례의 하나를 곧, 잉여 가치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분석하는 여기에서 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혼란은 그가 잉여 가치의 특수한 형태들인 이윤과 지대를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지대를 다만 잉여 가치 일반의 형태들로서, "노동자가 재료에 첨가한 노동에서의 공제"로서 고찰하고 있는 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260‖ A. 스미스는 제1부, 제6장에서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이제는 두 개 부분으로 분할된다. 그 중 일부분은 노동

* 원문 ex professo—역자.

90 자의 임금을 지불하며 다른 부분은 임금과 가공되는 원료에 선대된 자본 총액에 대한 기업가의 이윤을 지불한다"고 말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만약 그"(기업가)"가 노동자들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서 그의 자본의 보상에 필요한 이상으로 더 약간의 잉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만약 그의 이윤이 선대 자본의 크기에 일정하게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소액의 자본이 아니라 다액의 자본을 지출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자. 잉여 가치—"기업가가 그의 자본의 보상"에 필요한 가치액 이상으로 얻는 그 "잉여"—를 A. 스미스는 우선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을 보상하는 노동 이상으로 재료에 첨가하는 노동 부분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이 잉여를 전적으로 임금에 지출된 자본 부분에서 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 그는 이 잉여를 이윤의 형태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이 잉여를 그것이 발생한 자본 부분에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대 자본의 총 가치 이상의 즉 "임금과 가공되는 재료에 선대한 자본 총액"이상의 잉여로서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생산 도구를 누락하고 있는 것은 실책이다). 따라서 그는 잉여 가치를 직접 이윤의 형태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로부터 곧 곤란이 발생한다.

자본가는 "만약 그가 노동자들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서 그의 자본의 보상에 필요한 이상으로 더 약간의 잉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A. 스미스는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상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자본가는 생산된 생산물로써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비가 그에게 있어서 생산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한다. 그러나 A. 스미스는, 후에 많은 그의 우매한 추종자들이 그러했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건 하에서는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위하여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인 이 전제에서 잉여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그는 잉여 가치의 존재를 자본가의 관심으로써, 잉여 가치에 대한 갈망으로써 설명하고는 있지 않다. 도리어 그는 벌써 이 잉여 가치를,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 대신에 첨가한 가치 이상으로 그들이 재료에 첨가하는 가치"에서 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자본가는 만약 그의 이윤이 선대 자본의 크기에 일정하게 상응하지 않는다면 소액의 자본이 아니라 다액의 자본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윤은 벌써 잉여 가치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관심"으로써 설명되고 91
있다. 이것은 아주 황당한 것이다.

A. 스미스는 이렇게 직접 잉여 가치와 이윤과를, 그리고 이윤과 잉여 가치와를 혼동함으로써 그가 방금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하여 세운 법칙을 전복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 261 ‖ 만약 잉여 가치가 다만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의 보상으로서 재료에 첨가하는 이상으로 첨가하는 가치 부분"(또는 노동량)이라고 한다면 왜 이 둘째 부분은 직접, 선대 자본 가치가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도 크기 때문에 증가하여야 하는가? 이 모순은 A. 스미스 자신이 그 직후에, 이윤은 소위 "감독 노동"에 대한 보수라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예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러나 그것"(자본 이윤)"은 임금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지며 이 소위 감독 및 관리 노동의 양과 성격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크거나 또는 작다. 예컨대 공업에서 적용되는 자본에 대한 이윤이 보통 연 10%인 어떤 곳에 상이한 두 매뉴팩처가 있는데 그 각자에서 각각 20명의 노동자가 연 15파운드 스털링의 임금으로 일하며 그리하여 매개 매뉴팩처는 각각 임금으로 연 300파운드 스털링을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한 매뉴팩처에서는 연 도합 700파운드 스털링을 요하는 낮은 질의 원료가 가공되는데 다른 매뉴팩처에서는 7,000파운드 스털링에 해당하는 보다 높은 질의 재료가 가공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매년 첫째 매뉴팩처에서 지출되는 자본은 도합 1,000파운드 스털링에 불과한데 둘째 매뉴팩처에서 지출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 스털링에 달한다. 10%의 비율의 조건하에서 첫째 매뉴팩처의 소유자는 약 100파운드 스털링에 불과한 연 이윤을 기대할 것이며 둘째 매뉴팩처의 소유자는 약 730파운드 스털링의 이윤을 기대할 것이다. 그들의 이윤액은 어떠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독 및 관리 노동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 형태의 잉여 가치로부터 곧, 직접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적 이윤률에 도달한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자! 두 공장에서 각각 20명의 노동자들의 노동이 적용되며 그들의 임금은 두 경우에 다 동일하게 300파운드 스털링이다. 따라서 사태는, 이 공장들 중 하나에서는 다른 공장에서보다 더 높은 질의 노동이 적용되며 그리하여 한 공장의 한 노동 시간, 따라서 또 한 잉여 노동 시간이 다른 공장의 몇 잉여 노동 시간과 동등할 것이라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두 경우에 두 공장에서의 임금이 동등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평균 노동이 상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 공장에서는 노동자들
92 이 그들의 임금 이상으로 첨가하는 잉여 노동이 다른 공장에서보다 7배나 될 수 있는가? 또는 왜 한 공장에서는 오직 거기에서 가공되는 재료가 다른 공장에서보다 7배나 비싸다는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들이 두 경우에 다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따라서 그것을 ‖ 262 ‖ 재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수를 일함에도 불구하고 7배나 되는 잉여 노동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그리하여 한 공장에서 얻은 이윤이 다른 공장에서 얻는 이윤의 7배나 된다는 사정, 또는 일반적으로 이윤이 선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일견하여* 잉여 가치가 노동자들의 부불 잉여 노동을 표현할 따름이라는 잉여 가치 또는 이윤(A. 스미스는 이것들을 직접 동일시하고 있으므로)의 법칙과 모순된다. A. 스미스는 아주 소박하고 경솔하게 이 경우에 발생하는 모순을 조금도 감촉함이 없이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그 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그들 중 아무도 잉여 가치를 그것의 규정된 형태들과 분리하여 일반적으로 고찰하지 않음으로써—이 점에 있어서 스미스에게 충실하였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리카르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A. 스미스는 잉여 가치를 이윤 뿐만 아니라 지대—잉여 가치의 이 두 특수 형태들의 운동은 완전히 다른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된다—로도 분해하고 있으므로 이 한가지 사정만으로도 벌써 그는 어떠한 매개적 고리도 끌어 들이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형태와 그것의 어떠한 특수한 형태와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후기의 모든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경제적 관계의 상이한 형태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이해의

---

* 원문 prima facie—역자.

부족은 통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은 조잡하게도 그들이 경험적으로 얻은 자료에 매달리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또한 화폐의 본질을 옳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경우에 문제는 가치의 크기가 불변인 조건 하에서의 교환가치 형태의 상이한 전화에 있을 따름이다.

[6. 이윤, 지대, 임금을 가치의 원천들로 보는 스미스의 그릇된 견해]

로더데일은 『국민 부의 본성과 기원』(E. 라쟝띠 드 라바이쎄 역, 파리, 1808년)에서 잉여 가치에 관한 스미스의 이해를 반대하고 있으며—그는 그 이해에 관하여 그것은 이미 로크가 표명한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스미스가 그렇게 내세우고 있듯이 자본은 부의 근원적 원천이 아니라 파생적 원천일 따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로더데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세기 이상 전에 로크는"(A. 스미스와) "거의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 93
다" …"화폐는—하고 로크는 말한다—비생산적이며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화폐의 효능은 그것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수였던 이윤을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로 옮겨 놓는 데 있다" (로더데일, p.116). "만약 자본 이윤에 관한 이러한 이해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로부터 이윤은 소득의 근원적 원천이 아니라 다만 파생적인 원천이며 자본을 부의 원천의 하나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자본 이윤이란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자본가의 호주머니로의 소득의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책, pp.116~117).

자본의 가치가 생산물에 재현하는 한에서는 자본은 "부의 원천"이라고 칭할 수 없다. 자본은 이 경우에 단순히 축적된 노동으로서의, 일정한 양의 물질화된 노동으로서의 자기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자본은 그것이 임금 노동을 지배하는 강제력으로서 잉여 노동을 하도록 임금 노동을 강제하거나 또는 상대적 잉여 가치를 창조하도록 노동 생산력을 내모는 한에서 관계로서만 가치의 생산자로 된다. 두 경우에다 자본은 ‖ 263 | 노동 자체의 대상적 조건들이 가지는, 노동에서 소외

된 그리고 노동을 지배하는 힘으로서만,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 자체의 하나의 형태로서, 임금 노동의 조건으로서만 가치를 생산한다. 정치 경제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의미에서는, 화폐 또는 상품으로 존재하는 축적된 노동으로서의 자본은 무상의 자연력도 포함한 모든 노동 조건과 마찬가지로 노동 과정에서는, 사용 가치의 창조에 있어서는 생산적으로 작용하나 결코 가치의 원천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본은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창조하지 않으며 또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는 한에서, 즉 그 자체가 대상화된 노동 시간에 귀착되며 따라서 노동이 자본 가치의 원천인 한에서만 생산물에 교환 가치를 첨가한다.

A. 스미스가 잉여 가치 및 가치의 본성을 연구한 후에 자본과 토지를 교환가치의 자립적인 원천으로서 묘사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로더데일은 옳다. 그것들은 노동자가 그의 임금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이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정한 양의 잉여 노동을 얻는 기초로 되는 한에 있어서 그 소유자들의 소득의 원천이다. 예컨대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임금, 이윤 및 지대는 온갖 소득의, 또 온갖 교환 가치의 세 개의 근원적 원천이다(제1부, 제6장). 그
94 것들이 "온갖 소득의 세 개의 근원적 원천"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들이 "또 온갖 교환 가치의 세 개의 근원적 원천"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A. 스미스는 방금 지대와 이윤을 가치 또는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노동으로부터의 단순한 "공제"라고 서술한 후에 어떻게 그것들을 "교환 가치의 근원적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그것들은 "근원적 원천"을 작용케 한다는, 즉 노동자로 하여금 잉여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의미에서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은 가치 즉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근원(조건)으로 되는 한에서 그 소유자들의 소득의 원천이다. 그러나 가치의 분배 또는 그것의 취득은 결코 취득되는 가치의 원천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취득이 없고 노동자가 보수로서 자기 노동의 전체 생산물을 받는다면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비록 그것의 분할에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가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하다.

토지 소유와 자본은 그 소유자들의 소득의 원천이지만, 즉 그들에게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의 일부분을 취득할 권력을 주지만 이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취득하는 가치의 원천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와 마찬가지로 임금—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노동력의 부단한 판매—이 노동자들의 소득의 원천을 이룬다 하더라도 임금이 교환 가치의 근원적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노동이 바로 가치를 창조한다. 임금은 현존하는 가치에 불과하며 생산 전체를 고찰한다면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 중에서 그 자신이 취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취득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 없이 등락할 수 있다.‖ 263 ‖

‖ 265 ‖ 〈상술한 것에 첨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취득하는 항목들을 A. 스미스가 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언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다. 그는 이윤이 자본가의 임금 또는 "감독 노동에 대한 임금"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반박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에서 재화 또는 자본에 대한 이윤은 임금과는 전혀 다른 가치 원천이며 그것은 전혀 다른 원칙들에 의하여 규제된다"(제1부, 제6장).

그런데 스미스는 노동자들이 재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임금과 이윤의 형태로 그들과 자본가 간에서 분배된다는 것, 그리하여 노동은 가치의 95
유일한 원천이며 이 가치 원천에서 "임금 가격", "이윤 가격"이 발생한다는 것을 방금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가격들" 자체는—임금이건 이윤이건—결코 가치의 원천이 아니다.〉‖ 265 ‖

[7. 가치와 소득의 상호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의 이중성.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총액으로서의 "자연 가격"이라는 스미스의 개념에서의 악순환]

‖ 263 ‖ 여기에서는 A. 스미스가 어느 정도로 지대를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스미스가 지대를 이윤과 꼭 마찬가지로 단순히 잉여 가치의 일부분, "노동자가 원재료에 첨가하는 노동으로부터의 공제"라고 간주하고 있는만큼 우리의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스미스는 ‖ 264 ‖ 전체 부불 잉여 노동이 직접 노동과 대립하는 자본가에 의하여 취득되는 한에서, 자본가가 어떠한 항목들로 이 잉여 가치를 나중에 토지 소유자이건 자본의 대부자이건 생산 조건의 다른 소유자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간에 사실상 지대를 "이윤으로부터의 공제"로서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하기 위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가 분배되는 두 개 항목인 임금과 이윤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어떤 상품에(이에 소비된 원료와 노동 도구를 도외시하고) 12 노동시간이 물질화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상품의 가치 그 자체는 화폐로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역시 12노동시간이 5실링에 물질화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상품의 가치는 5실링과 동등하다. A. 스미스가 말하는 "상품의 자연 가격"이란 화폐로서 표현된 상품의 가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물론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상품의 평균 가격[der Durchschnittspreis]이라는 것도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항상 그것의 가치와 다르다[34]. 그러나 A. 스미스는 "자연 가격"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치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견해에 기초하지 않는 한에서는 시장 가격도 더구나 상품의 평균 가격의 동요도 이해할 수 없다.)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 가치가 그 상품의 전체 가치의 20% 또는 결국 같은 것으로 되지만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필요 노동의 25%라고
96 하면 5실링의 이 가치, 상품의 "자연 가격"은 4실링의 임금과 1실링의 잉여 가치(이것은 A. 스미스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윤이라고 부르자)로 분해될 수 있다. 임금과 이윤과는 관계 없이 규정된 상품 가치의 크기 또는 상품의 "자연 가격"은 4실링의 임금("노동의 가격")과 1실링의 이윤("이윤 가격")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규제되는 임금 가격과 이윤 가격의 합계 또는 결합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은 5실링, 이윤은 3실링 등등이라고 함에 따라 상품의 총 가치가 8, 10 실링 등등으로 되지 않는 이유를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A. 스미스가 임금의 "자연률" 또는 임금의 "자연 가격"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자연 가격이다. 그러면 그는 이 생활 수단의 자연 가격을 무엇으로써 규정하고 있는가? 그가 이 가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는 또다시 옳은 가치 규정으로, 즉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으로 돌아 오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가 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자 그는 악순환에 빠진다. 임금

의 자연 가격을 규정하는 생활 수단의 자연 가격을 그는 무엇으로써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생활 수단의 자연 가격을 이루는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 가격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관한 공담도 이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자연 가격" 또는 상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동요에 의하여 상하로 그 가치에서 배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상품의 비용 가격[35](또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치)이 동시에 수요 측이 지불하는 가격인 경우에야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65‖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의 자연 가격을 연구함에 있어서 A. 스미스는 사실상—적어도 이 곳 저 곳에서—또 다시 상품 가치에 대한 옳은 규정으로 돌아 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윤의 자연률 또는 이윤의 자연 가격에 관한 장에서는 그는—본래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내용없는 일반적인 문구와 동어 반복에 떨어지고 있다. 사실상 처음에는 그에게 있어서 임금, 이윤 및 지대는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는 상반되는 입 97
장에서 문제에 임하고(이것은 경험적 외관과 관습적 표상에 보다 가까운 것이다) 상품의 자연 가격을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자연 가격들의 합계에 의하여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리카르도의 주요한 공적의 하나이다. 리카르도를 논하게 될 때 우리는 간단히 이 점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36]

여기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점만을 지적하여 두자. 즉 상품 가치—임금과 이윤이 지불되는 재화—의 일정한 크기는 경험적으로, 임금의 모든 동요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일정한 시장 가격이 일정한 기간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형태로 산업가 앞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A. 스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묘한 사고 과정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처음에 그는 상품의 가치를 연구하고 이 곳 저 곳에서 그것을 옳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잉여 가치와 그 특수한 형태들의 원천을 찾아 내고 그리하여 그가 상품의 가치에서 임금과 이윤을 끌어 낼 정도로 옳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 상반되는 길로 들어 서서 거꾸로 상품의 가치(이것에서 그는 이미 임금과

* 원문 in infinitum —역자.

이윤을 끌어 냈다)를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자연 가격들의 합계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초 자체를 가지지 못한 스미스가 임금, 이윤 등등의 변동이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서도 옳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 마지막 사정에 기인한다.‖ Ⅵ-251 ‖

*　　*　　*

‖ Ⅶ-364 ‖ 〈A. 스미스.가치와 그 구성 부분. 처음의 옳은 견해에도 불구하고—상술한 것을 참조하라—스미스가 전개한 그릇된 표상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지대는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만 그러나 이에 있어서 이윤과 임금과는 전혀 다르다. 이윤과 임금이 높거나 낮은 것은 곡물 가격이 높거나 낮은 원인인데, 지대가 많거나 적은 것은 이 가격의 결과이다"(『국부론』, 제1부, 제11장)[37].〉 ‖ Ⅶ-364 ‖

[8. 사회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키는 스미스의 오류. 총 소득과 순 소득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에 있는 모순]

‖ Ⅵ-265 ‖ 이제는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여기에서는 아직 양자는 동일하다고 본다)의 분해와 관련된 다른 문제로 넘어 가자. A. 스미스가 옳게
98 생각하였다고 하자. 즉 그가 상품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구성 부분들로 분해하였으며 이 구성 부분들로서 이 가치가 상이한 생산 대표자들 간에 분배된다고 하자. 스미스가 거꾸로 가치를 이 구성 부분들의 가격에서 끌어 내지 않았다고 하자.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그것을 도외시하자. 또한 임금과 이윤을 분배 형태들로서만 보며 따라서 이 양자를 같은 의미에서, 그 소유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소득으로서 묘사한 그의 일면적인 사고 방식도 도외시하자. 이 모든 것을 도외시하면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A. 스미스 자신이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키는 데 대하여]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스미스가 리카르도보다 또 우월한 것은 그가 제기한 의문을 옳게 해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의문을 그가 제기한 데 있다.

‖ 266 ‖ 즉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세 부분"(임금, 이윤, 토지 소유자의 지대)"은 직접 또는 결국은 곡물의"(일반적으로 상품의. A. 스미스가 여기에서 곡물을 들고 있는 것은 일련의 상품의 가격에는 구성 부분으로서 지대가 들어 가지 않는다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 가격을 이루는 것 같다". "아마 이 세 부분에 또, 차지 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제4부분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영에서의 모든 도구 예컨대 역마의 가격은 그 자체가 세 부분, 즉 말을 먹여 키운 토지의 지대, 말을 돌보아 주며 기른 노동, 그리고 이 지대와 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선대한 차지인의 이윤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윤이 지대도 포함하는 근원적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격은 말의 가격과 사육비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총가격은 직접 또는 결국은 지대, 노동 및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부분으로 분해된다"(제1부, 제6장). (여기에서 스미스가 "지대"와 "이윤"은 "토지 소유자"와 "자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임금" 대신에는 갑자기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황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각도 이에 못지 않게 명백하다 : 즉 차지 농업가가 말과 보습의 가격을 밀가격에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지 농업가에게 말과 보습을 판 말 사육자와 보습 제작자도 말과 보습의 가격에 생산 도구의 가격(특히 말 사육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다른 말의 가격)과 원료(사료와 철)의 가격을 포함시켰는데, 말 사육자와 보습 제작자가 임금과 이윤(및 지대)을 지불하는 재화는 그들이 그들의 생산 분야에서 그 99
들의 불변 자본의 기존 가치액에 첨가한 새로운 노동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A. 스미스가 차지 농업가에 관하여 그의 곡물 가격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지불한 임금, 이윤 및 지대 이외에 또 그것들과는 다른 제4의 구성부분, 예컨대 말과 농구 등등의 가치와 같은, 그가 소비한 불변 자본의 가치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또한 말 사육자와 농구 제작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며, 스미스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더라도 그것은 소용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차지 농업가의 실례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는 데는 특히 불편하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불변 자본의 항목들에는 그가 어떤 누구에게서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즉 종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치 부분이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분해되겠는가?

그러나 우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상품의 가치가 어떤 하나의 소득 원천 또는 모든 소득 원천, 즉 임금, 이윤, 지대에 귀착될 수 있다는 자기의 견해, 따라서 모든 상품이 소비되게 되어 있는 생산물로서 소비될 수 있다는 견해, 또는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개인적 수요를 위하여(산업적 수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스미스가 관철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보자. 그런데 미리 ‖ 267 ‖ 또 하나의 지적을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과(漿果) 등등을 채집하는 경우에, 물론 이 경우에도 대개 노동 수단으로서 광주리 등등과 같은 약간의 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임금에만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문제로 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러한 예들은 문제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선 제1부 제6장에서 표명된 견해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제2부 제2장(가르니에의 번역 판의 제2권, pp.212~21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은 세 부분으로 분해되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은 임금을, 제2부분은 자본 이윤을, 제3부분은 지대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모든 상품의 전체 가치는 소득으로 분해되며 따라서 그 소득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소비 재화로서 제공된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나라의 총 생산물, 예컨대 연 생산물은 생산된 상품들의 가치 총액으로써만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이 각각의 상품의 가치는 소득들로 분해되므로 그것들의 총액, 연 노동
100 생산물, 즉 총 소득도 연간에 이 형태로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곧 자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었다. 즉 개별적인 매개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생산물의 총량을 이루는 상품 총체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이 연 생산물의 총 가격 또는 교환 가치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분해되어야 하며 나라의 상이한 주민들간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 그들의 자본에 대한 이윤, 또는 그들의 토지에 대한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한다"(같은 책, p.213).

이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결론이다. 개개의 상품에 타당한 것은 상품 총액에도 타당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아담은 말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어떤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의 총가치는 이와 같이 나라의 상이한 주민들

간에 분배되며 그들의 소득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적 토지 소유의 소득을 총소득과 순 소득으로 구별하듯이 큰 나라의 전체 주민의 소득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같은 책, p.213). (잠깐 멈추라! 그는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반대되는 말을 우리에게 하였다. 개개의 차지 농업가의 생산물, 예컨대 그의 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생산물의 가치가 분배되는 부분들 사이에서 제4의 부분을, 즉 이용된 불변 자본을 보상할 따름인 부분을 또 구별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 개개의 차지 농업가에게 있어서는 옳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상세히 본다면 차지 농업가에게 있어서 불변 자본인 부분은 그 이전 단계에서 즉 이 부분이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서 자본으로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임금, 이윤, 기타로, 한 마디로 말하면 소득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개개의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상품은 소득을 이루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옳다고 하면 이것은 "큰 나라의 전체 주민"에게 대하여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수중에서 불변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이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총 가격으로서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나왔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

‖ 268 ‖ "사적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총 소득은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순 소득은 토지 소유자에게 관리비와 보수비 그리고 기타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모든 것 또는 다시 말하면 그의 소유 토지의 상태를 악화시킴이 없이 직접적인 소비를 위한 자기의 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즉 식사 등등에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현실적 부는 총 소득이 아니라 그가 얻는 순 소득에 비례한다". (첫째로 스미스는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 차지 *101*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로서 지불하는 것은—그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서 지불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그 자신의 이윤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 중 소득으로 분해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상품이 또는 다른 어떤 가치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차지 농업가에 대하여 이것을 인정하여야 하였던 것처럼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차지 농업가가 생산한 곡물(즉 그의 곡물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은 소득들로만 분해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기왕이니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 두자. 개개의 차지 농업가로서의 개개의 차지 농업가가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 부는 그의 이윤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품 소유자로서는 그는 자기의 땅을 판매할 수 있거나 또는 그가 땅을 가지고 있

지 않다면 역축, 농구 등등과 같은, 거기에 있는 모든 불변 자본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 따라서 그가 처리할 수 있는 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불변 자본의 가치, 따라서 또 그 규모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다른 차지 농업가에게만 다시 판매할 수 있는데, 이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서는 그것은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부가 아니고 불변 자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한 자리에서 답보하고 있다.)

"큰 나라의 전체 주민의 총 소득은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노동의 연생산물의 총량을 포괄한다"(우리는 이전에 이 총량, 그것의 가치는 임금, 이윤 및 지대로 즉 각이한 형태들의 순 소득으로만 분해된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순 소득은 첫째로 고정 자본, 둘째로 유동 자본의 유지비를 공제하고 그들의 수중에 남은 것을 포괄한다"(따라서 스미스는 이제는 노동 도구와 원료를 공제하고 있다). "즉 순 소득은 그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비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포괄한다…".(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는 상품 총량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는 개개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나 나라 전체에 있어서나 아무에게도 소득으로 되지 않고 임금에도, 이윤에도, 지대에도 귀착시킬 수 없는 제4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정 자본의 유지를 위한 모든 지출은 사회의 순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용한 기계, 공업용 도구, 소득을 가져 오는 건물 등등을 정비하여 두는 데 필요한 재료도, 이 재료에 요구되는 형태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도 결코 순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이룰 수 없다. 물론 이 노동의 가격은 이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전체 가치를 ‖269‖ 직접적 소비 자금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순소득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다른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격도 그 생산물도 직접적인 소비 자금으로 들어 간다. 즉 노동의 가격은 노동자의 자금으로 들어 가며 생산물은 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하
102 여 자기들의 생존, 편의 및 향락 수단들을 증대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들어 간다"(같은 책, pp.214~215)*

여기에서 A. 스미스는 다시, 그가 대답하여야 할 문제인 상품 총 가격의 제4부분 즉 임금에도, 이윤에도, 지대에도 귀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문제에서 옆으로 빠지고 있다. 우선 큰 오류를 지적하기로 하자. 기

---

* 이 부분에 맑스는 연필로 다음과 같이 써 넣고 있다 : "이것은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정확한 견해에 접근하고 있다."—편집자.

계 제작업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산업 자본가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계 등등의 원재료에 적당한 형태를 부여하는 노동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분할되며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 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으로도 분할된다. 재료의 가치와 노동자가 재료에 적당한 형태를 부여하는 데 쓰는 도구의 가치는 전자에도 후자에도 귀착되지 않는다. 그 본성으로 보아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산업적 소비를 위한 생산물이 직접적 소비 자금으로 들어 가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태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예컨대 종자(파종에 돌려진 밀 부분)는 그 본성으로 보아 소비 자금에도 들어갈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그것은 생산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생산물의 모든 가격이 생산물과 함께 소비 자금으로 들어 가는 것 같이 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예컨대 아마포는 그것이 만일 돛이나 기타 어떠한 생산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생산물로서는 전적으로 소비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가격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가격의 일부분은 아마실을, 다른 일부분은 방직기 등등을 보상하고 아마포 가격의 일부분만이 이러저러한 종류의 소득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아담은 방금 우리에게, 기계와 소득을 가져 오는 건물 등등의 건조에 필요한 재료들은—이 재료들로써 건조된 기계 등등과 마찬가지로—"순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이룰 수 없다"고, 즉 그것들은 총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동일한 제2부, 제2장, P.220에서 그는 상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개개의 인물 또는 사회의 고정 자본을 이루는 기계와 작업 도구들은 화폐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이나 순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운운.

아담의 이러한 동요, 그의 모순, 대상에서의 그의 이탈은 그가 임금, *103* 이윤 및 지대를 생산물의 교환 가치 또는 총 가격의 구성 요소들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난처하게 되었고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9. 스미스의 이론을 비속화한 자로서의 세이
세이에 의한 사회적 총 생산물과 사회적 소득의 동일시
이것들을 구별하려는 슈토르흐와 램지의 시도]

A. 스미스의 불철저성과 실책을 아주 일반적인 문구에 해소시킴으로써 자기의 진부한 피상성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세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전체로서 본 국민은 아무런 순 생산물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비와 동등하므로 이 비용을 공제하며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공제하는 것으로 된다… 연 소득은 총 소득이다"(『정치 경제학 개론』, 제3판, 파리, 1817년, 제2권, p.469).

연 생산물 전체의 가치는 그 생산물에 물질화된 ‖270‖ 노동 시간의 양과 동등하다. 만약 연 생산물에서 이 총 가치를 공제하면 사실상—가치가 문제인 한에서—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으며 그리하여 순 소득도 총 소득도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세이는 매년 생산되는 가치는 매년 소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있어서는 순 소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총 생산물만이 존재한다. 첫째로 매년 생산되는 가치가 매년 소비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고정 자본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연간에 생산된 가치의 대부분은 가치 형성과정으로 들어 감이 없이 노동 과정으로 들어 간다. 이것은 이 대상으로 총 가치가 연간에 전부 소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둘째로 소비 자금으로 들어 감이 없이 자체의 현물 형태로거나 등가물로거나 출발점인 생산 과정으로 복귀하는 생산 수단으로서 소비되는 가치는 매년 소비되는 가치의 일정한 부분을 이룬다. 이 부분을 공제한 후에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갈수 있는 가치는 둘째 부분을 이룬다. 이것이 "순 생산물"을 이룬다.

슈토르흐는 세이의 이 너절한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연 생산물의 가치는 일부분은 자본으로 또 일부분은 이윤으로 분할되며 연 생산물 가치의 이 매개 부분을 국민이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기
104 위하여 또 자기의 소비 자금을 갱신하기 위하여 그 국민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규칙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명백하다"(슈토르흐. 『정치 경제학 강의』, 제5권 :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파리, 1824년, pp.134~135). "러시아에서 많은 실례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자기

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족의 소득… 이러한 가족의 소득이 그 가족의 토지, 그 가족의 자본, 그 가족의 노동의 총 생산물과 동등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여 보자. 그들이 그들의 곳간이나 그들의 외양간에서 살 수 있으며 그들의 종곡과 그들의 가축 사료를 먹을 수 있으며 그들의 역축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으며 그들의 경작 도구를 오락에 이용할 수 있는가? 세이 씨의 명제에 의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같은 책, pp.135~136). "세이는 총 생산물을 사회의 소득으로서 간주하고 이로부터 사회는 이 생산물과 동등한 가치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같은 책, p.145). "국민의 순 소득은 세이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된 가치 중에서 소비된 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잉여 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가치를 초과하는 잉여 분으로써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국민이 연간에 이 잉여 분 전체를 소비한다면 그 국민은 자기의 순 소득 전체를 소비하게 된다"(같은 책, p.146). "만약 국민의 소득이 그 총 생산물과 동등하다는 것을, 즉 이 생산물에서 어떠한 자본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은 자기의 연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장래의 소득에 사소한 손실도 주지 않으면서 비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같은 책, p.147). "국민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불변자본) "은 소비로 들어 갈 수 없다"(같은 책, p.150).

램지(조지)는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에딘버러, 1836년)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즉 스미스가 "총 가격의 제4의 구성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임금에 지출되는 자본과 구별하여 불변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71‖ "리카르도는"—하고 그는 말한다—"전체 생산물이 임금과 이윤으로 분할될 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의 보상을 위하여 또 하나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p.174, 주). 램지는 "고정 자본"이라는 것을 생산 도구 등등 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매개 생산 분야의 범위에서 불변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리카르도가 이윤과 임금으로의 생산물의 분할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 그는 항상 생산 자체에 선대되었고 거기에서 소비된 자본은 이미 공제되었다고 상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램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리카르도는 불변 자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분석도 더 하

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이윤과 잉여 가치를 혼동하고 있고 또 이윤율의 동요 등등의 연구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105 그러면 램지 자신의 말을 들어 보자 :

"생산물과 그것에 지출된 자본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만약 국민 자체를 염두에 둔다면… 지출된 자본의 상이한 모든 요소들은 이러저러한 경제 부문에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의 생산이 종전의 규모로 더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업의 원재료, 공업과 농업에서 사용되는 도구, 공업의 무수하고 복잡한 기계들, 생산과 생산물의 보관에 필요한 건물들—이 모든 것은 나라의 총 생산물에도, 또한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의 모든 선대에도 구성 부분으로서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총 생산물량과 선대량은 비교할 수 있으니, 그것은 어느 물건이나 마치 동종의 다른 물건과 나란히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pp.137~139). "개별적 자본가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자기의 지출들을 현물로 보상할 수 없고 그 대부분을 교환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하여는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개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생산물의 양에 대하여서보다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 훨씬 더 큰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같은 책, pp.145~146). "생산물의 가치가 선대 자본의 가치를 초과할수록 이윤은 커진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양과 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윤을 계산할 것이다… 이윤은 총 생산물 또는 그 가치 중 필요한 선대를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부분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정도에 정확히 상응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윤율은 두 가지 사정, 즉 첫째로는 총 생산물 중 노동자들의 몫으로 되는 부분, 둘째로는 현물로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고정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떼어 놓는 부분에 의존한다"(같은 책, pp.146~148).

〈램지가 여기에서 이윤율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제 3장(이윤에 관한)에서 고찰하게 된다.[38] 그가 정당하게도 이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으로 불변 자본(램지는 이것을 "고정 자본"으로 이해하고 있다)을 이루는 상품들의 저렴화는 항상 현존하는 자본의 일정한 부분의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리카르도의 말은 옳다. 이것은 특히 고유한 의미에서의 고정 자본인 기계 등등에 해당된다.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

어서는 잉여 가치가 총 자본에 비하여 증대된다는 것은 이러한 잉여가치 수준의 제고가 그의 불변 자본(가치가 저하되기 전에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던)의 총 가치의 저하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면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 결코 이익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원료 또는 완제품(고정 자본으로 들어 가지 않는)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극히 낮은 정도에서 밖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현존 양은 항상 총 생산물에 비하여 극히 보잘 것 없 *106*
는 크기를 이룰 뿐이다. 이것이 매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 유동 자본에 투하된 그의 자본 부분에 대하여서는 낮은 정도에서 밖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윤은 총 선대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과 동등하므로, 그리고 흡수될 수 있는 노동량은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양과 생산 수단의 효과성에 의존하며 그것들의 교환 가치에가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 가치에 의존하므로 불변 자본의 형성에 참가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272‖ 부문들에서의 노동이 생산적이면 생산적일수록, 일정한 양의 잉여 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에 대한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총 선대 자본에 대한 이 잉여 가치의 비율은 높으며 따라서 잉여 가치의 양이 주어진 경우에 이윤율이 더 높다는 것은 명백하다.〉

(램지가 두 개의 자립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즉 전국적인 재생산 과정에서의 생산물에 의한 생산물의 보상과 개개의 자본가에게 있어서의 가치에 의한 가치의 보상은 두 개의 관점에 귀착되는데, 이 관점은 둘 다 개개의 자본에 대해서까지도 동시에 자본의 재생산 과정이기도 한 자본의 유통 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램지는 A. 스미스로 하여금 애쓰게 하였고 온갖 모순에 빠지게 한 진짜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곤란을 가장 뚜렷이 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여 보자. 전체 자본(가치로서의)은 노동에 귀착되는데, 이것은 일정한 양의 사회적 노동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불 노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동등하며 부불 노동은 자본가의 이윤과 동등하다. 따라서 전체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금과 이윤에 귀착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임금으로도 이윤으로도 분해되지 않고 재생산 과정에서 소비되었으며 동시에 재생산 조건들인 가치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노동이 어디서든 수행될 수 있는가? 그러면 대체 누가 이 노동을 수행하는가? 노동자의 전체 노동은 두 부분으로 분해되

어 그 한 부분은 그 자신의 노동력을 회복하고 다른 부분은 자본에 대한 이윤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107

[10. 이윤과 임금 이외에 불변 자본도 포함하고 있는, 연간에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연 이윤과 연 임금이 구매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39]

[a. 소비품 생산자들의 불변 자본은 이들 간의 교환으로써는 보상될 수 없다]

이 문제에 뒤섞여 있는 온갖 그릇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과 같은 것을 더 지적하기로 하자. 자본가가 자기의 이윤 즉 자기의 소득의 일부분을 자본, 즉 노동 수단과 노동 재료로 전화시키는 경우에 자본가는 자기를 위하여 노동자가 무상으로 수행한 노동 부분으로 그것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양의 노동으로서, 어떤 새로운 양의 상품 예컨대 그 사용 가치로 보아 노동 수단과 노동 재료로 되는 그런 상품의 등가를 이룬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경우로서 아무런 곤란도 없다. 즉 이 경우에는 불변자본이 자기의 종전의 한계 이상으로 증대되는 것, 또는 이미 존재하며 그리고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 이상으로 새로운 불변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문제이다. 곤란은 현존하는 불변 자본의 재생산에 있는 것이고, 재생산되어야 할 양 이상으로의 새로운 불변 자본의 형성에는 있지 않다. 새로운 불변 자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윤에 기원을 두는 것이며 그것은 한동안 소득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윤의 이 부분은 잉여 노동 시간에 귀착되는데, 이것은 자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말하자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재화를 사회가 가지고 있기 위하여 부단히 지출되어야 할 그러한 것이다.

〈사용 가치의 측면에서이긴 하지만 불변 자본에 관한 훌륭한 설명은 램지의 저서 p.166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총 소득의 크기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예컨대 차지 농업가의 경우에) "이 소득 중에서 생산 과정에서 각종 형태로 소비된 것을 모두 보상하는 데 필요한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 양은 규모가 종전 대로인 한에서는 불변한 것으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불변 자본의 재생산과는 달리 불변 자본의 새로운 형성은 이윤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 한편으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할 따름이며 다른 한편으로 전체 잉여 가치는 전적으로 "이윤"이라는 *108*
범주에 들어 간다는 것이—왜냐 하면 전체 잉여 가치의 일부를 후에 누구에게 또 어디에서 양도하지 않을 수 없든 간에 그것을 직접 취득하는 자는 다름 아닌 산업 자본가이기 때문이다—전제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부의 전반적인 분배자이다. 즉 그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며(화폐) 자본가에게는 대부 이자를 지불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대를 지불한다"(램지, pp.218~219). 우리는 전체 잉여 가치를 이윤이라 부름으로써 자본가를 1) 창조된 전체 잉여 가치를 취득하는 사람으로 2) 이 잉여 가치를 자기 자신과 화폐 자본가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사람으로 본다.〉

‖Ⅶ-273‖ 그러나 이 새로운 불변 자본이 이윤에서 발생한다는 사정은 그것이 노동자의 잉여 노동의 일정한 부분을 자체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것은 미개인이 사냥하는 데 지출하는 시간 외에 또한 활을 만드는 데 일정한 시간을 또 지출하지 않으며 안 되며 가부장제적 농업에서 농민이 토지 경작에 지출하는 시간 외에 자기 도구의 대부분을 제작하는 데 일정한 노동 시간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문제는 이미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의 등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바로 누가 노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 부분은 그의 임금을 보상하든가 또는 생산 전체를 고찰한다면 그의 임금을 창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이윤을 형성하는 그의 잉여 노동은 부분적으로는 자본가를 위한 소비 자금을 이루며 부분적으로는 추가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잉여 노동 또는 이윤으로써, 그 자신의 생산에서 이미 지출된 자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잉여 가치는 새로운 자본 형성을 위한 자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본의 보존을 위한 자금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형성하는 필요 노동과 이윤을 형성하는 잉여 노동은 전체 노동일을 이루며 이 밖에 어떠한 다른 노동도 수행되지 않는다(가령 자본가가 수행한다는 "감독 노동"은 임금에 포함된다. 이 측면에서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자본에 대해서이긴 하

지만 임금 노동자이다). 그러면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원천, 즉 노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본 중에서 임금에 지출된 부분은(잉여 노동은 도외시하고) 새로운 생
109 산에 의하여 보상된다. 노동자는 임금을 소비한다. 그러나 그는 없애 버린 과거 노동만큼 새로운 노동을 첨가한다. 만약 분업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노동 계급을 총체로서 고찰한다면 노동자는 동일한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용 가치도 창조하며 그리하여 그의 노동 생산 능률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 동일한 노동량은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동일한 사용 가치로 재생산 된다.

어떠한 시대의 사회를 보더라도 비율이 극히 다르긴 하나 모든 생산 분야에 일정한 불변 자본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자본은 생산의 조건으로서 전제되고 있으며, 영원히 생산에 속하며, 종자가 토지로 되돌아가듯이 생산으로 되돌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불변 자본 부분의 가치는 이 부분을 이루는 상품의 재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에 따라서 감소 또는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가 이와 같이 변동하더라도 자본 중에서 생산 조건으로서 생산 과정에 들어 가는 불변 부분이 생산물의 가치 속에 재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산 과정에서 미리 주어진 가치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불변 자본 자체의 이 가치 변동은 여기에서 도외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변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나 생산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생산물의 가치에 이전되는 일정한 양의 과거 노동 즉 대상화된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일층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변 자본 부분의 생산비 즉 가치 역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예컨대 불변 자본의 가치는 1년간에 전부 생산물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고정 자본의 가치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량에 수 년간을 통하여서만 이전된다는 것으로 인해서도 역시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불변 자본 중에서 현실적으로 1년간에 소비되며 따라서 그 1년간에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만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변 자본의 재생산에 관한 문제는 명백히 재생산 과정에 관한 편이나 또는 자본의 유통 과정에 관한 편에 속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미 그 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 274 ‖ 우선 노동자의 임금을 들어 보자. 그는 자본가에게 하루 12시

간의 노동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가령 10시간의 노동이 물질화된 일정한 화폐액을 받는다고 하자. 이 임금은 생활수단으로 전화된다. 이 모든 생활 수단은 상품이다. 이 상품들의 가격은 그 가치와 동등하다고 전제하자. 그러나 그 상품들의 가치에는 이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의 *110*
가치의 모든 구성 부분은 총체로서 볼 때 노동자가 지출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10시간의 노동만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이 상품들의 가치의 ⅔는 그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이루는데, ⅓은 생산과정을 끝내고 생산물을 소비품으로 전화시킨 노동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이 노동자는 자기의 10시간의 산 노동으로써 ⅔의 불변자본과 ⅓의 산 노동(연간에 대상에 첨가된)을 보상한다. 만약 생활 수단—노동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불변 자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즉 그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조금도 들지 않았고, 더구나 아무런 노동 도구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품들이 여전히 10시간의 노동을 포함할 경우—이 경우에는 노동자는 10시간의 산 노동을 동일한 10시간의 산 노동으로써 보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의 임금이 전화되며 자기의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용 가치의 동일한 양이 3⅓ 노동 시간만을 요할 경우이다(그 자체가 이미 노동 생산물일 원료와 노동 도구의 결여를 전제로 하고). 이 경우에 노동자의 필요 노동은 3⅓ 노동 시간에 불과하며 그의 임금은 사실상 대상화된 3⅓노동 시간으로 저하될 것이다.

가령 상품이 아마포인데, 12엘레의 아마포=36실링, 즉 1파운드 스털링 16실링이라고 하자(여기에서 실제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물론 아무래도 좋다). 이 액 중에서 ⅓은 첨가된 노동이고 ⅔는 원료(방사)와 기계의 마멸분이라고 하자. 필요 노동 시간은 10시간과 동등하고 따라서 잉여 노동은 2시간과 동등하다고 하자. 그리고 화폐로 표현된 1노동 시간은 1실링과 동등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12노동시간=12 실링이며, 임금=10실링, 이윤=2실링으로 된다. 도합 12실링을 이루는 전체 임금과 전체 이윤, 다시 말하면 원료와 기계에 첨가된 전체 가치, 즉 방사를 아마포로 전화시키는 과정에서 물질화된 새로운 노동 시간의 전체 양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 아마포 자체를 소비품으로서 구매하는 데 지출하였다고 가정하자(후일에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구매하는 데 1노동일

보다 더 많은 것이 지출될 수도 있다). 1엘레의 아마포에는 3실링이 든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임금과 이윤을 합한 12실링으로 도합 4엘레의 아마포 밖에 살 수 없다. 이 4엘레의 아마포에는 12시간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시간만은 새로 첨가된 노동이며 8시간은 불변 자본
111 에 대상화된 노동이다. 임금과 이윤은 12시간의 노동으로도 도합 총 생산물의 ⅓만을 구매한다. 왜냐 하면 이 총 생산물의 ⅔는 불변 자본으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2시간의 노동은 4+8로 분해되는데, 그 중 4는 그 자체를 보상하며 8은 직조 과정에서 첨가된 노동과는 관계 없이 이미 물질화된 형태로 즉 방사와 기계로서 이 과정에 들어 간 노동을 보상한다.

이리하여 생산물 즉 상품 중에서 소비품으로서(또는 재생산 자체와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왜냐 하면 상품의 구매 목적 여하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 및 이윤과 교환 또는 그것들로 구매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생산물의 가치 중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되는 새로 첨가된 노동의 재화에서 지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불변 자본이 많든 적든, 최종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노동이 많든 적든 임금과 이윤을 합한 것으로 구매된다. 즉 최종 생산 단계에서 첨가된 노동이 어떤 비율로 지불되며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이 어떠한 비율로 지불되는가 하는 이것은 모두 그것들이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서 완제품 속에 들어 간 최초의 비율에 의존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은 ⅔이고 새로 첨가된 노동은 ⅓이라는 비율을 전제로 하자.

‖ 275 ‖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이 명백하다 :

첫째로, 우리가 아마포에 대하여 전제로 한 비율, 즉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과 이윤을 자체가 생산한 상품으로 실현하며 자기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를 도로 구매하는 경우의 비율—이 비율은 그들이 동일한 가치액을 다른 생산물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매개 상품에 ⅔의 불변 자본과 ⅓의 새로 첨가된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대로 하면 임금과 이윤을 합한 것은 언제나 생산물의 ⅓만을 구매할 수 있다. 12시간의 노동=4엘레의 아마포, 만약 이 4엘레의 아마포가 화폐로 전화된다면 그것은 12실링으로 존재하게 된다. 만약 이 12실링이 이번에는 아마포가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전화된다면 그것은 12노동 시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4시간은 새로 첨가

된 노동을 이루며 8시간은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다른 상품이나 아마포나 할 것이 없이 최종 생산 단계에서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 간의 최초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둘째로. 하루 동안에 새로 첨가된 노동이 12 시간과 동등하다고 하면 이 12시간 중에서 4시간만은 그 자체를 보상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 즉 *112* 새로 첨가된 노동을 보상한다. 한편 나머지 8시간은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한다. 그런데 역시 이 산 노동 그 자체에 의해서는 보상되지 않는 이 8시간의 산 노동에 대하여는 대체 누가 지불하는가? 그것은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고 8시간 산 노동과 교환되는 바로 그 8시간의 대상화된 노동이 지불한다.

따라서 완제품 중 임금과 이윤의 총액(이 양자를 합친 것은 불변 자본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총량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으로 구매되는 부분은 그 모든 요소가 다 보상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이 보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도 보상된다. 그리고 또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이 이 경우에 자체의 등가를 그것에 새로 첨가된 산노동의 재화 중에서 받는다는 것도 역시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곤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12시간의 직조노동의 총 생산물—이 총 생산물은 직조 노동 그 자체가 생산한 것과는 전연 다르다—은 36시간의 노동 시간 또는 36실링의 가치를 가진 12엘레의 아마포와 동등하다. 그러나 임금과 이윤을 합친 것 또는 12시간의 총 노동 시간은 이 36임금 시간 중에서 12노동 시간만을, 다시 말하면 총 생산물 중에서 1엘레도 에누리 없는 4엘레만을 되살수 있다. 나머지 8엘레는 어떻게 되는가?(포르카드, 프루동)[40]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8엘레는 투하된 불변 자본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 불변 자본의 사용 가치의 형태는 달라졌다. 그것은 방사, 방직기 등등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물 형태로, 즉 아마포로서 존재한다. 이 8엘레의 아마포는 임금과 이윤으로 구매된 나머지 4엘레와 마찬가지로 가치로 보아 그 ⅓만큼은 직조 과정에서 첨가된 노동으로써, ⅔만큼은 불변 자본에 물질화된 과거 노동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4엘레에 있어서 새로 첨가된 노동의 ⅓은 4엘레에 포함된 직조 노동을, 즉 자기 자체를 보상하였고 직조 노동의

나머지 ⅔는 아마포 4엘레에 포함된 불변 자본을 보상하였다면 이제는 그와는 반대로 아마포 8엘레에 포함된 불변 자본은 불변 자본의 ⅔에 의하여 보상되며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은 불변 자본의 ⅓에 의하여 보상되게 된다.

그러면 이 8엘레의 아마포는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는 12시간의 직조 노동 과정에서 생산물에 이전되었고 그 생산과정에 들어 간 전체 불
113 변 자본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흡수되어 있으나 지금은 직접적, 개인적(산업적이 아닌) 소비를 위한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8엘레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만약 그가 자기의 이윤을 표시하는 ⅔엘레를 소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8엘레를 자신이 소비하려고 한다면—‖ 276 ‖ 그는 12시간의 직조 과정에 참가한 불변 자본을 재생산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12시간의 직조 과정에 참가하는 자본이 문제인 한 자본가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8엘레의 아마포를 판매하여 24실링 즉 24노동 시간 분의 화폐로 전화시킨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곤란에 봉착한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판매하는가? 그는 그것을 누구의 화폐로 전화시키는가? 이 문제는 곧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은 이 과정의 행정을 계속 추구하기로 하자.

자본가가 8엘레의 아마포, 즉 그가 자기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그가 선대한 불변 자본과 동등한 부분을 화폐로 전화시키자마자, 즉 판매하여 교환 가치의 형태를 가지게 하자마자, 그는 이 입수한 화폐로 최초에 그의 불변 자본을 이룬 것과 꼭 같은 상품(그 사용 가치로 보아)을 또다시 구매한다. 즉 그는 방사, 방직기 등등을 구매한다. 그는 이 24실링을 새로운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비율로 원료와 생산 도구를 구매하는 데 분배한다.

이리하여 그의 불변 자본은 사용 가치상으로 그 불변 자본을 최초로 이루고 있던 그 생산물을 생산할 때와 동일한 노동의 새로운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자본가는 불변 자본을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사, 새로운 방직기 등등도 역시(전제에 의하면) ⅔만큼은 불변 자본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⅓은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써 이루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최초의 4엘레의 아마포(새로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가 오로지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지불되었다고 하면 이 8엘레의 아마포는 그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새로 생산된 요소들—일부는 새로 첨

가된 노동으로써, 일부는 불변 자본으로써 구성되어 있는—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리하여 적어도 불변 자본의 일부는 다른 형태의 불변 자본과 교환되는 것 같이 보인다. 생산물들의 보상은 현실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가 아마포로 가공됨과 함께 아마는 방사로 가공되고 아마 종자는 아마로 가공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직조기가 마멸됨과 동시에 새로운 직조기가 제작되고 이 직조기가 제작되고 있을 때 또다시 목재와 철이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요소들이 해당생산 분야에서 생산됨과 함께 다른 분야에서는 그것들의 가공이 진행된다.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생산 과정은 각각 생산물 생산의 보다 높은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모든 생산과정들에서 동시에 소비되는 불변 *114* 자본의 비율은 각각 다르다.

이리하여 완제품인 아마포의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하나는 같은 시기에 생산된 불변 자본의 요소들을 새로 구매하며 다른 하나는 소비품으로 지출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이윤의 일부분이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도외시한다. 즉 이 연구 전체를 통하여 그러한 바와 같이 임금 플라스 이윤, 즉 불변 자본에 첨가된 전체 노동량은 소득으로서 소비된다고 가정한다.

남은 문제는 총 생산물 중에서, 그 가치가 이 기간에 새로 생산된 불변 자본의 요소들을 다시 구매하는 데 지출되는 부분을 누가 구매하는가, 누가 8엘레의 아마포를 구매하는가 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 뿐이다. 어떠한 핑계라도 막아 버리기 위하여 예로서 든 이 아마포는 특히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이고 예컨대 돛과 같은 산업적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순전히 중간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순전히 중간적인 상업 행위도 그것이 중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한에서 여기서는 도외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8엘레의 아마포가 상인에게 판매되어 한 사람이 아니라 20명이나 되는 상인의 손을 거쳐 20번이나 구매되고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20번째에는 그것은 상인에 의하여 현실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소비자는 실제로 생산자에게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상인, 즉 현실적인 생산자를 대표하는 그 최후의 20번째 상인에게 지불하거나 한다. 이 중간 거래들은 마지막 거래를 뒤로 밀어 놓거나 매개할—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뿐이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누가 8엘레의 아마포를 아마포 제조업자에게서 구매

하는가, 또는 ‖ 277 | 일련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그것을 입수하게 된 그 20번째 상인에게서 누가 구매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연히 남아 있다.

이 8엘레의 아마포는 최초의 4엘레와 꼭 마찬가지로 소비 자금으로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오직 임금과 이윤에 의해서만 그것이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임금과 이윤은 생산자들—이 경우에는 이들만이 소바자로서 나타난다—의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8엘레의 아마포는 24노동 시간을 포함한다. 가령(일반적인 표준 노동일은 12시간으로 잡고) 직조업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가 자기의 전체 노동일을 (노동자는 자기의 10시간을, 그리고 자본가는 이 10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서 얻은 2시간의 잉여 가치를) 아마포에 지출하는 것과 마
115 찬가지로 다른 두 개 부문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자기의 전체 임금과 이윤을 아마포에 지출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아마포 직조업자는 자기의 8엘레를 판매하게 될 것이며 12엘레에 해당하는, 그의 불변 자본의 가치가 보상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가치는 또다시,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일정한 상품들에 지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에 있는 이 상품들—방사, 직조기 기타—은 방사와 직조기가 가공되어 아마포로 되는 것과 동시에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방사와 직조기가 생산물로서 완성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로서 들어 가게 되는 그 생산 과정과 동시에 그것들의 생산이 진행된다는 사정은 어째서 아마포의 가치 중에서 아마포로 가공된 재료, 직조기 기타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이 새로 방사, 직조기 기타로 전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만약 아마포의 요소들의 이러한 생산이 아마포 자체의 생산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8엘레의 아마포는—그것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화되었다고 하더라도—화폐로부터 아마포의 불변적 요소들로 도로 전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완성된 방사와 완성된 직조기가 아마포로 전화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방사, 새로운 직조기 등등이 시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새로운 방사, 새로운 직조기의 생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방사와 직조기가 아마포와 동시에 생산되었

---

* 예컨대 오늘 미국에서는 국내 전쟁의 결과 면방직 공장주들의 방사 및 면직물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시장에 면화가 없으므로 그들의 생산물의 판매만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역전화가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다고 하더라도 8엘레의 아마포는, 그것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화되기 전에는 직조 생산의 불변 자본의 그러한 소재적 요소들로 역전화될 수 없다. 따라서 언제나 아마포 자체의 생산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아마포의 요소들의 부단한 실제적인 생산은, 8엘레의 아마포를 구매하여 그것에 화폐, 즉 자립적인 교환 가치의 형태를 돌려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기 전에는 아직 불변 자본의 재생산을 해명할 수 없다.

이 최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B*와 *C*—구두 제조공과 고기 장사라고 하자—가 자기 임금과 이윤의 총액을, 즉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24노동 시간을 전적으로 아마포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아마 직조업자 *A*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도로써 곤란에서 벗어 났다. 그의 전체 생산물, 즉 36노동 시간이 대상화된 12엘레의 아마포는 *116*
전적으로 임금과 이윤에 의하여 즉 생산 분야 *A*, *B* 및 *C*에서 불변 자본에 새로 첨가된 전체 노동 시간에 의하여 보상된다. 아마포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노동 시간—이미 이전에 불변 자본 중에 존재하였던 것과 직조 과정에서 새로 첨가된 것—은 이제는 불변 자본으로서는 이전에 어떠한 생산 분야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술한 세 생산 분야 *A*, *B* 및 *C*에서 동시에 마지막 생산 단계에서 불변 자본에 첨가된 노동 시간과 교환되었다.

그리하여 아마포의 최초의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만 분해된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이라고 한다면—왜냐 하면 사실상 그 최초의 가치는 임금과 이윤을 합한 양에 해당하는 가치 즉 12 직조 노동 시간과 그리고 직조 과정과는 관계 없이 방사, 방직기 요컨대 불변 자본에 포함된 24노동 시간의 두 부분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이와는 반대로 12엘레의 아마포의 등가 즉 그것을 판매하여 얻은 36실링이 임금과 이윤으로만 분해된다는 것, 따라서 직조 노동 뿐만 아니라 방사나 방직기에 포함된 노동도 오직 새로 첨가된 노동 즉 *A*에서의 12노동 시간과 *B*에서의 12시간, *C*에서의 12시간에 의하여 보상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을 것이다.

판매된 상품 자체의 가치는 ‖ 278 | 새로 첨가된 노동(임금과 이윤)과 또한 이전에 존재했던 노동(불변 자본의 가치)으로 분해된다. 판매자에 있어서 상품의 가치는 이러하다(그리고 이것은 또 상품의 실제 가치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이 상품을 구매하는 가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

는 등가—는 우리의 예에서는 오로지 새로 첨가된 노동, 즉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된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건 그것이 판매되기 전에는 판매되어야 할 상품이며 그것은 오직 단순한 형태 변화에 의해서만 화폐로 전화되기 때문에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모든 상품은 그 경우에 구매하는 상품으로서(화폐로서)의 상품을 이루는 가치 구성부분들과는 다른 가치 구성 부분들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예컨대 1년 동안에 사회가 수행한 노동은 그 자체를 보상할 뿐 아니라—그리하여 만약 전체 상품량을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분할한다면 연 노동의 절반은 다른 절반의 등가를 이룰 것이다—연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총 노동 중에서 당년의 노동을 이루는 ⅓의 노동은 $^3/_3$의 노동을 보상할 것이다. 즉 그 자체보다 3배나 더 큰 것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욱 황당한 것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우리는 곤란을 *A*에서 *B*와 *C*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곤란이 증대하였을 뿐이지 결코 보다 간단하게 되지는 않았다. 첫째로, 우리가 *A*만을 문제로 삼는 한에 있어서는 방사에 첨가
117 된만큼의 노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4엘레가—이것은 *A*분야에서 임금과 이윤을 합한 것으로 된다—아마포 그대로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로서 소비된다는 출로가 있었다. *B*와 *C*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B*와 *C*는 그들이 첨가된 노동 시간과 합계—임금과 이윤의 합계—를 *A*분야의 생산물인 아마포로 소비하며 따라서 *B*와 *C*의 생산물로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B*와 *C*는 자기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에 포함된 24노동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을 판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에 새로 첨가된 12노동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도 판매하여야 한다. *B*분야는 *A*분야에서처럼 24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36노동시간을 판매하여야 한다. *C*의 경우도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A* 분야의 불변 자본을 판매하여 처치하고 화폐로 전화시키는 데는 *B*분야 뿐만 아니라 *C*분야의 전체 새로 첨가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 세째로, *B*와 *C*는 자기 생산물의 어느 부분도 *A*분야에 판매할 수 없다. 왜냐 하면 *A*의 생산물 중 소득으로 분해되는 부분은 전부가 이미 *A*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A* 분야 자체에서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B*와 *C*는 또한 자기 생산물의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도 *A*의 불변 부분을 보상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제에 의하면 그들의 생산물은 *A*의 생산 요소들이 아니라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갈수록

곤란은 점점 더 커진다.

*A*의 생산물에 포함된 36시간(즉 불변 자본에 포함된 ⅔ 즉 24시간과 또한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서의 ⅓ 즉 12시간)이 오로지 불변 자본에 첨가된 노동과만 교환될 수 있기 위하여는 *A*에서의 임금과 이윤 즉 *A*에서 첨가된 12노동 시간이 이 분야의 생산물의 ⅓을 자체로 소비하여야 하였다. 총 생산물의 나머지 ⅔ 즉 24시간은 불변 자본에 포함된 가치를 표시한다. 이 가치는 *B*와 *C*분야의 임금과 이윤의 총액 즉 *B*와 *C*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과 교환되었다. 그러나 *B*와 *C*가 그들의 생산물 중 임금과 [이윤]에 귀착되는 24시간으로 아마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의 모습을 취한 이 24시간 분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 들어 있는 48시간 분을 불변 자본의 보상을 위해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72시간에 달하는 *B*와 *C*의 생산물을 다른 생산 분야인 *D*, *E* 등등의 이윤 및 임금의 총액과의 교환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에(표준 노동일은 12시간이라고 하면) *B*와 *C*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데는 12×6 즉 72시간—즉 다른 6개 생산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이 지출되어야 하며 ‖279‖, 따라서 *D*, *E*, *F*, *G*, *H*, *I* 분야의 임금과 이윤, 다시 말하면 이 분야에서 해당한 불변 자본에 첨가된 노동 총량이 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B*+*C*의 총 생산물의 가치는 오직 새로 첨가된 *118*
노동 즉 6개 생산 분야—*D*, *E*, *F*, *G*, *H*, *I*—에서의 임금 및 이윤의 총액에 의해서만 보상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6개 분야에서 총 생산물은 역시 모두 판매되어야 하지만(왜냐 하면 이 생산물 중 어느 한 부분도 자기의 총 소득을 이미 *B*와 *C*의 생산물에 지출한 그 6개 분야의 생산자 자신들에 의해서는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총 생산물 중 어느 한 부분도 이 분야들 내부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6×36 노동 시간, 즉 216 노동 시간의 생산물이 문제로 되는데, 그 중 144시간은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72시간(즉 6×12)은 새로 첨가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D* 등등의 생산물을 같은 방법으로 임금과 이윤으로, 즉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전화시키자면 K^1-K^{18}의 18개 생산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전체 노동 즉 이 18개 분야에서의 임금과 이윤의 총액이 전부 *D*, *E*, *F*, *G*, *H*, *I* 분야의 생산물에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생산물은 조금도 자신이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총 소득을 이미 6개 생산 분야*D*−*I*에 지출한 이 18개 생산 분야 K^1-K^{18}은 이번에는 18×36

노동 시간, 즉 648 노동 시간을—그 중 18×12(216시간)은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며 432시간은 불변 자본에 포함된 노동을 표시할 것이다—판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K^1-K^{18} 분야의 새로 첨가된 노동 즉 12×54=648노동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L^1-L^{54} 분야는 자기의 총 생산물 1,944시간(그중 648=12×54는 새로 첨가된 노동과 동등하고 1,296노동 시간은 불변 자본에 포함된 노동과 동등하다)을 새로 첨가된 노동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M^1-M^{162} 분야의 새로 첨가된 노동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162×12=1,944이기 때문이다. 이 M^1-M^{162} 분야들은 이번에는 N^1-N^{486} 분야의 새로 첨가된 노동을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등등.

이것은 훌륭한 무한 급수*이다. 이것은 모든 생산물의 가치는 임금과 이윤으로, 즉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분해되며, 또 상품에 새로 첨가된 노동 뿐만 아니라 이 상품에 포함된 불변 자본도 어떤 다른 생산 분야에서이건 거기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소산이다.

A의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 시간 36시간(⅓은 새로 첨가된 노동, ⅔는 불변자본)을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즉 그 노동 시간이 임금과 이윤에 의하여 지불된다고 전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물의 ⅓(이 가치는 임금과 이윤의 총액과 동등하다)이 A 분야의 생산자 자산들에 의하여 소비되거나 또는, 같은 말이지만 구매되거나 한다고 보아야 하였다. 그 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41]

119 1) A 생산 분야. 생산물=36노동 시간. 24노동 시간—불변 자본. 12시간—새로 첨가된 노동. 생산물의 ⅓은 이 12시간의 분배에 첨가한 측들. 즉 임금과 이윤, 노동자와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된다. A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24노동 시간과 동등한 ⅔가 또 판매되어야 한다.

2) B^1-B^2 생산 분야. 생산물=72노동 시간, 그 중 24는 첨가된 노동이며 48은 불변 자본이다. 첨가된 노동으로써 이 두 분야는 A의 생산물중 A의 불변 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 ⅔를 구매한다. 따라서 B^1-B^2 분야 전체로서는 그들의 총 생산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72노동 시간을 판매하여야 한다.

---

* 원문 progressus in infinitum—역자.

3) C^1-C^6 생산 분야. 생산물=216노동 시간, 그 중에서 72는 새로 첨가된 노동(임금과 이윤)이다. 첨가된 노동으로써 그들은 B^1-B^2의 전체 생산물을 구매한다. 그러나 그들은 216시간—그 중에서 144는 불변 자본—을 판매하여야 한다.

II 280 I 4) D^1-D^{18} 생산 분야. 생산물=648 노동 시간, 그 중 216시간은 첨가된 노동이며 432시간은 불변 자본이다. 그들은 첨가된 노동으로써 C^1-C^6 생산 분야의 총 생산물=216을 구매한다. 그러나 그들은 648을 판매하여야 한다.

5) E^1-E^{54} 생산 분야. 생산물=1,944 노동 시간, 그 중 648은 첨가된 노동이고 1,296은 불변 자본이다. 그들은 D^1-D^{18}의생산 분야의 총 생산물을 구매하나, 그러나 1,944를 판매하여야 한다.

6) F^1-F^{162} 생산 분야. 생산물=5,832, 그 중 1,944는 첨가된 노동이며 3,888은 불변 자본이다. 1,944로써 그들은 E^1-E^{54}의 생산물을 구매한다. 그들은 5,832를 판매하여야 한다,

7) G^1-G^{486} 생산 분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매개 생산 분야에서 언제나 12시간의 1노동일만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분할된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 노동일 수의 증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쓸 데 없이 그것을 복잡하게만 한다.

그리하여 이 계열의 법칙을 보다 명확히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A. 생산물=36시간. 불변 자본=24 시간. 임금과 이윤 총액 즉 새로 첨가된 노동=12시간. 이 12시간은 A 분야 자체의 생산물로 자본과 노동에 의하여 소비된다.

판매되어야 할 A의 생산물=그의 불변 자본=24시간이다.

2) B^1-B^2. 여기서는 A분야의 24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2노동일, 따라서 2개 생산 분야가 필요하다.

생산물=2×36=72시간, 그 중 24시간은 첨가된 노동이고 48시간은 불변 자본이다.

판매되어야 할 B^1과 B^2의 생산물=72노동 시간. 그 중 한 부분도 이 *120* 분야 자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

6) C^1-C^6. 여기서는 6노동일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72=12×6이며 B^1-B^2의 전체 생산물이 C^1-C^6에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물=6×36=216 노동 시간이고 그 중 72는 새로 첨가된 노동이며 144는 불변 자본이다.

18) D^1-D^{18}. 여기서는 18노동일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216=12×18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변 자본 ⅔는 1 노동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생산물=18×36=648(432는 불변 자본)이다.

등등.

단락 첫 머리의 1, 2 등등의 숫자는 노동일의 수 또는 매개 분야에서 1노동일을 가정하므로 각이한 생산 분야에서의 각이한 종류의 노동을 표시한다.

그리하여 1) *A*. 생산물−36 시간, 첨가된 노동−12시간. 판매되어야 할 생산물(불변 자본)=24시간.

또는 :

1) *A*.판매되어야 할 생산물 즉 불변 자본=24 시간. 총 생산물−36시간. 첨가된 노동−12 시간. 이 12시간은 *A* 분야 자체에서 소비된다.

2) B^1-B^2. 이 분야들은 첨가된 노동으로써 *A*의 24시간을 구매한다. 불변 자본−48시간. 총 생산물−72시간.

6) C^1-C^6. 이것들은 첨가된 노동으로써 B^1-B^2의 72시간(=12×6)을 구매한다. 불변 자본−144, 총 생산물−216. 등등.

‖ 281 ‖ 그리하여

1) *A*. 생산물=3노동일(36 시간). 12시간−새로 첨가된 노동. 24시간−불변 자본.

2) B^{1-2} 생산물=2×3=6 노동일(72시간). 첨가된 노동=12×2=24시간. 불변 자본=48=2×24.

6) C^{1-6} 생산물=3×6 노동일=3×72 시간=216 노동 시간. 첨가된 노동=6×12 노동 시간(=72 노동 시간). 불변 자본=2×72=144.

18) D^{1-18}. 생산물=3×3×6 노동일=3×18 노동일=54 노동일=648 노동 시간. 첨가된 노동=12×18=216. 불변 자본=432 노동 시간.

54) E^{1-54}. 생산물=3×54 노동일=162 노동일=1,944 노동 시간. 첨가된 노동=54 노동일=648 노동 시간, 불변 자본=1,296 노동 시간.

162) F^1-F^{162}. 생산물=3×162 노동일=486 노동일=5,832 노동 시간, 그 중 162 노동일 즉 1,944 노동 시간은 첨가된 노동이고 3,888 노동 시간은 불변 자본이다.

486) G^{1-486}. 생산물=3×486 노동일. 그 중 486 노동일 즉 5,832 노동
121 시간은 첨가된 노동이고 11,664노동 시간은 불변 자본이다.

등등.

여기에서 이미 각이한 생산 분야, 즉 729개의 각이한 분야에서의 각이한 노동일 1+2+6+18+54+162+486으로 되는 매우 엄청난 합계를 가질 것인데, 이것은 벌써 사회가 현저하게 분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분야—이 분야에서 12노동 시간만이 즉 1노동일만이 2노동일 분의 불변 자본에 첨가되고 임금과 이윤은 그 자체의 생산물을 소비한다—의 총 생산물 중 24시간 분의 불변 자본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시 오직 새로 첨가된 노동과, 즉 임금 및 이윤과 교환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B^1 및 B^2에서의 2노동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2노동일에 해당하는 것은 4노동일의 불변 자본이다. 그리하여 B^{1-2}의 총 생산물은 6노동일과 동등하다. 이 6노동일은 전부 판매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의 매개 분야는 자기 자체의 생산물 중에서는 조금도 소비하지 않고 자기의 이윤과 임금을 선행 분야들의 생산물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B^{1-2}의 생산물에 포함된 이 6노동일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6노동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또 12노동일 분의 불변 자본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C^{1-6}의 총 생산물은 18노동일과 동등하다. 이것을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18노동일(D^{1-18})이 필요한데 이것은 또다시 36노동일 분의 불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54노동일의 생산물을 전제로 한다. 이 54 노동일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108의 불변 자본을 전제로 하는 E^{1-54}의 54 노동일이 필요하다. 생산물은 162 노동일과 동등하다. 마지막으로 이 162 노동일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324노동일 분의 불변 자본을 전제로 하는 162 노동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486 노동일의 총 생산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F^{1}-F^{162}$의 생산물이다. 마지막으로 F^{1-162}의 이 생산물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972 노동일분의 불변 자본을 전제로 하는 486 노동일(G^{1-486})이 필요하다. 따라서 G^{1-486}의 총 생산물=972 +486=1,458 노동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G* 분야로써 더는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자,—‖ 282 ‖ 사실상 어느 사회나 막론하고 상술한 바와 같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의 이행은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물에는 1,458 노동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에서 486 일은 새로 첨가된 노동에 해당하고 972일은 불변 자본에 대상화된 노동에 해당한다. 486일의

새로 첨가된 노동은 선행 분야 F^{1-162}에서 교환될 수 있다. 그러나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972노동일은 무엇으로 구매될 수 있는가? G^{486} 이상으로는 벌써 아무런 새로운 생산 분야도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새로운 교환 분야도 없다. 그런데 그에 선행한 분야들에서는 F^{1-162}를 제외하
122 면 전혀 교환될 수 없다. G^{1-486} 분야 자체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임금과 이윤은 마지막 한 푼까지 F^{1-162} 분야에 지출하였다. 이리하여 G^{1-486}의 생산물에 대상화되었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972 노동일은 판매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봉착한 곤란—*A* 분야에서의 8엘레의 아마포, 즉 이 분야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의 가치를 표시하는 24노동 시간, 즉 2노동일—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800개의 생산 분야를 두루 돌아 다녔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가령 *A* 분야가 자기의 이윤과 임금의 전부를 아마포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을 *B*와 *C*의 생산물에 지출한다면 계산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여도 별 수가 없다. 지출의 한계로 되는 것은 *A*, *B*, *C*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된 노동의 시간 수이므로 이 분야들은 언제나 그가 첨가한 노동과 동등한 노동 시간만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느 한 가지 생산물만을 많이 구매한다면 그들은 다른 것은 적게 구매하게 된다. 이것은 계산을 혼란시킬 뿐이고 결과를 조금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에서 든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

	생 산 물 (노동일로서의)	첨가된 노동	불변 자본
A)=	3	1	2
B)=	6	2	4
C)=	18	6	12
D)=	54	18	36
E)=	162	54	108
F)=	486	162	324
합계	729	243	486

(A의 생산물의 ⅓은 이 분야에서 소비된다) 만약 이 계산에서 마지막 324노동일(F의 불변자본)이, 농업가가 자기의 생산물에서 공제하여 토지에 돌려보냄으로

써 자기 자체로 보상하는, 따라서 새로운 노동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변자본의 경우와 동등하다면 계산은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불변자본의 일부가 자기 자체를 보상함으로써만 풀릴 것이다.

이리하여 사실상 이 계산에서는 새로 첨가된 노동에 해당하는 243 노동일이 소비된 것으로 되었다. 486 노동일과 동등한 마지막 생산물의 가치는 $A-F$에 포함되어 있는 총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하며 이것은 또한 486 노동일과 동등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G에 486의 새로운 노동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으로써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불변 자본의 486 노동일과 관련된 문제의 해명 대신에 ‖ 283 | 이제는 1,458 노동일(972의 불변 자본+486 노동)과 동등한 G의 생산물에 *123* 포함되어 있는 972 노동일 분의 불변 자본을 주무르는 만족을 얻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G 분야에서는 노동 과정이 불변 자본 없이 진행되며 그리하여 생산물은 새로 첨가된 486 노동일과만 동등하다고 가정함으로써 곤란에서 벗어 나려고 한다면 물론 계산은 깨끗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을 이루는 가치 구성 부분에 대하여 누가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는, 불변 자본이 영이고 따라서 그것이 생산물 가치의 아무런 구성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는 경우를 가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의 전체 생산물이 새로 첨가된 노동과의 교환으로 남김없이 판매될 수 있게 하자면, 즉 그것을 이윤과 임금으로 분해시킬 수 있게 하자면 A, B 및 C^{42}에서의 전체 첨가된 노동이 A 분야의 노동 생산물로 지출되어야 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B+C$의 전체 생산물이 판매되기 위해서도 그것과의 교환으로 $D-D^{18}$에서의 전체 첨가된 노동이 교부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D^1-D^{18}의 전체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E^{1-54}에서 첨가된 전체 노동이 필요하다[43]. E^{1-54} 의 전체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F^{1-162}에서 첨가된 전체 노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1-162}의 전체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G^{1-486}에서 첨가된 전체 노동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G^{1-486} 분야에 의하여 표시되는 이 486개 생산 분야에서는 전체 첨가된 노동 시간이 F의 162개 분야의 전체 생산물과 동등하며 그리고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는 이 전체 생산물은 A, B^{1-2}, C^{1-6}, D^{1-18}, E^{1-54}, F^{1-162} 분야의 불변 자본의 크기와 동등하다. 그러나 $A-F^{162}$에서 적용된 불변 자본의 2배나 되는 G 분야에서의 불변 자본은 보상되지 않

은 채로 남았으며 또 보상될 수도 없다.

우리는 사실상—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매개 생산 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과 과거 노동과의 비례는 1:2이기 때문에—선행 분야들의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행 생산분야들 전체를 합한 것의][44] 2배나 되는 새로운 분야들의 새로 첨가된 노동 자체가 요구된다는 것, 즉 A의 총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A와 B^{1-2}의 첨가된 노동이 요구되면 C^{1-6}의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8개의 D즉 D^{1-18}(다시 말해서 2×9)의 첨가된 노동이 요구된다는 것 등등이라는 것을 보았다. 요컨대 생산물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에 비하여 2배나 되는 새로 첨가된 노동이 항상 [더] 필요하며 그리하여 마지막 생산 분야 G로 말한다면 이 분야의 전체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거의 2배나 되는 새로 첨가된 노동이 [더] 요구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종점 G에서는 이미 출발점 A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을, 즉 새로 첨가된 노동은 자기 자체의 생산물 중에서 이 새로 첨가된 노동 자체의 크기 이상은 결코 구매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는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 노동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소득의 가치가 전체 생산물의 가치를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 이외에는 생산자가(개인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물을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생산물의 가치에서 소득의 가치를 감한 것이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지불되거나 또는(개인적으로) 소비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생산물은 자체의 가격 대로(전제에 의하면 여기에서 가격은 가치와 동등하다) 판매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환 행위를 삽입하는 것 즉 각종 상품 또는 각이한 생산 분야의 생산물의 판매와 구매는 우리의 일을 조금도 전진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 A 분야 즉 최초의 상품인 아마포를 고찰함에 있어서 새로 첨가된 노동은 ⅓ 즉 ‖ 283a |, 12시간이고 [불변] 자본에 포함된 과거 노동은 2×12(즉 24) 시간이었다. 임금과 이윤은 A의 상품 중—따라서 어떤 다른 상품으로 A의 등가물 중—12 노동시간과 동등한 것만을 되살 수 있었다. 임금과 이윤은 24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자기 자체의 불변 자본을 되살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어떤 다른 상품으로 된 이 불변 자본의 등가물을 되살수 없었다.

상품 B에서는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과의 비례가 이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이한 생산 분야에서의 불변 자본과 새로 첨가된 노동과의 비례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비례의 평균치를 산출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사회나 또는 전체 자본가 계급의 생산물 즉 자본의 총 생산물 중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은 a와 동등하고 불변 자본으로 존재하는 과거 노동은 b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 즉 아마포의 경우에 취한 1:2의 비례는 $a:b$의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며 당해 연도 또는 임의의 기간에 첨가된 산 노동과 불변 자본으로 존재하는 과거 노동이라는 이 두 요소간에는 이러저러하게 규정된 또 규정될 수 있는 어떤 비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방사에 첨가된 12시간으로 아마포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4시간만으로 아마포를 구매한다고 하면 나머지 8시간으로는 다른 임의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된 것의 총액은 결코 12시간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8시간의 노동 시간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A는 32 노동 시간 분의 아마포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든 A의 예는 전체 사회의 총 자본에도 타당하며 각종 상품의 교환 행위를 삽입하는 것은 문제를 혼란시킬 뿐이며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A가 사회의 총 생산물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이 총생산물의 ⅓은 생산자들에 의하여 자체 소비를 위하여 구매될 수 있다. 이 생산자들 *125*
은 새로 첨가된 노동량 즉 그들의 총 소득과 동등한 자기들의 임금과 이윤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머지 ⅔에 대한 지불, 구매 및 소비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 따라서 새로 첨가된 노동—총 노동의 ⅓을 이루며 모두 이윤과 임금으로 분해되는—이 자체의 생산물로써 자체를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생산물의 가치 중 총 노동의 ⅓, 즉 새로 첨가된 노동 또는 그것의 등가물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만을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노동에 해당한 ⅔도 자체의 이 과거 노동의 생산물로써 보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불변 자본은 여전히 그 자체와 동등하며, 총 생산물 중에서 불변 자본을 표시하는 가치 부분에서 보상된다. 각종 상품들 간의 교환, 각이한 생산 분야들 간에서의 일련의 매매는, 각이한 생산 분야들의 불변 자본이 이 생산 분야들 간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비례로써 그것이 상호 보상한다는 의미에서만 형태상 일련의 차이를 가져 온다.

이제는 이것을 더 상세히 고찰할 때가 되었다. ‖ 283a ‖

[b. 사회의 전체 불변 자본은 소비품 생산자와 생산 수단 생산자 간의 교환으로써는 보상될 수 없다]

‖283b‖ 나라의 연 생산물이 임금과 이윤(지대, 대부 이자 등등은 이윤에 포함되어 있다)으로 나누어진다는 동일한 견해를 아담 스미스는 제2부 제2장에서 화폐 유통과 신용 체제를 고찰하는 대서 서술하고 있다(후에 투크의 정식화와 대비할 것).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매개 나라의 유통은 두 개의 상이한 영역 즉 실업가들"(dealers)(여기에서 실업가들이란 두말할 것 없이 "전체 상인, 제조업자, 수공업자 등등, 한 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상업 및 공업의 대표자 전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에서만 진행되는 유통과, 실업가들과 소비자들 간에서 진행되는 유통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지폐이건 금속 화폐이건 동일한 화폐 기호가 이 두 유통 영역 중 때로는 이 영역, 때로는 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유통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만큼 그 매개 유통 영역은 그 진행을 위하여 이런 또는 저런 종류의 화폐의 일정한 금액을 요구한다. 상이한 실업가들 간에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는 실업가와 소비자 간의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를 결코 초과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실업가가 구매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제2권, 제2부, 제2장, pp.292~293)[45].

이 점과 또한 투크에 대해서는 다음 서술에서 언급하기로 하자[46].

그러면 우리의 예로 돌아 가자. 아마실을 아마포로 전화시키는 *A* 분야의 하루 생산물은 12엘레 또는 36 실링 또는 36 노동 시간과 동등하
126 다. 이 36 시간 중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의 12시간은 임금과 이윤으로 분할되며 24시간 즉 2노동일은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하다. 그러나 이 불변 자본은 이제는 방사와 직조기라는 종래의 형태로가 아니라 아마포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도 24시간 또는 24실링과 동등한 양의 아마포로 존재한다. 이 아마포 양은 이제는 아마포로 교체된 방사와 직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마포 양과의 교환으로 또다시 동일한 양의 방사와 직조기를 구매할 수 있다(방사와 직조기의 가치는 의연 동일하였고 이 공업 부문들에서의 노동 생산능률은 변함이 없었다고 전제되어 있다).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는 자기의 전체 생산물—연간 또는 일간의(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아

무래도 좋다)—을 직조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의 상품은 직조업자를 위해서만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조업자는 이 상품의 유일한 소비자이다.

만약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매일 그가 소비하는 불변 자본)이 2노동일과 동등하다고 하면 직조업자의 1노동일에는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의 2노동일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 2노동일은 이번에는 다시 극히 상이한 비례로, 새로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으로 분할된다. 그러나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하루의 총 생산물은 도합(기계 제작업자는 직조기만을 생산한다는 조건 하에서) 즉 불변 자본과 첨가된 노동을 합한 것은 2노동일보다 클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직조업자의 하루의 생산물은—직조업자가 새로 12노동 시간을 첨가한 결과—3노동일을 이룬다.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는 직조업자가 소비하는만큼의 산 노동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의 불변 자본에 포함된 노동 시간은 보다 적어야 한다. 방적업자의 기계 제작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저히 직조업자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총괄하여*)을 적용할 수 없다. 직조업자는 방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의 산 노동을 적용할 수 있다(예컨대 이 방적업자는 아마 재배업자보다 확실히 적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방적업자의 자본의 가변 부분에 대한 그의 불변 자본의 우세는 그만큼 더 커야 할 것이다.

‖284‖ 이리하여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은 방적업자와 직조기제작업자의 전체 자본을 보상하는데, 그들 자신의 불변 자본 뿐만 아니라 방적 과정과 기계 생산 과정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까지도 보상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새로운 불변 자본은 다른 불변 자본들을 완전히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것들에 새로 첨가된 노동 전부도 보상한다.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는 자기들의 상품을 직조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새로 첨가된 노 *127*
동에 대한 지불도 받았다.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은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에게 그들 자신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여 주며 그들의 소득(임금과 이윤 총액)을 실현한다.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이 방사와 직조기의 형태로 넘겨 받은,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 자신의 불변 자본만을 보상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 형태의 불변 자본이 다른 형태의 불변 자본

* 원문 summa summarum—역자.

과 교환된 데 불과하다. 사실상 불변 자본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소급하여 보자. 방적업자의 생산물은 두 부분, 즉 아마, 방추, 석탄 등등—요컨대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과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분할된다. 직조기 제작업자의 총 생산물도 마찬가지이다. 방적업자가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할 때 그는 방추 제작업자의 전체 자본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아마 재배업자의 전체 자본도 보상하는 것으로 된다.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은 그들의 불변 자본 부분 플라스 첨가된 노동을 보상한다. 아마 재배업자로 말한다면 그의 불변 자본은 —농기구 등등을 공제한 다음에는—종자, 비료 등등에 귀착된다. 차지 농업가의 이 불변 자본 부분은—농업에서는 많건 적건 매개되어 언제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그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매년 공제되는 것 즉 차지 농업가 자신의 생산물에서 매년 토지 즉 생산 자체에 반환되는 공제분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변 자본 중 그 자체로 보상하고 결코 판매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결코 지불되지 않으며 결코 소비되지 않는, 즉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종자 기타는 그만한 양의 노동 시간과 동등하다. 종자 기타의 가치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로 이 가치는—여기에는 동일한 양의 생산물(노동 생산성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이 문제이기 때문에—또 다시 총 생산물 중에서 공제되어 유통에 들어 가지 않고 생산으로 복귀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불변 자본의 일부—농업에서의 원료로 볼 수 있는 것—는 자기 자체를 보상한다. 그리하여 연 생산의 중요한 한 부문—그 크기, 투하 자본량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에서는 원료로써 이루지고 있는, 불변 자본의 상당한 부분이(인조 비료 등등을 제외하고) 자체로 보상되고 유통에 들어 가지 않으며 그리하여 어느 한 소득 형태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불변 자본 부분(아마 재배업자 자신에 의하여 보상되고 그 자신에게 지불되는)의 보상을 위하여 방적업자는 아마 재배업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128 그와 마찬가지로 직조업자는 방적업자에게, 아마포의 구매자는 직조업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12엘레(=36 실링=3 노동일 즉 36 노동 시간)의 아마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는 모든 것은 아마포 자체로 보상된다고 가정하자.

우선 명백한 것은 아마포의 요소들, 아마포의 불변 자본의 생산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생산물은 앞으로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된 것으로 직접적인 ‖285‖ 소비로는 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임금과 이윤을 아마포, 즉 결국은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그러한 생산물의 구매에 돌려야 한다. 그들은 아마포로 소비하지 않는 것은 모두 아마포와 교환하여 얻은,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생산물로 소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물들의 생산자들은 아마포의 요소의 생산자들이(가치상으로) 아마포 대신에 다른 소비품들을 소비하는 것만큼의 아마포를 소비한다. 결국은 아마포의 요소의 생산자들 자신이 마치도 그것을 아마포로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된다. 왜냐 하면 그들이 다른 생산물로 소비하는 그만큼의 것을 다른 생산물들의 생산자들이 아마포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수수께끼는 교환을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풀려야 한다. 즉 수수께끼는 12엘레의 아마포가 아마포 자체가 또는 아마포의 요소들의 생산에 참가한 전체 생산자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풀려야 한다.

방사와 직조기에서 ⅓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이 제작업자는 동시에 방적기 제작업자이기도 하다고 하자—에 의하여 첨가된 노동이며 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변 자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전체 생산물을 보상하는 8엘레의 아마포(즉 24시간) 또는 24실링 중에서 $^{8}/_{3}$엘레의 아마포(2⅔) 즉 8노동 시간 또는 8실링을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5⅓엘레 또는 16노동 시간에 대한 답변을 주는 문제가 남아 있다.

5⅓엘레 또는 16노동 시간은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 중에서 이 경우에 아마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원료가 ⅔를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재배업자는 이 ⅔를 모두 아마포로 소비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는 자기의 불변 자본을 〈그러나 이 경우에 그의 노동 도구 등등의 마멸 분=0이라고 가정한다〉 결코 유통에 투입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는 자기의 불변 자본을 이미 생산물에서 공제해서 재생산을 위하여 보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5⅓엘레의 아마포[47] 또는—마찬가지이지만—16노동시간의 ⅔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3^{5}/_{9}$엘레 또는 10⅔ 노동시간을 이룬다. 그리하여 5⅓엘레 때기 $3^{5}/_{9}$ 즉 16노동 시간 때기 10⅔ 노동 시간 즉 $1^{7}/_{9}$ 엘

레 또는 5⅓ 노동 시간은 두 부분으로, 즉 직조기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과 방적기 제작업자의 총 생산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에 직조기 제
129 작업자와 방적기 제작업자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86 |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총 생산물	불변 자본	첨가된	소비
직조업자	12엘레의 아마포 (36 실링) (36노동 시간)	8엘레(24시간) (24실링)	직조 노동 12시간	(12시간=) =12실링= =4엘레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에서 방사가 ¾을 이루고 있고 ¼은 직조기(생산 도구 일반)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직조업자는 방적업자에게 6엘레 또는 18시간을 지불 하며 기계 제작업자 기타에게는 2엘레 또는 6시간을 지불한다.

방 적 업 자				기 계 제 작 업 자			
총생산물	불변 자본	첨가된 노동	소비	총생산물	불변 자본	첨가된 노동	소비
6엘레	4엘레	2엘레	2엘레	2엘레	$^{1}/_{3}$엘레	⅔엘레	⅔엘레
18실링	12실링	6실링	6실링	6실링			
18시간	12시간	6시간		6시간			

그리하여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8엘레 중에서 2엘레(=6실링=6시간)는 방적업자에 의하여 소비되고 $^{3}/_{2}$ 엘레(2실링, 2노동 시간)는 직조기 기타 생산 도구의 제작업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따라서 이제는 8마이나스 2⅔ 즉 5⅓ 엘레(=16 실링=16노동 시간)에 대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이 나머지 5⅓엘레(=16실링=16노동 시간)는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을 표시하는—따라서 그의
130 방사의 요소들을 표시하는—4 엘레 중 ¾은 아마와, ¼은 방적기와 각각 동등하다고 가정하자. 방적기의 ‖ 287 | 요소들은 후에 직조기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을 고찰하는 데로 넘어 갈 때 들기로 한다. 방적기 제작

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자.

따라서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4엘레 중 3엘레를 이루는 ¾는 아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마 생산에 적용되는 불변 자본의 대부분은 보상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이 불변 자본의 대부분은 이미 아마 재배업자 자신에 의하여 종자, 비료, 사료, 가축 기타의 형태로 농업 생산에 반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배업자의 생산물 중에서 이 아마 재배업자가 판매하는 부분에 불변 자본으로서 산입하여야 할 것은 그의 노동 도구 등등의 마멸 분 뿐이다. 이 경우에는 첨가된 노동은 적어도 3분의 2와 동등하다고, 그리고 보상되어야 할 불변자본은 기껏해서 3분의 1과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총 생산물	불변 자본	농업에서 첨가된 노동	소비될 수 있는 것
아마	3 엘레 9 실링 9 노동 시간	1 엘레 3 실링 3 노동 시간	2 엘레 6 실링 6 노동 시간	2 엘레 6 실링 6 노동 시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더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1엘레(3실링, 3노동 시간)=아마 재배업자의 불변 자본.

1⅓엘레(4실링, 4노동 시간)=직조기의 불변 자본.

끝으로 방적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 제작업자의 총 생산물에 대해서 이 기계 제작업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1엘레(3실링, 3노동 시간).

따라서 우선 기계 제작업자가 제작한 방적기와 교환하여 그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공제하여야 한다 :

	총 생산물	불변 자본	기계 제작업에서 첨가된 노동	소비될 수 있는 것
방적기	1 엘레 3 실링 3 노동 시간	⅔ 엘레 2 실링 2 노동 시간	⅓ 엘레 1 실링 1 노동 시간	⅓ 엘레 1 실링 1 노동 시간

131 그리고 또 아마 재배업자와 불변 자본인 농기계의 가치를, 소비될 수 있는 부분과 기타 부분들로 분해하자.

	총 생산물	불변 자본	기계 제작업에서 첨가된 노동	소비될 수 있는 것
농기계	1 엘레 3 실링 3 노동 시간	⅔ 엘레 2 실링 2 노동 시간	⅓ 엘레 1 실링 1 노동 시간	⅓ 엘레 1 실링 1 노동 시간

직조업자의 총 생산물 중 기계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계하면 직조기에 해당하는 2엘레, 방적기에 해당하는 1엘레, 농기계에 해당하는 1엘레, 합계 4엘레(12실링, 12노동 시간, 또는 아마포 12엘레와 동등한 전체 생산물의 ⅓)로 된다. 이 4엘레 중에서 직조기 제작업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⅔엘레이며 방적기 제작업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⅓엘레, 농기계 제작업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⅓엘레, 합계 1⅓엘레이다. 나머지는 2⅔엘레 즉 직조기의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4}/_{3}$엘레, 방적기의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⅔엘레와 농기계의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⅔엘레, 합계 $^{8}/_{3}=2^{2}/_{3}$엘레(=8실링=8노동 시간)이다. 그리하여 이 나머지는 보상되어야 할, 기계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을 이룬다. 이 불변 자본은 어떠한 부분들로 분해되는가? 한편으로는 원료 즉 철, 목재, 피대 등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 제작업자가 기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기(이것은 기계 제작업자 자신이 제작할 수도 있다)에서 마멸되는 부분이다. 원료는 불변 자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분은 3분의 1(이 3분의 1은 후에 고찰하기로 한다)이라고 가정하자. 목재와 철에 들어 가는 ⅔는 ‖ 288 ‖ 2⅔ 엘레(2⅔=$^{8}/_{3}=^{24}/_{9}$)의 3분의 2이다. 2⅔의 3분의 1은 $^{8}/_{9}$이다. 따라서 3분의 2는 $^{16}/_{9}$엘레이다.

이 경우에 [목재와 철의 생산에서] 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1이고 첨가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2라고(왜냐 하면 여기서는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가정하자. 이 경우에 $^{16}/_{9}$엘레의 3분의 2는 첨가된 노동을 보상하고 3분의 1은 기계를 보상한다. 따라서 기계의 보상에 돌려지는 것은 $^{16}/_{27}$ 엘레이다. 목재와 철의 생산자, 요컨대 채취 공업의 불변 자본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라고 칭하는 생산 도구로써만 이루어지고 있고 원료로써는 이루지지 않는다.

이리하여 $^{8}/_{9}$엘레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보상에 들어가며 $^{16}/_{27}$ 엘레는 철과 목재의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계의 보상에 들어 간 132 다. 결국 $^{24}/_{27}+^{16}/_{27}=^{40}/_{27}=1^{13}/_{27}$ 엘레로 된다. 따라서 이 아마포 양은 또다시 기계 제작업자에게 돌아 간다.

기계. $^{24}/_{27}$엘레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는 또 원료(철, 목재 기타)와, 또한 기계 설비 중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를 생산할 때에 마멸된 부분과 첨가된 노동으로 분할된다. 따라서 이 요소들의 하나하나가 3분의 1과 동등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8}/_{27}$ 엘레는 첨가된 노동의 몫에 해당하고 나머지 $^{16}/_{27}$엘레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여야 한다.—따라서 $^{8}/_{27}$엘레는 원료에 해당하며 $^{8}/_{27}$엘레는 이 원료 가공 시에 사용된 기계의 마멸 분을 표시하는 가치 구성 부분을 보상하는 것에 해당한다(합계 $^{16}/_{27}$엘레).

다른 한편으로 철과 목재 생산자들의 기계를 보상하는 $^{16}/_{27}$엘레도 역시 원료, 기계 및 첨가된 노동으로 분할된다. 가령 첨가된 노동이 ⅓이라고 하면 그것은 $\frac{16}{27\times3}=\frac{1}{81}$ 엘레와 동등하고 기계의 이 부분의 불변 자본은 $^{32}/_{81}$엘레로 표현되는데, 그중에서 $^{16}/_{81}$엘레는 원료에 해당하며 $^{16}/_{81}$엘레는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한다.

이리하여 기계 제작업자의 수중에는—그의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기 위하여—그가 기계를 제작하는 자기의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는 불변 자본으로서 $^{8}/_{27}$엘레와, 또한 철과 목재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할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하는 $^{16}/_{81}$엘레가 남는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 제작업자는 자기의 불변 자본 중에서 $^{8}/_{27}$엘레로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에 포함되고 있는 원료를 보상하여야 하며 $^{16}/_{81}$엘레로는 철과 목재의 생산자들의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아마포 양 중에서 ⅔는 이번에는 첨가된 노동으로, 그리고 ⅓은 기계의 마멸 분으로 분해된다. 그리하여 $\frac{24}{81}+\frac{16}{81}\left(=\frac{40}{81}\right)$ 중에서 3분의 2— 따라서 $\frac{26\frac{2}{3}}{81}$ —는 노동을 보상한다. 이 원료 중에서 나머지는 ‖ 289 | 또다시 기계를 보상하기 위한 $\frac{13\frac{1}{3}}{81}$ 엘레이다. 따라서 이 $\frac{13\frac{2}{3}}{81}$ 엘레의 아마포는 기계 제작업자에게로 돌아간다.

이제는 기계 제작업자의 수중에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기 위한 $^{8}/_{27}$엘레, 철과 목재 생산자들이 사용한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기 위한 $^{16}/_{81}$ 엘레와 기계 제작업자의 원료(철 등등)로 기계를

133 보상하는 데 들어 가는 가치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frac{13\frac{1}{3}}{81}$ 이 또다시 있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적은 분수로 되면서 우리의 계산을 무한히 계속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12엘레의 아마포는 결코 나머지 없이 정제(整除)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우리의 연구 과정을 요약하여 보자.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이한 생산 분야에는 새로 첨가된 노동(부분적으로는 임금에 지출된 가변 자본을 보상하며 부분적으로는 이윤, 부불 노동, 잉여 노동을 형성하는)과 이 노동이 첨가되는 불변 자본 간에 상이한 비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a*—첨가된 노동—와 *b*—불변 자본—간의 평균적인 비례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불변 자본의 첨가된 자본에 대한 평균 비례는 2대 1, 즉 ⅔대 ⅓로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또 말한 바와 같이 만약 매개 생산 분야에서 자본의 비례가 이러하다고 하면 어떤 일정한 생산 분야에서 첨가된 노동(임금과 이윤을 합한 것)은 항상 자기 자체의 생산물의 ⅓만을 구매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임금과 이윤은 도합 생산물에 대상화된 총 노동 시간의⅓을 이루고 있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가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⅔의 생산물도 역시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나 만약 자본가가 생산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여야 하며 따라서 자기 생산물의 ⅔를 도로 불변 자본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이 ⅔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생산물 중 이윤과 임금의 총액으로써 구매될 수 있는 3분의 1은 이미 우리가 공제하였다. 만약 이 총액이 1노동일 즉 12노동 시간을 표시한다고 하면 생산물 중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은 2노동일 즉 24시간을 표시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물의 [두 번째의] 3분의 1은 제2의 생산 부문에 의하여 이윤과 임금의 총액으로써 구매되며 마지막 3분의 1은 다시 제3의 생산 부문에 의하여 이윤과 임금총액으로써 구매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는 Ⅱ와 Ⅲ의 생산물들에 포함된 전체 첨가된 노동이 Ⅰ의 생산물을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Ⅰ의 생산물의 불변 자본이 오로지 임금과 이윤 즉 새로 첨가된 노동과만 교환하게 하였다.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서나 과거 노동으로서나 할 것이 없이 Ⅱ와 Ⅲ의 생산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6노동일 중에서 어느 하나도 Ⅱ의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에 의해서도 Ⅱ와 Ⅲ의 생산물들에 포함된 노동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않았으며 구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다른 생산물들의 생산자들이 자기의 새로 첨가된 노동 전체를 Ⅱ와 Ⅲ등등의 생산물들의 구매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여야 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X*의 생산물—여기서는 첨 *134*
가된 노동이 선행한 전체 생산물의 불변 자본 총액과 같다—에 머물러야 하였다. 그러나 이 생산물의 3분의 2를 이루는 자체의 불변 자본은 아무에게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의 해결은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X*의 생산물에 있어서는 Ⅰ의 생산물에 있어서처럼 동일한 문제가 의연 남을 것이다. 즉 생산물 중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 누구에게 판매되는가? 또는 생산물의 3분의 1을 이루는 첨가된 새로운 노동이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3분의 1의 새로운 노동 플라스 3분의 2의 과거 노동을 보상할 수 있는가? ⅓=⅔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결국 곤란을 Ⅰ의 생산물에서 Ⅱ의 생산물 등등으로 옮겨 놓는 것,' 요컨대 단순한 상품 교환에 불과한 중개적 고리를 개입시키는 것으로써만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Ⅱ 290 Ⅰ 문제를 다르게 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12엘레의 아마포(=36실링=36노동 시간)는 직조업자의 12노동 시간 또는 그의 1노동일(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을 합한 것 즉 이윤과 임금의 총액)이 포함되어 있는 생산물이며 ⅔는 아마포에 포함된 불변 자본 즉 방사, 기계 등등의 가치를 표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또 핑계와 중간 거래의 개입에 의하여 빠져 나갈 구실을 모두 막아 버리기 위하여—우리는 아마포가 오직 개인적으로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므로 따라서 예컨대 어떠한 새로운 생산물의 원료로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임금과 이윤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소득과 교환되어야 할 생산물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윤의 어느 한 부분도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지 않고 전체 이윤이 소득으로서 지출된다고 가정하였다.

첫 4엘레 즉 직조업자가 첨가한 12노동 시간과 동등한 생산물의 첫 3분의 1로 말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해결해 치웠다. 그것은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되었고 그 가치는 직조업자의 이윤과 임금의 총액과 같았다. 따라서 그것은 방직 기업의 소유자 자신과 그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

비된다. 4엘레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종국적인 해결을 보았다. 사실상 이윤과 임금이 아마포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생산물로 소비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직, 이 다른 생산물의 생산자들이 그 생산물 중 그들 자신이 소비하게 된 부분을 자기 자신의 생산물로가 아니라 아마포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엘레의 아마포 중 직조업자 자신은 1엘레만을 소비하고 3엘레는 그가 고기, 빵, 면포로 소비한다고 하면 아마포 4엘레의 가치는 여전히 직조업자 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다. 다만 차이는 그가 이 가치의 $^{3}/_{4}$을 다른 상품들로 소비하는데 이 다른 생산물들의
135 생산자들은 그들이 임금과 이윤으로써 소비할 수 있는 고기, 빵, 면포를 아마포로 소비한다는 것 뿐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연구 전체를 통하여 그러한 바와 같이 언제나, 상품은 판매될 수 있으며 그것도 그 가치대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제야 우리는 본 문제에 접근하였다.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은 이제는 8엘레(=24노동 시간=24실링)의 아마포의 형태로 존재한다. 만약 직조업자가 생산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 8엘레의 아마포를 화폐로 즉 24실링으로 전화시켜야 하며 이 24실링으로 자기의 불변 자본을 이루는, 새로 생산되어 시장에 있는 생산물을 구매하여야 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직조업자는 자기의 기계를 일정한 햇수가 지나서 단번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로써, 이 기계의 가치 중 매일 소멸하는 부분과 동등한 기계 부분을 매일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가정하자. 생산물 중, 그 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을, 직조업자는 이 불변 자본의 요소들로써, 즉 직조 노동에 필요한 대상화된 생산 조건들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직조업자의 생산물인 아마포는 어떠한 다른 생산 분야로도 생산 조건으로서 들어 가지 않고 다만 개인적 소비로만 들어 간다. 그리하여 직조업자는 자기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을 표시하는 부분을 오직 소득 즉 다른 생산자들의 생산물 가치 중 임금과 이윤, 따라서 새로 첨가된 노동에 귀착되는 부분과의 교환에 의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설정되어야 옳은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로 된다.

우리가 처음 문제를 설정할 때에 발생한 하나의 곤란이 이제는 부분

---

* 원문 in natura—역자.

적으로 제거되었다. 비록 매개 생산 분야에서 첨가된 노동이 ⅓과 동등하고 가정에 의하면 불변 자본은 ⅔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첨가된 노동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이 3분의 1또는 소득의 가치 총액(임금과 이윤. 그런데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도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이윤 부분을 사상한다)은 직접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일하는 생산 부문의 생산물들로만 소비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생산 부문의 생산물들은 자본으로서만 소비될 수 있으며 산업적 소비로만 들어 갈 수 있다.

‖ 291 | 8엘레(=24시간=24실링)로 표시된 불변 자본은 방사(원료)와 기계로써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그것은 ³/₄만큼은 원료로써 ¼만큼은 기계로써 구성되고 있다(그 밖에 여기에서는 원료에 윤활유, 석탄 등등과 같은 모든 보조 재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도외시하는 것이 더 낫다). 이 경우에 방사에는 18실링 또는 18노동 *136*
시간=6엘레가 들 것이고 기계에는 6실링=6노동 시간=2엘레가 들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직조업자가 자기의 8엘레 중 6엘레로는 방사를, 2엘레로는 기계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는 자기의 불변 자본 8엘레로써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노동까지도 보상한다. 그리하여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가치부분은 방적업자와 직조기 제작업자에게서는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으로가 아니라 소득으로 분해된다.

방적업자는 6엘레의 아마포 중에서 3분의 1즉 2엘레(=새로 첨가된 노동 즉 이윤과 임금)는 자신이 소비할 수 있다. 그런데 4엘레는 그의 아마와 기계를 보상할 뿐이다. 예컨대 3엘레는 아마에, 1엘레는 기계에 해당한다. 그는 이 4엘레로써 자기가 새로 구매한 것의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직조업자에게서 받은] 2엘레 중에서 기계 제작업자는 ⅔엘레를 자신이 소비할 수 있고 나머지 ¾엘레는 그의 철과 목재, 요컨대 원료와 또한 기계의 생산에 이용된 기계 설비를 보상할 따름이다. 예컨대 ¾엘레 중 1엘레는 원료에, ⅓엘레는 기계에 해당한다.

12엘레 중에서 이 때까지의 소비 정형은 다음과 같다. 즉 1) 4엘레는 직조업자에 의하여, 2) 2엘레는 방적업자에 의하여, 3) ⅔엘레는 기계 제작업자에 의하여 각각 소비되었다. 합계 6⅔엘레가 소비되었다. 따라서 아직 5⅓엘레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방적업자는 4엘레의 가치 중에서 3엘레로써는 아마를, 1엘레로써는 기계를 보상하여야 한다.

기계 제작업자는 $^{4}/_{3}$엘레의 가치 중에서 1엘레로써는 철과 기타를, ⅓엘레로써는 기계(그 자신이 기계 제작에서 이용한 것)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방적업자는 3엘레를 아마 재배업자의 아마의 대가로 지불한다. 그러나 아마 재배업자의 경우에 특징적인 것은 그의 불변 자본의 일부분(즉 종자, 비료 등등, 요컨대 아마 재배업자가 토지에 반환하는 모든 토지 생산물)은 유통에는 전혀 들어 가지 않고 따라서 그가 판매하는 생산물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생산물(기계, 인조 비료 등등을 보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은 첨가된 노동만을 표시하며 그러므로 이 생산물은 임금과 이윤으로만 분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하여 온 것과 같은 가정을 한다면, 즉 총 생산물의 3분의 1은 첨가된 노동이라고 한다면 첨가된 노동이라는 범주에는 3엘레 중 1엘레가 속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엘레에 대하여—전과 마찬가지로—그 4분의 1이 기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¾엘레로 될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6}/_{4}$엘레는 역시 첨가된 노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아마 재배업자의 이 생산물 부분에는 불변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137 때문이다. 이 불변 자본은 이미 그에 의하여 공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마 재배업자에게서는 2¾엘레가 임금과 이윤 분으로 나갔다. 기계의 보상을 위해서는 ¾엘레가 남았다. 〈그리하여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더 소비되어야 할 5⅓엘레 중에서 이미 2¾엘레는 이용되었다. ($5^{4}/_{12}-2^{6}/_{12}=2^{10}/_{12}=2^{5}/_{6}$엘레)〉 따라서 아마 재배업자는 이 마지막 ¾엘레를 기계의 구입에 돌려야 할 것이다.

기계 제작업자의 계산은 이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그는 직조기에 해당하는 불변 자본 중에서 1엘레는 철 등등에 지출하였고 ⅓엘레는 직조기의 생산 과정에서의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 분에 대하여 지출하였다.

그리고 또 기계 제작업자에게서는 방적업자가 1엘레로 방적기를 구매하고 아마 재배업자는 ¾엘레로 농기구를 구매한다. 기계 제작업자는 이 $^{6}/_{4}$엘레 중에서 ⅓은 그에 의하여 첨가된 노동을 보상하는 데 소비하고 ⅔는 방적기와 농기구에 투하된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 데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6}/_{4}=^{18}/_{12}$이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업자는 ‖ 292 | 또 다시 $^{6}/_{12}$엘레를 소비하여야 하는데 $^{12}/_{12}$즉 1엘레는 불변 자본으로 전

화시켜야 한다(따라서 아직도 소비되지 않은 아마포 $2^5/_6$엘레 중에서 ½엘레가 공제되고 $^{14}/_6$엘레 즉 $2^2/_6$ 또는 $2^1/_3$ 엘레가 남는다).

기계 제작업자는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남겨 놓은 1엘레가 아마포 중에서 ¾은 원료—철, 목재 기타—에 지출하고 ¼은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보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제 전체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

기계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
- 직조기의 몫에서 1엘레는 원료에, ⅓엘레는 그(기계 제작업자) 자신의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함.
- 방적기와 농기계의 몫에서 ¾엘레는 원료에, ¼엘레는 그 자신의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함.

따라서 1¾엘레는 원료에, ⅓+¼엘레는 그 자신의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함.

그리하여 1¾엘레는 제철업자와 목재업자에게서 이 가치액만큼 철과 목재를 구매한다. $^7/_4=^{21}/_{12}$.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아마 재배업자에게서는 불변 자본(원료)의 일부분은 그것이 미리 공제되었기 때문에 그가 판매하는 생산물에는 들어 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전체 생산물을 첨가된 노동과 기계로 분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첨가된 노동이 여기에서는 생산물의 3분의 2이고 기계는 3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소비될 수 있는 것은 *138* $^{14}/_{12}$엘레에 불과하고 불변 자본으로서 기계 분으로는 $^7/_{12}$엘레가 남을 것이다. 이 $^7/_{12}$엘레는 기계 제작업자에게로 돌아 갈 것이다.

따라서 12엘레 중에서 나머지는 기계 제작업자 자신이 자기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여야 할 ⅓+¼ 엘레와, 제철업자와 목재업자가 기계의 대가로 기계 제작업자에게 반환하는 $^7/_{12}$엘레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⅓+¼=$^4/_{12}+^3/_{12}=^7/_{12}$로 된다. 여기에다 제철업자와 목재업에 의하여 반환되는 $^7/_{12}$을 첨가하여야 한다(도합 $^{14}/_{12}$ 즉 $1^2/_{12}$ 또는 $1^1/_6$이다).

제철업자와 목재업자의 기계 및 작업 공구는 기계 제작업자에게서 구매되어야 한다—이것은 직조업자, 방적업자, 아마 재배업자의 기계 및 작업 공구가 기계 제작업자에게서 구매되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가령 $^7/_{12}$엘레 중에서 3분의 1—$^2/_{12}$엘레—는 새로 첨가된 노동을 이룬다고 하자. 따라서 이 $^2/_{12}$엘레도 역시 소비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5/_{12}$엘레(엄격히 말하면 $^4/_{12}$와 $\frac{2/3}{12}$ 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할 필요

가 없다.)는 목재 벌채업자의 도끼와 제철업자의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을 표시하며 또한 $^{3}/_{4}$은 선철, 목재 기타에 해당하며 $^{1}/_{4}$은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한다($^{14}/_{12}$엘레 중에서 남는 것은 $^{12}/_{12}$엘레 즉 1엘레=3노동 시간=3실링이다). 따라서 1엘레 중에서 4분의 1엘레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보상으로 들어 가며 4분의 3엘레는 목재, 철 기타의 보상으로 들어 간다.

그리하여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하는 것은 $\frac{7}{12}$ 엘레 $+\frac{1}{4}$ 엘레$=\frac{7}{12}+\frac{3}{12}=\frac{10}{12}$ 엘레이다. 다른 한편으로 목재와 철에 해당하는 $^{3}/_{4}$엘레를 다시 그것들의 구성 부분들로 분해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기계 제작업자에게 다시 반환하며 그 기계 제작업자는 이번에는 이 일부분의 일부를 제철업자 ‖ 293 ‖와 목재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전혀 소용 없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나머지가 있을 것이며 무한 급수*가 있을 것이다.

[c. 생산수단 생산자들 간에서의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연간에 생산된 노동 생산물과
당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생산물]

그리하여 지금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고찰하여 보자.

기계 제작업자는 $^{10}/_{12}$(또는 $^{5}/_{6}$)엘레의 가치를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남겨 둔다. $^{3}/_{4}$(또는 $^{9}/_{12}$) 엘레는 목재와 철의 해당한 가치를 표시한다. 기계 제작업자는 그것을 제철업자와 목재업자에게 교부함
139 으로써 자기의 원료를 보상하였다. 아마포의 나머지 전부[더는 자체의 구성 부분들로 분해되지 않는]는 $^{19}/_{12}$(또는 $1^{7}/_{12}$) 엘레이다.

기계 제작업자가 자기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나머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5}/_{6}$엘레는 $^{15}/_{6}$ 실링$=^{15}/_{6}$노동시간과 동등하다. 따라서 그것은$2^{3}/_{6}=2^{1}/_{2}$실링 또는 $2^{1}/_{2}$노동 시간과 동등하다. 이 가치는 기계 제작업자에게 아마포로는 보상될 수 없다. 그는 이 아마포를 다시 팔

---

* 원문 progressus infinitum—역자.

아야만 그 $2^{1}/_{2}$실링으로써 자기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할 것이며 한 마디로 말하여 기계를 제작하는 새로운 기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마포를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는가? 다른 생산물들(철과 목재 이외의)의 생산자들에게인가? 그러나 이 생산자들을 이미 아마포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포로 소비하였다. 다만 직조 기업소에서 임금과 이윤을 이루는 4엘레만이 다른 생산물들(직조 생산의 불변 자본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또는 이 불변 자본이 분해되는 노동 이외의)과 교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4엘레는 이미 처리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 제작업자는 이 아마포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미 우리는 노동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된 모든것을 그의 생산물에서 공제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에 의하여 아마포로 소비되었다.

문제를 다르게 제기하여 보자 :

직조업자 기계의 보상에
지출하여 할 것……2엘레=6실링=6노동 시간
방적업자 ……1 〃 =3 〃=3
아마 재배업자 ……$^{2}/_{4}$〃$=1^{1}/_{2}$=
철 및 목재의 생산자 ……$^{7}/_{12}$〃$=1^{3}/_{4}$=〃

기계의 지출된 아마포의
총 엘레 수 즉 아마포의
가치 중 기계의 가치를
표시하는 부분……$4^{1}/_{12}$엘레$=12^{1}/_{4}$실링$=12^{1}/_{4}$노동시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4엘레=12실링=12 노동 시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노동(이윤과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1즉$^{4}/_{3}$엘레 또는 $1^{1}/_{3}$엘레이다.

불변 자본의 몫으로 $2^{2}/_{3}$엘레가 남는데, 이 중에서 $^{3}/_{4}$은 원료에, $^{1}/_{4}$은 기계의 마멸 분을 보상하는 데 들어간다. $2^{2}/_{3}=^{8}/_{3}=^{32}/_{12}$이다. 이 양의 4분의 1은 $^{8}/_{12}$엘레와 동등하다. 기계의 마멸분을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이 $^{8}/_{12}$엘레는 기계 제작업자의 수중에 남는 전부이다. 왜냐하면 그는 $^{24}/_{12}$엘레(2엘레)를 철과 목재의 생산자들에게 원료의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 294 ‖철과 목재의 생산자들에게 또다시 기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
140 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모든 것 즉 $^{7}/_{12}$엘레는 이미 기계 제작업자의 계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철 및 목재의 생산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계는 이미 해당 항목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이 기계는 이중으로 계산될 수 없다. 그리하여 철과 목재의 대가 지불에 들어 가는 마지막 2엘레($2^{8}/_{12}$의 나머지)는—여기서는 원료가 없기 때문에—전적으로 노동에 귀착되며 따라서 아마포로 소비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전부는 기계 제작업자가 적용하는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하는 $^{8}/_{12}$엘레($^{2}/_{3}$엘레)이다.

전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하여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농업가의 불변 자본 중 새로 첨가된 노동에도, 기계에도 귀착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유통에 안 들어 가고 미리 공제된다. 이 부분은 자기 자체의 생산에서 스스로 보상되며 따라서 유통에 들어가는 농업가의 전체 생산물은 기계를 공제하고는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되며 따라서 아마포로 소비될 수 있다. 이로써 문제의 일부는 해결되었다.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해결된다. 즉 한 생산 분야에서 불변 자본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생산 분야에서는 같은 연도 기간에 첨가된 새로운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직조업자의 수중에서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방적업자, 기계 제작업자, 아마 재배업자, 제철업자, 목재업자(석탄업자 등등, 그러나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석탄업자 등등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의 소득으로 분해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데에 아주 명확히 나타난다. 예컨대 동일한 제조업자가 방적도 하고 직조도 하는 경우에 그의 불변 자본은 직조업자의 불변자본보다 적으며, 그에 의하여 첨가된 노동 즉 그의 생산물 중 첨가된 노동으로, 소득—이윤과 임금—으로 분해되는 부분은 직조업자에게서보다 많다. 예컨대 직조업자의 소득은 4엘레=12실링이고 불변 자본은 8엘레=24실링과 동등하였다. 그런데 만약 그가 동시에 방적도 하고 직조도 한다면 그의 소득=6엘레이며 그의 불변 자본=역시 6엘레이다. 즉 2엘레는 직조기에, 3엘레는 아마에, 1엘레는 방적기에 각각 해당한다.)

세째로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결국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노동 도구의 생산자들은 모두 자기의 소득—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이윤과 임금—을 자기자신의 생산물로는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생산물 중 소득으로 분해되는

부분을 그들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여기서는 이것이 문제이다 —로만 또는, 같은 말이지만 교환에 의하여 얻었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 *141*
고 있으며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생산자들의 생산물로만 소비할 수 있다. 원료와 노동 도구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노동은 가치 구성 부분으로서 최종 단계의 생산물에 들어 가며 그것으로만 소비될수 있는데, 이 새로 첨가된 노동은 사용 가치상으로는 원료로서 또는 소비된 기계로서 최종 단계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문제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기계 제작업자의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하는 $^{2}/_{3}$엘레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직조업자, 방적업자, 아마 재배업자, 목재업자가 적용한 작업기들의 마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의 마멸 분이다. 왜냐하면 그 작업기들은 새로운 노동 즉 그 자체로서는 이미 비용이 드는 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원료에 새로운 기계의 형태를 부여하는 그러한 새로운 노동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또는 달리 말하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기계 제작업자는 2실링 또는 2노동 시간과 동등한 이 $^{2}/_{3}$엘레를 아마포로 소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기계를 보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과업은 이 현상을 해명하는 데 있다.

‖295‖ 이윤 중에서 새로운 자본으로(즉 유동 자본으로도 고정 자본으로도, 또 가변 자본으로도 불변 자본으로도) 전화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전혀 도외시한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새로운 가변 자본과 새로운 불변 자본은 새로운 노동 (잉여노동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보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를 도외시한다면 이윤과 임금 총액, 즉 연 소득 총액의 동등한 첨가된(예컨대 년간에) 새로운 노동의 총량은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생산물 즉 식료품, 의류, 난방, 주택, 가구 등등에 지출된다.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이 생산물들의 총액은 가치상으로 연간에 첨가된 노동의 총량(소득의 가치 총액)과 동등하다. 이 노동량은 이 생산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과 과거 노동의 총량과 동등하여야 한다. 이 생산물들을 구매하는 데는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포함된 불변 자본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들의 가치는 이윤과 임금의

총액과 동등하다. 아마포를 예로 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간에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생산물 총액을 대표한다. 이 아마포는 가치상으로 자체의 가치 요소들 전체와 동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가치 전체는 거기에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생산자들에 의하
142 여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아마포는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가치 전부는 이윤과 임금으로, 즉 연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구성 부분들로 분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설명된다:

첫째로 : 아마포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의 일부는 사용가치로서도, 교환 가치로서도 아마포에 들어 가지않는다. 이것은 아마 중 종자 등등에 귀착되는 부분과, 농업 생산물의 불변자본 중 유통에 들어 가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에, 토지에 반환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자체로 보상되며 따라서 이 부분은 자체의 복구를 위하여 아마포에 의한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농민은 자기의 전체 수확물인, 예컨대 120쿼터의 곡물을 판매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다른 농민에게서 종자(예컨데 12쿼터)를 구매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이 다른 농민은 자기의 생산물(120쿼터) 중 12쿼터가 아니라 24쿼터를,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종자에 돌려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240쿼터 중에서 종자로서 토지에 반환되는 것은 24쿼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유통 분야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있다. 각자가 10분의 1을 공제하는 첫째 경우에는 유통에 들어 가는 것은 216쿼터이다. 둘째 경우에는 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농민의 120쿼터와 둘째 농민의 108쿼터 즉 228쿼터다. 그런데 현실적 소비자들에게 해당한 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216쿼터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편의 "실업가들"과 다른 한편의 "실업가들"간에 유통되는 가치 총액은 "실업가들"과 소비자들 간에 유통되는 가치 총액보다 크다는 실례를 보게 된다[48].〉(그리고 또 이러한 차이는 이윤의 일부가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되는 모든 경우와 다음에는 한편의 "실업가들"과 다른 한편의 "실업가들"간의 거래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경우 등등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아마포 즉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생산에 요구되는 불변 자본의 대부분은 아마포에 의하여 보상될 필요가 없다.

둘째로 : 아마포에 필요한 즉 연간에 생산된 소비품에 필요한 불변 자본의 대부분은 한 단계에서는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고 다른 단계에서

는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이루는 이윤과 임금으로 분해되는데, 동일한 가치 총액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예컨대[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의 일부분은 방적업자 등등의 [새로 첨가된] 노동에 귀착된다.

II 296 I 세째로: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중간 생산 단계들에서는 생산물들의 대부분—원료와 일련의 보조 재료를 제외하고—은 결코 소비품의 사용 가치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할수 있는 그 143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으로서만 그 생산물에 들어 간다. 예컨대 기계, 석탄, 유지류, 피대 등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언제나 다음 단계의 불변 자본만을 생산하는 이 매개 단계들에서는—이 단계들이 사회적 분업의 결과 특수한 부문들로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매개 단계의 생산물은 두 부분으로 분할 된다. 즉 일부분은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며 (이 부분은 이윤과 임금으로 분해되며 상술한 바와 같은 제한된 조건[49]하에서는 소득으로 분해된다.) 다른 부분은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가치를 표시한다. 그리하여 그 매개 생산 분야에서는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생산물 중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 되는 부분 즉 해당 분야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생산물 양을 공제한 후에 남는 부분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생산자들 중 아무도 전 단계의 생산물들, 즉 사실상 다음 단계를 위한 불변 자본만을 생산하는 모든 단계의 생산물들은 조금도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비록 최종단계의 생산물(이 경우에는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생산물들을 대표하는 아마포)은 새로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소비품의 마지막 생산자들은 각각 자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첨가되는 노동, 임금과 이윤의 총액 즉 그들의 소득으로 분해되는 부분만을 소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변 자본의 전체 생산자들도 역시 자기의 새로 첨가된 노동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로만 소비하여 실현한다. 이런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은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매 가격은 —생산물 중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량과 동등한 부분을 제외하면—이 생산물의 불변 자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총 노동량을 표현한다. 불변 자본의 생산자들은 그들이 첨가한 전체 노동을 자기 자체의 생산물로가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로 실현하며—그 한에서 마치 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이 임금과 이윤 즉 첨가된 노동으로써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

다.

아마포의 생산자들은 아마포를 자기들의 생산 분야에서 완성하여 내놓는데, 그들은 소비품인 아마포에서 자기들의 소득, 마지막 생산 단계에서 첨가된 노동 즉 임금과 이윤 총액과 동등한 부분을 공제한다(소비품의 상호 교환, 상품을 미리 화폐로 전화시키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소비품의 다른 부분으로써 가치 중 그들이 적용한 불변 자본의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성 부분을
144 지불한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여 생산된 소비품의 이 전체 부분은 이 불변 자본의 가장 가까운 생산자들의 소득과 불변 자본의 가치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 생산자들은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 중에서 가치상 그들의 소득과 동등한 부분만을 공제한다. 그들은 다른 부분으로써는 이번에는 그들의 불변 자본의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데, 이 불변 자본은 또다시 소득+불변 자본과 동등하다. 그러나 계산이 정수(整數)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 뿐이다. 즉 아마포—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불변 자본이 아니라 소득 즉 새로 첨가된 노동만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 뿐이다. 왜냐하면 아마포는 전제에 의하면 소비로만 들어 가고 그것이 다른 생산 단계에 불변 자본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 생산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원료로서 최종단계의 생산물에 들어가는 생산물로 말한다면 그것들은 생산물로서 소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생산물들은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 가치 구성 부분으로서만 들어간다.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은 소득 즉 임금과 이윤으로써 구매된다.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가치 총액은 반드시 임금과 이윤으로, 즉 이 생산물이 통과한 모든 생산 단계에서 첨가된 각이한 노동량들로 분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생산자 자신에 의하여‖297‖생산에 반환되는 농업 생산물 부분(종자, 가축, 비료 등등)이외에 불변 자본의 어떤 다른 부분이 가치 구성 부분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 들어 가지 않고 생산 과정 자체에서 현물로* 자체를 보상하는 그러한 것은 없겠는가?

여기에서 물론 모든 형태의 고정 자본에 대하여, 그것의 가치 자체가

---

* 원문 in natura—역자.

생산에 들어 가고 생산에서 소비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농업(재생산 과정이 인공적으로 수행되는 목축, 양어, 초림을 포함하여)에서 뿐만 아니라—따라서 의류, 식료품 그리고 공업의 고정 자본으로 들어가는 생산물의 대부분, 예컨대 돛, 밧줄, 피대 등등을 위한 각종 원료의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광업에서도 부분적으로 불변 자본이 자체의 생산물 중에서 현물로 보상되며 그리하여 이 불변 자본 부분은 유통에 들어가는 생산물 부분에 의하여 보상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석탄 생산에서 석탄의 일부는 물을 퍼내거나 석탄을 끌어 올리는 증기 기관을 돌리는 데 이용된다.

그리하여 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는 석탄 채취 과정에서 소비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 노동과 동등하며 일부는 이 과정에 *145*
새로 첨가된 노동의 양과 동등하다.(기계 등등의 마멸은 무시한다). 그러나 불변 자본 중 그 자체가 석탄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 총 생산물 중에서 공제되어 생산에 반환된다. 이 부분은 생산자 자체가 보상하므로 누구도 그것을 그에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만약 노동 생산능률이 올라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면 이 생산물 부분으로 표시되는 가치 부분도 불변이며 이 가치 부분은 과거 노동과 연간에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존재하는 노동량 중, 그 가치 부분에 해당한 일정한 부분과 동등하다. 다른 광업 부문들에서도 역시 불변 자본은 부분적으로는 현물로 보상된다.

생산물의 폐설물 예컨대 낙면 등등은 비료로써 토지에 반환되거나 또는 다른 생산 부문들에서 원료로서 이용된다. 예컨대 넝마로 되어 버린 아마포는 종이 생산에 이용된다. 첫째 경우와 같은 경우들에는 한 생산 부문의 불변 자본의 일부는 직접 다른 생산 부문의 불변 자본과 교환될 수 있다. 예컨대 면화는 비료로서 이용되는 낙면과 교환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의 생산과 원료(석탄, 철, 목재)의 생산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생산 단계들은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자들 간에서는 상호 작용이 없다. 아마포는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의 일부분으로는 될 수 없다. 방사(방사로서의)는 아마 재배업자나 기계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의 일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농업 원료에서 얻는 피대, 밧줄 등등과 같은 생산물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재, 철, 석탄도 기계의 원재료로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는

이번에는 생산 수단으로서 목재, 철, 석탄 등등의 생산자의 불변 자본으로 들어 간다. 그리하여 이 두 부문은 사실상 서로 자체의 불변 자본의 일부를 현물로 보상한다. 이 경우에는 불변 자본과 불변 자본과의 교환이 진행된다.

이 경우는 단순히 부기 계산 문제가 아니다. 철 생산자는 철 생산에서 이용된 기계의 마멸 분을 기계 제작업자의 부담으로 계산하며 기계 제작업자는 기계 제작에서 이용된 자기 기계의 마멸 분을 철 생산자의 부담으로 계산한다. 가령 철 생산자와 석탄 생산자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자. 첫째로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는 스스로 석탄을 보상한다. 둘째로 그의 총 생산물—철과 석탄—의 가치는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에다, 기계의 마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를 가한 것과 동등하다. 이 총 생산물 중에서 기계의
146 가치를 보상하는 철의 양을 공제하면 바로 첨가된 노동에 귀착되는 철의 양이 남는다. 이 부분은 기계 제작업자, 공구 생산자 등등의 원재료를 이룬다. 기계 제작업자는 이 부분을 철 생산자에게 아마포로 지불하며 첫째 부분 대신으로는 철 생산자의 설비의 마멸 분을 보상하는 기계를 그에게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 중에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 공구 등등의 마멸 분에 해당하며, 그리하여 원료에도(여기에서는 [석탄과 철 생산에] 적용된 기계 II 298 I와 그리고 자기 자체를 보상하는 석탄 부분을 도외시한다.) 새로 첨가된 노동에도, 따라서 임금에도 이윤에도 귀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마멸 분은 실제로 기계 제작업자가 자기 자신의 기계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제함으로써 보상된다. 기계 제작업자의 생산물 중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는 단순히 그것을 제작하는 데 추가적인 양의 원료가 요구된다는 데 귀착된다. 생산물의 이 부분은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 노동 생산물에서 일정한 양의 기계는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와 동등하며 둘째 양은 원료의 가치와, 그리고 세째 양은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에 포함된 가치 구성 부분과 각각 동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구성 부분은 사실상 자체내에 첨가된 노동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의 측면에서는 이 노동은 영과 같다. 왜냐하면 기계들 중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에서는 원료와 마멸된 기계들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를 보상하는 둘째 부분에서는 새로운 노동과 기계들을 보상하는 부분이 계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되는 세째 부분에는 첨가된 노동도 원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계들 중 이 부분은 다만 기계들의 마멸 분만을 표시한다.

기계 제작업자 자신에게 필요한 기계들은 판매되지 않는다. 이 기계들은 그에게 현물로 보상되며 총 생산물에서 공제된다. 그리하여 그가 판매하는 기계들은 다만 원재료(이것은 원료 생산자의 기계의 마멸 분이 기계 제작업자의 부담으로 계산된 이 경우에는 오직 노동에 귀착된다.)와 첨가된 노동만을 표시하며, 따라서 이 기계들은 기계 제작업자 자신과 또한 원료 생산자에게 있어서 아마포에 귀착된다. 특히 기계 제작업자와 원료 생산자 간의 상호 관계로 말한다면 원료 생산자는 자기 기계의 마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멸 부분의 가치만큼의 철을 공제하였다. 그는 이 철의 양으로써 기계 제작업자와 교환한다. 그 결과 이 양자는 상 147
호 현물로 지불한다. 이 과정은 그들 간에서의 소득의 분배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자본의 유통을 고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50].

현실적으로는 불변 자본은 그것이 부단히 새로 생산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체를 재생산함으로써 보상된다. 그러나 불변 자본 중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 들어 가는 부분은 소비품이 아닌 생산물들에 들어 가는 산 노동에 의하여 지불된다. 즉 이 노동은 과거 자체의 생산물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전체 생산물은 결국은 소득에 귀착될 수 있다. 불변 자본 중 연 생산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부분은 가상적인 불변 자본에 불과하다. 다른 부분은 비록 그것이 총 생산물에 들어 가기는 하나—가치 구성 부분으로서도, 사용 가치로서도—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생산의 불가분적 요소로 남아 있으면서 현물로 보상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비할 수 있는 전체 생산물이 그에 들어간 전체 구성 부분들과 생산 조건들로 어떻게 분배되며 분해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이것은 그 일부가 임금으로 분해되는 한에 있어서 가변 자본 부분과 동등하다.)과 소비할수 있는 생산물의 생산과, 또한 이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의 모든 부분들의 생산은—이 불변 자본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 들어 가는가 들어 가지 않는가에

는 관계 없이—항상 동시에, 서로 나란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온갖 자본은 언제나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자본의 불변 부분은 가변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새로운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되지만 그것은 생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 299 ‖ 기계 제작업자와 원료 생산자—철, 목재등등의 생산자—간의 관계는 그들이 사실상 자기들의 불변 자본의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관계이며(이것은 한편의 불변 자본의 일부가 다른 한편의 소득으로 전화된다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51]),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생산자들의 생산물은, 비록 한편의 생산물이 다른 한편의 생산물의 예비적 단계로 되지만 생산 수단으로서 각각 상대방의 불변 자본에 들어 간다. 철, 목재등등의 생산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기계와의 교환으로, 보상하여야 할 기계의 가치 액만큼의 철, 목재 등등을 기계 제작업자에게 준다. 기계 제작업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불변 자본의 이 부분이 농민에게 있어서의
148 종자와 꼭 같다. 그부분은 그의 연 생산물 중 자체를 현물로 보상하며 그의 소득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을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교환에 의하여, 철 생산자의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 뿐만 아니라 이 기계의 가치 중 첨가된 노동과 기계 제작업자 자신의 기계의 마멸 분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원재료의 형태로 그에게 보상된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업자에게는 그 자신의 기계의 마멸 분에 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계의 마멸 분의 일부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보상으로서) 것까지도 보상된다.

물론 철 생산자에게 판매된 이 기계도 역시 원료 및 첨가된 노동과 동등한 가치 구성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다른 기계에서는 그만큼 적게 마멸 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철 등등의 생산자들의 불변 자본의 이 부분 즉 그들의 연 노동의 생산물 중 마멸 분을 표시하는 불변 자본가치 부분만을 보상하는 이 부분은 기계 제작업자가 다른 산업가들에게 판매하는 기계에는 들어 가지 않는다. 이 다른 기계들의 마멸 분을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2노동 시간과 동등한 상술한 $^{2}/_{3}$엘레의 아마포에 의하여 기계 제작업자에게 보상된다. 기계 제작업자는 그것으로써 선철, 목재 등등을 동일한 가치액만큼 구매하여 마멸 분을 자기의 불변 자본의 다른 형태로, 즉 선철의 형태로 보상한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업자의 원료의 일부분은 원료의 가치 이외에 그의 기

계의 마멸분의 가치까지도 그에게 보상한다. 그러나 선철 등등의 생산자측에서는 이 원료가 다만 첨가된 노동에만 귀착된다. 그것은 이 원료(철, 목재, 석탄 등등) 생산자들의 기계는 이미 이전에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마포의 모든 요소는, 일정한 노동량 중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량과는 동등하나 불변 자본에 포함되어 있고 재생산에 의하여 영구화되는 총 노동량과는 결코 동등하지 않는 양에 귀착된다.

어쨌든 1년 동안에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며 따라서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상품의 총량을 형성하는 노동—일부는 산 노동이고, 일부는 과거 노동인—량이 연간에 첨가된 노동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어반복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것은 이윤과 임금의 총액과 동등하며 새로 첨가된 노동과 동등하며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는 상품의 총량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철 생산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실례는 개별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 상호 자체의 생산물로 생산 수단을 제공하는 기타 각이한 생산 분야들 *149*
간에서도 역시 그들의 불변 자본의 교환이 현물로 진행된다(이 교환이 일련의 화폐 거래에 의하여 은폐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환이 진행되는 한 소비로 들어 가는 최종 단계의 생산물의 소비자들은 그 불변 자본이 이미 보상되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299 ‖

‖ 304 ‖ 〈예컨대 기관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매일 몇 차량씩의 쇠밥이 나온다. 그것은 수집되어 기관차 제작 공장 소유자의 주요 원료를 납입하는 제철 공장 소유자에게 도로 판매된다 (또는 계산에서 고려된다). 제철 공장 소유자는 이 쇠밥을 덩어리로 만들며 그것에다 새로운 노동을 첨가한다. 그리하여 이 제철 공장 소유자가 기관차 제작 공장 소유자에게 쇠밥을 도로 보내는 이 형태에서 이 쇠밥은 생산물의 가치 중 원료를 보상하는 부분을 이룬다. 이렇듯 쇠밥은—물론 동일한 쇠밥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것의 일정한 양이—두 공장 간을 왕래한다. 이부분은 번갈아 가면서 두 공업 부문의 원료로 되며 가치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이동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단계의 생산물로는 들어 가지 않고 현물로써의 불변 자본의 보상을 표시한다.

사실상 기계 제작업자가 납입하는 매개 기계는—그 가치를 고찰한다면—원료와 첨가된 노동과 기계의 마멸 분으로 분해된다. 그러나 다른

분야들의 생산에 들어 가는 이 기계의 총계는 제철 공장 소유자 간에 부단히 왕래하는, 불변 자본의 일부를 감한 것과 동등할 수 있다.

농민이 판매하는 1쿼터의 밀은 다른 모든 1쿼터의 밀만큼의 값이 있다. 판매된 1쿼터의 밀은 결코 종자의 형태로 토지에 반환되는 1쿼터보다 싸지않다. 그렇지만 만약 생산물이 6쿼터이고 1쿼터당 3파운드 스털링이며 또한 매 쿼터는 첨가된 노동, 원료, 기계 등에 해당하는 가치 구성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 농민이 1쿼터를 종자로 사용하여 한다고 하면 그는 소비자들에게 15파운드 스털링을 받고 5쿼터만을 판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1쿼터의 종자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구성 부분들의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요점이 있다 : 판매된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치 요소들—새로 첨가된 노동과 불변 자본—과 동등한데, 소비자
150 는 불변 자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 생산물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52] 304 ‖

‖ 300 ‖ 〈상술한 것에 대한 보충.

속물 세이가 문제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보여준다 : "이 소득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물의 전체 가치가 각이한 인물들의 소득으로 분할된다는 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왜냐 하면 온갖 생산물의 총 가치는 그 생산물의 창조에 기여한 토지 소유자, 자본가 및 근로자들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의 소득은 경제학자 일파가[53] 생각한 것과 같이 토지의 순 생산물과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총 가치와 동등하다… 만약 한 국민의 소득이 소비된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가치의 초과분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로부터는 연간에 생산하는만큼의 가치를 소비하는 국민은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참으로 모순된 결론이 나올 것이다"(인용한 책, 제2권, PP. 63~64). 이러한 국민은 사실상 지난 해에는 아무런 소득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연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생산물이 다만 그 일부분만을 이루고 있는 연 노동 생산물은 소득에 귀착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생산물 중 연간에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옳다. 오직 첨가된 노동으로써만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이, 일부는 첨가된 노동으로, 또 일부는 과거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산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첨가된 노동은 이 생산물들로 자기자체의 대가 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의 대가까지

도 지불할 수 있다. 그것은 생산물 중 역시 첨가된 노동과 과거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부분이 다만 과거 노동만을 즉 불변자본만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11. 보충: 가치 척도 문제에서의 스미스의 혼란. 스미스의 제 모순의 일반적 성격]

〈여기에서 고찰한 아담 스미스의 논점들에 더 첨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가 가치 규정에서 동요하게 된 것은—임금 문제에서의 명백한 모순[54]외에—다음과 같은 개념 혼동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즉 동시에 가치의 실체를 이루고 내재적 척도로서의 가치 척도가, 화폐가 가치 척도라고 불리우는 의미에서의 가치 척도와 혼동되고 있다. 이로부터 둘째 의미에서의 척도로서, 다른 상품의 불변의 척도로 될,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발견하려는 시도—원(圓)의 구적법(求積法)과 같은 불가능한—가 나온다. 화폐의 의미에서의 가치 척 *151*
도와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의 저작 제 1부[55]를 보라, 이러한 혼동은 리카르도에게서도 간혹 찾아 볼 수 있다.〉
‖ 300 ‖

*　　*　　*

‖ 299 ‖ A. 스미스의 모순들은 그것들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는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자체 모순에 빠짐으로써 벌써 그것들을 제기하였다. 이 점에서의 그의 정확한 본능은 그의 추종자들이 상호 논쟁하면서 스미스에게서 때로는 이 측면을, 때로는 저 측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가장 잘 증명된다[56].

[제 4 장]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제 이론

그러면 A. 스미스의 견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찰하여야 할 마지막 논쟁점인 ‖300‖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간의 차이로 넘어가자.

‖300‖ 이상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A. 스미스는 모든 점에서 이중적이었는데, 그가 비생산적 노동과는 달리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이중적이다. 우리는 그가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두 개의 규정이 부단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선 첫째 정당한 규정을 고찰하여 보자.

[1. 자본주의 하에서의,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으로서의 생산적 노동]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가변자본 부분(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 부분)과 교환되어 이 자본 부분(즉 그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자본가를 위한 잉여 가치도 생산하는 임금 노동이다. 오직 이것 때문에 상품 또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되며, 자본으로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임금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이것은, 이 임금 노동이 그에 지출된 가치액을 증가된 규모로 재생산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노동이 임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적용됨으로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주는 노동력만이 생산적이다).

자본가 계급, 따라서 자본의 존재 자체가 노동의 생산성에 기초하되 노동의 절대적 생산성에가 아니라 그것의 상대적 생산성에 기초한다. 예컨대 노동일이 겨우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즉 그의 노동력을
153 재생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301 ‖ 절대적으로 말하면 그 노동은 생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소비한 가치(이 가치액은 그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하다)를 재생산 즉 항상 보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은 아무런 잉여 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적 의미에서는 생산적이 아닐 것이다(그 노동은 사실상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생산하지 않고 종래의 가치를 보상하였을 따름일 것이며, 다른 형태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한 형태의 가치를 소비한 것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이 그가 소비하는 것과 동등하면 그 노동자는 생산적이고 한 노동자가 재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그는 비생산적이라고 말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 생산성은, 노동자는 종래의 가치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도 더 창조한다는, 즉 그는 노동자로서의 그의 생존을 유지케 하는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자기의 생산물에 대상화한다는 상대적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임금 노동이 바로 자본의 존재의 기초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자본도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가 자기의 잉여 노동, 즉 그가 창조한 가치 중 그가 소비한 가치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자신이 차지한다고 하자. 이런 사태에서만 그러한 노동자의 노동은 참으로 생산적이라고, 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농주의자와 중상주의자의 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의 제기]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따라서 자본의 본질에 관한 A. 스미스의 표상에서 저절로 나온다. 그가 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그는 중농주의자들 심지어는 중상주의자들이 취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경우에 그는 그 방향에서 그릇된 표상 방식에서만은 벗어 났으며 따라서 그 내부적 알맹이를 끌어 내었다. 중농주의자들은 부당하게도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적 견지에서는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생산 조건들의 소유자를 위하여 창조하는 노동만이,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순 생산물"을 창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정당한 견해를 가졌었다. 그것은 잉여 가치 즉 잉여 노동 시간이 잉여 생산물 즉 "순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중농주의자들은 또 이 순 생산물이라는 것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순 생산물이라고 간주하는 까닭은 예컨대 노동자와 차지인이 먹어 없애는 것보다 더 많은 밀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물도 그 생산자들인 노동자와 기업가가 입어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지 않는가). 그들은 가치에 *154* 관하여 그릇된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여 가치 자체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즉 그들은 가치를 노동의 사용 가치에 귀착시키고 있고 노동 시간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회적 노동에 귀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그 자체에 드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정당한 규정이 남는다. A.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규정과 결부되어 있는 그릇된 표상에서 그것을 벗어 나게 하였다.

만약 우리가 중농주의자들로부터 한 걸음 더 되돌아 가서 중상주의자들을 본다면 비록 이들은 무의식적이었지만 그 견해의 한 측면으로서 이들에게도 생산적 노동에 대한 동일한 견해가 있었다.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는, 생산물을 외국에 보냄으로써 그 생산물에 든 것보다 더 많은(또는 그 생산물 대신에 수출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국내에 가져오며 따라서 나라로 하여금 새로 개발된 금광과 은광의 생산물을 차지하는 데에 더욱 더 맹렬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만 노동은 생산적이라는 표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부와 중간 계급이 급속히 성장한 것을 보았다. 금의 이러한 영향력은 사실상 무엇에 기인하였는가? 임금의 성장은 상품 가격의 성장보다 뒤떨어지곤 하였으며 따라서 임금은 떨어졌고 그럼으로써 상대적 잉여 노동은 늘었으며 이윤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가 보다 생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절대적 임금(즉 노동자가 받는 생활 수단의 액)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이런 노동을 적용하는 기업가들에게는 노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었다. 이

사실이 귀금속의 유입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중상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산 부문들에 적용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언명하게 한 하나의 동기—비록 어렴풋이 의식되었을 따름이지만—로 되었다.

‖302‖ "최근 50 내지 60년간에 거의 전 유럽에서 일어 난 인구의 놀라운 증가는 아마도 주로 아메리카 금광들의 생산성이 성장한 때문인 것 같다. 귀금속의 잉여의 증대는"(물론 귀금속의 현실적 가치의 저락의 결과인) "노동의 가격보다 더 많이 상품 가격을 끌어 올린다. 그것은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며 동시에 그의 고용주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그 결과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유동 자본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인구 증가를 촉진한다… 맬더스는 아메리카의 광산들의 발견에 따라 곡물 가격은 3~4배로 올랐는데 노동의 가격은 겨우 2
155 배로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소비를 위한 상품의 가격(예컨대 곡물 가격)은 화폐가 유입된다고 하여 즉시에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농업에서의 이윤율은 공업에서의 이윤율보다 떨어지므로 자본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자본들은 종전보다 더 높은 이윤을 가져 오는데, 이윤의 증대는 언제나 임금의 저락과 동등한 영향을 준다"(존 바튼, 『사회의 노동 계급의 처지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 런던, 1817, p29 이하).

그리하여 첫째로, 바튼에 의하면 16세기 마지막 30여년간과 17세기에 중상주의에 충격을 준 동일한 현상이 18 세기 하반기에 반복되었다. 둘째로, 수출 상품만은 금 은의 저락된 가치에 따라 측정되는데 한편 국내 소비를 위한 상품은 아직 금 은의 종전 가치에 따라 계속 측정되므로(자본가들간의 경쟁이 두개의 상이한 척도에 의한 이러한 측정을 제거할 때까지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의 노동은 직접 생산적인 노동으로서, 즉 임금이 종전 수준보다 떨어짐으로써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으로서 나타났다.

[3.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개념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첫째 설명:생산적 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라는 견해]

스미스가 생산적 노동에 관하여 전개하고 있는 둘째의 그릇된 견해는

옳은 견해와 심히 엉켜 있으며 이 두 견해는 동일한 곳에서 서로 꼬리를 맞물고 돌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견해를 예증하기 위하여 인용문을 토막 토막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종류의 노동은 그것이 가해지는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다른 종류의 노동은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전자는 그것이 가치를 생산하므로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하여 매뉴팩쳐 노동자의 노동은 보통 그가 가공하는 재료의 가치에다 자기 자신의 유지에 드는 가치와 그의 주인의 이윤을 첨가한다. 이와는 반대로 종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비록 매뉴팩쳐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자기 주인에게서 선대 받는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 때문에 그 주인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임금의 가치는 보통 자기의 노동을 가한 물건의 증대된 가치를 통하여 이윤과 함께 주인에게 복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을 유지하는 비용은 결코 상환되지 않는다. 사람은 다수의 매뉴팩쳐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유하게 된다. 사람은 다수의 종을 부리면 가난하게 된다" (제2부, 제3장, 맥컬로크 편, 제2권, P. 93). *156*

이 곳에서는—그런데 아래에서 인용하게 될 이 곳의 계속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규정들이 더욱더 서로 엉켜 있다—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의"(즉 임금 노동자의) "유지"에 드는 가치의 재생산을 초과하여 잉여 가치—"그의 주인의 이윤"—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매뉴팩쳐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지에 드는 가치를 초과하여 잉여 가치를 더 창조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자는"다수의 매뉴팩쳐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유하여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A. 스미스는 여기에서는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Ⅲ 303 l 둘째 설명은 잠시 젖혀놓고 우선 스미스의 첫째 견해가 부분적으로는 보다 날카롭게 정식화되어 있으며 주요하게는 동시에 더욱 발전되어 있는 다른 곳을 인용하자.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소비한…식료와 의류의 양이 생산적 노동자들 간에 분배되었다면 생산적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소비한 것의 전 가치를 이윤과 함께 재생산하였을 것이다"(같은 책 P.109, 제2부, 제3장).

여기에서는 임금의 내용으로 되는 생활 수단의 전 가치를 자본가에게 재생산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윤과 함께" 재생산하여 주는 노동자가

생산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다. 그러나 상품이나 화폐는 그것들이 직접 노동력과 교환됨으로써, 그것도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보다 더 많은 노동으로써 보상 받기 위하여서만 교환됨으로써 자본으로 된다. 왜냐하면 자본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그 현실적 사용 가치에, 즉 어떤 구체적 노동의 효용에, 이 노동이 방적 노동, 직조 노동 등등이라는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물이 자본가에게는 상품(그것도 첫째 형태 변화를 일으키기 전의)이지 소비품이 아니므로 이 노동 생산물의 사용 가치 자체는 자본가의 관심사로 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상품에 있어서 그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그 상품에는 그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에게 있어서 노동의 사용 가치는 그
157 가 임금 형태로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 시간을 도로 받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노동자 중에는 물론 본래의 의미의 노동자로부터 지배인, 기사(자본가와는 다른)에 이르기까지의, 상품 생산에 이러저러하게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한다. 그러므로 공장에 관한 최근의 영국 공식 보고에서도, 공장주 자신은 제외하고 공장과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명확히" 임금 노동자의 범주에 집어 넣고 있다(이 너절한 것의 마지막 부분 앞에 있는 보고의 문구를 보라).

생산적 노동이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견지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A. 스미스는 그 경우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였고 정확히 정통을 찔렀다. 그의 최대의 과학적 공적의 하나(맬더스가 정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스미스의 이 구별은 전체 부르조아 경제학의 초석으로 되고 있다)는 그가 생산적 노동을 직접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즉 노동의 생산 제 조건과 가치 일반인 화폐 또는 상품이 비로소 자본으로 전화(그리고 노동은 과학적 의미에서의 임금 노동으로 전화)되게 하는 그러한 교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써 비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확정되었다. 그것은, 자본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득과 교환되는 노동 즉 임금 또는 이윤과(물론, 이자나 지대와 같이 자본가의 이윤에서 한 몫씩 보는 각각의 항목들과도) 교환되는 노동이다. 온갖 노동이 부분적

으로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보수를 내고(예컨대 부역 농민의 농업 노동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직접 소득과 교환되는(아시아의 도시들에서의 매뉴팩쳐 노동과 같이) 곳에서는 부르조아 경제의 의미에서의 자본과 임금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노동의 소재적 특징에서(그 노동의 생산물의 본성에서도, 구체적 노동으로서의 노동에 고유한 일정한 속성들에서도) 취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노동에 실현되는 일정한 사회 형태, 사회적 생산 제 관계에서 취하여진 것이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연극 배우나 어릿광대도, 만약 그가 자본가(기업가)에게 고용되어 그에게서 임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그 자본가에게 돌려 준다면 그는 생산적 노동자이지만, 수선 재봉사가 자본가의 집에 와서 자본가의 바지를 고쳐 주고 자본가를 위하여 사용 가치만을 창조하여 준다면 그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전자의 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는 것이며, 후자의 노동은 소득과 교환되는 것이다. 첫째 종류의 노동은 잉여 가치를 창조하며 둘째 종류의 노동에서는 소득이 소비된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은 여기에서는 언제나 화폐 소유자인 자본 158
가의 입장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가닐 등등은 어리석게도 사태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 못하였던지 매춘부, 하인 등등의 노동 즉 봉사 또는 기능은 화폐를 가져 오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03 ‖

‖ 304 ‖ 작가가 생산적 노동자인 것은 그가 사상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 서적상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떤 자본가의 임금 노동자인 한에서 생산적이다.

생산적 노동자의 노동이 체화되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전혀 보잘 것 없는 것일 수 있다. 소재적 측면으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이 규정은 생산적 노동이라는 노동의 속성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으며 이 속성은 도리어 일정한 사회적 생산 관계를 표현할 따름이다. 이것은 노동의 내용 또는 노동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에서 나오는, 노동에 대한 규정이다.

다른 한편, 만약 자본이 전체 생산을 장악하였으며 따라서 상품(단순한 사용 가치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은 이미 이 상품의 생산 조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가만이 상품들(노동력이라는 상품만은 제외하고)의 생산자라고 전제한다면, 소득은 오직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과 교환되든가, 그렇지 않으

면 이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위하여 구매되는 노동, 즉 다만 노동에 고유한 일정한 소재적 속성들 때문에, 노동의 사용 가치 때문에, 노동이 자체의 소재적 규정성에서 자체의 구매자 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봉사 때문에 구매되는 그러한 노동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봉사의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봉사는 상품이다. 봉사는 일정한 사용가치(상상적 또는 현실적)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이 봉사는 다만 사용가치이며, ‖305‖ 그가 자기의 소득을 소비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비생산적 노동자는 소득(임금과 이윤)중에서의 자기의 몫, 즉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상품들에서의 자기의 몫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는 이 상품들의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은 명백하다. 즉 소득(임금과 이윤) 중에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지출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생산적 노동자의 봉사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은 더욱 적으며, 반대로 전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후자는 많다는 것이다.

159 이러저러한 노동, 따라서 그 생산물의 소재적 성격은 절대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이 구별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예컨대 식당의 요리사와 종업원은 그들의 노동이 식당 주인에게 있어서 자본으로 전화되는 한에서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내가 같은 이 사람들의 봉사를 자본으로 만들지 않고 그 봉사의 댓가로 나의 소득을 지출하는 한에서는 그들은 하인으로서의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이 사람들도 식당에서는 소비자인 나에게 대하여서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어떤 나라이든 그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 중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언제나 직접 생산적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된다. 그 부분은 생산적 노동의 임금을 지불할 따름이다. 이윤으로서든 지대로서든 소득의 형성에 직접 예정된 부분은 동일하게 생산적 노동자의 유지에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화의 얼마 만한 부분을 자본으로서 지출하든 간에 그는 언제나 그 부분이 이윤과 함께 그에게 다시 보상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을 오로지 생산적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데 지출한다. 그 부분은 그를 위하여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는 생산적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을 형성한다. 그가 자기 재화의 일부를 이러저러한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유지에 사용한다면 언제나 그 순간

부터 이 부분은 그의 자본에서 떨어져 나가서 비생산적 소비에 예정된 그의 재화로 들어간다"(같은 책, P. 98)

자본이 전체 생산을 장악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하여 소규모의 가내 공업 형태, 요컨대 자가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고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지 않는 공업이 소멸하는 정도에 따라 비생산적 노동자들, 즉 직접 소득과 교환되어 봉사를 수행하는 일군들 중 대부분은 벌써 인적 봉사만을 수행하고 극소부분만이(예컨대 요리사, 여자재봉사, 수선 재봉사 등등) 물적 사용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들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태의 본성 자체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상품 그 자체는 결코 직접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교환 가치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하에서는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극히 적은 부분만이 직접 물질적 생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봉사를 소득과 교환함으로써만 물질적 생산에 참가한다. 이러한 사정은 A. 스미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봉사의 가치를 생산적 노동자의 가치와 동일한(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즉 그들의 유지 또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하며 또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는 또 다른 사정이 첨가되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고찰할 것은 아니다.

‖306‖ 생산적 노동자의 노동력은 그 자신에 있어서는 하나의 상품이 *160*
다. 비생산적 노동자의 노동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의 구매자를 위하여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비생산적 노동자는 그를 위하여 단순한 사용가치—상상적 또는 현실적—를 생산하는 것이며 아무런 상품도 생산하지 않는다.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구매자에게서 상품을 받기는 하지만 그를 위하여 아무런 상품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일부 신분들의 노동은 하인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예컨대 군주와 그에게 복무하는 그의 모든 법관들과 장교들, 전체 육군과 해군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사회의 봉사자이며 타인의 노동에 의한 연 생산물의 일부로써 유지된다…이 계급에 넣어야 할 것은… 승려, 법률가, 의사, 각종 작가, 연극 배우, 광대, 음악가, 오페라 가수, 무용가 등등이다"(같은 책, PP. 94~95).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이 구별은

절대로 노동의 특수성과도, 노동의 특수성이 체화되어 있는 특수한 사용 가치와도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소득과 교환된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은 자본으로 전화되며 자본가를 위하여 이윤을 창조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동은 하나의 비용이며 소득이 지출되는 항목의 하나이다. 예컨대 피아노 제작업자에게서 일하는 노동자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그의 노동은 그가 소비하는 임금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산물, 즉 피아노 제작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피아노에는 임금의 가치 이상으로 잉여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피아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사서(또는 노동자 자신이 이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하자), 상점에서 피아노를 사들이는 대신에 나의 집에서 그것을 만들게 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피아노를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은 나의 소득과 직접 교환되기 때문에 그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4. 문제에 대한 스미스의 둘째 설명:생산적 노동은 상품에 실현되는 노동이다]

그런데 자본이 자체에 전체 생산을 종속시키며 그리하여 모든 상품이 직접적 소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고 이에 상응하여 노동 생산 능률이 향상됨에 따라 또한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
161 동자 간의 소재적 구별도 나타나며 더욱 더 강화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전자는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오직 상품만을 생산할 것이며, 후자도 역시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인적 봉사만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 부류는 상품들로써 구성되는 직접적이며 물질적인 부를 즉 노동력 자체로써 구성되지 않는 한에서의 모든 상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A. 스미스로 하여금 기본적 규정인 첫째의 특수한 차이점(differentia specifica)에다 또 하나의 다른 것을 첨가하게 한 관점의 하나이다.

이리하여 스미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서로 다른 사상의 연합을 보게 된다:

"하인의 노동(매뉴팩쳐 노동자의 노동과는 달리)은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하인의 유지비는 결코 상환되지 않는다. 누구나 다수의 매뉴팩쳐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유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하인을 부리면 가난하게 된다. 그렇지만 후자의 노동도 전자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가치를 가지며 보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매뉴팩처 노동자의 노동은, 어떠한 판매할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이 노동 자체가 이미 끝난 후에도 얼마 동안 존속하는 어떤 개별적 물건 즉 상품에 고정되며 실현된다. 이것이, 대상화되는 과정에서 측적되어 후에 필요하게 되면 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보관되는, 이른바 일정한 양의 노동이다. 이 물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물건의 가격은 후에 필요하게 되면, 애초에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든 것과 동등한 양의 노동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하인의 노동은 ‖307‖ 어떠한 개별적 물건 즉 어떠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하인의 봉사는 보통 그것이 수행되는 순간에 소멸하며 어떠한 흔적 또는 어떠한 가치, 즉 나중에 동등한 양의 봉사를 얻을 수 있게 할 가치를 뒤에 남기는 일은 드물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일부 층의 노동은 하인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며 어떠한 오래 견디는 물건 즉 어떠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같은 책, pp.93~94).

비생산적 노동자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A. 스미스의 내부적 사유 과정의 고리들을 동시에 표명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보게 된다:

비생산적 노동자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유지비(비생산적 노동자의)는 결코 상환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개별적 물건이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의 봉사는 보통 그것이 수행되는 순간에 소멸하며 어떠한 흔적 또는 어떠한 가치, 즉 나중에 동등한 양의 봉사를 얻을 수 있게 할 가치를 뒤에 남기는 일은 드물다" 끝으로 "그것은 어떠한 오래 견디는 물건 즉 어떠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생산적"과 "비생산적"이라는 술어들이 애초에 가졌던 *162*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된 가치의 등가물의 재생산도 역시 절대적으로 의미하는 잉여 가치의 생산이 벌써 문제로 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어떤 노동자가 자기 노동으로써 어떤 재료에, 자기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동등한 양의 가치를 첨가함으로써 소비된 가치 대신에 등가물을 주는 한에서 그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형태에 관계되고 있는 규정의 한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관계에 의한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의 규정의 한계를 벗어 나고 있다. 제4부, 제9장(여기에서 A.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기의 견해를 부분적으로는 중농주의자들과 대립시키고 부분적으로는 그들 영향 하에서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착란에 이르렀다. 노동자가 연간에 자기 임금의 등가를 보상할 따름이라면 그는 자본가에 대하여는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다. 그는 물론 자기의 임금, 자기 노동의 구매 가격을 자본가에게 보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자본가가 구매하는 경우나 전혀 동일한 거래이다. 그 자본가는 주어진 상품의 생산에 적용되는 불변 자본 및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댓가를 지불한다. 그는 이전에 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양의 노동을 지금은 상품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의 화폐는 이로 말미암아 자본으로 전화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생산 조건의 소유자인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기의 연 생산물의 가치에서 생산 조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매년 생산 조건의 가치를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연간에 자기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그가 연간에 자기의 불변 자본에 첨가한 새로운 노동과 동등한 부분을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A. 스미스가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생산적"이라고 부르는 첫째 이유는 중농주의자들이 그것을 "열매 없는"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위에서 지적한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중농주의자들은] 이 계급(즉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업적 계급)은 매년 그들 자신의 연 소비의 가치를 재생산하며 그리고 적어도 그들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생존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재화 즉 자본을 보존한다는 것
163 을 인정한다… 사실 차지 농업가와 농업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취업과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자본 이상으로 매년 또 순 생산물, 즉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잉여 분인 지대도 재생산한다…차지 농업가와 농업 노동자들의 노동은 확실히 상인, 수공업자 및 매뉴팩처 노동자의 노동보다 더 생산적이다. 그러나 어떤 계급의 생산물이 다른 계급의 생산물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사정은 다른 계급을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들

지는 않는다."(같은 책, 제3권[1802년 불어판])

따라서 여기에서 A. 스미스는 중농주의적 ‖308‖ 견해로 되돌아 가고 있다. 잉여 가치 따라서 "순 생산물"을 생산하는 본래의 "생산적 노동"은 농업 노동이다. 스미스는 잉여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중농주의자들의 견해를 받아 들이고 있다. 동시에 그는 매뉴팩쳐 노동은(그에게 있어서는 또 상업 노동도) 가장 적절한 의미에서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생산적이라는 명제를 중농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는 사회적 형태에 관계되고 있는 규정, 자본주의적 생산의 견지에서 무엇이 "생산적 노동자"인가 하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는 비농업적인 계급 즉 공업적 계급은 그들 자신의 임금을 재생산하며 따라서 그들이 소비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생산하며 그럼으로써 "적어도 그들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재화 또는 자본을 보장한다"는 명제를 중농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농주의자들의 영향하에 그리고 그들에 대립하여 "생산적 노동"에 관한 그의 둘째 규정이 나온다.

"둘째로"—A. 스미스는 말한다—"이 때문에 수공업자, 제조업자 및 상인을 단순한 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인의 노동은 그에게 취업과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재화를 보존하지 않는다. 하인은 전적으로 자기 주인의 비용에 의하여 취업하게 되며 유지된다. 그리고 그의 노동은 이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노동이 아니다. 이 노동은 봉사하는 것인데, 이 봉사는 보통 그것이 수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멸한다. 이 노동은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지 않으며 실현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수공업자, 제조업자 및 상인의 노동은 자연,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물질에 고정되며 실현된다. 바로 이때문에 나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장에서 수공업자, 제조업자 및 상인을 생산적 노동자에 넣었으며 하인을 열매없는 그리고 비생산적인 노동자에 넣었다"(같은 책, p.531).

자본이 전체 생산을 장악하자마자 소득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노동과 교환되는 한에서는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봉사와만 교환된다. 소득은 부분적으로는 사용 가치로서 봉사하는 상품들과 교환되며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로서 사용 가치로서 소비되는 봉사와 교환된다.

상품은 노동력 자체와는 달리 인간을 위한 일정한 유용성을 가지며 *164*

일정한 양의 노동이 고정되고 물질화되어 있는, 인간에 소재적 형태로 대립하는 물건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산적 노동자란 자기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이며 그것도 자기가 생산하는 것, 그의 노동의 대가 이상으로 상품을 소비하지 않은 그러한 노동자이라는, 첫째 점에 본질상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도달한다. 그의 노동은 "판매할 수 있으며 교환할 수 있는 물건에", "그들의"(즉 이 상품들을 제조하는 노동자들의)"임금과 봉급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며 실현된다. 생산적 노동자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그가 임금 형태로 부단히 소비하는 가변자본을 부단히 재생산한다. 그는, 그에게 지불되며 "그에게 취업과 생존수단을 제공하는" 재화를 부단히 생산한다.

첫째로 A. 스미스는 물론,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며 실현되는" 노동에, 물질적 생산에서 소비되는 모든 종류의 정신 노동을 넣고 있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직접 손 노동을 하거나 기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 뿐만 아니라 감독, 기사, 지배인, 사무원 등등의 노동도, 요컨대 일정한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원, 공동 노동(협업)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원의 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의 총 노동을 불변자본에 첨가하며 그 크기만큼 생산물의 가치를 높인다(이것을 은행업자[7] 등등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겠는가?)

II 309 | 둘째로 비생산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그렇지 않다고 A. 스미스는 말한다. 자본이 물질적 생산을 장악하였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내 공업이 소멸하고 직접 소비자의 집에서 소비자를 위하여 사용가치를 창조하여 주는 소규모 수공업자의 노동이 소멸할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내가 집으로 불러들여 내의를 만들게 하는 여자재봉사나 가구를 수선하는 노동자 또는 집안 청소 등등을 하는 하인 또는 고기 등등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는 여자 요리사는 공장에서 재봉을 하는 여자 재봉공, 기계를 보수하는 기계공, 기계를 청소하는 노동자, 식당에서 자본가의 고용 노동자로서 요리를 하는 여자 요리사와 꼭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노동을 이러저러한 물건에 고정시키며 사실상 이러한 물건들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A. 스미스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생산한 사용 가치들은 잠재적으로는 역시 상품이다. 즉 내의는 전당포에 잡힐 수 있으며 집은 팔 수 있고 가구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등등. 그리하여 위

에서 열거한 인물들도 잠재적으로는 역시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자기들 165
의 노동 대상에 가치를 첨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비생산적 노동자들 중 극히 작은 부류를 이루며, 이들에 대하여 말한 것은 하인, 승려, 정부 관리, 병사, 음악가 등등의 대중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수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이러저러한 특수한 종류의 노동과 그 노동의 생산물의 이러저러한 발현 형태가 반드시 그 노동을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며, 스미스는 이것을 "이 봉사는 보통 그것이 수행되는 순간에 소멸한다" 운운의 자기 제한적인 표현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도 내가 그것을 자본가로서, 생산자로서 적용하여 가치를 증식시킨다면 생산적일 수 있으며, 내가 그것을 소비자, 소득의 지출자로서 구입하고, 이 노동의 사용가치가 노동력의 기능의 정지와 함께 소멸하든 그것이 어떤 물건에 물질화되고 고정되든 간에 그 사용가치를 소비한다면 비생산적일 수 있다.

자본가로서 여자요리사의 노동을 구매한 사람 즉 식당 주인에 대하여서는 여자요리사는 식당에서 상품을 생산한다. 양고기 커트레트의 소비자는 그의 노동의 댓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이 노동은 식당 주인에게 그가 여자요리사에게 지불을 계속하는 재화를 보상하여 준다(이윤은 도외시하고). 이와는 반대로 나에게 고기 등등을 요리하여 주는 여자요리사의 노동을, 내가 잉여 가치를 얻으려고 노동 일반으로서의 이 노동을 적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일정한 구체적인 이 노동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다면 이 경우에는 여자요리사의 노동은, 그것이 물질적 생산물에 고정되며(그 노동의 결과) 사실상 식당 주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생산적이다. 큰 차이(본질상 차이)가 있다. 즉 여자요리사는 내가 그에게 지불하는 재화를 나(私人)에게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왜냐 하면 나는 그의 노동을,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용 가치를 위하여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의 노동은 내가 그에게 지불하는 재화 즉 그의 임금을 나에게 보상하여 주지 않는데, 이것은 예컨대 식당에서 내가 먹는 식사가 그 자체로서는 동일한 식사를 다시 사서 먹을 수 있게 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상품들 사이에도 있다. 자본가가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상품(예컨대 그가 날염업자라면 면포)은 자체의 가치를 날염된 면포로 그에게 보상한다. 이와

는 반대로 자본가가 면포 자체를 소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 상품은 자본가의 지출을 그에게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166 그런데 사회의 최대 부분 즉 노동 계급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이 비생산적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미리 "생산적으로" 노동한 조건 하에서만이다. 노동자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을 생산한 경우만이다. 그가 자기의 가구와 자기의 주택을 깨끗이 유지하고 자기의 장화를 닦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미리 가구, 집세, 장화의 가치를 생산한 조건 하에서만이다. 그리하여 이 생산적 노동자 계급 자체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이 비생산적 노동은 ‖310‖ 그들이 미리 생산적으로 노동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비생산적 노동을 새로 반복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

세째로 다른 한편, 극장 기업주, 음악회 주최자, 유곽 주인 등등은 배우, 음악가, 창녀 등등의 노동력의 일시적 처분권을 구매한다(실제로는 경제적 형태의 관점에서만 흥미를 끌고 과정의 결과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는 우회로를 거쳐서). 그들은 이 소위 "비생산적 노동"을 구매하는데, 이 "봉사는 그것이 수행되는 순간에 소멸하며", 어떤 "오래 견디는"(또는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물건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봉사 자체를 제외한)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공중에게 이 봉사를 판매함으로써 기업주는 임금을 보상 받으며 이윤을 얻는다. 그리고 기업주가 그와 같이 구매한 이 봉사는 그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즉 그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쓰이는 재화가 그 봉사 자체에 의하여 갱신된다. 예컨대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서기의 노동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은 서기의 봉사는 또 극히 부피가 큰 "특수한 물건"으로, 방대한 서류 묶음의 형태로 체화된다는 점이다.

기업주들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이 봉사의 대가가 공중의 소득에서 지불된다는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한에서의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것도 그만 못지 않게 참말이다. 나라는 물론 이러한 봉사 자체를 수출할 수는 없으나 봉사자들은 수출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무용 교사, 요리사 등등을, 그리고 독일은 학교 교원을 수출한다. 물론 무용 교사나 학교 교원을 수출하면 그와 함께 그들의 소득도 수출되지만 무용 신발이나 도서를 수출하면 그것들

의 대가가 국내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소위 비생산적 노동의 일부는 역시 상품("판매할 수 있는 상품")일 수 있을 물질적 사용 가치에 체화된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 순전한 봉사로서 존재하며, 대상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 수행자들에게서 분리되어 물건으로서 자립적 정재(定在)로 되지 못하며 또 *167* 어떤 상품의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서 들어 가지 않는 그러한 봉사의 일부는 자본으로(노동의 직접적 구매자에 의하여) 구매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임금을 보상하고 이윤을 가져 올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봉사의 생산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유용한 물건에 체화되는 노동의 일부가 직접 소득으로 구매되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네째로, 전체 "상품"세계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노동력이고 둘째 부분은 노동력 자체와는 구별되는 상품들이다. 그런데 노동력을 육성하고 유지하며 변경시키는 등등, 요컨대 노동력에 특수 능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노동력의 유지에만 기여하는 봉사들, 예컨대 "공업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용한 한에서의 학교 교원의 봉사, 건강을 보존하는, 즉 모든 가치의 원천인 노동력 자체의 유지하는 한에서의 의사의 봉사—이러한 모든 봉사의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등등" 즉 노동력 그 자체—그 생산비 또는 재생산비에 이러한 봉사가 들어간다—를 그 대신에 내놓은 그러한 봉사의 구매이다. 그런데 A. 스미스는 노동자 대중의 생산비 중에서 "교육"비는 보잘 것 없는 역할 밖에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의사의 봉사는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 그것은 노동력의 보수비에 넣을 수 있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이윤이 동시에 총 가치상으로도(예컨대 국민이 전보다 나태하여진 결과로) 사용 가치상으로도(흉작 등등의 결과 노동의 생산성이 낮아져서) 감소한다고 하자. 요컨대 지난 해에 새로운 노동이 보다 적게 첨가되고 또 첨가된 노동의 생산성이 보다 낮아진 때문에 생산물 중에서 소득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부분이 감소한다고 하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제 종전과 동일한 가치액을 물질적 생산물로 소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의사, 교원 등등의 봉사는 보다 적게 구매하여야 할

*원문 faux frais—직접 생산 과정에 참가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필요한 부수적 비용이다—편집부.

것이다. 그들이 의사와 교원을 위하여 전과 동일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들은 다른 것들의 소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68 의사와 학교 교원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재화의 생산비 즉 노동력의 생산비에는 들어 가지만 그들에게 지불하는 데 쓰이는 재화를 직접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 311 ‖ A.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세째로, 수공업자, 매뉴팩쳐 노동자 및 상인의 노동은 사회의 현실적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떠한 각도에서 보아도 그릇된 것 같다. 예컨대 여기에서 고찰하고 있는 학설이 가정하듯이 이 계급의 일, 월, 연 소비의 가치가 이 계급의 일, 월, 연간에 생산하는 것의 가치와 꼭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결코, 이 계급의 노동이 사회의 현실적 소득에,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의 가치에 첨가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컨대 수확 후 6개월 간에 10 파운드 스털링만큼의 일을 하는 수공업자는 그가 이 기간에 10 파운드 스털링만큼의 곡물과 기타 생존 수단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에 10 파운드 스털링만큼의 가치를 첨가한다. 그는 1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를 가진 반년 간의 소득액만큼의 곡물과 기타 생존 수단을 소비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꼭 같이 반년 간의 소득을 구매할 수 있는 동등한 액의 가치를 자기 노동으로써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이 6 개월 간에 소비되고 생산된 것의 가치는 10파운드 스털링이 아니라 20 파운드 스털링이다. 물론 임의의 매 순간에 현존한 것은 이 가치 중에서 10파운드 스털링 이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수공업자가 소비한 10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를 가진 곡물과 기타 생존수단이 병사나 하인에 의하여 소비되었다면 연 생산물 중에서 6개월 말에 현존하는 부분의 가치는 수공업자의 노동의 결과로 사실상 있게 되는 것에 비하여 10파운드 스털링만큼 적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공업자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가 그가 소비하는 것의 가치를 결코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의 매순간에 시장에 현존하는 상품의 총 가치는 그가 일하지 않은 경우의 그것보다, 그의 노동의 결과로, 더 클 것이다"(같은 책, 제4부, 제9장, pp. 531~533, [1802년 불어 판, 제3권]).

그런데 임의의 매 순간에 시장에 현존하는 상품의 [총] 가치는 "비생산적 노동"의 결과로, 이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그것보다 더 클

것이 아닌가? 임의의 순간에 시장에는 밀, 고기 등등과 함께 또한 창녀, 변호사, 전도사, 음악회, 극장, 병사, 정치가 등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친구들은 곡물 기타 생존 수단 또는 향락을 무상으로 받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대신에 자기들의 봉사를 제공하거나 억지로 제공하는데, 그 봉사는 그 자체로서 사용 가치를 가진 것이며 그 생산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한 교환 가치도 가진다. 소비 대상 가운데는 어느 때나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소비대상과 함께 일정한 양의, 봉사로서의 소비 대상도 있다. 그리하여 언제나 소비 대상의 총계는 소비할 수 있는 봉사가 없는 경우의 그것보다 크다. 그런데 둘째로는 가치도 크다. 그것 169
은 가치가 이 봉사를 유지하는 상품들의 가치 및 봉사 자체의 가치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사실 온갖 교환의 경우에 상품에 대하여 상품이 제공되듯이 이 경우에도 등가에 대하여 등가가 제공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가치가 이중으로, 즉 한번은 구매자 측에, 또 한번은 판매자 측에 현존하는 것이다.

〈A.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한다:

"이 주의의 지지자들이 수공업자, 매뉴팩처 노동자 및 상인의 소비는 그들이 생산하는 것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들은 아마 이 노동자들의 소득 즉 그들의 소비를 위하여 예정된 재화는 이 가치(즉 그들이 생산하는 것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사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같은 책 p.533). 노동자와 기업가를 다 염두에 둔다면 이 점에서 중농주의자들이 옳다. 기업가의 이윤은 지대를 자체의 하나의 특수 항목으로써 포함할 따름이다〉.

| 312 | 〈같은 기회에, 즉 중농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기회에 A. 스미스는 제4부, 제9장(가르니에 역,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회이든 그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은 두 방식에 의하여서만 증대될 수 있다. 즉 첫째로 해당 사회에서 해당 시기에 작용하고 있는 유용 노동의 생산능력을 완성함으로써, 둘째로 이 노동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 유용 노동의 생산 능력이 완성되거나 성장하려면 노동자의 기능이 완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가 노동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가 완성되어야 한다…사회에서 해당 시기에 적용되는 유용 노동의 양의 증대는 오로지 그 노동을 작용케 하는 자본의 증대에 의존하며 이 자본의 증대는 이번에는 이 자본을 관리하는 인물들 또는 그것을 이들에게 대부하는 어떤 다른 인물들이 자기들의 소득 중에서 실시하는 저축액과 정확히 동

등하지 않으면 안된다"(pp. 534~535).

여기에는 이중의 악순환이 있다. 첫째로:연 생산물은 노동 생산성의 증대의 결과 증대한다. 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모든 수단(이 증대가 예컨대 특히 유리한 날씨 등등과 같은 자연의 우연성에 의하여 초래되지 않는 한에서)은 자본의 증대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을 증대시키자면 연 노동생산물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이 첫째 악순환이다. 둘째로는 연 생산물은 적용되는 노동의 양의 증대에 의하여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용되는 노동의 양은 오직 "그것(노동)을 작용케 하는" 자본이 미리 증대되어야만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이 둘째 악순환이다. 스미스는 "절약"이라는 것으로써 이 두 악순환에서 빠져 나가려고 한다. 그는 절약이라는 말을 자본으로의 소득의 전화로 이해하고 있다.

벌써 전체 이윤을 자본가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다.
170 도리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은 노동자가 수행하는 잉여 노동 즉 부불 노동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화할 것을 요구한다. 개개의 자본가가 즉 자본의 기능의 수행자로서 행동한다면 이렇게 이윤이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은 물론 그 자신에게는 절약으로서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신에게 대하여서까지도 그것은 예비 자금의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량의 증대는 노동자 수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일의 길이에도 의존한다. 따라서 노동의 양은 자본 중에서 임금으로 전화되는 부분의 증대 없이도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역시 기계 등등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다(비록 기계가 보다 급속히 마멸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태에는 변함이 없다). 증대되지 않으면 안 될 유일한 것은 원료 중에서 종자 등등으로 들어가는 부분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나(대외 무역을 사상한다면) 잉여 노동이 우선 농업에서 있어야 농업에서 원료를 받는 공업부문들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옳다. 원료의 일부 즉 석탄, 철, 목재, 물고기 등등(물고기는 예컨대 비료로서)과 모든 비동물성 비료는 단순히 노동이 증대되는(노동자수는 종전 대로인 조건 하에서) 결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전에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생산성의 증대는 애초에는 언제나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자본의 집적만을 전제로 한다[58]. 그러나 나중에는 이 두 과정은 서로 보충한다〉.

〈중농주의자들로 하여금 레쎄 페르, 레쎄 파쎄* 즉 자유경쟁을 설교하게 한 이유를 스미스는 다음 구절에서 옳게 지적하였다:"인민의 상이한

이 두 부류 간에서"(도시와 농촌 간에서) "진행되는 상업은 결국 일정한 양의 원료 생산물과 일정한 양의 공업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가 비싸면 비쌀수록 전자는 더 싸며 어떤 나라에서든 공업 제품의 가격을 등귀케 하는 모든 것은 토지의 원료 생산물의 가격의 저하를 가져 오며 그럼으로써 농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 그런데 매뉴팩쳐와 대외무역에 대한 모든 구속과 제한은 공업 제품 등등을 비싸게 만든다. 따라서 운운(스미스, 같은 책. pp. 554~556)〉.

* * *

‖ 313 ‖ 그리하여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스미스의 둘 *171*
째(또는 오히려 상술한 그의 다른 견해와 엉켜 있는) 견해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이고 "어떠한 상품도" 생산하지 않은 노동은 비생산적이라는 데 귀착된다. 스미스는 전자의 종류의 노동도 후자의 종류의 노동도 상품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상술한 것을 보라**: "후자의 노동도 전자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가치를 가지며 보수를 받을 만하다"(즉 경제적으로 도덕적 관점 등등에 관하여는 첫째 종류의 노동도 둘째 종류의 노동도 문제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상품의 개념에는 노동이 자기 생산물에 체화되며 물질화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 자체는 그것의 직접적 정재(定在)에 있어서는, 그것의 생생한 존재에 있어서는 직접 상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력인데, 노동 자체는 이 노동력의 일시적 발현이다. 이러한 견해만이 우리에게 본래의 의미에서의 임금 노동이라는 개념도, A. 스미스가 도처에서 "비생산적 노동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로써 규정하고 있는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도 해명하여 준다. 그리하여 상품이란 노동 자체와는 다른 존재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때에는 상품 세계는 2대 부류로 분할된다.:

한편에는 노동력.

다른 한편에는 상품 자체.

---

*원문 laissez faire, laissez Passer—글자 그대로는:할 대로 하게 하고 갈대로 가게 하다. 경제 활동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요구이다—역자.

**이책 pp.174~175를 보라—편집자.

그러나 노동의 물질화 운운이라는 것을 A. 스미스처럼 스코틀란드 식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동의 물질화로서의—상품의 교환 가치의 의미에서의—상품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물체적 실재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상상적인 즉 오로지 사회적인 상품 존재 방식에 관하여서만 말하는 것이다. 즉 상품은 일정한 양의 사회적 노동 또는 화폐로서 표시된다. 상품은 구체적 노동의 결과인데, 그 구체적 노동이 상품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공업 상품에 있어서는 이 흔적은 겉으로 원료에 남는 형태로 유지된다. 농업 등등에서는 예컨대 밀, 황소 등등이라는 상품이 얻은 형태는 역시 인간 노동, 그것도 대대로 물려 받고 보충된 그러한 노동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것은 생산물에서 볼 수 없다. 노동의 목적이 결코 물건의 형태를 변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건의 공간적 위치를 변경하는 데만 있는 그러한 공업 노동 부문도 있다. 예컨대 어떤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172 영국 등등으로 가져 온다면 누구나 그 물건 자체에서 수송에 지출된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그 물건이 영국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사람 이외에는). 따라서 노동이 상품에 물질화된다는 것을 상술한 것처럼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에 사회적 관계가 물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정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상품은 과거의 대상화된 노동으로서 나타난다는 것, 따라서 그것이 물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노동력 자체의 형태로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산 노동 자체는 직접적으로 결코 상품으로 될 수 없다(어떤 우회적인 길을 거쳐서만 상품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우회적인 길이란 실천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상이한 임금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의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옳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고 육성하며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하는 이 노동을 A. 스미스는 자기의 생산적 노동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는 제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거기에다 이 노동도 포함시킨다면 이것도 저것도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는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문을 열어 주게 된다고 그에게 속삭이는 어떤 옳은 본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자체를 사상하는 한에서는 생산적 노동이란 상품, 즉 일정한 양의 노동 또는 노동 시간을 들여 제조한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에 귀착된다. 이 물질적 생산물에는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한에서의, 예술과 과학의 온갖 작품들인 도서, 그림, 조각상 등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에는 또 노동 생산물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즉 형태 변화를 수행하여야 할 최초의 형태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상품이어야 된다(이미 완성된 기계를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공장주가 기계를 판매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용 가치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스스로 제작한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그는 자기의 불변 자본의 일부로서 그 기계를 이용한 것이며 따라서 그 기계의 도움으로 제조한 생산물의 형태로 조금씩 그 기계를 판매하는 셈이다).

‖314‖ 그리하여 하인의 일정한 종류의 노동도 역시 상품으로(가능성으로 보아*) 표시될 수 있는데, 그 노동을 소재적 측면에서, 즉 동일한 사용 가치로서 보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나 그 노동은 사실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그런데 예컨대 극장 기업주를 위한 배우의 노동과 같이 그 구매자 또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그러한 종류의 노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노동은 구매자가 그것을 공중에게 상품 형태로서가 아니라 오직 활동 그 자체의 형태로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이 점을 도외시하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며, 인적 *173*
봉사를 생산하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다. 첫째 종류의 노동은 어떤 판매할 수 있는 물건으로 표시되며, 둘째 종류의 노동은 그것이 수행될 때에 소비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종류의 노동은(노동력 자체를 조성하는 노동을 제외하고) 물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일체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고기도 도서도—를 포괄하며, 둘째 종류의 노동은 개인의 그 어떤 상상적 또는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개인의 의사를 거역하여 그에게 억지로 받아 들이게 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포괄한다.

상품은 부르조아적 부의 가장 원소적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동이란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생산적 노동"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역시 훨씬 더 원소적인 견지에 상응한다.

A. 스미스의 반대자들은 사태의 본질에 부합되는 그의 첫째 설명에는

---

*원문 potentia.—역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둘째 설명에 매달렸으며 이 경우에 피할 수 없는 모순과 불철저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우에도 차기들의 주의를 노동의 소재적 내용에, 특히 노동은 어떤 것이건 다소간 오래 견디는 생산물에 고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규정에 집중함으로써 논쟁을 혈하게 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특히 논쟁을 격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하나 더 지적하겠다. A. 스미스는 "모든 국민의 부는 소비할 수 없는 금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노동에 의하여 매년 재생산되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있다"는 중농주의의 명제를 그의 큰 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제3권 [1802년 불어 판], 제4부, 제9장, p.358).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에 관한 그의 둘째 규정의 유래를 보게 된다. 잉여 가치의 규정은 자연히, 그가 가치 자체를 이해한 형태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는 중금주의와 중상주의에 있어서는 화폐로 나타나며, 중농주의에 있어서는 토지 생산물 즉 농업 생산물로서 나타나고, 끝으로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상품 일반으로서 나타난다. 중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단순히 가치 형태에, 즉 생산물이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으로서, 화폐로서 나타나는 형태에 귀착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치의 실체에 언급하고 있는 한에서는 가치는 단순히 사용 가치(물질, 소재)에 귀착되고 있다.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두 조건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하나
174 로 합쳐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용 가치, 유용 생산물로 표시되는 온갖 노동은 생산적이다. 바로 생산적 노동이 이 사용 가치, 유용 생산물로 표시된다는 사정은 이미 이 생산물이 동시에 일정한 양의 일반적 사회적 노동과 동등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A.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생산물의 가치를 부르조아적 부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복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주의자들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순전히 환상적인 형태—금 은의 형태—를 생산물의 가치에서 벗겨 버리고 있다. 온갖 상품은 자재적으로* 화폐이다. 동시에 A. 스미스가 여기에서 역시 , 이러저러한 노동 생산물의 "오래 견디는 것"(실제로는 "직접 소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중상주의자들의 표상으로 어느 정도 되몰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

*원문 an sich—역주

기에서, 페티가 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다소간 오래 견디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결국 금 은을 "불멸의 부"로서 첫 자리에 내세우고 있는 곳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페티의 『정치산수』를 인용하고 있는 나의 제1분책, p.109[59]를 보라).

A. 블랑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스미스는 오직 물질적 실체에 고정되는 가치만이 부라고 하면서 부의 범위를 국한함으로써 분명한 국민들의 정신적 자본의 소산인, 한정없이 다양한 모든 비물질적 가치를 생산에 관한 편에서 제거하였다"운운(『정치 경제학사』, 브뤼셀, 1839, p.152).

[5. 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에서의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비속화 과정]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A. 스미스의 구별에 대하여 논쟁을 일으킨 것은 주로 낮은 등급의 인물들*(그중에서 슈트르호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이었다. 이러한 논쟁을 우리는 상당한 경제학자들, ‖315‖ 정치 경제학에서 어떤 발견이라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보지 못한다. 도리어 그러한 논쟁은 2류급 인물들, 특히는 학자연하는 편찬자와 개요의 작성자 그리고 또 미사여구를 늘어 놓는 이 영역의 현학자들과 속류학자들의 노리개감이다. 아담 스미스를 반대하는 이 논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막대한 수를 이루는 소위 "고급" 노동자들—국가 관리, 군인, 음악의 명수, 의사, 승려, 법관, 변호사 등등—의 노동은 부분적으로는 생산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상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비물질적" 상품들을 판매하던가 또는 억지로 받아 들이게 함으로써 "물질 175
적" 부의 극히 거대한 부분을 가로 챌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관계에서 어릿 광대나 하인과 한 계급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본래의 생산자들(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 대표자들)을 뜯어 먹고 사는 식객, 기생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래에 거룩한 후광에 싸여 있었으며 미신적인 존경을 받아 온 바로 그 기능들에 대한 독특한 모독이었다. 고전적 시기에 정치 경제학은

* 원문 dii minorum gentium—글자 그대로는 낮은 등급의 신들—역자.

갑자기 대두하던 시기의 부르조아지 자신과 꼭 마찬가지로 국가 기구 등등에 대하여 엄격하였으며 비판적이었다. 나중에 이르러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혀 비생산적인 이 모든 계급들의 사회적 결합을 상속할 필요성이 그 자체의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또 이것은 실천적으로도 명확하다—경험을 통하여 배웠다.

만약 상술한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향락을 생산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봉사에 대한 수요가, 이러저러한 생산 대표자가 자기의 임금 또는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소비하려 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신체상의 결함(의사의 경우처럼) 또는 정신상의 취약성 (승려의 경우처럼)의 존재로 인하여 또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국민적 이해관계의 충돌(정치가, 모든 법률가, 경찰관, 병사의 경우처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을 스스로 필요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공업 자본가 자신과 노동 계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A. 스미스에게 있어서도 비생산적 비용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저렴한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부르조아 사회는 그것이 봉건적 또는 절대주의적 형태에 싸여 있었을 때 그가 반대 투쟁하였던 그 모든 것을 그 자체의 형태에서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아첨쟁이들, 특히 그 높은 신분의 아첨쟁이들은 우선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 중에서 순전히 기생적인 부분까지도 이론적으로 소생시키거나 그 중 필요한 부분의 지나친 요구를 논증하는 것을 자기들의 주요한 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이데올로기적 계급과 그와 유사한 계급들이 자본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선포였다.

그런데 둘째로는 생산(물질적 생산 자체) 대표자들 중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이러저러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비생산적"이라고 선고를 받았다. 예컨대 토지 소유자는 공업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부 경제학자들(리카르도)에게서 "비생산적"이라고 선고를 받았다. 다른 경제학자들(예컨대 케어리)은 상인을 "비생산적" 노동자라고 선고하였다. 그 다음에
176 는 심지어 "자본가" 자신을 비생산적이라고 선고하거나 또는 적어도 물질적 부에 대한 그의 요구를 "임금" 즉 "생산적 노동자"가 받는 보수에 귀착시키려고 한 다른 경제학자들도 나타났다. 정신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다수는 자본가가 생산적이라는 이 의심스러운 견해에 기울어진 것 같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미 타협의 길에 들어 서서, 직접

물질적 생산 대표자들에 속하지 않는 모든 계급들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시기였다. 끼리 끼리 감싸 준다. 그리고 『꿀벌 이야기』[60] 에 나오는 것처럼 "생산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훌륭한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더구나 "비생산적 노동자들" 자신이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열매를 맛보기 위하여 태어난"* 계급들의 생산성에 관하여, 즉 예컨대 토지 소유자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생산 대표자 등등에 관하여 비판적 고려를 돌리고 있었던 만큼 더욱 그러하였다. 무위도식자도 그들의 기생자도 세상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발견하여야 하였다.

새째로. 자본의 지배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물질적 부의 창조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생산 분야들도 사실상 역시 점점 더 자본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316 ‖ 아첨을 일삼는 정치 경제학의 졸개들은 어떤 활동분야도 물질적 부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무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그 활동분야를 찬미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무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개인이 "첫째" 의미에서 "생산적 노동자"라고 즉 자본을 위하여 복무하며 이러저러하게 자본가의 치부에 유익한 노동자 운운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드렸다.

여기에서는 벌써, 직접 "비생산적 노동자들"과 순전한 기생자들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옹호하는, 맬더스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편이라고 보아야겠다.

[6.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의 지지자들. 문제의 역사에 대하여]

[a. 첫째 설명의 지지자들: 리카르도, 시스몽디]

이 점에 관한 G. 가르니에(스미스의 역자), 로더데일 백작, 브룸, 세이, 177
슈토르흐 그리고 후에는 시니어, 로씨 등등의 범속한 견해들을 상세히 고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약간의 특징적인 곳들만 인용하면 충분

* 원문 "fruges consumere natie"(호라티우스)—편집자.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리카르도가 잉여 가치(이윤, 지대)의 소유자들이 그것을 "비생산성 노동자들"(예컨대 하인)에게 소비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 창조되는 사치품 소비할 때보다도 "생산적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한 곳을 더 지적하자.

〈시스몽디는 『새 원리』(제1권 p.148)에서 스미스의 구별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받아 들이고 있다(리카르도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즉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간의 실제적 차이는 "전자는 언제나 자기의 노동을 국민의 자본과 교환하고 후자는 언제나 그것을 국민 소득의 일부와 교환하는"데 있다.

시스몽디는 잉여 가치를 역시 A. 스미스 식으로 고찰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기의 그날 그날의 노동으로써 그날 그날의 소비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창조하지만 토지 소유자 및 자본가와 나눈 후에는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현저히 넘는 몫이 그에게 돌아가는 일은 드물다"(시스몽디, 『새 원리』, 제1권, p.87)〉

리카르도는 말한다:

"만약 토지 소유자나 자본가가 자기의 소득을 옛날의 남작의 본을 따라 다수의 시종들 또는 하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지출한다면 그는 자기의 소득을 사치스러운 의복 또는 값 비싼 가구, 마차, 말 또는 기타 사치품에 지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두 경우에 다 순소득은 총 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할 것이나 각각의 경우에 순소득은 상이한 상품들로 실현된다. 만약 나의 소득이 1만 파운드 스털링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치스러운 의복, 값비싼 가구 등등으로 실현하는 경우나, 내가 그것을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일정한 양의 식료품과 보통 의복으로 실현하는 경우나 대략 동일한 양의 생산적 노동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의 소득을 첫째 종류의 상품들로 실현한다면, 그 결과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구와 의복을 이용할 것이며 그것으로써 문제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약 나의 소득을 식료품과 보통 의복으로 실현하고 또 하인을 고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내가 1만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나의 소득으로써 또는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식료품과 보통 의복으로써 직업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수요가 노동자들에 대한 종전의 수요에 더

첨가된다. 그리고 수요가 그와 같이 증가하는 것은 내가 나의 소득을 지출하는 이 둘째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만 생길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소득이 사치품 구입에 돌려지지 말고 하인을 먹여 살리는 데 돌려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리카르도 『원리』. 제3판, 1821년, pp. 475~476).

[b.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별하려는 초기의 시도들(대비난트, 페티)] *178*

대비난트는 『1688년도의 영국의 다양한 가족들의 소득과 지출표』라는 표제를 단, 그레고리 킹이라는 옛 통계학자의 표를 인용하고 있다. 독학자인 킹은 그 표에서 전체 인민을 두 주요 계급으로, 즉 267만 5,520명에 달하는 "왕국의 부를 증가시키는" 계급과 282만 5,000 명을 포함하는 "왕국의 부를 감소시키는" 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첫째 계급은 "생산적"이며 둘째 계급은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생산적" 계급을 이루는 것은 군주, 종남작(從男爵), 기사(騎士), 에스콰이어, 젠틀맨, 고급 관리와 하급 관리들*,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법률가, 승려, 자유 보유지 소유자**, 차지 농업가, 자유 직업인, 대 소 상인들, 수공업자들, 해군 장교, 육군 장교들이다. 이와 반대로 "비생산적"계급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바다 사람***, 농업노동자 및 매뉴팩처 날품팔이 노동자†, 오막살이 농민††(대비난트의 시대에는 아직 전체 영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137‖ 병졸, 극빈자†††, 집시, 도적, 걸인 및 일반적으로 방랑인이다. 대비난트는 독학자인 킹의 이 신분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것으로써 인민의 두 계급 중 첫째 계급은 토지, 예술

---

* 원문 Lords, Baronets, Knights, Esquires, Gentlemen, Persons in Office and Places—역자

** 원문 freeholders—역자

*** 원문 commmon seamen—역자

† 원문 labouring people and out servants—역자

†† 원문 cottagers—역자

††† 원문 paupers—역자

및 근면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하며 또 매년 국민적 자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또 이밖에 매년 자기의 잉여 분 중 일정한 액을 남들을 먹여 살리는데 돌린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둘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의 노동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하나 나머지는 그들의 처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담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사회로서는 부담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민의 총 자본에 첨가될 것을 매년 소비하기 때문이다."(대비난트, 『무역 수지에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술』, 런던, 1699년, p.23 및 50)

또한 잉여가치에 관한 중상주의자들의 표상에 있어서 대비난트의 다음 말은 특징적이다: "우리 나라 자체의 생산물의 수출은 영국을 부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얻자면 우리는 우리 나라 자체의 생산물을 수출하여야 하고 그것과 교환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할 것인데, 그 경우에 귀금속으로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든 잉여 분이 우리에게 남아야 한다. 이 잉여분은 국민이 무역에서 얻는 이윤을 이룬다. 그 크기는 수출국 인민의 본성에서 나오는 절약심"(화란인에게는 있으나 영국인에게는 없는 절약심—같은 책 p.46 및 47을 보라) "에 의존하며 또 노동의 낮은 가격과, 그 인민이 매뉴팩쳐 제품을 자기의 모든 경쟁자들보다 저렴하게 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 자국 제품의 낮은 가격에 의존한다"(대비난트, 같은 책 p.45~46).

179 〈"생산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한편은 다른편이 상실하는 것을 얻을 따름이며 국민은 전반적으로 조금도 부유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모두 명확하고 확실한 이윤이다."(『동인도 무역론』, 런던, 1697년 [p.31])〉. 〈이 논설은 대비난트가 이것을 옹호하여 집필한 그의 다른 저작에 대한 부록으로서 간행된 것[61] 이고 맥컬로크가 인용한 『동인도 무역에 관한 고찰』(1701년)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중상주의자들은 나중에 속류 자유 무역론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대비난트는 자기의 『사회적 소득과 영국 무역에 관한 고찰』, 런던, 1698년, 제2권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 은은 사실상 무역의 척도이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의 무역의 원천과 근원은 나라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생산물, 즉 그들의 토지 또는 그들의 노동과 근면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

이며 이러저러한 국민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든 온갖 종류의 화폐를 전부 잃어 버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만약 이 인민의 수가 많고 근면하며 무역에 능하고 항해에 익숙하며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고 다량의 각종 생산물을 낳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인민은 여하간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 안 가서는 다량의 금 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나라의 진정한 그리고 현실적인 부는 그 나라 자체의 생산물이다"(p.15). "금 은은 어떤 국민의 재물 또는 부라고 부를 만한 유일한 물건은 결코 아니며 화폐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사업상 거래에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 익숙하게 된 계산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p.16). "우리는 부라는 것을 군주와 그의 인민에게 재산과 복리와 안전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의 수요를 위하여 금 은과 교환으로 건물과 개량된 토지로 전화된 것도 역시 재물이며 또 예컨대 토지로 전화된 것도 역시 재물이며 또 예컨대 토지의 산물과 공업 제품 또는 외국상품 그리고 상선(商船)과 같이 이 금속과 교환될 수 있는 기타의 물건들로 전화된 것도 역시 재물이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까지도 그것들이 비록 금 은과 교환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개인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나라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도 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pp. 60~61). "보통 인민은 국가라는 신체의 위(胃)다. 스페인에서는 이 위는 화폐를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였으며, ‖ 318 ‖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였다…무역과 공업은 국가라는 신체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하게 될, 금 은의 그러한 소화와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pp. 62~63).

그런데 이미 페티도 생산적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다만 그는 병사도 그것에 집어 넣고 있지만). "농민, 선원, 병사, 수공업자 그리고 상 *180*
인은 온갖 사회의 진정한 기본 지주(支柱)이다. 기타의 모든 큰 직업들은 이 사람들의 미약성과 결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그런데 선원은 한 몸으로 이 네 직업 중 셋을 겸하고 있다"(항해자, 상인 그리고 병사) (『정치산수』, 런던, 1699년. p.177) "바다 사람의 노동과 뱃짐은 언제나 그 본성으로 보아 수출되는 상품이며 이것이 수입을 초과하면 화폐가 국내로 들어온다 운운"(같은 책, p. 179).

이와 관련하여 페티는 또다시 분업의 유익성을 중시하고 있다: "해양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도, 운임이 보다 많은"(운임

이 보다 비싼) "다른 자들보다 많은 이윤을 얻으면서 사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 일을, 다른 사람은 저 일을 한다면 의복이 저렴하게 만들어지듯이 해양 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 즉 해양 선박, 하천 선박, 상선, 군함 등등을 건조할 수 있다. 이것이 화란인이 그 이웃 나라 사람들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인데 화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무역 부문을 위하여 특수한 종류의 선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pp.179~180)

더구나 여기에서 페티가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는 완전히 스미스의 어조를 듣게 된다:"일반적으로 직업의 종류로 보아 아무런 물질적 대상 즉 사회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귀중한 물건도 생산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폐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가 등등에게서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회의 부는 감소된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원기를 회복하여 주는 것들, 즉 적당히 이용한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서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건들에 대하여 능력과 취미를 가지게 하는 것들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책, pp.198). "생산 노동에 얼마 만한 사람이 요구되는가가 계산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안심하고 그리고 사회에 손해를 끼침이 없이 예술, 그리고 오락과 치장에 기여하는 직업들—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연 과학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에 이용될 수 있다"(같은 책, p. 199) "농업에서보다도 공업에서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며 공업에서보다도 상업에서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p. 172) "한명의 선원은 세명의 농민의 가치가 있다"(p. 178). ‖Ⅶ-318‖

* * *

‖Ⅷ-346‖ 페티. 잉여 가치. 페티는 잉여 가치를 지대 형태로서만 고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잉여 가치의 본성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저서의 한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 부분과, 그가 은과 곡물의 상대적 가치를 동일한 노동 시간에 생산될 수 있는 동일한 것들의 상대적 양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비교하여 본다면
181 그렇다고 볼 수 있다:"1온스의 은을 페루의 광산에서 채굴하면 런던으로 가져 오는 데, 1 부셀의 곡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시간의 지출로써 할 수 있다면 전자는 후자의 자연 가격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보다 더 풍부한 광산이 발견된 결과 2온스의 은을, 현재 1온스를 채굴하는 것 만큼 용이하게 채굴할 수 있다면 기타의 제 조건이 동등한 경우에는* 곡물은 그 가격이 부셸 당 10실링이면서도 현재 5실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렴할 것이다".

"가령 100명의 인간의 10년간 곡물을 생산하고 또 같은 수의 인간이 은을 채굴하는 데 같은 시간을 지출한다고 하자. 그러면 은의 순 채굴량은 곡물의 전체 순 수확량의 가격으로 될 것이며 은의 동등한 부분들은 곡물의 동등한 부분들의 가격으로 될 것이다". "100명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작업을 200명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곡물은 2배로 비싸질 것이다." (『조세 및 공납에 관하여』** 1962년) (1679년 판에서는 pp.32,24,67).

내가 위에서 염두에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공업과 미술이 발전하면 농업은 감퇴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농민의 수입은 증대되고 그 결과 지대는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였다면, 즉 이전보다도 인구 중 보다 많은 부분이 상공업에 종사한다면, 그리고 곡물 가격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보다 많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보다 적을 때보다도 높지 않다면 벌써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 지대는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밀이 부셸당 5실링 즉 60페니로 판매된다고 하자. 이 경우에 이 밀이 자라는 토지에서의 지대를 이루는 것은 각각의 세째 단"(즉 수확물의 세째 부분, 세째 몫) "이라고 하면 60페니 중 20페니는 토지의 몫으로 되며 40페니는 농민의 몫으로 된다. 그러나 농민의 수입이 8분의 1만큼, 즉 하루에 8페니에서 9페니로 증대한다면 밀 한 부셸 중에서 농민의 몫은 40페니에서 45페니로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지대는 20페니에서 15페니로 감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밀 가격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만큼 그것은 아주 정당하다. 왜냐하면 밀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나라는 ‖347‖(화란과 마찬가지로) 농업 형편이 변하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치산수』, 런던, 1699년, pp.193~194).

‖VIII-364‖ 〈페티. 이상의 페티에게서 인용한 부분과, 지대가 잉여 가

---

* 원문 caeteris paribus-역자.

** 원문 「On Taxes and Contributions」-역자.

치 일반으로서, "순 생산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다음 부분과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곡물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땅을 경작한다고 하자, 즉 땅을 갈아 엎고 씨를 뿌리며 고르게 하고 곡물을 걷어 들이며 탈곡한다고, 한 마디로 말하여 그가 농사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하자. 여기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 수확물 중에서 종자와 또 그 자신이 소비한 것, 의
182 복 기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과 교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곡물은 이 해의 진정한 지대를 이룬다. 그런데 7년간의 평균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는 일련의 연간의 평균은 곡물을 얻기 위하여 경작하는 토지에서 나오는 보통의 지대로 된다. 그러나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곡물 또는 이 지대는 얼마 만한 화폐액의 가치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것은 은 생산국에 가서 이 금속을 채굴하고 제련하여 그것을 주화로 만들어서 첫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곡물을 걷어 들이는 나라로 가져 오는 데 자기의 전체 시간을 쓰는 다른 사람에게 남은 화폐액에 해당한다고. 이 둘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에 그에게 남은 액은 가치상으로는 농민에게 남는 곡물과 꼭 같을 것이다."(『조세론』*, p. 23)〉 ‖Ⅷ－364‖

[c. 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둘째 설명의 지지자 —존 스튜어트 밀]

‖Ⅶ－318‖ 존 스튜어트 밀 씨도 『정치 경제학의 몇 개 미해결 문제에 대한 논문』(런던, 1844년) 중에서 역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는 노동도 생산적이라는 주장 외에는 아무 것도 스미스의 (둘째) 규정에 첨가하고 있지 않다. "향락의 원천은 축적되고 저장될 수 있으나 향락 자체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한 나라의 부는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그 나라에 있는 오래 견디는 향락의 원천의 총계로

---

* 원문 『Traite des taxes』-역자.

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오래 견디는 원천들을 증대시키거나 보존하기 위한 노동 또는 지출은 생산적인 것이라고 불러야 한다"(같은 책, p. 82). "기계공 또는 방적공이 자기의 직업을 배우는 동안에 소비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비는 소비액을 넘는 양으로 이 원천들을 새로 창조함으로써 나라에서 오래 견디는 향락 원천들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증가시키려는 것이다"(같은 책, p. 83).

* * *

이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하여 A. 스미스를 반대하는 잡담을 간단히 고찰하여 보자.

[7.] 제르멩 가르니에 [스미스와 중농주의자들의 이론의 비속화]

183

‖319‖ 제르멩 가르니에가 번역한 스미스의 『국부론』(파리, 1802년) 제 5권에는 이 저서에 대한 역자의 주해가 들어있다.

특히 생산적인 노동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에서 가르니에는 중농주의자들의 견해를 약간 약화시키면서 그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그는 "어떤 물건에 대상화되면서 자체 활동의 흔적을 남기며 또 판매 또는 교환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이다"(같은 책, 제5권, p.169)[63]라고 하는 스미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Ⅷ-319‖

[a.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과, 소득과 교환되는 노동과의 혼동, 전체 자본이 소비자의 소득으로써 보상된다는 그릇된 개념]

‖Ⅷ-347‖ 가르니에는 A. 스미스를 반대하여 다양한 논거들(부분적으로는 후기의 저자들에 의하여 반복되고 있는)을 내놓고 있다.

첫째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차이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 온갖 노동은 저자가 생산적이라는 말을 이해하

는 의미에서 생산적이다. 이런 노동이나 저런 노동이나 할 것 없이 그 노동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향락, 어떠한 편의 또는 어떠한 유용한 것을 창조하여 준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이 생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노동도 보수가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노동은 그것이 어떠한 사용 가치이든 생산하고 또 판매되며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즉 그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다.〉

그러나 이 사상을 전개하면서 가르니에는 그 예증으로서 "비생산적 노동자들"도 "생산적 노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며 동일한 또는 동일한 종류의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실례를 들고 있다. 예컨대 "나에게 복무하는 종은 나의 난로에 불을 때며, 나의 머리를 이발하여 주고, 나의 의복과 가구를 깨끗이 하고 정돈하며,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다 등등. 이 종은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과 동일한 종류의 봉사를 수행한다. 즉 고객의 내의를 세탁하거나 수선하여 주는 세탁부나 재봉사,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기식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주막집 주인, 음식점 주인, 직접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이발사, 조발사,"(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생산적 노동자에도 하인에도 거의 속하지 않는다) "끝으로 벽돌공, 지붕공, 소목, 유리공, 난로공, 등등 그리고 수선과 보수를 위하여 초청되며 연 소득을 단순한 보수 및 수선 노동에서도 신 건설에서도 얻
184 는 다수의 건설 노동자들"(A. 스미스는 보수 노동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다소간 오래 견디는 물건에 고정될 수 없다고는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종류의 노동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 목적은 그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도, 그것들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도 있지 않다. 하인도 포함한 이 모든 노동자들은 자기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자신의 재산을 돌보는 노동을 절약하여 준다."

(따라서 그들을 가치 또는 오히려 사용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노동의 "절약"이라는 관점을 데스튜트 드 트라시는 더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의 비생산적 노동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생산적 노동을 면하게 한다고 하여 생산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비생산적 노동은 그들 중 한 사람이 수행한다. 스미스가 말하는 비생산적 노동의 일부는 분업의 결과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만 물건들을 소비하

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그리고 말하자면 소비 비용에 속하는 부분만이며 그것도,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생산적 노동자를 위하여 이 시간을 절약하여 주는 경우만이다. 그런데 A. 스미스는 이 "분업"을 부인하지 않는다. 각자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렇게 두 사람 간에 분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적 노동도, 비생산적 노동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고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노동 중 한편은 생산적이며 다른 한편은 비생산적이라는 사정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이 때문에 그리고 이 때문에만 고용된다"(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노동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열 명이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노동을 "절약하는" 진기한 방식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바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생산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 누구도 생산적이 아니다"(같은 책, pp.171~172)

‖348‖ 둘째로, 프랑스인에게는 "도로 관리국"*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말한다. 왜 사적 상업 또는 공업 기업소의 감독 또는 지배인의 노동"은 생산적이라고 불러야 하고 "공적 도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 항구, 화폐 제도 기타 상업을 활발히 진행하게 하는 중요한 시설들의 유지를 감독하며, 운수 및 교통의 안전과 계약 이행 등등을 살펴 보며 또 큰 사회적 공장의 감독이라고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행정 관리의 노동은 비생산적"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고. "이것은 보다 큰 규모에서 수행될 따름이지 같은 종류의 노동이다."(pp.172~173). 그러한 사람이 판매 될 수 있는 물건들의 생산(또는 보관 및 재생산)에 참가하는 한, 그것들이 국가 수중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미스는 그의 노동을 "생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큰 사회적 공장의 감독"이라는 것은 순전히 프랑스식 창조물이다.

세째로, 여기에서 가르니에는 "도덕적인 것"에 빠진다. 왜 "나의 후각의 비위를 맞추는 향수 제조자"는 생산적 노력자이며 "나의 청각을 매혹케 하는" 음악가는 비생산적으로 보아야 하겠는가?(p. 173) 전자는 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데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대답할 것이다. 도덕은 양자의 "공적"과 마찬가지로 이 구별과도 아무

---

* 원문 "ponts et chaussées—글자 그대로는 "교량과 도로". 프랑스에서는 도로 관리국을 이렇게 불렀다—편집자.

런 관계도 없다.

네째로. "바이올린과 풍금의 제작자, 악기 상인, 기계공 등등"은 생산적인데, 이들의 노동을 "준비 단계"로 삼을 따름인 직업들은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전자나 후자나 그 노동의 최종 목적은 동일한 종류의 소비이다. 한편의 노동의 최종 결과가 사회의 노동 생산물 수에 들어 갈 만하지 못하다면 왜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보다 유리하게 취급한다는 말인가?"(같은 책, p. 173) 이러한 논법에 의한다면 곡물을 먹는 사람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꼭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곡물은 무슨 목적으로 생산되는가? 먹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먹는 노동이 생산적이 아니라면 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곡물 경작 노동은 생산적이란 말인가? 그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은 뇌수, 근육 등등을 생산하는데 과연 이것들은 보리나 밀과 마찬가지로 귀한 생산물이 아니란 말인가?—하고 성난 인류의 벗은 A. 스미스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A. 스미스는 비생산적 노동자가 어떤 것이든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도대체 아무런 노동자도 아닐 것이다. 둘째로 환약 처방을 쓰는 의사는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지만 환약을 만드는 약제사는 생산적 노동자라는 것은 기묘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악기 제작자는 생산적 노동자이지만 그것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약간의 "생산적 노동자들"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되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하는 생산물들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생산적 노동자는 결국 첫째로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주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둘째로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자들이 소비하는 생산물들을 제공한다는 사실보다는 더 기묘하지는 않다.

이러한 모든 지적 중에서 둘째 점은 자기들의 "도로 관리국"을 잊어버릴 수 없는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으로 차 있는 것이며, 세째 점은 도덕에 귀착되며, 네째 점은 소비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는 〈이
186 것은 한편 생산하는데 다른편은 소비하는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틀린 말이다〉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A. 스미스가 어디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사실 즉 생산적 노동의 일부는 비생산적 종류의 노동을 위하여

재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거나 한다. 오직 첫째 점만이 옳은 사상을, 즉 A. 스미스가 자기의 둘째 규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노동을 생산적이고 또 비생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 349 ‖ 또는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규정에 따라 그가 말하는 "비생산적" 노동 중에서 비교적 얼마 아니 되는 부분을 생산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는 옳은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별 자체를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종류의 노동을 이 구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즉 이 구별의 적용을 반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적한 다음에 학구적 가르니에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 간다:

"스미스가 고안하여 낸 두 계급 간에서 아마 명백히 찾아 낼 수 있을 유일한 일반적 구별은, 그가 생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계급에게 있어서는 물건의 제조자와 그것의 소비자 간에 중개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데, 그가 비생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계급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중개자도 있을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직접적으로 매개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험, 외과의사의 숙련, 변호사의 지식, 음악가나 배우의 재능 또는 마지막으로 하인의 봉사를 이용하는 자는 이 다양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수행하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그들 중 각자에게 대하여 매개 없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한편 다른 계급의 직업들에 있어서는 소비되어야 할 대상은 물질적이며 감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제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들어 가기 전에 다수의 교환 행위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pp.174).

가르니에는 이 마지막 말들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스의 첫째 구별(자본과 교환되는 노동과, 소득과 교환되는 노동)과 둘째 구별(물질적이며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는 노동과 그러한 상품에 고정되는 않는 노동) 간에 어떠한 숨은 사상적 연관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상품에 고정되지않는 그러한 종류의 노동은 그 본성으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종속될 수 없으며, 다른 종류의 노동은 그에 종속될 수 있다. 물질적 상품— "물질적이며 감촉할 수 있는 물건"—의 대부분이 자본의 지배하에서 임금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비생산적] 종류의 노동(또는 봉사, 그것이 매춘부의 봉사이건 로마 법왕의 봉사이건 간에)은 생산적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그들의 고용주들의 이윤(그리고 이 이윤의 분배에 참가하는 자들

의 이윤)으로써만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생산적 노동자들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따라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창조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짓기를 좋아하는 이 프랑스 개에게 있어
187 서 특징적인 것은 정치 경제학자로 자처하는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연구자로 자처하는 그가 이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만드는 것 즉 자본과 임금 노동과의 교환을—소득과 임금 노동과의 교환 또는 노동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득의 직접적 지불 대신에—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는 가르니에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적 노동으로의 노동의 전화에 있어서 비록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즉 일시적으로 필연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필연적인 형태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형태이다.

"또 그가 말하는 생산적 계급 중에서, 어떠한 새로운 생산물도 유통에 들여 보내지 않고 다만 기성의 물건들을 청소하며 보존하고 수리하는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p. 175) (스미스는 어디서도, 노동 또는 노동 생산물이 반드시 유통 자본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컨대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기계공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정 자본으로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러한 종류의 노동의 가치는 생산물 즉 상품의 유통에 들어간다. 그런데 수리 등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을 주문자의 집에서 수행한다면 그들은 ‖350‖ 자기들의 노동을 자본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교환한다).

"즉 이러한 구별의 결과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생산적 계급은 오직 소득에 의하여서만 유지된다. 사실상 이 계급에 있어서는 그들과 그들의 생산물의 소비자 즉 그의 노동을 이용하는 자 간에 중개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계급은 직접 소비자에게서 지불 받는데, 이 소비자는 자기의 소득으로써만 지불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적 계급의 노동자들은 보통 그들의 노동에서 이윤을 끌어 내려고 하는 중개자에게서 지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는 자본에서 지불 받는다. 그러나 이 자본은 결국 언제나 소비자의 소득으로써 보상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유통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이윤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p. 175].

이 마지막 "그러나"는 아주 유치하다. 첫째로 자본의 일부는 자본에

의하여 보상되며 소득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이 부분이 유통하든 유통하지 않든 마찬가지이다(유통하지 않는 경우는 예컨대 종자 보상의 경우이다).

[b.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과정에서의 불변자본의 보상에 관한 문제]

탄광이 제철소에 석탄을 제공하고 또 제철소로부터 탄광의 생산과정에 생산 수단으로서 들어 가는 철을 받는다면 석탄은 이 철의 가치액만큼 자본과 교환되며 또 반면에 철은 그 자체의 가치액만큼 자본으로서 *188* 석탄과 교환된다. 석탄과 철(사용가치로서의)은 비록 기존 생산 수단의 도움을 받아 생산된 노동이지만 새로운 노동의 생산물이다. 그러나 연간에 생산된 노동 생산물의 가치는 그 해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생산물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상화되어 있었던 과거 노동의 가치도 보상한다. 따라서 총 생산물 중 이 가치와 동등한 부분은 그 해의 노동 생산물의 일부가 아니라 과거 노동이 재생산된 것이다.

탄광, 제철소, 산림 기업체 및 기계 제작 공장의 하루의 노동 생산물을 예로 들어보자. 이 모든 기업체들에서의 불변 자본은 생산물 가치의 전체 구성 부분의 3분의 1과 동등하다고, 즉 과거 노동 대 산 노동의 비율은 1대 2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기업체들의 하루의 생산물들은 각각 x, x', x'', x'''라고 하자. 이 생산물은 일정한 양의 석탄, 철, 목재, 기계이다. 그것들은 그러한 생산물로서 하루 노동의 생산물이다(그러나 또한 하루 동안에 소비되었으며 그 날의 생산을 협조한 원료, 연료, 기계류 등등의 생산물이기도 하다). 그것들의 가치를 z, z', z'', z'''라고 하자. 이 가치들은 그 날의 노동 생산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z/3$, $z'/3$, $z''/3$, $z'''/3$는 단지 이 z, z', z'', z'''중의 불변적 요소들이 그날의 노동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x/3$, $x'/3$, $x''/3$, $x'''/3$ 즉 생산된 사용 가치의 3분의 1도 또한 과거 노동의 가치만을 표시하며 이 가치를 부단히 보상한다. 〈이 경우에 과거 노동과 산 노동의 생산물 간에 진행되는 교환은 그 본성자체로 보아 노동력과,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노동 제 조건 간의 교환과는 전혀 다르다〉.

$x=z$이다. 그러나 z는 x^{64}의 가치인데, $\frac{1}{3}z$는 전체 x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 등등의 가치이다. 그리하여 $x/3$는 그날의 노동 생산물 중에 다시

나타나며 또 그날의 노동과 관련된 과거 노동을 보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결코 그날의 노동 생산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의 노동과 관련된 지난날의 노동, 일반적으로 과거 노동의 생산물이다〉. 물론 현실적 생산물(철, 석탄 등등)의 양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이 x의 값은 온갖 주어진 부분은 가치상으로는, 3분의 1은 과거 노동이고 3분의 2는 그날에 수행
189 되고 첨가된 노동이다. 과거 노동과 그날 노동과의 비례는 생산물 총액에 있어서나 이 총액의 일부를 이루는 각각의 생산물에 있어서나 같다. 그러나 내가 총 생산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편에는 그 중 ⅓을 놓고 다른 한편에는 ⅔를 놓는다 하더라도 처음 ⅓은 과거 노동만을 표시하고 나머지 ⅔는 그 날의 노동만을 표시하는 경우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처음 ⅓은 총 생산물로 들어 간 전체 과거 노동, 즉 소비된 생산 수단의 전체 가치를 표시한다. 따라서 이 ⅓을 공제한 다음에는 남은 ⅔는 그 날의 노동의 생산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그 하루 동안에 생산 수단에 첨가된 전체 노동량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⅔는 생산자의 소득(임금과 이윤)과 동등하다. 생산자는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 즉 자기의 개인적 소비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하루 동안에 채굴되는 석탄 중 이와 같은 ⅔를 소비자들 또는 구매자들이 화폐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석탄을 구매하려고 미리 화폐로 전화시킨 상품과도 교환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⅔의 석탄 중 일부는 석탄 생산자 자신의 개인적 소비로 즉 가정 난방용 등등으로 들어 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통에 들어 가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이미 유통에 들어 간 경우에는 그것은 그 자체의 생산자에 의하여 도로 유통에서 ‖351‖ 회수된다. ⅔의 석탄 중에서 석탄 생산자가 자신이 소비하는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모든 양은(그가 이것을 소비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의하여 개인적 소비품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환에서 소비품 판매자가 석탄과 교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의 자본인가 또는 그의 소득인가 하는 것은 석탄 생산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포목 공장주가 자기 집의 난방을 위하여 자기 포목을 석탄과 교환하건(이 경우에는 석탄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 소비품으로 되는데 그는 이 소비품의 대가로 자기의 소득, 즉 이윤을 대표하는 일정한 양의 포목으로 지불한다), 또는 포목 공장주의 종인 제임스가 임금으로서 포목을 석탄과 교환하건(이 경우에도 석탄은 소비품이며 이번에는 자기의 소득을 종의 비생산적 노동과 교환한 포목 공장주의 소득과 교환된다),

또는 마지막으로 포목 공장주가 자기 공장에 필요한 그러나 이미 소비된 석탄을 보상하기 위하여 포목을 석탄과 교환하건 (이 마지막 경우에는 포목 공장주가 교환에 내놓은 포목은 그에게 있어서는 불변 자본이며 그의 생산 수단의 하나의 가치이다. 석탄으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190*
현물 형태의* 일정한 생산 수단이다. 그런데 탄광업자에게 있어서는 포목은 소비품인데, 포목도 석탄도 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는 소득이다. 즉 석탄은 실현되지 않은 형태의 소득이며 포목은 실현된 형태의 소득이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⅓의 석탄에 관하여 말한다면 탄광업자는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 소비품의 구입에 지출할 수 없으며 그것을 소득으로서 지출할 수 없다. 그것은 생산 과정(또는 재생산과정)에 속하는 것이며 철, 목재, 기계, 즉 그의 불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그것들이 없이는 석탄 생산이 갱신 또는 계속될 수 없는 물건들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탄광업자는 이 ⅓도 소비품과(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소비품 생산자의 화폐와)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다만 이 소비품을 도로 철, 목재, 기계와 교환하기 위하여서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탄광업자 자신의 소비로, 즉 그의 소득의 지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 목재, 기계 생산자들의 소비로 그리고 소득의 지출로 들어 가는데, 목재, 철 등등의 이 모든 생산자들은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생산물의 ⅓을 개인적 소비품에 지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석탄이 철 생산자, 목재 생산자, 기계 제작업자의 불변 자본으로 들어 간다고 하자. 다른 한편으로 철, 목재, 기계는 탄광업자의 불변 자본으로 들어 간다고 하자. 그리하여 그들의 이 생산물들이 동일한 가치액으로서 서로 [그들의 불변 자본으로] 들어 가는만큼 그것들은 서로 현물로 보상하며 당사자의 한편은 다른 편에 대하여 판매액에 비한 구매액의 초과 분에 해당하는 차액만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사실상 화폐는 실천에서(어음 등등에 의하여) 주화로서나 유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만 나타나며 차액의 지불에 복무할 따름이다. 이 ⅓의 석탄의 약간 부분은 석탄 생산자 자신의 재생산을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⅔의 석탄의 약간 부분이 그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공제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

* 원문 In natura—역자.

이와 같이 불변 자본과 불변 자본, 한 현물 형태의 불변 자본과 다른 현물 형태의 불변 자본의 교환에 의하여 서로 보상하는 석탄, 철, 목재 및 기계의 전체 양은 소득과 불변 자본과의 교환과도, 절대로 아무런 공
191 통성도 없다. 생산물의 이 부분은 농업에서의 종자 또는 축산업에서의 기본 가축 기금이나 조금도 다름 없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연간에 생산된 노동 생산물—그 해에 새로 첨가된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이 노동 생산물과 과거 노동의 생산물을 다 말한다—중에서(생산 제 조건이 불변인 경우에는)매년 생산 수단으로서의, 불변자본으로서의 그 자체를 보상하는 부분이며, 즉 "실업가들" 상호간의 유통 외에 다른 어떤 유통으로도 들어 가지 않으며 또 생산물 중에서 "실업가들"과 "소비자들" 간의 유통*에 들어 가는 부분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상하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⅓의 석탄 전부가 현물로 그 자체의 생산 요소들인 철, 목재, 기계와 교환된다고 하자. 〈그 부분은 예컨대 직접 기계와만 교환되지만 한편 기계 제작업자는 그것을 불변 자본으로서 자기 자신의 불변 자본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철생산자와 목재업자의 불변 자본과도 교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352‖ 탄광업자가 소비품과 교환한, 즉 소득으로서 교환한, 그의 생산물의 3분의 2 중의 매 쨀트너의 석탄은 물론 가치상으로는 전체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⅓ 쨀트너는 1 쨀트너의 석탄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동등할 것이며 ⅔쨀트너는 석탄 생산자가 이 ⅓에 새로 첨가한 노동과 동등할 것이다. 그러나 탄광업자의 전체 생산물이 예컨대 30,000 쨀트너를 이룬다면 탄광업자는 소득으로서 20,000 쨀트너만을 교환한다. 나머지 10,000 쨀트너는 전제에 의하면 철, 목재, 기계 등등으로써 보상된다. 요컨대 30,000 쨀트너에 들어 간 생산 수단의 전체 가치는 현물로 동종의 그리고 동일한 가치액의 생산 수단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리하여 20,000 쨀트너의 구매자는 사실상, 20,000 쨀트너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00 쨀트너는 총 생산물 가치 중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이 실현되고 있는 ⅔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20,000 쨀트너가 새로 첨

---

* 이 책 p.136 및 p.151을 보라—편집자.

가된(예컨대 1년간에) 노동만을 대표하고 과거 노동은 전혀 대표하지 않을 경우와 동일하다. 그리하여 구매자는 매 쨴트너의 전체 가치를, 즉 과거 노동과 새로 첨가된 노동을 합한 것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 첨가된 노동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것이니, 이것은 192
바로 그가 20,000 쨴트너만을, 즉 전체 생산물 중 새로 첨가된 전체 노동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만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는 역시 그가 먹는 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외에는 농민의 종자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철, 목재, 기계 등등의 생산자들은 생산물의 이 부분을 서로 보상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재차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그들의 노동의 연 생산물이면서 그들이 그 해에 첨가한 노동의 생산물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연 생산물 중에서 과거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인 그러한 부분으로써 그것을 보상하였다. 새로운 노동이 없이는 생산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생산 수단에 대상화된 노동이 없이는 생산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다만 새로운 노동의 생산물이라면 그것의 가치는 현재보다 적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된다면 생산물의 단 한 부분도 생산으로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노동 방식[즉 생산 수단의 적용에 기초한 방식]이 더 생산적이 아니며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내지 못한다면—생산물의 일부는 생산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누구도 그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⅓의 석탄 가치의 단 한 구성 부분도 소득으로서 판매되는 20,000 쨴트너의 석탄에 들어 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 즉 10,000 쨴트너에 의하여 대표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소득으로서 판매되는 나머지 ⅔의 가치에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철, 목재, 기계 등등, 요컨대 결국은 상술한 생산물의 ⅓인 생산 요소들의 생산이 비싸진다고 하자. 석탄 채굴 노동의 생산성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자. 동일한 양의 철, 목재, 석탄, 기계 및 노동이 지출되는 조건 하에서는 여전히 30,000 쨴트너의 석탄이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철, 목재 및 기계가 비싸졌으며 전보다 많은 노동 시간에 해당되므로 그것들의 대가로 전보다 많은 석탄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I 353 I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산물은 30,000 쨴트너의 석탄이라고 하자. 탄광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전과 여전히 같았다. 동일한 양의 산 노동과 또 동일한 양의 목재, 철, 기계 등등으로써 전과 마찬가지로 30,000 쨴트

너의 석탄이 생산된다. 산 노동은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 예컨대 20,000파운드 스털링(화폐표현으로)으로 표시된다. 이와는 반대로 목재, 철 등등, 간단히 말하면 불변자본은 10,000 파운드 스털링이 아니라 이제는 16,000 파운드 스털링에 해당한다. 즉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은 6/10 즉 60%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생산물의 가치는 전에는 30,000 파운드 스털링이었는
193 데, 이제는 36,000 파운드 스털링이다. 따라서 그것은 1/5 즉 20% 증가하였다. 따라서 또 생산물 중의 각각의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전보다 1/5 즉 20%의 가치가 더 많다. 전에는 한 쩬트너의 석탄은 1파운드 스털링에 해당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은 1파운드 스털링+1/5 파운드 스털링=1 파운드 스털링 4실링에 해당한다. 전에는 총 생산물 중 3분의 1 즉 3/9이 불변 자본과 동등하였고 3분의 2가 첨가된 노동과 동등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불변 자본과 총 생산물 가치와의 비율은 16,000:36,000=4/9이다. 불변 자본은 이제는 전보다 1/9 [총 생산물 가치 중에서]만큼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 생산물 중 첨가된 노동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은 전에는 생산물의 ⅔, 즉 6/9을 차지하였는데, 이제는 5/9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불변 자본	첨가된 노동
가 치=36,000 파운드 스털링	16, 000파운드 스털링 (생산물의 4/9)	20,000 파운드 스털링 (전과 동일한 가치, 생산물의 5/9)
생산물=30,000 쩬트너	13,333 1/3 쩬트너	16,666 ⅔ 쩬트너

광부들의 노동이 보다 덜 생산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탄에 지출된 총 노동(광부의 노동 플러스 과거 노동)은 덜 생산적으로 되었다. 즉 ‖ 354 ‖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가치 구성 부문의 보상을 위하여 이제는 총 생산물의 1/9이 더 요구되는데, 새로 첨가된 노동의 가치는 생산물의 1/9 만큼 더 적은 것을 차지한다. 철, 목재 등등의 생산자들은 이제도 여전히 10,000 쩬트너의 석탄에 대하여서만 지불할 것이다. 전에는 이 양의 석탄은 그들에게 10,000 파운드 스털링의 비용을 들이게 하였

다. 이제는 그것은 그들에게 12,000파운드 스털링의 비용을 들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변 자본의 비용의 일부는 이들이 철 등등 대신으로 받는 석탄 부분에 대하여 이들이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보상될 것이다. 그러나 석탄 생산자는 이들에게서 16,000 파운드 스털링 분의 원료 등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는 4,000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는 차액, 즉, 3,333 1/3 챈트너의 석탄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는 종전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16,666 ⅔ +3,333 ⅓=20,000 챈트너의 석탄 즉 생산물의 ⅔를 제공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대가로서 20,000 파운드 스털링이 아니라 24,000 파운드 스털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금액으로써 그들은 그에게 새로 첨가된 노동뿐만 아니라 불변 자본의 일부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극히 간단한 것이다. 그들이 종전대로의 석탄량을 소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대가로 1/5 더 지불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각각의 생산 부문에서 생산비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이 1/5 만큼 보다 적게 자기들의 소득에서 다른 생산물들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곤란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만 있다: 철, 목재 등등의 생산자들은 석탄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생산물들에 대하여 석탄 생산자는 어떻게 4,000 파운드 스털링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이다. 석탄 생산자는 이 4,000 파운드 스털링에 해당한 *194*
자기의 3,333 ⅓ 챈트너의 석탄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신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받았다. 그러나 그 상품들은 석탄 생산자의 개인적 소비에도, 그의 노동자들의 소비에도 들어 갈 수 없으며 철, 목재 등등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석탄 생산자는 이 물건들로써 자기의 3,333 ⅓ 챈트너의 석탄의 가치를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극히 간단하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석탄 소비자들은 다른 모든 상품들을 1/5 적게 소비하거나 또는 석탄의 대가로 각자의 상품을 1/5을 더 주어야 한다고. 바로 이 1/5은 목재, 철 등등의 생산자들이 더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제철소, 기계 제작업, 임업 등등에서의 생산성의 감퇴가 어떻게 철, 기계, 목재의 생산자들에게 종전에 비하여 많은 소득을 소비할 가능성을 주는가 하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생산물 가격

* 원문 Prima facie—역자.

은 그 가치와 동등하며 따라서 그들의 노동 생산성의 감퇴에 비례하여서만 인상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 목재, 기계의 가치가 3/5, 즉 60% 제고되었다고 전제하였다. 이것은 오직 두 가지 원인에만 기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원인은 철, 목재 등등의 생산이, 이 생산 부문들에서 적용되는 산 노동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리하여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으로써 보다 덜 생산적으로 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철, 목재, 기계의 생산자들은 전보다 3/5 더 많은 노동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임금률은 여전히 동일하였다.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의 저하는 일시적으로만 개별적 생산물들에서 일어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 가치율도 변함이 없었다. 생산자에게는 전에는 15 노동일이 요구되었는데 이제는 24 노동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24 노동일의 매 노동일 중 10노동 시간의 대가만 지불하며 여전히 매일 2시간씩 그들을 무상으로 노동시킨다. 그리하여 전에는 15명의 노동자가 150 시간은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고 30 시간을 기업가를 위하여 노동하였다면 이제는 24명의 노동자가 240시간은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고 48 시간은 기업가를 위하여 노동한다. (이윤률은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임금은 그것이 철, 목재, 기계류 등등에 지출되는 한에서만 저하될 것인데, 이러한 일은 없다. 24명의 노동자는 이제는 전에 15명의 노동자가 소비한 것보다 3/5 더 많이 소비한다. 따라서 석탄 생산자는 이제는 그들에게(즉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에게) 3,333 ⅓ 쩬트너의 가치 중 그만큼 많은 부분을 판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제철 공업, 임업 등등에서 그 부문들의 불변 자본 즉 생산 수단의 일부가 비싸져서 생산성이 감퇴하는 것이다. 그때는 [다
195 른 생산 부문들 앞에] 또다시 동일한 양자택일이 나타나며 그리하여 결국 생산성의 감퇴는 적용되는 산 노동량의 증대에 귀착되며 따라서 임금의 증대에 귀착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증대된 임금을 석탄 소비자들은 부분적으로 상술한 4,000 파운드 스털링으로 탄광업자에게 지불하였다.

추가 노동량이 적용되는 생산 부문들에서는 취업 노동자 수가 늘었으므로 잉여 가치량도 증대된다. 한편으로 이윤률은 그 부문들 자체의 생산물이 들어 가는—그부문들이 그 자체의 생산물의 일부를 그 자신들이 생산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경우이든, 예컨대 석탄의 경우와 같이 그

부문들의 생산물이 생산 수단으로서 그 자체의 생산 수단으로 들어 가는 경우이든—그들의 불변 자본의 그 모든 요소들[의 가치 증대]에 따라 저하된다. 그러나 임금에 지출된 그 부문들의 유동 자본이, 보상되어야 할 불변 자본 부분보다 더 많이 증대하였다면 그 부문들의 이윤률도 상승할 것이며, 또 그 부문들은‖ 355 ‖ 상술한 4,000 파운드 스털링의 일부의 소비에 참가할 것이다.

불변 자본의 가치 증대(이 불변 자본을 제공하는 노동 부문들에서의 생산성의 감퇴로 인한)는 이 불변 자본이 들어 가는 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새로 첨가된 노동을 보상하는 생산물 부분(현물로서의)을 감소시킨다—따라서 그 증대는 이 노동이 그 자체의 생산물로 표현된다면 이 노동을 보다 덜 생산적인 것으로 만든다. 불변 자본 중 현물로 교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변함없다. 이용된 철, 목재, 석탄의 보상을 위하여 이전 대로 동일한 양의 철, 목재, 석탄이 현물로 교환되며 가격의 상승은 이 경우에 서로 상쇄된다. 그러나 이제 광산업자에게 있어서 그의 불변 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현물 교환에는 들어 가지 않는 여분의 석탄을 종전과 다름 없이 소득(상술한 경우에는 이것의 일부는 임금과 교환될 뿐만 아니라 이윤과도 교환된다)과 교환되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이 소득이 이제는 이전의 소비자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이 적용된, 즉 노동자 수가 증가한 생산 분야들에서 노동하는 생산자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어떤 생산 부문이 개인적 소비로만 들어 가고 생산 수단으로서는 어떤 다른 생산 부문에도(여기에서 생산 수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변 자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 자체의 재생산에도(예컨대 농업, 축산업, 석탄 자체가 보전 재료로서 생산에 들어 가는 석탄 공업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들어 가지 않는 생산물들을 생산한다면, 이 부문의 연 생산물은 〈연 생산물을 초과하여 있을 수 있는 잉여 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의가 없다.〉 언제 *196*
나 소득 즉 임금 또는 이윤에서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술한* 아마포의 예를 들어 보자. 3엘레의 아마포는, ⅔는 불변자본, ⅓은 첨가된 노동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엘레의 아마포는 첨가된 노동을 표시한다. 잉여 가치가 25%를 이룬다면 1엘레의 1/5은 이윤을 표시한다. 나머지 4/5엘레는 재생산된 임금을 표시한다. 1/5

* 이책 P. 119 이하를 보라—편집자.

은 공장주 자신이 소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것에 귀착되지만 그에게 그 가치를 지불하는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며, 그 가치를 그는 그들 자신의 상품으로든가 다른 어떤 상품으로 소비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옳지 않지만 전체 이윤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나머지 4/5 엘레를 그는 다시 임금으로 지불한다. 그의 노동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소득으로서 직접 또는 다른 소비품과 교환하여—이 다른 소비품의 소유자가 아마포를 소비하고—소비한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3엘레의 아마포 중에서 생산자들 자신이 소득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전체 몫—1 엘레의 아마포—이 된다. 나머지 2엘레는 공장주의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그것은 다시 아마포의 생산 조건들인 방사, 기계 등등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입장에서는 2 엘레의 아마포의 교환은 불변 자본의 교환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오직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만 교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가령 방사의 대가로 2 엘레의 4/5 또는 8/5엘레를 지불하고 기계의 대가로 2/5 엘레를 지불한다.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는 이번에는 이 수량의 아마포 중에서 각각 1/3씩 소비할 수 있다. 즉 방적업자는 8/5 엘레 중에서 8/15 엘레를 소비할 수 있고 기계 제작업자는 2/5엘레 중에서 2/15 엘레를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0/15 즉 4/3 엘레는 그들을 위하여 아마, 철, 석탄 등등의 원료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각각의 물품은 또 그 자체가 소득(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과 불변 자본(원료, 고정 자본 등등)을 표시하는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이 마지막 4/3엘레의 아마포는 소득으로서만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방사와 기계에서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며, 방적업자와 기계제작업자가 아마, 철, 석탄 등등을 보상하는 데 쓰는 것(철, 석탄 등등 중 기계 제작업자가 기계로써 보상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은 아마, 철, 석탄 중에서 아마, 철, 석탄의 생산자들의 소득을 이루는, 따라서 불변 자본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부분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사와 기계에서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마, 철, 석탄 등등의 생산자
197 들의 생산물 중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불변 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철, 석탄, 아마 등등으로 표시된 소득을 철, 석탄 등등의 생산자들은 아마포 또는 기타 소비품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생산물 자체는 그들의 개인적 소비에는 들어 가지 않거나, 적은 부분 밖에 들어 가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철, 아마 등등의 일부는 개인적 소비로만 들어가는 생산물—아마포—과 교환될 수 있으며 이 생산물과 교환됨으로써 불변 자본을 방적업자에게는 완전히, 기계 제작업자에게는 부분적으로 보상하는데, 방적업자와 기계제작업자는 아마포와 교환으로, 자기의 방사로 자기의 기계 중 그들의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을 인도함으로써 아마포를 소비하며 그럼으로써 직조업자의 불변 자본을 보상한다.

그리하여 사실상 전체 아마포는 직조업자, 방적업자, 기계 제작업자, 아마 재배업자, 석탄 생산자 및 철 생산자의 이윤과 임금에 귀착되며, 동시에 그들은 아마포 공장주와 방적업자에게 그들의 전체 불변 자본을 보상하여 준다. 이 마지막에 든 원료 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불변 자본을 아마포와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면 계산은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포는 어떠한 생산분야에도 생산 수단으로서, ‖356‖ 불변 자본의 일부로서 들어 가지 않은 개인 소비품이기 때문이다.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마 재배업자, 탄광업자, 제철업자, 기계 제작업자 등등이 그들의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구매하는 아마포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산물 중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득을 이루며 그들의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불변 자본을 이루는 부분만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만 그들의 생산물 중 소득에 귀착되지 않는, 따라서 소비품과는 교환될 수 없는 부분을 그들이 현물로, 즉 불변 자본과 불변 자본과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주어진 생산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불변이라고 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생산 부문에서 적용되는 산 노동의 생산성을 그 자체의 생산물로 표현한다면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간단히 설명된다.

방적업자의 노동 생산물은 5 파운드의 방사라고 하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방적업자에게는 5파운드의 면화만이 필요하다고(즉 낙면은 전혀 없다고)하자. 1파운드의 방사는 1실링에 해당한다고 하자(우리는 기계류를 사상한다. 즉 기계류의 가치는 증감이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기계류는 영과 같다). 1파운드의 면화는 8 페니의 값이 있다. 5파운드의 방사의 가치를 표현하는 5 실링 중에서 40페니(5×8 페니) 즉 3실링 4페니는 면화에 해당하며 5×4페니 즉 20 페니 또는 1실링 8 페니는 새로 첨가된 노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생산물 중에서 3⅓ 파운드의 방사 198
(3실링 4페니의 가치를 가진)는 불변 자본의 몫에 해당하고 1⅔ 파운드의

방사는 노동의 몫에 해당한다. 따라서 5파운드의 방사 중 ⅔는 불변 자본을 보상하고 5파운드의 방사 중 ⅓ 즉 1⅔ 파운드는 생산물 중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부분을 이룬다. 이제 면화 1파운드의 가격이 50 % 등귀하여 8 페니에서 12페니로, 즉 1실링으로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5 파운드의 방사의 값은 5파운드의 면화에 대한 5실링과 첨가된 노동에 대한 1실링 8페니인데, 이 노동의 양, 따라서 또 화폐로 표현된 그 가치는 여전히 불변이다. 그리하여 5파운드의 방사의 값은 이제는 5실링+1 실링 8페니=6 실링 8페니이다. 이 6실링 8페니 중에서 이제는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5실링이며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1실링 8페니이다.

6실링 8페니=80 페니인데, 그 중 60 페니는 원료에 해당하고 20 페니 노동에 해당한다. 5파운드의 방사의 총 가치(80페니) 중에서 노동은 전에는 33⅓ %였는데, 이제는 다만 20페니 또는 1/4, 즉 25 %이다. 한편으로 원료는 전에는 불과 66 ⅔ %였는데 이제는 60페니 즉 3/4 또는 75 %이다. 5 파운드의 방사의 값은 80 페니이므로 1파운드의 방사의 값은 80/5, 즉 16페니이다. 그리하여 5파운드의 방사 중에서 1¼ 파운드의 방사는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를 표현하는 20 페니에 해당하고 나머지 3¾ 파운드의 방사는 원료에 해당한다. 전에는 노동(이윤과 임금)에 1⅔파운드, 불변 자본에 3⅓ 파운드가 해당하였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은 변함이 없었지만 노동은 그 자체의 생산물로 평가하면 보다 덜 생산적으로 되었으며 원료만이 등귀하였다. 노동이 자체의 종전의 생산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기간에 5파운드의 면화를 5파운드의 방사로 전화하였기 때문이며 또 이 노동의 진정한 생산물(사용 가치상으로)은 면화에 부여된 방사 형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5 파운드의 면화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동의 결과로 방사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생산물은 이 방사 형태로써 뿐만 아니라 원면 즉 이 형태가 부여되어 있는 소재로써도 이루어지는데, 이 소재의 가치는 이제는 이 형태를 부여하는 노동에 비하여 총 생산물 중에 종전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방적공의 동일한 양의 노동이 이제는 적은 양의 방사로 지불된다. 다시 말하면 이 노동을 보상하는 생산물 부분이 감소된다.

이 문제는 바로 이상과 같다.

[c. 스미스에 대한 가르니에의 논쟁의 비속한 제 전제. 중농주의적 표상으로서의 가르니에의 복귀,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소비가 생산의 원천이라는 견해는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일보 후퇴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전체 자본이 결국은 언제나 소비자의 소득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가르니에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일부는 소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자본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기 때 199
문이다. 둘째로 이 주장은, 소득이 임금(또는 임금에서 지불되는 임금, 즉 임금에서 파생되는 소득)이 아닌 한에서는 소득 자체는 자본에 대한 이윤(또는 자본에 대한 이윤에서 파생되는 소득)이므로 어느 모로도 불합리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중에서 유통하지 않은(소비자의 소득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분은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가져 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가르니에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자본의 이 부분은—생산 제 조건이 불변인 경우에는—사실상 이윤(보다 정확히 말하면 잉여 가치)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없이는 결코 자본은 자체의 이윤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 357 ‖ "이 구별에서 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생산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득 뿐만 아니라 또한 중개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자본도 필요한데,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다수 경우에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의 소득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뿐이다"(같은 책, p. 175).

이 한 구절이 벌써 엉터리 없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가르니에는 A. 스미스의 저작의 역자이면서도 사실상 A. 스미스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국부론』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장 생산적이라는(선행 형태들에 비하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러하다) 견해에 대한 아무러한 표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 직접 소득에 의하여 지불되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인정하는 스미스를 반대하여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다수 경우에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의 소득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놓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산적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득 뿐만 아니라 또

한 중개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자본도 필요하다"는 댓구이다! (이러한 경우에 가르니에씨에게 있어서는 토지 생산물의 소비자들의 소득 외에 중개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다 주는 농업 노동은 얼마나 생산적이겠는가!)

"생산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그들을 적용하는 자본이 필요하고 또 둘째로 그들의 노동을 소비하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위하여는 오직 그들의 노동의 열매를 소비하는 소득을 창조하는 자본만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재봉업 자본가로서 임금에 100 파운드 스털링을 지출한다면 이 100파운드 스털링은 나에게 예컨대 120 파운드 스털링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나에게 20 파운드 스털링의 소득을 창조하여 주는데, 나는 이제는 내가 원한다면 이 소득으로 재료에 "예복" 형태를 부여하는 재봉공의 노동을 또 소비할 수 있다. 이
200 와 반대로 만약 내가 입기 위하여 20파운드 스털링으로 다른 의복을 구입한다면 내가 그 의복을 구입하려고 지출한 20파운드 스털링을 창조한 것이 그 의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재봉사를 집으로 불러서 20파운드 스털링짜리 의복을 만들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첫째 경우에는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20 파운드 스털링을 더 받았는데, 둘째 경우에는 거래 후에 전보다 20파운드 스털링이 적어진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소득에서 직접 보수를 지불하는 재봉사는 더구나, 내가 예복을 "중개자"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정도로 값 싸게 예복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가르니에는, 이윤은 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의 "가치"를 지불한다. 또 상품에 자본가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품은 소비자인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고용 노동자를 시켜 이러저러한 물건을 영세한 규모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의 구입에 그의 소득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보다 값싸게 든다. 여기에서 가르니에가 자본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계속한다: "그리고 또 배우, 음악가 등등과 같은 많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대다수의 경우에 그러한 종류의 기업에 투하한 자본에서 이윤을 끌어 내는 지배인을 통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같은 책 pp. 175~176). 이 지적은 옳다. 그러나 그것은 A. 스미스가 자기의 둘째 규

정에서는 비생산적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부가 그의 첫째 규정에 의하면 생산적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극히 다수의 생산적 계급을 가진 사회에는 중개자 또는 기업가의 수중에 막대하게 축적된 자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같은 책, p. 176). 사실 임금 노동이 대량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이 대량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미스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간의 비율이 자본의 양과 소득의 양 간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자의 비율은 인민의 풍습과 관례, 그 인민의 공업 발전 수준 정도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것 같다"(p.177).

만약 자본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생산적이고 소득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비생산적이라면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간의 비율은 명백히 자본과 소득 간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양 계급의 비례적 증가는 자본의 양과 소득의 양 간의 현존 비율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증가하는 소득(이윤)이 어떠한 비율로 자본으로 전화되는가 또는 소득으로서 지출되는가에 의존할 것이다. 부르조아지는 처음에는 아주 검소하였으나 자본의 생산성 즉 노동의 생산성이 제고됨에 *201*
따라 ‖358‖ 봉건 영주들을 본 받기 시작하며 많은 하인들을 부린다. 최근(1861년 또는 1862년)의 공장 보고에 의하면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장에 취업한 총 인원수(행정 인원을 포함하여)는 연합 왕국에서 775,534 명에 불과하였는데*, 하녀수는 잉글란드에서만 하여도 100만 명에 달하였다. 젊은 소녀를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기진맥진 하도록 일을 시킴으로써 그의 부불 노동의 일부로 공장주가 그 소녀의 여동생은 하녀로, 그의 남동생은 급사로 그리고 그의 사촌 남동생은 병사나 경관으로 자기에게 복무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

가르니에의 마지막 부언은 어리석은 동어반복이다.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간의 비율은 자본과 소득 간,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 형태로 지출되는 현존 상품량과 소득 형태로 지출되는 상품량 간의 비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풍습과 관례, 그 인민의 공업 발전 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은 공업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비로소 출현한다.

---

* 『하원의 전의안에 첨부한 보고』 1861년 4월 24일자(1862년 2월 11일 출판)

보나파르트당의 상원 의원으로서 가르니에는 물론, 종과 일반적으로 봉사인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 "인원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어느 한 계급도 소득에서 나오는 금액을 자본으로 전화되는 데 하인만큼 그렇게 기여하지는 못한다"(p.181).

사실상 어느 한 계급으로부터 소부르조아지의 보다 쓸모 없는 부분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가르니에는 "명철하게 볼 줄 아는 인간인" 스미스가, "부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그렇게 망탕 탕진하는 소득의 찌꺼기를 긁어 모으려는 그 중개자"를 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여기에서 중개자는 "소득"의 찌꺼기를 "긁어 모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득은 무엇으로써 이루어지는가? 생산적 노동자들의 부불 노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스미스에 대하여 아주 졸렬한 논쟁을 늘어 놓은 다음에 가르니에는 중농주의로 전락하여 농업 노동을 유일하게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언명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농업 노동은"또 하나 새로운 가치를, 즉 이 노동의 작용이 시작된 순간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등
202 가물로서조차— 가치를 창조하며 바로 이 가치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같은 책 p.184).

그러면 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임금으로서 받는 등가물을 넘는 새로운 가치인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다. 그런데 가르니에가, 자본과 노동과의 교환이란 주어진 노동량와 동등한 주어진 가치의 상품이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량과 교환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며 그리하여 "이 노동의 작용이 시작된 순간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등가물로서 조차—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스미스의 잘못이 아니다.‖Ⅷ-358‖

*　　*　　*

‖Ⅸ-400‖ G. 가르니에 씨는 1796년에 파리에서 『정치 경제학 원리 개요』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농업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적 견해와 함께 또 다른 견해 (이것은 A. 스미스에 대한 그의 논쟁을 아주 잘 설명하여 준다) 즉 소비("비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아주 잘 대표되는)가 생산의 원천이며 생산의 크기는 소비의 크기에 의하여 측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인위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물질적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모로 보나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 절약(검소)을 반대한다. 그의 서문 XIII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개인의 부는 절약에 의하여 증가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부는 소비 증대의 결과로 증가한다." 그리고 국채에 관한 장, p. 240에서 가르니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농업의 개선과 확대, 따라서 또 공업과 상업의 진보는 인위적 욕망의 확대 이외의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로부터 그는 국채는 이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다[65]. ‖IX-400‖

*　　*　　*

‖IX-421‖ 쉬말쯔. 이 독일의 중농주의 아류(亞流)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구별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의 저서 독어 판은 1818년에 나왔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시 *203*
간 절약 이외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이 시간 절약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가격을 형성하는 전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스미스가 하고 있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은 중요하고 아주 정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그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즉 그는 분업에 의하여 초래된 시간 절약이 어떤 물건의 가치와 가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양의 생산물이 창조되므로 나는 동일한 가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용가치를 얻는 것 즉 노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의 메아리로서 그는 물론 노동 시간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나에게 탁자를 만들어 주는 목수와, 나의 편지를 우체통에 가져다 넣으며 나의 옷을 빨아 주며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하여 주는 봉사자는 전자나 후자나 그 본성으로 보아 나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봉사한다. 즉 전자나 후자나 나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일들에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시간과 또 내가 이러한 일들을 위한 숙련과 능력을 얻는 데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쉬말쯔, 『정치 경제학』, 앙리 쥬프루아 역, 1826년, 제1권, p. 304).

엉터리 저술가인 이 쉬말쯔*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예컨대 가르니에

에게 있어서의 소비(및 낭비의 경제적 유용성) 체계가 중농주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체계는" (케네의 체계는) "수공업자들과 심지어는 단순한 소비자들의 소비도 비록 간적접으로이기는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대를 촉진한다는 근거에서 그들의 소비는 그들의 공로라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소비가 없이는 소비된 물건은 토지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며 토지 소유자의 소득에 첨가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책 p. 321) [66] [IX-421]

[8.] 샤를 가닐 [교환과 교환 가치에 대한 중상주의적 견해. 보조를 받는 온갖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

[VIII-358] *Ch.*가닐의 저작 『정치 경제학의 체계』는 극히 졸렬하고 천박한 저작이다. 제1판은 파리에서 1809년에 나왔고 제2판은 1821년에 나왔다. (이 제 2판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의 무의미한 잡담은 직접, 그가 논쟁을 걸고 있는 가르니에에게 잇닿아 있다.

204 〈카나르는 『정치 경제학 원리』에서 "부를 잉여 분의 노동의 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부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 분을 이루는 노동이라고 말하였다면 이 규정은 옳을 것이다.〉

상품이 부르조아적 부의 요소라는 것, 즉 부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기 자체나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명제가 가닐 씨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오늘날의 문명 상태에서는 우리는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노동만을 알고 있다"(같은 책, 제1권, p. 79). "교환이 없이는 노동은 어떠한 부도 생산할 수 없다"(p.81). 이로부터 가닐 씨는 곧 중상주의로 뛰어 넘어가고 있다. 교환이 없는 노동은 부르조아적 부를 창조하지 않으므로 "부는 오로지 상업에서만 발생한다"(p.84) 또는 그가 나중에 말하고 있는 바와

---

*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이 쉬말쯔의 성을 가지고 희롱한 결말로 되어 있는데 번역할 수 없다:Schmalzschmiertopf(Schmalz－비계, Schmiertopf－서투른 그림쟁이, 악필가, 엉터리 문사) －편집자.

같이 "교환 또는 상업만이 물건에 가치를 부여한다"(p.98). 이 "가치와 부의 동일성의 원칙"에 "…일반적 노동의 효과성의 학설이 기초하고 있다" (같은 책, p.93). 가닐 자신이, 그가 중금주의의 단순한 "변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 359 ‖ "중상주의는 노동의 교환 가치가 물질적인, 오래 견디고 변하지 않은 물건에 고정되든 안되든 간에 그 노동의 교환가치에서 사적 부와 일반적 부를 끌어 낸다"(p.95)고 언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도 가르니에가 중농주의의 표상으로 되돌아 가듯이 중상주의의 표상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너절한 잡담은 다른 것에는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중상주의를, 그리고 "잉여가치"에 관한 중상주의적 견해를 특징짓는 데는 쓸모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이 견해들을 스미스, 리카르도 등등을 반대하여 내놓고 있는만큼 그렇다.

부는 교환 가치이다. 그러므로 교환 가치를 생산하거나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는 온갖 노동은 부를 생산한다. 가닐이 다른 중상주의자들보다 좀더 심오히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말은 "일반적 노동[travail genéral]"이라는 술어이다. 개인의 노동 또는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개인의 노동 생산물은 일반적 노동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노동 생산물은 교환 가치로, 화폐로 된다. 사실상 가닐은 부는 화폐라는 견해로 되돌아 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부로 되는 것은 벌써 금 은만이 아니라 상품이 화폐인 한에서 상품 자체이기도 하다. 그는 "중상주의 또는 일반적 노동의 가치의 교환"(p. 98)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 말은 무의미하다. 즉 생산물은 "일반적 노동의 가치"—이것은 가치의 가치를 의미할 것이다—로서의 가치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 노동의 정재(定在)로서의, 이 노동의 체화물로서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 상품이 가치로서 구성되어 있고, 편리하다면 화폐 형태를 취하고 형태 변화를 일으켰다고까지 전제하자. 그러면 상품은 교환 가 205
치이다. 그런데 이 상품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는가? 모든 상품이 교환 가치이다. 이 점에서 모든 상품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어진 상품의 교환 가치를 무엇이 규정하는가? 여기에서 가닐은 가장 조잡한 외적 형상 형태에 머물러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A*라는 상품이 *B*, *C*, *D* 등등 많은 양의 상품과 교환된다면 그것은 큰 교환 가치인 것이다.

가닐은 리카르도와 다수 정치 경제학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체계가 전체 부르조아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교환 가치에 입각하고 있지만 노동

을 고찰하면서 교환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주 정당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생산물의 상품 형태는 자명한 것으로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의 크기만을 고찰한 까닭이다. 교환에서는 개개인의 생산물들은, 그것들의 화폐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비로소 일반적 노동의 생산물로서 실증된다. 그런데 이 상대성은 이미, 생산물들이 일반적 노동의 정재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오직 사회적 노동의 상대적인, 양적으로만 다양한 표현으로서 그것에 귀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교환 자체가 생산물들에 가치의 크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에서 생산물들은 일반적 사회적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생산물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것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노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즉 그것들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 수량에, 따라서 시장, 상업의 규모에, 교환가치로서 표현되는 상품 대열에 달려 있다. 예컨대 상이한 네 생산 부문이 있을 뿐이라면 네 부문의 각각의 생산자들은 자기 생산물의 상당한 부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산할 것이다. 그런데 수천 개의 생산 부문이 있다면 각자는 자기의 전체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할 수 있다. 그의 전체 생산물은 전부 교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가닐은 중상주의자들과 함께 가치의 크기 자체가 교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산물은 교환을 통하여 가치 형태 또는 상품 형태를 취할 따름이다.

"교환은 그것이 없으면 물건들이 가지지 못하였을 가치를 물건들에 부여한다."(p.102) 만약 이것이, 사용 가치인 물건들이 가치로 되며 오직 사회적 노동의 상대적 표현으로서만 이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어반복이다. 만약 이것이 물건들이 교환을 통하여, 교환이 없을 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환은 B 라는 상품의 가치의 크기를 낮춤으로써만 A라는 상품의 가치의
206 크기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이 A라는 상품의 가치를 교환 전의 그 상품의 가치에 비하여 증대시킨다면 그만큼 교환은 B라는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A+B$는 교환 전이나 후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가장 유용한 생산물도 교환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다…"(우선, 만약 이 물건이 "생산물"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노동 생산물이고 공기 등등과 같은 일반적인 자연의 선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가장 유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최상의 의미에서의 사용 가치, 즉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용 가치이다. 교환이 그 물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각자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360‖ 그 물건이 교환을 위하여 생산된다는 전제와 모순된다. 그리하여 전제 전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그리고 가장 무용한 생산물도 교환이 그것에 유리하다면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p.104).

가닐 씨는 "교환"을 어떤 신비스러운 인격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장 무용한 생산물"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면, 즉 그것이 아무런 사용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사겠는가? 따라서 그것은 구매자에 대하여 어쨌든 상상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유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구매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가 댓가를 보다 비싸게 지불하겠는가? 따라서 그것이 비싼 것은 어쨌든 그것의 "무용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사정에 기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의 "희귀성"에 기인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가닐은 그것을 "가장 무용한 생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물이라면 그 "교환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다 대량적으로 생산하지 않는가? 전에는 그 자신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 가치도 상상적인 사용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화폐를 지불한 구매자가 바보였다면 이제는 적은 교환 가치를 가진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 가치가 큰 그러한 무용한 물건을 생산하지 않은 판매자가 바보이다. 그리하여 그것의 사용 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사용 가치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교환 가치가 크다면 그것은 교환 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사정에 기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의 높은 교환 가치는 교환의 산물이 아니라 다만 교환에서 나타날 따름이다.

"진정한 가치 즉 부와 동일한 가치를 이루는 것은 물건들이 이미 그것에 따라 교환된 가치[valeur échangée]이고 물건들이 앞으로 그것에 따라 교환될 수 있는 가치[valeur échangeable]가 아니다" (같은 책, p. 104). 그러나 교환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물건이 교환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에 대한 그 물건의 비율이다. 〈여기에서 그 기초에 놓여 있는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7 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가치로서, 즉 교환 가치로서 교환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상품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교환이 존재하는 결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A*의 교환가치는 *B*, *C*, *D* 등등의 일정한 양의 생산물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가닐 씨에 의하면) 가치가 아니라 "교환이 없는 물건"인 것이다. *B*, *C*, *D* 등등은 그것들이 *A*와 교환되기 전에는 "가치"가 아니었다. *A*가 가치로 된 것은 그것의 위치(교환된 가치로서의)를 이 가치 아닌 것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물건"은 단순한 위치 변환의 결과 갑자기 가치로 되었는데 그 후에 그것은 교환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물건을 부로 만드는 것은 물건이 현실적 유용성도 아니고 그것의 내적 가치도 아니다. 즉 그것의 가치를 확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교환이고, 이 가치가 바로 그것을 부와 동일물로 만든다"(같은 책, p.105).

교환 씨는 이미 존재하였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확정하고 규정한다. 교환이 물건의 가치를 처음으로 창조한다면 이 가치, 즉 교환의 이 산물은 교환 자체가 정지하자마자 소멸한다. 따라서 교환은 그것이 창조하는 것을 바로 같은 정도로 폐기한다. 내가 *A*를 *B*+*C*+*D*와 교환한다고 하자. 이 교환 행위에서 *A*는 가치를 얻는다. 이 행위가 종결되자마자 *B*+*C*+*D*는 *A*편에 서며 *A*는 *B*+*C*+*D* 편에 선다. 그리고 양편 것들은 각각 그 자체로서 이 위치 변환에 불과한 교환 씨의 밖에 선다. *B*+*C*+*D*는 이제는 가치가 아니라 "물건"인 것이다. *A*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는 교환은 본래의 의미에서, 즉 측력기가 나의 근육의 힘을 규정하고 확정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확정하고 규정한다". 그 경우에 가치가 교환에 의하여 창조되지는 않는다.

"개인들에게 있어서 또 민족들에게 있어서 부는 사실상, 각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노동하며"(즉 이것은 각자의 노동이 일반적 사회적 노동 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달리 해석한다면 이 문구는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라는 이 형태를 도외시한다면 제철업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철 소비자를 위하여 노동한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를 위하여 노동하는"(사용가치가 문제이라면 이 문구도 역시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산물은 다만 특수한 생산물일 따름이며 각자에게는 일정한 특수한 생산물이 필요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역시 다만, 각각의 특수한 생산물은 그것이 각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특수한 생산물로서 "각자의" 생산물과 구별되는 한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각자의 생산물과 동일한 한에서이라는 것 뿐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상품 생산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노동 형태가 문제이다) "경우에만 존재한다"(같은 책, P. 108).

‖ 361 ‖교환 가치는 고립된 개인의 노동이 일반적 사회적 노동으로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이 규정으로부터 가닐은 다시금 교환 가치는 *B*, *C*, *D* 등등이라는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이라는 극히 조잡한 표상으로 떨어진다. *A* 대신에 많은 *B*, *C*, *D*를 얻는다면 상품 *A*의 교환 가치는 큰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B*, *C*, *D* 대신에 *A*가 적게 제공되는 것이다. 부는 교환 가치로써 이루어진다. 교환 가치는 생산물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다. 따라서 모든 생산물들의 총계는 그것이 아무 것과도 교환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교환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 교환 가치로써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무런 부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또 가닐 자신이 결론짓고 있는 바와 같이—"노동의 교환 가치로써 이루어지는 국부"(p. 108)는 자체의 교환 가치에 있어서 증가될 수도 없고 감소될 수도 없다는(따라서 아무런 잉여 가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는 결코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또 그것은 부가 오직 교환 가치로써만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결코 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208*

"만약 곡물이 풍부하여진 결과로 그것의 가치가 감소된다면 농업가들의 부는 감소된다. 왜냐하면 농업가들은 이제는 생활상 필요한, 즉 유용하거나 쾌락을 주는 물건들을 얻기 위한 교환 가치를 적게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곡물 소비자들은 농업가들이 손해를 보는 바로 그만큼 이득을 볼 것이다. 즉 한편의 손실은 다른 한편의 이득으로 상쇄될 것이며 따라서 전반적 부는 아무런 변동도 없을 것이다."(pp. 108~109).

제발 그만 두자! 곡물 소비자들은 곡물을 소비하는 것이고 곡물의 교환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다 부유하게 된 것은 식료품에 있어서이고 교환 가치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교환되는 곡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높은 교환 가치를 가지는 소량의 자기들의 생산물을 곡물과 교환하였다. 농업가들은 이제는 높은 교환 가치를 얻었고 소비자들은 보다 적은 교환 가치를 가진 많은 곡물을 얻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소비자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농업가들은 부자이다.

그리고 또 총계(교환 가치의 사회적 총계)는 그것이 교환가치의 총계로 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교환 가치라는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A, B, C, D, E, F*는 그것들이 서로 교환되는 한에서는 교환가치이다. 그것들은 일단 교환되면 모두 그것들의 소비자인 구매자를 위한 생산물로 된다. 한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 감으로써 그것들은 교환가치가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환 가치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의 부는 소멸하였다. 상품 *A*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즉 그것은 *B,C* 등등에 대한 그것의 교환 비율이다. *A*+*B*는 보다 적은 교환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교환 가치는 이미*C, D, E, F* 에 대한 그것들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A, B, C, D, E, F*의 총계는 그것이 아무런 비율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교환 가치도
209 가지지 않는다. 상품들의 총계는 다른 상품과 교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환가치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의 부는 아무런 교환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국내 상업에 의하여 부유하게 되기는 곤란하며 아마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대외 무역을 하는 민족들은 사정이 좀 다르다"(같은책, p.109). 이것은 낡은 중상주의이다. 가치는 내가 다만 등가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등가보다도 많은 것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등가도 없다. 왜냐하면 등가란 것은 상품 *A*의 가치와 상품 *B*의 가치가 *B*에 대한 *A*의 비율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와 동일한 어떤 제3의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등가가 없다면 등가를 넘는 잉여분도 없다. 나는 금에 대하여 철을 받는 것보다도 철에 대하여 적은 금을 받는다. 이제는 나에게 많은 철이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나는 보다 적은 금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소량의 금이 보다 다량의 철과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득을 보았다면 이제는 나는 그만큼 손실을 본다. 왜냐하면 보다 다량의 철이 보다 소량의 금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온갖 노동은 그 본성이 여하튼 간에 그것이 교환 가치를 가지기만 한다면 생산적 노동, 즉 부를 생산하는 노동이다"(같은 책 p.119). "교환은 생산물의 양, 소재, 내구성(耐久性)을 고려하지 않는다"(같은 책, p. 121) "모든 것은"(모든 종류의 노동은) "그것과 교환되는 그 만한 액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이 생산적 이다."(pp. 121~122) 우선 그것은 상술한

액, 즉 그것의 댓가로 지불한 가격(그것의 임금의 가치)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똑 같이 생산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가닐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비물질적인 노동은 그것과 교환되는 물질적인 생산물을 생산하며 그리하여 물질적인 노동이 비물질적인 노동의 생산물을 생산한 것같이 보인다고 그는 언명한다.

‖ 362 ‖ "장농을 하나 제작하여 그것과 교환하여 1 세펠의 곡물을 받는 노동자의 노동과 자기 노동에 대하여 1 세펠의 곡물을 받는 방랑 음악가의 노동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한쪽의 경우에는 장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생산된 1 세펠의 곡물이 있고 다른 한쪽의 경우에는 방랑 음악가가 제공한 즐거움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생산된 1 세펠의 곡물이 있다. 물론 목수가 1세펠의 곡물을 소비한 다음에도 장농은 남는데 음악가가 1세펠의 곡물을 소비한 다음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노동이 동일한 처지에 있는가!… 어떤 노동이 생산적인가 또는 비생산적인가 하는 것은 소비한 다음에 무엇이 남는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또는 이 노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생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가의 노동은 가구사의 노동과 같은 정도로 1세펠의 곡물의 생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들 양자의 노동 생산성은 똑 같이 1세펠의 곡물로써 측정된다.— 비록 그들 중 한 사람의 노동은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어떤 오래 견디는 물건에 고정되고 체화되지 않는데 다른 한 사람의 노동은 그러한 물건에 고정되고 체화된다 하더라도"(같은 책 pp. 122~123).

"A. 스미스는 유용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10*
아무런 유용 노동도 수행하지 않는 노동자 수를 감소시킬 것을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견해의 지지자들은 이 소원이 실현될 수 있다면 생산자에게는 소비자들이 부족될 것이며 소비되지 않은 잉여분은 새로 재생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였다. 생산적인 계급들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들을 물질적 생산물을 창조하지 않는 노동을 수행하는 계급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여기에서 그 자신도 역시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종류의 노동과 그렇지 않은 종류의 노동과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후자들에게서 받는 편의, 즐거움, 향락과의 교환으로 후자들에게 양도하는데, 후자들에게 자기들의 생산물을 양도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전자들은 그것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물질적 노동 생산물

이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종류의 노동에 대한 지불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비자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의 재생산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생산하여 주는 종류의 노동도 가장 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노동과 똑 같이 효과적으로 생산에 참가한다" (같은 책, PP. 123~124).

"그들"(인민들)이 요구하는 편의, 즐거움 또는 향락은 거의 언제나 "그들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물들에 뒤따르지 그것들에 선행하지는 않는다"(같은 책, p.125). (따라서 그것들은 "그들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물들의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결과이다) "편의, 사치 또는 호사에 봉사하는 종류의 노동이 생산적 계급들에게" (따라서 여기에서 가닐 자신이 이 구별을 하고 있다)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나, 그러나 이 계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류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한 액만큼 자기들의 수요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부득이한 지불이 생산물 양을 조금도 증대시키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p. 125)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갖 노동은 반드시 생산적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전반적 부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대가로 지불되는 생산물들의 생산을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이다"(같은책 p. 126). 〈그리하여 이에 의하면 "비생산적 노동"이 생산적인 것은 그것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도 아니며 즉 그의 교환 가치때문에도 아니며, 그것이 일정한 즐거움을 생산하기 때문도 아니며 즉 그 사용 가치 때문에도 아니고 그것이 생산적 노동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A. 스미스의 말 대로 직접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 생산적이라면 이에 있어서는 노동과 교환되는 자본의 형태 외에 또한 그 자본의 소재적 구성 부분들도 의의를 가진다. 이 자본은 필요 생활 수단에, 따라서 그 대부분이 상품, 물질적인 물건들에 귀착된다. 노동자가 이 임금 중에서 국가와 교회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에게 강요된 봉사에 대한 공제를 이룬다. 그가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아주 적다. 그가 이러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은 생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노동력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사, 변호사, 승려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지출한다면 이것은 그의 불행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지출되는 다른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들이나 봉사들이 또 있는데 그것들은 극히 적다. 왜냐하면 특히 소비와 관련된 일들(요리, 주택 청소, 대다수의 경

우에는 각종 보수까지도)은 노동자 자신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가닐의 다음 문구는 극히 특징적이다: "교환이 봉사인의 노동에 대하 211
여는 1,000프랑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농민 또는 공업 노동자의 노동에 대하여는 불과 500프랑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로부터 종업원의 노동은 농민 또는 공업 노동자의 노동보다 2배나 더 부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결론 지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의 노동이 농민 또는 공업 노동자의 노동보다 2배나 더 많은 물질적 생산물을 지불 받는 한에서는 그와 달리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환 가치가 가장 적고 따라서 가장 낮은 지불을 받는 노동에서 부가 생긴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같은 책, pp. 293~294).

‖363‖공업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500 프랑이고 그가 창조하는 잉여 가치(이윤과 지대)가 40%를 이룬다면 그러한 노동자의 "순 생산물"은 200 프랑과 동등할 것이며 1,000 프랑이 되는 봉사인의 임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노동자 5명의 노동이 필요할 것이다. 교환씨가 봉사인 대신에 1년에 1만 프랑으로 첩을 사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를 위하여서는 그러한 생산적 노동자 50명의 "순 생산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첩의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적 노동자의 임금의 20 배나 많은 교환 가치, 보수를 그 첩에게 가져 오므로 가닐의 견해에 의하면 이 인간은 20배나 더 "부의 생산"을 촉진하며 나라는 그의 봉사인들과 첩들에게 많이 지불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가닐씨는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의 생산성만이, 일반적으로 생산적 노동자들이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잉여 부분만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대한 지불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가닐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즉 1,000프랑의 임금과, 봉사인 또는 첩의 노동의 형태로서의 이 임금의 등가는 도합 2,000프랑을 이룬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봉사인과 첩의 가치 즉 그들을 생산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생산적 노동자들의 "순생산물"에 의존한다. 특수한 부류의 인간으로서의 봉사인과 첩의 생존 자체가 그 순 생산물에 의존한다. 그들의 가격과 그들의 가치 간에는 공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봉사인의 가치(생산비)가 생산적 노동자의 가치 즉 생산비의 2배나 된다고까지 하자. 그 경우에 노동자의 생산성(기계의 생산성과 마찬가지로)과 그의 가치는 서로 반비례까지 하는 전혀 상이한 물건들이다. 기계의 비용인 가치는 언제나 기계의 생산성에 대하여 마이너스이다.

"여기에서, 봉사인의 노동도 농민과 공업 노동자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면 나라의 전반적인 저축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부단히 증대시키면서 그 저축을 봉사인을 유지하는 데 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그것은 쓸데 없는 일이다. 이 반박이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오직 그것이, 온
212 갖 노동의 효과성은 노동이 물질적 대상의 생산에 협력한 결과이며 물질적 생산이 부를 창조하고 또 생산과 부는 전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생산물의 생산이든 그것은 그 생산물이 소비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부로 된다는 것이며* "또 교환은 생산이 어느 정도로 부의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나 모든 종류의 노동은 직접 간접으로 전체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 교환의 각각의 종류의 노동의 가치를 확정함으로써 그 노동이 생산에 참가한 몫을 규정한다는 것, 생산물의 소비는 교환이 그 생산물에 부여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 소비에 비한 생산의 과부족은 민족들의 빈부의 정도를 규정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때에는 각각의 종류의 노동을 따로따로 취하고 그것이 물질적 생산에 참가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이 생산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며 ‖ 364 ‖ 이 노동의 소비—이것만이 그 노동의 가치를 즉, 그것이 없이는 부가 존재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한다—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같은책, pp.294~295).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부는 소비를 초과하는 생산의 잉여분에 의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만이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이 견해에 의하면 1,000 프랑을 소비하는 봉사인은 500 프랑을 소비하는 농민보다 2배나 더 가치 창조에 기여한다.

---

*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는 한 페이지 다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온갖 노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 자체의 교환 가치에 비례하여 부를 생산한다" (노동은 그것이 얼마만한 교환 가치를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그 자체의 교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비례하여, 즉 그것이 얼마나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드는가에 비례하여 부를 생산한다는 것으로 된다). "그 노동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물 총액 중에서 차지할 권리를 주는 생산물의 소비를 절약하고 절제함으로써만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가닐은 한편으로는 이 비생산적 종류의 노동이 물질적 부의 형성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스미스도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닐은 그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물질적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A. 스미스를 반대하여 나선 이 모든 논쟁자들에게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물질적 생산에 대한 거만한 태도를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물질적 생산— 또는 예컨대 봉사인의 노동과 같이 전혀 생산이 아닌 것 까지도 — 을 물질적 생산으로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본다. "순소득"의 소유자가 이 소득을 봉사인에 소비하느냐, 첩 또는 고기 만두에 소비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잉여 분은 반드시 봉사인들에 의하여 소비되어야 하며, 생산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없이 생산적 노동자들 자신에 의하여 소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소롭다. 맬더스도 역시 비생산적 소비자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있는데, 잉여 분이 "무위도식자들"의 수중에 있으면 이 필요성이 실제로 있게 된다.‖ 364 ‖

[9. 가닐과 리카르도의 "순 소득"론. 생산적 인구의 감소의 지지자로서의 가닐: 자본의 축적및 생산력의 성장의 지지자로서의 리카르도] 213

‖ 364 ‖ 가닐은 자기의 『정치 경제학 이론』(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책)에서 자기가 제기한 이론을 자기의 뒤를 이어 리카르도가 다시 내놓았다고 주장한다.[69] 그 이론이라는 것은 부는 총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고 순 생산물에, 즉 이윤과 지대의 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이것은 확실히 가닐의 발견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표명하는 방식은 사실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특이하다).

잉여 가치는 잉여 생산물로, 즉 생산물 중 그것의 시초의 요소들을 보상할 따름이며 따라서 그것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그 양을 넘는 잉여 분으로 표시된다(자체의 현실적 존재를 가진다).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합계한다면 이 생산물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산에 선대된 자본과 동등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잉여 가치이고 생산물이 아니다. 노동자의

필요 노동 시간—이와 함께 그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하여 지불되는 생산물로서의 등가—은 그것이 잉여 노동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비생산적이다.

잉여 가치는 잉여 가치율 m/v에, 동시적인 노동일 수 또는 취업 노동자 수 n을 곱한 것과 동등하다. 따라서$M=m/v\times n$이다. 따라서 이 잉여 가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예컨대 : $\frac{m/v}{2}\times n$ 은 $\frac{2m}{v}\times n$ 즉 $2M$과 동등하다. 이 경우에는 M은 ‖ 365 ! 잉여 가치율이 2배로 증대되었으니, 왜냐하면 $\frac{m/v}{2}\times n$은 $\frac{2m}{v}$ 이고 이것은 m/v의 2 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frac{m}{v}\times 2n$도 역시 $\frac{2mn}{v}$ 과 동등할 것이며 따라서 2M과 동등할 것이다. 가변 자본 V는 개별적 노동일의 가격에 취업 노동자 수를 곱한 것과 동등하다. 80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고 한 명당 1 파운드 스털링이 든다면 V=800 파운드 스털링 즉 1파운드 스털링×800인데, 여기에서 n=800이다. 잉여 가치가 160이라면

$$\text{잉여 가치율}=\frac{160}{\text{1파운드 스털링}\times 800}=\frac{160}{800}=\frac{16}{80}=\frac{1}{5}=20\,\%\text{이다.}$$

그러나 잉여 가치 자체는 $\frac{160}{\text{1파운드 스털링}\times 800}\times 800$, 즉

$\frac{M\text{파운드스털링}}{\text{1파운드 스털링}\times n}\times n$이다.

214 이 잉여 가치는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생산성의 증대에 의하여서만, 생산성이 일정한 경우에는 노동 시간의 연장에 의하여서만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2M=\frac{m}{v/2}\times n$과 $2M=\frac{m}{v}\times 2n$은 중요한 뜻이 있다. 노동자 수가 절반 감소되어도$-2n$이 n으로 되어도—그들의 매일의 잉여 노동이 전보다 2배로 많아진다면 잉여 가치(그것의 총액)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두가지 것, 즉 첫째로는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과 둘째로는 잉여생산물 즉 "순생산물"의 총량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변할 것이다. 첫째로 가변 자본액, 즉 임금에 지출되는 유동 자본 부분은 절반 감소될 것이다. 원료로써 이루어지는 불변 자본 부분은 여전히 변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반 감소된 노동자 수에 의하여서이지만 종전과 동일한 양의 원료가

가공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정 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은 증대될 것이다.

임금에 지출된 자본이 300 파운드 스털링(노동자 1명 당 1파운드 스털링)이었다면 이제는 150파운드 스털링으로 될 것이다. 원료에 지출된 자본은 310파운드 스털링이었다면 지금도 310 파운드 스털링일 것이다. 기계의 가치가 나머지 자본 부분의 4배 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는 1,600 파운드 스털링[69] 이다. 따라서 기계가 10년 간에 마멸된다면 매년 생산물로 들어 가는 기계 가치는 160 파운드 스털링이다. 이전에는 생산 도구에 매년 지출된 자본이 40 파운드 스털링 즉 현재의 1/4에 불과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온다.

	이전의 자본	새로운 자본
기 계	40	160
원 료	310	310
임 금	300	150
총 액	650	620
잉여가치	150, 즉 50%	150, 즉 100%
이 윤 율	$23^{1}/_{31}$%	$24^{6}/_{31}$%
총생산물	800	770

이 경우에 이윤률이 증대된 것은 총 자본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임금에 지출된 자본은 150 감소되었지만 고정 자본의 가치액은 120 밖에 증대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합 이전보다 30 파운드 스털링 적게 지출된 것이다.

만약 남은 30 파운드 스털링을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즉 이 전액의 31/62(즉 1/2)은 원료에, 16/62은기계에, 그리고 15/62는 임금에 각 *215* 각 지출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기계……7 파운드 스털링 14실링 6페니
원료……15 파운드 스털링
임금…… 7 파운드 스털링 5실링 6페니
잉여가치… 7 파운드 스털링 5실링 6페니

따라서 총계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자본:
기계……167 파운드 스털링 14실링 6페니
원료……325 파운드 스털링
임금……157 파운드 스털링 5실링 6페니
잉여가치…157 파운드 스털링 5실링 6페니
이윤율……$24^{3}/_{31}$%

지출된 자본의 총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50 파운드 스털링이다. 총생산물은 807 파운드 스털링 5실링 6페니 이다.

생산물의 총 가치는 증대되었으며 지출된 자본의 총가치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에 있어서 총 생산물은 그 가치 뿐만 아니라 양도 증대되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15파운드 스털링만큼 더 많은 원료가 생산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 366 ‖ 가넬은 다음과 쓰고 있다.:

"한 나라가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의 노동이 모두 인력으로만 진행된다면 근로계급들은 자기생산물의 거의 전량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분업, 노동자들의 기능 향상 및 기계의 발명에 의하여 산업이 완성됨에 따라서 생산비는 감소한다. 즉 다시 말한다면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써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같은 책, [『정치 경제학의 체계』, 제2판, 1812년], 제 1권, pp. 211~212).

그리하여 이것은 산업이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됨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생산비는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에 비하여 노동자 수가 감소되며 따라서 그들은 이 생산물의 보다 적은 부분을 소비하게 된다.

가령 어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기계 없이 작업하면 10시간이 걸리고,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면 단지 6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는 첫째 경우에는(12시간 노동인 경우)자신을 위하여 10시간을 일하고 자본가를 위하여 2시간을 일하며 12시간 노동의 총 생산물 중에서 자본가는 1/6을 얻는다. 첫째 경우에 10명의 노동자는 (10명의 노동자를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100시간을 일하며 자본가를 위해서는 20 시간을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120 단위의

가치 중에서 자본가는 1/6 즉 20을 얻는다. 둘째 경우에는 5명의 노동자는 (5명의 노동자를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30 시간을 일하고 자본가를 위하여 30시간을 일할 것이다. 이제는 60시간 중에서 *216* 자본가는 30 즉 1/2, 이전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잉여 가치의 양도 증대될 것이다. 즉 20으로부터 30으로 즉 1/3 증대될 것이다. 나는 60일 중에서 1/2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내가 120일 중에서 1/6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잉여 가치를 1/3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또 자본가가 얻는, 총 생산물의 절반은 양적으로도 이전보다 증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6시간은 이제는 이전의 10시간과 동일한 생산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시간은 이전의 10/6, 즉 $1^4/_6=1\frac{2}{3}$의 생산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30 잉여 시간은 이제는, 이전에 30(1+2/3)=30+60/3=50 시간이 표현되었던 것과 동일한 양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6시간은 이전의 10시간 만큼의 생산물을 제공하며 따라서 30(즉 5×6)은 이전의 5×10 만한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잉여 가치는 증대할 것이며 그의 잉여 생산물도 증대할 것이다(만약 그 자신이 이 생산물을 현물로 소비한다면 또는 그가 그것을 현물로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잉여 가치는 심지어 총 생산물의 양의 증가 없이도 증대할 수 있다. 사실상 잉여 가치의 증대는 노동자가 자기의 생활 수단을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가 소비하는 상품의 가치가 감소되며 이전보다 더 적은 노동 시간을 표시한다는 것, 따라서 일정한 가치, 예컨대 6시간과 동등한 가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사용 가치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이전과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받으나 이 양은 총 생산물의 보다 적은 부분을 이루며 이 양의 가치는 노동일의 생산물의 보다 적은 부분을 표현한다.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노동자들의 소비품의 생산에 들어 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부문들에서는 이 부문들에서의 생산성의 증감 여하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간의 비율을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의 어떠한 증대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생산 부문들에서도 비록 그 부문들 자체의 생산성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 부문들의 생산물의 상대적 가치는(그 부문들 자체의 생산성은 여전히 불변이었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상품들의 상대적 가

치가 저하된 것과 동일한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비교적 보다 적은 부분 즉 그 속에 물질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지출한 노동 시간의 보다 적은 부분은 그에게 이전과 동일한 양의 생활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잉여 가치는 이 부문들에서도 다른 부문들과 꼭 같이 제고될 것이다.

217 그러면 해고된 5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자본도 역시 유리되었다고, 하루에 12 시간씩 일하고 각각 10시간 분의 보수를 받던 해고된 5명의 노동자에게 지불되고 있었던 자본 즉 50시간 분의 자본이 유리되었다고, 이것은 이전에는 5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지만 임금이 6시간 분으로 저하된 지금에 와서는 50/6, 즉 $8\,^{1}/_{3}$ 노동일의 보수를 지불할 수 있게 한다고. 그리하여 50 노동시간 분의 유리된 자본으로써 이제는 해고된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50 노동 시간 분 전부의 자본이 유리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노동 시간 내에 재료가 더 많이 가공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재료의 값이 저렴하게 되었다고, 즉 이생산 부문에서도 생산력이 그만큼 증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로운 기계들에 대한 지출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 기계들이 정확히 50 노동 시간의 값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의 생산은 해고된 수 만큼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결코 줄 수 없다. 이 50노동 시간은 전적으로 임금에 즉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지출되었었다. 그러나 50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기계의 가치 속에는 이윤과 임금, 지불 노동시간과 부불 노동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기계의 가치 속에는 불변 자본이 들어 있다. 더구나 기계 제작 노동자들 중 새로운 기계의 제작에 종사하며 해고된 노동자 수보다 적은 노동자들은 해고된 바로 그 노동자들 ‖ 367 ‖이 아니다. 기계 제작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기껏해야 노동자 대중의 장래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노동에 인입되는 세대 중 보다 많은 부분 즉 종전보다 많은 부분이 이 부문으로 돌게 된다. 이것은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기계 제작 노동자들에 대한 연간 수요의 증대는 기계에 지출된 새로운 자본과 결코 동등하지 않다. 기계는 예컨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계에 의하여 조성된 항시적인 수요도 매년 기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1/10과 동등한 것이다. 이 1/10에다가 이전 10년 간의 보수 노동과 그리고 석

탄, 기름, 일반적으로 보조 재료의 일상적 소비를 더 첨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도합하여 아마도 2/10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 유리된 자본이 60 시간과 동등하다면 이 시간은 이제는 10 시간의 잉여 노동과 불과 50 시간의 필요 노동을 표시할 것이다. 따라서 이 60시간이 이전에는 임금에 지출되어 그것으로 6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다면 이제는 불과 5명 밖에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개별적 생산 부문에서 기계 등등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제고된 결과 초래되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앞으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증가 분 즉 가두로 내쫓긴 사람들 자신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자식들로써 구성된 신입 노동자 대중이 다르게 분배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쫓긴 사람들 자신은 그들의 필요 노동 시간이 사회적 218
필요 노동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조건 하에서 계속 고용되는 자기의 낡은 직업에서 오래 동안 시달리게 되며 그들은 극빈자로 되거나 보다 낮은 질의 노동이 적용되는 부문들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극빈자는 자본가(금리 생활자)와 꼭 마찬가지로 나라의 소득으로 살아 가며 생산물의 생산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닐 씨는 감옥에서 먹여 살리는 죄수들과 꼭 마찬가지로 극빈자를 교환 가치의 대표자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생산적 노동자"의 현저한 부분—공짜로 국록을 먹는 자들 등등—은 신분이 높은 극빈자에 지나지 않는다.〉

〈종전에는 물질적 생산에 주민의 2/3가 직접 참가하였었는데 이제는 불과 1/3이 참가할 만큼 공업의 생산성이 제고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전에는 인구의 2/3가 인구의 3/3에게 생존수단을 공급하였었는데 이제는 1/3이 3/3에게 공급한다. 이전에는 "순 소득"(노동자가 소득과는 다른)이 1/3을 차지하였는데 이제는 2/3를 차지한다. 이제는 한 민족이—[계급적] 대립을 도외시 한다면—종전의 2/3 대신에 자기 시간의 1/3을 직접적 생산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조건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생산적 노동과 여가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2/3-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는 모든 것이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또 사실상 그러한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인구가 정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3/3이 성장한다면 1/3도 성장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효는

양적으로 부단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그 수가 어쨌든 종전보다 50% 적을 것이다. 이 2/3는 이제는 일부는 이윤과 지대의 점유자들로써 구성되며 일부는 이들에게 소득을 먹어 치우도록 도움을 주며 그 대신 봉사 형태로 그들에게 등가물을 주거나, 예컨대 정치적인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문제라면 강요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이들의 보수도 경쟁 때문에 나쁘다)로써 구성된다. 하인, 병사, 해병, 경찰관, 하급 관리 등등, 첩, 말몰이꾼, 광대 및 요술쟁이를 제외하고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전보다 높은 교양 수준에 있을 것이며, 특히 보수가 나쁜 미술가, 음악가, 변호사, 의사, 학자, 교원, 발명가 등등의 수효가 증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계급 자체 내에서는 상업적 중개업자들의 수효, 특히는 기계
219 제작, 철도 부설,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효가 늘어 날 것이며 다음에는 농촌 경영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화학 비료, 광물질 비료 채취 등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효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공업용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의 수효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농민의 수효에 비하여 늘어 날 것이며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불변 자본이 증대하면 총 노동 중 그 재생산에 종사하는 상대적 양도 증대된다. 그렇지만 노동자들 중 직접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부분은 이제는 ‖368‖ 그 노동자들의 수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들의 노동은 보다 생산적으로 된 것이다.개별적 자본에서 그 불변 부분에 비한 가변 부분의 감소가 직접 임금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의 감소로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자본 양에 있어서도—그 재생산의 경우에—가변 자본의 몫의 감소는 적용되는 노동자 대중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산물 자체의 재생산에서가 아니라 생산 수단의 재생산에 종사한다는 데, 즉 기계 설비(여기에 교통 및 운수수단, 그리고 또 건축물을 포함하여), 보조 재료(석탄, 가스, 유지류, 피대 등등)와 공업 제품용 원료로 되는 식물의 재생산에 종사하는 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농업 노동자의 수효는 공업 노동자의 수효에 비하여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치품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효는 증가할 것인데, 왜냐 하면 증가된 소득이 이제는 더 많은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가변 자본은 소득으로, 즉 첫째로는 임금으로, 둘째로는 이윤으로 전

화한다. 그러므로 자본을 소득과의 대립에서 본다면 불변 자본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본으로 나타나며 총 생산물 중 누구에 의해서도 개인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서 (역축은 예외이다) 생산에 속하며 그리고 생산비에 들어 가는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적으로 이윤과 임금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에 가서는 이 부분은 결코 이 원천 하나에서만 발생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노동의 산물이지만 야만인이 활을 소득으로 간주하였듯이 생산 도구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노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생산물 부분은 그것이 일단 불변 자본으로 전화되면 그 재생산이 임금과 이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벌써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되지는 않게 된다. 이 부분에는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이 속한다. 그 후에 나오는 온갖 생산물은 이 과거 노동과 현재 노 220
동의 생산물이다. 현재 노동은 그것이 총 생산물의 일부를 생산에 되돌려 주는 한에서만 계속 될 수 있다. 그것은 불변 자본을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노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면 해당 생산물은 보상하나 그 결과에 감소되는 생산물 가치는 보상하지 못한다. 노동이 보다 덜 생산적으로 된다면 생산물 가치는 높아진다. 첫째 경우에는 총 생산물 중 과거 노동이 자체의 보상에 요구하는 비율적 부분이 감소되며, 둘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증대된다. 첫째 경우에는 산 노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며 둘째 경우에는 덜 생산적으로 된다.〉

〈불변 자본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정 중에는 원료의 개량도 또한 포함된다. 예컨대 낙면의 상대량 등등은 도의시하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좋은 면화에서도 나쁜 면화에서도 똑 같은 수량의 실을 뽑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종자 등등의 품질도 이와 똑 같은 의의를 가진다〉.

〈공장주 자신이 자기의 종전의 불변 자본의 일부를 생산하거나 또는 종전에는 불변 자본으로서 그의 생산 분야에서 다른 생산분야로 넘어간 반제품에 그 자신이 그 다음 형태를 부여하는 결합의 실례들(상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이윤의 집적에 귀착될 따름이다). 첫째 실례는 방적과 방직의 연합이다. 둘째 실례는 버밍검 지방의 광산 소유주들인데, 이들은 종전에는 여러 기업주들과 소유주들 간에 분할되어 있던 철의 전체 생산 과정을 도맡았다.〉

---

* 원문 in natura—역자.

** 이 책 p.152를 보라—편집자.

*　　*　　*

가닐은 계속한다:

"분업이 모든 부문에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근로자 계급들이 완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전에는 일부 공업 부문들에서의 기계의 발명과 적용은, 기계로 인하여 유리된 자본과 노동자들을 그들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노동 부문들로 흘러 들어 가게 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주 명백한 것은 모든 노동 부문이 필요한 자본과 필요한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가일층의 온갖 개량, 노동을 경감시키는 온갖 새로운 기계들은 불가피하게 근로 인민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며, 근로 인민의 축소는 결코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 사회의 처리하에 남게 되는 생산물 부분은 자본 이윤을 증대시키거나 지대를 증대시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도입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결과로서, 고용된 사람들 중 총 생산물로 생활하는 그런 계급의 수효를 감소시키며 순 생산물로 생활하는 그런 계급의 수효를 증대시킨다" (같은 책 p. 212).

221 II 369 I "공업의 진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나라의 주민 구성의 변동은 현대 민족들의 번영과 위력과 문명의 진정한 원인이다. 사회의 하층 계급들이 수적으로 적어지면 질수록 그 만큼 사회는 이 불행한 계급들의 빈궁, 무지, 몽매 및 미신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부딪히게 되는 위험성 때문에 불안에 싸이는 일이 없게 되며 상층 계급들이 수적으로 늘면 늘수록 국가가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백성의 수효는 더욱 많아지며 국가는 더욱 강력하고 강력하게 되고 교육과 이성과 문명은 전체 주민들 속에 더욱 널리 보급된다"(같은 책, p.213).

〈세이는 생산물의 총 가치를 다음과 같이 소득에 귀착시키고 있다. 리카르도의 『원리』(콘스탄시오의 불어 번역) 제 26장에 대한 주에서 세이는 이렇게 말한다:"개인의 순소득은 그가 참가하고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에서… 그의 비용을 감한 것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그의 전체 비용은 소득 중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한 부분들이므로 생산물의 가치 총액은 소득들을 지불하는 데 들어 간다. 한 국민의 총 소득은 그의 총 생산물로써 즉 생산자들 간에 분배되는, 그 국민의 전체 생산물의 총 가치로써 구성된다"[70], 이 마지막 명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더라면 정확하였을 것이다. 즉 한 국민의 총 소득은 그의 총 생산물 중에서 소득으로써 생

산자들 간에 분배되는 부분의 총 가치로써 구성된다고, 다시 말하면 총 소득은 전체 생산물 중에서 각 생산 부문에서 생산 수단을 자체로 보상한 부분을 제외한 총 생산물과 동등하다고. 그러나 그와 같이 정식화됨으로써 이 명제는 그 자체를 폐기한다.

세이는 계속하여 말한다: "이 가치는 일련의 교환 행위 후에, 그것이 발생한 지 1년 동안에 전부 소비되면서도 여전히 국민 소득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도 2만 프랑의 연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1년 동안에 그 소득을 몽땅 먹어 치우더라도 여전히 2만 프랑의 연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소득은 그의 저축 하나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저축은 언제나 그의 소득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그의 소득은 결코 그의 저축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1년 동안에 자기 자본도, 자기 소득도 먹어 치울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세이는 국민을 개인에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은 자기 자본에는 손을 대지 않고 1년 동안에 자기 소득만을 소비한다. 이 개인이 1년 동안에 20만 프랑의 자기 자본도 2만 프랑의 자기 소득도 먹어 치운다면 이듬해에 그가 소비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총 자본, 따라서 국민의 생산물의 전체 총 가치도 소득들로 분해된다면 세이의 이 말은 옳을 것이다. 개인은 2만 프랑의 자기 소득을 먹어 치운다. 그가 먹어 치우지 않는 20만 프랑의 자기 자본은 다른 개인들의 소득들로써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 각자가 자기 분을 먹어 치우며 그리하여 연말에 가서는 이 자본 전체가 소비되고 말 것이다. 세이는 다음과 같이 222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본은 그것을 소비하는 것과 동시에 재생산되지 않는가, 그리하여 보상되지 않는가고. 그러나 문제로 되고 있는 개인은 20만 프랑의 자기 자본을 소비하지 않으므로 매년 2만 프랑의 자기 소득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본을 소비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소득의 재생산을 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다〉.

"순생산물과"—가닐은 말한다— "그것을 소비하는 자들만이 그의"(국가의) "부와 힘을 이루며 그의 번영, 그의 영광 및 그의 위대성에 이바지한다"(같은 책, p.218).

그리고 또 가닐은 콘스탄시오의 번역판 리카르도의 『원리』 제 26장에 대한 세이의 주를 인용하고 있다. 리카르도는 거기에서 나라의 인구가 1,200만 명이라면 이 1,200만 명을 위하여 500만 명의 생산적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 700만 명이 일할 때보다 나라의 부를 위하여 더 유리하

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경우에는 "순소득"은 700만 명의 비생산적 인구가 생활하는 데 쓰는 잉여 생산물로써 이루어지며 둘째 경우에는 500만 명을 위한 잉여 생산물로써 이루어진다. 세이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경제학자들[71]의 학설을 심히 연상시키는데, 그들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계급은 '자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가치를 소비하며 ‖370‖ 그들의 (경제학자들의) 유명한 순 생산물에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매뉴팩처는 국가의 부에 조금도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닐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219~220):

"공업적 계급은 그가 생산하는 만큼의 가치를 소비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가의 소득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하는 리카르도 씨의 이론 사이의 연계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닐은 여기서도 정곡을 찌르지 못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오류는 공업 노동자들을 단지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계급"으로서만 간주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그들과 리카르도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의 오류는 마치도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것 밖에는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들과는 반대로 리카르도는 다음과 같이 정당히 지적하고 있다. 즉 "순 생산물"은 바로 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소비(즉 임금)가 그들의 노동 시간 전체와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생산하는 데 지출한 노동 시간과만 동등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생산물 중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소비와 동등한 부분만을 받기 때문이라고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의 등가물만을 받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지적한 처지에 전체 공업적 계급(주인과 노동자)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지대만을,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임금을 초과하는 잉여 분으
223 로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대가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리카르도는 이윤과 지대가 이 잉여 분을 이루며, 따라서 유일한 부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농주의자들과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는 "순 생산물"즉 잉여 가치가 체화되고 있는 생산물만이 국민 부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비록 리카르도는 이 잉여 가치의 본성을 중농주의자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역시 부로 되는 것은 소득 중에서 임금을 초과하는 잉여

부분만이다. 경제학자들과 그를 구별케 하는 것은 "순 생산물"의 설명이 아니라 임금, 즉 경제학자들이 이윤까지도 부정확하게 포함시킨 그 범주의 설명이다.

세이는 또 리카르도를 반박한다:

"700만 명의 완전 취업 노동자들에게서는 500만 명에게서 보다 더 많은 저축이 나올 것이다"고.

이에 대하여 가닐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으로부터 생기는 저축이 임금 지불 정지에서 생기는 저축보다 더 낫다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순생산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오직 자기 임금에서 저축을 할 가능성과 수단을 주기 위하여서만 그들에게 4억 프랑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같은 책 p. 221)

"문명이 전진하면 할수록 노동은 덜 힘들게 되며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되고, 생산하고 소비할 운명을 지닌 계급들은 수적으로 감소되는데, 노동을 관리하고 전체 인구에게 안락(!), 위안(!) 및 계몽을 가져다 주는 계급들은 증가하며 보다 다수로 되며 노동비용의 감소, 생산물의 풍부화, 소비품의 저렴화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차지한다. 이 방향에서 인류는 완성되어 나가고 있다. ……사회의 하층 계급의 이 부단한 감소와 상층 계급의 증가에 의하여… 시민 사회는 더 행복하게,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운운 (같은 책, p. 224). "만약… 취업 노동자 수가 700만이라면 그들의 임금은 14억 프랑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 14억 프랑이 500만 노동자들이 받는 10억 프랑보다 많지 못한 순생산물을 준다면 진정한 저축은 순생산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200만 노동자들에 대한 4억 프랑의 임금의 지불 정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그 200만 노동자들이 4억 프랑에 달하는 자기 임금 중에서 할 수 있는 그 저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p. 221).

리카르도는 제 26장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아담 스미스는 나라가 거액의 총 소득에서 얻는 이익을, 거액의 순 소득에서 얻은 이익에 비하여 항상 과장하고 있다…만약 나라가 적용하는 생산적 노동이 많으냐 적으냐에는 관계 없이 그 나라의 순 지대와 이윤을 합한 것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나라를 위하여 다량의 생산적 노동을 적용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은 무엇인가?…어떤 국민이 나머지 500만 명이 살아 가는 데 쓰는 순 소득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적 노동자를 ‖371‖500만 명 적용하든

700만 명 적용하든 그 나머지 500만 명을 위한 식료품과 의류는 여전히 순 소득을 이룰 것이다. 많은 사람을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해군을
224 한 사람도 늘일 수 없으며 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같은책, p.215)[72].

이것은 교대로 주민의 일부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일부는 농사를 지은 고대 독일인들을 연상시킨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할 주민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아졌다. 그들은 인구가 1/3, 가령 1,000에서 1,500으로 늘더라도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하여 종전의 500명 대신에 1,000명이 요구된다면 조금도 득보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군대는 여전히 500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의 노동 생산력이 성장하여 농사에는 250명으로 충분하다면 1,000 명 중에서 750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 1,500명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500명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서 첫째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순 소득" 또는 "순생산물"이라는 말로 리카르도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체 생산물 중에서 생산 수단 즉 원료 또는 도구로서 생산에 복귀하여야 할 부분을 넘는 잉여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총 생산물이 총 소득에 귀착된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역시 가지고 있다. 그는 잉여가치, 즉 총 소득 중에서 노동자의 소득인 임금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을 넘은 잉여 분을 "순 생산물" 또는 "순 소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이 소득은 가변 자본, 즉 유동 자본 중 노동자가 부단히 재생산하는 부분과 동등하다.

만약 리카르도가 자본가들을 전혀 무익한 사람들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즉 그가 자본가들 자체도 생산 대표자 속에 넣고 따라서 그들의 이윤의 일부를 임금에 귀착시키고 있다면 그는 "순소득" 중에서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제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들도 모두가 그들의 임금이 그들의 이윤의 될수록 적은 부분을 이루는 한에서만 부의 증대에 이바지한다고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적어도 생산 대표자로서의 이 사람들의 시간의 일부는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생산 자체에 속한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생산에 속하는 한에서 그들은 사회나 또는 국가의 기타 목적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생산 지도자로서의 근무 이외에 그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남을 수록 그들의 이윤은 더욱 그들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들과는 반대로 이자로만

살아 가는 자본가들과 또한 지대로 살아 가는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의 목적에 전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소득 중에서 값비싼 그들 자신의 재생산에 들어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부분도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리카르도는 이윤을 희생으로 하는 지대(가장 순수한 "순 소득")의 증대를 또한 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어째서 그런가?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의 축적에 손해를 주기 때문이다. 즉 부분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생산적 노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비생산적 노동자 대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225

리카르도는 스미스가 하고 있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구별에 대하여 저자는 직접 자본과 교환되고 [후자는] 직접 소득과 교환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벌써 생산적 노동자들에 대한 스미스식의 섬세성은 없으며 그들에 대한 스미스식 환상이 없다. 생산적 노동자로 된다는 것은 불행이다. 생산적 노동자—이것은 다른 사람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이다. 그의 생존은 그가 다른 사람의 부를 생산하는 도구로서 복무하는 한에서만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양의 다른 사람의 부가 보다 적은 수의 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 창조될 수 있다면 여분의 생산적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이다. 창조하라, 그러나 네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그렇지만 리카르도는 이 제의를 가닐처럼, 생산적 노동자들을 제외하기만 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또 종전의 가변자본(즉 임금 형태의)으로서 소비되었던 것을 소득으로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생산적 노동자들의 수효가 감소됨에 따라 이 구축된 노동자들 자신이 소비하고 자신이 생산하였던 생산물의 양도 없어지며 그만한 수효의 노동자들을 위한 등가물도 없어진다. 리카르도는 가닐처럼 동일한 양의 생산물이 여전히 생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 생산물"의 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노동자들이 200을 소비하고 그들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이 100이라고 하면 총 생산물은 300일 것이며 잉여 생산물은 총 생산물의 3분의 1과 동등할 것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100을 소비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 생산물이 여전히 100과 동등하다면 총 생산물은 200을 이루게 될 것이며 잉여 생산물은 총 생산

* 원문 Vos, non vobis—역자.

물의 절반과 동등할 것이다. 총생산물은 1/3, 즉 수백 명의 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종전에 소비한 생산물의 양 만큼 감소하는데, "순 ‖ 372 | 생산물"은 200/2, 300/3과 동등하므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리카르도는 총생산물 중 "순 생산물"을 이루는 부분이 여전히 변함이 없거나, 증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감소되지 않기만 하면 총 생산물 양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226 즉 그는 이렇게 말한다[73]:

"매년 2,000 파운드 스털링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2만 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자본이 100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 1,000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 또는 생산된 상품이 1만 파운드 스털링에 팔리든 2만 파운드 스털링에 팔리든 간에 이 모든 경우에 그가 받는 이윤이 2.000 파운드 스털링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국민 전체의 실제적 이익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74] | Ⅷ-372 ‖

* * *

‖ Ⅸ-372 | 리카르도의 『원리』 제 26장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는 나라가 거액의 총 소득에서 얻은 이익을 거액의 순 소득에서 얻는 이익에 비하여 항상 과장하고 있다"(그것은 "자본에 의하여 운동하게 되는 생산적 노동의 양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아담은 말하고 있다)…"만약 나라가 적용하는 생산적 노동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계 없이 그 나라의 순 지대와 이윤을 합한 것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나라를 위하여 다량의 생산적 노동을 적용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것은 다량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가 소량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나라가 잉여 가치율이 낮은 조건 하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을 적용하든 또는 잉여 가치율이 높은 조건 하에서 소수의 노동자들을 적용하든 나라에는 매일반임을 의미할 따름이다. n을 노동자 수라고 하고 1/2과 1/4을 잉여 노동이라고 하면 $n \times 1/2$은 $2n \times 1/4$과 동등하다. "생산적 노동자는" 그 자체가 잉여 가치의 창조를 위한 생산

도구에 지나지 않으면 따라서 결과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다수의 이러한 "생산적 노동자"는 귀찮은 것으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매년 2,000 파운드 스털링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2만 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자본이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 또는 생산된 상품이 1만 파운드 스털링에 팔리든 2만 파운드 스털링에 팔리든 간에 이 모든 경우에 그가 받는 이윤이 2,000 파운드 스털링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한 부분에서 명백하듯이 아주 평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어떤 포도주 장사군이 영업에 2만 파운드 스털링을 투하하고 매년 1만 2,000 파운드 스털링 분의 술은 움안에 남겨 두고 8,000 파운드 스털링 분은 1만 파운드 스털링을 받고 판다고 하면 이 포도주 장사군은 사람은 적게 쓰고 10% 의 이윤을 얻는다. 등등. 그런데 은행업자들을 들어 보아도 그렇다!〉 "국민 전체의 227
실제적 이익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만약 국민이 순 실질 소득 즉 그의 지대와 이윤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이 국민의 1,000만의 주민으로써 구성되는가 또는 1,200만의 주민으로써 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육해군과 모든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국민의 능력은"(그런데 이 부분은 리카르도가 생산적 노동자에 대한 환상, 섭세성에 근거한 A. 스미스의 견해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그의 견해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총 소득에가 아니라 그의 순 소득에 비례하여야 한다. 만약 1,000 만 명에게 필요한 만큼의 식료품과 의류를 500만 명이 생산할 수 있다면 500만 명 분의 식료품과 의류는 순 소득으로 된다. 동일한 순 소득을 생산하는데 700만명이 요구된다면, 다시 말하면 1,200만 명에게 충분한 양의 식료품과 의류를 생산하는 데 700만 명의 노동이 적용된다면 과연 나라는 거기에서 어떤 이득이라도 얻게 되겠는가? 500만명 분의 식료품과 의류는 여전히 순 소득을 이룰 것이다. 많은 사람을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해군을 한 사람도 늘일 수 없으며 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리카르도,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pp.415~417).

"나라는 그 생산적 인구가 총생산물에 비하여 적으면 적을수록 부유하다. 이것은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양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데 그에게 필요한 노동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나라는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내는 조건 하에서 생산적 인구가 비생산적 인구에 비하여 적으면 적을수록 더 부유하다. 그것은 생산적 인구가 비교적 소수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본의 경향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따라서 또 생산물 양에 비한 생산적 인구 수를, 부단히 줄어드는 최소 한도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경향은 도리어 축적하는 것, 즉 이윤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 타인의 노동을 될수록 많이 취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필요 노동의 비율을 낮추려고 애쓰나 일정한 비율 하에서는 될수록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적용하려고 애쓴다. 이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생산물의 비례는 아무래도 좋다. 곡물과 목화는 포도주, 금강석 등등과 교환될 수 있으며 ‖ 378 ‖ 또는 노동자들은, 소비품에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러한 생산적 노동(예를 들면 철도 부설 등등과 같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본가가 종전의 2만 파운드 스털링을 자기 기업에 투하하던 것
228 이 어떤 발명의 결과로 1만 파운드 스털링으로도 충분하게 되어 1만 파운드 스털링만을 투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1만 파운드 스털링이 종전의 10% 대신에 20%를, 따라서 종전의 2만 파운드 스털링이 가져 온 것만한 이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1만 파운드 스털링을 이전과 같이 자본으로서 사용하는 대신에 소득으로서 지출하는 근거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자본이 소득으로 직접 전화되는 데 대하여는 본래 국채의 경우에만 말할 수 있다). 자본가는 그 돈을 그 어떤 다른 기업에 투하할 것이며 그 외에 그는 자기 이윤의 일부도 더 자본화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에게서(그중 부분적으로는 리카르도에게서도) 우리는 현실 자체에 있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을 본다. 기계는 노동을 구축하며 "순 소득"을 증대시키며 (물론 기계는 리카르도가 이 경우에 "순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 즉 소득이 소비되는 그 생산물 양을 언제나 증대시킨다), 기계는 노동자 수를 감소시키며 생산물의 양을 증대시킨다(이 생산물은 이제는 부분적으로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며 부분적으로는 국외에서 교환된다 등등). 그리하여 이것은 바라마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 즉 기계는 노동자들에게서 빵 조각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써 논증되는가? 그것은 기계가 약간의 진동(이에 대하여는 아마도 재난을 당하는 바로 그 주민층이 항거할 수 없을 것이다) 후에 그것이 도입되기 전에 고용되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며 그리하여 "생산적 노동자" 대중은 또 다시 증대되고 종전의 불균형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으로써 논증되고 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그리하여 노동 생산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구는 부단히 늘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생산물에 비하여서가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늘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의 집적이 동시에 진행되며 따라서 종전의 생산적 계급의 구성 부분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열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렇다. 약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중류 계급의 대열에로 넘어간다. 그러나 비생산적 계급들은 지나치게 많은 생존 수단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몫으로 되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이윤의 자본으로의 부단한 역전화는 항상 동일한 순환을 보다 넓은 기초 위에서 재현시킨다.

그런데 리카르도에게 있어서 축적에 관한 근심이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가 열렬히 찬양하는 순 이윤에 관한 근심보다 더 강하다. 이 때문에 또 노동자들에 대한 모순된 충고와 위안이 나오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수요가 자본의 축적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요가 성장 229
하면 노동의 가격도 올라 간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으며 다시금 자본에 의하여 여과된 잉여 가치가 새로운 노동의 대가로 그들에게 지불되며 그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임금의 인하를 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임금의 인상은 그것이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의 공급은 감소되며 따라서 그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나 노동의 가격의 인상은 축적률을 저하시키며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며 노동의 가격을 저하시킨다. 노동의 공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그보다 더 빨리 자본도 감소된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식을 낳는다면 이로써 그들은 노동의 공급을 증대시키며 노동의 가격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 결과 이윤율이 성장할 것이며 그와 함께 자본의 축적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인구는 자본의 축적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즉 노동 인구는 바로 자본가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수량 대로 존재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가닐 씨는 "순 소득"을 찬양하면서도 완전히 시종일관하지는 못 하다. 그는 세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노예 노동 하에서는 소비를 넘는 생산물의 잉여 분이 자유로운 인간의 노동 하에서보다 더 많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노예의 노동은 그의 노동력의 쇠퇴 이외의 다른 한계가 없다…노예는" (그리고 자유로운 노동자도 역시) "자기 주인의 무한정한 욕망 즉 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한다"(세이, 초판, p. 216).

‖ 379 ‖ 이에 대하여 가닐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자유로운 노동자는 노예보다 지출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없으며 생산하는 것이 더 적을 수 없다… 온갖 지출은 그 지출을 지불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등가물을 전제로 한다. 만약 자유로운 노동자가 노예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면 그의 노동의 생산물도 노예의 노동의 생산물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가닐, 제 1권, p. 234). 마치도 임금의 크기가 노동자의 생산성에만 달려 있으며 일정한 생산성 하에서 노동자와 주인 간의 생산물 분배에는 달려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가닐은 계속한다—"자기 노예의 비용 면에서 주인이 실시하는 절약이"(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노예의 보수 면에서의 절약"이) "그의 개인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고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운운…"그러나 전반적 부를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계급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소수의 개인들을 지나치게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pp. 234~235).

이것을 어떻게 "순 소득"과 조화시키겠는가? 그런데 가닐 씨는 즉시로 자기의 자유주의적 장광설을 철회한다(같은 책, pp. 236~237). 그는 식민지들에서의 흑인 노예제의 지지자이다. 그는 유럽에서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 토지 소유자들 및 그 고용인들을 위한 "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노예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곳에서의 노예제의 복구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자유주의적이다.

230 "그는"(케네는) "봉급으로 살아가는 계급들의 저축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호히 반박한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

---

* 원문 pari passu—역자.

한 근거로 이 계급들이 저축을 할 가능성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여분, 잉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만 사회 경제에서의 잘못이나 또는 무질서의 결과로서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같은 책 p. 274).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가닐은 케네에게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만약 비생산적 계급이 자기들의 현금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면… 같은 비율로 그들의 일자리의 그들의 소득은 감소되며 그리하여 그는 몰락한다."(『중농주의』, p.321)

천치다! 그는 케네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가닐씨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써 끝을 맺고 있다.:

"그것"(임금) "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소득은 그만큼 더 적다" (임금 노동자는 "사회"가 입각하고 있는 토대이지만 그들은 "사회"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들의 모든 술책은 임금 액수를 감소시키는 데로 돌려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계몽 세기에 알맞는… 과업이다"(같은 책 제 2권, p. 24).

* * *

생산적 및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또한 로더데일(이사람을 고찰한 후에는 브룸의 시시한 농담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 (페리에?), 토끄빌, 슈토르흐, 시니어 및 로씨를 간단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10.]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 [연간 총 생산물량의 보상: a.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 b.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 c.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

〈구별하여야 할 것은 :1) 소득 중에서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 따라서 이윤 중에서 그 자체가 다시 자본화되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는 전적으로 도외시한다. 이것은 축적에 관한 편에 속한다. 2)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과 교환되는 소득. 그리하여 이 교환을 통하여는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낡은 자본의 보상이 진행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낡은 자본이 보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득 중에서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을 이 연구에서는 영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온갖 소득은 소득이거나 또는 소비된 자본을 메꾸는 것으로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총 생산물 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 부분은 소득으로서 소비되며 다른 부분은 소비된 불변 자본을 현물로* 보상한다.

소득이 소득과 교환되는 것은 예컨대 아마포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
231 산물인 아마포 중에서 그들의 이윤과 임금 즉 그들의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에서 일부를, 농민들의 이윤과 ‖ 380 | 임금의 일부를 표시하는 곡물과 교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마포와 곡물과의 교환, 양자가 다 개인적 소비에 들어 가는 두 상품의 교환, 아마포 형태의 소득과 곡물 형태의 소득의 교환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곤란도 없다. 개인적 소비에 들어 갈 수 있는 생산물들이 욕망에 적응하는 비율로 생산된다면, 따라서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해당 사회적 노동량도 균형적으로 분배된다면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 항상 배리와 불균형이 일어 나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로서 상쇄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단한 균등화 운동 자체가 부단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 예컨대 아마포 형태의 소득은 그것이 소비품으로서 요구되는, 즉 그것이 다른 생산자들의 소비품으로써 보상되는 꼭 그만한 양으로 존재한다. 아마포의 생산자가 곡물 등등으로 소비하는 것을 농민 등등은 아마포로 소비한다. 따라서 소득을 표시하는 그의 생산물 중에서 그가 다른 상품들(소비품)과 교환하는 부분은 교환에서 이 다른 상품들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품으로서 접수된다. 그가 다른 생산물로 소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생산물로 소비한다.

기왕이니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가자. 단위당 생산물에 지출되는 노동 시간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많지 않다는, 즉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사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필요 노동 시간의 최소 한도를 부단히 축소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확대되는 규모에서 부단히 생산하여야 한다.

가령 한 엘레의 아마포의 가치는 한 시간과 같을 따름이며 이것이 사회가 한 엘레의 아마포에 대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되

---

* 원문 in natura—역자.

어야 할 필요 노동시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아직, 1,200만 엘레가 생산되었고 따라서 1,200만 노동시간, 또는 같은 말이지만 100만 노동일이 지출되었으며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아마포의 직포공으로서 적용되었다면 사회는 자기의 노동 시간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아마포의 직조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만약 필요 노동 시간이 주어졌다면 즉 일정한 양의 아마포가 하루 동안에 생산될 수 있다고 치면 그런 날이 며칠이나 아마포의 생산에 지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1년 간에 일정한 생산물의 총량에 지출된 노동 시간은 이 사용 가치의 일정한 양, 예컨대 한 엘레의 아마포(가령 232
그 수량=1 노동일이라고 하자)에다 일반적으로 지출된 노동일 수를 곱한 것과 동등하다. 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 노동 시간에 대한, 일정한 생산 부문에서 지출된 노동 시간 총량의 백분비는, 생산물의 각각의 부분이 그것의 제조에 필요한 노동시간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지출된 노동 시간의 매개 부분이 총 생산물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창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비율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필요 노동 시간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필요 노동 시간 자체는 어떠한 수량으로 다양한 생산 분야들에 분배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경쟁이 부단히 이 분배를 파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부단히 그 분배를 조절한다. 만약 어떤 부문에서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지출되었다면 등가는 해당 양이 지출되었을 그런 규모에서만 지불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총 생산물——즉 총 생산물 가치——은 벌써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야의 총 생산물이 기타 분야들의 생산물에 대하여 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면 비례적으로 지출되었을 노동 시간과 동등하다. 그러나 일정한 분야의 총 생산물 가격이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로 그 매개 부분의 가격도 떨어진다. 4,000 엘레 대신에 6,000 엘레의 아마포가 생산되었고 그리고 1만 2,000 실링이 6,000 엘레의 가치를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8,000 실링에 팔릴 것이다. 매 엘레의 가격은 2실링 대신에 1⅓ 실링 즉 그 가치보다 ⅓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 엘레를 생산하는 데 ⅓노동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더 지출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상품에 사용 가치가 있는 조건 하에서 그 가격이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물의 매개 부분에는 사회

적 필요 노동 시간만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생산 조건들이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총체로서의 이 생산 부문 전체에는 필요 이상의 여분의 사회적 노동 총량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산 조건들의 변동으로 인한 ‖381‖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저하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다. 시장에 있는 일정한 아마포 조각은 2실링의 값이 있었는데, 이것은 1노동일과 동등하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이건 1 실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고 개별적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노동 시간이 아니므로
233 1 엘레를 생산하는 데 생산자에게 요구된 날은 다만 사회적으로 규정된 날의 절반과 동등하다. 그의 아마포 한 엘레의 가격이 2실링에서 1실링으로 저하하였다면, 즉 아마포 한 엘레의 가격이 그에게 그것이 들이게 한 가치 이하로 저하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생산 조건들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즉 필요 노동 시간 자체가 변동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아마포의 생산비가 변함이 없고 금 즉 화폐 재료를 제외한 기타 모든 물건의 생산비가 올라 가거나 또는 일정한 물건들 예컨대 밀, 동 등등, 한 마디로 말하여 아마포의 구성 부분으로 들어 가지 않는 물건들의 생산비만이 올라 간다면 1엘레의 아마포는 종전대로 2실링과 동등할 것이다. 그것의 가격은 저하하지 않을 것이나 밀, 동 등등에 표현된 것의 상대적 가치는 저하할 것이다.

소득(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부문에서의) 중에서 어떤 다른 생산 부문의 소득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생산이 적당한 균형 속에 진행되는 한에서) 수요가 그 부분 자체의 공급과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생산 부문들 중 각각의 부문 자체가 자기 소득의 이 부분을 소비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 상품의 형식적 형태 변화, 즉 W-G-W′가 있을 따름이다. 아마포—화폐—밀.

이 경우에는 서로 교환되는 두 상품 속에 1년 동안에 첨가된 새로운 노동의 일부만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첫째로, 두 생산자들 중 각자가 자기 생산물 중에서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을 상대방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이 교환은 소비품 즉 직접 개인적 소비에 들어 가며

따라서 소득이 소득으로서 지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물건이 생산되는 생산 부문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것도 역시 명백하다. 즉 생산자 측으로부터의 공급이 그가 소비하려고 하는 다른 생산물들에 대한 그의 수요와 동등하다는 것은 생산물 교환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정당하다. 여기서는 사실상 단순 상품 교환만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대신에 타인을 위한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 타인은 그를 위한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에 대한 소득의 어떠한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소비품 형태의 소득이 다른 소비품 형태의 소득과 교환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소비품이 소비품과 교환되는 것이다. 그것들의 교환 과정은 양자가 소득이라는 것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양자가 소비품이라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형태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소득이라는 사정은 여기에서는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물론 이 사정 234
은 서로 교환되는 상품들의 사용 가치에, 즉 이 양자가 개인적 소비에 들어 간다는 점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다시 소비품의 한 부분이 소비품의 다른 부분과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소득의 형태는 자본의 형태가 그와 대립하는 경우에만 나타나거나 또는 전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세이와 기타 속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시 말하면 *A*가 자기 아마포 즉 자기 아마포 중에서 그 자신이 소득으로서 소비하려고 하는 부분을 팔 수 없다면, 또는 그가 다만 그것을 그 가격보다 낮게 팔 수 밖에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B*, *C* 등등이 밀, 고기 등등을 너무 적게 생산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부족한 수량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또한 *A*가 지나치게 많은 아마포를 생산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령 *B*, *C* 등등이 *A*에게서 그의 아마포 전부를 살만한 밀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은 일정한 수량의 아마포 만을 소비하게 되므로 아마포 전부를 사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A*가 그들의 소득 중 일반적으로 옷감을 위하여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수량의 아마포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자기 생산물의 일정한 양만을 소득으로써 쓸 수 있는데 A의 아마포 생산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만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경우에 수요의 대상은 생산물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이 사용 가치의 양이라고 전제하는 것, 즉 이러한 교환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다만 수요의 충족이지 교환 가치가 논의될 때에 고려되는 수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각자는 어떤 생산물이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더 적게 가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만약 이 생각이 난관을 해결하는 것으로 된다면 ‖382‖ 어째서 아마포 생산자는 자기 아마포를 다른 소비품들과 교환하며 이것들을 다량으로* 쌓아 두는 대신에 보다 단순한 과정으로, 즉 자기 소득의 일부를 과잉한 아마포로 소비하는 데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그는 어째서 자기 소득을 아마포 형태에서 다른 형태들로 전화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는 아마포에 대한 욕망 이외에 다른 욕망들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는 아마포의 일정한 부분만을 스스로 소비하는가? 왜냐하면 양적으로 일정한 부분의 아마포만이 그에게 있어서 사용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한 *B*, *C*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B*는 포도주를 팔고, *C*는 책을, *D*는 거울을 판다면 그들 각자는 아마도 자기 소득의 잉여 분을 아마포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물로 즉 포도주, 책, 거울로 소
235 비하는 편을 더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A*가 아마포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소득을 포도주, 책, 거울로 전혀 전화시킬 수 없다(또는 그것의 가치에 상응하게 전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도주, 책, 거울이 너무 적게 생산되었다는 것이 절대적 필연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소득과 소득과의 이 교환— 상품 교환의 한부분에 불과한 —을 상품 교환 전체인 것 같이 묘사하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생산물의 일부분은 처리하였다. 소비품의 일부는 이 소비품 생산자들 자체 사이에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 간다. 이 생산자들 각자는 자기 소득(이윤과 임금)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생산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산물로 소비하며 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 자신의 생산물 대신에, 소비할 수 있는 타인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한에서만이다. 이것은 각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자기 생산물 중에서 그 자신의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을 소비

---

* 원문 en masse—역자.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생산물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비로소 교환되는 상품들이 소득과 자본으로서 서로 대립하며 따라서 소득으로서만 대립하지 않는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 부문에서 총 생산물의 일부는 소득 즉(1년간에) 첨가된 노동—이윤과 임금—을 표시한다. 〈지대, 이자 등등—이것은 이윤의 일부이다. 관료배들의 소득은 이윤과 임금의 일부를 이룬다. 기타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소득은 이윤과 임금 중에서 그들이 자기의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윤과 임금 형태로 존재하는 생산물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다만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그 생산물의 어떤 몫을 소비하며 노동자와 자본가 자신은 어떤 몫을 소비하는가를 규정할 따름이다.〉 그러나 일부 생산 분야들에서만은 생산물 중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이 직접 현물로 소득의 구성 부문으로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용 가치상으로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 있다. 생산수단 만을 표시하는 모든 생산물들이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것은 현물로가 아니라, 그 직접적인 형태에서가 아니라 그 가치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치는 직접적 소비품을 생산하는 생산 부문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 수단의 일부는 예컨대 말, 마차 등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이러저러한 직접적 소비품으로 될 수 있다. 직접적 소비품의 일부, 예컨대 양조용 곡물, 종자로서의 밀 등등과 같은 것은 생산 수단으로 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소비품은 예컨대 종이 생산에 이용되는, 넝마가 되어 거의 못쓰게 된 아마포와 같이 소비에서 생기는 폐물로서 그 자체가 또다시 생산 과정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넝마로서 종이 원료를 삼으려고 아마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236* 아마포는 직조 생산물이 그 자체로서 소비에 들어간 이후에라야만, 넝마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에서 생기는 폐물로서만, 소비 과정의 잔재 및 산물로서만 아마포는 생산 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생산 분야로 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사용 가치상으로가 아니라 가치 상으로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생산물들이 있으며 그리하여 이 생산자들은 자기 생산물 예컨대 기계들 중에서 임

금과 이윤을 표시하는 부분을 소비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계들이 그 자체로서는 단 한 가지 개인적 욕망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야 한다. 이 생산물들은 기타 생산물의 생산자들에 의하여도 역시 소비될 수 없으며 그들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자기 소득을 지출할 대상으로 되는 그런 생산물 종류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상품들의 사용 가치와 모순되며 그 사용 가치는 그 본성으로 보아 개인적 소비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이 생산물의 생산자들은 그 교환가치 만을 소비할 수 있다. 즉 그들은 그것들을 미리 화폐로 전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도로 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생산물들을 누구에게 팔아야 ‖ 383 ‖ 하는가?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기타 생산물의 생산자들에게 팔아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그들은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생산물 중의 한 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물 중 이 부분은 그들의 소득을 이루며 그들은 그 생산물의 가치를 소비품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판다고 상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생산자들에게만 그 생산물들을 팔 수 있다.

상품 교환의 이 부분은 한 사람의 자본과 다른 사람의 소득과의 교환 또는 한 사람의 소득과 다른 사람의 자본과의 교환을 표시한다. 소비품 생산자의 총 생산물 중의 일부분만이 소득을 표시하며 기타 부분은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이 둘째 부분을 그는 스스로 소비할 수도 없으며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생산자들의 생산물과도 교환할 수도 없다. 그는 자기 생산물의 이 부분의 사용 가치를 현물로 소비할 수도 없으며 다른 소비품과 교환하여 그 가치를 소비할 수도 없다. 도리어 그는 그 가치를 자기 불변 자본의 현물적 요소들로 도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 생산물의 이 부분을 산업적으로, 즉 생산 수단으로서 소비하여야 한
237 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사용 가치상으로 개인 소비로만 들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물의 생산자는 그것을 현물로 그 자체의 생산 요소들로 도로 전화시킬 수 없다. 이 생산물의 사용 가치의 본성은 산업적 소비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이런 생산물의 생산자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이 생산물의 생산 요소들의 생산자들에게 그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자기 생산물의 가치만을 산업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생산물의 이 부분을 현물로 소비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기타 생산물과 교환함으로써 그 부분의 가치를 소비할 수도 없다. 그의 생산물의 이 부분이 그 자신의 소득으로 들어 갈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기타 생산물의 생산자들의 소득 중에서 보상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기 생산물을 그 사람들의 생산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만 즉 그가 자기 생산물의 가치를 소비하는 경우—가정에 의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에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의 이 부분은 그가 소득으로서 소비하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 가치상으로 소득으로서만 소비될 수 있으며, 개인적 소비에 들어 가야 하며, 불변 자본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 생산자들의 소득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들의 생산물 중에서 그들이 그 가치를 소비할 수 있거나 그들의 소득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과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 교환을 그에 참가한 각자의 편에서 개별적으로 고찰한다면 소비품 생산자인 *A*에 있어서는 이 교환은 자본의 자본으로의 전화로 된다. 자기의 총 생산물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을 생산자 *A*는 이 교환을 통하여 그 부분이 불변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현물 형태로 도로 전화시킨다. 이 부분은 교환 이전에나 이후에나 그 가치상으로 불변 자본만을 표시한다. 이와는 반대로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생산물의 생산자인 *B*에게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교환은 소득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화를 표시할 따름이다. 자기의 총 생산물 중에서 그의 소득을 이루는 부분 즉 총생산물 중에서 이 생산 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을 생산자 *B*는 처음으로 여기에서, 그가 소득으로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현물 형태로 전화시킨다. 이 생산물 부분은 교환 이전에나 이후에나 그 가치 상으로 그의 소득을 표시할 따름이다.

이러한 관계를 양편에서 다 동시에 고찰한다면 *A*는 자기의 불변 자본을 *B*의 소득과 교환하며 *B*는 자기 소득을 *A*의 불변자본과 교환한다. *B*의 소득은 *A*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는데, *A*의 불변자본은 *B*의 소득을 보상한다.

교환 자체에서는 〈교환 참가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가를 논하지 않는다면〉 상품들만이 서로 대립하여 상품들의 단순한 교환이 진행되는데, 그것들은 상호 상품으로서만 대하게 되며 "소득"이 238
나 "자본"이라는 표식은 그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이

상품들의 사용 가치의 상이한 성격만이 그것들 중 어떤 것은 공업적 소비용으로만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개인 소비용으로만 될 수 있고 개인 소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들의 다양한 사용 가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함은 소비 영역에 관계되며 그것들이 상품으로서 교환되는 과정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의 자본이 임금으로 전화되고 노동이 자본으로 전화될 때에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상품들이 상호 단순한 상품들로서 대립되지 않고 자본은 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방금 고찰한 교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단지 판매자와 구매자로서만, 단지 단순한 상품 소유자들로서만 서로 대립한다.

그리고 또 명백한 것은 오로지 개인 소비용으로 예정된 온갖 생산물이나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온갖 생산물은—그것이 소비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소득과만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생산물이 산업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는 사정은 바로 그것이 단지 소득으로서만 즉 개인적으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윤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도외시 한다.〉

가령 *A*가 무엇이든 개인적으로만 소비되는 생산물의 생산자라고 하고 그의 소득이 그의 총 생산물의 3분의 1과 동등하며 그의 불변 자본은 3분의 2와 동등하다고 하자. 그는 첫 3분의 1을 전제에 따라 스스로 소비하는데— ‖384‖ 현물로 전부를 소비하느냐 또는 부분적으로만 소비하느냐 또는 그것을 현물로 전혀 소비하지 않느냐 , 그 가치를 기타 소비품으로 소비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런 경우에 이 소비품 판매자들은 자기 자신의 소득을 *A*의 생산물로 소비한다. 그리하여 소비품들 중에서 그 생산자들의 소득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들의 소비에 필요한 생산물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에 의하여 소비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과 소득의 교환이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A*가 마치도 모든 소비품의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생산물 총량의 3분의 1—즉 *A*의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을 그는 스스로 소비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A*부류가 연간에 자기의 불변 자본에 첨가한 그 노동량을 표시하는 데 이 양은 *A*의 부류에 의하여 연간에 생산된 임금과 이윤의 총액과 같다.

239 *A*부류의 총 생산물 중 나머지 3분의 2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하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산업적 소비에

만 들어 가며 생산 수단으로서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제공하는 B부류의 연간 노동의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A의 총생산물 중의 이 3분의 2는 그것의 첫 3분의 1과 꼭 마찬가지로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B부류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물 중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과 교환된다. 그리하여 A 부류는 자체의 총 생산물의 불변 부분을 이 불변 부분의 최초의 현물 형태를 띠고 있는 생산물과 교환하였으며 그 부분을 다시 B부류에서 새로 창조된 생산물로 도로 전화시켰다. 한편 B부류는 자체의 생산물 중에서, 그의 소득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자신이 A부류의 생산물로만 소비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써 지불하였다. 따라서 B부류는 사실상 B의 생산물 중 A의 나중의 3분의 2와 교환되는 부분에 완전히 표시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자체의 노동으로써 지불하였다. 그리하여 A의 생산물 전체는 소득과 교환된다. 즉 전적으로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 다른 한편으로(전제에 의하면 소득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여기서는 여전히 고찰 범위 밖에 있으며 영과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의 전체 소득은 A의 생산물로 지출된다. 왜냐하면 A의 생산자들은 자기 소득을 A의 생산물로 소비하며 또 B부류의 생산자들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부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A의 생산물은 그 3분의 2가 불변 자본이므로 A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될 수 없고 그 생산물의 생산 요소들의 현물적 형태로 도로 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소비된다. A의 총 생산물은 사회의 총 소득과 동등하다. 그런데 사회가 연간에 현존하는 불변 자본에 첨가한 노동시간의 총계를 표시한다. 그런데 A의 총 생산물은 1/3만이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써 이루어지며 2/3는 보상하여야 할 과거의 노동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그것은 모두 새로 첨가된 노동으로 구매된다. 왜냐하면 이 연간 총 노동의 2/3는 그 자체의 생산물로서가 아니라 A의 생산물로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의 생산물은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을 2/3만큼 초과하는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보상된다. 왜냐하면 그 2/3는 B의 첨가된 노동이며 B는, A가 바로 이 2/3를 산업적으로, B의 생산물로만 소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2/3를 개인적으로만, A의 생산물로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A의 총 생산물은 첫째로 전부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의 불변 자본이 보상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A의 240

총생산물은 소득으로서 전부 소비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 2/3가 불변 자본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생산물 중 자기 소득을 표시하는 부분을 현물로 소비할 가능성을 상실하였으며 그 부분을 A의 생산물로, 즉 A의 2/3와 교환함으로써 소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A의 마지막 2/3를 처리하였다.

산업적 소비용으로도, 개인적 소비용으로도 될 수 있는 생산물, 예컨대 인간에게는 식량으로, 가축에게는 사료로 쓰이며 또는 종자로나 또는 빵 원료로 되는 호밀 그리고 또한 마차, 말, 가축 등등을 생산하는 C라는 제3부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 생산물들이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부분에서는 그것들은 그 생산자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 부분의 생산자들에 의하여(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득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생산물들은 A부류에 속한다. 그 생산물들이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것들은 B부류에 속한다.

소득과 소득이 아니라 자본과 소득이 교환되며 전체 불변 자본이 결국에는 소득에, 따라서 새로 첨가된 노동에 귀착되게 되는 이 둘째 번 종류의 교환 과정은 이중으로 표시될 수 있다. A의 생산물이 예컨대 아마포라고 하자. A의 불변 자본과 동등한 3분의 2의 아마포(또는 그 가치)는 방사, 기계, 보조재료를 상환한다. 그런데 방사 공장주와 기계 공장주는 ‖385 | 이 생산물 중에서 그들 자신의 소득을 표시하는 수량만을 소비할 수 있다. 아마포 생산자는 자기 생산물의 3분의 2로써 방사와 기계의 완전한 가격을 지불한다. 이로써 그는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에게, 불변 자본으로서 아마포에 들어 간 그들의 생산물 전체를 보상하였다. 그러나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이 총 생산물 자체는 불변 자본 및 소득과 동등하며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가 첨가한 노동에다 그들 자신의 생산 수단의 가치—즉 방적업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윤활유, 기계, 석탄 등등의 가치, 기계 제작업자에게 있어서는 석탄, 철, 기계 등등의 가치—를 표시하는 다른 부분을 플러스한 두 부분의 합계와 동등하다. 그리하여 A의 불변 자본과 동등한 3분의 2의 아마포는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그 총 생산물을, 즉 그들의 불변 자본에다 그들에 의하여 첨가된 노동을 플러스한 것, 그들의 자본에다 그들의 소득을 플러스

한 것을 보상하였다. 그러나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는 A의 생산물로 자기의 소득만을 소비할 수 있다. A의 2/3 중 그들의 소득과 동등한 부분을 공제한 후에 그들은 나머지로 자기의 원료와 자기의 기계를 상 241
환한다. 그런데 이 원료와 이 기계의 생산자들은 전제에 의하면 아무런 불변 자본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생산물 중에서 A의 생산물로, 따라서 A의 생산 수단으로 쓰이는 생산물로도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A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A는 자기의 생산물의 3분의 2를 가지고 B가 자기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만큼만, 즉 B가 교환한 생산물로 표시되는 소득, 새로 첨가된 노동만큼만 지불할 수 있다. 만약 A의 이 생산 요소들의 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불변 자본의 일부가 표시될 그런 수량, 즉, 그들이 자기의 불변자본에 첨가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이 표시될 그런 수량의 자기들의 생산물을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에게 판매하게 된다면 그들은 A의 생산물로 지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생산물의 일부를 소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고찰해 보자. 전체 아마포가 12일과 동등하다고 가정하자. 아마 재배업자, 제철업자 등등의 생산물은 4일과 동등하다. 이 생산물은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에게 판매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4일을 더 첨가한다. 이들은 이들 대로 그 생산물을 직조업자에게 판매하는데, 직조업자는 이것에 4일을 더 첨가한다. 아마포를 짜는 직조업자는 자기 생산물의 3분의 1을 스스로 소비할 수 있다. 8일은 그에게 그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며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생산물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들은 8일 중에서 4일을 소비할 수 있으며, 나머지 4일로써는 아마 재배업자 등등에게 지불하며 그리하여 자기의 불변 자본을 보상한다. 아마 재배업자, 제철업자 등등은 아마포에 대상화된 마지막 4일로써 자기 노동만을 보상하게 된다.

세 경우에 모두 소득은 동일한 것으로(4일과 동등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A의 생산물 생산에 참가한 세 계층의 생산자들의 생산물에 상이한 비율로 포함된다. 직조업자의 경우 그것이 그의 생산물의 1/3(12의 1/3)을,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의 경우에는 그의 생산물의 1/2(8의 1/2)을 이루며 아마 재배업자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의 생산물, 즉 4일과 동등하다. 총 생산물에 대하여는 이 모든 생산자들의 소득은 똑 같아서 그것은 12의 1/3 즉 4일과 동등하다. 그러

나 직조업자에게 있어서는 방적업자, 기계 제작업자 및 아마 재배업자의 새로 첨가된 노동은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나며, 방적업자와 기계 제작업자에게 있어서는 그들 자신과 아마 재배업자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노동은 총 생산물로서 나타나며, 아마 재배업자의 노동 시간은 불변 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불변 자본의 면에서 생기는 이 현상은 아마 재배업자에게서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방적업자는 직조업자와 마
242 찬가지 비율로 기계를, 일반적으로 불변 자본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1/3대2/3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방적업자에서 적용된 자본액(총액)은 직조업에서 적용된 자본액보다 적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체 방적 생산물이 직조업에 불변 자본으로서 들어 가기 때문이다. 둘째로 방적업자에게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로 1/3대 2/3의 비례가 존재한다면 그의 불변 자본은 16/3, 그의 첨가된 노동은 8/3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즉 전자는 5⅓ 노동일, 후자는 2⅔ 노동일과 동등할 것이다. 이 경우에 그에게 아마 등등을 공급하는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일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첨가된 노동 시간의 대가로 그는 4일 대신에 5⅓일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A*부류의 불변 자본 중 *A*에게서 가치 형성 과정에 들어 가는 부분, 즉 이 *A*의 노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비되는 부분만이 새로운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원료, 보조 재료 및 고정 자본의 마멸 분은 가치형성 과정에 전부 들어간다. 고정 자본의 나머지 부분은 이 과정에 들어 가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불변자본의 대부분—그 크기는 총 자본에 대한 고정 자본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은 새로운 노동으로써 매년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상되는 고정 자본의 가치]량은 그것이 비록 (절대 수치에서) 클 수 있으나 그러나 총 생산물(연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A* 및 *B* 부류에서 이윤율의 규정(일정의 잉여 가치 하에서)에는 참가하는 이 전체 불변 자본 부분은 고정자본의 실제적 재생산에 규정적 요소들로 들어 가지는 않는다. 총 자본에 비하여 이 부분이 많을수록; 현존하는 즉 이미 있는 고정 자본이 대규모로 생산에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마멸된 고정 자본을 보상하는 데 들어 가는 재생산의 실제적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재생산의 대비량은 총 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가령 모든 종류의 고정 자본을 재생산하는 시간(평균)이 10년이라고

하자. ‖386‖ 각종 고정 자본이 20년, 17년, 15년, 12년, 11년, 10년, 8년, 6년, 4년, 3년, 2년, 1년, 4/6 년 및 2/6년 (도합 14종)에 회전한다고 하면 고정 자본은 평균 10년에 1회 회전할 것이다[75].

따라서 고정 자본은 평균 10년 동안에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체 고정 자본이 총 자본의 1/10을 이룬다면 매년 보상되어야 할, 고정 *243* 자본의 10분의 1은 총 자본의 1/100 만을 이룰 것이다.

만약 고정 자본이 총 자본의 1/3을 이룬다면 매년 총 자본의 1/30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상이한 재생산 기간을 가지는 고정 자본들 예컨대 자체의 재생산에 20년을 요하는 고정 자본을, 자체의 재생산에 1/3년을 요하는 자본과 대비하여 보자.

20년 동안에 재생산되는 고정 자본 중에서는 매년 1/20만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자본이 총 자본의 1/2을 이룬다면 총 자본의 1/40부분만이 매년 보상되어야 하며 그것이 전체 자본의 심지어 4/5를 이룬다 하더라도 전체 자본의 4/100즉 1/25만이 보상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 재생산에 2/6년을 요하는 고정 자본 즉 1년에 3회 회전하는 고정 자본이 1/10만을 이룬다면 고정 자본은 1년에 3회 보상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총 자본의 3/10 즉 거의 1/3이 매년 보상된다. 평균적으로 총 자본에 비하여 고정 자본이 크면 클수록 그 상대적(절대적이 아닌) 재생산 시간은 더욱 크며 그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상대적 재생산 시간은 더욱 단축된다, 손으로 하는 생산에서는 도구가, 기계로 하는 생산에서의 기계들보다 훨씬 적은 부분의 자본을 형성한다. 그러나 수공 도구는 기계보다 훨씬 더 빨리 마멸된다.

고정 자본의 절대적 크기의 성장과 함께 그 재생산의 절대적 크기—또는 그의 마멸 분—도 성장하나, 그 재생산의 상대적 크기는, 고정 자본의 회전 기간, 그 존재 기간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크기에 따라 성장하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에 감소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 또는 고정 자본을 재생산하는 노동량은 시초에 그 기계를(생산 조건들이 불변인 경우에) 생산한 그 노동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매년의 마멸 분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 생산 능률이 이 부분에서 부단히 증대되는 것처럼 증대된다면 불변자본의 이 부분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더욱 더 많이 감소된다. 여기에다 기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그러나 기계 제작 자체에서 지출되는 노동과

는 직접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으로 되는 것도 또한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탄과 약간의 윤활유 또는 유지만을 소비하는 기계는 노동자—비단 기계에 의하여 교체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계 그
244 자체를 만드는 노동자까지도—보다 한 없이 더 엄격한 식이요법에 부합되게 살아간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전체 A부류의 생산물과 B부류의 생산물 중 일부를 처리하였다. A의 생산물은 완전히 소비된다. 즉 1/3은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며 2/3는 그 자체의 소득을 그 자체의 생산물로 소비할 수 없는 B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된다. A의 ⅔는 그것으로 B의 생산자들이 자체의 생산물 가치 중 소득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을 소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A의 생산자들에게 현물로 그들의 불변 자본을 보상한다. 즉, 그들이 산업적으로 소비하는 상품들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A의 생산물이 전부 소비되고 A의 2/3가 불변 자본으로써 B의 생산물로써 보상되었다는 사정 자체로써 또한 연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이 표시되어 있는 생산물 부분 전체도 처리된다. 따라서 이 노동은 총 생산물의 어떤 다른 부분도 구매할 수 없다. 사실상 연간에 첨가된 전체 노동은(이윤의 자본화를 도외시한다면) A에 포함되는 노동과 동등하다. 왜냐하면 A의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그의 생산물의 1/3은 A부류의 불변 자본을 이루는 A의 2/3에 그들이 연간에 새로 첨가한 노동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 자체의 생산물로 소비하는 이 노동 이외에 그들은 아무런 다른 노동도 수행하지 않았다. B부류의 생산물로 보상되며 B의 생산물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나머지 2/3는 B의 생산자들이 자기 자신의 불변 자본에 첨가한 모든 노동 시간을 표시한다. 그들은 그 이상 아무런 노동도 첨가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 387 ‖ 소비할 것은 더는 없다.

A의 생산물은 사용 가치 상으로는 연간 총 생산물 중 매년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부분 전체를 표시한다. 그 교환가치 상으로는 그것은 연간에 생산자들에 의하여 새로 첨가된 노동의 총량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나머지로서 총 생산물의 약간의 세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구성 부분들은 그 교환에 있어서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도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도 또는 자본과 소득과의 교환도 표시할 수 없다. 이것은 B의 생산물 중 B의 불변 자본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B의 소득으로 들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

분은 A의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또는 그것과 교환될 수 없으며 따라서 또한 A의 불변 자본에 구성 부분으로서 들어 갈 수 없다. 이 부분도 역시 소비되는데, 그것이 —B 부류 내에서—노동 과정뿐만 아니 245
라 가치 형성 과정에도 들어 가는 그 정도에 따라 산업적으로 소비된다. 그리하여 이 부분도 총 생산물의 기타 모든 부분들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이 총 생산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데 비례하여 보상되어야 하며 그것도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생산물로 현물로 보상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부분은 첨가된 노동의 총량은 A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오직 B가 자기 소득을 A의 생산물의 3분의 2로 소비하는 까닭에 또한 A분야 내에서 소비되며 보상되게 되는 그 모든 것 대신에 생산 수단을 A에게 —교환 과정에서—제공하는 까닭에 완전히 보상되는 노동 시간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A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그 생산물의 3분의 1은—그 교환 가치상으로— 다만 그들 자신이 새로 첨가한 노동으로써 이루어지며 아무런 불변 자본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나머지를 고찰하여 보자.

그것은 첫째로 원료에 들어가는 불변 자본으로써, 둘째로 고정 자본의 형성에 들어 가는 불변 자본으로써, 세째로는 보조 재료에 들어 가는 불변 자본으로써 이루어 진다.

첫째로, 원료. 원료 생산에 지출된 불변 자본은 첫째로 고정 자본 즉 기계, 노동 도구, 건축물 그리고 적용되는 기계의 소비 수단인 보조 재료들에 귀착된다. 직접 소비될 수 있는 일부 원료(예컨대 가축, 알곡, 포도 등등과 같은 원료)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곤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면에서는 그것들은 A부류에 속한다.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 부분은 A의 불변 부분인 2/3에 들어 가는데, 이 부분은 자본으로서, 직접 소비할 수 없는 B의 생산물과 교환되거나 또는 B가 그 부분으로 자체의 소득을 소비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또한 현물로 소비 대상 자체에 들어 가는 그러한,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원재료들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있어서 그것들이 생산 과정의 중간 단계를 얼마나 많이 거쳤는가 하는 것은 관계 없다. 아마 중에서 방사로, 다음에는 아마포로 전화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소비 대상에 들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원료(목재, 아마, 대마, 가죽 등등과 같은)의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직접 고정 자본 자체의 구성 요소에 들어 가며, 부분적으로는 고정 자본의 보조 재료에 들어 간다. 예컨대 윤활유, 유지 등등의 형

태로 들어간다.

다음으로 종자는 원료 생산에 지출되는 불변 자본에 속한다.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는 스스로 재생산된다.즉 식물의 성장과 동물의 번식.
246 종자라는 말은 본래의 종자와, 그리고 또 가축용 사료—이것은 비료로서 토양에 반환된다—그리고 종축 등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연 생산물—또는 연 생산물의 불변 부분—의 이 현저한 부분은 그 자체의 직접 재생[Regeneratoin]을 위한 재료로 된다. 즉 스스로 재생산된다.

비유기 원료—금속 , 돌 등등. 이것의 가치는 두 개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경우에는 농업에서 원료로 되는 종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비유기 원료의 가치는 첨가된 노동과 소비된 기계(이것에는 기계용 소비 수단도 포함된다)로써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며 따라서 *B*와 *A*의 2/3 간의 교환에 들어 가는 생산물 부분이외에, 보상되어야 할 것은 고정 자본 및 그 소비 수단(석탄 윤활유 등등과 같은)의 마멸 분만이다. 그러나 이 비유기 원료로써 불변 자본의 주요 구성 부분인 고정 자본 (기계, 노동 도구, 건축물 등등)이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기 원료는 자체의 불변 자본을[자본 대 자본의] 교환을 통하여 현물로 보상한다.

‖ 388 ‖ 둘째로 고정 자본(기계, 건축물, 노동 도구, 온갖 종류의 용기).

이것들의 불변 자본은 1) 그것들의 원료인 금속, 돌, 유기 원료(목재, 피대, 밧줄 등등과 같은)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의 이 원료가 그것들(기계, 건축물 등등)의 원재료를 형성한다면 그것들 자체는 노동 도구로서 그 원재료의 획득 과정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상호 현물로 보상한다. 제철업자는 기계를 보상하여야 하며 기계 제작업자는 철을 보상하여야 한다. 채석장에서는 기계의 마멸이 진행되는데 공장 건물에서는 건축 석재의 마멸이 진행된다 등등. 2) 공작 기계의 마멸 이 기계들은 자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산물로써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생산물은 당연히 그 자체를 보상할 수 있다. 3) 기계용 소비 수단(보조 재료). 기계는 석탄을 소비하는데, 석탄도 기계를 소비한다 등등. 용기, 관, 호스 등등의 형태로 온갖 종류의 기계들은 기계용 소비 수단의 생산에, 에컨대 유지, 비누, 가스 〈조명용〉 생산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 매개 분야의 생산물은 기타 해당한 매개 분야의 불변 자본에 서로 들어 가며 따라서 서로 현물로 보상한다.

역축을 기계로 간주한다면 그게 있어서는 사료가 보상되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축사(건물)가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료가 가축 247
의 생산에 들어 간다면 가축도 사료의 생산에 들어 간다.

세째로, 보조재료. 그것들 중의 일부 예컨대 윤활유, 비누, 유지 가스 등등은 원료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료 등등의 형태로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다시 그 원료의 형성과정에 들어간다. 석탄은 가스 생산에 필요한 것이나 가스 조명은 이번에는 석탄 생산에서 사용된다 등등. 기타 보조재료들은 오직 새로 첨가된 노동과 고정 자본(기계, 용기 등등)으로써 이루어진다. 석탄은 그것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증기 기관의 마멸 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기 기관은 석탄을 소비한다. 석탄은 자체가 석탄의 생산 수단으로 들어 간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석탄은 스스로 자체를 현물로 보상한다. 철도에 의한 석탄 수송은 석탄 생산비에 들어가나 석탄은 기관차의 생산비에 들어 간다.

나중에 화학 공장들에 대하여 따로 약간 더 첨가할 것이다. 이 공장들은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조 재료, 용기 원료(예컨대 유리, 자기) 그리고 또한 직접 소비에 들어 가는 물건들을 제조한다.

온갖 안료는 보조재료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컨대 공장에서 소비된 석탄이 면직물로 들어 가는 것과 같이 그 가치상으로 생산물에 들어 갈 뿐만 아니라 생산물이 띠게 되는 형태(생산물의 색깔)로 자체를 재생산한다.

보조재료는 기계용 소비 수단이거나—이 경우에 그것들은 발동기용 연료이거나 작업기 등등의 감마제(減磨劑) 예컨대 시멘트 등등이다. 또는 끝으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재료 예컨대 조명, 난방 등등이다(이 경우에 그것들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 위하여 노동자 자신에 필요한 보조 재료들이다).

또는 그것은 원료가 집어 삼키는 온갖 종류의 비료와 모든 화학 생산물처럼 원료 형성 과정에 들어가는 보조 재료이다.

또는 그것은 안료, 라카 등등의 완제품으로 들어 가는 보조 재료이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는 생산물의 2/3를 이루는 그 자체의 불변 자본을 교환을 통하여,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갈 수 없는 B의 생산물 중 B의 소득 즉 B부류에서 연간에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A는 248

*B*의 불변 자본을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B*부류는 이 불변 자본을 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산물로,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류에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동 시간도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류에는 새로 첨가된 노동시간 전부는 그 부류의 소득을 형성하며 따라서 *B*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으로서 *A*에 들어가는 부분에 의하여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B*의 불변 자본은 어떻게 보상되는가?

그것은 농업과 축산업 전체 영역에서처럼 부분적으로는 자체의(식물 또는 동물의) 재생산을 통하여 보상되며 부분적으로는 어떤 불변 자본의 부분들과 다른 불변 자본의 부분들과의 현물 교환을 통하여 보상되는데, 이에 있어서 한 분야의 생산물은 원료 또는 생산 수단으로서 다른 분야로 들어 가며 또 그 반대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이한 생산 분야의 생산물, ‖389‖ 상이한 종류의 불변 자본인 상호 현물로 생산 조건으로서 상대방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소비될 수 없는 생산물의 생산자들은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자들에 대하여 불변 자본의 생산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생산물은 그들 자신의 불변 자본의 요소 또는 요인으로서 서로 그들에게 복무한다. 이것은 그들이 생산물을 서로 산업적으로 소비함을 의미한다.

*A*의 전체 생산물은 개인적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불변 자본도 그렇게 소비된다. *A*의 $^1/_3$은 *A*의 생산자들이 소비하며 *A*의 2/3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B*의 생산물의 생산자들이 소비한다. *A*의 불변 자본은 *B*의 소득을 형성하는 *B*의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것은 사실상 새로 첨가된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는 유일한 불변 자본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는 까닭은 *B*부류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B*의 생산물량이 *B*부류에 의하여 소비되지 않고 도리어 *A*부류에 의하여 산업적으로 소비되는 한편, *B*부류는 *A* 의 2/3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A*가 3노동일과 동등하다고 하자. 그러면 가정에 의하면 *A*의 불변자본은 2노동일과 동등할 것이다. *B*는 *A*의 생산물의 2/3를 보상하며 따라서 2노동일과 동등한,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생산물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가 3노동일을 소비하여 버리면 2노동일이 남는다. 다시 말하면 *A*에서의 두 과거 노동일은 *B*에서 새로 첨가된 두 노동일에 의하여 보상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B*에서 새로 첨가된 두 노동일이 *B*의 생산물

자체로가 아니라 가치 상으로 A의 생산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B부류의 불변 자본은 또한 그것이 B의 총 생산물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생산물, 따라서 B부류의 산업적 소비에 필요한 생산물로써 현물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불변 자본은 비록 연 249
간에 새로 지출된 노동 시간의 생산물로써 보상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노동 시간으로써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

B의 총 생산물에서 전체 불변 자본이 2/3을 차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새로 첨가된 노동(임금과 이윤의 총액과 동등한)이 1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에게서 노동의 재료와 노동 수단으로서 복무한 과거 노동은 2와 동등할 것이다. 그러면 이 2는 어떻게 보상되는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간의 비례는 B 부류의 상이한 생산 분야 내에서 아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에 의하면 평균적 비례는 1/3대 2/3즉 1대 2이다. B부류의 생산자들은 각각 자기 생산물 예컨대 석탄, 철, 아마, 기계, 가축, 밀(즉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지 않는, 가축과 밀의 일부) 등등의 2/3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생산 요소는 앞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즉 그것들은 그 생산 요소의 현물 형태로 도로 전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생산물 자체는 다시 산업적 소비로 들어간다. 밀(종자로서의)은 동시에 다시 자기 자체의 원료로 되며 사육한 가축의 일부는 소비된 가축을 보상한다. 그리하여 B부류의 이 생산 분야들(농업과 축산업)에서는 그 생산물의 일부가 그 자체의 현물 형태로 그 자체의 불변 자본을 보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생산물들의 일부는 유통되지 않는다(적어도 그 부분은 반드시 유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식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 생산물들 중 기타의 것들, 예컨대 아마, 대마 등등과 석탄, 철, 목재, 기계는 부분적으로 생산 수단으로서 자기 자체의 생산에 들어간다. 농업에서의 종자처럼 석탄도 석탄 생산에 들어가며 기계도 기계 생산에 들어간다. 따라서 기계와 석탄으로써 이루어지는 생산물의 일부, 그것도 이 생산물 부분 중에서 그 불변 자본을 표시하는 부분은 자기 자체를 보상하며 생산 과정에서 자기 위치를 바꿀 따름이다. 이 부분은 생산물이던 것이 이제는 자기 자체의 생산 수단으로 된다.

이러한 생산물들과 기타 생산물들의 기타 부분들은 생산요소로서 상호 상대방에 들어 간다. 즉 기계는 철과 목재에, 철과 목재는 기계에, 윤활유는 기계에, 기계는 윤활유에, 석탄은 철에, 철은(철도 등등의 형태로) 석탄에 생산 요소로서 들어 간다 등등. 그리하여 B부류의 이 생산물들

의 2/3가 스스로 자체를 보상하지 않은 한에서는, 즉 자체의 현물 형태로 다시 자기 자체의 생산에 들어 가지 않는 한에서는, 따라서 A의 생산물의 일부가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처럼 B의 생산물의 일부가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직접 산업적
250 으로 소비되는 한에서는 B부류의 생산자들의 생산물은 상호 생산 수단으로서 서로 보상한다. 생산자 a의 생산물은 생산자 b의 산업적 소비로 들어 가며 생산자 b의 생산물은 생산자 a의 산업적 소비로 들어간다. 또는 우회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생산자 a의 생산물은 생산자 b의 산업적 소비로 들어가며 이 b의 생산물은 생산자 c의 산업적 소비로 생산자 c의 생산물은 생산자 a의 산업적 소비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B 부류의 한 생산분야에서 불변 자본으로서 소비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 생산되며 이 후자에서 소비되는 것은 전자에서 생겨난다. 한 분야에서 기계와 석탄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철과 석탄의 형태에서 기계 형태로 이전한다 등등.

‖ 390 ‖ B 부류의 불변 자본은 자기의 현물 형태로 보상되어야 한다. B 부류의 총 생산물을 고찰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의 모든 현물 형태로서의 전체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그리고 B 부류의 어떤 특별한 분야의 생산물이 그 자체의 불변 자본을 현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와 판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로의 이전에 의하여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불변 자본에 의한 불변 자본의 보상이 진행된다. 이것이 직접, 교환없이 진행되지 않은 한에서는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을, 즉—사용 가치 상으로는— 생산물과 생산물의 교환을 보게된다. 이 생산물들은 그것들의 해당 생산 과정에 들어 가며 그리하여 그 매개 생산물들은 해당한 다른 생산물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산업적으로 소비된다.

자본의 이 부분은 이윤에도 임금에도 귀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아무런 새로 첨가된 노동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득과 교환되지 않는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소비자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다. 자본의 이 상호 보상이 상인(즉 상인 자본)에 의하여 매개되었는가 또는 매개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생산물들(상호 서로 보상하는 기계, 철, 석탄, 목재 등등)이 새로

운 생산물인데, 그것들이 최근 연도의 노동 생산물인데—그리하여 종자로서 쓰이는 밀은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가는 밀과 꼭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동의 생산물이다 등등—이 생산물들에 아무런 새로 첨가된 노동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밖에 그 형태가 과연 바로 정반대의 것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 주지 않는가? 이것을 밀이나 가축에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기계에서는 그 형태상으로 철 등등에서 그것을 기계로 전화시킨 노동을 볼 수 있다 등등.

이 문제는 앞에서 해결되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 갈 251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실업가"와 실업가와의 거래액은 "실업가"와 소비자와의 거래액과 동등하여야 한다는 A. 스미스의 명제는 부정확하다(소비자라는 말은 스미스 자신이 "실업가"의 범주에 넣고 있는 산업적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적 소비자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명제는 전체 생산물이 소득에 귀착된다는 명제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사실 상 상품 교환중 자본과 소득의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품의 총체적 교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가 부정확한 것처럼 투크가 그 명제를 화폐 유통에 적용하여(특히는 "실업가" 간에 유통하는 화폐량과, "실업가"와 소비자 간에 유통하는 화폐량의 상호 관계에 적용하여) 짓고 있는 실천적 결론도 또한 부정확한 것이다.

만약 소비자와 대립하는 마지막 "실업가"로서 우리가 A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상인을 든다면 그에게서 이 생산물은 A의 생산자들의 소득(A의 1/3과 동등한)과 B의 생산자들의 소득(A의 2/3와 동등한)으로 구매된다. 이 소득은 그에게 그의 상업자본을 보상한다. 이 소득의 총액은 그의 자본과 맞먹어야 한다(이 협잡군이 얻은 이윤은 그가 A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고 A의 보다 적은 분량을 A전체의 가치대로 파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협잡군을 필요한 생산 대표자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간에 낀 무위도식자로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A의 생산물을 거래하는 "실업가"와 이 생산물의 소비자 간에서 수행되는 이 교환은 가치상으로 보아 A의 생산물을 거래하는 자와 A의 생산물 생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간의 교환과 맞먹으며, 따라서 이 생산자들 자체의 상호 간에서 일어 나는 모든 거래와 맞먹는다.

---

* 이 책 pp.116~163 및 pp.204~216 보라—편집자.

상인은 아마포를 구매한다. 이것은 "실업가"와 실업가 간의 최종거래이다. 아마포를 만드는 직조업자는 방사, 기계, 석탄 등등을 구매한다. 이것은 "실업가"와 실업가 간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래이다. 방적업자는 아마, 기계, 석탄 등등을 구매한다. 이것은 "실업가"와 실업가 간의 마지막으로 세번째 거래이다. 아마 재배업자와 기계 제작업자는 기계, 철 등등을 구매한다. 그런대 아마, 기계, 철, 석탄 생산자들 간에서 그들의 불변 자본의 보상을 위하여 진행되는 거래와 이 거래의 가치는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을 위하여서이건 또는 소득과 불변 자본과의 교환을 위하여서이건 *A*의 생산물이 거치게 되는 그런 거래에는 속하지 않는다.
252 이 거래는 *B*의 생산자와 *A*의 생산자 간에서가 아니라 다만 *B*의 생산자들 간에서만 진행되는데, 그것은 *A*의 생산물의 구매자 측으로부터 *A*의 생산물의 판매자를 위하여 보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B*의 생산물의 이 부분의 가치가 *A*의 생산물의 가치로 들어 가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이 거래도 또한 화폐를 요구하며 또한 상인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런데 화폐 유통중 이 분야에만 관계되는 부분은 "실업가"와 소비자 간에 진행되는 화폐 유통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391 ‖ 해결하여야 할 두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즉

1) 이상의 서술에서는 우리의 소득으로서의 임금을 고찰하면서 그것과 이윤 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임금이 동시에 자본가의 유동 자본의 일부로 나타나는 사정이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소득이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 이윤의 일부가 자본화되는 경우에 일어 나는 변동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축적과정의 고찰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의 형식적 측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물 중 잉여 가치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는 임금으로, 일부는 불변 자본으로 도로 전화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위에서 고찰한 항목들—이 항목들에서 상품 교환은 그 담당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다—, 즉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 끝으로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이라는 항목들에서의 상품 교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간주곡(間奏曲)은 이 역사적—비판적 부분에서는 때때로 그것으로 되돌아 가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한다[76]〉.

[11.] 페리에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 및 자본 축적론을 반대하는 페리에의 논쟁의 보호 관세주의적 성격. 축적문제에서의 스미스의 혼란. "생산적 노동자"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 중의 비속한 요소]

F. L. O. 페리에(세관 부감독관)의 저서는 『상업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정부』(파리, 1805년)라고 불리운다.(이것은 F. 리스트가 의거한 주요 전거이다.) 이 친구는 보나파르트 류의 무역 금지 제도 등등의 찬미자이다. 사실상 그는 정부(따라서 비생산적 노동자인 국가 관리)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정부를 생산에 직접 간섭하는 지도자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관 관리는 A. 스미스가 국가 관리들을 비생산 노동자라고 부르는 데 *253* 대하여 격분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여 설정된 국민의 절약 원칙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구분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즉 스미스가 될수록 많은 부분의 생산물이 자본으로서 즉 생산적 노동과의 교환으로 지출되며, 될수록 적은 부분이 소득으로서, 비생산적 노동과의 교환으로 지출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본질상 잘못 되었다. 비생산적 노동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p. 41). "그리하여 국민의 절약심과 낭비심이라 하는 것은 다만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며 따라서 문제는 바로 그렇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책. p. 143).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페리에를 공포에 싸이게 한 A. 스미스의 논의를 대비하여 보자. "국민의 절약심은"—하고 페리에는 말한다—"존재하지만 그러나 스미스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절약심은 다만 자국의 생산물로써 지불할 수 있는 수량 만큼만 외국 생산물을 구매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절약심은 전적으로 외국 생산물 없이도 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같은 책 pp.174~175)

〈제1부 제6장(가르니에 역, 제1권 pp. 108~109)에서,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그 장의 마지막에서 A.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명국에서는 전체 교환 가치가 오직 노동에서만 발생하는 그러한 상품이란 거의 없으므로, 그리고 압도적 대부분의 상품의 교환 가치에는 지

대와 이윤이 상당한 정도로 들어 가므로 이 나라의 연 노동 생산물은 언제나 이 생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며 시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노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구매하여 자체에 종속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전체 노동을 매년 적용하였다면 이 노동량은 해마다 현저히 증대될 것이므로 그 다음 해마다 생산물은 전 해의 생산물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연 생산물의 전부가 노동자의 부양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다. 어디서나 생산물의 현저한 부분을 무위 도식자들이 소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상이한 두 계급의 사람들 간에 그 생산물이 분배되는 비율이 다름에 따라 그 생산물의 보통 가치 즉 평균 가치는 증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해마다 변함이 없거나 하지 않을 수 없다."

스미스가 사실상 축적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대목에는 각종의 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여기서는 노동의 연 생산물의 "교환 가치", 따라서 "연 노동 생산물"이 전부 임금과 이윤(여기에 지대도 포함하여)으로 분해된다는 그릇된 전제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되돌아 가지는
254 말자. 단지 다음과 같은 것 만을 지적하자. 연 생산물량—또는 연 노동 생산물을 이루는 재화, 상품 저장—은 그 현저한 부분이 ‖392‖ 그 현물 형태로 보아, 불변 자본의 요소로서 〈온갖 종류의 원료, 종자, 기계 등등〉 그 불변 자본에만 들어 갈 수 있는, 즉 산업적으로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써 이루어진다. 이 상품들(그런데 이것은 불변 자본에 들어가는 상품의 대부분이다)에 관하여는 그것들의 사용 가치 자체가 벌써,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금이건 이윤 또는 지대이건 간에 소득은 그 상품들로 소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원재료의 일부는(그것이 그 원재료의 자체의 재생산에 요구되지 않거나 보조 재료로서 또는 직접적 구성 부분으로서 고정 자본에 들어 가지 않는 한에서는)물론 나중에 가서는 소비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당년의 노동의 결과로만 가능하다. 지난 해의 노동의 생산물로서는 십지어 이 원재료도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지 못한다. 오직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부분만이 소비될 수 있으며 개인적 소비로 들어 갈 수 있고 따라서 소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십지어 소비할 수 있는 약간의 생산물 부분도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소비될 수 없다. 그리하여 상품들 중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산업적으로 소

비되어야 할, 즉 노동자들에게 있어서건 자본가들에게 있어서건 간에 생활 수단으로가 아니라 노동 재료, 종자 등등으로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온다. 따라서 생산물의 이 부분은 최초부터 A. 스미스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는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첨가되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이 의연 변함이 없다면 소득으로 분해되지 않는 생산물 부분은 매년 변함이 없다.—다만 노동 생산성이 변함 없는 조건 하에서 종전과 동일한 양의 노동 시간이 생산에 지출되기만 한다면.

매년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불변 자본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여야 한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처리하고 이 더 많은 노동량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즉 임금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외에 이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수단(원료와 고정 자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은 A. 스미스가 고찰하고 있는 점들을 해명한 이후에 더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미스의 첫구절을 다시 한 번 인용하자. 255.

"문명국에서는 전체 교환 가치가 오직 노동에서만 발생하는 그러한 상품이란 거의 없으므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의 교환 가치에는 지대와 이윤이 상당한 정도로 들어 가므로 이 나라의 연 노동 생산물은 언제나 이 생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며 시장에"(다시 말하면 그것의 생산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노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구매하여 자체에 종속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명백히 혼동되어 있으며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연 총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는 산 노동 뿐만 아니라, 즉 어떤 연간에 지출된 산 노동 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도 즉 지난 해들의 노동 생산물도 들어간다. 산 형태의 노동 뿐만 아니라 대상화된 형태의 노동도 들어간다.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시간—일부는 산 노동으로써 구성되며 일부는 대상화된 노동으로써 구성되는—의 합계와 같다.

산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비례가 1/3대 2/3 즉 1대 2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생산물의 가치가 3으로 되는데, 그 중 2는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 시간일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이 서로 등가물로서 교환되며 일정한 대상화된 노동량이 자기 자체와 동등한 산

노동량만을 자체에 종속시킨 전제에서 출발하기만 한다면 전체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산 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물은 3노동일과 동등한데, 그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 노동시간은 1노동일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실제로는 단지 그 요소들에 최종형태를 부여하는 데)는 하루의 산 노동으로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에는 3노동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생산물이 전적으로 산 노동 시간과 교환된다면, 만약 그것이 이런 또는 저런 양의 산 노동을 "구매하여 자체에 종속시키는"데만 적용된다면 생산물은 3노동일을 종속시키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 스미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명백히 이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혀 무익한 전제일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것이다. 즉 생산물의 교환가치 중 현저한 부분은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스미스는 "분해된다"는 말 대신에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개념의 혼동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그릇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윤과 지대로, 즉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려는 이윤으로 분해된다는
256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종 연간에 첨가된 노동량과 동등한 생산물 가치 부분—즉 사실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최종연간의 노동 생산물인 생산물 부분—은 첫째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며 둘째로 자본가의 소득에, 그의 소비 자금으로 들어간다. 총 생산물 중 이 부분 전체는 노동에서, 그것도 오직 노동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불 노동과 부불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은 지불 노동의 합계와 동등하며 이윤‖393‖은 부불 노동의 합계와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생산물 전체가 임금에 지출된다고 하면 그 생산물은 물론 그것을 생산한 노동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그 생산물이 가동시킬 수 있는 많은 노동 시간이, 생산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시간의 양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은 노동일이 지불 노동 시간과 부불 노동 시간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에 정확하게 의존할 것이다.

지불 노동 시간과 부불 노동 시간 간의 비율이 노동자가 6시간 동안에 즉 반노동일 동안에 자기 임금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된다고 하자. 그 때에는 나머지 6시간 즉 노동일의 절반은 잉여 시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예컨대 50파운드 스털링과 동등한 100노동일(만약 한

---

* 이 책 p. 105를 보라—편집자.

노동일이 10실링과 같다면 100 노동일은 1,000실링 즉 50파운드 스털링과 동등하다)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 중에서 25파운드 스털링은 임금으로 될 것이며 25파운드 스털링은 이윤(지대)으로 될 것이다. 50노동일과 동등한 25파운드 스털링이 100명의 노동자들에게 지불될 것인데, 이들은 자기 노동일의 절반은 무상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고용주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이 100 노동일의) 전체 생산물이 임금으로 지출된다면 50파운드 스털링으로써는 200명의 노동자들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들 중 누구나 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으로서 5실링을 즉 자기 노동의 생산물 중 절반을 받을 것이다. 이 노동자들의 생산물은 100파운드 스털링(즉 200 노동일은 2,000 실링, 즉 100파운드 스털링과 동등하다)을 이룰 것인데, 이것으로써 200파운드 스털링과 동등한 생산물을 내는 400명의 노동자들(매 노동자는 5실링을 받으며 400명의 노동자는 2,000 실링을 받는다)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A. 스미스가, "연 노동 생산물"은 언제나 생산물 생산에 적용된 노동량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구매하여 자체에 종속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의 생산물 전부가 지불된다면 즉 만약 100노동일의 대가로 그에게 50파운드 스털링이 지불된다면 이 50파운드 스털링은 역시 100 노동일만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A. 스미스는 계속 말한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전체 노동을 매년 적용한다면 이 노동량은 해마다 현저히 증대될 것이므로 그 다음 해마다 생산물은 그 전해의 생산물보다 비할 수 없으리만큼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물의 일부는 이윤과 지대의 소유자에게 먹히우며 일부는 257
그들에게 붙어 먹는 자들에게 먹히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노동(생산적)에 지출될 수 있는 생산물 부분은 자본가들, 지대를 받는 자들 및 그들에게 붙어 먹는 자들(동시에 비생산적 노동자들인)에게 먹히우지 않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는 어쨌든 지난 해의 노동 생산물에 의하여 주어진 연도에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를 가동시키기 위한 약간의 새로운 재화(새로운 임금과 자금)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연 생산물의 가치는 지출된 노동 시간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해마다 증대될 것이다.

지난 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구매하여 자체에 종속시킬" 수 있

는 재화를 가진다는 것은 만약 시장에 더 많은 노동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나에게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많으나 시장에 그 상품이 많지 못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다. 가령 50파운드 스털링 중에서 종전의 100명의 노동자(25파운드 스털링을 받던) 대신에 200명이 아니라 다만 150명의 노동자를 가동시킬 금액을 떼어 내는데 한편 자본가들 자신은 25파운드 스털링 대신에 12 ½ 파운드 스털링을 소비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150명의 노동자들(37½파운드 스털링을 받는)은 150일 노동을 낼 것인데, 이는 1,500 실링 즉, 75파운드 스털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들의 수요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0명 밖에 없다면 이 100명은 이제는 임금으로 종전의 25파운드 스털링 대신에 37½파운드 스털링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생산물은 여전히 50파운드 스털링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의 소득은 25파운드 스털링에서 12½파운드 스털링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 50%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A. 스미스는 증대된 양의 노동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인구의 매년 증가(물론 이 증가는 스미스의 의견에 의하면 종전의 임금액을 전제로 한다)에 의하여 가능하며, 부분적으로는 실업 극빈자, 반실업 노동자 등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많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있으므로 가능한데, 이들의 일부는 잉여 생산물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생산적 노동자로 전화 될 수 있다. 끝으로 동일한 수효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 내가 100명 대신에 125명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거나 100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12시간 대신에 15시간씩 일하거나 전혀 매일반이다.

더우기 생산적 자본의 증대에 따라—또는 연 생산물 중 재생산에 돌려질 부분의 증대에 따라—적용되는 노동(산 노동, 임금에 지출되는 자본부분)도 동일한 비율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마치도 전체 생산물이 소득으로 분해되는 듯이 보는 견해와 밀접히 결부된 A. 스미스의
258 오류이다.

‖ 394 ‖ 그리하여 우선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연도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며 자체에 종속시킬" 수 있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활 수단들의 자금이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노동이 있으며 동시에 이 노동을 위한 더 많은 생활 수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추가 노동량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A. 스미스가, 잉여 가치는 자본과 임금 노동과의 교환에서만 조성된다고 하는, 그가 본질상 가한 잉여 가치 분석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견지한다면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만이 생산적인 것으로 될 것이며 소득 그 자체와 교환되는 노동은 결코 생산적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소득이 생산적 노동과 교환되게 되자면 그것은 미리 자본으로 전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직접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일면적인 전통적 견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또 이 견해와 자기의 구분—자본과 노동간의 또는 소득과 노동 간의 교환에 기초하고 있는 한에서의—과를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자본과 교환되는 그러한 종류의 노동은 언제나 생산적이다(언제나 물질적 부를 창조한다 등등), 그런데 소득과 교환되는 그러한 종류의 노동은 생산적일 수 있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은 대다수 경우에 생산적 노동 대신에 이러저러한 직접 비생산적인 노동을 적용하기를 좋아 한다. 여기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A. 스미스는 자기의 두 구분을 이처럼 혼동함으로써 그 중의 주요한 구분을 대단히 약화시키며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

A. 스미스가 전적으로 노동의 고정화를 순전한 외적 고정화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음 인용문이 보여 주는데, 거기에서는 고정 자본의 다양한 구성 부분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 하고 있다:

"4) 주민들 즉 사회의 성원들이 가지게 된 유용 능력들. 이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그 습득자의 부양을 위하여 그가 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학생시절, 또는 그가 학습하는 동안에 한 실질적 지출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말하자면 그의 개성에 고정화 되고 대상화된 자본이다. 이 능력들은 그의 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시에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자산의 일부도 이루고있다. 노동자의 제고된 기능은 노동을 헐하게 하고 단축하며 그리고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덧붙여 이 지출을 보상하여 주는 기계 또는 도구들을 고찰하는 것과 같은 견지에서 고찰할 수 있다."(가르니에 역, 제2권, pp. 204~205)

259

축적의 기묘한 발생과 그 필요성:

"아무런 분업도 없었고 교환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그리고 매 개인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얻는 그러한 원시적

사회 상태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축적된 또는 미리 수집된 저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벌써 아무런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매 개인은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자기의 당면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자기 자신의 활동으로써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굶주리게 되면 숲 속으로 사냥하러 간다" 운운(같은 책, 제2권 pp.191~192)(제2부, 서론). "그러나 도처에 분업이 되자마자 개개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동만으로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욕망의 아주 적은 부분 밖에는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욕망의 훨씬 많은 부분을, 그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되었으며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로 또는 같은 것에 귀착되지만 자기 자신의 생산물 가격으로써 구매하는 물건으로 충족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를 그는 오직 자기 노동 생산물의 완전한 제조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판매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라야 할 수 있다".(첫째 경우에도 또한 그는 토끼를 미리 죽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으며 또 미리 고전적인 "활"이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죽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경우에 유일한 새로운 조건으로 되는 것은 그 어떤 "저장"의 필요성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동 생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가 이 두가지 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를 부양하기 위한 그리고 그 외에 그의 작업에 필요한 원료와 도구를 그에게 공급하기 위한 약간의, 미리 수집된 각종 물건의 저장이 어디엔가 있어야 한다. 직조업자는 그의 아마포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판매할 때까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건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건 간에 어디엔가, 그가 생존 수단과 또한 자기의 영업 도구와 자기의 작업용 재료를 얻어 낼 수 있는 미리 마련된 저장이 없으면 자기의 전문 작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 아주 명백한 것은 그가 이 일에 자기 노동을 투하하여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 시간에 축적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 자체로 보아 자본의 축적은 분업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같은 책 pp.192~193) (한편으로 스미스가 서두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마치도 분업 이전에는 아무러한 자본의 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는데—이는 그가 도리어 이제 와서는 자본의 축적 이전에는 아무런 분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스미스는 이렇게 계속한다. "분업은 오직 자본의 사전 축적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서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동일한

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가공될 수 있는 원료의 수량은 아주 크게 증대된다. 그런데 매개 노동자의 작업은 더욱더 단순한 조작에 귀착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쉽게 하며 ‖395‖ 덜기 위한 대량의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의 발전과 아울러 종전의 수효의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생존 수단과 덜 발전된 조건 하에 *260* 서 필요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의 원재료 및 노동 도구를 사전에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같은 책 pp.193~194) "자본의 사전 축적이 없이는 노동 생산력의 현저한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자본의 축적은 응당 그러한 성장을 가져온다. 자기 자본을 노동자들의 고용에 적용하는 사람은 자연, 노동자들이 될수록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자본을 적용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노동자들 간에 될수록 더 합목적적으로 노동을 분배하며 또한 그가 발명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좋은 기계를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려고 애쓴다. 이 두 면에서의 그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그의 자본의 크기 또는 그 자본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가동시키는 자본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노동량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본의 그러한 증대로 말미암아 동일한 노동량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한다."(같은 책 pp. 194~195)

이미 소비 자금 속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A. 스미스는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주택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그 주택이 논쟁할 여지 없이 그에게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역시 아주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의 소득이 아니라 지출의 일부를 이루는 그의 의복과 가구가 유용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유용할 뿐이다"(같은 책, pp.201~202). 그와는 반대로 고정 자본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유용한 목적에 복무하며, 그리고 세를 놓아 임대료를 받는 소유주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문 차용자에게 있어서도 소득을 얻어 내는 수단으로 되는 모든 건축물이 있는데, 상업용 건물, 창고, 작업장, 필요한 부속 건물과 마굿간과 곳간이 달린 저택 등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거주만을 위한 건물들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들은 일종의 생산 도구이다"(같은 책 pp.203~204)(제2부, 제1장).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덜 비싼 기계

를 사용하여 동일한 양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하는 기술의 모든 성과들은 언제나 사회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에는 보다 복잡하고 보다 비싼 기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일정한 양의 원재료와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이 이제는 작업— 이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기계들이 제작되었다—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같은 책, 제2권, pp.216~217)(제2부 제2장).

"고정 자본의 유지비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순소득에서 공제된다"(같은 책, 제2권, p.218). "고정 자본의 유지비에 있어서 노동 생산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온갖 절약은 기업을 작동시키는 자금을 증대 시키게 되며 따라서 토지와 노동이 연 생산물, 전체 사회의 실질 소득도 증대시키게된다"(같은 책 제2권, pp.226~227).

은행권, 일반적으로 지폐로 말미암아 국외로 구축된 현금은—만약 그것이 "국내 소비를 위한 외국상품의 구입에" 요컨대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무위 도식자들의 소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상품…"의 구입에 쓰이거나 "이윤을 붙여 자기의 연 소비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그런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가적 수효를 부양하며 고용하기 위한 원재료, 노동 도구, 및 생
261 존 수단의 추가적 자금을 구입하는 데…쓰이거나" 한다(같은 책, 제2권, pp. 231~232)

화폐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식은—하고 스미스는 말한다—낭비를 증대시키며"아무것도 생산에 첨가함이 없이 지출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이 방식은 모든 면에서 사회에 해로운 것이다"(같은 책, 제2권, p. 232) 그와는 반대로 "두번째 방식으로 지출된다면 화폐는 생산의 범위를 그 만큼 확장한다. 비록 그 화폐가 사회의 소비를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그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 원천을 열어 놓는다. 왜냐하면 이 추가량의 생산 수단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붙여서 자기 연 소비 가치 전부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같은 책 p. 232).

"주어진 자본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동의 양은 자명한 바이지만 그 자본이 작업의 성격에 알맞는 원재료, 노동 도구 및 생존 수단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수효와 동등하여야 한다"(같은 책, 제2권 p. 235)(제2부, 제2장).

‖ 396 ‖ 제2부, 제3장(같은 책, 제2권 p. 314 이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본다: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들, 또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은 모두가 똑 같이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로 부양된다. 이 생산물은,… 불가피하게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에 비생산적 노동자의 부양에 지출되는 생산물 부분이 적은가 또는 많은가에 따라서 생산적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은 전자의 경우에는 많이, 후자의 경우에는 적게 남으며 그에 따라 다음의 생산물은 증대되거나 감소된다…

비록 어떤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 총량이… 결국에 가서는 그 나라 주민의 소비에 충당되며 그들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산물이 토지나 생산적 노동자의 수중에 나오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당연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한부분은— 흔히 가장 많은 것인데— 우선 자본의 보상 즉 자본에 취해진 생존 수단,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갱신에 쓰이는 것이고 기타 부분은 그 자본의 소유주에게(이윤으로서) 또는 일부 기타 사람들에게(그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로서) 지불되는 소득을 형성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어떤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 중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생산적 노동자 이외의 어떤 다른 고용자들을 부양하는 데는 결코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그 부분에서 생산적 노동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불된다. 직접 소득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생산물 부분은… 생산적 노동자나 비생산적 노동자나 할 것 없이 똑 같이 그 부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다…

비생산적 노동자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소득으로 부양되는데, 첫째로는 지대로서나 자본 이윤으로서나 처음부터 어떤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연 생산물 부분으로 부양되거나, 둘째로는 자본을 보상하고 생산적 노동자들 만을 부양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생산적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 가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사람의 부양에도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부양에도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연 생산물 부분으로 부양되거나 한다. 그리하여 단순 노동자가 그의 임금이 높다면 스스로 종을 부리거나 또는 때때로 희극을 구경하거나 인형 극장에 갈…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비생산적 노동자 계급들 중 어떤 계급을 부양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며 또는 끝으로 그 노동자는 약간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런 계급들 중… 그만큼 비생산적인 다른 계급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연 생산물 중 처음부터 자본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도 그에 해당하는 생산적 노동의 전체 양을 가동시키기 전

에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부양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노동자는 비록 아주 적은 지출이라 하더라도 비생산적 노동이 지출하기 전에 자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임금을 벌어야 한다… 지대와 자본 이윤은 … 어디서나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자기 부양비를 얻어 내는 주요 원천이다. 이 두 소득은 생산적 노동자도 비생산적 노동자도 똑 같이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수입자들은 항상 후자에 약간의 호의를 더 표시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매개 나라에서의 생산적 노동자 수와 비생산적 노동자 수 간의 비율은 주로는 연 생산물 중 토지에서 또는 그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수중에 떨어져 나온 후 자본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과 지대 또는 이윤으로서 소득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 간의 비율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 비율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에서 대단히 상이한 것이다"

다음에 스미스는 지금 "토지 생산물의 아주 많은, 때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부유하고 독립적인 차지 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 유럽의 부유한 국민들에게"존재하는 사태를, "토지 경작에 적용된 자본을 보상하는 데 대단히 적은 생산물 부분으로 충분한", 그와는 정반대되는 "봉건 제도의 지배"하에서 존재한 사태와 비교하고 있다. 상업에서나 공업에서나 사정은 같다. 현재 상공업에서 거액의 자본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자본은 아주 보잘것 없었으나 대단히 많은 이윤을 가져왔었다. "어디에서나 이자율이 10 이하가 아니었으며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은 그처럼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커야 했다. 지금 유럽의 보다 발전한 나라들에서 대부 이자율은 어디서나 6을 넘지 못하며 가장 부유한 나라들 에서는 그것이 4, 3, 2이다. 만약 주민들의 소득 중 이윤에서 생기는 부분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보다 훨씬 크다면 그것은 거기서는 자본이 보다 훨씬 큰 규모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자본에 비하여 이윤은 보통 훨씬 적다.

그리하여 연 생산물 중 토지에서 또는 생산적 노동자의 수중에서 떨어져 나온 후 자본을 보상 ‖ 397 ‖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클 뿐만 아니라 또한 지대 또는 이윤으로서 소득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백분율에서도 훨씬 높은 것이다.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 재화는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보다 훨씬 풍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록 생산적 노

동자도 비생산적 노동자도 동일하게 부양하는 데 쓰일 수 있으나 보통 후자의 부양에 주로 지출되는 재화에 대한 백분율에서도 높다"

(스미스는 생산적 자본의 크기를 그 자본 중에서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크기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고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공업이 아직 그에게는 사실상 그 맹아 상태에서만 알려져 있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 상이한 두 종류의 재화 간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매개 나라에서 263
그 주민의 일반적 성격인 근면한가 나태한가를 규정한다". 그리하여 예컨대—하고 스미스는 말한다—"인민의 하층 계급이 주로, 적용되는 자본의 덕분으로 살아 가는 영국과 화란의 공업 도시들에서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근면하며 절제심과 저축심이 많다. 이와는 반대로 궁성 등등이 있으며 인민의 하층 계급이 상류 계급의 소득 지출의 덕분으로 살아가는 수도들에서는 그들은 통례로 나태하고 방탕하며 가난하다. 이러한 실례로서는 로마, 베르사이유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 총액과 소득 총액간의 비율은 어디에서나 근면과 나태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자본이 우세를 차지하는 모든 곳에서는 근면이 지배하며 소득이 우세를 차지하는 모든 곳에서는 나태가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량의 온갖 증대 또는 감소는 자연 생산적 활동의 총계, 생산적 노동자들의 수효, 따라서 어떤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 생산물의 교환가치, 그 나라 전체 주민들의 부와 실질 소득이 현실적으로 증대 또는 감소되게 한다…

연간에 저축되는 것은 연간에 지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소비되며 그것도 대체로 같은 시간에 소비된다. 그것은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다. 연간에 지출되는 소득 부분은 자기들의 소비를 보상할 아무것도 전혀 남겨놓지 않은 하인들, 쓸모없는 식구들 등등에 의하여 소비된다. 그런데 연간에 저축되는 소득 부분은 자기의 연간 소비의 가치를 이윤을 붙여서 재생산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된다… 소비는 동일한데 소비자들은 상이하다… ".

이로부터 자기의 매년의 저축으로써 마치 추가적 수효의 생산적 노동자들을 위한 공설 작업장을 창설한다는 저축심 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한 스미스의 설교(같은 장에서 좀더 나아가 pp.328~239이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해당한 수효의 생산적 노동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일종의 영구적인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며 한편 "낭비자는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양을 감소시킨다…만약 이처럼"(낭비자의

낭비의 결과로)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소비한 수량의 식료품과 의류가 생산적 노동자들 간에 분배된다면 이 노동자들은 그들이 소비한 것의 전체 가치를 그것도 이윤을 붙여서 재생산할 것이다…"

이 모든 도덕을 스미스는 그것(절약과 낭비)이 개인들 간에서 상쇄되며 실제로는 "이성"이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는 주장으로써 완성하고 있다. 대민족들은 "비록 자기 정부의 낭비 행위와 무분별로 말미암아 가난해지지만 사사로운 인물의 낭비 행위와 무분별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법은 결코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전체 또는 거의 전체의 국민 소득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궁중 신하들, 교회, 육해군이 속하는데, 이 육해군은 평화시기에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전쟁 시기에도 그들의 유비지를 전쟁 그 자체의 계속 기간에만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 그런 것은 전혀 얻어 내지 못한다. "그 자
264 신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 생산물에 의하여 부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늘 때에는 그들은 이 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소비해 버림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다음 해에 그 생산물을 재생산하게 될 생산적 노동자들의 부양에 불충분한 것으로 될 수 있다…"[같은 책. 제2권, pp. 314~336].

제2부, 제4장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 기금이 날마다 성장하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역시 날마다 성장한다. 노동자들ll 398 l은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본의 소유자들은 그들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얻는 데 곤란을 겪는다. 자본가들의 경쟁은 임금을 올리며 이윤을 낮춘다"(같은 책, 제2권, p. 359).

제2부, 제5장 "자본의 상이한 적용 방식에 관하여"에서 스미스는 자본이 얼마만한 양의 생산적 노동에 일자리를 주며 따라서 연 생산물의 "교환가치"를 얼마 만큼 증대시키는가에 따라서 자본의 상이한 종류들을 분류하고있다. 첫 자리에 스미스는 농업을 내세운다. 다음에는 매뉴팩쳐 그 다음에는 상업 , 마지막으로는 소매상업을 내세운다. 자본이 가동시키는 생산적 노동의 양에 따라 스미스가 자본 적용의 이 종류들을 배열하는 순위는 이러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적 노동자"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규정을 보게 된다. 즉 그것은 "이 네 가지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하여 적용되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이 생산적 노동자이다. 그들의 노동은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그것이 투하된 물건 또는 상품에 고

정되고 실현되며 보통 이 상품의 가격에다 적어도 그들 개인의 부양 및 소비의 가치를 첨가한다"(같은 책. 제2권, p. 374). (대체로 스미스는 자본의 생산성을 그것이 생산적 노동을 가동시킨다는 데 귀착시키고 있다).

차지 농업가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같은 크기의 어떠한 자본도 차지 농업가와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가동시키지 못한다. 차지 농업가의 고농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역축도 생산적 노동자이다"[같은 책, 제2권, p. 376]. 따라서 결국에 가서는 황소도 생산적 노동자이다.

[12.] 로더데일 백작 [지배 계급들을 가장 중요한 종류의 생산적 노동의 대표자로 보는 변호론적 견해]

로더데일(백작) 『국민 부의 본성과 기원에 대한 연구』, 런던, 1804년(불어 역, 파리, 1808년).

로더데일이 내세우는 이윤에 대한 변호론적 논증은 앞으로 나중에 제3편[77]에서 비로소 고찰되어야 한다. 이 변호론적 견해에 의하면 이윤은 265
자본이 노동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자본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수행하든가 또는 자본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결코 수행할 수 없을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다. 즉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은 언제나,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노동의 일부를 자본이 대신하기 때문이든가 또는 자본이, 인간의 체력을 초월하여 인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을 그런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이 현재는 명백하다"는 것이다(불어 역, P. 119).

"백작"선생은 축적과 절약에 관한 스미스의 학설의 맹렬한 반대자이다. 그는 또한 스미스가 제기한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간의 구별의 맹렬한 반대자이다. 그런데 그의 의견에 의하면 스미스가 "생산적 노동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생산적 자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스미스가 내세우는 잉여 가치에 대한 해명을 단도직입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이다. "만약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한 이 이해가 엄격한 의미에서 정확하다면 이로부터 이윤은

소득의 본원적 원천이 아니라 다만 파생적 원천에 불과하며, 자본이 가져 오는 이윤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로부터 자본가의 호주머니에로의 소득의 이전일 따름이므로 자본은 부의 원천의 하나로 간주할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같은 책, PP. 116~117).

이런 전제 하에서 로더데일이 스미스를 반대하는 그의 논쟁에서도 아주 천박한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투하된 대상의 그 후 용도에 따라서 생산적인 것으로도 비생산적인 것으로도 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금방 먹어 치울 토르테 과자를 나의 요리사가 만든다면 그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며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이 봉사가 제공되자마자 곧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 없는 노동이다. 그러나 그와 꼭 같은 노동이 제과점에서 수행된다면 그것은 생산적 노동으로 된다."(같은 책, P. 110).(이 경우에서 이 특허권은 가르니에에게 속하는데, 그것은 그의 주해가 달린 스미스의 가르니에 판은 1802년에, 즉 로더데일의 책이 나오기 2년 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제공되는 봉사의 장기성에만 근거하는 이상한 이 구별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생산적 노동자 속에 넣는다. 군주, 교회인과 사법관들, 국가 방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공민의 건강을 유지케 하여 주며 그들의 지능을 배양하여 주는…솜씨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여—비생산적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다"(같은 책,
266 PP. 110~111). (또는 A. 스미스가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려, 법률가, 의사, 각종 작가, 연극 배우, 광대, 음악가, 오페라 가수, 무용가 등등""이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교환 가치가 부의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교리의 오류를 보여 주기 위하여 장황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 봉사들에 대한 보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존경 이상으로 더 훌륭히 이 교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399‖도 없다"[로더데일, 같은책, P. 111]

그리고 또:"메뉴팩쳐 노동자의 노동은 어떤 것이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며 대상화된다… 물론 종의 노동도 유동 자본에 의하여 절약되는 노동도" 〈로더데일은 "유동 자본"이라고 할 때 화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축적을 형성하지 않으며 일정한 가치 대신에 한 사람이 다

---

* 가르니에 역, 제2권, P. 313—편집자.

른 사람에게 넘겨 줄수 있는 재화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 노동들이 가져오는 이득은 똑같이 그 노동들이 주인 또는 소유자의 노동을 절약하는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그 노동들은 그 중의 하나를 비생산적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른 것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리만큼 비슷한 결과를 준다"〈이렇게 쓴 다음 로더데일은 스미스의 제2부, 제2장[78]을 인용하고 있다.〉(로더데일, 같은 책, PP. 144~145).

* * *

그리하여 이런 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즉 페리에, 가르니에, 로더데일, 가닐. "노동의 절약"에 대하여 언급한 마지막 문구는 토크빌이 특히 즐겨 쓴 말이다.

[13. 세이의 "비물질적 생산물"의 개념. 비생산적 노동의 걷잡을 수 없는 성장의 정당화]

가르니에 역이 발행된 후에 천박한 J. B. 세이의 『정치 경제학 개론』이 발행되었다. 그는 스미스가 "의사, 음악가, 배우의 활동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생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을 비생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제3판, 제1권, P. 117)고 스미스를 질책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이러저러한 "결과", 즉 이러저러한 "생산물"을 낳는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국가 공무원")의 "연간 노동의 결과"로서의 "국가의 안전, 평온, 방위"에 대하여 직접 상기시키고 있다(스미스, 제2부, 제3장;가르니에 역, 제2권, P. 313).

한편 세이는 스미스의 보충적 규정을 지지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봉사들"과 그 생산물은 "보통 그것들이 수행되는 순간에, 즉 그것들이 생산되는 순간에 소멸한다"(스미스, 같은 장)는 것이다. 세이씨는 이렇게 소비된 "봉사들" 또는 그 생산물들, 그 결과들—간단히 말하면 그 사용 가치—을 "비물질적 생산물 또는 생산되는 순간에 소비되는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 267

비생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는 그들을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그들은 국민 자본의 증대에 이바지하지 않는다"(제1권, P. 119)라고 언명한다. "많은 수의 음악가, 승려, 관리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며 종교 문제들을 훌륭히 풀 수 있으며 훌륭히 통치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뿐이다. 이 국민의 자본은 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에서 아무런 직접적인 증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생산물은 그것이 창조되는 순간에 소비되기 때문이다."(같은 책, P. 119).

그리하여 세이씨는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스미스식 규정의 극히 제한된 의미에서 비생산적이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르니에가 이룩한 "일보 전진"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생산적인 종류의 노동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발명해 내고 있다. 여기에 그의 독특한 독창성, 생산성 및 발견의 수법이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평범한 논리로써 다시금 자기 자신을 논박한다. 그는 말한다:"의사, 법률가 기타 유사한 인물들의 노동이 생산적이라는 데로부터 한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한 노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기타의 온갖 노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가르니에씨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같은 책, P. 120). 그러나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종류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생산적 노동의 양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한 국민에게 있어서 유리"한데 어째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가?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째서 기타 온갖 종류의 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유리하지 않는가? 왜냐 하면—하고 세이는 그에게 특징적인 심각한 태도로 대답한다—어떤 종류의 생산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에 대한 수요 이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르니에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노동이나 저런 종류의 노동이나 일정한 한도이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동일하게 유리하다, 즉 동일하게 불리하다.

"여기에서는"—하고 세이는 계속한다—"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지출한 육체적 노동의 경우와 동일한 일이 진행된다". (책상을 만드는 데는 책상 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목수 노동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환자의 몸을 고치는 데는 그 치료에 필요한 것보

다 더 많은 노동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변호사와 의사들은 그들의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만을 지출하여야 한다.)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은 기타 온갖 노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산물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그럼으로써 그 가치(즉 그 사용 가치인데 세이는 유용성과 교환가치를 혼동하고 있다)를 증대시키는 한에 있어서만 생산적 268
이다". 다시 말하면 "그 노동이 이 한계를 넘어서면 전혀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된다"(같은책, P. 120).

따라서 세이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비물질적 생산물의 생산자"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질적 생산자 수를 증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유용하지 못하다. 그 증거는 물질적이건 비물질적이건 간에 어떤 생산물의 생산자 수를 수요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절대로 무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생산물의 무용한 생산자들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비물질적 생산물의 무용한 생산자들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용하다. 두 경우에 다 이 생산자들 전체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문에서 어떤 일정한 생산들의 생산자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으로 된다.

세이의 견해에 의하면 물질적 생산물들은 ‖ 400 ‖ 비물질적 생산물들과 꼭 마찬가지로 결코 지나치게 많은 수량으로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에서 각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이씨는 "일부 생산물을 판매가 지체되는 것은 일부 기타 생산물이 희귀하기 때문이다"[같은 책, 제1권, P. 438]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즉 결코 지나치게 많은 식탁이 생산될수 없으며 기껏해서 이 식탁 위에 오를 접시가 지나치게 적게 생산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의사 수가 지나치게 증가되면 재난은 그들의 봉사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물질적 생산물"의 기타 생산자들, 예컨데 매춘부의 봉사가 지나치게 적게 제공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같은책, P. 123를 보라, 거기에서는 운반부, 매춘부 등등의 노동이 일률적으로 취급되었으며 거기서 세이는 매춘부에 대한 "교양 시간"은 "무효로 된다"는 주장을 감히 내놓고 있다).

결국 세이는 "비생산적 노동자"에게 편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

* 원문 variatio delectat –역자.

생산 조건 하에서는 식탁을 만드는데 얼마 만한 노동자들이 필요하며 일정한 생산물을 만드는 데는 일정한 종류의 노동량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가 항상 정확히 알려져 있다. 많은 "비물질적 생산물"은 문제가 달리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노동량을 규정하는 것은 결과 그 자체 만큼이나 추측적이다. 20명의 승려들을 아마도 한 명으로는 해낼 수 없는 죄 많은 사람의 개전(改悛)을 공동으로 달성할수 있을 것이며 서로 협의하는 6명의 의사들은 아마도 한 명의 의사가 혼자서는 찾아 낼 수 없는 치료 방법을 찾아 낼 것이다. 판사 집단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따름인 개별적 판사를 보다 더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방에 얼마 만한 병사가 요구되며, 국내
269 질서의 유지에 얼마 만한 경찰관이 요구되며 훌륭한 국가 "관리"에는 얼마 만한 관리가 필요한가 등등—이 모든 것은 문제거리여서 영국에서는 1,000 파운드의 방사를 생산하는 데 얼마 만한 양의 방적공의 노동이 필요한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예컨대 영국 의회에서 아주 흔히 논쟁 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기타 "생산적" 노동자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에 대한 개념 자체 속에,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바로 그들의 수효에만 달려 있으며 그들의 수량 자체에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종들에 대하여 문제가 이렇게 제기는데, 이들은 자기 주인의 부와 고귀한 신분의 증거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의 수효가 많을수록 그들이 "생산"하여야 할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씨는 "비생산적 노동자" 수는 결코 충분한 정도로 증대될 수 없다는 자기 의견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400 ‖

[14.] 데스튜트 드 트라시 백작 [이윤 성립에 관한 비속한 견해, "활동적 자본가"를 유일한 생산적 노동자라고 선포]

‖ 400 ‖ 데스튜트 드 트라시 백작 『이데올로기의 제 요소』, 제4및 제5부. 『의지와 그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초판은 1815년에 나왔다).

"온갖 유용 노동은 진실로 생산적이며 따라서 사회의 온갖 근로계급은 동일하게 생산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 한다"(P. 88). 그러나 이 생산적 계급 중에서 데스튜트 드 트라시는 "우리의 모든 부를 직접 생산하는

근로계급"(P. 83) 즉 스미스가 생산적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비생산적 계급은 지대 또는 화폐 임료를 소비하는 부자들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무위 도식하는 계급"이다. "진정한 비생산적 계급은 무위 도식하는 사람들의 계급인데,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수행된 노동의 생산물, 즉 그들이 대여하는 다시 말해서 이러저러한 노동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에 실현되었거나 또는 역시 하나의 임대를 의미하는, 일정한 보상을 받고 그들이 빌려 주는 화폐나 물건으로써 이루어지는 생산물로 이를테면 고상하게 생활하는 데만 몰두한다. 이것은 그야 말로 벌통의 수펄들이다 (fruges consumere nati*)"(P. 87).이 무위 도식자들은 "자기 소득만을 지출할수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자본을 소비ǁ 401 ǀ한다면 그 자본은 벌써 아무것으로써도 보상되지 않으며 그들의 소비는 일시 지나치게 늘어간 다음에는 완전히 정지되고 만다(P. 237).

"이 소득은 근로하는 공민의 활동의 산물 중에서 공제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p.236)

이 "무위 도식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무위 도식자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한에서는 그들은 직접 노동을 소비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물을 소비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위 도식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직접 지출하 *270*
여 구매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따라서 임금을 자본에서가 아니라 직접 소득에서 받는 노동자들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것"(소득)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위 도식자이므로 그들이 아무런 생산적 노동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에게서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향락을 제공할 유일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향락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전체 계급의 지출은… 수다한 주민을 부양하는데, 그들은이 주민의 생존을 보장하여 주나 이 주민의 노동은 전혀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지출의 일부는 다소간 유익한 것일 수 있는데, 예컨데 주택의 건설, 토지 개량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며 그때문에 무위 도식자들은 일시 생산적 노동의 지도자로 되는 것이다. 그다지 중요치 않는 이 예외를 제외한다면 이런 종류의 자본가들의 모든 소비는 재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순전한 손

---

* 열매를 맛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호라티우스)-편집자.

실이며 생산된 부에서의 해당한 공제인 것이다"(p. 236).

〈고유한 스미스 식 정치 경제학은 자본가를 다만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G—W—G*로서, 생산 대표자로서 본다. 그런데 누가 생산되는 생산물을 소비해야 하는가? 노동자인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자본가 자신인가? 그렇게 되면 그는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대소비자로서 "무위도식자"로서 나서게 된다. 지대 및 화폐 임료의 수입자들인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소비한 것을 재생산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그렇기는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재물 수집자인 환상적인 재물 수집자와는 다른 현실적인 재물 수집자로서만 자본가를 보는 이 모순된 견해 속에는 두 가지 옳은 점이 있다:1) 자본(따라서 자본가, 자본의 인격화)은 다만 생산력과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만 고찰되고 있다. 2) 여기에서는 상승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견지가 표명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소비가 아니라 부가 의의를 가진다. 소비적인 부는 상승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는, 이 사회 자체가 착취와 소비를 결부시키는 것을 배우며 소비적 부를 자기에게 종속시킬 때까지는 지나친 사치로서 나타났다.〉

"이 소득"(무위 도식자들의 생활 밑천이 되는)"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아 내기 위하여서는 항상 활동적 자본가들에게로 돌아 가야 한다"(p. 237, 주). "활동적 자본가들"—두 번째 종류의 자본가들—"은 임의의 경제 부문의 모든 기업가들 즉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대신에 그것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과 자기 노동을 사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써, 소득으로써가 아니라 이윤으로써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한다"(p. 237).

271 데스튜트에게서는—A. 스미스에게서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생산적 노동자들에 대한 외견 상의 찬미가 사실상은 "활동적 자본가들"을 토지 소유자들과 단순히 자기 소득으로써 생활하는 화폐 자본가들에게 대치시켜 찬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활동적 자본가들은… 자기 수중에 사회의 거의 모든 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이 부에 대한 임료 뿐만 아니라 자본 자체도 지출하고 있으며 때로는 사업이 충분히 빨리 진행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그들은 한해에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실업가로서 지출을 하되 그것은 다만 그 지출이 이윤을 내면서 그에게 돌아 오게 하기 위하여서이므로 그들의 이윤은, 그들이 이런

조건 하에서 더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기 때문이다"(pp. 237~238).

그들의 개인적 소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절도가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실업가들이란 보통 검박하기 때문이다"(238). 그들의 산업적 소비는 문제가 다르다. "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윤이 붙어서 그들에게로 복귀한다"(같은 곳). 그들의 이윤은 그들의 "개인적 소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대와 그들이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서 얻어서 이용하는 화폐에 대한 임료"를 지불할 만큼 많아야 한다(P. 238). 이 점에서는 데스튜트는 옳다. 지대와 화폐 임료는 산업 이윤에서의 "공제"일 따름이며 활동적 자본가가 자기의 총 이윤에서 토지 소유자와 화폐 자본가에게 내주는, 산업 이윤의 부분들일 따름이다.

"무위 도식하는 부자의 소득—이것은 생산에서 받아 내는 임료에 불과한 것이며 오직 생산만이 이 소득을 조성하는 것이다"(p. 248). 활동적 자본가들은 "임료를 지불하고 그들"(즉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의 토지와 그들의 집을 빌리며 그들의 화폐를 차용하며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임료" 즉 그들이 놀고 먹는 자들에게 지불하며 따라서 이윤의 일부만을 이루는 임료의 "규모를 증가하는 이윤을 끌어낸다"[p. 237]. 활동적 자본가들이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이와 같이 지불하는 이 임료는 "그 무위 도식자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그들의 매년의 지출의 유일한 자금이다" (p. 238).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것은 괜찮다. 그러나 "고용되는 사람들"(활동적 자본가들이 적용하는 생산적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문제가 어떻게 서겠는가?

"그들은 자기의 일상적 노동 이외에 다른 아무런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노동은 그들에게 임금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임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임금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을 파는데 402 | 상대자들의 재산에서, 즉 사전에 고용주에게 점유되어 있으며 이전에 수행된 노동의 축적된 생산물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재화에서 나오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로부터 비록 이 부에 의하여 지불되는 소비는 그것이 바로 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임금 노동자들의 소비이지만 본질상으로는 소비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며 또는 적어도 그들은 미리 고용주들의 수중에 있는 자금에서만 소비에 대하여 지불한다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비는 봉급을 주어 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에
272 의하여 실현되는 소비라고 보아야 한다.그들은 다만 한 손으로는 받고 다른 손으로는 도로 내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임금 노동자들)"이 지출하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모든 것도 그들의 노동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지출이라고, 그리고 이 후자들 자신의 소비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진실이어서 이 소비가 현존하는 부에 많은 손실을 끼치는가 또는 적은 손실을 끼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증대를 촉진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본가들이 구매하는 노동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PP. 234~235).

훌륭하다. 그런데 기업가들 자신과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 등등에게 소득을 지불할 가능성을 주는 기업가들의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상이한 생산 부문의 이 기업가들이 어떻게 하여 그처럼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디서 그것을 짜 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는 받는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산한 온갖 생산물을 그 생산에 든 것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p. 239).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그 값보다 비싸게 파는가?

"그들은 그것을

1)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고 그들의 이윤의 일부로써 그들이 지불하는 그들의 전체 소비 부분 만큼 상호 판매하며,

2) 임금 노동자들—즉 그들 자신이 고용하는 사람들이나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나—에게 판매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임금 노동자들로부터 이들이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저축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임금 총액을 되돌려 받는다.

3)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판매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득 중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직 내주지 않은 부분으로써 그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활동적 자본가들이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전체 임료는 이러저러한 길을 통하여 활동적 자본가들에게로 환류한다"(같은 책, p. 239).

여기에서 판매를 구분하고 있는 이 세 개 항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활동적 자본가들은 자기 생산물(또는 이윤)의 일부분을 스스로 써버린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자기들의 생산물을 그것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보다 비싸게 서로 파는 것으로써는 결코 부유해질수 없다. 또한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속일수 없다. 만약 *A*가, 활동적 자본가인 *B*가 소비하는 자기의 생산물을 너무 비싸게 판다면 *B*도 활동적 자본가인 *A*가 소비하는 자기의 생산물을 너무 비싸게 팔 것이다. 이것은 *A*와 *B*가 서로 자기 생산물을 그 현실적 가치 대로 파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첫째 항목은 자본가들이 자기 이윤의 일부분을 어떻게 지출하는가 하는 것은 보여 주고 있으나 그들이 그 부분을 어디서 끌어 내는가 하는 것은 보여 주지 않는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이 생산한 온갖 생산물을 그 생산에 든 것보다 비싸게 서로파는"것으로써는 아무런 이윤도 얻지 못 한다.

2) 그들은 그들이 자기 노동자들에게 생산비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 *273*
하는 생산물 부분에서도 역시 아무런 이윤도 끌어 낼수 없다. 전제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모든 소비는 사실상 "그들의 노동을 구매하는 사람들 자신의 소비"이다. 그 밖에 또 데스튜트는 자본가들이 자기의 생산물을 고용된 노동자들(자기들 자신의 노동자들과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임금 총액을 되돌려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언하고 있다. 심지어 되돌려 받는 것은 총액 전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저축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생산물을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것은 전혀 상관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준 것을 도로 받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임금 노동자들은 "한 손으로 받고 다른 손으로는 도로 내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는 처음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서 화폐를 지불한다. 다음에 자본가는 자기 생산물을 노동자들에게 너무 "비싸게" 팔며 그리하여 화폐를 회수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가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그에게 돌려 줄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는 결코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의 대가로 지불한 것보다 비싸게 자기 생산물을 팔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는 언제나 자기 생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가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의 대가로 내준 것 만큼의 화폐를 노동자에게서 도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 푼도 더 많을 수 없다. 이 "유통"의 결과 자본가의 화폐량이 증대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 403 ‖ 그 뿐만 아니라 데스튜트에게서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것을 찾아 볼수 있다. 자본가 *C*는 노동자 *A*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주 임금을 지불

하고 다음에 1파운드 스털링의 상품을 그에게 판매함으로써 이 1파운드 스털링을 회수한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는 임금 총액을 되돌려 받는다고 트라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는 처음에 노동자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화폐를 내주며 다음에는 그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상품을 내주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사실상 준 것은2파운드 스털링을 이룬다. 즉 1파운드 스털링을 상품으로, 1 파운드 스털링은 화폐로 주었다. 이 2파운드 스털링 중에서 자본가는 1파운드 스털링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그리하여 1파운드 스털링의 임금 중에서 자본가는 사실상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다. 그러니 만약 자본가가 이렇게 임금을 "회수"함으로써(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상품으로 선대한 것을 노동자가 노동으로써 자본가에게 되돌려 줌으로써가 아니라) 부유해져야 한다고 하면 그는 곧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존귀한 데스튜트는 여기에서 화폐 유통과 현실적 상품유통을 혼동하고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상품을 직접 줄 대신에 그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화폐를 주므로—이로 말미암아 노동자는 이제는 스스로 어떤 상품을 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수 있다—또한 노동자는 자기몫에 해당한 상품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본가가 자기 상품을 받는 데 대하여 노동자에게 준 지불명령서를 화폐 형태로 자본가에게 반환하므로, 자본가는 동일한 주화가 자기에게 되돌아 올 때에 임금을 "회수한다"고 데스튜트는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서 데스튜트
274 씨는 유통현상은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p. 239)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그 현상은 그자신에게는 전혀 알려지고 있지않다. 데스튜트가 이런 독창적 방법으로 "임금 총액의 회수"를 설명하지않았던들, 그 불합리성은 적어도 우리가 곧 언급하게 될 그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총명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리 또 하나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 두자. 내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 주인이 나에게 1파운드 스털링을 내 주어서 내가 그 1파운드 스털링으로 그의 상점에서 1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을 산다면 그는 이 1파운드 스털링을 회수한다. 누구도 상점 주인이 이런 짓을 한 결과 부유해졌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1파운드 스털링의 화폐와 1파운드 스털링의 상품 대신에 그에게는 이제는 1파운드 스털링의 화폐 밖에 없다. 심지어 그의 상품의 가치가 10실링에 불과한데 그는 나에게 그것을 1파운드 스털링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비록 자기가 내준 금액 총액 즉 1파운드 스털

링을 회수하였지만 그래도 판매 이전에 비하여는 10실링 만큼 가난하여진 것이다.)

자본가 C가 노동자에게 1파운드 스털링의 임금을 주고 다음에 10실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노동자에게 1파운드 스털링으로 팔았다고 하면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10실링 비싸게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10실링의 이윤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데스튜트 씨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 때문에 어떻게 C를 위한 이윤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윤으로 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며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과 교환으로 명목상 그에게 주는 것보다 사실상 적은 생산물 부분을 주기 때문에 생겨 나는 것이다.) 만약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10실링을 주고 그에게 자기의 상품을 10실링으로 판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1파운드 스털링을 주고 10실링의 가치가 있는 자기의 상품을 1파운드 스털링으로 파는 때와 마찬가지로 부유할 것이다. 게다가 데스튜트는 자기 고찰에서 필요 임금의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껏해야 이윤에 대한 모든 설명이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속임 수작으로 될 뿐이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경우는 데스튜트가 생산적 노동자란 무엇인가를 전혀 망각하고 이윤의 원천에 대하여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껏해야 자본가는 생산물을 자기 자신의 임금 노동자들에게가 아니라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의 임금 노동자들에게 파는 한에서 생산물을 그 가치이상으로팔음으로써 이윤을 조성한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소비는 사실상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의 소비의 일부분을 이루는 데 불과하므로 우리는 이제는 세째 경우로 넘어 가 보자.

3) 세째로, 활동적 자본가들은 자기 생산물을 그 가치 이상으로 너무 "비싸게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판매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 *275*
득 중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직 내주지 않은 부분으로써 그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활동적 자본가들이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전체 임료는 이러저러한 길을 통하여 활동적 자본가들에게로 환류한다".

이 대목에서는 앞서 고찰한 임금 총액의 회수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료의 환류에 관한 유치한 견해 등등을 다시금 보게 된다. 예컨대 C가 100파운드 스털링의 지대 또는 화폐 임료를 O(무위 도식하는 자본

가)에게 지불한다고 하자. 100파운드 스털링은 C에게 있어서는 지불 수단이며 O에게 있어서는 구매 수단인데, O는 이 화폐로 C의 창고에서 100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을 끌어 낸다. 그리하여 이 100파운드 스털링은 C에게로, 그의 상품의 전화된 형태로서 복귀한다. 그런데 C는 이제는 이전보다 100파운드 스털링 분 만큼 상품을 적게 가지고 있다. O에게 직접 상품을 줄 대신에 그는 O에게 100파운드 스털링의 화폐를 주었으며 O는 이 화폐로 C에게서 100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파운드 스털링 분의 이 상품을 O는 자신의 재화 중의 자금으로가 아니라 C의 화폐로 구매한다. 그리하여 트라시는 C가 O에게 지불한 임료가 이렇게 되어 C에게로 되돌아 온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이것이 첫째로 불합리한 점이다.

둘째로 데스튜트는, 지대와 화폐 임료는 활동적 자본가의 이윤에서 공제한것, 따라서 그 이윤 중에서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에게 내준 부분에 불과하다고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제 트라시가 묘사한 바와 같은 두 방도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서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C가 어떤 간책으로든 그 부분 전부를 ‖404‖ 되돌려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자본가 C가 토지소유자에게도, 화폐 자본가에게도 아무런 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의 이윤 전부를 차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어디서 이윤을 취하며 어떻게 이윤을 조성하며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C가 이윤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와 화폐 자본가에게 내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거나 또는 차지하는 것으로써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은 그가 이전에 무위 도식하는 자본에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내준 이윤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로 도로 옮겨 놓았다는 것으로써도 설명할수 없다. 이것은 두 번째로 불합리한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사상하자. C는 O(무위 도식하는 자본가)에게서 빌린(loué) 토지나 자본에 대하여 그에게 100파운드 스털링의 임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는 이 100파운드 스털링을 자기의 이윤(이것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중에서 지불한다. 다음에 C는 직접 O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들(비생산적 임금 노동자들)이 소비하게 되는 자기의 생산물을 O에게 판매하는데, 이에 있어서 C는 이 생산물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예컨대 그 가치보다 25% 비싸게 판다. 80파운

드 스털링의 가치가 있는 생산물을 그는 O에게 100파운드 스털링으로 판다. 이 경우에 C는 20파운드 스털링의 이윤을 무조건 얻는다. 그는 O 276
에게 100파운드 스털링의 상품을 받는 데 대한 지불명령서를 주었다. 그런데 O가 입수한 지불명령서를 실현할 때에 C는 그에게 자기 상품의 명목상 가격을 그 가치보다 25% 높혀 80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만을 내준다. 만약 O가 80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을 소비하면서도 그 값으로 100파운드 스털링을 물게 되는 이런 사태와 타협한다 하더라도 C의 이윤은 언제나 25%를 초과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격, 이런 속임수는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O는 100파운드 스털링 어치를 소비할 것을 원한다. 만약 그가 토지 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자본가 C에게 토지를 25파운드 스털링으로 저당 잡힐 것인데, 그 대신 C는 그에게 2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 왜냐 하면 C는 상품을 그 가치보다 25%(1/4)만큼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만약 O가 돈놀이를 하는 화폐 소유자라면 그는 자본가 C에게 자기의 자본 중에서 25파운드 스털링을 양도하고 그 대신 C는 O에게 20파운드 스털링 분의 상품을 제공한다.

가령 자본(또는 토지 가치)이 5%로 대부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그것은 2,000파운드 스털링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1,975파운드 스털링을 이룰 뿐이다. 이 O의 임료는 이제는 98 3/4파운드 스털링이다. 이처럼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즉 O는 언제나 100파운드 스털링의 현실적 상품 가치를 소비할 것이며 그의 임료는 부단히 감소될 것이다. 그것은 100파운드 스털링분의 상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는 그의 자본 자체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을 부단히 파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C는 점차로 O의 자본 전체를 자기 수중에 쥐게 되며 자본 자체와 함께 또한 그 임료도 즉 빌린 자본에 의하여 C가 얻는 이윤 중에서 그가 이전에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 O에게 내준 부분도 차지 할 것이다. 이 과정이 데스튜트 씨의 생각에도 나타나 있는 것은 명백한데,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만약 여러 생산 부문의 기업가들이 실제로 매년 씨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걷어 들인다면 단시일내에 그들은 전체 사회적 부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에는 곧 재산이 없는 임금 노동자들과 자본주의적 기업가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것은 옳다, 만약 기업가들이나 그 상속자들이 부유해진 후 사업에서 떨

어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 계급을 부단히 보충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국외 이주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생산이 얼마 동안 별로 큰 동요 없이 발전할 때는 기업가들의 자본은 비단 전반적 부의 성장에 비례해서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 난다는 것을 안다

이런 결과는 모든 정부들이 생산에서 활동적인 계급에게 세금 형태로 해마다 부과하는 방대한 부과금이 없으면 훨씬 더 현저하리라는 것을 부언할 수 있을 것이다"(pp. 240~241).

그리하여 데스튜트 씨는 비록 그가 설명하려는 문제 이외에서는 일정한 점까지는 완전히 옳다. 사멸하고 있는 중세기와 융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의 시대에 있어서 "활동적 자본가들"의 급속한 치부는 부분적
277 으로는 그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직접 속인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 있은 발견의 결과로 화폐의 가치가 저하되었을 때에 차지인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종전의 지대를 계속 지불하였는데, 다른 한편 산업가들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비단 인상된 화폐 가치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치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요 소득이 지대 형태로 토지 소유자, 군주 등등의 수중에 있는, 예컨대 아시아적인 그런 모든 나라들에서도 수가 적은 따라서 경쟁에 구속되지 않는 산업가들은 그들에게 독점 가격으로 자기 상품을 판매하며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며 비단 그들에게 "부불" 노동을 파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상품을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 이상으로 파는 것으로써도 치부하고 있다[405] 다만 데스튜트 씨가 역시 부당한 것은 화폐를 대부하는 자본가들이 바로 그와 같이 기만 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도리어 그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 냄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이 높은 이윤의 참가자로, 이 협잡의 참가자로 되는 것이다.

데스튜트 씨에게 바로 이 현상이 머리에 떠 올랐다는 것을 그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증명하고 있다:"언뜻 보기만 하여도 그들"(활동적 자본가들)"은 전 유럽에서 300년 또는 400년 전에는 온갖 위력적인 귀족들의 거대한 부에 비하여 볼 때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는가, 또 오늘날 귀족들의 부는 감소된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 수효를 증대시키고 강해졌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같은 책, P. 241).

데스튜트 씨는 우리에게 활동적 자본의 이윤 그것도 높은 이윤을 설명

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로는 이 자본가들이 임금 및 임료 형태로 지불하는 화폐는 이 임금과 임료가 그들의 생산물 구입에 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환류한다는 것으로써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은 어째서 그들이 임금과 임료를 이중으로 즉 처음에는 화폐 형태로, 다음에는 동일한 화폐액에 해당한 상품 형태로 지불하지 않는가 하는 것 뿐이다. 두 번째 설명은 그들이 자기 상품을 그 가격 이상으로, 너무 비싸게 판매한다는 데 있다. 즉 첫째로는 자기 자신들에게,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그리고 서로 속이면서 판매하며, 둘째로는 노동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라서 또다시 자기 자신들을 속인다. 왜냐하면 데스튜트 씨는 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봉급을 주어 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실현하는 소비라고 보아야 한다."(p. 235)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째로는 임료 수령자에게 파는데, 이들을 역시 속여 판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활동적 자본가들이 어째서 자기 이윤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을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내줄 대신에 스스로 차지하는가를 설명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째서 활동적 자본가들과 비활동적 자본가들 간의 총 이윤 분배가 더욱 더 비활동적 자본가를 회생시키고 활동적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수행되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총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해에로 우리를 조금도 접근시키지 못할 것이다. 활동적 자본가들이 총 이윤을 전부 점유하였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78

이와 같이 데스튜트는 아무 것에 대하여도 대답을 주지 않았으며 다만 화폐의 환류를 상품 자체의 환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을 뿐이다. 이 화폐의 환류는 자본가들이 처음에는 임금과 임료를 상품으로써 지불할 대신에 화폐로써 지불한다는 것, 다음에는 이 화폐로 그들의 상품이 구매되며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상품으로써 지불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 화폐는 따라서 끊임 없이 그들에게로 환류한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 노동자들과 임료 수령자들의 소비로 들어 가는 상품이 상술한 화폐 가치 만큼 그들에게서 종국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한도 내에서만이다.

데스튜트 씨는(순전히 프랑스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프루동에게서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유사한 감탄의 환성을 듣는다)"우리의 부의 소비에 대한 이 고찰 방법이… 사회 생활의 전과정을 이해케 하는"그 "명료성"에 아

주 경탄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와 이 광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였다는 데서 나온다. 이것으로 상기하게 되는 것은 저 거울의 작용이다, 즉 거울에는 자리를 똑 바르게 잡으면 대상이 명료하게 또 균형이 잡혀 반영되지만, 너무 가까이 있든가 너무 멀리 있으면 모든 것이 몽롱하고 엉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pp. 242~243)

나중에 데스튜트 씨는—그가 A. 스미스의 책에서 읽은것 중에서—사물의 현실적 사태에 대하여 그저 지나가는 김에 회상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물의 이 현실적 사태의 성문화된 정식화를 되풀이할 뿐 그것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프랑스 연구원 회원인 그는 상술한 "광명의 흐름"을 결코 쏟아 놓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스튜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p. 246):

"이 무위 도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그들의 자본을 가동시키는 사람들, 즉 그들의 자금으로써 그자체의 비용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여 실업가들이 자기들의 이윤 중에서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료에서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아하! 그런즉 활동적 자본가들이 무위 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 그들에게서 빌린 자금의 보수를 지불하는 임료는(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윤도) 그들이 이 자금으로써 "그 자체의 비용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 노동, 즉 그 노동을 수행한 노동자에게 지불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생산물을 낸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나온다.
279 또는 따라서 이윤은 임금 노동자들이 그들의 부양비 이상으로 생산하는 데서, 즉 활동적 자본가가 취득하며, 그 일부분만을 그가 지대나 화폐 임료의 수입자들에게 떼어 주는 잉여 생산물에서 나온다.〉

데스튜트 씨는 이로부터 이 생산적 노동자들에게로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자본가들에게로 돌아 가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바로 이 활동적 자본가들이야 말로 다른 자본가들에게서 일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들까지도 실제로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PP. 246). 물론 그렇다. 그들이 직접 노동을 착취하느니 만큼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은 그들을 통하여서만 착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활동적 자본을 부의 원천‖406‖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부의 원천을 찾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그들"(활동적 자본가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pp. 246).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는 어느 정도 현저하게 축적되었는데 그것은 과거

노동의 결과가 생산되자마자 즉시로 전부 소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부의 소유자들 중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임료를 끌어 내어 그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라고 부른 사람들이다. 또 보다 적극적인 다른 자본가들은 자기 자신의 자금과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게서 빌린 자금을 활용한다. 그들은 그 자금들을 노동 보수 지불에 사용하며, 이 노동은 자금들을 이윤을 덧붙여 재생산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재화들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루는 잉여 분의 생산도 보게 된다.〉 "이 이윤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지불하며 또 다른 자본가들의 소비를 위하여 지출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 소비"(그들 자신의 소비와 또한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의 소비란 말인가?—또다시 이전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다)"의 결과 그들의 재화는 약간 증대되어 그들에게로 되돌아 오며 활동적 자본가들은 새로 동일한 일을 시작한다. 유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PP. 246~247).

"생산적 노동자"에 관한 연구와 이 연구 결과 즉 활동적 자본가에게 구매되는 노동자만이, 그 노동의 직접적 구매자를 위하여 이윤을 생산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데스튜트 씨로 하여금 사실상 활동적 자본가들은 말의 최고의 의미에서 유일한 생산적 노동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이윤으로 생활하는 사람들"(활동적 자본가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그들만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며 우리의 모든 향락 수단을 창조한다.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이 온갖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며 또 오직 그들만이 축적된 노동을 유용하게 적용하면서 현행 노동에 유용한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p. 242) 그들이 "현행 노동에 유용한 방향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유용 노동 즉 그 결과로서 사용 가치로 되는 노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런데 그들이 "축적된 노동을 유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만약 이것이 다시금 동일한 사실 즉 그들이 축적된 부를 산업적으로, 사용 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 않는다면—그들이 축적된 노동으로 그 자체에 포함되어 280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현행 노동을 구매하기 위하여 "축적된 노동을 유용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데스튜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이루는 모순들을 소박하게 요약하고 있다. 노동이 온갖 부의 원천이므로 온갖 부의 원천으로 되는 것은 자본이며, 따라서 성장하는 부의 진정한 창조자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이윤을 끌어 내는 사람이다. 노동의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유일한 근원적 부를 이루며 우리의 노동은 다른 온갖 부를 생산하며, 방향이 잘 잡힌 온갖 노동은 생산적이다"(p. 243) 그렇기 때문에 데스튜트의 의견에 의하면 활동적 자본가들은 응당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그들만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며 우리의 모든 향락 수단을 창조한다"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facultés)은 우리의 유일한 근원적 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능력(노동력)은 부가 아니다. 노동은 다른 모든 부를 생산한다. 이것은 노동이 자기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위하여 부를 생산하면서도 그 자체는 부를 이루지 않으며 그것의 생산물이 부를 이룰 따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이 잘 잡힌 온갖 노동은 생산적이라는 것은 온갖 생산적 노동, 즉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온갖 노동은 방향이 잘 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비자 계급들에게가 아니라 소비품의 다양한 본성에 관계되는 아래와 같은 데스튜트의 지적은 A. 스미스가 제2부, 제3장에서 서술한 견해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데, 스미스는 그 장 마감에서 어떤 종류의 (비생산적) 지출 즉 개인적 소비, 소득의 소비가 보다 더 유용하며 어떤 종류가 보다 덜 유용한가를 연구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하고 있다(가르니에 역, 제2권, p. 345): "만약 절약이 자본의 총량을 증대시키며 낭비는 그것을 감소시킨다면 자기의 지출을 자기의 소득에 정확히 상응케 하고 아무런 축적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재화를 소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은 자본 총량을 증대시키지도 않으며 또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명백히 다른 방법들보다 더 많이 전반적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소득 지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데스튜트는 스미스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약 소비가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서 극히 다양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소비되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모든 물건이 노동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의 가치는 어떤 물건 속에서는 다른 물건에서 보다 더 오래 견딜수 있게 고착되어 있다. 폭죽을 만드는 데는 금강석을 채취하여 닦는 것 만큼의 노동이 들 수 있으며 따라서 폭죽은 금강석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폭죽과 금강석을 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을 사용한 후에 보면 폭죽에서는

반 시간만 지나면 나에게 아무 것도 남겨 주지 않는데, 금강석은 100년 경과 한 후에도 나의 손자들에게 부의 원천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비 281
물질적 생산물이라고 부르는"(즉 세이씨가 부르는)"생산물 II 407 I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어떤 발견이든 그것은 영원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학 작품이든 어떤 그림이든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랜 유용성을 가지는데, 무용, 음악회, 연극의 유용성은 순간적이며 즉시로 사라진다. 의사, 변호사, 병사, 하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봉사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봉사에 대하여도 꼭 같이 말할수 있다. 이들의 유용성이란 그들을 필요로 할 그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급속한 소비가 가장 파괴적인데, 그것은 바로 그런 소비가 같은 시간에 가장 많은 노동량을 없애 버리거나 또는 보다 짧은 시간에 동일한 양의 노동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보다 완만한 온갖 소비는 일종의 재물의 퇴장인데, 그것은 그런 소비가 오늘 우리가 회생시킨 것의 일부분을 앞으로 향락할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같은 값이라면 3개월이면 벌써 해지는 의복보다는 3년 간 입을 수 있는 의복을 가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pp. 243~244)

[15. 스미스에 의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반대하는 논쟁의 일반적 특징. 비생산적 소비를 생산에 대한 필요한 자극으로 보는 변호론적 견해]

스미스에 의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반박한 대다수 저술가들은 소비를 생산에 대한 필요한 자극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소득으로써 살고 있는 임금 노동자들 즉 고용하여도 부를 생산하지 않으며 그 고용자체가 부의 새로운 소비로 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그들이 물질적 소비의 영역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생산의 영역도 확장하는 까닭에 생산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부의 창조라는 의미에서까지도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대부분 부르조아 경제학적 견지에서 보아, 부분적으로는 무위 도식하는 부자들과 그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대한 변호였으며 부분적으로는 거액의 지출을 하는 "강력한 정부들"에 대한 변호였

고 국가 채무의 증대에 대한 변호였으며 교회와 국가에서 수입이 많은 직위를 차지한 자들에 대한, 수입이 많은 온갖 종류의 한가한 직위 등등에 대한 변호였다. 왜냐 하면 이 모든 "비생산적 노동자들"—그들의 봉사는 무위 도식하는 부자들의 지출의 한 항목으로써 나타난다—은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물질적 생산물" 즉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생산물을 소비한다는 공통점을 상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맬더스와 같은 다른 경제학자들은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 간의 구별을 인정하지만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적 자본가"에게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해서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활동적 자본가에게 증명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생산과 소비가 동일하다든가 소비는 온갖 생산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생산을 온갖 소비의 전제라든가 하는 문구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온갖 논쟁의 근저에는—상술한 경향을 도외시하면—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놓여 있다:

282 노동자의 소비는 그의 생산물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평균하여 보면 단지 그의 생산비와만 동등하다. 따라서 그는 전체 잉여 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생산물의 이 부분 전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산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노동자를 이 생산에로 (즉 노동자 자신의 생활상 욕망 이상의 생산에로) 내몰며 필요 생산에 대치시켜 이 상대적 잉여생산을 될수록 많이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활동적 자본가"가 잉여 생산물을 직접 취득한다. 그런데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그는 생산을 위하여 생산하며 치부를 위하여 치부하려고 애쓴다. 그는 자본의 기능의 단순한 수행자인만큼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담당자인만큼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용 가치와 그 양의 증가인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와 그 증대인 것이다. 그는 추상적 부를 증가시키며 다른 사람의 노동을 더 많이 취득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는 구두쇠와 마찬가지로 치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단지 다르다고 하면 그는 이 지향을 금은 보화를 형성하는 부질없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현실적 생산인 자본 형성의 형식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의 생산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산이라면 정상적인 자본가인 본래의 "활동적 자본가"의 생산은 생산을 위한 생산이다. 그의 부가 증대될수록 그는 이 이상을 더욱 더 배반하며 비록 자기 부를 보라는듯이 내세우기 위해서일망정 스스로 더욱 더 낭비적이 사람

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부는 언제나 깨끗치 않은 양심, 절약과 타산에 관한 숨은 생각을 품고 소비하는 부이다. 이러한 모든 낭비에도 불구하고 "활동적 자본가"는 구두쇠와 마찬가지로 본질상 여전히 인색하다.

만약 시스몽디가 노동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에게 더욱 더 많은 향락을 누릴 수 있게 하나, 이 향락 자체는 그것이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에 그(임금 노동자로서의)를 노동에 적합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면 "활동적 자본가" 자신이 소비되는 부의 대표자로 되자마자, 그가 축적의 향락이 아니라 향락의 축적을 지향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많으나 적으나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도 또한 못지 않게 옳은 것이다. 283

그리하여 "활동적 자본가" 역시 잉여생산, 다른 사람을 위한 생산의 생산자이다. 한편의 이 잉여 생산에는 다른 한편의 초과 소비가 대립하지 않을수 없으며 생산을 위한 생산에는 소비를 위한 소비가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활동적 자본가"가 소득을 소비하기만 하는 ‖408‖ 지대 수입자, 국가, 국가의 채권자, 교회 등등에 양도하는 것은 그의 부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나 그렇다고 하여 치부에 대한 그의 열망을 식히지는 않으며 그럼으로써 그의 자본주의적 정신을 보존한다. 만약 지대와 화폐 임료 등등의 수입자들 역시 자기의 소득을 비생산적 노동에가 아니라 생산적 노동에 소비하게 된다면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소비로서의 소비의 기능을 대표하는 대신에 "활동적 자본가들"로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리카르도주의자와 어떤 맬더스주의자[79] 간에 벌어진 아주 희극적인 논쟁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내적으로[*an sich*] 분리될수 없다. 이로부터 이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 내에서 사실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통일은 그것들의 대립에 의하여,즉 *A*가 *B*를 위하여 생산하여야

---

* 시스몽디는 이렇게 말한다. "산업과 과학의 진보에 의하여 모든 노동자는 매일 그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노동이 부를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그것을 스스로 소비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부는 그를 노동에 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새원리』, 제1권, p.85)

한다면 *B*는 *A*를 위하여 소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으로 된다. 모든 자본가는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의 소득의 참가자들이 낭비할 것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중상주의의 전체 체계는, 국민은 그 자체에서는 검박하여야하나 향락에 몰두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을 위하여 사치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생산을 위한 생산의 사상을,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생산물의 소비의 사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상주의 체계의 이 사상은 페일리 박사의 「도덕 철학」제2권, 제11장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온건하고 노동을 사랑하는 인민은 사치에 몰두하는 부유한 국민이 제기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자기의 활동 방향을 돌린다"

데스튜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그들은"("우리의 정치가들은" 즉 가르니에 기타는) "소비가 생산의 원인이며 따라서 소비가 커질수록 더 좋다는 일반적 원칙을 내세운다. 그들은 바로 이것이 사회적 경제와 사적 경제 간에 커다란 차이를 조성한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PP. 249~250).

다음 구절도 좋다:

"가난한 국가들—이것은 인민이 살기 좋은 곳이며 부유한 국가들은 인민이 보통 가난한 곳이다"(같은 책, p. 231).

284

[16] 앙리 슈토르흐[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 간의 상호관계 문제에 대한 반역사적 태도. 지배 계급이 수행하는 "비물질적 노동"의 개념]

앙리 슈토르흐. 『정치 경제학 강의』, *J. B.* 세이의 판. 파리, 1823년(이것은 니콜라이 대공을 위하여 강의한 것이며 1815년에 끝났다.) 제3권.

가르니에 이후에 슈토르흐는 본질상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반대하는 논쟁에서 새로운 입장에 서려고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물질적 생산의 구성 부분인 물질적 향리품과 "내적 향리품 또는 문명의 요소"를 구별하고 있는데, 후자의 생산 법칙들은 『문명론』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한다(같은 책, 제8권, P. 217). (제1권, P. 136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인간은 그가 내적 향리품을 소유하기 전에는 즉 그가 자기의 육

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전에는 결코 부의 생산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한데, 이것은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단들 즉 사회적 시설 등등과 같은 수단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인민이 문명하면 할수록 그들의 국민적 부는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경우도 꼭 마찬가지이다.)

스미스를 반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스미스는… 생산적인 종류의 노동에서 부의 생산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모든 노동을 제외한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그는 국민적 부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의 오류는 그가 비물질적 가치와 부 간에 응당한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제3권, P. 218).

이것으로써 원래 문제는 끝나고 있다. 생산적 종류의 노동과 비생산적 종류의 노동의 구별은 스미스가 고찰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즉 물질적 부의 생산에 있어서, 그것도 이 생산의 일정한 형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 생산에 있어서는 다른 종류의 노동이 생산적인 것으로서 나선다. 그러나 스미스는 그것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끝으로 두 가지 종류의 생산의 상호작용과 내적 연관도 역시 그의 고찰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것은 물질적 생산이 그 자체의 관점에서* 고찰되는 경우에만 공허한 문구보다 큰 어떤 것을 초래할수 있다. 만일 스미스가 직접적으로는 생산적이 아닌 그런 노동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직접적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가 아니라 그 소비에 참가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슈토르흐 자신에게 있어서—비록 그의 『문명론』에서 다소 재치 있는 *285*
지적, 예컨대 물질적 분업은 정신적 분업의 전제라는 지적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문명론』은 진부한 일반적 논의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슈토르흐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그가 과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과제의 정식화 조차도 변변히 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의 사정 때문이었다. 정신적 생산과 물질적 생산 자체간의 연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물질적 생산 자체를 일반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형태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는 중세기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보다 다른 종류의 정신적

* 원문 sub sua propria specie—역자.

생산이 적응한다. 만약 물질적 생산 자체를 그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에 적응하는 정신적 생산의 특성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절함을 면할수 없다. "문명"이라는 문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물질적 생산의 일정한 형태로부터는 첫째로 사회의 일정한 구조, 둘째로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일정한 관계가 흘러 나온다. 그들의 국가 제도와 그들의 정신 상태는 이 양자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적 생산의 성격도 그것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끝으로 : 이와 동시에 정신적 생산을 슈토르흐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지배 계급의 모든 층의 각종 직업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계층들의 존재는 그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산 관계의 일정한 역사적 제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슈토르흐는 물질적 생산 자체를 역사적으로, 즉 이 생산의 일정한,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향리품의 생산 일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그는 지배 계급의 사상적 구성 부분이나 해당 사회구성의 자유로운 정신적 생산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초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빈 말공부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사실 그 관계 자체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은 정신적 생산의 일정한 부문들 예컨대 예술과 시문학에 적대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레싱[80]이 그처럼 훌륭히 조소한 18세기 프랑스인들의 환상에 빠질수 있다. 우리가 기계공학 등등에서 고대인물들보다 멀리 나갔는데 어째서 우리는 자기의 서사시를 만들수 없겠는가? 그리하여 일리아드 대신에 앙리아드[81]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슈토르흐가 본래 스미스를 반대하는 이 논쟁의 아버지인 가르니에를 특별히 논박하고 있는 것은 옳다. 즉 슈토르흐는 스미스의 반대자들이 문제를 옳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86 "스미스의 비판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구별"("비물질적 가치"와 "부"간의) 을 설정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들은 그처럼 명백히 구별되는 이 두 종류의 가치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그들은 정신적 생산물의 생산 또는 봉사의 생산이 물질적 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물질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은 그 노동이 부를, 즉 물질적인 그리고 교환할수 있는 가치를 생산한다고"(즉 직접 생산한다고)"생

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동은 비물질적이며 직접적인 가치만을 생산한다. 스미스의 비판가들은 비물질적 노동의 생산물이 물질적 노동의 생산물에서와 같은 법칙에 복종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와는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제3권, P. 218)

슈토르흐 이후의 저자들이 그에게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보자:

"내적 향리품은 부분적으로는 봉사의 생산물이므로 그것은 봉사 자체보다 더 오래 가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생산 정도에 따라 소비된다고 사람들은 결론지었다"(제3권, P. 234). "근원적인 내적 향리품은 그 사용에 의해서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에 의하여 확대되며 증대된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소비 자체가 그것들의 가치를 증대시킨다"(같은 책, p. 236). "내적 향리품은 부와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있으며 재생산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운운(같은책, p.236) "물질적 노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생산물은 비물질적 노동의 구분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기 전에 축척되어야 한다"(p. 241).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정신적 부와 물질적 부 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유사점이며 대비에 불과하다. 예컨대 뒤떨어진 국민들은 물질적으로 뒤떨어진 국민들이 외국으로부터 자기의 정신적 자본을 빌리며(같은 책, P. 306) 비물질적 노동의 구분은 그에 대한 수요에,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 의존한다는 등등[P. 246]의 그의 지적도 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접 베껴 쓴 이런 구절들도 있다:

‖ 410 ‖"내적 향리품의 생산은 그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물의 소비에 의하여 국민 부를 감소시키는 것과는 아주 다르며 도리어 국민 부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것은 반대로 "부의 생산이 역시 문명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수단인"(같은 책, P. 517)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적 복리는 이 두 종류의 생산의 균형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다"(P. 521).

슈토르흐의 견해에 의하면 의사는 건강을 생산하며(그러나 그는 병도 생산한다) 교수와 작가들은 교양을 생산하고(그러나 그들은 또한 몽매도 생산한다) 시인, 미술가 등등은 취미를 생산하며(그러나 그들은 또한 몰취미도 생산한다) 도덕가 등등은 도덕을, 전도사는 신앙을, 군주의 노동은 안전을 생산하는 등등은 도덕을, 전도하는 신앙을, 군주의 노동은 안전을 생산하는 등등이라는 것이다(PP. 347~350)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은 의사들을 생산하며, 우매는 교수와 작가들을, 몰취미는 시인과 미술가들을, 비도덕은 도덕가들을, 미신은 전도사들을,
287 전반적 안전의 결여는 군주를 생산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 모든 종류의 활동, 이 "봉사"가 현실적인 또는 관념상의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그 수법은 상술한 인물들이 스미스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자들이라는 것 즉 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특수한 종류*의 생산물이 아니라 물질적 노동의 생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를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후기의 저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슈토르흐에게서는 아직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볼 수 없는데, 이 불합리한 점은 다음과 같은 계기들에 의하여 완전히 설명될수 있다:

1)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상이한 기능들이 상호 전제로 되고 있다는 것.

2) 물질적 생산 영역에서의 적대 관계는, 좋건 나쁘건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활동을 하는 이데올로기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상부구조를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

3) 모든 기능이 자본가에게 복무하며 그의 "복리"를 위하여 수행된다는 것.

4) 최고의 정신적 생산까지도 오직 부르조아들을 물질적 부의 직접적 생산자들로서 묘사하며 그릇되게 해석함으로써만 그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들에게서 용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17] 낫소 시니어 [부르조아지에게 유용한 모든 기능이 생산적이라는 선포. 부르조아지와 부르조아 국가에 대한 아첨]

W. 낫소 시니어『정치 경제학 기본 원리』, 장 아리바베네 역, 파리, 1836년.

낫소 시니어는 거만하게 말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유태인 입법자는 비생산적 노동자였다"(같은 책, p. 198) 그는 누구인가, 이집트의 모세인가 또는 모제스 멘델스존인가? 모

---

* 원문 sui generis—역자.

세는 그를 스미스가 말하는 "생산적 노동자"로 인정한 데 대하여 시니어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율리우스 케사르가 자기들을 "비생산적 노동자"라고 불렀다면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의 완고한 부르조아적 관념의 노예로 되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케사르는 "노동자"라는 명칭 자체를 벌써 모욕으로 여길 것이다.

"앓는 어린애를 자기 처방으로써 치료하며 그럼으로써 그 어린애의 생명을 장기간 보존해 주는 의사가 과연 오래 가는 결과를 생산하지 않겠는가?"(같은 곳). 너절하다! 만약 어린애가 죽는다면 결과는 그만 못지 않게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린애가 계속 앓는다면 의사의 *288*
봉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낫소에 의하면 의사들에게는 그들이 치료하는 한에서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며, 변호사들에게는 그들이 재판에 이기게 하는 한에서만, 병사들에게는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 한에서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제 진정으로 우쭐해진다.

"스페인인들의 폭정을 반대하여 투쟁한 네덜란드인들이나 또는 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될 염려가 있었던 폭정을 반대하여 봉기한 영국인들이 과연 찰나적인 결과만을 생산하였던가?"(같은 책, p. 198).

너절한 잡담이다! 네델란드인과 영국인들은 자기 회생적으로 봉기하였다. 누구도 그들이 "혁명에서" 애썼다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산적 노동자 또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논의되는 것은 노동의 구매자와 그 판매자에 관한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가!

스미스를 반대하는 논쟁에서 이 풋내기들의 비속한 잡담은, 스미스는 꺼리낌 없이 야비하게 구는 졸부인 부르조아지의 해석자였는데 그들은 "교양 있는 자본가…"의 대변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교양 있는 부르조아와 그 대변자들은 양자가 다 온갖 활동의 의의를 그것이 ‖ 411 ‖ 돈주머니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측정할 정도로 우둔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부의 생산과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기능들과 활동들도 역시 인정하리 만큼 교양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들이 역시 그들의 부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등등, 한 마디로 말하여 부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 자체는 자기의 물질적 생산과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온갖

생산의 기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이 주체인 인간에 반작용하는 모든 사정은 어느 정도 그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변경시키며 그리하여 또 그가 물질적 부, 즉 상품의 창조자로서 수행하는 그의 기능과 활동을 변경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 관계와 기능은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또 무엇에 표현되든 간에 물질적 생산에 영향을 주며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수 있다.

"병사들에 의한 방위가 없이는 땅을 전혀 경작할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스미스의 분류에 의하면 수확물은 밭갈이하는 사람과 무기를 손에 쥐고 그와 나란히 나가는 사람의 공동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 스미스의 견해에 의하면 농민만이 생산적 노동자이고 병사의 활동은 비생산적이다"(같은 책, P. 202) 첫째로, 이것은 잘못이다. 스미스는 병사의 활동은 방위를 생산하지만 곡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국내에 질서가 잡혀 있다면 농민은 덧붙여 병사
289 의 부양을 위한 수단을, 따라서 병사의 생활을 생산할 필요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곡물 생산을 계속할 것이다. 병사는, 자신은 아무것도 생산하지않고—정신적 영역에서도 물질적 영역에서도—사회적 구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만 유용하고 필요하며, 사회악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

그런데 낫소는 20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9명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기계가 발명되는 경우에 이 19명 역시 비생산적 비용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병사는 물질적 생산 조건들, 농업 그 자체의 조건들이 의연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19명의 노동자들은 나머지 한 명의 노동자의 '노동이 20배나 더 생산적으로 되는 경우에만, 따라서 일정한 물질적 생산 조건들에서의 혁명의 결과에만 불필요한 것으로 될수 있다 더우기 뷰캐난은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병사를 그의 노동이 생산에 이바지한다는 근거로 생산적 노동자라고 불러야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노동자도 군인의 영예를 탐낼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협력 없이는 그어떤 군대도 출정하여 전투를 하고 승리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것이 의심할 바 없기때문이다"(*D.* 뷰캐난. 『스미스 박사의… 연구에서 취급된 문제에 관한 고찰』, 에딘버러, 1814년, p.132).

---

* 192 페이지 각주를 보라—편집자.

"국민의 부는 봉사를 생산하는 사람들과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 간의 수적 비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동을 될수록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하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그들 간의 비례에 의존한다"(시니어, 같은 책, p. 204). 스미스는 이것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었으며, 그는 국가 관리, 변호사, 승려 등등과 같은 그런 "필요한"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수효를, 그들의 봉사가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범위에까지 감소시킬 것을 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을 될수록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례"인 것이다. 기타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들의 노동은 봉사를 이용하려는 매개인이 자원적으로 구매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으로 생활하는 이 노동자들의 수효는 "생산적"노동자들의 수에 비하여 클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부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거나 또는 예컨대… 가신들을 거느린 중세기의 귀족들에게서와 같이 일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그 귀족들은 일정한 수량의 공업 상품을 소비할 대신에 가신들과 더불어 자기들의 농산물을 소비하였다. 그들이 그렇지 않고 공업 상품을 소비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들의 가신들은 노동에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득으 290
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연 생산물의 현저한 부분이 재생산을 위하여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에만 컸던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 총수는 적었다. 둘째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클수 있는 것은 생산적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식객들을 먹여 살릴 노동자들의 잉여 생산물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은 그처럼 많은 식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이 그처럼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식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구가 같고 노동 생산력의 발전이 같은 두 나라를 들어본다면 두 나라의 부는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 간의 비율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A. 스미스와 더불어 언제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오직, 생산적 노동자들이 비교적 많은 나라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연소득이 재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며 따라서 매년 많은 양의 가치가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니어 씨는 아담에 대립하여 어떤 새로운 사상을 내세우는 대신에 그의 명제 ‖ 412 ‖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자신

은 이 경우에 "봉사의 생산자들"과 "가치의 생산자들"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스미스의 구별에 대한 이 반대자들의 대다수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똑 같은 것을 그에게서도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바로 그들이 논박하고 있는 구별 자체를 접수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전공에서 전혀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모든 "비생산적" 경제학자들이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 그러나 부르조아지에 대한 관계에서 "비생산적"경제학자들의 이 입장은 한편으로는 아첨 즉 모든 기능을 부르조아를 위한 부의 생산에 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려는 지향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조아지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유용하며 부르조아지 자신이 이것을 통찰하리만큼 교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 견지는 비생산적 소비자들이 비록 그들에게 고유한 방식으로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정도로 부의 생산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비생산적 분자들에 의한 다량의 생산물의 소비는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낫소는 뜻하지 않게 입을 놀려 그가 스미스의 본질적 구별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91 "사실상 이경우에 스미스의 주의는 비생산적 계급에 관한 그의 지적이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처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자본은 생산적 노동자들의 부양을 위해서만 적용된다는 그의 주장을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주로 비생산적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부분—교원, 국가 통치자—은 자본 즉 재생산을 위하여 선대되는 자금에 의하여 부양된다"(같은 책, PP. 204~205).

여기에서 사실상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국가와 학교 교원이 소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본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낫소씨의 발견은 더 주해를 요하지 않는다. 만약 시니어 씨가 이것으로써 우리에게, 그들은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즉 이런 의미에서 자본에 의하여 생활한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는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자본 그 자체가 아니며 이 소득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는 재생산을 위하여 선대되는 것이 아

니라 도리어 그 자체가 재생산의 결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세금이 일정한 상품의 생산비에, 따라서 일정한 생산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는 이것이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한 형태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잘난 체 하는 낫소 시니어는 슈토르호에 관하여 더 지적하고 있다:

"슈토르호 씨는 이 결과들"(건강, 취미 등등)"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득의 일부를 이루며 그것들도 역시, 교환될 수 있다"(즉 그것들이 그 생산자들에게서 구매될 수 있는 한에서)"고 명확하게 주장함으로써,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착오를 범하고 있다""만약 그렇다면, 만약 취미, 도덕, 종교가 참말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부는 경제학자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결코 건강이나 지식이나 경건한 마음이 아니다. 의사, 승려, 교원은… 후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 결과들을 얻게 하는 수단을 생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만약 이러한 매개 경우에 성과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들이 적용된다면 이 수단들의 생산자는 그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소기의 결과들을 얻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보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교환은 조언이나 수업을 끝내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자마자 완수된다"(같은 책, pp. 288~289).

결국 위대한 낫소 자신이 다시금 스미스의 구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그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대신에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p. 206)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 대상은 상품이거나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또는 직접적으로 노동인 것이다.

시니어에 의하면 노동력 그 자체를 재생산하거나(이렇게 할수 있는 것 292
은 예컨대 학교 교원의 노동 또는 의사의 노동이다) 또는 이 노동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상품들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노동을 적용하는 소비는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않는 그런 노동의 소비는 비생산적이다. 그런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산적으로(즉 산업적으로)만 소비될 수 있는 노동을 나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며 비생산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노동 즉 그 소비가 그 본성으로 보아 산업적으로 소비로 되지 않는 노동을 나는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

기에서 시니어 씨는 물건의 새로운 명칭*에 의하여 자기의 총명을 증명하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낫소는 슈토르흐의 글을 표절하고 있다.

[18] P. 로씨[경제적 제 현상의 사회적 형태에 대한 무시.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의 절약"이라는 비속한 견해]

‖ 413 | *P.* 로씨, 『정치 경제학 강의』(1836/37년에 강의한 것), 1842년 브뤼셀 판.

이 현명성을 보라!

"간접적 수단"(생산의)"에는 생산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모든 것, 장애를 제거하는 데 이바지하며 생산에 커다란 효과, 신속성, 용이성을 부여하는 모든 것이 속한다".(앞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 바 있다, p.268: "직접적 생산 수단과 간접적 생산 수단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결과의 필요한 조건으로 되며 이 생산을 수행하는 힘으로 되는 그런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이바지하지만 그것을 수행하지는 않는 다른 생산 수단들도 존재한다. 전자는 단독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후자는 생산 과정에서 다만 전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온갖 통치자적 노동은 간접적 생산 수단이다… 이 모자를 제조한 사람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헌병, 재판을 하는 판사들, 범죄자를 감옥에 받아 들여 감금하는 간수,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경을 방위하는 군대 등 이들 모두가 생산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P. 272).

모자 제조인이 그 모자를 생산하며 판매할수 있도록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이 간수 등등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직접적이 아니라—물질적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로씨는 사실상 아담이 한 것과 같은 구별을 하고 있다(제12강의).

그 다음 제13강의에서 로씨는—사실상 그의 선행자들과 대체로 동일한 정신에서—스미스를 특별히** 반대하고 있다.

---

* 원문 nova vokabula rerum—역자.

그는 말하기를,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의 부당한 구별은 세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1) "구매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산물이나 노동을 그들의 직접적인 293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구매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획득한 생산물과 그들이 구입한 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새로운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만 그것들을 구입한다.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전자에게 있어서는 사용 가치이며 후자에게 있어서는 교환 가치이다". 교환 가치만을 고려에 넣을 때에는 스미스가 범한 오류에 빠진다. "나의 종의 노동은 나에게 있어서 비생산적이다—잠시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과연 이 노동이 그에게 있어서도 비생산적이겠는가?"(같은 책, pp. 275~276).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노동의 일부를 구매함이 없이 취득하고 다음에는 생산물 속에 포함된 이 부문도 판매할 목적으로 노동을 직접 구매하는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이 자본의 존재의 기초, 자본의 본질 자체를 이루기 때문에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과 그것을 생산하지 않는 노동의 구별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 되지 않겠는가? 스미스는 종의 노동이 그 자신에게는 생산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온갖 봉사는 그 판매자에게는 생산적이다. 허위 서약도 그 대신에 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산적이다. 문건 위조도 그 대신에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산적이다. 살인도 살인한 데 대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산적이다. 밀고자, 고발자, 식객, 기생자, 아첨쟁이들의 사업도 그들이 그런 종류의 "봉사"를 무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생산적이다. 로씨에 의하면 그들 모두가 "생산적 노동자들"이며 비단 부의 생산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생산자들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스스로가 보수를 지불하는 사기사도—재판소나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역시 "약간의 힘을 지출하며 일정하게 힘을 기울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생산한다"[같은 책, p. 275], 즉 도둑 자신의 그리고 아마도 그 밖에 또 그의 처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생산하는 데만 있다면, 또는 봉사를 "생산적"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의 "봉사"를 판매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면 그는

---

* 원문 ex professo—역자.

생산적 노동자인 것이다.

2) "두 번째 오류는 직접적 생산과 간접적 생산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A.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국가 관리가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생산이"(국가관리의 노동 없이는)"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노동이 직접적이며 물질적인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간접적 행동에 의하여 생산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지 않는가"(같은 책, p. 276).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이 노동(그런데 그것은 다만 비생산적 노동의 일부를
294 이루는 데 불과하다)을 우리는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관리는 농민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이 사법 등등의 "간접적 생산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황당하다! 분업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에 언급하기로 하자.

3) "생산의 세 가지 주요 사실 즉 힘 또는 생산 수단, 이 힘의 적용 및 결과의 구별이 충분히 면밀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시계 제조업자에게서 시계를 구매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노동의 결과 뿐이다. 또는 재봉사에게서 예복을 구매한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물을 그렇게 보지않는 고루한 사람들이 아직 있다. 그들은 노동자를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에게 옷감과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고 이러저러한 의복을 짓게 한다. 이 고루한 사람들은 무엇을 구매하는가? 그들은 힘을"〈그러나 " 이 힘의 적용"도 역시〉 "구매하며, 그들의 위험과 모험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하는 수단을 구매한다… 계약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힘의 구매이다."(그런데 여기에서 요점은 이 "고루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져 오는 노동 생산력의 전체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수한 구별이 로씨와 그와 비슷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특징적이다.)"종을 고용함으로써 나는 힘을 구매하는데, 그 힘은 수백 가지의 봉사를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힘의 활동과 결과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데 좌우된다"(p. 276). 이 모든것은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 414 ‖ 세째로 "어떠한 힘의 일정한 적용을… 구매하거나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신이 구매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생산물도 아

니며 결과도 아니다." 변호사의 변론은 내가 재판에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여하간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 간의 거래는 일정한 가치를 받고 그가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 가서 거기서 당신을 위하여 발언하며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정신력을 적용한다는 데 있다"(P. 276).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이 첨가된다. 제12강의, p. 273에서 로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당목이나 장화의 제조에 의하여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만을 생산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노동이건 그것을 존중하는데… 그러나 이 존중은 육체 노동자만의 특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A. 스미스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서적, 회화, 음 295
악 작품, 조각을 창조하는 사람은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의미의 "생산적 노동자"였다—비록 즉흥 시인이나, 낭송가나 음악의 명수 등등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봉사"는 그것이 생산에 직접 들어 가는 한에서는 A. 스미스는 생산물 속에 물질화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이건 지배인, 사무원, 기사, 심지어는 학자—그가 발명가이며 작업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하는 노동자이라면—의 노동이건 가리지 않았다. 분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스미스는 이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여러 사람들 간에 분배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생산물 즉 상품이 그들중 어떤 한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 노동의 결과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로씨 따위의 "정신적"노동자들은 그들이 물질적 생산 중에서 받고 있는 커다란 몫을 정당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한 다음 로씨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이리하여 교환 거래에서는 생산의 이 세 가지 주요 사실중에서 때로는 이것에 때로는 저것에 주의가 집중된다. 그런데 이 상이한 교환 형태가 일정한 생산물에서 부의 성격을 떼 낼수 있으며 일정한 생산자 계급의 노동에서 생산적 노동의 자질을 떼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념들 사이에서 그러한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연관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만약 내가 일정한 결과를 구매할 대신에 그 힘의 작용이 생산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며 생산물은 부로 되지 않는단 말인가? 다시 재봉사의 실례를 들어 보자. 재봉사에게서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이나 재봉사에게 옷감과 임금을 내주고 그에게 의복을 짓도록 위임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경우에 다 동일한 것을 얻게 된다. 아무도 첫째 노동은 생산적노동이며 둘째 노

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말하지않을 것이다. 다만 두 번째 경우에는 의복을 장만하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업가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생산력 면에서는 당신이 자기 집에 불러 온 재봉사와 당신이 종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같은 책, p. 277).

여기에서 우쭐대는 이 말공부쟁이의 온갖 허위적인 현명성의 진수가 나타나 있다. A. 스미스가 자기의 두 번째의, 보다 덜 심오한 규정에서 노동이 구매자에 의하여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노동의 직접 대상화되어 있는가 또는 대상화되어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별하고 있는 한에서 그는 재봉사를 두 경우에 다 생산적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보다 심오한 규정에 의하면 상술한 두 번째 경우의 재봉사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로씨는 단지 그가 A. 스미스를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교환형태"가 로씨에게는 아무래도 좋게 보인다는 것은 마치도 생리학자가 생명의 일정한 형태들은 그 모두가 유기체의 형태에 불과하기
296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 생산 방식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로 될 때에는 바로 이 형태들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웃저고리는 웃저고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첫번째 교환 형태에서 생산된다면 당신들 앞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대적 부르조아 사회이다. 만약 그것이 두번째 교환 형태에서 생산된다면 당신들 앞에 있는 것은 심지어 아시아적 관계나 또는 중세기적 관계 등등에 부합되는 육체노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하여 이 형태들이 소재적 부 자체에 대하여 규정적인 것으로 된다.

웃저고리는 웃저고리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로씨의 지나친 현명성의 알맹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는 재봉사는 웃저고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본을, 따라서 또 이윤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주인을 자본가로서, 자기 자신을 임금 노동자로서 생산하는 것이다. 내가 재봉사를 우리 집에 불러다가 나를 위하여 친히 웃저고리를 짓게 할 때에는 이 때문에 내가 자기 자신의 기업가(일정한 경제학적 범주의 의미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도 재봉사인 기업가가 그의 노동자들이 지은 웃저고리를 자신이 입고 다니며 소비하는 것‖ 415 ‖ 때문에 기업가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경우에는 재

봉 노동의 구매자와 재봉사는 단순한 구매자와 단순한 판매자로서 서로 대립한다. 한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은 상품을 제공하는데, 나의 돈은 그 상품의 사용 가치로 전화한다. 이것은 내가 상점에서 웃저고리를 사는 경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단순히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서로 대립한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경우에는 그들은 자본과 임금 노동으로서 서로 대립한다. 종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나 자신이 그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하여 구매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둘째 경우의 재봉사와 사회적 형태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이다. 차이는 다만 구매되는 사용 가치의 특수한 이용방식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의 가부장제적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구매와 판매의 이 관계를 그의 경제적 형태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변형시키며 욕지기 나는 것으로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로씨는 다만 다른 표현으로 가르니에를 되풀이한다.

"스미스가 종의 노동은 그 뒤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솔직히 말하여—아담 스미스는 같은 사람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공장주가 정력적이며 세심한 감독을 요하는 큰 공장을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자… 비생산적 노동자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을 참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은 하인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 소위 비생산적 노동에 바쳐야 하는 기간에 그의 생산적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능력에 보다 부합되는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을 당신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봉사의 흔적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겠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 자신과 당신의 집을 돌보는 일을 종들이 당신 대신에 하지 않았더라면 297
당신이 할 수 없었을 모든 것이 남는다"(같은 책, p. 277).

이것은 가르니에, 로더데일 및 가닐이 말한 노동의 절약의 되풀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비생산적 종류의 노동은, 그 노동이 "활동적 자본가"나 생산적 노동자를 위하여—이들은 보다 덜 귀중한 노동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는 덕택으로 보다 귀중한 노동을 수행할수 있다는 것이다—노동을 절약하며 그 자신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남겨 주는 한에서만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비생

산적 노동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치의 대상으로 되는 한에서의 하인들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생산적 노동자들, 즉 향락만을 생산하는 그리고 노동의 판매자가 그 노동을 생산하며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만한 시간을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데 쓰는 한에서만 그 노동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제외된다. 두 경우에 다 노동의 "절약"이란 문제로 될 수 없다. 끝으로 실제로 노동을 절약하는 개인적 봉사까지도 그 소비자가 생산적 노동자인 한에 있어서만 생산적일 것이다. 만약 그 소비자가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라면 개인적 봉사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할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에서만 그의 노동을 절약해 준다. 너절한 계집은 머리를 빗고 손톱 발톱을 깎는 일까지도 제가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며, 촌귀족은 제 자신이 말을 돌보지 않고 마부를 고용하며, 먹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제 자신이 요리를 만들지 않고 요리사를 둔다.

슈토르흐의 표현에 의하면(같은 책)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유 시간을 향락, 정신 노동 등등에 충당할 수 있게하는 "여가"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노동자에 속할 것이다. 경찰관은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헌병으로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하며, 병사는 나로 하여금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하며, 정부 관리는 내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하며, 구두 닦기는 내가 구두 닦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하며, 승려는 묵상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등등.

여기에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업에 관한 사상이다.자기의 생산적 노동이나 또는 생산적 노동의 착취 이외에 매 개인은 또한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소비 비용에 들어 가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원래 생산적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 소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위한 비생산적 노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봉사"가 유쾌한 것이라면 초야권(初夜權)*이나 주인님들이 오래 전부터 스스로 맡아 보는 관리 노동 등등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주인님은 자주 노예를 대신하여 그것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생산적 노동
298 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구별 자체가 분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반적 노동 생산

* 원문 Jus primae noctis--역자.

성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것은 분업이 비생산적 노동을 한 부분의 노동자들의 전문적인 기능으로 전화시키며 생산적 노동을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이 전문적인 기능으로 전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씨는 오로지 주인의 부를 보라는듯이 내세우며 주인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는 사명만을 지닌 그런 하인 대중의 "노동"까지도 "비생산적 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즉 허영심의 충족, 부를 자랑하며 보라는듯이 내세울 가능성(같은 책, P. 277)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봉사가 마치도 그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즉 매춘부는 색욕을, 살인자는 살인을 각각 생산한다는 등등의 불합리한 말에 다시금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또 스미스는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체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이 "봉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도 결함이 있었다[416].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이 무상으로 수행된다고 하여도 단 한 푼어치의 부(물질적)도 증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에 너절한 잡담이 계속된다:

"가수는 그가 노래를 끝 마쳤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아니다. 그는 추억을 남긴다!"(아주 애교가 있다!). "샴페인을 마시면 그 후에 무엇이 남는가?… 경제적 결과는, 소비가 생산이라는 사실에 곧 뒤이어 진행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소비가 급속히 진행되는가 또는 완만하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소비라는 사실 자체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생산물에서 부의 성격을 빼앗아 낼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물질적 생산물보다 더 오래 가는 비물질적 생산물이 있다. 궁전은 오래 간다. 그러나 '일리아드'는 더 오래 가는 향락의 원천이다"(pp. 277~278).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로씨가 여기에서 부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즉 사용 가치의 의미에서는 문제는 이렇게까지 된다. 즉 소비만이 생산물을 비로소 부로 만든다고—소비가 어떻게 수행되건 즉 그것이 완만하게 수행되건 급속하게 수행되건(소비 기간은 그 자체의 성질과 물건의 성질에 의존한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사용 가치는 다만 소비에 대하여서만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를 위한 사용 가치의 정재는 소비품으로서의 정재에 불과하며, 소비에서의 그것의 정재에 불과하다. 샴페인을 마시는 일은 비

록 그것이 "숙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적 소비가 아닌 것처럼 음악을 듣는 일도 비록 그것이 그 후에 "추억"을 남긴다 하더라도 생산적 소비가 아니다. 만약 음악이 좋고 듣는 사람이 음악을 이해한다면 음악의 소비는 샴페인의 소비보다는 더 고상한 것이다. 후자의 생산이 "생산적 노동"이며 전자의 생산이 비생산적 노동이더라도 그러하다.

* * *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스미스의 구별을 반대하는 모든
299 허튼 소리를 총화 지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르니에와 또한 아마도 로더데일과 가닐(그런데 이 후자는 아무런 새로운 것을 내놓지 못하였다)이 이 논쟁의 전체 내용을 논할 대로 다 논했다는 것이다. 그 후 사람들(슈토르흐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를 제외하고)은 너절한 논의, 교양 있는 잡담을 벌려 놓은 데 불과하다. 가르니에는 총통부와 집정부* 시기의 경제학자이며 페리에와 가닐은 제정 시대의 경제학자들이다. 다른 한편 로더데일 백작 각하는 소비자들을 "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자라고 변호론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 목적으로 하였다. 종 제도, 종복 제도에 대한 찬미, 세금 징수인, 기생자들에 대한 찬양은 이 모든 주구들의 서술에 일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고전 정치 경제학에 고유한 조야하게 냉소적인 특징은 현존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19. 부자의 낭비에 대한 맬더스주의자 챌머즈의 변호]

가장 광신적인 맬더스주의자의 한 사람은 신학 교수 *T*. 챌머즈 대사(大師)이다. 그는 저서 『사회의 도덕적 상태 및 도덕적 전망과 관련된 정치 경제학에 관하여』(제2판, 런던, 1832년)의 저자이다. 챌머즈의 의견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는 수단은 노동 계급에 대한 종교적 교양(이것을 그는 맬더스 인구론을 기독교적으로 미화하고, 승려가 교화하는 식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온갖 종류의 남용, 국가의 낭비, 승려들에 대한 거액의 보수 및 부자들의 발광적 낭비의 열렬한 옹호자이다. 그는 "시대의 정신"

---

* 원문 directoire와 consulat—역자.

에 대하여 한탄하며(p. 260이하)"기아와 다름 없는 엄격한 절약"에 대하여 한탄하며 "상류층"과 비생산적 노동자들 및 승려 등등을 위한 다액의 세금, 푸짐한 포식을 요구하고 있으며(같은 곳) 그리고 물론 스미스의 구별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그 구별에 대하여 온 한 장(제11장)을 배당하고 있는데, 이 장에는 절약 등등이 "생산적 노동자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데 불과하다는 주장 이외에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다. 이 장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말들에서 특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구별은 보잘것 없는 것이며 더우기 그 적용에 있어서는 악의를 품은 것이다"(같은 책, P. 344). 그 악의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그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우리가 현대의 정치 경제학이 국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혹하며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며 해독적인 스미스의 구별이 이것을 크게 조장하였다는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P. 346).

"국교"란 말로 이 승려는 자기 자신의 교회를, 영국의 교회를 법률로 *300*
"제정된"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이 "국교"를 아일랜드에 보급시킨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승려에겐 적어도 솔직한 점은 있다.

[20. 아담 스미스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그의 견해에 관한 결론적 지적]

‖ 417 ‖ 아담 스미스에 관한 편을 끝 맺기 전에 그의 저서에서 두 부분을 더 인용한다. 첫 부분은 그가 비생산적 정부에 대한 자기의 증오감을 표명하고 있는 곳이다. 두 번째 부분은 그가 공업 등등의 발전이 어째서 자유로운 노동을 전제로 하는가를 논증하려고 애쓰고 있는 곳이다. 승려들에 대한 스미스의 증오에 관하여![82]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왕들과 대신들이 감히 사사로운 사람들의 절약을 감시하고 또 사치를 금지하는 법령들이나 또는 외국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주제넘는 일이며 건방진 일이다. 그들 자신이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사회에서 가장 큰 낭비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지출에 대하여 주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지출에 대한 근심은 이들 자신에게 안심하고 맡기라. 만약 그들 자신의 낭비가 국가를 멸망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백성들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멸망케 하지 않을 것이다"(제2부, 제3장, 맥컬로크 판, 제2권, p. 122).

그리고 다음 부분들* 다시 한 번 든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일부 신분들의 노동은 하인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며" 〈그 노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얼마간의 등가물에 해당하나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오래 견디는 물건이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예컨대 군주와 그에게 복무하는 그의 모든 법관들과 장교들, 전체 육군과 해군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사회의 봉사자이며 타인의 노동에 의한 연 생산물의 일부로써 유지된다. 이 계급에 넣어야 할 것은… 승려, 법률가, 의사, 각종 작가, 연극 배우, 광대, 음악가, 오페라 가수, 무용가 등등이다"(같은 책, pp. 94~95).

이것은 아직도 전체 사회, 국가 등등을 자기에게 종속시키지 못한, 아직 혁명적이었던 부르조아지의 말이다. 예로부터 존경받아 온 이 모든
301 초월적인 직무—국왕, 재판관, 장교, 승려 등등—, 그들이 탄생시키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신분의 총체, 이 신분에 속하는 모든 학자, 학사 및 승려들이… 부르조아지 자신의 종복들과 광대들의 무리와 경제적으로는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들은 부르조아지와 무위도식하는 자들의 부의 대표자들 즉 토지귀족과 무위도식하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부양된다. 그들은 그들의 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단순한 종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 생산물로 살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효는 불가피한 최소 한도에까지 축소되어야 한다. 국가, 교회 등등은 그것들이 생산적 부르조아들의 공동 이익을 관리하거나 이 공동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위원회들로 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한 것이며 또 이 기관들에 대한 지출은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지출이 어느 모로 보나 비생산적 비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이 노예제의 낙인을 지니고 있으며 무위 도식하는 시민을 위한 받침대로서만 간주되던 옛날 옛적의 견해에

---

* 이책 p.169, 171 및 287을 보라—편집자.

** p. 192의 각주를 보라—편집부.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기의 분해에서 발생한 절대 군주제 또는 귀족—입헌 군주제의 견해—예컨대 몽테스큐가 스스로 아직 그 견해에 사로잡혀 있던 때에 "만약 부자들이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면 가난뱅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한 논제(『법의 정신』, 제7분책, 제4장)에서 그처럼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는—에 대하여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흥미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르조아지가 지위를 확보하고 부분적으로는 직접 국가를 장악하고 부분적으로는 이전의 주민들과 타협한 때로부터, 부르조아지가 이데올로기적 신분들을 자기의 혈육으로 인정하고 도처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알맞게 개조하여 자기의 고용인들로 전화시킨 때로부터, 부르조아지 스스로가 이미 생산적 노동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에 대립하여 진정한 생산적 노동자들이 일어서서 부르조아지가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써 살아 간다는 꼭 같은 말을 그에게 하게 된 때로부터, 부르조아지가 생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양 있는" 소비를 지향하리만큼 충분히 계몽된 때로부터, 심지어는 정신 노동까지도 더욱 더 부르조아지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수행되며 자본주의적 생산에 복무하게 되는 때로부터—이 때로부터 사태는 전변되며 그리하여 부르조아지는 이전에 그가 비판의 목소리를 올려 반대하여 싸운 바로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견지에서 "경제적으로"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 면에서 그의 대변자로, 그의 양심의 위안자로 되는 것은 가르니에와 기타 사람들이다. 여기에다 또 자기들의 "생산적"유용성을 논증하며 자기들의 보수를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그 경제학자들(자신들이 승려이며, 교수 등등인)의 열렬한 지향이 겹쳐진다.

‖ 418 ‖ 두 번째—노예제에 관계되는—부분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302*

"그와 같은 종류의 직업"(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직업) "은 노예들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많은 고대 국가들에서)"시민들에게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다. 그러한 금지가 없던 국가들 예컨대 아테네와 로마에서까지도 현재 도시 주민의 하층 계급이 보통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서 인민들이 사실상 배제되었었다. 로마와 아테네에서 그런 직업에 종사한 것은 부자들의 노예들이었으며 그것도 자기 주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사하는 것이었는데 이 주인들의 부, 위력, 비호는 가난한 자유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품이 부자의 노예들의 제품

과 경쟁할 때에는 자기들의 제품의 판로를 거의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예들은 발명하는 일이 드물며, 기계로써든 훌륭한 노동 조직과 분업으로써든 노동을 헐하게 하며 단축시키는, 공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든 개선들은 자유민들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예가 그런 종류의 개량을 고안하여 제기하면 그의 주인은 거기에서 나태의 표현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노동을 아끼려는 기미를 찾아 내려고 하였을 것이다. 불쌍한 노예는 표창 대신에 아마도 오직 욕설을 듣거나 때에 따라서는 매까지도 맞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노동이 적용되는 기업소들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통례로 자유민들의 노동을 적용하는 기업소들에서보다 더 많은 노동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첫째 종류의 기업소들의 제품은 통례로 둘째 종류의 기업소들의 제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몽떼스큐는 헝가리의 광산들이 인접하고 있는 터어키의 광산들보다 부광이 못 되면서도 언제나 적은 비용으로써 따라서 많은 이윤을 내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터어키의 광산들은 노예들을 이용하여 운영되었는데 이 노예들의 손은 터어키인들의 생각이 미친 유일한 기계였다. 헝가리의 광산들은 자기 노동을 헐하게 하고 단축하기 위하여 많은 기계들을 사용한 자유민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희랍과 로마 시대의 공업 제품 가격에 관한 적은 자료로 미루어 보아도 높은 품질의 제품은 대단히 비쌌던 것 같다"(같은 책, 제4부, 제9장, 가르니에 역, 제3권, pp. 549~551).

A. 스미스 자신이 제4부, 제1장[83]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로크 씨는 화폐와 기타 온갖 동산 간의 차이를 지적하고있다. 그는 기타 모든 가동적인 물건들은 일시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부에 특별히 의거할 수는 없을 정도이다. …그와는 반대로 화폐는 믿음직한 벗이라고 말하였다" 운운(같은 책, 제3권, P. 5).

계속하여 같은 책 pp. 24~25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소비품은 급속히 없어지지만 금과 은은 '오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금은을 부단히 국외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이 금속들은 몇 세기를 두고 축적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나라의 현실적 부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다."

중금주의의 신봉자는 금과 은의 획득에 열중하는데, 왜냐하면 금은이

화폐이며, 교환 가치의 자립적인 정재이고, 그것의 명료한 정재이며, 그것도 그것들이 유통 수단으로, 즉 상품의 교환 가치의 찰나적인 형태에 303
불과한 것으로 되게 하지 않는 한, 교환 가치의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정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은의 축적, 그것들의 퇴적, 화폐 퇴장은 중금주의가 내세우는 치부의 방식이다. 그리하여 내가 페티에게서의 인용문[84]에 의하여 보여 준 바와 같이 다른 상품들까지도 여기서는 다만 그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래 견디는 정도에서만, 즉 그것들이 교환 가치로 남아 있는 정도에서만 평가된다.

그런데 A. 스미스는 첫째로 그가 소비는 소비품의 긴 또는 짧은 존재 기간에 따라서 부의 형성에 더 유용할 수도 있으며 덜 유용할 수도 있다[85]고 말한 대목에서 상품들의 상대적으로 긴 또는 짧은 내구성에 관한 동일한 고찰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그의 중금주의적 견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심지어 직접적인 소비의 경우에도 상품 소유자에게는 ‖ 419 ‖ 소비품이 계속 부로, 상품으로 따라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통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은 사용 가치의 교환 가치의 통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은 사용 가치의 내구성의 정도에, 따라서 일련의 경우에 소비가 점차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만 일정한 사용가치에서, 상품으로 즉 교환 가치의 담당자로 될 가능성을 빼앗는 데 의존한다는 사실이 속심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두 번째 구별에서 스미스는 중금주의에 의한 구별에로—보다 광범한 형태에서—전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생산적 노동은 "어떤 개별적 물건 즉 판매할 수 있고 적어도 이 노동 자체가 이미 끝난 후에도 일정한 기간 존재하는 상품에 고정되며 대상화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경우에 이용되게 축적되고 보관되는 일정량의 노동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생산적 노동 또는 그것에 의하여 수행되는 봉사는 "보통 그것이 수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없어지며 그 후에 동일한 양의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흔적이나 또는 그 어떤 가치를 남기는 일이 드물다"(제2부, 제3장, 맥컬로크 판, 제2권, p.94).

따라서 스미스는 중금주의가 금과 은을 한편으로 하고 기타 모든 상품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상품과 봉사를 구별하고 있다. 역시 스미스도 축적의 견지에서 구별하고 있으

나 축적은 벌써 화폐 퇴장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생산 형태에서 고려되고 있다. 상품은 소비에서 없어지지만 이에 있어서 상품은 보다 높은 가치의 상품을 새로 생산하며 그것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그 자체가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되는 것이다. 노동 생산물 자체의 속성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래 견디며 따라서 반복하여 양도될 수 있는 사용 가치의 형태로 존재하며
304 그것이 판매할 수 있는 유용한 물건으로 교환가치의 담당자로, 상품으로 또는 사실상 화폐로 되는 그런 사용가치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봉사는 다시금 화폐로는 되지 않는다. 내가 변호사, 의사, 승려, 음악가 등등, 정치가, 병사 등등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봉사로써 나는 채무를 지불할 수도 없으며 상품을 구매할 수도 없으며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을 구매할 수도 없다. 그 봉사는 일시적인 소비품이 사라지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만다.

그런즉 스미스는 본질상 중금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금주의는 화폐 즉 금은을 생산하는 노동만을 생산적이라고 간주한다.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자기 구매자에게 화폐를 생산하여 주는 그런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다만 차이는, 스미스는 모든 상품에 고유한 화폐적 성격을, 그것이 어떻게 그 상품들 속에 숨어 있든 간에 그것들 속에서 밝혀 내고 있는데, 중금주의는 그것을 다만 교환 가치의 자립적 정재인 상품 속에서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구별은 부르조아적 생산의 본질 자체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가 사용 가치와 같지 않으며 부로 되는 것은 오직 상품 즉 교환 가치의 담당자로서의, 화폐로서의 사용 가치이기 때문이다. 중금주의는, 이 화폐가 상품의 소비를 통하여 조성되고 증식되는 것이고 상품이 금은으로 전화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며 금은에 있어서 상품은 자립적 교환 가치로서 결정(結晶)되나, 자체의 사용 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자체의 가치의 크기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제 5 장]

네 케 르

[자본주의 하에서의 계급들의 대립을 빈곤과 부(富)간의 대립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이미 위에서 든 렝게의 저서에서의 인용문들은 그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격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86]. 그렇지만 여기에서 네케르 다음에 다시 한번 렝게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88].

네케르는 자기의 두 저서, 즉 1775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곡물법과 곡물 거래에 관하여』와 『프랑스의 재정에 대하여』에서, 노동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임금을 재생산하는 데 보다 적은 시간을지출 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자기의 고용주를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될 따름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있어서 네케르는 정당하게 평균 임금, 최저 임금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의 자본으로의 전화 자체와 이 과정을 통한 자본의 축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 필수품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량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의 일부가 더욱 더 과잉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생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빈곤과 부, 빈곤과 사치 간의 대립이 일반적으로 격화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치품의 일부는 오래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치품들은 몇 세기에 걸쳐 잉여 노동을 차지하는 자들의 수중에서 축적되고 그 결과 위에서 지적한 대립은 더욱더 현저하게 된다.

네케르가 비근로 계층‖420‖의 부—이윤과 지대—를 일반적으로 잉

여 노동에서 끌어 내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는 잉여 가치를 고
306 찰할 때 총 노동일의 연장이 아니라 필요노동 시간의 단축에서 표현된다. 이에 대한 주요한 곳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의 재정에 대하여』(『전집』 제2권, 로잔느 및 파리, 1789년):

"나는, 사회의 한 계급의 소득은 항상 거의 변하지 않음을 본다. 나는, 다른 한 계급의 부는 불가피하게 성장하는 것을 본다. 그 기초에 대조와 대비가 놓여 있는 사치는 이 불일치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현저하게 된다…"(같은 책, pp. 285~286). (이미 여기에 두 계급의 계급으로서의 대립이 훌륭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 운명이 마치 사회 법칙들에 의하여 고착 되어 있는 듯한 사회계급은 자기의 노동으로 살아 가면서 부득이 소유자들"(생산조건의 소유자들)"의 법칙들에 복종하며, 다만 가장 절실한 생활상 요구에 상응하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경쟁과 빈궁의 압박은 그들을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하며, 또 이 처지는 변경 될 수 없다"(같은 책, PP. 286).

"그리하여 모든 기계 노동을 단순화하는 더욱더 새로운 도구들의 발명은 소유자들의 부와 복리를 증대시켰다. 이 도구들의 일부분은 토지 경작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인류의 천재의 발명의 다른 일부분은, 생존 수단을 분배하는 자들"(즉 자본가들) "에게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종 제품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리만큼 공업에서의 노동을 경감시켰다"(같은 책, p. 287). "현재 8만 명으로 수행하는 일을 지난 세기에 수행하는 데는 10만명이 필요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나머지 2만명은 임금을 벌기 위하여는 다른 직업에 고용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부자들의 향락과 사치를 증대시키는 육체 노동에 의한 새 제품들이 창조된다"(pp. 287~288).

"왜냐하면",—네케르는 계속하고 있다—"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모든 노동에 대한 보수는 항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존 수단의 가격에 상응하며, 따라서 일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 현상으로 될 때에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으며, 다만 토지의 생산들을 차지하는 자들의 기호와 허영심을 충족시키는데 봉사하는 수단들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같은 책, p. 288). "인간의 기술이 만들며 변형시키는 자연의 각종 재물

가운데에는 그 내구성이 인간의 보통 수명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많다. 즉 매 세대는 선행 세대의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것의 일부분을 물려받으며"〈네케르는 여기에서 A. 스미스가 소비 자금이라고 부른 것의 축적에 대해서만 고찰하고 있다〉"모든 나라들에서 더욱 많은 양의, 기교있는 노동의 산물이 점차 축적된다. 그런데 이 모든 양의 산물이 항상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조건과 수많은 시민 계급의 생활 조건 간의 불일치는 점점 더 현저하게 되며 점점 더 눈에 뜨이게 된다.(P. 289). 그리하여:"지구상의 사치품과 장식품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공업에서의 노동의 촉진, 그것들이 축적되는 기간의 길이, 사회의 한 계급의 수중에만 이 재물을 집중시키는 소유의 법칙, …이 모든 풍요한 사치의 307
원인은, 유통 중에 있는 화폐의 수량이 얼마나 되든 간에 역시 존재할 것이다"(같은 책, p. 291). (이 마지막 지적은 화폐량의 증가에서 사치품을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논박이다.)

둘째로, 『곡물법과 곡물 거래에 관하여』(『전집』, 제4권).

"수공업자나 농민이 저장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적수공권으로 되고, 내일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일을 해야 하며, 소유자와 노동자 간의 ‖ 421 ‖ 이 이해 관계의 투쟁에서 한편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오직 자기 사치를 계속 증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로 될 뿐이다"(같은 책, P. 63).

일하지 않는 자들의 부와 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빈궁 간의 이 대립은 또한 지식의 대립을 생산한다. 지식과 노동은 서로 분리되고 전자는 자본으로서 또는 부자의 사치물로서 후자와 대립한다.

"인지능력과 이해력은 자연의 일반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교육의 의해서만 발전한다. 만약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면 각자는 적당히 일할 것이며"(그리하여 역시 노동 시간의 양이 결정적이다.) "각자에게 학습과 사색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 남으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에 의하여 생산된 재산상의 불평등이 있는 조건 하에서 재산을 못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배움의 길이 막혀 있다. 모든 생존 수단이 국민 중에서 돈이나 땅을 소유한 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또한 누구도 어떤 것이든지 무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할 때에 자신의 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저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힘—겨우 발전하기 시작하였을 뿐인—을 소유자에 대한 봉사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이것은 일평생 날이면 날마

다, 해가 솟을 때부터 그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수면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된다"(p. 112). 이리하여 결국 지식의 이러한 불평등이 그것을 낳은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논쟁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같은 책, p. 113. p. 118, 1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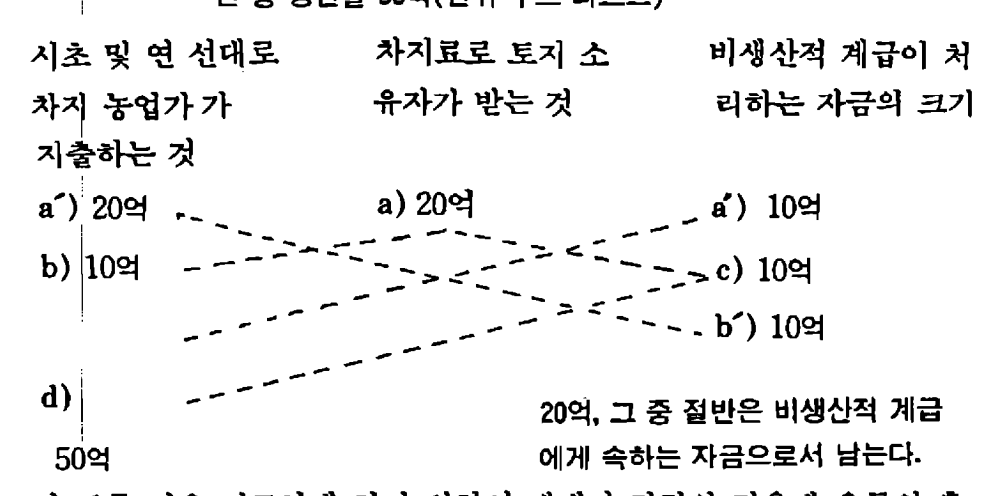
네케르는 중농주의자들에게 특징적인 토지에 관한,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경제학자에게 특징적인 자본의 소재적 요소에 관한 경제적 개념의 혼동을 조소하고 있는데, 이 혼동으로 말미암아 생산 조건의 소유자들은 그것이—그러나 결코 소유자들 자신이 아니다—노동 과정을 위하여, 부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로부터 오만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수행하기 아주 쉬운 기능)의 의의와 토지의 의의를 혼동하기 시작하고 있다"(같은 책, p. 126).‖Ⅸ－421‖

[제 6 장]
케네의 경제표(보론)

[1. 총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표시하려는 케네의 시도]

Ⅱ X −422 | 케네의 경제표[88]



이 표를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케네가 각각의 경우에 유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a, a, a′로 그유통에서의 다음 고리를 b, c, d와 그리고 각각 b′, b′로 표시하였다.[89]

이 표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화폐 유통이 상품의 유통과 상품의 재생산에 의하여, 실제에 있어서 자본의 유통 과정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이다.

[2.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유통, 재생산을 표현하지 않는, 차지인으로의 화폐의 복귀]

차지인은 우선 20억의 화폐를 토지 소유자(Propriétaire)에게 지불한다. 후자는 이 화폐 중에서 10억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차지인에게 구매한다. 그리하여 10억의 화폐가 차지인에게로 돌아오며 한편 총 생산물
309 의 1/5이 실현된 것으로 되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유통 분야로부터 소비 분야로 넘어 간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10억의 화폐로 10억의 가치가 있는 공업 상품, 비농산물을 구매한다. 이로써 또 생산물(이미 변형된)의 1/5이 유통 분야로부터 소비 분야로 넘어 간다. 이 10억의 화폐는 이제는 비생산적 계급의 수중으로 들어 가고 이 비생산 계급은 그 화폐로써 차지인에게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이와 함께 차지인이 지대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한 금액 중 나머지 10억이 차지인에게 다시 돌아 온다. 다른 한편 또 차지인의 생산물의 1/5이 비생산적 계급의 수중으로 들어 감으로써 유통 분야로부터 소비 분야로 넘어 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운동의 종말에 가서 결국 이 20억의 화폐가 다시 차지인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상이한 종류의 네 개의 유통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20억의 화폐는 지대의 지불에 필요한 지불 수단으로서 복무하였다. 이 기능에 있어서 그것은 연 생산물의 어떤 부분을 위한 유통 수단이 아니며 다만 총 생산물 중 지대와 동등한 부분을 받을 데 대한 유통하는 지불명령서(draft) 이다.

둘째로, 토지 소유자는 20억의 절반인 10억으로 차지인에게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10억을 식료품으로 실현한다. 차지인은 사실상 이 10억이라는 화폐로, 자기 생산물 중에서 2/5를 받을 데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 지불명령서 액면의 절반을 도로 받을 뿐이다. 이 경우에 이 10억은 구매 수단으로서 복무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소비로 넘어 가는 그 금액 만큼의 상품을 유통에 인입한다. 이 경우에 이 10억은 다만 구매 수단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복무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 화폐를 도로 사용 가치(종국적으로 소비로 넘어 가며 사용 가치로서 구매되는 상품)로 전화시킨다.

만약 우리가 이 개개의 행위만을 고찰한다면 여기에서 화폐가 차지인

을 위하여 수행하는 역할은 그것이 구매 수단으로서 항상 판매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역할, 즉 그의 상품의 전화된 형태라는 역할에 불과하다.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10억의 화폐를 곡물로 전화시켰는데, 차지인은 10억의 가격을 가진 곡물을 화폐로 전화시켰으며 그 곡물의 가격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이 행위를 선행한 유통 행위와 관련시켜 고찰한다면 이 경우에 화폐는 단순히 차지인의 상품이 형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서 즉 그의 상품의 금 등가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10억의 화 *310*
폐는 사실 차지인Ⅱ423 Ⅰ이 지대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한 그 20억의 화폐의 절반을 이룰 따름이다. 차지인은 물론 10억의 상품에 대하여 10억의 화폐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로 지불한 그 화폐를 도로 찾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가 차지인에게서 받은 10억으로 그 차지인에게서 10억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구매한다. 토지 소유자는 차지인에게 등가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받은 화폐를 그에게 지불한다.

차지인에게로의 화폐의 이 복귀는 우선, 첫 행위와 관련하여 화폐가 차지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통 수단으로서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복귀는 재생산 과정을 표현하는, 출발점으로의 화폐의 환류 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예컨대 : 자본가 또는—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에만 특징적인 것을 아주 도외시하기 위하여—생산자가 그의 작업의 전 기간에 필요한 원료, 노동 도구 및 생활 수단을 구입하는 데 100파운드 스털링을 지출한다. 그리고 그가 생산 수단에 첨가한 노동이 생활 수단 즉 자기 자신에게 지불된 임금분으로 지출한 노동보다 더 많지 않다고 전제하자. 만약 원료 등등=80파운드 스털링이고, 첨가된 노동=20 파운드 스털링(그가 소비한 생활 수단도 이 금액과 동등하다)이라면 생산물=100 파운드 스털링이다. 그리고 만약 생산자가 이 생산물을 판매한다면 100파운드 스털링은 화폐로 다시 그에게 돌아 온다—그리하여 같은 것이 반복된다. 이 경우에 화폐의 그 출발점으로서의 이 환류는 다름 아닌 부단한 재생산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경우에 $G-W-G$라는 단순한 형태 변화 즉 상품으로의 화폐의 전화와 화폐로의 그 상품의 역전화를 보게 된다. 상품 형태와 화폐 형태의 이 단순한 교체는 동시에 재생산 과정을 표시한다. 화폐는 상품으로 즉 생산수단과 생활 수단으로 전화되며 다음으로 이 상품은 노동 과정에 그 요소로서 들어 가고 생산물로서 거기로부터 나온

다. 그리하여 과정의 결과로서, 완제품이 다시 유통 과정에 들어 가서 상품으로서 화폐와 맞설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상품이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 상품은 도로 화폐로 전화되는데, 왜냐 하면 완제품이 미리 화폐로 전화된 후에야만 그것은 그 생산 요소들과 다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출발점으로의 화폐의 부단한 환류는 화폐의 상품으로의 또
311 상품의 화폐로의 형태상 전화—단순 유통 과정에서나 또는 단순 상품 교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일한 생산자 측에서의 상품의 부단한 재생산도 표시한다. 교환 가치(화폐)는 상품으로 전화되며 그 상품은 소비로 들어 가서 사용 가치로서 이용되는데 그것도 재생산적 소비 즉 산업적 소비로 들어 가서 시초 가치를 조성하고 그 결과 다시 동일한 액의 화폐로 전화된다(생산자가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위에서 든 실례로서). 공식 G–W–G는 이 경우에 G가 형태상으로만 W로 전화될 뿐만 아니라 W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치로서 소비되고 유통 분야로부터 소비 분야로 넘어 간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산업적 소비이며 그리하여 그 속에 상품의 가치가 보존되고 재생산되며 그 결과 이 과정의 종말에 가서 G가 다시 나타나며 G–W–G의 운동 속에 보존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반대로, 위에서 지적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차지인에게로의 화폐의 환류 속에는 아무런 재생산 과정도 없다. 사태는 마치 차지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10억의 생산물을 받은 데 대한 증서나 전표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 소유자가 이 전표를 내어 놓으면 그 전표는 차지인에게로 돌아오며 차지인은 그것을 되산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절반을 직접 현물로 지불받는 데 동의한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런 화폐 유통도 없을 것이다. 모든 유통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의 단순한 이전 즉 차지인의 수중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수중으로의 생산물의 이전에 국한될 것이다. 그러나 차지인은 처음에 상품 대신에 화폐를 토지 소유자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상품 자체를 얻기 위하여 차지인에게 화폐를 도로 내준다. 화폐는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인에게 지불 수단으로서 복무하며, 토지 소유자와 차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구매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화폐는 그 첫 기능에 있어서는 차지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둘째 기능에 있어서는 도로 그에게로 돌아 온다.

생산자에게로의 이러한 종류의 화폐의 환류는 생산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생산물의 일부분을 줄 대신에 이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로 지불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 경우에 그의 잉여 생산물의 모든 공동 소유자는 채권자로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실례로 될 수 있다. 생산자는 모든 세금을 화폐로 지불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생산자에게 있어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불 수단으로 된다. 국가는 이 화폐를 가지고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한다. 국가의 수중에서 화폐는 구매 수단으로 되며 그리하여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로 환류한다.

화폐 환류의 이러한 계기—재생산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화폐의 이러한 독특한 환류—는 소득과 자본과의 교환에 있어서 언제나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화폐의 환류는 재생산에 의하여서가 아니 *312*
라 소비에 의하여 초래된다. 소득은 화폐로써 지불되나 그것은 상품으로만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서 소득으로서 받은 화폐는 생산자에게서 동일한 가치를 상품으로 받기 위하여—즉 소득을 소비할 가능성을 가지기 위하여—생산자에게 도로 지불되어야 한다. 소득—예컨대 지대나 이자나 세금—으로서 지불되는 화폐는 일반적인 지불수단의 형태를 띤다. ‖ 424 ‖ 〈산업 자본가는 생산물로써 자기의 소득을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생산물 대신에 얻은 화폐 중 자기의 소득을 이루는 부분을 자신에게 지불한다〉 이 소득을 지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를 이전에 채권자에게서 받았다고, 예컨대 차지인은 생산물 중 케네에 의하면 지대를 이룬다고 하는 2/5를 받았다고 가정되고 있다. 차지인은 그것의 명의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점유자일 뿐이다.

그리하여 차지인의 생산물 중 지대를 이루는 부분이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 간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가 이중으로 유통하지만 그 생산물의 가치와 동등한 화폐 액만이 요구된다. 처음에는 차지인이 지대를 화폐로써 지불하며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화폐로써 생산물을 구매한다. 첫째 경우는 단순한 화폐 양도인데, 그것은 이 경우에는 화폐가 다만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며, 따라서 그 대금이 지불되는 상품이 이미 지불자의 소유로 되어 있고 화폐가 그에게

* 원문 de facto(법률상—de jure—과 구별되는 것)—편집자.

있어서 구매 수단으로 되지 않으며 지불자가 화폐에 대한 등가물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이 등가물이 이미 사전에 그의 수중에 있다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는 반대로 화폐는 구매 수단으로서, 상품의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사태는 마치 차지인이 그가 지대로 지불하는 화폐로써 생산물 중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몫을 토지 소유자에게서 산 것과 같다. 토지 소유자는 차지인에게서 받은 바로 그 화폐(차지인은 이것을 사실상 등가물을 받지 않고 내주었다)로써 자기가 소비할 생산물을 차지인에게서 도로 산다.

따라서 생산자가 소득의 소유자에게 지불 수단의 형태로 지불하는 동일한 금액의 화폐는 소득의 소유자에 대하여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그리하여 생산자의 수중으로부터 소득의 소유자의 수중으로 또 거꾸로 소득의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생산자의 수중으로의 두번에 걸치는 이 화폐의 이동은 오직 한 번의 상품 이동, 바로 생산자의 수중으로부터 소득의 소유자의 수중으로의 이동을
313 표현한다. 생산자는—자기 생산물의 일부분에 대해서—소득의 소유자의 채무자라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사실상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를 소득의 소유자에게 화폐지대의 형태로 사후에 지불할 뿐이다. 상품은 생산자의 수중에 있으나 그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의 형태로 자기가 지불하는 화폐로써 생산자는 이 상품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의 화폐의 이동은 여전히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표현할 뿐이다. 이로부터 상품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한번 이전할 따름인데 화폐는 두 번 이전하게 된다. 한 번의 상품 유통을 위하여 화폐는 두 번 유통한다. 그러나 화폐도 유통 수단(구매 수단)으로서는 한 번만 유통하며 또 한 번은 지불 수단으로서 자기의 유통을 수행한다. 이 마지막 유통에 있어서는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품과 화폐의 동시적 이전이 진행되지 않는다.

사실상 만약 차지인에게 화폐가 없고 생산물만 있다면 그는 자기의 상품을 사전에 판매한 후에야만 자기의 생산물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차지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자기의 상품을 화폐로 지불할 수 있기 전에 이 상품은 이미 자기의 첫 형태변화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하에서도 상품 측보다 화폐 측에 더 많은 이동이

있다. 처음에 W-G가 나타난다, 즉 2/5의 상품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는 상품과 화폐의 동시적 이동이 진행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 화폐는 상품의 이전이 없이 차지인의 수중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넘어 간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이전이 없이 화폐의 이동이 진행된다. 사태는 마치 차지인이 동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동업자와 나누어야 한다. 그 2/5에 대하여 사태는 마치 차지인의 고용인이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 고용인은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둘 수 없고 차지인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화폐의 이동은 상품의 아무런 형태 변화도 표현하지 않으며 다만 그의 직접적인 점유자의 수중으로부터 그의 소유자의 수중으로의 화폐의 양도일 뿐이다. 그리하여 화폐의 첫 수령자가 다만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화폐를 받는 대리인인 경우에 사태는 그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화폐는 지불수단도 아니며 화폐는 소유자가 아닌 수령자의 수중으로부터 그것의 소유자의 수중으로 단순히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이동은 한 종류의 화폐와 다른 종류의 화폐가 단순히 *314*
교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형태 변화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그러나 화폐가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할 때에는 항상 지불자는 먼저 상품을 받고 후에 대금을 청산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차지인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이 상품을 받지 않았다. 즉 이 상품은—그것이 토지 소유자의 수중에 들어 가기 전에—차지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생산물의 일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차지인은 그가 상품의 대가로 받은 화폐를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 줄 때에 비로소 이 상품의 소유자로 된다. 변화는 다만 상품에 대한 차지인의 권리에서 일어나며 상품 자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상품이 그의 수중에 점유되어 있었고 그 상품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이 그 자신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차지인의 수중에 있게 된다. 상품은 동일한 사람의 수중에 있으므로 법률상 형태가 교체되더라도 물론 상품 자체는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화폐 유통 문제에 대하여]

[a. 임금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선대로 보는 황당한 견해. 이윤을 모험에 대한 상금으로 보는 부르조아적 관념]

II 425 I〈상술한 데서 역시, 자본가의 이윤을 마치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기 전에 노동자에게 화폐를 선대하는 것으로써 "설명하는" 문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첫째로, 내가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나는 구매자이고 상품의 소유자는 "판매자"라는 사정, 또는 나의 상품은 화폐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의 상품은 이제부터 화폐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사정으로부터는 나에게 아무런 "이윤"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상품들은 소비되기 전에 대가가 지불되지만 자본가는 노동의 대가는 노동을 소비한 후에야만 지불한다. 이것은 그가 구매하는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상품은 사실상 그것이 완전히 소비된 후에야만 구매자에게로 완전히 넘어 간다. 이 경우에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 나타난다. 자본가는 항상 "노동"이라는 상품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취득한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자는 목적에서만 노동을 구매하는 것은 결코 그가 이 이윤을 얻는 원인으로는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동기로 될 뿐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될 따름이다. 임금 노동을 구매함으로써 자본가는, 이 노동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짜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어쨌든 자본가는 생산물 중 노동자의 임금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화폐 형태로 노동자에게 선대하며 그리하여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상품 부분을 노동자 자신이 화폐로 전화시켜야 한다면 불가피한 것으로 될 근심, 위험 및 시간의 손실을 노동자로 하여금 면하게 한
315 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근심, 모험 및 시간의 손실의 대가를 자본가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노동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그가 받게 되는 것보다 적은 몫의 생산물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임금 노동과 자본 간의 모든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잉여 가치에 대한 경제적 해명은 근본적으로 부

인 당한다. 그런데 과정의 결과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재화가 사실상 오직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이며, 그리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는 사실상 이 생산물을 일정한 비율로 상호 분할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실제적 결과는 자본과 임금 노동 간의 거래(상품 교환 자체의 법칙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잉여 가치의 경제적 기초가 의거하는 거래)와는 절대로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본가는 다름 아닌 노동력에 대한 일시적 처리권을 구매하며 그리고 그 노동력이 작용하고 생산물에 대상화된 후에야만 그 대가를 지불한다. 화폐가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매매는 구매자가 화폐를 실제로 양도하는 것보다 앞선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산 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이 거래가 있은 다음에는 노동은 이미 자본가에게 속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물로서 나오는 상품도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속한다. 자본가는 그에게 속하는 생산 수단과 그가 구입한, 따라서 그에게 속하는—비록 그 대가는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나—노동에 의하여 그 생산물을 생산하였다. 사태는 마치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타인의 노동을 전혀 소비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본가가 얻는 이윤, 그가 실현하는 잉여 가치는 바로, 노동자가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판매한 것이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라는 데서 나온다. 만약 노동자가 첫째 의미에서의 상품 소유자[90]로서 자본가에게 대립하였다면 자본가는 아무런 이윤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아무런 잉여 가치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 법칙에 의하면 등가물들이 교환되며 동등한 양의 노동이 상호 교환되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잉여 가치는 바로, 그가 노동자에게서 구매하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그의 노동력 그 자체라는 데로부터 나오는데, 이 노동력은 그것의 생산물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며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자체에 실현된 것보다 많은 양의 대상화된 노동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원천 자체를 호도하며,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거부한다. 사실상—과정이 부단히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자본가는 오직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하며 그리하여 노동자는 오직 그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분으로써만 보수 316
를 받으며 따라서 선대란 단순한 외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노동자는 생산물 중 자기의 몫을 자본가에게, 이 생산물이 화폐로 전화되기 전에 판매하였다고.(아마 생산물이 화폐로 전화될 수

있게 되기 전에도라고까지 말할 것이다. 왜냐 하면 노동자의 노동이 어떤 생산물에 물질화되었으나 주어진 순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다만 일부분만이—예컨대 가옥의 일부분만이—제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이렇게 본다면 자본가는 생산물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자본가가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던 모든 과정이 제거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상품 소유자들이 상호 대립하게 된다. 자본가의 수중에는 화폐가 있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그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상품을, 즉 생산물 중 자신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5파운드의 생산물(예컨대 방사) 중에서 3/5은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그것은 너에게 속한다. 2/5, 즉 2파운드는 내가 새로 첨가한 노동을 표시한다. 따라서 너는 나에게 2파운드 만큼의 방사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이 2파운드의 가치를 지불하라."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간단히 말해서 2파운드의 방사 형태로 존재하는, 그가 새로 첨가한 물질화된 노동의 양에 대등한 화폐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변 자본은 선대하지 않았는가?"—하고 자본가는 말할 것이다.

—"그럼 좋다. 그 대신에 너는 3파운드를 가지고 나에게는 2파운드만 지불하라."고 노동자가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면화와 방추가 없이는 너의 노동을 물질화할 수 없고 실을 뽑을 수 없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너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자본가는 주장할 것이다.

—"걷어 치우라! 만약 내가 방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면화는 썩고 방추는 녹 쓸었을 것이다.‖426‖ 사실 네가 너의 몫으로 떼어 놓은 3파운드의 방사는, 5파운드의 방사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고 따라서 이 5파운드의 방사 속에 보존된 너의 면화와 방추의 가치만을 표시한다. 그러나 오직 나의 노동만이 이 생산 수단 자체를 소비함으로써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보존하였다. 나의 가치를 보존하는 나의 노동의 이 힘에 대하여는 너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2파운드를 지불 받는 그 방적 노동 이외에 나에게 아무런 추가적인 노동 시간도 들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으나 불변 자본의 가치를 보존하는, 나의 노동에 고

유한 자연의 선물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너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 317
는 만큼 방추와 면화가 없이는 내가 방적을 할 수 없었으리라는 데 대하여 나에게 보상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도 너에게는 없다. 사실 방적 노동이 없이는 너의 방추와 면화는 아무 데도 쓸모 없을 것이 아닌가"—노동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궁지에 빠진 자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 "2파운드의 방사는 사실상 2실링의 값이 있다. 그것을 바로 그만큼 한 너의 노동 시간을 표시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팔기 전에 너에게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첫째 모험이다. 둘째로는, 그것은 가격보다 낮게 팔릴 수도 있다. 이것이 둘째 모험이다. 그리고 세째로 어쨌든 그것은 파는 데 또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두 모험을 공짜로 부담하며 게다가 또 시간의 손실까지 보아야 하겠는가? 공짜로 받는 것은 죽음 밖에 없다."

—"잠깐 기다려라."—고 노동자는 대답한다.—"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상품 소유자로서, 너는 구매자로서, 우리는 판매자로서 상호 대립하고 있다. 그것은 네가 우리한테서 생산물 중의 우리의 몫인 2파운드를 사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대상화된 노동 시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상품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자기의 상품을 그 가치보다 낮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상품의 가치는 2실링과 동등하다. 그런데 너는 그에 대하여 1실링만을 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너는—1실링에는 1파운드의 방사 만큼의 노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교환에서 자기가 내주는 것의 2배나 되는 가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등가물 대신에 등가물의 절반을, 즉 2파운드의 방사의 등가물 대신에 1파운드의 방사의 등가물만을 받게 될 것이다. 가치와 가치에 의한 상품 교환의 법칙에 모순되는 너의 이 요구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무엇에? 너는 구매자이고 우리는 판매자이라는 것, 우리의 가치는 방사, 즉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며 너의 가치는 화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방사 형태의 일정한 가치는 화폐 형태의 동일한 가치와 대립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 이것은 가치의 표현에는 관계되나 가치의 크기에는 변동을 가져 오지 않는 단순한 형태 교체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모든 상품은 그 가격보다 낮게, 즉 그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화폐

액보다 낮게 팔려야 한다는—상품이 화폐 형태로서는 보다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그런 유치한 견해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러나 친구!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결코 보다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그 가치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지금 다만 단순한 교환 가치의 형태로 표시될 뿐이다.

친구! 너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불쾌하게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318 보라. 너의 주장은 결국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자기의 상품을 항상 그 가치보다 낮게 팔아야 한다는 데 귀착된다. 우리가 아직 너에게, 우리가 만든 상품을 팔지 않고 우리의 노동력 자체를 팔았을 때에는 실지 너에게서 사태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네가 우리의 노동력을 그 가치 대로 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 우리의 노동을 그것이 표현되는 가치보다 낮게 샀다. 그러나 이런 불유쾌한 회상을 버리자. 우리는 다행히 상품으로서의 우리의 노동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동의 생산물인 상품 자체를 너에게 팔아야 한다고 너 자신이 결정한 그때로부터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났다. 그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처하게 되는 그 불유쾌한 사실에 언급하기로 하자.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 데 대하여 단순히 자기의 상품으로써 갚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의 상품을 단순히 화폐와 교환하는 것으로써 갚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갚아야 한다고 네가 선포한 그 새로운 법칙, 구매자는 항상 판매자를 기만하고 계산을 속인다는 이 법칙은 어떠한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네가 꾸며 낸 법칙,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켜 준 데 대하여 판매자는 자기 상품의 일부분을 무상으로 구매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바로 그 법칙에 너 자신도 복종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너의 제의를 접수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너는 2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우리의 2파운드의 방사를 1실링으로 사고 따라서 1실링 즉 100%의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네가 우리에게 속하는 2파운드의 방사를 우리에게서 산 다음인 지금 너의 수중에는 5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5파운드의 방사가 있다. 너는 물론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할 것을 타산한다. 5파운드의 방사에 대해서 너는 다만 4실링의 비용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5실링으로 팔기를 원한다. '그만 둬라!—하고 너의 구매자는 말한다.—너의 5파운드의 방사는 상품이며 너는 판매자이다. 나는 동일한 가치를 화폐로 가지고 있으며 나는 구매자이다. 따라서 네가 인정한 법칙에 따라

너와의 거래는 나에게 100%의 이익을 가져 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5파운드의 방사를 그 가치보다 50% 낮게, 즉 2½ 실링으로 나에게 팔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2½ 실링을 주고 그 대신 5실링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받으며 그리하여 너와의 거래는 나에게 100%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한 사람에게 정당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당해야 하지 않는가.'

친구여!—[노동자는 계속하여 말한다]—너의 새 법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를 너 자신이 본다 : 너는 자기 자신을 속였을 뿐이다,—너는 비록 한 순간 구매자로 되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시 판매자로서 나타난다. 그 경우에 너는 구매자로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판매자로서 잃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지금 네가 우리한테서 사려고 하는 2파운드의 방사가 생산되기 전에 너는 다른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없이는 문제의 5파운드의 방사가 도대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426a
| 너는 현재 3파운드의 방사로 표시되는 면화와 방추를 미리 사지 않았는가? 이 구입에 있어서 리버풀에 있는 면화 도매상과 올담에 있는 방 *319*
적 기계 공장주는 판매자로서 너에게 대립하고 너는 구매자로서 그들에게 대립하며, 그들은 상품의 대표자로서, 너는 화폐의 대표자로서 각각 출현하였다—이것은 우리가 이 순간에 상호 대립하고 있는 그 영예 또는 불행과 완전히 동일한 관계이다. 만약 네가 그들을 위해서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고, 그들이 너를 위하여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시키며, 또 그들은 판매자이고 너는 구매자이라는 그러한 근거에서 그들이 면화와 방추의 일부를 너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네가 요구한다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상품들을 그 가격(또한 그 가치)보다 낮게 팔 것을 요구한다면 교활한 면화 상인과 올담의 활발한 친구는 너를 비웃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아무런 모험도 부담하지 않았고 현금 즉 순수한 자립적 형태의 교환 가치를 받지 않았는가! 그 대신 너에게는 어떤 모험이 있는가! 처음에는 방추와 면화로써 방사를 생산하고 생산 과정의 모든 모험을 담당하며, 더구나 다음에는 방사의 판매, 즉 방사의 화폐로의 역전화와 관련되는 모험을 부담한다. 모험은 즉 방사가 그 가치 대로 팔릴 것인가, 그 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팔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험은 즉 그것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혀 화폐로 역전화되지 않는 것이다. 방사 자체는 결코 너의 관심사가 아니다. 너는 방사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 하며 오직 그곳을 판매하는 이외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방추와 면화의 화폐로의 전화가 은폐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방사의 화폐로의 전화에 따르는 시간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늙은이!—너의 동료들은 이렇게 너를 반박할 것이다—머저리인 척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제길할 것, 우리의 면화와 기계를 네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생각하든, 그것들을 네가 무엇에 소비하려고 기도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든 내던져 버리든 마음 대로 하라, 그러나 그 대금만은 지불하라! 무슨 사상인가! 그것은 네가 면방적 공장주로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험과 위험을 그렇게도 과장하는 것을 보니 이 부문의 실무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다! 면방적업을 집어치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엉터리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지 말라!"

노동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자본가는 비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멍청이들, 너희는 종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어디에서 울려 오는지 모르는 것 같다. 너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리버풀 녀석과 올담의 젊은 놈에게 현금을 지불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어림도 없다! 나의 어음으로 지불하였고 리버풀 녀석의 면화는 사실상 어음 기일이 되기 전에 방사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너희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너희는 현금으로 받을 것을 원하고 있다."

320 —"좋다."—노동자들은 말한다—"리버풀 녀석과 올담의 젊은 놈은 당신의 어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자본가는 외친다—"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은행업자들에게로 가져 갔고 은행업자들은 그것을 할인하여 주었다!."

—"그들은 할인료를 은행업자에게 얼마나 무는가?."

—"얼만가고? 지금 돈 값이 아주 싸다. 그들은 할인료로 약 3%, 즉 어음액의 3%가 아니라, 연 3%로 계산하여 어음이 만기가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더욱 좋다."—노동자들은 말한다—"우리 상품의 가치만큼 2실링씩 지불하거나 우리가 일 계산 대신에 주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12실링씩 지불하라. 그리고 연 3%로 계산하여 14일분의 이자를 그 중에서 공제하라."

—"그러나 이 어음은 너무 금액이 적다."—자본가는 말한다.—"그러

므로 그것을 할인해 줄 은행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좋다"—노동자들은 이렇게 반박한다.—"우리는 100명이다. 즉 너는 우리에게 1,200실링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에 대한 어음을 우리에게 달라. 60파운드 스털링은 어음을 할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어음은 너 자신이 할인하고 또 이 금액은 네 말 대로 우리에게서 이윤을 짜 내는 바로 그 금액이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서 그리 적은 금액일 리가 없지 않은가. 공제액은 대단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우에 우리 생산물의 대부분을 전부 받기 때문에 너에게서 더는 할인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거래소 중개인이 너에게 주는 신용보다 더 큰 신용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기껏해서 14일 분이다."

만일 임금을(현실적 제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면서) 총 생산물의 가치 중 노동자에게 속하는 부분에 대한 할인으로부터 도출한다면,—즉 자본가가 이 가치 부분을 화폐로써 사전에 노동자에게 지불한다는 것으로부터 도출한다면,—자본가는, 예컨대 면화를 취급하는 상인에게 교부하는 것과 같은 극히 단기의 어음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는 자기 생산물의 대부분을 받게 되고 자본가는 곧 자본가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는 생산물의 소유자로부터 노동자를 위한 단순한 은행업자로 전화될 것이다.

더구나 만약 자본가가 상품을 그 가치보다 낮게 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 ‖427‖ 그는 또한 상품을 그 가치보다 높게 팔 기회도 가질 것이다. 만약 생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만약 생산물의 가격이 오래동안 시장가격보다 낮은 대로 머물러 있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공장은 불완전 조업 *321*
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모험은 바로 노동자가 부담한다.

세째로, 차지인은 화폐로 지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또는 산업 자본가는 화폐로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산물을 미리 화폐로 전화시켜야 한다는 다만 그러한 근거로 그들이 지불하여야 할 지대나 이자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는다.〉

[b. 자본가에게서의 노동자들의 상품 구매. 재생산을 표현하지 않는 화폐의 환류]

화폐의 그 출발점으로의 복귀는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유통하는 자본 부분(따라서 유동 자본 중에서 가변 자본을 이루는 부분)에서도 일어 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화폐로 지불하고, 노동자는 이 화폐로 자본가에게서 상품을 구매하며, 이리하여 화폐는 다시 자본가에게로 돌아 간다.(실제에서는 —자본가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로, 그러나 사실상 은행업자들은 개별적 자본가들에 대하여, 화폐로서 표시되는 한에서의 총 자본, 즉 전체로서의 자본의 대표자이다.) 화폐의 이러한 환류는 그 자체로서는 전혀 재생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화폐와의 교환으로 노동자에게서 노동을 구매하고 노동자는 바로 이 화폐로써 자본가에게 상품을 구매한다. 동일한 화폐가 처음에는 노동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현하고 다음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현한다. 이 화폐의 자본가에게로의 환류는, 자본가가 동일한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에는 구매자로서 출현하고 다음에는 판매자로서 출현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일어 난다. 화폐는 구매자로서의 자본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판매자로서의 자본가에게로 돌아 간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는 처음에 판매자로서, 다음에는 구매자로서 출현하며, 자본가는 노동자와 반대로 처음에는 화폐를 지출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도로 받는데 노동자는 처음에는 화폐를 받고 다음에는 그것을 지출한다.

이 경우에 자본가 측에서는 G–W–G의 운동이 진행된다. 그는 화폐로 상품(노동력)을 구매하며 이 노동력의 생산물에 의하여, 상품에 의하여 화폐를 구매한다. 즉 이전에 판매자로서 자기와 대립하였던 노동자에게 도로 이 생산물을 판매한다. 노동자는 그와는 반대로 W–G–W의 유통을 대표한다. 그는 자기의 상품(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써 자기 자신의 생산물, 즉 자기가 생산한 상품의 일부분을 되산다. 물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자는 화폐를 받고 상품 (노
322 동력)을 팔며, 상품을 사는 데 이 화폐를 지출하고 다음에 다시 자기의 노동력을 팔며 그리하여 노동자 측에서도 역시 G–W–G의 과정을 표시하며, 또 화폐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에서 부단히 이리저리 유통하므로 어느 측에서 이 과정을 고찰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자도 자본가와 마찬가

지로 G–W–G의 운동을 대표한다고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가 구매자이다. 이 과정의 갱신은 자본가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가에게로의 화폐의 환류는 노동자가 생활 수단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한편의 유통 공식은 G–W–G이고 다른편의 유통 공식은 W–G–W로 되어 있는 모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교환 과정의 목적은 한편에서는 교환 가치, 화폐, 따라서 가치의 증식이며, 다른편에서는 사용 가치, 소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첫 경우에 있어서는 화폐의 환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된다. 즉 여기서는 차지인 측에서는 G–W–G의 과정이 진행되고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W–G–W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차지인에게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G가 지대의 화폐적 형태라는 것, 따라서 이미 W–G의 결과이며, 생산물 중 사실상 현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부분의 전화된 형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명백하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에서 자본가가 임금으로 지출한 그 화폐의 자본가에게로의 환류의 표현에 불과한 G–W–G의 과정의 이 변종은 절대로 재생산 과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구매자가 이번에는 판매자로 된다는 사정만을 표현한다. 이것은 또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표현, 즉 둘째 G가 첫째 G보다 그 액수가 크며, 따라서 G가 자기 증식하는 가치(자본)를 표시하는 바로 G–W–G′라는 과정의 표현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다만 동일한 화폐액(때로는 심지어 적은 화폐액)의 출발점으로의 형식적 환류의 표현일 따름이다.(여기에서 자본가란 물론 자본가 계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가 제1부[91]에서 G–W–G의 형태는 반드시 G–W–G′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이미 거기에서, 구매자는 이번에는 판매자로 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화폐가 동일한 출발점으로 환류하는 화폐의 순환 운동을 해명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은 화폐의 환류 형태를 단순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92]

그러나 자본가는 이러한 화폐의 환류에 의하여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는 10실링의 임금을 지불하였다. 노동자는 이 10실링으로 자본가에게서 상품을 구입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력에 대해서 10실링의 상품을 주었다. 만약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10실링의 가격을 가진 생활 수단을 현물로 주었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런 화폐 유통

323 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화폐의 환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화폐 환류의 현상은 바로 생산 과정 자체에서 자본가가 임금으로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취득하며 그리하여—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화폐량보다 결코 적을 수 없는데—그의 생산물이 그 생산물의 생산비를 능가한다는 사실에서만 나오는 자본가의 치부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이 경우에 이 형식적인 화폐 환류는 치부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 428 ‖ G가 자본으로서 표현되지 않는데 그것은 미치 지대, 이자 및 세금 지불에 소비된 화폐가 그 지대, 이자 및 세금의 지불자에게로 환류하는 경우 이 환류가 자체 내에 아무런 가치의 증식이나 또는 가치의 보상을 내포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G–W–G는 자본가에게로의 화폐의 형식적인 환류를 표시하는 운동인 한에서는 다만 자본가가 교부한 화폐로 된 지불명령서가 그 자신의 상품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정을 표시할 따름이다.

화폐의 이러한 흐름—화폐의 그 출발점에로의 이러한 복귀—에 대한 옳지 않은 해석의 실례는 상술한 데스튀트 드 트라시에 관한 장을 보라.[93] 둘째 실례로서는—특히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화폐 유통에 해당되는—앞으로 브레이[94]를 들어야 하겠다. 끝으로 화폐를 대부하는 자본가에 대하여는 프루동[95]을 들어야 할 것이다.

G–W–G라는 이 환류 형태는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형태는 모든 상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상호 구매하며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모든 상업 자본에 있어서 볼 수 있다. 구매자–G–는 상품, 예컨대 쌀을, 그것을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품을 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화폐가 단순히 복귀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는 구매가 판매로 이행함에 있어서 화폐가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 자본으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변 자본의 교환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기계 제작업자는 철 생산자에게서 철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계를 판매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기계 제작업자에게로 환류한다. 화폐는 철을 얻기 위한 구매 수단으로서 지출되었다. 그 다음에 화폐는 기계를 얻기 위한 구매 수단으로서 철 생산자에게 복무하며 그리하여 기계 제작업자에게로 환류한다. 기계 제작업자는 화폐를 내주고 철을 받았고, 화폐를 받고 기

계를 내주었다. 이 경우에 동일한 화폐량이 2배의 가치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제작업자는 1,000파운드 스털링으로 철을 구매하였고 철 생산자는 동일한 1,000파운드 스털링으로 기계를 구매하였다. 철과 기계의 가치의 합계는 2,000파운드 스털링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에는 3,000파운드 스털링이 있어야 한다 : 즉 1,000파운드 스털링의 화폐, 1,000파운드 스털링의 기계, 1,000파운드 스털링의 철. 만약 자본가들이 현물로 교환을 진행하였더라면 이 때에는 돈이 한푼도 유통함이 *324*
없이 상품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 갔을 것이다.

자본가들이 상호 결제를 진행하며 화폐가 그들에게 지불수단으로서 복무할 때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만약 지폐나 신용화폐(은행권)가 유통한다면 일반적인 사태는 한 측면에서만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1,000파운드 스털링이 은행권으로 더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권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역시 3,000파운드 스털링이 있게 된다. 즉 철로 1,000파운드 스털링, 기계로 1,000파운드 스털링, 은행권으로 1,000파운드 스털링, 그러나 이 3,000파운드 스털링은 첫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다만 기계 제작업자가 자기 수중에 2,000파운드 스털링을, 즉 1,000파운드 스털링의 기계와 1,000파운드 스털링의 화폐(금과 은 또는 은행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두 경우에 다 철 생산자가 기계 제작업자에게 이것(즉 화폐)을 반환하는 것은 철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화폐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오직 기계 제작업자가 구매자로서 직접 다시 판매자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첫째 상품인 철에 대하여 상품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화폐로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상품으로 지불할 때 즉 철생산자에게 자기의 상품을 판매할 때 철 생산자는 그에게 화폐를 반환하는데, 그것은 지불이 이중으로 즉 한 번은 화폐로, 다음 번에는 상품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에 다 금 또는 은행권은 기계 제작업자가 구매한 상품 또는 그 후 그의 계약 당사자가 그에게서 구매한 상품의 전화된 형태를 표시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그의 선조 등등)[96]가 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러한 바와 같이 비록 구매되지는 않았으나 역시 화폐로 전화된 그러한 상품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화폐의 복귀는 상품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사람이 그가 다른 상품을 유통에 투입하고 판매함으로써 유통에서 화폐를 도로 회수하는 그러한 사정을 표시할 뿐이다.

방금 언급한 동일한 1,000파운드 스털링은, 자본가들 사이에서 유통하면서 하루에도 40명, 50명의 수중을 거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다만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에로의 자본의 이동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는 철 생산자에게로, 철은 농민에게로, 곡물은 전분 또는 알콜 공장주에게로 넘어 갔을 것이다 등등. 결국 1,000파운드 스털링은 다시 기계 제작업자의 수중으로 돌아 오며 또 그로부터 철 생산자에게로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이리하여 이 1,000파운드 스털링에 의하여 4만 파운드 스털링 이상의 자본이 유통할 것인데, 화폐는 부단히 처음에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사람에게로 복귀할 것이다. 이 4만 파운드 스털링에서 얻은 이윤의 일부분은, 다양한 자본가들이 지불하는—예컨대 기계 제작업자는 그에게 1,000파운드 스털링을 대부하여 준 사람에게, 철 생산자는 오래 전에 석탄 등등으로 지출하였거나 또는 임금 등등으로 지출한 1,000파운드 스털링을 그에게 빌려 준 사람에
325 게—이자로 전환된다. 이로부터 프루동씨는 이 1,000파운드 스털링이 4만 파운드 스털링에서 받는 이자 전액을 가져 온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이자율이 5%라면 이자는 2,000파운드 스털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함으로써 그는 1,000파운드 스털링이 200%의 이자를 가져 왔다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 저명한 정치 경제학의 평론가가 이러하다!*

---

* ‖437‖ 프루동은 위에서 자적한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저당 채무액은 가장 조예가 깊은 필자들에 의하면 120억, 기타 필자들에 의하면 160억이며, 단순한 어음에 의한 채무는 최소한 60억이고, 합자 회사 출자금은 약 20억, 국채는 80억, 총계 280억에 달한다. 이 모든 채무는 4, 5, 6, 8, 12, 심지어 15%의 이자로 대부되었거나 대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화폐액으로써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 세 부류의 채무에 있어서 평균 이자율이 6%라고 한다면 200억에 대한 이자는 12억으로 된다. 여기에다가 국채 이자 약 4억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10억의 자본에 대한 연 이자 총액은 16억으로 된다.(p.152). 따라서 160%이다. 왜냐 하면 "현금액은 프랑스 내에 있는 화폐 총액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까지 포함하여 유통되고 있는 화폐액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평가에 의하면 10억을 넘지 못하기"(p.151) 때문이다. "교환이 끝나면 화폐는 다시 유리되며 따라서 다시 대부를 줄 수 있게 된다…

비록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화폐 유통을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G–W–G*의 과정은 절대로 어떠한 재생산 행위도 표현하지 않지만 역시 이 과정의 부단한 반복, 화폐의 부단한 환류는 재생산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구매자든 만약 그가 판매하는 상품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판매자로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대, 이자 또는 세금으로 생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정이 끝날 때에는 한 계약 당사자에게서는, 노동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금리 생활자(이 마지막 두 인물 측으로부터는 화폐의 환류만이 발생한다)에 대한 자본가의 관계에서와 같이 항상 *G–W–G*라는 화폐의 환류가 진행된다.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서는, 과정이 상품의 구매로 종결된다. 즉 노동자에게서와 같이 *W–G–W*의 과정이 진행된다. 노동자는 이 과정을 부단히 갱신한다. 주도권은 항상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그에게 속한다. 동일한 사정은 오직 소득의 지출을 의미하는 ‖ 429 ‖ 모든 화폐 유통에 해당된다. 예컨대 자본가 자신이 연간에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상품을 구매 326
하는 데 화폐를 지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이 경우에는 *W–G–W*가 진행되며 자본가에로의 화폐의 환류는 없다. 그러나 그 화폐는 판매자(예컨대 소매상)에게로 환류하는데, 이 판매자의 자본은 자본가가 자기의 소득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소득과 소득과의 교환, 즉 소득의 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고기 장사는 빵 장사에게서 빵을 사고 빵 장사는 고기 장사에게서 고기를 사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소득을 소비한다. 고기 장사는 자기가 먹는 고기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며, 이와 꼭 마찬가지로 빵 장사도 자기가 먹는 빵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득의 이 부분을 각각 현물로써 소비한다. 그러나 빵 장사가 고기장사에게서 사는 고기는 이 고기 장사에게, 자본이 아니라 소득을, 즉 그가 판매한 고기 중에서 단순히 그의 이윤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소득으로서 소비하려고 한 바로 그 이윤 부분을 표시하는 일정한 부분을 보상할

자본인 화폐는 일련의 교환을 수행한 후 항상 그 출처로 복귀하며 여기로부터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화폐의 모든 새로운 대부는 항상 그 동일한 사람에게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것으로 된다." (pp.153~154), 『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티아씨와 프루동씨 간의 논쟁』. 파리, 1850년[97], ‖ 437 ‖

수 있다. 고기 장사가 빵 장사에게서 사는 빵도 역시 고기 장사에게 있어서 그의 소득의 소비로 된다. 상호 결제할 때에는 전자나 후자나 차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그들의 상호 매매에서 상쇄한 부분은 화폐 유통에 들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빵 장사가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 차액은 고기 장사의 소득을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고기 장사는 빵 장사의 화폐를 다른 소비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게 된다. 이 금액이 10파운드 스털링인데 이것을 재봉사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10파운드 스털링이 재봉사에게 있어서 소득을 표시한다면 재봉사는 그것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출한다. 그는 그것으로 빵을 살 것이다 등등. 그리하여 화폐는 빵 장사에게로 환류한다. 그러나 이 화폐는 이미 그의 소득이 아니라 그의 자본을 보상한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자본가에 의하여 수행되며 자기 증식하는 가치를 표시하는 G–W–G의 과정에서 자본가는 그가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 낸다(구두쇠는 본래 이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는 그가 상품 형태로 유통 분야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금과 은의 형태로 유통 분야에서 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는 상품 형태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는 화폐 형태로 보다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의 상품의 총 생산비를 1,000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자. 그는 자기의 상품을 1,200파운드 스털링으로 판매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상품 속에는 20%, 즉 1/5의 부불 노동, 즉 그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하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자본가, 산업 자본가 계급이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유통에서 끌어 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측면에서 자본가는 유통에서 끌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단히 유통에 투입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327 는 자기의 고정 자본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고정 자본을 다만 그것을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만 일부분씩만 판매한다. 고정 자본은 상품 생산 과정에 통채로 들어 가면서도 상품의 가치에는 아주 적은 부분만 들어 간다. 만약 고정 자본의 회전 기간을 10년이라고 한다면 상품에 들어 가는 것은 매년 그것의 1/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10는 화폐유통에 들어 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 9/10가 결코 상품 형태로 유통에 전혀 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 문제는 이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뒤에[95] 고찰하기로 하고 잠시 케네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자.

그러나 그 전에 또 하나의 문제를 보자. 어음을 할인하거나 은행권으로 대부를 주는 은행으로의 은행권의 복귀는 지금까지 고찰한 화폐의 환류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가 앞당겨진다. 상품은 아직 판매되기 전에, 심지어는 아직 생산도 되기 전에 화폐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미 판매되었을 수도 있다(어음으로).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며 도로 화폐로 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전화는 어느 경우에나 앞당겨지고 있다. 상품이 판매되자마자(또는 판매되었다고 생각되자마자) 화폐는 은행으로 환류한다—그 때에 유통에서 복귀하는 그 은행 자체의 은행권으로든가, 또는 그 때에 그 은행 자체의 은행권과 교환되는(은행업자들 간에서) 다른 은행의 은행권으로 든가—그리하여 그 때에는 양 은행권이 다 유통에서 회수되어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 간다—또는 금과 은으로. 만약 이 금과 은이 제3자의 수중에 있는 은행권과 태환된다면 그 은행권이 은행으로 복귀한다. 만약 은행권이 태환되지 않는다면 유통중에 있는 금과 은은 현재 은행권 대신에 은행 금고에 보유되어 있는 양 만큼 감소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즉 화폐의 정재(定在)(상품의 화폐로의 전화)가 앞당겨졌다. 상품이 실제 화폐로 전화될 때 그것은 재차 화폐로 전화된다. 그러나 상품의 이 두 번째 화폐적 정재는 그 출발점으로 복귀하며, 그것은 첫번째 화폐적 정재를 상각하고 대체하며, 유통에서 은행에로 복귀한다. 상품의 이 두 번째 화폐적 정재는, 그 첫번째 화폐적 정재가 표현된 것과 동일한, 완전히 일치하는 수량의 은행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방적 공장주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방적 공장주는 그 어음을 방직업자에게서 받았다. 방적 공장주는 입수한 1,000파운드 스털링으로써 석탄, 면화 등등의 대금을 지불하였다. 상품 대금을 지불할 때 이 은행권은 다양한 인물들의 손을 거치는데, 그 328
들은 결국 아마포의 구매에 그것을 지출한다. 이리하여 은행권은 방직업자의 수중으로 들어 가고 이 방직업자는 어음 만기일에 동일한 은행권으로 그의 방적업자에게 지불하며 그리고 방적업자는 그것을 은행으로 도로 가져 간다. 상품의 화폐로의 두 번째(사후의) 전화—그것의 앞당겨진 전화 후의—Ⅱ 430 l가 첫 번째 전화되는 다른 화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리하여 방적업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왜냐 하면 그는 처음에 은행권을 차용하였으며, 그리고 방적업자가 은행권을 도로 받고 그것을 교부한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써 과정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은행권이 이 기간에 유통 수단과 지불 수단으로서 봉사하였는데 방적업자는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채무를 지불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으로 방사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리하여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창조한 잉여 가치를 얻었으며 지금 그 일부분을 은행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화폐로써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소비하고, 선대하고,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그에게로 환류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고찰하여야 할 문제이다.[99]

[4. 『경제표』에서의 차지인과 산업가 간의 유통]

그러면 케네에게로 돌아 가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유통 행위에 언급하기로 하자.

P—토지 소유자—는 *S*[100](공업에 종사하는 "비생산적" 계급 ; 표에서 a-c[101]선)에게서 10억의 공업 상품을 구매한다. 이 경우에 10억의 화폐는 동일한 금액의 상품을 유통케 한다. 〈그것은 이 경우에 교환이 단번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P*가 *S*에게서 상품을 일부분씩 구매하고 자기의 지대를 *F*(차지 농업가)로부터 역시 일부분씩 받았다면 10억의 공업 상품은 가령 1억으로써 구매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P*는 이에 있어서 1억으로 *S*에게서 공업 상품을 구매하고 *S*는 1억으로 *F*에게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F*는 *P*에게 1억의 지대를 지불하는데, 만약 이것이 10회 반복된다면 *S*에게서 *P*에게로, 또 *F*에게서 *S*에게로 1억×10 만큼의 상품이 이전될 것이며 또 F에게서 P에게로 1억×10 만큼의 지대가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통은 1억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F*가 지대 전액을 단번에 지불한다면 *S*의 수중에 있는 10억 중에서,
329 또 *F*에게로 복귀하는 10억 중에서 일부분은 궤짝 속에 보관되며 일부분은 유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10억의 상품이 S에게서 *P*에게로 넘어 갔으며, 거꾸로 10억의 화폐는 *P*에게서 *S*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은 단순 유통이다. 화폐와 상품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상호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차지인이 *P*에게 판매하였고 그리하여 소비 분야로 넘어간 10억의 식료품 이외에 또 *S*가 *P*에게 판매한 10억의 공업상품이 소비로 넘어 갔다. 이 상품들은 새로운 수확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지 않고서는 *P*가, 새로 수확한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S*측에서는 *F*에게서 10억의 식료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제는 또 총 생산물의 5분의 1이 유통에서 소비로 넘어 갔다. 이 10억은 *S*와 *F*와의 관계에서 유통 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우에는 *S*와 *P*간의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두 개의 현상이 일어 난다. *S*와 *P*간의 과정에서 *S*는 또다시 자기의 생산물의 일부, 즉 10억의 공업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켰다. *F*와의 교환에서 그는 화폐를 또다시 식료품—이것이 케네에게 있어서는 임금을 의미한다—으로 전화시키며 따라서 그것으로 임금에 지출되어 소비된 자본을 보상한다. 이 10억의 생활 수단으로의 역전화는 *P*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소비를 표시하지만 *S*에게 있어서는 산업적 소비, 재생산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S*는 또다시 자기의 상품의 일부분을 그의 생산 요소 중의 하나 즉 생활 수단으로 전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상품의 이러한 형태 변화 중의 하나,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그것의 역전화는 이 경우에는 동시에 상품의 형식적인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형태 변화의 시초, 그것의 재생산의 시초, 그 자체의 생산 요소들로의 그것의 역전화의 시초를 표현한다. 이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자본의 형태 변화도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P*측에서는 화폐 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의 소득의 전화만이 일어 난다. 이것은 다만 소비를 표현한다.

둘째로, *S*가 *F*에게서 10억의 식료품을 구매할 때 *F*가 *P*에게 화폐 형태로 지대를 지불하였던 두 번째 10억이 *F*에게로 복귀한다. 그러나 그것이 *F*에게로 복귀하는 것은 오직, *F*가 다시 그것을 유통에서 끌어 내며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등가물에 의하여 그것을 도로 얻기 때문이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10억(첫 번째 10억의 이외의)으로 *330*
*F*에게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 자기의 화폐 지대의 다음 절반을 차지인에게서 상품 형태로 받고 그 후 이 상품을 *S*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교환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S*는 *P*를 위하여, *F*가 *P*에게 화폐로 지불한 20억의 절반을 상품으로 징수하는 데 불과하다. 만약 지불이 현물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F*는 *P*에게 20억의 식료품을 주었을 것이며 *P*는 그

중 10억은 스스로 소비하고 다른 10억은 *S*의 공업 상품과 교환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직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1) *F*로부터 *P*에게로의 20억의 식료품의 이전, 2) *P*와 *S*간의 물물 교환, 이에 있어서 전자는 10억의 식료품을 10억의 공업 상품과 교환하며 후자는 그와 반대로 한다.

이 대신에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행위가 일어 났다 : ‖ 431 | 1) *F*로부터 *P*에게로의 20억의 화폐의 이동, 2) *P*는 *F*에게서 10억의 식료품을 구매한다. 화폐는 *F*에게로 복귀하며 유통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3) *P*는 10억의 화폐로 *S*에게서 공업 상품을 구매한다.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상품의 운동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 간다, 4) *S*는 이 10억의 화폐로 *F*에게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와 함께 이 화폐는 *S*에게 있어서는 자본으로서 유통한다. 화폐는 *F*에게로 환류하는데,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F*에게서 지불명령서를 받은 그 두 번째 10억의 식료품을 이제는 *F*에게서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직접 *F*에게로 환류하는 것이 아니라 *P*와 *S*간에서 유통 수단으로 봉사한 후에 즉 그것이 아직 *F*에게서 10억의 식료품을 징수하지 않고 도중에 10억의 공업 상품을 끌어내어 그것을 공업가에게서 토지 소유자에게로 넘겨 준 후에야만 환류한다. 이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토지 소유자와의 교환에서의)는 그 후의 화폐의 식료품으로의 전화(차지인과의 교환에서의)와 마찬가지로 *S*측에서는 처음에는 화폐 형태를 취하고 다음에는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구성 요소의 형태를 취하는 그의 자본의 형태 변화이다.

따라서 상술한 네 개의 유통 행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득을 소비하였는데, 그 절반은 식료품에, 다른 절반은 공업 상품에 각각 지출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화폐 지대로서 받은 20억이 소비되었다. 이 금액의 절반은 그에게서 직접, 다른 절반은 *S*를 통하여
331 우회적으로 각각 차지인에게로 돌아 갔다. 그러나 *S*는 자기의 완제품의 일부분을 방출하고 그것을 식료품으로써, 따라서 재생산 요소의 하나로써 보상하였다.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는 한에서는, 유통은 이러한 과정들로써 끝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이 유통에서 소비로 넘어갔다(일부분은 비생산적 소비로 넘어 갔고 일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소득으로써 *S*의 자본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한에서 산업적 소비로 넘어 갔다) 1) 10억의 식료품(새로 수확한 생산물), 2) 10억의 공업 상품(전년에 수확한 생산

물), 3) 재생산 즉 S가 다음 해에 토지 소유자의 지대의 절반과 교환하게 될 상품의 생산에 들어 가는 10억의 식료품.

20억의 화폐가 다시 차지인의 수중에 있게 된다. 이제는 그는 자기의 "연간의 시초 선대"—그것들이 일부분은 노동 도구 등등으로써 이루어지고 일부분은 생산 중에 소비되는 기타 공업 상품으로써 이루어진 한에서—를 보상하기 위하여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이것은 단순 유통 과정이다. 이와 같이 10억은 S의 수중으로 넘어 가며 그리하여 상품 형태로 존재하는 그의 생산물의 다음 절반은 화폐로 전화된다. 양쪽에서 자본의 형태 변화가 일어 난다. 차지인의 10억은 도로 재생산 과정에 필요한 생산 요소로 전화된다. S의 완제품은 도로 화폐로 전화되고 상품으로부터 화폐로의 형식상 형태 변화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자본이 다시 자체의 생산 요소들로 전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생산될 수 없다. 이것이 다섯 번째 유통 과정이다. 10억의 공업 상품(전년도에 수확한 생산물)은 유통에서 재생산적 소비로 이행한다(a′–b′)[102].

끝으로 S는 현재 그의 상품의 절반의 존재 형태인 10억의 화폐를 이 상품의 생산 조건들의 다른 절반, 즉 원료 등등으로 도로 전화시킨다(a–b′) 이것은 단순 유통이다. 이것이 S에 대하여서는 그와 동시에 재생산에 적합한 형태로의 그의 자본의 형태 변화이며, F에 대하여서는 그의 생산물의 화폐로의 역전화이다. 이제는 "총 생산물"의 마지막 5분의 1이 유통에서 소비로 넘어 간다.

결국 : 차지인에게 있어서 1/5은 유통에 들어 가지 않고 재생산 과정에 들어 간다, 1/5은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계는 2/5, 2/5는 S가 받는다, 총계 4/5[103].

이 계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케네는 다음과 같이 계산 *332*
한 것 같다. F는 P에게 10억의 식료품을 준다(a–b). 그는 10억의 원료로써 S의 자본을 보상한다(a′–b′). 10억의 식료품은 S에게 있어서 임금을 형성하는데, 이 임금의 가치는 그가 상품 가치에 첨가하는 것이며 결국 이 첨가 과정에서 그가 소비하는 물품의 가치에 귀착된다(c–d). 그리고 10억은 유통에 들어 가지 않고 재생산 과정(a′)에 남는다. 끝으로 10억의 생산물은 "선대"(a′–b′)를 보상한다. 그러나 케네는 S가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이 공업 상품으로써 차지인에게서 식료품도, 원료도 구매하지 않고 S는 차지인과의 화폐 결제에 있어서 차지인 자신의 화폐를 반환할 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케네는 처음

부터 차지인이 자기의 총생산물 이외에 20억의 화폐를 더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통을 위한 화폐 재화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네는 50억의 총 생산물 이외에 새로운 수확이전에 생산된 공업 상품으로서 20억의 총 생산물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왜냐 하면 50억은 차지인의 연간 총생산물, ‖ 432 ‖ 차지인이 거둔 총 수확을 표시할 뿐이고 재생산을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이 수확으로써 보상해야 할 총 공업 생산물은 결코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현존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차지인 측에 20억의 화폐, 2) 50억의 총 토지 생산물, 3) 공업 상품으로서의 20억의 가치. 따라서 20억의 화폐와 70억의 생산물(농산물과 공업 생산물). 유통 과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F*–차지인, *P*–토지 소유자, *S*–공업가, 비생산적 계급) :

*F*는 화폐 형태로 20억의 지대를 *P*에게 지불하고 *P*는 10억의 식료품을 *F*에게서 구매한다. 이리하여 차지인의 총 생산물의 1/5이 실현된다. 이와 함께 차지인에게로 10억의 화폐가 환류한다. 다음으로 *P*는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S*의 총 생산물의 1/2이 실현된다. 이 대신에 *S*는 10억의 화폐를 받는다. *S*는 이 화폐로 *F*에게서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식료품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S*는 자기 자본의 재생산 요소들의 1/2을 보상한다. 이리하여 차지인의 총 생산물의 1/5이 또 실현된다. 이와 함께 차지인의 수중에 다시 20억의 화폐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P*와 *S*에게 판매한 20억의 식료품의 가격을 이룬다. 그 다음에 *F*는 자기의 "선대"의 다음 절반을 보상하기 위하여 10억의 상품
333 을 *S*에게서 구매한다. 이리하여 공업가의 총 생산물의 다음 절반이 실현된다. 끝으로는 *S*는 이 10억의 화폐로 차지인에게서 원료를 구매한다. 이로써 차지인의 총 생산물의 세 번째 1/5이 실현되고 *S*의 자본의 재생산 요소들의 다음 절반이 보상되며 그리고 10억이 차지인에게로 환류한다. 이 차지인의 처리 하에 20억이 다시 들어 오는데, 이것은 사리에 맞는다. 왜냐 하면 케네는 차지인을 자본가로 보고 차지인과의 관계에서 *P*는 소득의 수령자에 불과하고 *S*는 임금의 수령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차지인이 *P*와 *S*에게 직접 자기의 생산물로써 지불한다면 그는 화폐를 전혀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화폐를 지출

하기 때문에 *P*와 *S*는 이 화폐로써 그의 생산물을 구매하게 되며 따라서 화폐는 차지인에게로 환류한다. 이것은 구매자로서 모든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에 그것을 완결 짓는 공업 자본가에게서 생기는 화폐의 형식적 복귀이다. 그리고 또 차지인의 총 생산물 중 그의 "선대"를 보상하는 1/5은 재생산에 속한다. 유통에 들어가지 않는 식료품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1/5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서 남는다.

[5. 『경제표』에서의 상품 유통과 화폐 유통. 화폐가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상이한 경우]

*S*는 차지인에게서 10억의 식료품과 10억의 원료를 구매하며 반대로 *F*는 *S*에게서 자기의 "선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만 10억의 상품만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S*는 10억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S*가 *P*에게서 받은 10억으로써 지불된다. 케네는 차지인에게 대한 이 10억의 지불을 그에게서의 10억의 생산물의 구매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케네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아베 보도의 주석를 보아야 할 것이다.[104].

사실상(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20억은 다음과 같은 데 복무하였을 뿐이다 : 1) 20억의 지대를 화폐로써 지불하기 위하여, 2) 차지인의 30억의 총 생산물의 유통을 위하여서(즉 *P*에게로 넘어 가는 10억의 식료품과 *S*에게로 넘어 가는 20억의 식료품과 원료)와 *S*와 20억의 총 생산물의 유통을 위하여(그 중 10억은 *P*를 위하여, 즉 그의 소비를 위하여, 10억은 재생산을 위하여 이 생산물을 소비하는 *F*를 위하여).

후자의 구입(a'-b')에 있어서 *F*에게서 원료를 구매하는 *S*는 상품의 대가를 그에게 화폐로 지불한다.

‖ 433 ‖ 그리하여 다시 한 번 :

*S*는 *P*로부터 10억의 화폐를 받았다. 그는 이 10억의 화폐로 *F*에게서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식료품을 구매한다. *F*는 바로 이 10억의 화폐로 *S*에게서 상품을 구매한다. 동일한 10억의 화폐로써 *S*는 *F*에게서 원료를 구매한다.

또는 사태는 다음과 같다 : *S*는 *F*에게서 10억의 화폐로 원료를 구매 334
하고 또 10억의 화폐로 식료품을 구매한다. *F*는 *S*에게서 10억의 화폐로

상품을 구매한다. 이 후자의 경우에 10억이 S에게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S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와 판매를 위하여 그에게 남아 있는 10억의 상품 이외에 그 자신이 유통에 투입한 10억의 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제에 의하면 S와 차지인 간의 유통을 위하여 10억의 화폐 대신에 20억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10억이 S에게로 돌아 왔다. 이것은, S는 차지인에게서 20억의 화폐로써 구매하는데, 차지인은 S에게서 10억으로 구매함으로써 그에게서 받은 화폐의 절반을 그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첫째 경우에 S는 두 차례 구매한다. 즉 처음에 그는 10억을 지출하는데, 이 10억은 F에게서 그에게로 환류하며 그 다음에 그는 다시 한 번 이 10억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지출하여 F에게 지불한다. 이리하여 이제는 그에게로 아무 것도 환류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둘째 경우에는 S는 20억으로 단번에 구매한다. 그리고 F가 이번에는 10억으로 S에게서 구매할 때 이 10억은 S에게 남는다. 이 경우에 유통에는 10억 대신에 20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경우에는 10억의 화폐가 2회전에 의하여 20억의 상품을 실현하였다. 둘째 경우에는 20억의 화폐가 1회전에 의하여 역시 20억의 상품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차지인이 공업가인 S에게 도로 10억을 지불할 때 후자는 이로 말미암아 첫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면 10억의 상품 이외에 그는 이 유통 과정 개시 전에 벌써 존재하였던 자기 자신의 자금에서 10억의 화폐를 더 유통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유통을 위하여 그것을 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그에게로 환류한다.

첫째 경우에 : S는 10억의 화폐에 의하여 F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F는 10억의 화폐에 의하여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S는 10억의 화폐에 의하여 10억의 상품을 F에게서 구매한다. 그 결과 F에게 10억의 화폐가 남는다.

둘째 경우에 : S는 20억의 화폐에 의하여 F에게서 2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F는 10억의 화폐에 의하여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첫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지인은 자기에게 10억의 화폐를 보유한다. 그리고 S는 자본으로서 그가 유통에 투입하였고 이제는 유통에서 그에게로 복귀하는 10억을 도로 받는다. S는 F에게서 20억의 상품을 구매하고 F는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S는 바로 10억이라는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S는 이 종류의 유통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지적한 차액의 지불 절차로써 차지인에게 20억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차지인이 그에게 10억을 반환하게 된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차지인이 S에게 아무런 화폐도 반환하지 않는다.

즉 첫째 경우에 S는 F에게서 20억어치를 구매하고 F는 S에게서 10억 335
어치를 구매한다. 따라서 F가 받아야 할 차액은 여전히 10억이다. 그러나 이 차액이 그에게 지불되는 결과 그 자신의 화폐가 그에게로 환류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S가 F에게서 10억어치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F가 S에게서 10억 어치를 구매하고 끝으로 S가 F에게서 10억 어치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10억이 30억을 유통에 인입하였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유통에 40억의 가치가—30억은 상품으로, 10억은 화폐로—존재하였다(현실적인 화폐가 화폐로서 복무하였다면). 유통하고 있고 처음에(차지인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유통에 투입된 화폐액은 한 번도 10억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S가 F에게 지불해야 할 차액을 한 번도 초과하지 않았다. S가 재차 F에게서 10억 어치를 구매하기 전에 F가 S에게서 10억 어치를 구매하기 때문에 S는 이 10억으로써 차액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우에 있어서 S는 20억을 유통에 투입한다. 그는 물론 이것으로 20억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F에게서 구매한다. 이 경우에는 이 20억은 유통 수단으로서 요구되며 상품 형태의 등가물과의 교환에 지출된다. 그러나 F도 또한 S에게서 10억어치를 구매한다. 따라서 S에게로 10억이 복귀한다. 그것은 S가 차지인에게 지불해야 할 차액이 20억이 아니라 다만 10억이기 때문이다. S는 지금 차지인에게 10억을 상품으로 보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F는 지금 판명된 바와 같이 S가 그에게 화폐로써 지나치게 지불한 10억을 S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는 주목할 만 하므로 이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위에서 가정한 30억의 상품—그 중 20억은 식료품[과 원료], 10억은 공업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는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로, 케네의 전제에 의하면 S와 F간의 유통 과정이 개시될 때 S의 수중에 10억의 화폐가 있고 F의 수중에도 10억의 화폐가 있으며, 둘째로, 설명의 편의상, S에게는 P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 이외에 금고에 10억의 화폐가 더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 434 ‖ I. 첫째로, 케네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 S는 10억의 화폐로써 F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하며, F는 S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로써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하며, 끝으로 *S*는 이렇게 되어 그에게 돌아온 10억의 화폐로써 *F*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따라서 *F*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자본을 표시하는 10억의 화폐가 남는다.(사실상 이 10억은
336 그가 *P*에게서 도로 받은 다른 10억의 화폐와 함께 그가 다음 해에 또다시 화폐—바로 20억의 화폐—로써 지대를 지불하기 위한 소득을 이룬다). 이 경우에 10억의 화폐는 세 번 유통하였다 : 즉 *S*에게서 *F*에게로, *F*에게서 *S*에게로, *S*에게서 *F*에게로,—그리고 매번 10억의 상품, 따라서 도합 30억의 상품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유통하였다. 만약 화폐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유통 중에 있는 가치는 40억이다. 이 경우에는 화폐는 다만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F*—화폐는 결국 그의 수중에 남게 된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화폐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본으로 전화된다.

Ⅱ. 둘째로,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 이 경우에 *F*에게서 20억의 상품을 구매하는 *S*와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하는 *F* 간에 상호 청산이 진행된다. 거래가 끝나는 대로 *S*는 10억이라는 차액을 화폐로 지불하여야 한다.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억의 화폐가 *F*의 금고로 들어 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까지 유통 수단으로서 복무하지 않았다. 이 화폐는 *F*에게 있어서는 자본의 이전을 표시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10억의 상품으로 이루어진 그의 자본을 보상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첫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40억의 가치가 유통에 들어 갔다. 그러나 10억의 화폐의 3회의 운동 대신에 다만 1회의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화폐는 다만 그 자체와 동일한 액의 상품 가치를 지불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첫째 경우에 있어서는 화폐는 그 자체의 가치의 3배나 되는 가치를 지불하였다. 첫째 경우와 대비하여 두 개의 쓸 데 없는 유통 행위가 없어도 된다.

Ⅲ. 세째로, 10억의 화폐(*P*에게서 받은)를 가진 *F*는 처음에 구매자로서 나타나서 *S*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이 10억의 화폐는—다음 해의 지대로 납부되기까지 퇴장 화폐로서 *F*에게서 사장되어 있지 않고—유통에 들어 간다. 그리하여 *S*에게 20억의 화폐가 있게 된다(*P*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와 *F*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 그는 이 20억의 화폐로써 20억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F*에게서 구매한다. 이제는 50억의

---

* 원문 eventualiter. 역자

가치(30억의 상품과 20억의 화폐)가 유통에 나타났다. 10억의 화폐와 10억의 상품의 유통 그리고 20억의 화폐와 20억의 상품의 유통이 진행되었다. 이 20억의 화폐 중에서 차지인에게서 출발하는 10억은 두 번 유통하고 *S*에게서 출발하는 10억은 한 번만 유통한다. 이제는 *F*에게로 20억의 화폐가 돌아 온다. 그러나 그 중 10억의 화폐만이 그의 차액을 청산하고 다른 10억의 화폐—처음에 구매자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유통에 투입한—는 유통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로 복귀한다.

Ⅳ. 네째로, *S*는 20억의 화폐(*P*에게서 받은 10억의 화폐와 그 자신이 자기의 금고에서 유통에 투입한 10억의 화폐)로써 20억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337* 단번에 *F*에게서 구매한다. 이번에는 *F*가 10억의 상품을 *S*에게서 구매하며 따라서 10억의 화폐가 그에게로 복귀한다. 그리하여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S*간의 차액을 청산하기 위한 10억의 화폐를 남겨 둔다. 이번에는 50억의 가치가 유통하였다. 유통 행위는 두 개다.

Ⅲ의 경우에는 *S*가 *F*에게 주는 20억의 화폐 중 10억은 *F*자신이 유통에 투입한 화폐를 표시하며, 10억만이 *S*가 유통에 투입한 화폐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F*에게로 10억이 아니라 20억의 화폐가 흘러 온다. 그러나 사실상 *F*는 10억만 받는다. 왜냐 하면 다른 10억은 그 자신이 유통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Ⅳ의 경우에는 *S*에게로 10억의 화폐가 복귀한다. 그러나 이것은 *S*가 차지인에 대한 자기 상품의 판매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고에서 자신이 유통에 투입한 그 10억의 화폐이다.

만약 둘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째 경우에도 결코 10억 이상의 화폐가 유통하지 않으나 이에 있어서 첫째 경우에는 화폐가 세 번 유통하고, 즉 세 번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하고 둘째 경우에는 한 번만 유통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 즉 첫째 경우에는 화폐의 신속한 운동이 있으나 이에 있어서 화폐는 매번 유통 수단으로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매번 가치가 양극에 두 형태로, 즉 한 극에는 화폐로 다른 극는 상품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둘째 경우에는 발전된 신용, 따라서 지불의 절약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Ⅰ과 Ⅱ의 경우에는 10억의 화폐가 유통하였는데 Ⅲ과 Ⅳ의 경우에는 20억의 화폐가 유통한다면 이것은 두 경우에 다 20억의 상품 가치가 단번에 유통에 들어 가기(Ⅲ의 경우에는 유통 과정을 끝맺는 구매자로서의 *S*에 의하여, Ⅳ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을 개시하는 구매자로서의 *S*에 의하여)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20억의 상품이 단번에 유통에 들어 가는데, 그것도

상품이 차액의 청산 후에야만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에 구매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운동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Ⅲ의 경우에는 차지인에게 남고 Ⅳ의 경우에는 공업가에게 남는—비록 이 두 경우에 다 10억의 차액은 차지인에게 지불되며 그리고 이 차지인은 Ⅲ의 경우에는 한 푼도 더 많이 받지 않으며 Ⅳ의 경우에는 한 푼도 더 적게 받지 않지만—그 10억의 화폐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언제나 등가물들이 교환되며 그리고 우리가 차액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오직 화폐에 의하여 지불되는 가치 등가물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Ⅲ의 경우에 *F*는 10억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고 그 대신 *S*에게서 상
338 품 등가물, 즉 10억의 상품을 받는다. 그러나 그 후 *S*는 *F*에게서 20억의 화폐로 상품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F*가 유통에 투입한 첫 10억의 화폐는 그에게로 복귀한다. 그러나 그 대신 10억의 상품이 그에게서 나간다. 이 10억의 상품은 바로 그가 지출한 화폐로 그에게 지불된다. *F*는 두 번째 10억의 화폐를 두 번째 10억의 상품에 대한 지불로서 받는다. 그가 받을 이 화폐 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가 통털어 다만 화폐 10억어치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그는 20억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 435 ‖ Ⅳ의 경우에는 *S*는 20억의 화폐를 단번에 유통에 투입하고 그 대신 *F*에게서 20억의 상품을 받는다. *F*는 이번에는 *S* 자신이 지출한 화폐로써 그에게서 10억의 상품을 구매하며 이리하여 10억의 화폐가 *S*에게로 복귀한다.

Ⅳ의 경우에는 *S*는 사실상 상품으로, 10억의 화폐와 동등한 10억의 상품과 그리고 화폐로 20억의 화폐를, 따라서 도합 30억의 화폐를 차지인에게 준다. 그런데 *S*는 *F*에게서 다만 20억의 상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F*는 *S*에게 10억의 화폐를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Ⅲ의 경우에는 *F*는 *S*에게 상품으로 20억의 상품(=20억의 화폐)과 화폐로 10억의 화폐를, 따라서 도합 30억의 화폐를 주고 그에게서 다만 10억의 상품=10억의 화폐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S*는 *F*에게 20억의 화폐를 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는 10억은 *F*가 유통에 투입한 화폐로써 지불하며 10억은 *S* 자신이 유통에 투입한다. *F*는 차액으로써 10억의 화폐를 자기에게 남겨 둔다. 20억을 다 자기에게 남겨 둘 수는 없다.

두 경우에 다 *S*는 20억의 상품을 받고, *F*는 10억의 상품 플라스 10억

의 화폐 즉 화폐 차액을 받는다. 만약 Ⅲ의 경우에 이 밖에 10억의 화폐가 더 *F*에게로 흘러 온다면 그것은 다만 그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유통에서 끌어 내는 이상으로 유통에 투입한 그 화폐이다. Ⅳ의 경우의 *S*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두 경우에 다 *S*는 10억의 차액을 화폐로써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20억의 상품을 유통에서 끌어 내고 다만 10억의 상품을 유통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두 경우에 다 *F*는 10억의 차액을 화폐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20억의 상품을 유통에 투입하고 다만 10억의 상품을 유통에서 끌어 내며 그리하여 두번째 10억의 상품이 그에게 화폐로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10억의 화폐만이 두 경우에 다 이 사람에게서 저사람에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20억의 화폐가 유통 중에서 있으므로 이 10억의 화폐는—차액으로서 10억의 화폐를 유통에서 *339*
받고 그 밖에 또 다른 10억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한 *F*이든 또는 차액으로서 다만 10억의 화폐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 10억의 화폐를 더 유통에 투입한 *S*이든 간에—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Ⅲ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 하에서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그 화폐량보다 10억의 화폐가 더 유통에 들어 가는데, 그것은 *F*가 우선 구매자로서 나타남으로써 종국적 계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Ⅳ의 경우에도—Ⅱ의 경우에는 다만 10억의 화폐가 유통에 들어 갔는데—역시 20억의 화폐가 유통에 들어 간다. 왜냐 하면 Ⅳ의 경우에는 첫째로, *S*가 최초에 구매자로서 나타나며, 둘째로, 그가 20억의 상품을 단번에 구매하기 때문이다. Ⅲ과 Ⅳ의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유통하는 화폐량은 결국 어느 한 편이 지불해야 할 차액과만 동등할 것이다. 왜냐 하면 *S*나 *F*가 이 금액 이상으로 내놓은 화폐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도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F*가 *S*에게서 20억의 상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F*는 상품의 대가로 10억의 화폐를 *S*에게 준다. *S*는 20억의 화폐로써 *F*에게서 상품을 구매한다. 이로 말미암아 첫 10억과 이 이상으로 또 10억의 화폐가 *F*에게로 복귀한다. *F*는 다시 10억의 화폐로 *S*에게서 구매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금액이 *S*에게로 복귀한다. 과정의 종말에 가서 *F*는 20억의 화폐에 해당한 상품과 그리고 그가 처음에, 즉 아직 유통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10

억의 화폐를 가지게 될 것이며, S는 20억의 상품과 그리고 역시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10억의 화폐를 가지게 될 것이다. F에게 속하는 10억의 화폐와 S에게 속하는 10억의 화폐는 다만 유통 수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후에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양편에 화폐로서 또는 이 경우에는 역시 자본으로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양편이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서 적용하였다면 그들은 20억의 상품에 대하여 역시 20억의 상품으로 청산하였을 것이며, 그들의 계산은 상호 상쇄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간에서 한 푼의 화폐도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이중으로—구매자로서와 판매자로서—상호 대립하는 이 양편 사이에서 유통 수단으로서 유통하는 화폐, 이 화폐는 되돌아 오게 되는데, 이 때 세 경우의 유통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유통에 인입된 상품 가치는 상호 균등하게 된다. 이 경우에 화폐는 그것을 유통 과정에 선대한, 그리하여 자기의 자본으로 유통비
340 를 보상한 사람에게로 복귀한다. 예컨대 만약 F와 S가 각각 20억의 상품을 상호 구매하는데 이에 있어서 S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면 S는 F에게서 단번에 20억의 화폐로 상품을 구매한다. F는 S에게서 20억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에게 그 20억의 화폐를 돌려 준다. 이리하여 S는—거래 전이나 거래 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20억의 상품과 20억의 화폐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 양자가—상술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그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규모의 유통 수단을 선대한다면 양편에게로는 각각 그가 유통 과정에 선대한 그 금액이 복귀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억의 화폐는 F에게로 복귀하고 10억의 화폐는 S에게로 복귀한다.

둘째로. 양편이 상호 교환한 상품 가치는 상호 상쇄되지 않는다. 화폐로써 지불되어야 할 차액이 형성된다. 그리고 만약, 상술한 첫째 경우와 같이, 유통에 투입된 화폐량이 결국 차액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금액만이 항상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므로—을 넘지 않게 상품 유통이 진행되었다면 결국 차액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지게 된 최종 판매자의 수중에 떨어진다.

세째로. 양편이 상호 교환한 상품 가치는 상호 상쇄되지 않으며 따라서 차액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 유통은, 차액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이상의 화폐가 유통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 경우에 그 차액을 초과하는 화폐는 그것을 선대한 편에게로 복귀한다. Ⅲ의 경우

에는 그 차액을 받는 사람에게로 복귀하고 Ⅳ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할 사람에게로 복귀한다.

"둘째로"라는 항목에 통합된 경우들에서 화폐가 차액의 수령자에게로 복귀하는 것은 오직 그가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예에서와 같이 첫번째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조건 하에서만이다. 만약 다른 편이 첫번째 구매자의 역할을 한다면 Ⅱ의 경우에서와 같이, 화폐는 그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넘어 간다.

‖436‖ 〈물론 이 모든 것은, 일정한 양의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동일한 인물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그리하여 그들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구매자로도 되고 판매자로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3,000의 금액에 해당한 상품이 상품 소유자이며 판매자인 A, A' 및 A''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구매자 B, B' 및 B''가 대립하여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경우에 세 구매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며, 따라서 공간적으로 서로 나란히 진행된다면 3,000의 화 *341*
폐가 유통되게 되며, 그리하여 매개 A의 수중에는 1,000의 화폐가 들어가고 매개 B의 수중에는 1,000의 상품이 들어 간다. 그런데 구매 행위가 하나하나씩 즉 시간상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상품의 형태 변화가 서로 엉키는 경우 즉 등장 인물의 일부가 구매자로서도 판매자로서도 나타나며 비록 위에서 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구매자로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판매자로서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동일한 1,000의 화폐가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1) A는 B에게 1,000을 판매한다, 2) A는 이 1,000으로 B'에게서 구매한다, 3) B'는 이 1,000으로 A'에게서 구매한다, 4) A'는 이 1,000으로 B''에게서 구매한다, 5) B''는 이 1,000으로 A''에게서 구매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여섯 사람 사이에서 이전하면서 다섯 번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 갈 것이나 이에 있어서 상품은 5,000어치 유통할 것이다. 만약 상품이 3,000어치만 유통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 A는 1,000으로 B에게서 구매한다, 2) B는 1,000으로 A'에게서 구매한다, 3) A'는 1,000으로 B'에게서 구매한다. 네 사람 사이에서 세 번 이전한다. 이것은 G–W 과정이다.〉

상술한 경우들은 "화폐의 유통 속도가 주어지고 상품 가격의 총액이 주어져 있다면 유통 수단의 양은 일정하다"(Ⅰ, p.85)[105]는 이미 전개된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위에서든 예—Ⅰ의 경우—에서 1,000의 화폐[106]는 세 번 유통하고 이에 있어서 3,000의 상품을 유통에 인입한다. 그러므로

$$\text{유통화폐량} = \frac{3{,}000(\text{가격 총액})}{3(\text{유통속도})}$$

$$\text{또는 } \frac{3{,}000(\text{가격 총액})}{3\text{회전}} = 1{,}000\text{화폐.}$$

Ⅲ의 경우나 Ⅳ의 경우에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 총액은 물론 동일하지만(3,000의 화폐) 유통 속도는 다르다. 2,000의 화폐가 한 번 즉 1,000의 화폐 플라스 1,000의 화폐가 유통한다. 그러나 이 2,000의 화폐 중 1,000은 한 번 더 유통한다. 2,000의 화폐는 3,000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의 3분의 2의 유통에 복무하고 이 화폐의 절반은 1,000의 상품, 즉 나머지 3분의 1을 유통에 인입한다. 1,000의 화폐는 2회전하고 다른 1,000의 화폐는 1회전만 한다. 1,000의 화폐의 2회전은 2,000의 화폐에 해당한 상품 가격을 실현하며, 1,000의 화폐의 1 회전은 1,000의 화폐에 해당한 상품 가격을 실현한다. 그리하여 도합 3,000의 상품을 실현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화폐가 유통에 인입한 상품에 대한 화폐의 유통 속도는 어떠한가? 2,000의 화폐는 1과1/2 회전(이것은 처음에 화폐 총액이 1회전하고 다
342 음에 그 절반이 또 1회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3/2 회전을 한다. 그리하여 실지로는 :

$$\frac{3{,}000(\text{가격총액})}{3/2\text{회전}} = 2{,}000\text{화폐.}$$

그런데 이 경우에 화폐 회전의 상이한 속도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Ⅲ의 경우에도 Ⅳ의 경우에도 다 같이 이 차이는 Ⅰ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초래된다. Ⅰ의 경우에는 주어진 매 순간에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 총액은 결코 일반적으로 유통에 투입되는 상품 총량의 가격액의 1/3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언제나 1,000의 상품만

이 유통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Ⅲ의 경우와 Ⅳ의 경우에는 한 번은 2,000의 상품이 유통하고 한번은 1,000의 상품이 유통하며, 따라서 한 번은 현존 상품량의 2/3, 한번은 1/3이 유통한다. 바로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도매 상인에 있어서는 소매 상업에 있어서보다 큰 금액의 주화가 유통하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Ⅰ, "화폐의 유통") 화폐의 환류는 우선 구매자가 이번에는 판매자로 된다[107]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 있어서 그가 구매한 그 같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든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될 때에는 많은 착오(데스튜트 드 트라시)[108]를 낳게 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구매자가 판매자로 된다는 사정은 새로운 상품이 판매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단한 상품의 유통을 그것의 부단한갱신(Ⅰ, p.78)[109]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재생산 과정을 보게 된다. 어떠한 재생산 행위를 표현함이 없이도—노동자들에 대한 공장주의 관계와 같이—구매자가 이번에는 판매자로 될 수 있다. 오직 화폐의 이러한 부단한 환류, 그의 반복만이 이 경우에 재생산 과정을 가리킨다.

자본의 화폐 형태로서 역전화를 표시하는 화폐의 환류는 만약 자본이 자본으로서의 자체의 운동을 계속한다면 필연적으로 한 회전의 종결과 재생산의 갱신을 증명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자본가는 판매자, W–G였고 그 다음에 구매자, G–W로 되지만 그러나 그의 자본은 오직 G에 있어서만 자체의 재생산 요소들과 교환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며 그리고 이 경우에는 W는 이 재생산 요소들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G–W는 화폐 자본의 생산자본 또는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를 표시한다.

그리고 또 화폐의 그 출발점으로의 환류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343*
일련의 매매의 결과 화폐 차액을 이 일련의 과정을 개시하는 구매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F*는 *S*에게서 1,000의 화폐로 구매하고 *S*는 *F*에게서 2,000의 화폐로 구매한다. 이 경우에 1,000의 화폐가 *F*에게로 환류한다. 다른 1,000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경우에는 다만 *S*와 *F*사이에서 화폐의 단순한 이전만이 진행된다.

‖ 437 ‖ 끝으로, 화폐의 출발점으로의 환류는 그것이 차액의 지불을 표현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은 1) 지불관계가 상쇄되는 경우, 즉 아무런 차액도 화폐로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경우와 2) 지불관계가 상

쇄되지 않고 차액을 화폐로써 지불해야 할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상술한 경우들을 보라. 이 모든 경우에 예컨대 F와 대립하는 것이 동일한 S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S는 F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F는 S와의 관계에서, 그에게 판매하고 그에게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대표한다(차액의 지불이 화폐의 환류로 나타나는 예에서와 꼭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경우에 화폐는 말하자면 그것을 유통 과정에 선대한 사람에게로 환류한다. 이 화폐는 은행권과 같이 유통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후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사람에게로 복귀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다만 유통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최후로 나타나는 자본가들은 상호 청산하며 이리하여 화폐는 그것을 첫번째로 유통에 투입한 사람에게로 복귀한다.

차후에 고찰하려고 미루어 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즉 자본가는 그가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뽑아 낸다는 문제이다.[110]

[6. 정치 경제학사에서 『경제표』가 가지는 의의]

케네에게로 돌아 가자.

A. 스미스는 미라보 후작의 다음과 같은 과장된 진술을 좀 풍자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 "세계가 발생한 이래 세 개의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그 중 첫째 것은 문자의 발명이다… 둘째 것은 화폐의 발명(!)이다 세째 것은—『경제표』인데, 이것은 첫 두 발명의 결과이며 그것들을 완성한다" (가르니에 역, 제3권, 제4부, 제9장, p.540).

사실상 이것은, 자본의 모든 생산 과정을 재생산 과정으로서, 그리고 유통을 다만 이 재생산 과정의 한 형태로서, 화폐유통을 다만 자본 유통의 한 계기로서 표시하려는 시도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것은 이 재생산
344 과정에 소득의 근원, 자본과 소득 간의 교환, 재생산적 소비와 종국적 소비 간의 관계를 포함시키며 자본의 유통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실지로는 자본과 소득 간의 유통)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였으며, 끝으로 이것은 생산적 노동의 2대 부류 간의—원료의 생산과 공업 간의—유통을 재생산 과정의 계기로서 표시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여섯 개의 출발점 또는 복귀점을 연결하는 다섯 개의 선만으로써 이루어지는 한 개의 『표』로 표시하려는 시도였다. 18세기 중엽, 정치 경제학의 유년

기에 이루어진 이 시도는 최고의 천재적 사상이었으며, 논쟁할 여지없이 정치경제학이 이 때까지 내놓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천재적인 것이었다.

자본의 유통, 그 재생산 과정, 이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이 취하는 상이한 형태, 자본의 유통과 일반적 유통 간에 존재하는 연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따라서 자본과 자본과의 교환뿐만 아니라 자본과 소득 간의 교환에 관하여 말한다면 스미스는 사실상 중농주의자들의 유산을 받아 들여 개별적인 재산 항목들을 보다 엄격히 분류하고 세밀히 기록하였을 뿐이고 전체로서의 과정을, 케네의 그릇된 전제들에도 불구하고 『경제표』에서—일반적인 기획에 따라—그 윤곽이 그려진 것처럼 거의 그렇게 옳게 묘사하고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스미스가 중농주의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저작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나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같은 책, p.538)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컨대 프랑스 혁명의 선조의 한 사람인—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에서—튀르고와 같은 사람의 의의에 대한 결손치 않은 과소 평가이다. [437]

[제 7 장]
렝 게

[노동자의 "자유"에 관한 부르조아-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한 초기의 비판]

‖ 438 ‖ 렝게. 『민법 이론』, 런던, 1767년.

나의 저술 계획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및 공산주의적 문필가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개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관은 다만,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학자들이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가를 보여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학의 법칙들이 어떤 형태들—역사적 시기들의 표식으로 된—로 처음에 표명되고 그 후 더 발전되었는가를 보여 주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가치를 고찰함에 있어서 나는 브리쏘, 고드윈 등등과 같은 18세기의 문필가들과 그리고 또한 19세기의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도외시한다. 내가 앞으로 이 개관에서 말하게 될 몇몇 사회주의적 문필가[111]들은 스스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 서거나 혹은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바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 자체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렝게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와 동시대의 계몽가들의 부르조아 자유주의적 사상을 반대하며, 시작된 부르조아지의 지배를 반대하는 그의 논쟁은—절반은 진실하게, 절반은 야유하여—반동적인 외피를 쓰고 있다. 그는 문명적인 유럽식 전제주의를 반대하면서 아시아식 전제주의를 옹호하며, 임금 노동을 반대하면서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다.

제1권. 이미 몽테스큐를 반대하는 그의 하나의 의견, 즉 "법의 정신은 소유이다"[112]는 그의 견해의 깊이를 보여 준다.

렝게가 상대하게 된 유일한 정치 경제학자들은 중농주의자들이었다.

렝게는 증명하기를, 부자는 모든 생산 조건을 점유하였다 : 이것은 생산 조건의 소외이며, 이 생산 조건은 그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는
346 자연의 요소 자체라고도 한다. "우리의 문명한 나라들에서는 자연의 모든 요소가 노예로 되었다"(p.188). 부자들이 차지한 이 재물의 일부분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부자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어려운 노동으로써 그것을 사야 한다. "이리하여 포로로 된 자연은 자기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에 대하여 비상한 노력으로 갚아야 하며, 그의 선물에 대하여 완강한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여기에—"자연의 선물"에서—중농주의적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독점한 부자들은 오직 이 값을 받고서야만 그것의 극히 적은 부분을 공동 이용에 돌리는 데 동의한다. 그 재물에서 한 몫 볼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189).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p.190). 법은 "최초의 약탈"(사적 소유) "을 승인하기" 위하여서와 "새로운 약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p.192). "그것은 인류의 절대 다수를 반대하는 일종의 음모이다"(즉 무산자를 반대하는—같은 책 [p.195]). "사회가 법을 만든 것이지 법이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p.230). "소유는 법 이전에 출현하였다"(p.236). "사회" 자체—인간이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산다는 사실—는 소유, 그에 기초한 법, 그리고 그것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노예제의 근원이다.

한편으로는 농민들과 유목민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혈에 의하여 생활 수단을 획득하며 자기들에게 고기를 제공한 동물들에 대한 몰이사냥을 보다 헐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리를 이루며, 노획물의 분배에 합의를 보는 데 익숙한 사냥꾼들"이 존재하였다(p.279). "바로 사냥꾼들에게서 사회의 첫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p.278). "진실한 사회는 유목민들과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단합된 사냥꾼들의 무리에 의한 "그들의 노예화가 사회의 기초로 되었다"(p.289). 사회에서의 모든 의무는 명령과 복종에 귀착된다. "인류의 일부분의 이러한 퇴화는 처음에 사회 발생의 원인으로 되었으며, 그 후에 법들을 낳았다."(p.294).

빈궁은 생산 조건을 빼앗긴 노동자들로 하여금—살기 위하여—일하여 타인의 부를 증대시키게 한다.

"달리는 살 수 없다는 오직 그 사실이 우리의 날품팔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자신이 향유할 수 없는 땅을 경작하게 하며, 우리의 목수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세우게 한다. 빈궁은 자기들을 사 줄 것을 승낙할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시장으로 그들을 내몬다. 빈궁은 그들로 하여금 부자를 부유하게 할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p.274).

"이리하여 노예화는 사회 발생의 첫 원인이었으며 그리고 폭력은 사회의 연결의 첫 기초였다"(p.302). "그들의"(사람들의) "첫째 가는 근심 347
은 의심할 바 없이 먹을 것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둘째 근심은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을 찾아 내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p.307~308). "그들은 타인의 노동의 열매를 취득함으로써만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p.308). "첫 정복자들은 오직 무사히 무위도식하기 위해서만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생존 수단을 가지기 위하여 왕으로 되었다. 이로써 지배의 사상이… 극히 협소하여지고 단순하여진다"(p.309). "사회는 폭력에 의하여 탄생되었고 소유는 약탈에 의하여 탄생되었다"(p.347). "주인과 노예가 나타나자마자 사회가 형성되었다"(p.343). "최초부터 한편은 대부분의 남자의 노예제와 다른 한편은 전체 여자의 노예제가 시민 사회의 두 개 ‖ 439 ‖ 초석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그 성원 총수의 4분의 3을 희생으로 하여 그가 오직 배려하는 소수 소유자들의 행복, 부유, 한가한 생활을 보장하였다"(p.365).

제2권. "따라서 문제는 노예제가 그 자체로서의 본성에 모순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본성에 모순되는가 안 되는가에 있다… 노예제는 사회의 존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p.256). "사회와 노예화는 동시에 발생하였다"(p.257). "종신 노예제는… 사회의 불가결한 기초이다"(p.347).

"어떤 다른 사람의 자비심에서 자기의 생존 수단을 얻지 않으면 안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로써 그 일부분을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하여졌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 이 사람의 표면상의 관대성은 그가 취득한 그들의 노동의 열매를 조금 돌려 주는 것 뿐이다"(p.242). "사람이 자기는 그 수확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씨를 뿌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희생으로 바쳐야 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바로 이것이 노예제가 아닌가? 그리고 노예제의 실제 역사는 그들이 마굿간으로 돌아

갈 때 그들에게 약간의 밀을 주면서 채찍질로써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오직 발전된 사회에서만 생존 수단이 굶주린 빈민에게 그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등가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기 발전의 초기에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교환은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괴이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오직 포로들에게만 그것을 제기할 수 있다. 오직 포로들에게서 어떠한 재산이건 그 이용권을 박탈한 후에야만 이러한 종류의 교환을 그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p.244~245).

"사회의 본질은… 부자로 하여금 노동을 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온갖 어려운 노동을 부담하면서도 그 노동의 열매는 부자에게 취득 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관, 꾸준한 성원을 부자의 관리 하에 맡기는 데 있다. 노예제가 부자로 하여금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한 목적은 이러하다. 부자는 자기에게 복무하여야 할 사람들을 구매하였다"(p.461). "노예제를 철폐하면서 부도, 그의 우월성도 폐기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이외의 모든 것은 이전 대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재물을 취득한 극소수에게 예속되어 항상 임금으로 살아야 하였다. 그리하여 노예제는 보다 부드러운 명칭 하에 지구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지금 봉사인*이라는 명칭으로 분식되어 우리들 속에 있다"(p.462).

자기는 이 "봉사인"이라는 것을 하인 등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렝게는 말한다 : 즉 "거리와 마을에는 보다 수가 많고, 보다 유용하고, 보다 근면한 다른 종류의 봉사인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 그들은 '날품팔
348 이 노동자(*journaliers*)', '손노동을 하는 사람' 등등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사치의 허식으로 자신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극빈자의 제복인 더러운 누더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노동이 그 원천으로 되고 있는 풍부한 부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가지지 못한다. 부자는 그들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받을 것을 승낙할 때 마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 그들은 또 바로 그들이 부자에게 제공하는 그 봉사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들이 부자의 무릎을 끌어안고 그에게 유익한 일을 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할 때 부자는 그들을 가장 무례하게 모욕한다. 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허락을 간청하게 하며, 그리고 실제적인 선심

---

* 원문 domesticité-역자.

과 가짜 선행과의 이 유일 하고 독특한 교환에 있어서 거만과 멸시는 받는 쪽에 있고 굴종, 근심, 열성은 주는 쪽에 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봉사인들이 노예와 교체하였다"(pp.463~464).

"노예제의 폐지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이득이 실지 어떠한 것인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고통스럽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익이란 아사의 공포—적어도, 인류 사회의 이 최하층에 있는 그들의 선행자들이 면하였던 불행—가 영원히 그들을 뒤따르고 있다는 거기에 있다"(p.464). "당신은 그 [노동자]가 자유롭다고 말한다. 아! 바로 여기에 그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누구도 그와 관계가 없으며 또 그도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 그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를 가장 싼 값으로 고용한다. 그에게 약속하는 보잘 것 없는 보수는 그가 교환으로 제공하는 노동일 기간에 그에게 필요한 생존 수단의 가격에 달할까 말까 하다. 그에게는 될수록 빨리 일하도록 하는 감독"(*overlookers*) "이 붙는다. 그가 교묘한 핑계로 태만함으로써 그의 힘의 절반을 감출 수 있지나 않을가 두려워서 그를 몰아대고 그에게 매질을 한다. 그가 주어진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오래 끌려는 희망에서 일손의 기민성을 감소시키고 도구를 무디게 하지나 않을가 겁나 한다. 그를 불안스럽게 주시하는 탐욕스러운 관리자는 그가 조금만 쉬어도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또 만약 그가 잠깐이라도 휴식하면 제것을 훔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를 채용한 때나 다름 없이 냉정하게 그를 해고한다. 즉 고된 노동일의 댓가로 그가 받은 20이나 30 수(sous)가—‖ 4401 만약 그가 다음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그의 생활에 충분한가 못한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를 해고한다"(pp.466~467).

"그렇다. 그는 자유롭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가엾게 생각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시키는 작업들에서 그를 훨씬 덜 아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한 철면피성을 나타내어 그의 생명을 약탈한다.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있어서 일정한 가치물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의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를 고용한 부유한 방탕자는 노동자의 대가로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노예제시대에는 인간의 피가 약간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시장에서 판매된 금액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판매가 중지된 때로부터 그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내재적 가치도 없다. 군대에서 공병은 짐을 끄는 말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다. 왜냐하면

말의 값은 대단히 비싼데 공병은 공짜로 얻기 때문이다. 노예제의 폐지는 이러한 평가를 군대 생활에서 시민 생활에로 옮겨 갔으며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용감한 전사들이 인간을 평가하듯이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부유한 부르조아는 한 사람도 없다"(p.467)

"날품팔이 노동자는 부자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는다"(züchten sich heran). "그리고 이것은—마치 부자들이 자기의 영지에서 도살하는 들짐승과 같이—그에게 조금도 비용을 들이게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마치 불운한 폼페이우스가 안다고 뽐내던—아무런 근거도 없이—그 비밀을 실제 알고 있는 것 같다. 부자가 발로 땅을 구르기만 하면 근면한 인간의 무리가 부자에게 봉사하는 영예를 서로 다투면서 땅 속에서 솟아 나온다. 그리고 만약 그의 집을 지어 주고 그의 정원을 돌보아 주는 이 고용되는 자들의 한 무리가 사라져도 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그 자리는 누구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곧 메워진다. 큰 강에서 물 한 방울쯤 없어져도 아까와 하지 않으니, 그것은 새로운 물줄
349 기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 오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태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쉽게 다른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자들의 무정한 태도를 길러 주고 있다"(렝게의 표현 방식은 이러하다. 그는 아직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p.468).

"그들에게는 주인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의 명백한 악용이다. 그들에게 주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에게는 주인이 있으며, 그것도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가장 횡포한 주인이 있다. 즉 빈궁이 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어떤 개별적 인간에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 변덕을 맞추어 주어야 하며 그의 호의를 얻어야 하는 어떤 유일한 폭군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예 상태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것이며 그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돈을 가진 모든 사람의 종으로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의 노예 상태는 무제한성과 냉혹성을 띤다. 만약 그들이 한 주인에게서 불안을 느끼면 그들은 적어도 이것을 그 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위안을 받고 있으나 노예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따라서 노예는 더욱 불행하다는 것이다—무슨 궤변인가! 다른 사람들을 일시키는 자의 수는 극히 적은데 일하는 사람의 수는 그와 반대로 막대하다는 사정을 좀 생각해 보라"(pp.

470~471). "그들에게 당신이 베풀어 준 그 환상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무엇에 귀착되는가? 그들은 오직 자기의 두 손을 임대함으로써 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를 고용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자유롭다는 것인가?(p.472).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이 임금이 적다는 그 자체가 임금이 앞으로 더욱 저하되는 원인으로 된다는 것이다. 날품팔이 노동자의 처지가 비참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을 더욱더 값싸게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빈궁이 심하여지면 질수록 그의 노동의 값은 낮아진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봉사를 받아 줄 것을 애걸하는 순간 폭군으로서 그에게 대립하는 인간들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기는 커녕 그에게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맥을 짚어 본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쇠약하여졌는가에 따라 그에게 지불할 임금을 결정한다. 날품팔이 노동자가 쇠약해져서 멀지 않아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생각되면 될수록 그들은, 아직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삭감한다. 이 야만들이 그에게 주는 것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죽음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pp.482~483). "독립성"(날품팔이 노동자의)… "이것은 세련된 우리 시대에 탄생한 가장 파멸적인 재난의 하나이다. 그것은 부자에게 있어서 부를 증대시키며 빈자에게 있어서는 빈궁을 증대시킨다. 부자는 빈자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그 모든 것을 저축하지만 그러나 이 빈자는 남는 것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p.483).

"오늘, 사치와 결부되어 인류를 멸망에로 이끄는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그렇듯 쉽다면 그것은 오직 노예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노예들이 없게 된 그 때로부터 타락과 극빈은 하루에 5수로 전사를 제공하고 있다"(pp.484~485).

"나는 날마다 하는 노동으로써 연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아시아적 노예제가) "다른 어떤 상태보다도 백 배나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p.496).

"그들"(노예들과 임금 노동자들) "의 철쇄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다만 색깔이 다를 뿐이다. 한편의 철쇄는 까맣고 더 육중하며, 다른편의 철쇄는 색깔이 덜 음침하고 보다 가볍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정하게 달아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 사이에 사소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 같이 빈궁으로 벼린 것이다. 그것들의 무게는 완전히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편이 좀더 무겁다면 보다 가볍게 보이는 바로 그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p.510).

350 렝게는 노동자들에 관하여 프랑스 계몽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친다 : "당신들은 그렇게도 많은 이 양떼의 공손함, 솔직히 말해서 절대적으로 온순함이 유목민의 부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보지 않는가?… 그의"(유목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양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그들에게 짖어 대는 개 한 마리가 모든 양을 함께 합친 것보다도 강하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뿌리박게 한다는 것을 나에게 고백하라, 그들로 하여금 개의 그림자를 보기만 하여도 분별없이 도망치도록 하라, 이로 인하여 모든 덕을 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털을 베기 위하여 그들을 보다 쉽게 몰아 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냥이에게 잡아 먹힐 위험이 그들에게서 덜어질 것이다. ‖ 441 ‖ 사실 그들은 다만 사람들에게 먹히우기 위하여 이 위험을 면한다. 그러나 벌써 그들이 외양간에 들어 온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을 여기에서 구출하는 데 대하여 말하기 전에 당신들은 우선 외양간, 즉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pp.512~513) ‖ Ⅸ－441 ‖.

부 록

[1. 노동, 가치, 과학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홉스의 견해]

‖X X－1291a‖ 홉스는 노동의 수행보다도 과학을 기술의 어머니로 간주한다. "예컨대 축성(築城)이라든가, 군사용의 각종 기계나 기타 도구의 제작과 같은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기술은 하나의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방위와 승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진정한 어머니는 과학, 즉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공업자의 손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것으로 해서, 마치 백성들 속에서 산파가 어머니로 불리우듯 그것들이 수공업자의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리바이어던』, 몰즈워스 편찬 『Th. 홉스 전집』, 런던, 1839~1844년, 제3권, p.75). 정신 노동의 생산물—과학—은 항상 그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과학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그것을 처음으로 생산할 때 요구되는 노동 시간과는 전혀 대비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항식에 관한 정리를 학생이 습득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노동력 : "인간의 가치, 또는 값은 다른 모든 물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격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힘을 이용한 대가로 줄 수 있는 것만큼의 것이다"(같은 책, p.76). "인간의 노동은"(따라서 그의 노동력의 이용은) "역시 다른 모든 물건과 꼭 마찬가지로 이익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같은 책, p.233).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노동을 보위하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사원을 복구함에 있어서 한 손으로는 건설을 하였고 다른 손에는 검을 잡았던 저 유태인들처럼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을 대신하여 싸워 줄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책, p.333). ‖X X－1291a‖

[2.] 역사 영역에서 : 페티

[비생산적 직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동 가치론의 맹아. 임금, 지대, 토지 가격 및 이자를
가치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려는 시도]

‖ X X Ⅱ −1349 ‖ 페티.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 런던, 1667년.

우리의 벗 페티[113]의 『인구론』은 맬더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페티의 견해에 의하면 목사의 "번식"을 억제하여야 하며 숭려층의 독신 생활을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편[114]에서 취급한다.

a. 목사 : "영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기 때문에…, 목사들이 독신 생활로 돌아 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목사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독신 목사는 그 수입의 절반으로도 그 전액으로 살던 때와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pp.7~8).

b. 상인과 소매상인 : "이들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들은 빈민의 노동 생산물을 걸고 서로 ‖ 1347 ‖ 도박을 하는 일종의 도박꾼에 불과하며 그들 자신은 아무런 생산물도 내지 않고 정맥과 동맥처럼 사회의 혈액과 영양분, 즉 농업 및 공업 생산물을 이리저리 분배할 뿐이다"(p.10).

c. 변호사, 의사, 관리 등등 "만약 통치, 재판, 교회와 관련된 수 많은 인원 및 봉급이 축소되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보잘것 없는 일을 하면서도 많은 보수를 받는 목사, 변호사, 의사, 상인, 소매 상인의 수효가 축소된다면 사회적 지출의 지변은 참으로 헐하게 될 것이다!"(p.11).

d. 극빈자 : "여분의 사람들"[*Supernumeraries*] : "누가 이 사람들에게 지 355
불하여야 하는가? 나는 모두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을 굶어 죽여도 안 되며 교수형에 처하여도 안 되며 외국에 내주어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운운(p.12). 그들에게 "여분의 생산물"을 주든가, 만약 그러한 여분의 생산물이 없다면, 즉 "만약 여분이 없다면 다른 잘 먹는 사람들의 몫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약간 축소하든가 하여야 한다" (pp.12~13). 이 "여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다만 그 일이 "외국 상품의 소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기만 하면 된다. 주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의식을 길러 주며 보다 유익한 노동을 인내성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배양하는 것이다"(p.13). "그들을 도로와 교량 부설, 광산 개발 등등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p.12).

인구는 부이다. "인구가 적은 것은 실제적인 빈곤이다. 800만의 인구를 가진 인민은 동일한 영토에서 400만의 인구 밖에 가지지 못한 인민보다 2배 이상 부유하다"(p.16).

상술한 항목 a(목사)에 대하여. 페티는 승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날카롭고 풍자하고 있다 : "변호사의 수입이 아주 적은 곳에서… 법률이… 성행하듯이 승려의 금욕이 아주 심한 곳에서 종교가 성행한다"(p.57). 어쨌든 그는 목사들에게, "현존하는 교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상으로 교회 인원을 더 기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과 웨일즈에 1만 2,000개의 교구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2만 4,000명의 목사를 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1만2,000명의 목사가 교구를 차지하고 있는 목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교구를 차지하고 있는 1만 2,000명의 목사가 사람들의 정신을 오도, 고갈시키며"(영국의 종교 전쟁을 암시한다) "천당으로 가는 길을 곧바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복함으로써 그 경쟁의 목적을 아주 쉽사리 달성할 수 있다"(p.57).

잉여 가치의 기원과 그 계산. 이 제목의 서술은 다소 혼란되고 그 사상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간혹 여기저기 있는 정확한 지적들은 정연한 전일체를 이루고 있다.

페티는 "자연 가격", "정치 가격" 및 "진정한 시장 가격"을 구분하고 있다(p.67). 그는 "자연 가격"이라는 것을 사실상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왜냐 하면 ‖ 1348 | 잉여

가치의 규정도 가치의 규정 여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저서에서 페티는 사실상 상품의 가치를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비례적 양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료에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이자라는 불리우는 임료를 낳는 화폐와 관련하여 그리고 또 토지 및 가옥과 관련하여 이 임료들의 은폐된 본성을 설명하여야 한다"(p.23).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상품, 특히 곡물의 가치란 무엇인가?

356 (a) "만약 1부셀의 곡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시간의 지출로써 페루의 광산에서 1온스의 은을 채취하여 런던으로 가져 갈 수 있다면 이 은은 그 곡물의 자연 가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풍부한 광산이 발견된 결과 이제는, 전에 1온스를 채취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2온스의 은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면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 곡물은 부셀 당 10실링이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5실링이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렴할 것이다"(p.31). "가령 1부셀의 곡물 생산과 1온스의 은의 생산이 동등한 노동을 요구한다고 하자"(p.66). 이것이 우선 "상품 가격 계산의 가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도이다"(p.66).

(b) 연구해야 할 두 번째 점은 노동의 가치이다. "법령은… 노동자에게 생활상 꼭 필요한 것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만약 노동자에게 필요한 양의 2배를 준다면 그는 임금의 이러한 배가가 없이 일할 수 있었으며 또 사실상 일하였던 때에 비하여 절반 밖에 일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그만한 양의 노동 생산물의 손실을 의미한다"(p.64).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필요한 생활 수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자가 잉여 생산물의 생산과 잉여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오직 그가 생활상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자기의 노동력[*Arbeitskraft*] 전체를 소비하도록 강요 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노동자의 노동이 싼가 비싼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정, 즉 토양의 자연적 비옥도에 의해서와 기후 조건에 기인하는 지출(욕망)의 규모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연적으로 비싸나 싸나 하는 것은 자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일손의 다소에 의존한다.(예컨대 곡물은 한 사람이 10명분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6명분 밖에 생산할 수 없는 곳에서보다 싸다). 그 밖에 기후에

---

* 원문 caeteris paribus–역자.

도 의존한다. 즉 기후는 어떤 곳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게 하며 또 어떤 곳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이게 한다"(p.67).

(c) 페티는 잉여 가치를 다만 두 가지 형태, 즉 지대와 화폐 임료(이자)로서만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후자를 전자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후에 와서 중농주의자들도 그랬지만 그는 지대를 잉여 가치의 진정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페티는 여기에서 곡물을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서술에서 임료(잉여 가치)를 기업가가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여 얻어 내는 잉여 분으로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잉여분을 생산자 자신의 임금과 그 자신의 자본의 보상을 초과하는 그의 잉여 노동의 잉여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곡물을 재배한다고 하자, 즉 그는 그 나라의 농업이 요구하는 대로 땅을 개간, 기경하며 쇠퇴와 제초 작업을 하며 수확하여 집으로 운반하며 탈곡 357
정선하며 또 그 밖에 그 토지에 파종하기 위한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자기가 거둔 수확물에서 자기의 종자를 공제하며"(즉 첫째로 생산물 중에서 불변 자본의 등가물을 공제하며) ‖ 1349 ‖ "또한 그 자신이 먹은 것, 의류 및 기타 절실한 욕망의 충족에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 등 모든 것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곡물은 이 해의 자연적이며 진정한 지대를 이룰 것이며, 7년간의, 더 정확히 말하면 흉작과 풍작이 한 번 순환하는 수년간의 평균은 곡물로서 표현된 보통의 지대로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pp.23~24).

따라서 페티에게서는 곡물의 가치가 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총 생산물 중에서 임금과 종자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임료로 되기 때문에 이 임료는 잉여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잉여 생산물과 동등하다. 여기서는 임료가 자체 내에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윤은 아직 임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재치 있는 솜씨로써 페티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 부차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곡물 또는 이 임료는 영국 화폐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그것은 다른 개인

* 「주기도문」—성서 마태복음, 제6장, 9~13 및 누가복음, 제11장, 2~4—역자.

이 만약 동일한 기간에 전적으로 화폐의 생산에 종사한다고 하면 그의 전체 비용을 공제하고 저축할 수 있는 화폐의 양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리하여 다른 어떤 사람이 은이 있는 나라로 가서 은을 채취, 제련하여 전자가 자기의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 같은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주화를 만들며… 그리고 그가 은을 생산 가공하는 전 기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식료, 의류 등등을 획득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은은 그 가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곡물과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그 은은 20온스이고 곡물은 20부셀이라고 하면 1온스의 은은 이 곡물 1부셀의 가격으로 될 것이다"(p.24).

이에 있어서 페티는 노동 종류의 차이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오직 노동 시간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 "하긴 은의 생산이 곡물의 생산에 비하여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하며 더 큰 모험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에 귀착한다. 가령 100명이 10년 동안 곡물을 생산하고, 그와 동일한 수의 사람이 같은 시간을 은의 채취에 지출한다고 하자. 그러면 은의 순 채취량은 곡물의 순 수확고 전체의 가격으로 될 것이며 전자의 동등한 부분들은 후자의 동등한 부분들의 가격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p.24).

페티는 이상과 같이, 이 경우에 이윤도 포함하는 전체 잉여 가치와 동등한 임료를 규정하고 그것의 화폐적 표현을 발견한 다음에 토지의 화폐적 가치를 규정하는 데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매우 천재적이다.

"따라서 상술한 용익권(用益權)(ususfructus)*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잘 되지 못할망정 자유롭게 판매되는 토지의 자연 가치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기쁠 것이다… 우리가 연간의 임료 즉 용익권의 가치를 규정한
358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자유로 판매되는 토지의 가치는 얼마 만큼의 연임료액과 동등한가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한수를 놓고 말한다면 토지 1에이커의 가치는 동일한 토지 1,000에이커의 가치와 동등할 것인데(단위의 무한은 천의 무한과 동등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한수의 연한을 취하여야 한다. 나는 동시에 살고 있는 세 세대 즉 50세의 할아버지와 28세의 아버지 그리고 7세의 아들이 앞으로 더 살 수 있다고 기대되는 연수들이 그러한 숫자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

* 타인소유(주로 토지소유)의 허용권-여기서는 순 토지 소득의 의미에서 쓰이고 있다-편집자.

더 먼 후손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근거를 가진 사람은 아주 적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면적의 토지의 자연 가치를 이루는 연 임료액은 이러한 세 사람이 보통 1350 함께 살게 되는 기간과 동등하다고 인정한다. 우리 영국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21년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대체로 동일한 연 임료액과 동등하다"(pp.25~26).

페티는 임료를 잉여 노동에, 따라서 잉여 가치에 귀착시킨 다음 토지는 자본화된 임료 즉 일정한 연 임료액 또는 일정한 연간의 임료액에 불과하다고 언명하고 있다.

임료는 자본화된다, 즉 사실상 다음과 같이 토지의 가치로서 계산된다 :

한 에이커의 토지가 매년 10파운드 스털링의 임료를 가져온다고 하자. 만약 이자율이 5라면 10파운드 스털링은 2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의 이자를 표시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5%인 경우에 이자는 20년간에 자본을 보상하게 되므로 토지의 에이커당 가치는 200파운드 스털링(20×10)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료의 자본화는 이자율의 높이에 의존한다. 만약 이자율이 10이라면 10파운드 스털링은 1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의 이자, 다시 말하면 10년간의 소득액의 이자를 표시할 것이다.

그러나 페티는—그는 이윤을 포함하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형태로서의 지대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자본의 이자를 어떤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할 수가 없으며 도리어 그것을 특수한 형태로서 임료에서 도출하지 않을 수 없다(뒤르고도 역시 페티의 견지에 철저히 서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연수, 즉 토지의 가치를 이루는 연 임료액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손에 대하여 "걱정"하여야 할 햇수 만큼의 연 임료, 즉 평균적 인간—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생활하는 햇수 만큼의 연 임료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가질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인"의 계산에 의하면 21년이다. 따라서 이 21년간의 "용익권"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년간의 "용익권"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의 가치를 이룬다.

페티는 이렇듯 재치 있게 난관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임료는 총 농업 잉여 가치의 표현으로서 토지에서가 아니라 노 359
동에서 도출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넘는,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분으로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

둘째로, 토지의 가치는 미리 구매된 일정한 연간의 임료에 불과하며 이것은 일정한 연간(예컨대 21년)의 잉여 가치(또는 잉여 노동)가 토지의 가치로서 나타나는, 임료 자체의 전화된 형태이다. 요컨대 토지의 가치는 자본화된 임료에 불과한 것이다.

페티는 이와 같이 문제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료의 구매자(즉 토지의 구매자)의 견지에서 보면 임료는 단순히 그의 자본의, 즉 임료 구매에 쓰인 그 자본의 이자로서 나타난다. 이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임료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되며 자본 이자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토지의 가치와 연 임료의 가치를 규정함으로써 페티는 이제는 "화폐의 임료", 즉 부차적 형태인 대부 이자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대부 이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부 반환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면 적어도 대부되는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에서 나오는 임료와 동등하여야 한다"(p.28).

여기서는 이자가 임료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꾸로 임료의 가격 즉 토지의 구매 가치는 이자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전후가 맞는다. 왜냐 하면 페티는 임료를 잉여 가치의 일반적 형태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폐 이자를 부차적인 형태로서 임료에서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차액 지대. 차액 지대에 관한 최초의 개념도 역시 페티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차액 지대를 크기가 같은 토지의 각이한 비옥도에서가 아니라 비옥도가 동등한 토지의 상이한 위치, 시장과의 각이한 거리에서 도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액 지대의 한 개 요소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1351 ‖ "화폐에 대한 큰 수요가 화폐 시세를 등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물에 대한 큰 수요는 곡물의 가격을 등귀시키며 따라서 곡물을 산출하는 토지의 임료도 등귀시키며"(따라서 여기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곡물의 가치가 임료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임료를 규정한다고 직접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토지 자체의 가격을 등귀시킨다. 예컨대 만약 런던 사람들이나 어떤 군대가 소비하는 곡물이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공급된다고 하면 런던이나 군대의 병영에서 1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자연 가격은 39 마일에 대한 수송비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급양을 위하여 큰 지역을 요구하는 주민 지대에 가까운 토지는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질은 똑 같지만 보다 먼

곳에 있는 토지보다 높은 임료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연 임료액도 더 많다"…(p.29).

페티는 또한 차액 지대의 둘째 원인, 즉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와 따라 360
서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도 언급하고 있다. "토지가 비옥한가 척박한가 하는 것, 또는 토지의 가치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중 많든 적든 간에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부분외, 그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된 단순 노동에 대한 비율에 의존한다" (p.67).

이와 같이 페티는 아담 스미스보다 훌륭하게 차액 지대를 서술하였다.‖ XXII-1351 ‖

* * *

‖ XXII-1397 ‖ 보충,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1667년 판)에서.

1) 한 나라에 필요한 유통 화폐량에 관하여. pp.16~17.

전체로서의 생산에 대한 페티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 "만약 한 지역에 1,000명이 살고 있고 그중 100명이 1,000명 전체에 필요한 식료와 의류를 생산할 수 있다면, 또 그 다음 200명이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상품이나 화폐를 가지고 교환하려고 하는 분량 만큼의 상품을 생산한다면, 또 그 다음 400명이 나라 전체를 위한 장식, 오락, 미관을 조성하는 데 종사한다면, 마지막으로 200명이 통치자, 목사, 법률사, 의사, 상인 및 소매 상인이라면—따라서 이상 도합 900명이라고 하면—극빈자("supernumeraries")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p.12).

임료와 그 화폐적 표현을 연구함에 있어서—여기서 페티는 "동등한 노동"*(동등한 노동량)을 기초로 삼고 있다—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제 가치의 균등화 및 균형화의 기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기초 위에서 서있는 상부 구조와 그것의 실천적 적용에서는 커다란 다양성과 커다란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p.25).

‖ 1398 ‖ 2) 페티가 극히 중요시한 것은 "토지와 노동 간의 자연적 등식 관계"이다.

"우리의 은화와 금화는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

* 이책 pp. 397~398을 보라—편집자.

는 파운드, 실링, 페니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각각의 주화는 임의의 다른 주화액으로서 또는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 모든 물건은 두 개의 자연적 분모인 토지와 노동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 척의 배 또는 한 벌의 예복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토지에 일정한 양의 노동을 합친 가치와 동등하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개의 물건, 즉 한 척의 배와 한 벌의 예복은 토지와 인간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지와 노동 간의 자연적 등식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이 두 개 요인 중의 어느 하나로써 두 개 요인에 의한 것보다 조금도 못지 않게(또는 십지어 더 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페니를 파운드로 환산하듯이 그 중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임료의 화폐적 표현을 발견한
361 다음에 "자유로 판매되는 토지의 자연적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p.25).

페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정이 무질서하게 엉켜 있다 :

a. 가치의 크기는 동등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은 가치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b. 사회적 노동의 형태로서의 가치. 이 때문에 화폐는, 페티가 다른 부분들에서 중금주의의 온갖 환상을 타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가치 형태로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개념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c. 교환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노동과 사용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의 혼동인데, 여기에서 노동은 자연의 소재(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상 페티는 노동과 토지 간의 "등식관계"를 설정할 때 자유로 판매되는 토지를 자본화된 임료로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여기에서 실재적 노동과 관계를 가진 자연의 소재로서의 토지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3) 이자율 문제에서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나는 다른 곳에서 자연 법칙들"(즉 부르조아적 생산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법칙들) "에 모순되는 실증적인 민법을 발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람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서술한 바 있다"(p.29).

4) 임료에 관하여. 노동 생산성의 성장의 결과로서의 잉여 가치. "만약 상술한 백작 영지를 현재보다 많은 양의 노동을 투하하는 방도에 의하여 (예컨대 밭고랑을 안 짓던 것을 지으며, 씨를 뿌리는 대신에 심고, 선별 안 하고 쓰던 종자를 잘 선별하여 쓰며 그대로 씨를 뿌리던 것을 물에 담갔다가 뿌리고

썩은 짚을 거름으로 주는 대신에 염기성 비료를 주는 등등에 의하여) 보다 비옥한 토지로 만들 수 있다면 증대된 소득이 증대된 노동을 능가할수록 임료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p.32). (여기에서 증대된 노동이라는 것은 증대된 "노동의 가격" 또는 임금을 의미한다).

5) 국가에 의한 화폐 가치의 인상(XIV 장).

6) 위에서 인용한 곳* : "만약 노동자에게 필요한 양의 2배를 준다면 그는… 절반 밖에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즉 만약 노동자가 6시간 노동하여 이 6시간 동안에 창조한 가치를 받는다면 그는, 그가 12시간 노동한 댓가로 6시간 동안에 창조된 가치를 받고 있는 현재의 2 배를 받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362* 6시간 밖에 일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의미한다" 운운.

* * *

페티, 『인류의 증식에 관한 논술』(1682년). 「분업」(pp.35~36).

* * *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1672년) 및 『현자에게 한마디』(1691년 런던 판).

1) "이것은 토지와 노동이라는 이 두 개 요인 중의 어느 하나만으로 임의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토지와 노동 간의 등식 관계와 균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를 이끌어 간다"(p.63).

본질상 이러한 문제 설정의 기초에는 다만 토지 자체의 가치를 노동에 귀착시키는 과업만이 놓여 있다.

‖ 1392 | 2) 이 저서는 위에서 고찰된 저서[115]보다 후에 집필되었다.

"가치의 일반적 척도는 성인이 하루의 노동이 아니라 하루 평균 식료이다. 이 척도는 순 은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며 항구적인 것이다…

---

* 이 책 p. 398을 보라.—역자.

그러므로 나는 아일랜드의 초가집의 가치를 그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소비한 매일의 식량의 수량에 의하여 규정하였다"(p.65). 이것은 순전히 중농주의적인 말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의 식량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양한 체격을 가진 100명의 사람에게 요구되며, 그들이 생활하며, 일하며, 번식할 수 있는 양의 1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64).

그러나 이 경우에 페티가 아일랜드의 통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가 아니라 화폐가 가치의 척도이라는 의미에서의 가치의 척도인 것이다.

3) 화폐의 양과 국민의 부(『현자에게 한 마디』 p.13).

4) 자본. "우리가 국민의 부, 자본 또는 저장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전의 즉 과거의 노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작용하는 산 힘과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p.9)

363 5) 노동 생산력. "우리는 주민의 절반이 극히 적은 양의 노동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왕국을 매우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여야 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적은 수의 사람들의 노동 지출로써 나라의 전체 주민의 식료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데 종사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노동의 긴장성을 높이거나 또는 노동을 단축하며 협하게 하는 수단을 적용하는 방도로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다처제에서 얻으려고 헛되게 기대하였던 그 결과와 다름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혼자서 5명 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가 4명의 성년 노동자를 낳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p.22). "식료는… 그것이 어디서보다도 적은 수의 일손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가장 값싸게 될 것이다"(p.23).

6) 인간의 목적과 사명(p.24).

7) 화폐에 관하여는 또한 『소론』(1682년)을 보라. ‖XXII－1399‖

[3.] 페티,서 더들리 노스, 로크

‖ X X Ⅱ－1397 ‖ 노스와 로크의 저작과 페티의 저서들『소론』(1682년),『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1662년) 및『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1672년)와는 비교는

1) 이자율의 저하 문제에서, 2) 국가에 의한 화폐 가치의 인상 및 인하 문제에서, 3) 노스가 이자를 "화폐의 임료"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등에서 노스와 로크가 페티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스와 로크는 자기의 저서들[116]을 같은 시기에, 같은 동기로, 즉 국가에 의한 화폐 가치의 인상과 이자율의 인하와 관련하여 집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대립적인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다. 로크에 의하면 유통 중에 있는 화폐의 부족이 높은 이자율이 원인이며 이 화폐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물건들이 그 현실적 가격 대로 팔리지 않으며 이 물건들의 매상고에서 얻어야 할 모든 소득을 가져 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노스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원인은 유통 중에 있는 화폐의 부족이 아니라 자본 또는 소득의 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에게서는 스토크(*stock**), 즉 자본에 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유통 수단으로서는 복무하지 않고 자본의 형태로서만 기능하는 화폐에 관한 일정한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더들리 노스에게서 우리는 로크의 관념과 대립되는 이자에 관한 최초의 옳은 개념을 보게 된다. ‖ X X Ⅱ－1397 ‖

* －저장, 펀드, 자본－편집자.

[4.] 로 크

[부르조아적 자연법 이론의 견지에서의 지대와 이자의 해석]

‖ X X −1291a | 만약 노동에 대한 로크의 일반적 견해를 이자 및 지대의 기원에 대한 그의 견해와 대비해 본다면—왜냐 하면 그에게는 잉여가치는 이러한 규정된 형태들로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잉여 가치는 타인의 노동, 잉여 노동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노동의 조건들인 토지와 자본은 이것을 취득할 가능성을 그 소유자들에게 준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조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로크에 의하면 사적 소유의 자연법적 기초에 모순되는‖ 1292a | 정치적 발명이다.

〈홉스에 있어서는 당장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연의 선물을 제외한다면 노동은 또한 온갖 부의 유일한 원천이다. 신(자연)은 "인류에게 필요한 물건을 무상으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노동과의 교환으로 판매한다"(「리바이어던」, [p.232]). 그러나 홉스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를 군주가 자기 주관에 의하여 분배한다〉.

로크의 저서 중에서 이와 관련된 곳들은 다음과 같다 :

"토지와 일체 저급한 창조물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재산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에 대해서는 그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우리는 그의 육체의 노동, 그리고 그의 손이 만들어 낸 것은 당연히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 의하여 창조되고 제공된 물건들에서 그가 끌어 낸 모든 것을 자기의 노동과 혼합하였으며 자기에게 속하는 것과 혼합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정부론』, 제2부, 제5장, 『저작집』, 제7판, 1768년, 제2권, p.229).

"인간의 노동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연—여기에서는 그것들이 공동의 소유였고 자연의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속하고 있었다—에서 얻었으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같은 책, p.230). "이와 같이 하여 우리에게 재산을 주는 동일한 자연 법칙이 또한 이 재산의 규모도 제한한다… 인간은 무엇이든 자기의 생활상 필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그것이 못쓰게 되기 전에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의 몫을 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같은 366
책).

"그러나 현재 소유의 주요 대상은 토지의 산물 등등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이다… 한 사람이 기경, 파종, 시비, 재배하며 그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면적의 토지는 그 사람의 소유로 된다. 인간은 말하자면 그것을 자신의 노동으로써 공동 재산에서 분리한다"(같은 책).

"보는 바와 같이 토지가 인간 노동에 종속되는 것 즉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전자는 후자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같은 책, p.231).

"자연은 인간의 노동과 그 생활상 편의의 도달된 규모에 따라 소유의 한도를 옳게 규정하였다. 누구도 모든 것을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즉 제것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만을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웃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시초에는 소유의 한도는 각각의 사람의 점유에 대하여 극히 적은 한계를 설정하였으며 그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정도에 그 점유를 제한하였다… 비록 세계에는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지만 아직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각자에게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pp.231~232).

노동은 물건에다 그것의 거의 모든 가치를 준다. 〈로크에게 있어서는 가치(value)는 사용 가치를 의미하며 그리고 노동은 구체적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의 양적 측면에서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에 의한 교환 가치의 측정은 사실상 노동자가 사용 가치를 창조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로크에 의하면 사용 가치 중에서 노동에 귀착시킬 수 없는 나머지는 자연의 선물이며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공동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소유가 또 노동 이외의 다른 방도에 의하여서도 획득될 수 있다는 명제—이것은 출발점으로 되고 있는 그의 견해와 모순된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물건들에 대한 공동 소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동이 어떻게 개인적 소유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사실상 바로 노동이 모든 물건의 가치상 차이를 조성한다… 인간 생활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99%는 전적으로 노동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p.234). "이와 같이 토지 가치의 대부분을 창조하는 것은 노동이다"(p.235).

"자연의 물건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의 인격, 그 행동, 그 노동의 점유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으로서의 인간은 자기 자체 내에 소유에 대한 위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같은 책).

이리하여 소유의 한계의 하나는 개인적 노동의 한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물건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유의 이 둘째 한계는 오래 견디지 못하는 생산물과 화폐와의 교환에 의하여(기타 교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확대된다.

"인간은 이러한 오래 견디는 물건들 중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축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의 합법적 소유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은" 〈만일 개인적 노동에 의하여 설정되는 한계를 도외시한다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일부가 그에게 아무
367 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 하고 못 쓰게 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견디는 물건인 화폐의 사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못 쓰게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으며 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실제로 유용하기는 하나 오래 견디지 못 하는 생존수단과 교환할 수 있는‖ 1293a | 것이다"(p.236).

개인적 소유의 불평등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적 노동에 의한 한도는 의연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적 소유자들 간에서의 물건 분배상의 이러한 불평등에다, 어떠한 특별한 협약도 없이 사회가 설정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규모를 부여하였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오직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

폐의 사용에 묵묵히 동의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p.237).

이것과 이자에 관한 로크의 저서[117]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곳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자연법이 개인적 노동을 소유의 한계로 되게 한다는 그의 견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화폐가 어떻게 해서 이자 또는 고리(高利)로 불리우는 일정한 연 소득을 가져 옴으로써 토지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되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자. 토지는 자연적으로, 새롭고 유익하며 인류에게 귀중한 것을 생산한다. 그런데[b]화폐는 열매 없는 것이며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화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수였던 이윤을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긴다. 이것은 화폐 분배상의 불평등에 의하여, 즉 토지 관계의 영역에서도 화폐 관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불평등에 의하여 야기된다… 만약 네가 경작할 수 있거나 경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다고 하면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 너는 너의 토지의 차지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 분배상의 불평등은… 나로 하여금 나의 화폐의 차용자를 가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토지가 너의 차지인의 노동의 덕택으로 그가 지불하는 지대를 이루는 것보다 많은 소출을 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나의 화폐는 차용자의 근면의 덕택으로 그의 기업에서 그를 위하여 6% 이상의 이자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로크 『저작집』, 2절판, 1740년, 제2권, [p.19])[119]

여기에서 로크는 얼마간 논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대가 고리대금업자들이 취득하는 이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생산 조건의 불균등한 분배의 결과 지대도 이자도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수였던 이윤을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긴다".

로크의 견해는, 그가 봉건 사회와 대립되는 부르조아 사회의 법률적 표상의 고전적 표현자이며 이 밖에 그의 철학은, 그이후의 모든 영국 정치 경제학의 모든 표상의 기초로 된 만큼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X X −1293a ‖

[5.] 노 스

[자본으로서의 화폐. 이자율 저하의 원인으로서의 상업의 성장]

‖ X X Ⅲ－1418 ‖ 서 더들리 노스. 『무역에 관한 강의』, 런던, 1691년(보충 노트 C)[119]

이 저서는 로크의 경제학적 저작들과 꼭 마찬가지로 페티의 저작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직접 입각하고 있다.

노스의 이 저서는 주로 상업 자본을 논술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노스는 자기가 고찰하는 문제의 범위 내에서는 기지와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찰즈 2세의 복고 이래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지대의 저하에 대한 지주 측의 불평 소리가 부단히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밀 가격이 특히 ? 년부터[120] 부단히 저하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에 상응하는 것이다) 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비록 (컴페퍼와 차일드 시대 이래) 산업 자본가 계급이 이 자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조치의 진정한 추동자는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토지의 가치"와 "이 가치의 증대 방법"은 전국적인 관심사로서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대략 1760년 이래 지대의 증대, 토지 가치의 인상, 곡물 기타 식료품 가격의 등귀와 또 이에 대한 산업 자본가들의 불평이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기초로 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1650년부터 1750년까지의 온 한 세기 동안은—약간의 예외는 있으나—금융업자들과 토지 소유자 간의 투쟁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호화롭게 살던 귀족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들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으며 또 17세기 말에 발생한 근대적인 신용 제도와 국채 제도가

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입법 등등의 영역에서 귀족들과 효과적으로 투쟁할 가능성을 준 것을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대하였던 것이다.

369 일찌기 페티는 지대의 저하에 대한 지주들의 불만과 농업개량을 반대하는 그들의 입장에 관하여 말한 바 있다(해당한 곳을 보라)[121]. 그는 지주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자를 옹호하고 있으며 화폐의 임료와 토지의 임료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로크는 이 두 가지 임료를 노동의 착취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는 페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양자는 이자의 강제적 조절을 반대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자가 저하되면 토지의 가치가 등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료의 크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임료의 자본화된 표현 즉 토지의 가치는 이자율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등락한다.

서 더들리 노스는 상기 저서에서, 페티를 시조로 하는 그 조류의 세째번 대표자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토지 소유에 대한 자본의 반항의 첫 형태이다. 사실상 고리대금업, 즉 토지 소유자의 소득의 일부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 넘어 가는 것은 자본 축적의 주요 수단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구식 자본 형태를 반대하여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은 토지 소유자와 많으나 적으나 서로 손을 맞잡고 나간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에 필요한 자본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상업에서 활용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일과 관련된 불안을 좋아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자본[*stock*]을 임대한다. 이에 있어서 그들이 얻는 것을 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득이 지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임료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페티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중세기적인 것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임료‖1419‖가 잉여 가치의 시초 형태로 생각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나라의 언어들에서는 "토지의 임차"와 "화폐의 임차"라는 말이 일반적 표현으로 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일련의 주들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자[*landlord*]이다 라는 것은 자본가[*stocklord*]이다 라는 것과 같다. 전자의 우월성은 그의 토지의 차지인이 토지를 가지고 달아날 수 없다는 데 있을 따름인데, 자본의 차용자는 용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대부되는 자본보다 이윤이 적어야 한다"(p.4).

이자. 노스는 처음으로 이자를 옳게 이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토크(*stock*)라는 말을 단순히 화폐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으로서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페티가 스토크와 화폐를 구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크는 이자의 수준을 전적으로, 유통 중에 있는 화폐량에 의하여 규정한다. 페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매시의 견해를 보라) :

"차용자보다 대부자가 더 많아지면 이자율은 저하될 것이다… 낮은 이자가 상업을 흥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자본이 이자의 수준을 저하시킬 것이다"(p.4).

"금, 은과 또 이것으로써 만드는 주화는 그것들이 없을 때보다 대단히 편리하게 상업이 진행되게 하는 척도이며 저울 추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자본의 잉여 분을 그러한 것들로써 저축하는 데 적합한 재화로 된다"(p.16).

370 가격과 화폐. 가격은 화폐로써 표현된, 그리고—판매가 문제인 경우에는—화폐로써 실현된 상품의 등가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품은 가격에 있어서, 후에 다시 사용가치로 전화하기 위한 교환 가치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금과 은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직 상품 자체의 교환가치의 존재 형태로서, 그것들의 형태 변화의 계기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경제 사상의 첫 발자국의 하나였다. 노스는 이것을 당시로서는 매우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

"화폐는… 매매를 위한 일반적 척도로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판매할 것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의 상품을 구매하여 줄 상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원인이 왕국에 화폐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화폐가 부족하다는 불평소리가 울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화폐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거지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폐가 아니라 빵과 기타 생활 필수품들이다… 차지 농업가도 화폐가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그는 만약 나라에 화폐가 더 있다면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폐가 아니라 팔려고는 하나 팔리지 않는 자기의 곡물과 가축에 대한 좋은 값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는 그것들에 대하여 좋은 값을 받을 수 없는가?

1) 나라에 곡물과 가축이 지나치게 많아서 시장에 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산물들을 팔려고 하나 그것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2) 무역이 상당히 위험하거나 금지되는 전시에 그러한 바와 같이 외국으로의 그러한 생산물의 보통의 판매, 그것들의 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3) 사람들이 빈궁으로 하여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이전보다 적게 지출함으로써 소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 농업가의 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자면 주화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의 감퇴를 일으키는 상기한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상인이나 소매상인이 화폐를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의미에서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거래하는 상품을 팔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pp.11~12)[122].

그리고 또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인데, 퇴장 화폐의 형성에 있어서는 교환 가치의 결정화(結晶化)된 형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전 정치 경제학의 최초의 발전의 하나는 그것이 퇴장 화폐의 형성과 화폐의 자기 증식 간의 대립성을 고찰한 데 있다. 즉 화폐를 자본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화폐, 금 은 제품 등등의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가난해진다. 증식 상태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인데, 그 재산은 임대한 토지거나 또는 이자를 붙여 대부된 화폐거나 또는 상업에 투하된 상품일 것이다"(p.11).

〈이에 관하여 존 벨러즈는 자기의 저서 『빈민, 제조업, 상업, 식민지 및 비도덕 등등에 관한 논술』(런던, 1699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화폐는 사람의 수중에서 떠나는 경우에 비로소 증식되며 이익을 371
가져 온다. 그리고 화폐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화폐를 어떤 보다 귀중한 것과의 교환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상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모든 화폐량은 왕국이나 국민에게 있어서 죽은 자본이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는 아무런 이윤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p.13)〉.

"모든 사람이 그것"(화폐) "을 가지려고 원하지만 그러나 아무도—또는 극히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그것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사장되어 있는 모든 화폐로부터는 이윤은 고사하고 틀림없이 손실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체 없이 처분하려고 애쓴다"(노스, 같은 책, p.21).

‖ 1420 ‖ 세계 화폐로서의 화폐. "무역에 관하여 말한다면 모든 나라는 세계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 내에서의 한 도시, 도시 내에서의 한 가정과 동일한 처지에 있다"(p.14). "이러한 교역 관계에 있어서 금과 은은 다른 상품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금과 은은 그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유리되어 그것들이 부족되거나 그것들을 요구하는 나라들로 옮겨진다"(p.13).

유통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은 상품 교환에 의하여 규정된다. "외국으로부터 얼마만한 화폐가 제공되든 또 국내에서 얼마만한 화폐를 주조하든 간에 그 국민의 상업적 수요를 초과하는 모든 화폐는 단순한 귀금속에 불과하며 다만 그러한 것으로서만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주조된 화폐는 고물로 된 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다만 그 금속 내용에 의해서만 판매될 것이다"(pp.17~18).

화폐의 귀금속 덩어리로의 전화 및 귀금속 덩어리의 화폐로의 전화(p.18) (보충 노트 C, p.13). 화폐의 평가와 계량. 동요적 운동(보충노트 C, p.14)[123].

고리 대금업, 토지 소유자 및 상업 : "우리 나라에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교부하는 화폐 중에서 아마 10분의 1도, 그 대부를 자기의 기업에 이용하는 상인들 사이에 배당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경우에 화폐는 사치를 위하여, 즉 큰 토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토지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들어 오기 전에 그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 또 자기의 토지 재산을 팔아서 쓰려고는 하지 않고 그것을 저당 잡히는 편을 택하는 사람의 지출을 지탱하기 위하여 대부된다"(노스, 같은 책, pp.6~7). ‖ X X Ⅲ - 1420 ‖

[6. 부의 원천으로서의 노동 활동에 관한 버클리의 견해]

‖ XIII-670a | "토지 그 자체가 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의 노동 활동을, 부를 형성하며 또 만약 토지와 은이 노동활동에 대한 수단과 자극으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그것들까지도 부로 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말인가?"(「질문자」, G, 버클리 박사, 런던, 1750년, 「질문 38」). | XIII-670a ‖

[7.] 흄과 매시

[a. 이자 문제에 관한 매시와 흄의 견해]

‖ X X −1293a ‖매시의 익명 저서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은 1750년에 출판되었으며 「이자에 관하여」라는 논설이 수록되어 있는 흄의 『논설집』의 제2부는 1752년, 즉 2년 후에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우선권은 매시에게 있다. 흄은 로크를 반대하고 있는데, 매시는, 아직도 이자율의 높이는 유통 중에 있는 화폐량에 의존하며 사실상 대차의 진정한 대상은 화폐(자본이 아니라)라는 견해에 매달리고 있던 페티와 로크를 반대하고 있다.

매시는 흄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이자는 다만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명하고 있다. 흄은 주로, 화폐의 가치는 이자율의 높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자와 화폐 자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예컨대 6 %인 경우에는) 6파운드 스털링은 가치상으로 1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의 등락에 따라(즉 1파운드 스털링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 등락하지만 이 경우에 6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비율 자체는 그 때문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b. 흄. 상업 및 공업의 발전에 따르는 이윤 및 이자의 저하]

흄으로부터 시작하자.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노동으로써 구매된다"(『논설집』, 제1권, 제2부, 런던 1764년 [「상업에 관하여」] p.289).

흄에 의하면 이자율의 높이는 차용자 측의 수요와 대부자 측의 공급에, 즉 수요와 공급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높이에 의존한다(같은 책 [「이자에 관하여」], p.329). "노동 및 상품의 저장량 여하는 이자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 374
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화폐를 이자를 붙여 차용하는 경우에 사실상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과 상품을 차용하게 되기 때문이다"(같은 책, p.337). "아무도 그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낮은 이윤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 아무도 높은 이윤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낮은 이자에 만족하지 않는다"(같은 책, p.335).

높은 이자나 높은 이윤은 다 같이 "상업 및 공업 발전의 미약성의" 표현이지 "금과 은의 부족의" 표현은 "아니다. 낮은 이자는 그 반대다" (p.329).

‖ 1294a ‖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또는 흄이 나중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와 농민들") "만이 있는 국가에서는 언제나 차용자가 많고 이자율은 높지 않을 수 없다"(p.330). 왜냐 하면 부를 향락하기만 하는 자들은 심심풀이로 쾌락을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농업 이외의 생산은 그 규모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업이 발전하기만 하면 그와는 반대로 된다. 상인은 전적으로 치부욕에 사로잡혀 있다. 상인에게는 "자기의 재산이 나날이 늘어 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은 없다" (이 경우에 사용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교환가치, 추상적 부에 대한 추구가 더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상업이 절약을 촉진하게 되는 원인이며,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서는 낭비자가 인색한 자보다 우세를 차지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상인들 가운데서는 인색한 자가 낭비자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다"(p.333).

〈비생산적 노동 : "변호사와 의사는 아무런 생산적 활동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직 남을 희생으로 하여서만 자기의 부를 획득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자기의 어느 동포의 재산을 반드시 축소시킨다"(pp.333~334)〉.

"따라서 상업의 발전은 대부자의 수를 증대시키며 이 때문에 이자율의 저하를 초래한다"(p.334).

"상업에서의 낮은 이자와 낮은 이윤—이 양자는 상호 작용한다. 양자는 다 부유한 상인을 조성하며 화폐 소유자의 수를 증대시키는 상업의 발전에서 발생한다. 상인들이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이 자본이 대표하는 주화량 여하에는 관계 없이—상인들이 장사에 지치거나 또는 그 상속자들이 장사할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자본의 대부

분이 자연 확실한 연 소득을 찾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공급이 크면 가격이 하락되며, 대부자는 낮은 이자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본을 상업에 그대로 두게 하며 자기의 화폐를 이윤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낮은 이윤으로 만족하도록 자극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업이 현저하게 발전하여 아주 큰 자본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상인들 간
375 의 경쟁이 발생하며 이 경쟁은 상업 이윤을 감소시키나 그러나 동시에 상업 자체의 규모는 확대된다. 상업에서의 이윤의 감소는 상인들로 하여금 상업을 그만 두고 무위도식하는 생활로 들어 가게 될 때에 즐겨 낮은 이자에 만족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낮은 이자 또는 낮은 이윤—가운데서 어느 것이 원인이며 어느 것이 결과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 양자는 발전된 상업에서 발생하며 상호 작용한다

발전된 상업은 대자본을 조성함으로써 이자와 이윤을 다 같이 저하시키며, 그리고 발전된 상업이 한편을 저하시키면 언제나 이에 상응한 다른 한편의 저하가 그 저하를 촉진시킨다. 낮은 이윤이 상업과 공업의 발전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낮은 이윤은, 이번에는 상업을 값싸게 하며 소비를 증대시키며 공업을 자극함으로써 상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나는 부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자는 국가의 상태를 표시하는 진정하는 바로미터이며 낮은 이자율은 인민의 번영을 표시하는 거의 틀림 없는 표징으로 된다"(같은 책, pp. 334~336).

[c. 매시. 이윤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자. 이윤의 수준에 의한 이자의 높이의 설명]

[*J.* 매시.] 익명 저작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서 윌리암 페티와 로크 씨의 의견의 고찰』 런던, 1750년.

"상술한 발췌문들[124]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로크 씨는 자연적 이자율은 한 나라에 있는 화폐량과, 한편으로는 그 나라 주민들 상호 간의 채무와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상업과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 윌리암 페티는 이 이자율이 국내에 있는 화폐량에만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채무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서만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pp.14~15) | X X — 1294a

II.

‖ X X I −1300 ‖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화폐를 스스로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함으로써 그들이 그 화폐에서 이윤을 끌어 내며 그 이윤의 일부를 화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 나라의 부가 다수 사람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상업에 화폐를 투하하여 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에는 화폐의 차용이 크게 보급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만약 2,000파운드 스털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금액을 열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10개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화폐를 대부할 수 없는 것이다."(pp.23~24).

"자연적 이자율을, 정부가 대부 받은 화폐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로부터 출발하여 규정하려는 온갖 시도는 불가피하게 실패하게 된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이자율과 자연적 이자율 간에는 일치도 적응도 있을 수 없으며, 이성은 결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왜냐 하면 자연적 이자율은 그 근거를 이윤에 두고 있는데 국채 이자의 높이는 필요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에는 한계가 있으나 필요에는 한계가 없다. 자기 토지를 개량하려고 화폐를 대부 받는 귀족과 자기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는 상인이나 산업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넘어 설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만약 그들이 대부 받은 화폐로써 1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376*
그들은 대부하여 준 댓가로 대부자에게 5%의 이자는 교부할 수 있지만 10%를 그에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필요에 의하여 차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의 필요의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이 필요는 어떠한 기준에도 구속되지 않는다"(pp.31~32)

"이자 취득의 근거는 차용자가 차용한 화폐에서 실지로 이윤을 얻는가 하는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가 옳게 적용된다면 이윤을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데 의존한다"(p.49). "만약 차용자가 차용한 화폐에 대한 이자로서 지불하는 것이 그 차용한 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이윤의 한 부분 이라면 이자의 수준은 항상 이 이윤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p.49).

"이 이윤의 얼마만한 부분이 차용자에게 속하며 또 얼마만한 부분이

대부자에게 속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받는 사람과 대부하는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옳고 그른 것의 규정은 오직 사람들간의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p. 49).

"그러나 이 이윤 분할의 준칙은 모든 대부자와 차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부자와 차용자 일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아주 많거나 또는 아주 적은 이윤은 경영능력에 대한 보수이거나 예견성이 없는 일에 대한 대가인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자들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대부자들은 그와 같은 예견성이 없는 데로부터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경영능력으로부터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일한 상공업 부문의 개별적 사람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개별적 상공업 부문에도 타당한 것이다"(p.50).

"자연적 이자율은 상공업 기업들의 이윤에 의하여 규정된다"(p.51).

어째서 영국에서는 이자율이 이전에는 8%이던 것이 지금은 4%인가? 그것은 당시 영국 상인들은 "지금보다 2배나 되는 이윤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자율이 화란에서는 3%,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서는 5내지 6%, 서인도와 동인도에서는 9%, 터어키에서는 12%인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하나의 일반적 대답을 주면 충분하다. 그것은 이 다양한 나라들에서의 상업 이윤이 우리 나라에서의 그것과 다르며 그것도 그 차이가 이자율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심하기 때문이다"(p.51).

그러면 이윤의 저하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대외 경쟁과 국내 경쟁에 기인한다 : "대외 무역이 감퇴하거나"(외국의 경쟁의 결과에) "또는 상인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가면서 자기 상품의 가격을 더욱 더 낮추는 데 기인한다… 그것은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또한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이 될수록 더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pp.52~53).

"상업 이윤은 일반적으로 상인의 수와 상업의 규모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p.55).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화란에서는 "… 이자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관계가 가장 심한 터어키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높다(pp.55~56).

377 ‖ 1301 ‖ "상업의 규모와 상인의 수 간의 상호 관계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

되는가?"(p.57). 그것은 "상업에 대한 자극." 즉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성, 자유, 사람들의 사적 권리의 준수, 보호, 사회적 안전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p.58).

"두 나라가 똑같은 수의 생활 필수품을 똑 같이 풍부하게 그리고 그 생산에 똑 같은 노동량을 지출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사람의 욕망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가 추운가, 온화한가에 따라서 증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업의 규모는 다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차이의 정도는 기후가 따뜻한가 또는 추운가 하는 그 정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이로부터 일정한 수의 주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량은 기후가 추운 데서 제일 많고 기후가 더운 데서 제일 적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 하면 추운 나라에서는 더운 나라에 비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복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더 많이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p.59).

"화란에는 상업을 발전시켜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인구 과잉에서 나온다. 제방의 구축 및 배수공사에 많은 노동을 지출하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화란에서 상업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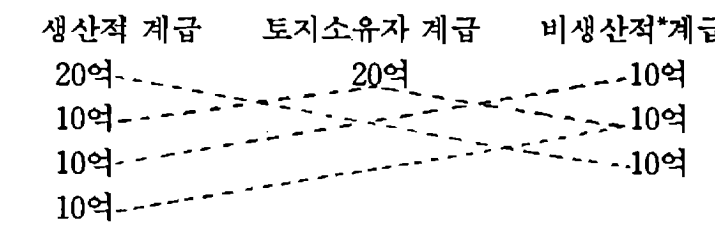
[d. 결　　론]

매시는 홈보다도 더욱 확정적으로 이자를 이윤의 일부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양자는 다 같이 이자율의 저하를 자본의 축적(매시는 특히 경쟁에 언급하고 있다)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의 저하로써 설명하고 있다. 양자는 "상업 이윤" 자체의 원천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얼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XXI-1301 ||.

[8.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장들에 대한 보충]

[a.『경제표』에 관한 보충적 지적, 케네의 그릇된 제 전제]

‖ X X Ⅲ－1433 ‖



이것은『경제표』[125]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1) 화폐유통(1년에 한번만 지불되는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다). 화폐 유통의 출발점은 지출하는 계급, 즉 판매할 상품은 전혀 없으며 판매는 하지 않고 구매하는 토지 소유자 계급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생산적 계급에게서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적 계급이 자기들에게 지대로서 지불한 10억의 화폐를 생산적 계급에게 반환한다(그리하여 농산물의 1/5이 실현된다). 토지 소유자들은 비생산적 계급에게서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한다. 그리하여 10억의 화폐가 비생산적 계급에게로 흘러 간다(이와 함께 공업 생산물의 1/2이 실현된다). 비생산적 계급은 이 10억으로 생산적 계급에게서 식료품을 구
379 매하는데, 그리하여 또 10억의 화폐가 다시 생산적 계급에게로 돌아 온다(그리하여 농산물의 두 번째 1/5이 실현된다). 생산적 계급은 이 10억의 화폐를 가지고 10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공업 제품을 구매하며 그리하여

---

* 원문 stériles–열매없는–역자.

자기의 "선대"의 절반을 보상한다(이와 함께 공업 생산물의 두 번째 ½이 실현된다). 비생산적 계급은‖ 1434 | 이 10억의 화폐로 원료를 구입한다(그리하여 또 농산물의 1/5이 실현된다). 그리하여 20억의 화폐가 생산자 계급에게로 되돌아 간다.

따라서 농산물의 2/5가 아직 남아 있다. 1/5은 현물로 소비된다. 그 다음의 1/5의 축적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가? 이것은 앞으로 해명하여야 한다[126].

2) 비생산적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사실상 고용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케네 자신의 견지에서조차도 이미 전제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표』에서 알 수 있다.

생산적 계급에게서는 "시초 선대"(고정 자본)가 "연 선대"를 5배로 초과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비생산적 계급에게서는 이 항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또 재생산이 50억과 동등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70억과 동등하다. 즉 생산적 계급 측에 50억, 비생산적 계급 측에 20억이다.

[b. 개별적 중농주의자들의 중상주의적 견해에로의 부분적 복귀. 경쟁의 자유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요구]

비생산적 계급의 생산물은 20억과 동등하다. 이 생산물은 10억의 원재료(이 원재료의 일부분은 생산물에 포함되고 일부분은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간 기계의 마멸분을 보상한다)와 이 원료를 가공할 때 소비된 10억의 식료품을 합한 것이다.

비생산적 계급은 이 모든 생산물을, 첫째로 "선대"(원료로서의)를 보상하며 둘째로 농업적 생존수단을 얻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계급과 생산적 계급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비생산적 계급에게는 자신의 소비를 위한 공업 제품은 조금도 남지 않으며 또한 이자나 이윤에 관하여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보도(또는 르 트론느)는 이것을 알아 차리고 비생산적 계급은 자기의 생산물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가 20억을 받고 파는 것은 20억 빼기 x와 동등하다는 것으로써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명에 의하면 이윤과 그리고 이 계급 자체가 그의 생활 필수품의 일부로 되는 공업 제품으로 소비하는 것까지도 이 계

급이 자기 상품의 가격을 그 가치 이상으로 높이는 데 귀착될 뿐이라는 것이
380 다[127]. 따라서 중농주의자들은 불가피하게 중상주의적 견해로 즉 "양도 이윤"의 개념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업가들 간의 자유 경쟁은 이들이 생산적 계급인 농업가들을 지나치게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자유 경쟁은 농산물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하기 위하여, 즉 밀 등등을 수출하는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가격이 그 대외 수출로 말미암아 국내 가격 이상으로 등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c. 교환에서는 가치가 증대될 수 없다는 데 대한 최초의 정식화]

"모든 구매는 판매이며 모든 판매는 구매이다."(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한 대화』, 데르 판[128], p.170) "구매한다는 것은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한다는 것은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듀퐁 드 네무르의 『기원』에서의 케네의 인용, p.392)[129].

"가격은 언제나 구매와 판매에 선행한다.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경쟁이 어떠한 변동도 가져 오지 않는다면 가격은 상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p.148)[130].

"그것"(교환) "은 쌍방"(계약 당사자들) "에 다 유익한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쌍방은 그들이 오직 교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를 이용할 가능성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일정한 가치를 가진 부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다른 부와의 교환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의 아무런 현실적 증가도 있을 수 없다" (가치의 아무런 현실적 증가가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책 p.197)[131].

"선대"와 "자본"은 명확히 동일시되고 있다. 주요 조건으로서의 자본의 축적. "그리하여 자본의 증대는 노동의 증대의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온다" 운운(듀퐁의 저서에서의 케네의 인용, 같은 책, p.391)[132]. IX X III-1434II

[9. 중농주의자들의 아류인 듀 뷰아 백작의 토지 귀족에 대한 찬양]

‖ X X Ⅱ −1399 ‖ 뷰아(백작) 『정치의 제 요소, 또는 사회 경제의 진정한 제 원리의 연구』(6권), 런던 1773년.

그는 중농주의의 외관을 그것의 본질로 보며 토지 귀족을 백방으로 찬미하는—그가 중농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미약하고 수다스러운 필자이다. 만약 그가 난폭한 부르조아적 성격을, 예컨대 나중에 리카르도에게서 처럼 날카롭게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이 저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순 생산물"이 지대에만 국한된다는 그릇된 견해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듀 뷰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 후 리카르도는 "순 생산물" 일반과 관련하여 되풀이하고 있다[133]. 노동자는 비생산적 비용*에 속하며 그들은 오직, "순 생산물"의 소유자들이 "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해당 부분을 보라)[134]. 그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노예 제도의 변화된 형태로서만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는 그의 견해에 의하면 상류층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서 영도 역시 "'순 생산물" 즉 잉여 가치를 생산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135].

‖ 1400 ‖ 이와 관련하여 리카르도가 스미스와 논쟁하면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자본이라고 한 부분을 상기할 수 있다[136]. 뷰아의 저서, 제6권, pp.52~52, pp.68~70를 참조하라. 그리고 또 노동 계급과 노예 제도에 관하여서는 제2권, p.288, 297, 309, 제3권, p.74, pp.95~96, 103, 제6권, p.43, 51를 참조하라. 그리고 이 노동자

*p. 181의 각주를 보라—편집자.

들이 잉여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안 된다는 것과 또한 "가장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제6권, pp.52~53를 참조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한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이 당한다고 하는 모험 운운의 공담에 대한 괜찮은 반박이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상인들은) "많이 벌기 위하여 많은 모험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나 상품과 화폐로써 모험을 하였다. 만약 그들이 치부를 위하여 사람들을 명백한 위험에 빠뜨렸다면 그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상품에 관하여 말한다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이 어떠한 한 사람의 치부를 위하여 모험에 이용된다는 것은 아무런 공헌으로도 될 수 없다" 운운(제2권, p.297).
| X X II −1400 ||

[10. 중농주의의 견지에서 토지 귀족을 반대하는 논쟁(영국의 한 익명 저자)[137]]

‖ X X Ⅲ－1449 ‖ 『제 국민의 부의 기본 원리. 박사 아담 스미스와 기타의 약간의 그릇된 학설을 반대하여』, 런던, 1797년.

이 저서의 저자는 앤더슨의 저서를 알고 있었다. 왜냐 하면 그는 자기 저서의 부록에서 아버딘 지방에 관한 앤더슨의 농업 보고의 단편들을 전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에 직접 가담하고 있는 영국의 유일하게 저명한 저서이다. 윌리엄 스펜스의 저서 『상업에 의존하지 않는 영국』(1807년)은 하나의 만화에 불과하다. 바로 이 스펜스가 1814～1815년에는…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중농주의학설에 기초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의 가장 열광적인 옹호자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 풋내기를 사적 토지 소유에 대한 불구대천의 원수인 토마스 스펜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저서 『기본 원리』는 우선 중농주의 학설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저자는 정당하게도 중농주의의 근원을 로크와 반덜린트의 견해에서 찾고 있다. 그는 중농주의자들을 "비록 완전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극히 체계적으로", 자기의 학설을 "발전시킨" 저자들로서 묘사하고 있다.(p.4). 이에 대해서는 또한 6페이지를 보라(노트 *H*. p.32～33에 있는 발췌)[138].

중농주의 학설에 대한 이 익명 저자의 요약은, 후기의 변호론자들, 부분적으로는 이미 스미스까지도 자본 형성의 기초로서 묘사하고 있는 그 절제론이 공업 등등에서는 아무런 잉여 가치도 창조되지 않는다는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서 직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수공업자, 매뉴팩처리스트[139] 및 상인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 가는 지출은 결과적으로는 지출된 금액의 가치를 보존할 뿐이며 따라서 비생산

적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공업자, 매뉴팩쳐리스트 및 상인들은 그들의 매일의 유지에 예정된 것의 일부분을
383 절약하여 축적하는 이외에는 사회의 부를 조금도 증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절제와 절약에 의해서만" (시니어의 절제론, 아담 스미스의 절약론) "그들은 총 자본에 무엇인가를 첨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의 소득 전부를 소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활동은 지대라고 불리우는 잉여 생산물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p.6).

"노동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 노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보다 더는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급은 극히 공정하게 말하여 비생산적 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p.10).

잉여 가치의 생산은 그것의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의 이전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소득의 증대"(즉 축적) "는 간접적으로만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된다[140]… 그들의 연구 대상은 소득의 생산과 재생산이다"(p.18). 바로 여기에 중농주의자들의 커다란 공로가 있다.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 (익명 저자의 저서에서는 잉여 가치가 "소득"으로 불리우고 있다)가 어떻게 생산되며 재생되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이 잉여 가치가 보다 큰 규모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즉 그것이 어떻게 증대되는가 하는 문제는 제2차적으로만 발생한다. 우선 잉여 가치라는 범주를 해명하며, ‖ 1450 ‖ 그 생산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잉여 가치와 상업 자본. "소득의 생산이 문제인 경우에 이 문제를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의 소득의 이전—모든 상업거래가 여기에 귀착된다—문제로 대치한다는 것은 전혀 비논리적이다"(p.22). 상업"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바로 상품 교환"*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 교환이 한편에 비하여 다른 편에게 더 유리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한편이 얻는 것을 타방은 잃으며 그들 간의 상업 거래는 사실상 부를 조금도 증대시키지 않는다 (p.23). "만약 어떤 유태인이 1크라운 금화를 10실링으로, 또는 앤 여왕 시대의 1파싱 동전을 1기니로[141] 판매한다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자기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것으로써 귀금속의 현존량을 증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거래의 본성은 골동품을 애호하는 구매자가 옛날 돈의 판매자와 같은 거리에 살고 있건 프랑스나 중국에 살고 있건, 이에는 관계 없이 동일할 것이다"(p.23).

중농주의자들은 산업 이윤을 "양도 이윤"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산업 이윤이 중상주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영국인은 공업 상품이 외국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만 그 이윤은 현실적인 이윤으로 된다는 옳은 결론을 짓고 있다. 그는 중상주의적 전제로부터 옳은 중상주의적 결론을 짓고 있다.

"어느 한 제조업자도 만약 그의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소비된다면 그 자신은 부유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소득에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의 상품의 구매자는… 그 제조업자가 얻는 그만큼을 잃기 때문이다… 여기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교환이 진행되지만 부는 증가되지 않는다"(p.26). "잉여의 결여를 메우기 위하여… 기업주는 384
자기의 임금비에 50%의 이윤을, 즉 그가 매뉴팩쳐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하여 1실링당 6페니를 첨가한다… 만약 상품이 외국으로 판매된다면" 이것은 일정한 수의 "수공업자들에게서 나오는 국민 이윤으로 될 것이다"(p.27).

저자는 화란의 부의 원인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업(축산업에 대하여도 역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동방 향료의 독점. 수송업. 외국인들에 대한 금융(보충 노트 *H*, pp.36~37)[142].

제조업자들은 "필요한 계급"이지만 "생산적 계급"은 아니라고 저자는 쓰고 있다(같은 책, p.35). 그들은 "농민이 미리 얻어낸 소득의 교체 또는 이전만을 일으키며 또 약간의 새로운 형태로 이 소득에 내구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한다"(p.38).

다음과 같은 4개의 필요한 계급이 존재할 뿐이다. 1) 생산적 계급 즉 농민, 2) 제조업자들, 3) 국가의 방위자들, 4) "교원 계급". 이 교원 계급을 그는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보는 "10분의 1세 수령자", 즉 승려 대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온갖 시민 사회는 식량, 의복, 방위 및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pp.50~51).

"경제학자들"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 "그들은 단순한 임료 수령자에 불과한 지대 수령자를 사회의 생산적 계급으로 간주하였다… 교회와 국왕은 토지 소유자가 얻는 지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어느 정도 시정하였다. 스미스 박사에게서는 그것이"(상술한 "경제학자들"의 오류) "그의 저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이것은 옳다) "자기의 비판을 바로 경제학자들의 학설의 건전한 부분을 반대하는 데 돌리고 있다"(p.8).

‖ 1451 ‖ 토지 소유자들은 그 자체로서는 생산적 계급이 아닐 뿐만 아

니라 심지어 사회의 필요한 계급도 아니다. "단순한 지대 수령자로서의 토지 소유자는 사회의 필요한 계급을 이루지 못한다… 지대가 자체의 본래의 목적 즉 국가의 방위에 복무한다는 목적에서 이탈되고 있으니 만큼 이 지대의 수령자는 필요한 계급이기는커녕 사회에 가장 불필요하고 부담으로 되는 계급의 하나이다"(p.51).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보충 노트*H*, pp. 38~39[143]를 보라. 이 모든 것은 매우 훌륭하며 그리고 중농주의적 견지에서 지대 수령자를 반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이 논쟁은 중농주의 학설의 완성으로서 극히 중요하다.

저자는 현실적인 지세(地稅)는 터어키인에게서 특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p.59).

385 토지 소유자는 비단 현존하는 "토지 개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왕왕 "미래의 개량에 관한 예상"에 대해서도 과세한다(pp.63~64). 지대에 대한 세금(p.65).

과세 면에서는 중농주의 학설은 옛날 잉글랜드, 아일랜드, 봉건적 유럽, 무굴 제국에서 실행되었다(pp.93~94).

과세자로서의 토지 소유자(p.118).

중농주의적 제한성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분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가령 어떤 시계 제조업자나 화포(花布) 제조업자가 자기의 시계나 화포를 팔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제조업자는 오직 판매자이기 때문에 치부하게 된다는 것"(사실상 이것은 그가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과 그리고 그가 판매자가 아니게 되자 곧 그의 이윤은 정지한다는 것"(그러면 판매자가 아닌 차지 농업가의 이윤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 이윤은 자연적 이윤이 아니라 인공적 이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은…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며 크게 성공하며 자기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pp.38~39).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는 동시에 제조업자이어야 한다).

어째서 저자는 다만 시계 제조업자나 화포 제조업자에 관하여서만 말하고 있는가?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석탄, 철, 아마, 인디고 등등의 생산자들도 그 생산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심지어 밀 생산자도 자기의 밀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상술한 베아르데드 라베이가 매우 훌륭하게 말하고 있다[141]. 익명 저자는 상품 생산보다 직접적 소비를 위한 생산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오히려 교

환 가치가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심히 모순된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기는 이 친구에게도 뚜렷하다. 사물에 대한 전(前) 부르조아적 사고 방식의 테두리 내에서의 부르조아적 견해[145].

이 익명 저자는, 높은 가격은 농업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아서 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에 대한 이러한 반박은 동시에 중농주의를 반대하는 논쟁이기도 하다(같은 책, pp.65~78 및 118).

잉여 가치는 판매자가 가격을 명목상 높이는 것으로써만 얻어 낼 수 없다. "생산물의 명목상 가치의 증대는… 판매자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자로서 얻는 모든 것을 그들은 구매자로서 상실하기 때문이다"(p.66).

다음 부분은 반덜린트의 정신에서 집필되고 있다. : "모든 실업자를 위 *386*
하여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발견될 수 있는 한에서는 한 사람의 실업자도 토지 없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장도 좋은 것이지만 전답은 훨씬 더 좋다"(p.47).

익명 저자는 일반적으로 임차 제도를 반대하면서도 단기 임차—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생산을 방해하며 토양의 개량을 방해할 따름이다—보다는 장기 임차가 낫다고 인정하고 있다.(pp.118~123). (아일랜드의 차지권)[146] ⅩⅩⅢ—1451 ‖

[11. 모든 직업의 생산성에 관한 변호론적 견해]

‖V-182‖ 철학자, 시인, 목사, 교수 등등은 각각 사상, 시, 설교, 강의안 등등을 생산한다. 범죄자는 범죄를 생산한다. 만약 이 후자의 생산부문과 사회 전체와의 연관을 자세히 고찰한다면 우리는 많은 편견에서 벗어 나게 될 것이다. 범죄자는 범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형법을 생산하며 따라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도 생산하며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강의안—이것은 바로 그 교수가 자기의 강의를 "상품"으로서 일반 상품시장에 내놓는 형태이다—을 생산한다. 이리하여 국부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권위있는 증인인 교수 로세르 씨의 말 대로 그 강의안의 원고가 그 필자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개인적 향락은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범죄자는 경찰, 형사 재판소, 형사, 판사, 교도관, 배심원 등등을 생산하며 각각 사회적 분업의 일정한 범주인 이 모든 다양한 직업들은 인간 정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다. 고문 한 가지만 들어 보더라도 그것은 매우 기묘한 기계의 발명에 자극을 주었으며 고문도구를 생산하는 존경할 만한 수 많은 수공업자들에게 일감을 보장하였다.

범죄자는 정황에 따라 때로는 도덕적 교화적 인상을, 때로는 비극적인 인상을 생산하며, 그리하여 공중의 도덕적 감정이나 미학적 감정을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봉사"를 한다. 그는 형법 강의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 형법전을, 따라서 이 영역의 입법자들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술을, 소설과 비극 작품과 같은 문헌 서적을 생산한다. 예컨대 뮐너의 『죄』와 쉴러의 『강도』 뿐만 아니라 『외디푸스』, 『리쳐드 3세』는 이것을 입증한다. 범죄자는 부르조아적 생활의 단조로움과 평온무사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그는 부르조아적 생활이 침체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그 불안한 긴장과 민활성을 낳는데, 이것이 없이는 경쟁의 예 388
봉까지도 무디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생산력에 자극을 준다. 범죄는 노동 시장에서 과잉 인구의 일부를 해방시키며 그리하여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약화시킴으로써 임금이 최저 한도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며 동시에 범죄를 반대하는 투쟁은 과잉 인구의 다른 약간의 부분을 흡수한다. 이와 같이 범죄자는, 적당한 수준을 설정하며 "유용한" 직업 부문들에 활로를 열어 주는 자연적 "균형화"의 하나를 실현한다.

범죄자가 생산력 발전에 주는 영향은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둑 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자물쇠가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만약 화폐 위조자가 없었더라면 ‖183‖ 은행권의 제조가 오늘과 같이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상업에 사기 행위가 없었더라면 보통의 상업분야에 현미경이 침투할 수 있었겠는가(배베이지를 보라)? 응용 화학이 성과를 거둔 것은 정직한 생산자들의 열의에 못지 않게 상품의 위조와 그것을 적발하려는 노력의 덕택이 아니겠는가? 범죄는 소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부단히 발명함으로써 소유를 방위하는 새로운 수단들이 부단히 나타나게 하며 그럼으로써 파업이 기계의 발명을 자극하듯이 생산을 자극한다. 그리고—사적 범죄의 분야를 떠나서 본다면—국민적 범죄없이 세계 시장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없이 민족자체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아담 아래 죄악의 나무는 동시에 지혜의 나무이기도 하지 않는가?

벌써 맨더빌은 자기의 『꿀벌 이야기』(1705)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직종 등등의 생산성을 논증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모든 논의의 일반적 경향을 벌써 그에게서 볼 수 있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나 다 같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되게 하는 위대한 원리이며, 예외 없이 온갖 직종과 직업의 확고한 기초이며 생명력이며 지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원천을 찾아 내야 한다. 그리고 악이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 때에는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맨더빌은 물론 부르조아 사회의 속물 근성으로 일관된 변호론자들보다 훨씬 대담하고 정직했을 뿐이다. ‖V—183‖

[12. 자본의 생산성. 생산성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a.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표현으로서의 자본의 생산성]

‖ XX-1317 | 우리는 자본이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 그 자체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또 본질적으로 변화된 관계로서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147]. 한편으로 자본은 생산 방식을 변형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방식의 이러한 변형과, 물질적 생산력 발전에서의 이러한 특수한 단계는 자본 자체의 기초와 조건으로 되며 자본 자체의 형성의 전제로 된다.

산 노동은—자본과 노동자 간의 교환의 결과로—자본의 한 구성 부분으로 전화되어 노동 과정의 첫 순간부터 자본에 속하는 활동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노동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라는 외관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 사회적 노동 형태가 화폐에서 어떤 물건의 속성으로서 나타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회적 노동 생산력과 그 특수한 형태들은 자본, 즉 대상화된 노동, 물적 노동 제 조건—이것들은 그렇게 자립화된 한 요소로서 자본가에 있어서 인격화되어 산 노동과 대립한다—의 생산력과 형태들로서 표시된다. 이미 화폐를 고찰할 때에 우리가 물신숭배성이라고 말한 것에서 표현되는[148] 그런 관계의 왜곡된 형태를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보게 된다.

자본가 자신은 자본의 인격화로서만 권력자인 것이다(이태리식 부기에서는 자본가로서의,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의 그의 이 역할은 단순히 사적 소비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본의 채무자로서만 나타나는 개인으로서의 그에게 항상 대립하고 있다).

자본의 생산성은—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종속만을 고찰하는 경우 390
에도—우선 잉여 노동, 즉 직접적 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노동량을 강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강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도 그 이전의 생산 방식에도 있는 것이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하에서는 그것은 생산에 크게 유리한 형태로 실현되며 적용된다.

이러한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덜 발전된 단계에도 보다 발전된 단계에도 공통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인 형태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 수단, 물적 노동 제조건—노동 재료, 노동 수단(그리고 또 생활 수단)—은 노동자에게 종속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동자가 그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적용한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들은 자본으로 된다. "자본이 노동을 적용한다." 노동자에게 대하여는 그것들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수단—직접적인 생존 수단으로서이건 또는 교환 수단으로서, 상품으로서이건 간에—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들에 대하여 노동자가 그것들의 가치를 보존하며, 가치를 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한, 즉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미 단순한 형태에서 이 전도된 관계는 물건의 인격화이며 인격의 물화이다. 왜냐 하면 이 형태는 선행한 모든 형태들과는 달리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인격의 담당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대표적인 한에서이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지배는 곧 산 노동에 대한 대상화된 노동의 지배이며 노동자 자신에 대한 노동자가 창조한 생산물의 지배에 불과하다.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자와 대립하여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비단 이러한 직접적인 물건들 〈이것들은 모두 노동 생산물이다. 사용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 생산물인 그것들은 대상화된 일반적 노동 시간, 또는 화폐이다〉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욱 더 복잡하여지며 더욱 더 신비로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발전된 노동의 형태들—협업, 매뉴팩처(분업의 한 형태로서의), 공장(기계 체계를 자체의 물질적 기초로 하는 사회적 노동 형태로서의)—도 자본의 발전 형태들로서 표현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노

동 형태들에서 발전한 노동 생산력과 따라서 또 과학 및 자연력도 자본
391 의 생산력으로서 표시된다. 사실상 협업에서 실현되는 동일한 종류의 노동의 통합, 분업에서 볼 수 있는 상이한 종류의 노동의 결합, 기계제 공업에서 생산을 위하여 자연력과 과학 그리고 또 노동 생산물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것은 개개의 노동자들 자신과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서 그리고 물적인 것으로서, 그들과 독립하여 그들을 지배하는 노동 수단의 존재 형태로서 그들과 대립한다. 이는 마치 이 노동 수단 자체가 재료, 도구 등등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형태에서 자본의, 따라서 또 자본가의 기능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형태들—또는 노동자들 자신의 ‖ 1318 ‖ 사회적 노동의 형태들—은 개별적으로 본 노동자들과는 전혀 관계 없이 형성된 관계들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에 종속됨으로써 사회적 형성물들의 요소로 되나 이 사회적 형성물들이 노동자들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본 자체가 취하는 모습으로서, 개별적인 매개 노동자의 노동력과는 달리 자본의 속성을 이루며 자본에서 발생하여 자본에 포함된 결합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 자체가 상술한 바와 같은 형태들의 작용을 받아 변형되어 자립적인 존재로서는 즉 자본주의적 연관 밖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되며 생산에 대한 노동력의 자립적인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또 다른한편으로는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라 노동 조건들이 기술 공학적으로도 노동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나타나며 이와 동시에 노동을 대신하고 노동을 압박하며 노동을 자립적인 형태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만듦에 따라서 더욱 더 현실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일정한 의미에서 자본화된 것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하는(예컨대 기계제 생산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동 생산물이 노동의 지배자로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자연력과, 그리고 전반적 역사적 발전 과정의 정화(精華)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산물인 과학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 진행된다. 즉 자연력과 과학은 자본의 힘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한다. 과학과 그것의 적용은 사실상 개개의 노동자의 기능 및 지식과 분리되며 그리고 그것들을 근원까지 따지고 보면 그것들도 역시 노동 생산물이지만 그것들이 노동과정에 들어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들은 자본에 포함된 것으로서 나타난다. 기계를 적용하는 자본가가 반드시 기계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유

어를 보라)[149]. 그런데 실현된 과학은 기계 자체에서 자본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한다. 그리고 사실상 과학과 자연력과 대량의 노동 생산물의, 사회적 노동에 기초한 이 모든 적용은 오직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잉여 노동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따라서 자본에 속하며 노동과 대립하 392
는 힘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은 물론 이 모든 수단들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서만 적용하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수단들을 생산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발전과 이 발전 조건들은 자본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작용은 개개의 노동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직접 그를 반대하는 데 돌려진다.

자본 자체가 이중적 성격을 띠는데, 그것은 자본이 다음과 같이 상품들로써 구성되기 때문이다 :

1) 교환 가치(화폐). 그런데 이것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이며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를 창조하며 가치로서 증식하며 증가분을 얻는 가치이다. 이 가치 증식은 일정량의 대상화된 노동과 보다 많은 양의 산 노동과의 교환에 귀착된다.

2) 사용 가치. 여기에서 자본은 노동 과정에서의 그것에 고유한 일정한 관계들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는 자본은 단순히 노동이 속하며 노동이 포함된 노동 재료, 노동 수단으로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에는 노동과 함께 노동의 사회적 결합물도, 그리고 노동의 이 사회적 결합물에 상응하는 노동 수단의 발전 정도도 포함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과정의 대상적 및 주체적 조건들을 개개의 자립적 노동자에게서 분리시킴으로써 처음으로 대규모로 그 조건들을 발전시키나 그러나 그 조건들을 개개의 노동자를 지배하며 또 그에게는 인연이 없는 힘으로서 발전시킨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자본은 극히 신비로운 물건으로 된다. | 1318 ||[150].

|| 1320 | 그리하여 자본은 생산적이다 :1) 잉여 노동을 강제하는 힘으로서, 2) 사회적 노동 생산력과, 예컨대 과학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력을 흡수하며 취득하는(그것의 인격화로서) 힘으로서 생산적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자본과 대립하는 노동은, 노동 생산력이 자본으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생산력을 이중으로, 즉 한번은 노동의 생산력으로서 또 한번은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간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고 왜 생산적인 것으로서, 생산적 노동

으로서 나타나는가? 〈노동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을 이룬다. 그런데 노동력은 그것의 가치와 그것이 창조하는 가치 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산적이다.〉

393 [b.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에서의 생산적 노동]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를 생산의 절대적 형태로, 따라서 생산의 영원한 자연적 형태로 간주하는 부르조아적 제한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본의 견지에서 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어떠한 노동이 일반적으로 생산적인가, 즉 생산적 노동 일반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를 혼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 오직 그러한 사람들만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무엇이건 결과를 가져 오는 노동이면 모두 생산적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아주 현명하다고 자만할 수 있다.

직접 자본으로 전화되는 노동만이, 즉 가변 자본을 가변적인 크기로 만들며 총 자본 C를 C+⊿[151]와 동등한 것으로 만드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만약 노동과 교환되기 전의 가변 자본을 x라고 하면 그리하여 y=x라는 방정식을 얻는다면 x를 x+h로 전화시키며 방정식 y=x를 방정식 y′=x+h로 전화시키는 노동은 생산적이다. 이것이 해명하여야 할 첫째 점이다.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자본에 잉여 가치를 형성하고 따라서 자본으로서,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 나타날 가능성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본에 복무하는 노동이 문제이다.

둘째로 : 사회적 및 일반적 노동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생산력은 노동 과정과만 관련되며 사용 가치와만 관계된다. 생산력은 물건으로서의 자본에 속하는 속성으로서, 자본의 사용 가치로서 표시된다. 생산력은 교환 가치와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 100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든 또는 각자가 따로따로 일하든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는 그 노동일을 대표하는 생산물 양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100노동일 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 생산 능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 1321 ‖ 노동 생산성상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면에서 교환가치와 관계된다.

예컨대 어떤 개별적 생산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제고된다면, 그리

하여 가령 수직기 대신에 역직기에 의한 직물 생산이 이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면 역직기로써 1엘레를 짜는 데 수직기로써 짤 때보다 노동 시간이 절반 밖에 들지 않는다면 수직공의 12시간은 이제는 12시 394
간의 가치로가 아니라 6시간의 가치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필요 노동 시간이 6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수직공의 12시간은 그가 종전과 다름 없이 12시간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만 6시간의 사회적 노동 시간과 동등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어떤 다른 생산 부문, 예컨대 인쇄업에서 아직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식자공의 노동을 들어 보면 이 부문에서의 12시간의 노동은 기계 등등이 극도로 발전한 생산 부문에서의 12시간이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의 창조자로서는 노동은 언제나 일반적 노동으로서만 나타나는 개별적 노동자들의 노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서의 생산적 노동은 항상, 개별적 노동력의 노동으로서, 그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결합 형태에 들어가든 간에 고립된 노동자의 노동으로서 자본과 대립한다. 즉 노동자와 대립하는 자본은 사회적 노동 생산력을 표시하는데, 자본과 대립하는 노동자의 생산적 노동은 항상 개별적 노동자의 노동만을 표시한다.

세째로. 만약 노동자로 하여금 잉여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사회적 노동 생산력을 차지하는 자본의 속성이 자본의 자연적 속성이라는 외관, 따라서 자본의 사용 가치에서 흘러나오는 속성이라는 외관을 취한다면 반대로, 노동 자체의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표시되며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생산물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로서, 자본의 자기 증식으로서 표시되는 것은 노동의 자연적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점을 전개하여 고찰하고 이로부터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차이를 도출하여야 한다.

첫째 점에 대하여. 자본의 생산성은 노동을 임금 노동으로서 자기에게 대치시키는 데 있으며 노동의 생산성은 노동 수단을 자본으로서 자체에 대치시키는 데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된다. 즉 일정한 교환 가치는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 즉 가치 더하기 잉여 가치로 전화된다. 이것은 그 교환 가치의 한 부분이 노동 과정에 필요한 노동 수단(원재료, 도구,

한 마디로 말하면 물적 노동조건)으로 되는 상품으로 전화되고 다른 부분은 노동력의 구매에 충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와 노동력의 이 최초의 교환, 즉 노동력을 구매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구매는 적용되는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전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이 자본 자체의 존재 형태의 하나로, 즉 자본의 생명력(entelechy)으로 된다.

395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서는 산 노동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임금을 재생산하며, 따라서 가변 자본의 가치를 재생산하며, 다른한편으로는 잉여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전화 과정의 결과 화폐 총액 중 직접 가변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은 임금으로만 지출되지만 화폐 총액은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가치가 c+v와 동등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c+(v+x) 또는 마찬가지이지만 (c+v)+x[152]와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가치의 크기인 최초의 화폐액은 노동 과정에서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보존도 되고 증대도 되는 가치로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 자본의 가변부분 만이 증가분을 창조한다고 해서 이 과정에 의하여 잉여 가치의 크기 만큼 증대됨으로써 최초의 총 가치가 증대되며 따라서 최초의 화폐 총액이 자본으로 전화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최초의 가치는 c+v(불변자본과 가변 자본)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최초의 가치는 c+(v+x)로 전화되며, v+x라는 표현은 산 노동이 대상화된 노동으로 전화됨으로써, 즉 v와 노동력과의 교환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가변 자본의 임금으로의 전화인 이 교환에서 시작된 전화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 창조된 부분이다. 그러나 c+(c+x)=(c+v)(최초의 자본)+x이다. 그 밖에 v의 v+x에로의 전화, 따라서 또 (c+v)의 (c+v)+x에로의 전화는 화폐의 일부가 c로 전화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화폐의 일부가 가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다른 부분이 불변 자본으로 전화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화되나 이 전화는 화폐와 노동력과의 최초의 교환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다. 오직 노동자에게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속하는 대상화된 노동에로의 노동의 이러

* 원문 realiter—역자.

한 직접적 전화에 의해서만 화폐는 생산 수단 즉 노동 조건의 형태를 취한 화폐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화폐는 즉자적으로*만 자본이다. 화폐가 그 자체의 형태로 존재하든 또는 현물형태 대로, 새로운 상품의 창조에 필요한 생산 수단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상품(생산물) 형태로 존재하든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 1322 ‖ 오직 노동에 대한 이러한 일정한 관계만이 화폐 또는 상품을 396
자본으로 전화시키며, 상술한 바와 같은, 생산 조건들에 대한 노동의 관계—현실적 생산 과정에서의 제 관계의 일정한 성격은 이에 상응한다—때문에 이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립화된 것으로서 노동력과 대립하는 대상화된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생산적 노동이란 노동력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전 면모와 특수한 성격을 표시하는 간략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과 그렇지 않는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 구분은 바로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자본 자체가 기초하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노동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에서의 생산적 노동이란 그 고용주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며 또는 달리 말하면 객체적 노동 조건들을 자본으로, 그것들의 소유자를 자본가로 전화시키는 노동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창조하는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노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동, 노동의 구매자와 그 판매자 간의 완전히 규정된 관계를 포함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의 구매자의 수중에 있는 화폐나 또는 그의 수중에 있는 상품—생산 수단과 노동자들의 생활 수단—은 그것들이 자본으로 전화되는 상술한 과정 때문에만 자본으로 된다 하더라도(그 물건들은 과정에 들어 가기 전에는 자본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자본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즉자적으로" 자본이다. 그것들이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은 그것들이 자립적인 것으로서 노동력과 대립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그것들과 대립하는 사실 때문인데, 이러한 관계가 노동력과의 교환과 그 후에 진행되는 노동의 자본으로의 현실적 전화

---

* 원문 an sich—역자.

과정을 제약하며 또 보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의 노동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은 애당초부터 그것들을 자본으로 만들며 그것들에게 노동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일정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노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제로 되며 자본으로서 노동과 대립한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동은 직접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 노동이라고, 또는 같은 것의 간략한 표현에 불과하지만 직접 자본과 즉 "즉자적으로" 자본이며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자본으로서 노동
397 력과 대립하는 화폐와 교환되는 노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직접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라는 표현은 노동이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며 이 화폐를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이라는 규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곧 상세하게 해명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이란 노동자로서는 미리 규정된 그의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할 따름이지만 이와 함께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서는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동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를 자본으로서 노동자 자신과 대립시키는 노동이다.

[c. 자본과 노동과의 교환에 있어서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계기]

생산 과정을 고찰할 때에 본 바와 같이[153] 자본과 노동의 교환에 있어서는 서로 제약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계기를 구별하여야 한다.

첫째로, 노동과 자본의 최초의 교환은 자본이 화폐로서 나타나며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과정이다. 노동은 그것이 수행된 다음에야 즉 하루나 한 주일 등등이 끝난 다음에야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판매는 이 첫 과정에서는 관념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노동력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경우에 직접 판매되는 것은 노동이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라 노동력 자체의 사용이며 따라서 실제로 노동 그 자체이다. 왜냐 하면 노동력의 사용은 그것의 행동인 노동에서 표현되기

---

* 원문 acut—역자.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상품과 상품과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과 노동과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B에게 장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에는 노동의 교환이 일어난다. 즉 한편은 장화에 대상화된 노동을 교환하며 다른 한편은 화폐에 대상화된 노동을 교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반적 사회적 형태로서의, 즉 화폐로서의 대상화된 노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노동력으로서만 존재하는 노동이다. 매매의 대상은 이 노동력의 사용이다. 즉 이 경우에 판매되는 그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이것은 불합리한 표현이다)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라 하더라도 노동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대상화된 노동과 사실상* 산 노동으로 전화되는 노동력 간의 직접적 교환이 진행된다—즉 이 경우에는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 간의 교환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력의 가치—은 위에서 전개된 바와 같이 노동의 가격[154], 노동의 직접적 구매 가격으로서 표시된다.

이 첫 계기의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는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이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 즉 그가 구매하 *398*
는 상품의 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력이 구매되는 것은 오직 노동력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의무가 있는 노동량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보다 크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수행하는 노동이 노동력의 가치보다 큰 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1323 ‖ 둘째로 : 자본과 노동의 교환의 둘째 계기는 사실상 첫째 계기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전혀 교환이 아니다.

첫째 계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화폐와 상품과의 교환, 즉 등가물들의 교환이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는 다만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대립한다. 등가물들의 교환이 진행된다. (즉 이 관계는 교환이 실제로 언제 진행되든 간에 달라지지 않는다. 또 노동의 가격이 노동력의 가치 이상인가 이하인가 또는 그 가치와 동등한가 하는 것은 이 거래의 성격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거래는 상품 교환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계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는 전혀 교환이 없다는 점이다. 화폐 소유자는 상품의 구매자가 아니게 되고 노동자는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게 된다. 화폐 소유자는 이제는 자본가로서 행동한다. 그는 자기가

---

* 원문 de facto—역자.

구매한 상품을 소비하고 노동자는 그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의 사용은 그의 노동 자체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행한 거래의 결과 노동 자체는 대상화된 부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그 노동은 노동자가 수행하지만 노동자의 이 노동은 자본에 속하며 이제부터는 자본의 기능으로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동은 자본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 하에서 진행되며 이 노동이 대상화되는 생산물은 자본이 취하는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이 현실적으로 자본으로서 실현되는 새로운 형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첫 거래의 결과 노동이 형식상 이미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전화된 이후에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 노동이 직접 대상화되며 직접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것도 여기서는 자본으로 전화된 노동의 양이 이전에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된 자본의 양을 능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한 양의 부불 노동이 취득되며 그리고 오직 이로 인해서만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실제로 교환은 없지만 중간 고리들을 사상하고 보면 이 과정에서는—두 계기가 통일된 결과로—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이 보다 많은 양의 산 노동과 교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399 은 전체 과정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자기의 생산물에 대상화된 노동은 노동력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보다 크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으로서 제공되는 대상화된 노동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과정의 현실적 결과는 자본가가 임금에 지출한 자본 부분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혀 무상으로 제공되는 잉여 가치도 얻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노동과 자본 간의 직접적 교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1) 노동의 자본으로의, 자본의 대상적 구성 부분으로의 직접적인 전화, 즉 생산 과정에서의 전화, 2)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과, 동일한 양의 산 노동 더하기 교환 없이 취득되는 산 노동의 추가량과의 교환.

"생산적 노동이란 직접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다"라는 표현은 상술한 모든 계기들을 포괄하며, 그것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노동, 자본으로서의 생산 조건들과 교환되는 노동이라는 명제의 파생적인 정식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단순히 생산 조건들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 생산 조건들에 대하여 노동은 일정한 관계에 들어서는데, 그것은 결코 단순히 노동으로서가 아니며, 결코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 1) 상품들간의 관계로서

의 화폐와 노동력 간의 상호 관계, 즉 화폐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 간에 진행되는 매매, 2)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직접적 종속, 3)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으로의 노동의 직접적 전화, 즉 같은 말이지만 자본을 위한 잉여 가치의 창조·노동과 자본 간에는 두 종류의 교환이 진행된다. 첫째 교환은 노동력의 구매 따라서—실제적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노동의 구매, 따라서 또 노동의 생산물의 구매만을 표현한다. 둘째 교환은 산 노동의 자본으로의 직접적인 전화, 즉 자본의 실현으로서의 산 노동의 대상화이다.

[d. 자본을 위한 생산적 노동의 특수한 사용 가치]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결과는 단순한 생산물(사용 가치)도 아니며 상품, 즉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도 아니다. 그 과정의 결과, 즉 그 과정의 생산물은 자본을 위하여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화폐나 상품의 자본으로서의 현실적인 전화에 있다. 그런데 생산 과정 전에는 화폐와 상품은 다만 그 일반적인 지향으로서만, "즉자적으로"만, 그 사명으로 보아서만 자본인 것이다. 생산 과정은 구매 400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흡수한다. 이 흡수, ‖ 1324 ‖ 생산 과정에서의 타인의 부불노동의 이 취득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직접적 목적이다. 왜냐 하면 자본으로서의 자본(따라서 자본가로서의 자본가)의 임무는 직접 자체 소비를 위한 사용 가치의 생산도 아니며 우선 화폐로 전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사용 가치로 전화시키기 위한 상품의 생산도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치부, 가치 증식, 그것의 증대, 따라서 종전의 가치의 유지와 잉여 가치의 창조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 특수한 생산물을 자본은 노동과의 교환의 결과에만 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상품을 생산하자면 노동은 유용 노동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여야 하며 일정한 사용 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 따라서 사용 가치로 표시되는 노동만이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다. 이 전제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이러한 구체적 성격, 노동의 사용 가치 그 자체, 따라서 그것이 예컨대 재봉공, 제화공, 방적공, 직포공 등등의 노동이라는 사정이 자본을 위한 노동의 특수한 사용 가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또 그 노동에다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에서 생산적 노동

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다. 자본을 위한 노동의 특수한 사용 가치를 이루는 것은 그것의 일정한 유용적 성격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대상화된 생산물의 특수한 유용적 속성도 아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창조하는 요인으로서의 이 노동의 성격, 그것에 고유한 추상적 노동이라는 성격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 노동의 일정량을 대표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의 가격, 즉 노동력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추상적 노동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자본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곧 노동력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이 노동력 자체에 대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양을 초과하는 잉여 분에 있다. 노동은 물론 방적, 방직 등등과 같은 특수한 유용 노동으로서의 그것에 고유한 일정한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을 상품으로 표시될 수 있게 하는 노동의 이러한 구체적 성격이 자본을 위한 노동의 특수한 사용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자본을 위해서는 노동의 이 사용 가치는 노동이 노동 일반으로서 제공하는 노동량에 있으며 수행되는 노동량이 노동보수를 이루는 노동량을 초과하는 잉여 분에 있다.

401 일정한 화폐액 x는 그것이 자기의 생산물에서 x+h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즉 생산물로서의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이 최초에 그것에 포함되어 있던 노동량보다 많기 때문에 자본으로 된다. 그리고 이것은 화폐와 생산적 노동 간의 교환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화된 노동과 교환되면서 이 대상화된 노동으로 하여금 증대된 양의 대상화된 노동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단순히 상품 생산이 아니다. 이것은 부불 노동을 흡수하는 과정이며 생산 수단—재료와 노동 수단—을 부불 노동의 흡수 수단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다.

상술한 모든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생산적 노동"—이것은 노동의 일정한 내용, 그의 특수한 유용성 또는 그것이 표시되는 특수한 사용 가치와는 직접적으로는 절대로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노동에 대한 규정이다.

동일한 종류의 노동이 생산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실락원』을 쓰고 그 댓가로 5파운드 스털링을 받은 밀턴은 비생산적 노동자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출판업자를 위하여 공장식

으로 일하는 작가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밀턴은 『실락원』을 누에가 명주실을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필요성에서 창작하였다. 이것은 그의 본성의 효과적인 발현이었다. 다음에 그는 자기의 작품을 5파운드 스털링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자기 서적(예컨대 정치 경제학 입문)의 출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일하는 라이프찌히의 문필가—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왜냐 하면 그의 생산은 최초부터 자본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자본의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만 수행되기 때문이다. 자기 셈으로 노래를 파는 여가수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그러나 같은 여가수도, 돈을 벌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기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왜냐 하면 이 여가수는 자본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e. 봉사를 제공하는 노동으로서의 비생산적 노동.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의 봉사의 구매.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봉사의 교환으로 보는 비속한 견해]

‖ 1325 ‖ 여기에서는 혼동해서는 안 될 상이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내가 기성복 양복 바지를 구매하든 그렇지 않고 천을 사서 나의 집에서 짓기 위하여 재봉사를 고용하고 천을 양복 바지로 만드는 그의 봉사(즉 그의 재봉 노동)의 댓가를 그에게 지불하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양 402
복 바지 자체가 문제인 한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내가 재봉사를 집으로 불러 오는 대신에 재봉소 주인에게서 양복 바지를 사는 것은 첫째 방식대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즉 이 방식 대로 양복 바지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자본가인 재봉업자가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양복 바지를 만드는 데 보다 적은 노동이 들며 따라서 그것이 값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다 나는 바지를 구매하는 데 쓰는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지로 전화시킨다. 그리고 두 경우에 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화폐를 단순히 유통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 즉 화폐를 일정한 주어진 사용 가치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화폐가 한 경우에는 상품과 교환되고 다른 경우에는 상품으로서의 노동 자체를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화폐는 다만 화폐로서만, 보다 명확히 표현하면 유통 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집에서 일하는 재봉사는 비록 그의 노동이 나에

게 생산물, 즉 양복 바지를 제공하고 그에게는 그의 노동의 가격인 화폐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다. 이 재봉사가 제공하는 노동량이 그가 나에게서 받는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냐 하면 그의 노동의 가격은 생산적 노동자로서의 재봉사들이 받는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가격만 정해져 있으면 그 재봉사가 8시간 일하건 10시간 일하건 나에게는 전혀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용 가치인 양복 바지만이며,—내가 그것을 첫째 방식으로 얻든 둘째 방식으로 얻든 나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물론 양복 바지에 될수록 적게 지출하는 것이다. 이 점이 첫째 경우나 둘째 경우나 똑 같이 나의 관심사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은 두 경우에 다 정상적인 가격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소비를 위한 비용이며, 나의 화폐의 증가가 아니라 그것의 감소이다. 도대체 나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화폐의 어떠한 지출도 치부 수단이 아니듯이 이것은 결코 치부 수단이 아니다.

폴 드 코크의 소설에 나오는 한 "학자"는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구매 없이는 빵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치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매는 나의 치부의 간접적 수단이며 적어도 그 조건의 하나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와 똑 같은 근거에서 나의 혈액 순환과 호흡 과정 역시 나의 치부의 조건들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혈액 순환도 나의 호흡 과정도 절대로 나를 부유하게 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 양자는 비싼 물질 대사의 존재를 전제로
403 하는데, 만약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와 노동과의 단순한, 직접적인 교환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지도 않으며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화시키지도 않는다.

이 교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교환이 화폐와 생산적 노동과의 교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편으로 이 교환의 경우에는 화폐가 화폐로서, 일정한 사용가치, 생활수단, 개인 소비품으로 전화되어야 할, 교환 가치의 자립적인 형태로서 지출된다는 그것이다. 화폐는 이 경우에는 자본으로 되지 않으며 도리어 교환 가치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며 사용 가치로서 소모되고 소비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은 이 경우에는 사용가치로서만, 천을 양복 바지로 전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봉사로서만,노동이 그에 고유한 일정한 유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제

공하는 봉사로서만 나의 관심사로 된다.

이와 반대로 고용된 재봉사가 그를 고용하는 재봉소 주인에게 제공하는 봉사는 결코 그가 천을 양복 바지로 전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복 바지에 대상화된 필요 노동 시간은 12시간이고 고용된 재봉사가 받는 임금은 다만 6시간 분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봉사는 그가 6시간을 무상으로 일하는 데 있다. 이것이 양복 바지를 만드는 형태로 수행된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관계가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봉소 주인은 될 수 있는 대로 곧 양복 바지를 도로 화폐로, 즉 재봉 노동이라는 일정한 성격이 흔적 없이 사라지며 일정한 액의 화폐로 표현된‖ 1326 | 6시간의 노동시간 대신에 2배나 되는 화폐액으로 표현된 12시간의 노동시간이 현존하는 것으로, 제공된 봉사가 표현되는 그러한 형태로 전화시키려고 애쓴다.

내가 재봉 노동을 구매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재봉 노동으로서 의복에 대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나의 욕망의 하나에 복무함으로써 제공하는 그 봉사를 얻기 위해서이다. 재봉소 주인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1탈러를 2탈러로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이다. 내가 재봉 노동을 구매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며 일정한 봉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봉소 주인이 이 노동을 구매하는 것은 이 노동이 그것에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교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자본가에게 있어서 다만 적은 양의 노동을 보다 많은 양의 노동과 교환하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화폐가 자본을 생산하지 않는 노동, 즉 비생산적 노동과 직접 교환되는 경우에는 이 노동은 봉사로서 구매된다. 이 표현은 다른 모든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이 제공하는 특수한 사용 가치 이외의 다른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노동의 특수한 사용 404
가치는 이 경우에는 "봉사"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노동이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활동으로서의 봉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노동과, 가령 어떤 기계, 예컨대 시계가 구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가 하도록 나는 준다, 네가 하도록 나는 한다, 네가 주도록 나는 한다, 네게 주도록 나는 준다[155]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의의로 보아 똑같은, 동일한 관계의 형태들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에

서는 네가 하도록 나는 준다**라는 형태는 물건의 형태를 띤 인도되는 가치와 취득되는 산 활동 간의 극히 특수한 관계를 표현한다. 그리하여 봉사의 구매에는 노동과 자본의 특수한 관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이 경우에 그 관계는 완전히 말살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세이, 바스티아와 그 일파에게 있어서는 봉사의 구매가 물론,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즐겨 이용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

이 봉사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며 또 이 가치 자체는 임금 법칙들에 의하여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관계의 연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것은 임금에 관한 장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상술한 것으로부터 화폐와 노동과의 교환 그것만으로는 아직 이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전화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 노동의 내용은 우선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으로 된다.

노동자 자신이 노동을, 즉 봉사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봉사에 대한 그의 임금의 지출은 어떠한 다른 상품의 구매를 위한 임금의 지출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노동자가 구매하는 봉사는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 노동자는 예컨대 그가 빵이나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의사의 봉사나 숭려의 봉사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로서는—즉 상품에 대립하는 화폐의 대표자로서는—노동자는, 자본가가 구매자의 역할만 하면서 등장하는 경우, 즉 화폐를 상품 형태로 이전시키는 데 문제가 귀착되는 경우에 자본가가 속하는 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봉사의 가격이 어떻게 규정되며 또 그 가격과 본래의 의미의 임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가격은 임금 법칙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절되는가, 그 법칙과 어느 정도 배치되는가—이 모든 문제는 임금에 관한 연구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당면한 연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단순히 화폐와 노동과의 교환만으로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또는 같은 말이지만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면 노동의 내용, 노동의 구체적 성격, 노동의 특수한 유용성도 우선은 아무래도 좋은

---

* 원문 Do ut facias, facio ut facias, fascio ut des, do ut des—역자.

** 원문 do ut facias—역자.

것으로서 나타난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재봉사의 동일한 노 405
동도 어떤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으로서 나타나며 다른 경우에는 비생산적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어떤 종류의 봉사, 다시 말하면 일정한 종류의 활동이나 노동의 결과인 사용 가치는 상품에 체화되지만 다른 종류의 봉사는 그와는 반대로 이 봉사의 수행자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감지할 수 있는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봉사의 결과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예컨대 가수가 나에게 제공하는 봉사는 나의 미학적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즐기는 것은 가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활동으로서만 존재하며 그의 노동 즉 노래가 끝나면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끝난다. 나는 활동 자체를, 나의 청각에 대한 그것의 작용을 즐긴다. 이러한 봉사 자체는 내가 구매하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필요한 것일 수 있거나 다만 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예컨대 병사, 의사, 변호사의 봉사가 그렇다. 또는 그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따름인 봉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봉사의 경제적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내가 건강하여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다행히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의사와 법률가에 대한 화폐 지출을 큰 재앙처럼 꺼리게 될 것이다.

‖ 1328 |[156] 봉사는 또한 억지로 떼어 맡기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관리의 봉사 등등이 그러하다.

만약 내가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정한 재간을 얻기 위하여 교사의 봉사를 구매한다면—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구매하여 준다면—또 만약 이에 있어서 내가 실지로 무엇인가를 습득한다면—이것은 교사의 봉사에 대한 지불에는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이 수업료는 나의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나의 노동력의 생산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봉사의 특수한 유용성은 주어진 경제적 관계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봉사의 수행자인 교사에 대하여 자본가로 되지는 않으며 그의 주인으로 전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관계의 경제적 성격은 나의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 주는가, 교사가 나를 잘 가르쳐 주는가, 변호사가 나의 소송을 이기게 하여 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는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봉사 자체에 대하여 지불되기는 하나 그러나 봉사의 본성 자체로 보아 봉사의 결과가 봉사 수행

자에 의하여 보장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봉사에 대한 보수는 상품의 소비와 관련된 비용에 속하는데, 예컨대 여요리사, 하녀 등등의 봉사가 그러하다.

모든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나는 —소비를 위한 기타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바와 같이—내가 생산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그러한 비생산적 노동을 이용
406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동자는 그에게 억지로 떼어 맡긴 봉사(국가, 세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봉사를 처리할 가능성은 누구보다도 적게 가진다. 도리어 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을 적용할 가능성은 결코, 내가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노동을 적용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증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이 경우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생산적 노동자들까지도 나에게 대하여는 비생산적 노동자일 수 있다. 예컨대 만약 내가 나의 집 방을 도배하는데 도배쟁이는 나의 주문을 수행하는 기업주의 고용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사태는, 내가 이미 도배가 다 된 집을 구매하는, 즉 나의 소비품으로 되는 상품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하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에게 도배를 시킨 기업주에게 대하여는 그들은 생산적 노동자이다. 그것은 그들이 기업주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1328 ‖

* * *

‖ 1333 ‖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따라서 자본을 위하여 잉여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견지에서 볼 때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고 하는 리카르도의 구절[157]에서 이미 알 수 있다. 자본의 이론과 실천은 이러하다. "자본의 이론도, 또 노동이 노동자의 유지비를 초과하여 자본가를 위한 이윤도 더 생산할 수 있는 점에까지 노동의 길이를 연장하는 자본의 실천도 생산을 규제하는 자연 법칙들과 모순되는 듯 하다"(Th. 호지스킨. 『통속 정치 경제학』, 런던, 1827년, p.238). ‖ 1333 ‖

* * *

‖1336‖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상품의 생산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 잉여 노동의 흡수이기도 하며 따라서 자본의 생산 과정이기도 하다. 화폐와 노동 간의—또는 자본과 노동 간의—첫번째 형식적인 교환 행위는 가능성에 있어서만 대상화된 노동에 의한 타인의 산 노동의 취득이다. 현실적인 취득 과정은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서만 진행되는데, 이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 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단순히 상품 판매자들로서 서로 *407*
대립하며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서로 대하는 첫 번째 형식적인 거래는 이미 지나 간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티아와 같은 속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바로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슬쩍 회피하려고 이 첫번째 형식적인 거래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구별은 화폐와 비생산적 노동 간의 교환에서 완전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경우에는 화폐와 노동은 상품으로서만 교환된다. 따라서 이 교환은 자본을 형성하지 않으며 소득의 지출로 된다.‖1336‖

[f.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공업자와 농민의 노동]

‖1328‖ 그러면 임금 노동자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가로서 생산하지는 않는 자립적인 수공업자나 농민의 경우는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이것은 농민의 경우에 전형적이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원예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상품 생산자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경우에 예컨대 수공업자는 자기의 상품을 주문에 따라 제조하고 농민은 자기의 상품을 자기 수중에 있는 자금의 정도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해서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노동의 판매자로서가 아니라 상품 판매자로서 나와 일정한 관계에 들어서며 따라서 이 관계는 자본의 노동과의 교환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또 이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간의 구별, 즉 노동이 화폐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 또는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 하는 데 기초한 구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그들이 상품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노동자의 범주

에도, 비생산적 노동자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상품 생산자이다.

자기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일하는 이 생산자들이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의 처지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잉여 노동 또는 그 일부(나머지 부분은 세금 등등의 형태로 빼앗긴다)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정한 생산 방식이 아직 해당 사회의 전체 생산 관계를 종속시키지는 못 하고 있으나 우세한 것으로는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특징적인
408 하나의 특성을 보게 된다. 즉 봉건 사회에서는 봉건주의의 본질 자체와는 아주 인연이 먼 그러한 관계까지도 봉건적 면모를 띠었었다(이것은 영국의 실례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봉건적 체계는 노르만디로부터 기성 형태로 여기에 이식되어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영국의 기존 사회 경제 형태에 자체의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주와 신하 상호간의 인신적인 봉사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 순 화폐적 관계가 봉건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다. 소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봉토(封土)로서 점유하는 의제(擬制)도 예증으로 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하에서도 사태는 꼭 마찬가지이다. 독립적인 농민이나 수공업자는 양분된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는 자본가이고 노동자로서는 자기 자신의 임금 노동자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가로서는 자기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자기의 자본에서 이윤을 짜낸다, 즉 자기 자신을 임금 노동자로서 착취하며, 노동이 자본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잉물을 잉여 가치로 자기 자신에게 지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또 약간의 세째 부분(지대)도 지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158] 자기 기업에 자기 자신의 ‖ 1329 | 자본을 적용하는 자본가가 자기 자산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이것을 그가 산업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본가로서의 자기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생산 수단이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획득하는 일정한 사회적 성격은 생산 수단으로서의 이 생산 수단의

---

* "소기업들에서는… 기업주는 흔히 자기 자신의 노동자이다" (슈토르흐 [『정치 경제학 강의』], 제1권, p.242. 페테르스부르그 판).

물질적 정재(定在)와 심히 엉켜 있으며 부르조아 사회의 관념에서는 이 물질적 정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술한 사회적 성격(일정한 범주로서 표현되는)은 직접 그 성격과 모순되는 관계에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산 수단은 그것이 자립적인 권력으로서 노동자와 대립하여 자립화되는 한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문제로 되고 있는 이 경우에 생산자—노동자—는 자기 생산 수단의 점유자이며 그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 생산 수단은 자본이 아니며 노동자는 결코 임금 노동자로서 생산 수단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단은 자본으로서 간주되며 노동자 자신은 양분되어 자본가로서의 그가 임금 노동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일견해서 아무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는 정당하다 : 문제로 되고 있는 이 경우에 생산자는 물론 자기 자신의 잉여 가치를 창조한다. 〈생산자는 자기의 상 409
품을 그 가치 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체 생산물에는 그 자신의 노동만이 대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노동의 전체 생산물을 스스로 취득할 수 있으며, 그의 생산물 가치 중 예컨대 하루면 하루 동안의 그의 노동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잉여 분을 제3자인 주인이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그의 노동의 덕택이 아니라(이 점에서는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가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덕택이다. 즉 그는 오직 생산 수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잉여 노동이 그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자본가로서, 임금 노동자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가 오늘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관계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가정되고 있다. 방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일정한 의미에서는 옳은 것이다. 왜냐 하면(예컨대 고대 로마, 노르웨이, 또한 미국—미국의 서북부—의 사회적 제 관계와는 달리) 여기서는 통합이 우연적인 것이고 분리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한 인물에게서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분리가 일정한 관계로서 견지된다. 여기에서는 자본가로서의 자본가는 자본의 기능에 불과하며 노동자는 노동력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 기능들이 상이한 인물들 사이에 분할

되는 것,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생산하는 수공업자나 농민은 점차로 벌써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소자본가로 전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산 수단을 상실하고 〈비록 그가 예컨대 저당 채무의 경우의 농민과 같이 명의상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산 수단을 상실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임금 노동자로 전화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우세한 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발전 경향은 이상과 같다.

[g. 물질적 부에 대상화되는 노동으로서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보충 규정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적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상품 세계 전체, 물질적 생산—물질적 부의 생산—의 모든 부문이 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형식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왜냐 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더욱 더 이에 접근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과정의 기본 방향이며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노동 생산력의 발전이 절정에
410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과정의 한계를 표현하며 따라서 더욱 더 현실의 정확한 묘사에 접근하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자이며 생산 수단은 물질적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으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한다. 이에 따라 생산적 노동자들, 즉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노동이 상품, 즉 물질적 부에 대상화된다는 그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적 노동은 노동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 내용에는 의존하지 않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자기의 특징외에 그것과는 구별되는 보충적인 둘째 규정을 얻게 된다.

[h. 비물질적 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의 현상]

비물질적 생산에서는—그것이 오직 교환을 위해서만 진행되며 따라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1) 비물질적 생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상품, 사용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 즉 생산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대해서도 자립적인 형태를 취하

며 따라서 생산과 소비 간의 중간 기간에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유통할 수 있는 것인데, 예컨대 서적, 그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경우에 자본주의적 생산은 극히 제한된 규모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문필가가 가령 백과사전과 같은 어떤 공동 저작을 위하여 다수의 다른 필자들을 조수로서 착취하는 경우이다. ‖ 1330 ‖ 이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자본주의적 생산으로의 과도 형태에 머무르며, 이 과도 형태라는 것은 각종 과학적 및 예술적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공업자들 또는 명인(名人)들이 출판업자의 총상업 자본으로 사업한다는 점에 있는데, 이 관계는 본래의 의미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며 아직 형식상으로도 그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과도 형태에 있어서는 노동의 착취가 최고도에 달하는데, 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생산되는 생산물과 그것을 생산하는 행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무대 예술가, 강사, 배우, 교원, 의사, 숭려 등등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소규모로서만 적용되며 또 바로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약간의 분야들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교원들은 학교에서 기업가인 학교 소유자를 위한 단순한 임금 노동자일 수 있 411
다. 그러한 종류의 교육 공장들이 영국에는 대단히 많다. 이 교원들은 자기 학생들에 대하여는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지만 그들을 고용한 기업가에 대하여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기업가는 자기의 자본을 교원들의 노동력과 교환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치부한다. 또한 극장, 오락장 등등의 경영주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치부한다. 이 경우에 배우는 관중에 대하여는 예술가로서 나타나나 자기의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이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 모든 현상들은 전체로서의 생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혀 무시할 수 있다.

[i. 전체 물질적 생산 과정의 견지에서 본 생산적 노동의 문제]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노동과 생산 대상 간에 직접 존재하는 관계가 극히 상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예컨대

상술한 공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159]는 원료 가공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원료 가공과 직접 관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노동자들은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멀다. 기사는 또 다른 관계를 가지며 그는 주로 머리로써만 일한다—등등. 그러나 상이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적용된 노동의 총량은 대체로 동일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노동자들의 총체는, 단순한 노동 과정으로서의 노동 과정의 결과를 고찰한다면 상품, 어떤 물질적 생산물로 표현되는 그러한 결과를 생산한다. 단일한 생산 집단으로서의 이 모든 노동자들은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 기계이다. 이것은 전체 생산 과정을 총체로서 본다면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을 자본과 교환하고 자본가의 화폐를 자본으로서, 즉 자기 증식하며 증대되는 가치로서 재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각종 노동을 서로 분리시키며 따라서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또는 그 한편이 우세를 차지하는 노동—도 분리시키며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 간에 분배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 생산물이 그 모든 사람들의 공동 노동의 생산물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또는 그들의 공동 노동의 생산물이 물질
412 적 부에 대상화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분리는 또한 자본에 대한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여전히 임금 노동자의 관계로, 이러한 특수한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자의 관계로 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직접 참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동을 직접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금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가를 위한 잉여 가치도 직접 창조한다. 그들의 노동은 지불 노동 더하기 부불 노동 즉 잉여 노동으로써 구성된다.

[j. 물질적 생산 부문으로서의 운수 공업
운수 공업에서의 생산적 노동]

채취 공업, 농업 및 가공 공업 이외에 또한 자기 발전에서 역시 상이한 생산 단계, 즉 수공업적, 매뉴팩처적 및 기계적 생산 단계를 통과하는 제4의 물질적 생산 부문이 존재한다. 그것은 운수 공업인데, 그것이 사람을 수송하건 상품을 수송하건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자본가에 대

한 생산적 노동 즉 임금 노동자의 관계는 다른 물질적 생산 부문들에서와 꼭 같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노동 대상이 공간적 이동, 장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물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들의 수송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장소 이동은 기업가가 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봉사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는 면사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생산적 노동자의 관계와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을 상품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면 ‖1331‖ 여기에서는 노동 과정에서 노동 대상인 상품이 실제로 일정하게 변화한다. 그것의 공간적 정재가 변경되며 따라서 그것의 사용 가치가 변화한다. 왜냐 하면 이 사용 가치의 공간적 정재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상품의 교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 증식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사용 가치의 해당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요구되는 노동량—즉 한편으로는 불변 자본의 소비에 의하여, 즉 상품에 포함되는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노동량—만큼 성장한다.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용 가치에서 일어난 변화는 *413*
소멸하고 이 변화는 아직 다만 상품의 교환 가치의 증대, 그것의 등귀에서만 표현된다. 이 경우에 현실적 노동은 사용 가치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은 일정한 물질적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 실현되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물질적 생산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운수 공업에 있어서도 노동은 상품의 사용 가치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노동은 상품에 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 * *

여기에서는 우리는 아직 생산적 자본 즉 직접적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자본만을 취급한다. 우리는 나중에 유통 과정에 있는 자본으로 넘어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자본이 상업 자본으로서 취하는 특수한 형태를 고찰할 때에 가서야 비로소 상업 자본에 의하여 고용되는 노동자가 어느 정도 생산적이며 또는 비생산적인가 하는 문제에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160]. ‖XXI—1331‖

[13. 『자본론』 제1부 및 제3부의 계획초안[161]]

[a. 『자본론』 제1부, 또는 제1편의 계획]

‖ XXVIII-1140 | 제1편[162] 「자본의 생산 과정」—다음과 같이 나눌 것

1) 서론 : 상품, 화폐.

2)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3) 절대적 잉여 가치 : a. 노동 과정과 증식 과정, b.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c. 절대적 잉여 가치, d.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e. 동시적 노동일(동시에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수). 잉여 가치액과 잉여 가치율(크기와 높이?).

4) 상대적 잉여 가치 a. 단순 협업, b. 분업, c. 기계 등등.

5)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의 결합, 임금 노동과 잉여 가치 간의 상호 관계(비율).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및 실제적 종속. 자본의 생산성.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6)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역전화. 원시적 축적. 웨이크필드의 식민론.

7) 생산 과정의 결과.

(취득 법칙의 발현에서의 전환은 5에서나 7에서 고찰할 수 있다).

8) 잉여 가치에 관한 제 이론.

9)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제 이론. | XXVIII-1140 ‖

[b. 『자본론』 제3부, 또는 제3편의 계획]

‖ XXVIII-1139 | 제3편 「자본과 이윤」—다음과 같이 나눌 것

1) 잉여 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 잉여 가치율과 구별되는 이윤율.

415 2) 이윤의 평균 이윤으로의 전화.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화.

3) 이윤 및 생산 가격에 관한 A.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이론.

4) 지대(가치와 생산 가격 간의 차이의 설명).

5) 소위 리카르도의 지대 법칙의 역사.

6) 이윤율 저하의 법칙. A. 스미스, 리카르도, 케어리.

7) 이윤에 관한 제 이론.

(시스몽디와 맬더스를 이제는 『잉여 가치 학설사』에 포함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

8) 산업 이윤과 이자로의 이윤의 분할. 상업 자본. 화폐 자본.

9) 소득과 그 원천. 여기에 생산 과정과 분배 과정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포함시킬 것.

10)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에서의 화폐의 환류 운동.

11) 속류 정치 경제학.

12) 결론. 자본과 고용 노동. ‖ X V Ⅲ－1139 ‖

[c. 『자본론』 제3부 제2장[163] 계획]

‖ X V Ⅲ－1109 ‖ "자본과 이윤"을 연구한 제3부, 제2장은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취급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찰하여야 한다 :

1) 자본의 다양한 유기적 구성.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간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데, 그것은 이 차이가 일정한 생산 단계로부터, 즉 기계와 원료를 한편으로 하고 그것들을 가동시키는 노동량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간의 절대적인 양적 비례로부터 흘러 나오는 한에서 그렇다. 이 차이는 노동 과정과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유통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간의 차이도 고찰하여야 하는데, 이 차이는 다양한 분야들에서의 일정 기간의 가치증식에 변화를 가져 온다.

2) 자본의 유기적 구성으로부터 나오자 않는 각종 자본의 구성 부분들의 가치 비율에서의 차이. 이것은 그 경우에 주로 원료의 가치의 차이
416 로부터 발생하는데, 두 개의 상이한 분야에서 원료가 동일한 양의 노동을 흡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3) 상술한 바와 같은 차이의 결과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다양한 분야들에서의 이윤율의 차이. 이윤율이 동일하고 이윤량이 적용되는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일한 구성 등등의 자본에 대해서는 옳다.

4) 그러나 총 자본에 대하여서는 제1장에서 서술된 것이 타당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각각의 자본은 총 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일정한 몫으로서 나타난다.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경쟁).

5)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화. 가치와 비용 가격과 생산 가격 간의 차이.

6) 또 이 문제에 관한 리카르도의 견해의 분석을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첨가할 것 :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일반적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로부터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 XVIII－1109 ‖

주와 색인

주

1. 원고『잉여 가치 학설사』의 이 차례는 맑스가 노트 제Ⅵ~ⅩⅤ권의 표지에 쓴 것이다. 이 노트들 중 몇 개의 노트에서는 차례를 본문 자체보다 먼저 썼다. 그것은 해당한 노트에 이미 본문이 다 기록된 다음 훗날에 가서, 이미 기입된 차례를 다시 고치거나 지운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노트 제ⅩⅣ권에서는 표지에 대강 써 놓은 목차는 노트의 실제 내용과 맞추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차례는 한 개 계획으로서, 그것은 노트 제ⅩⅣ, ⅩⅤ및 ⅩⅥ권에서 수행되었다.
2. 『잉여 가치 학설사』라는 제목 앞에 맑스는 5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고 있다. 이 숫자는 맑스가 상품과 화폐를 논한『정치 경제학 비판』제1분책의 직접적 속편으로서 발표하려고 하였던, 자본에 관한 연구의 제1장 마지막 부분인 다섯째 부분을 의미한다. 노트 제Ⅰ~Ⅴ권에는 이 다섯째 부분 앞에 기본적으로 집필 완료된 다음과 같은 세 개 부분 즉 1)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2) 절대적 잉여 가치 및 3) 상대적 잉여 가치라는 부분이 있었다. 노트 제5권 184페이지에서 맑스는 "상대적 잉여 가치를 고찰한 후에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를 결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고찰은 네째 부분을 이루게 될 것이었으나, 이 부분은 당시에 집필되지 않고 말았다. 맑스는 세째 부분에서 곧 다섯째 부분 즉『잉여 가치 학설사』로 넘어 갔다.
3. 실제로는 이것은 스미스에 관한 부분의 "끝"이 아니고 "계속"에 불과한 것으로 되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노트 즉 노트 제Ⅸ권에서 끝났다.
4. 경제학자들의 반대자들에 관한 장은 노트 제ⅩⅣ권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장은 노트 제ⅩⅤ권 전반에서 다시 계속된다.
5. 맑스의 몇개의 주가 붙은, 브레이의 저서『노동에 있어서의 부정의와 그 제거 대책』(*Labour's Wrong and Labour's Remedy*)에서의 발췌는 노트 제Ⅹ권에 들어 있다.
6. 램지, 세르블리에 및 R. 존즈에 관한 장들은 노트 제ⅩⅥ권에 들어있다.

7. 소득과 그 원천에 관하여는 맑스는 노트 제ⅩⅤ권 후반에서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와 관련하여 속류 정치 경제학의 계급적 근원과 인식론적 근원을 밝히고 있다. 이 "삽입"(즉 보유)은 맑스가 『자본론』제3부에서 서술하기로 예정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1863년 1월에 작성한, 이 부분의 계획에서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9장의 제목은 「소득과 그 원천」이라고 하기로 되어 있었다(이 책 p. 463을 보라).
8. 래븐스톤에 관한 부분은 앞의 노트(제ⅩⅣ권) 861페이지에서 시작되고 있다. 노트 제ⅩⅣ권에서는 이 부분 앞에 1이라는 번호를 단 익명의 소책자 『국민적 난관의 근원과 구제책』(*The Source and remedy of the National Difficulties*)에 관한 부분이 있다.
9. 호지스킨에 관한 부분의 끝은 노트 제ⅩⅧ권(pp. 1084~1086)에 들어 있다.
10. 맑스는 속류 정치 경제학을 노트 제ⅩⅤ권에서 소득과 그 원천에 관한 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노트의 935 페이지에서 그는 "속류 경제학자들에 관한 부분"을 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의 저작에서 아직 집필되지 않은 장이다. 그 장에서 그는 겸사겸사 언급한 프루동과 바스티아 간의 논쟁에 "돌아 갈" 예정이었다. 이 지적에서 맑스가 속류 정치 경제학의 비판에 따로 한 장을 배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은 집필되지 않았다. 노트 제ⅩⅧ권에서 맑스는 호지스킨의 견해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서 "저축에 대한 이론을 반대하는 호지스킨의 논쟁을 속류 경제학자들에 관한 장에서 고찰할 것"(p. 1086)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도 역시, 맑스가 앞으로 속류 정치 경제학에 관한 특별한 장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1863년 1월에 작성한, 『자본론』 제3부의 계획에서는 마지막으로부터 둘째 장인 제11장은 「속류 정치 경제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이 책, p. 463을 보라.)
11. 맑스가 노트 제ⅩⅤ권의 목차를 쓴 이 노트의 표지에는 그 목차에 들어 가는 제목의 일부가 옆에 또는 위에 씌여 있다. 본 판의 목차에서는 이 제목들이 노트에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 순서로 배열되었다.
12. 여기에서 맑스가 「제3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일반"에 관한 그의 연구의 제3부이다. 이 장은 「자본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통일, 또는 자본과 이윤」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 후에(예컨대 노트 제Ⅸ권, p. 398과 노트 제ⅨⅠ권, p. 526를 보라) 맑스는 「제3장」대신에 「제3편」(dritter abschnit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보다 더 후에는 그는 이 제3장을 「제3부」라고 칭하게 되었다(예컨대 1865년 7월 31일 자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본 일반"을

연구하는 「제3장」의 처음 부분을 맑스는 노트 제 X VI권에 넣고 있다.

이 「제3장」 즉 「제3편」의 계획 초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 책 p. 462을 보라) 맑스는 여기서 이윤론에 관한 특별한 역사적 보유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잉여 가치 학설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맑스는 벌써 자기의 이 역사적--비판적 연구의 범위 내에서 여러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이윤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서도 상세한 비판적 분석을 가하였다. 그러므로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속에서 벌써, 잉여 가치와 이윤과의 혼동에서 나오는 이론적 착오를 가일층, 더 충분히 폭로하였다.

13. 원어로는 Arbeitsvermögen. 맑스는 1861~1863년 원고에서 거의 어디서나 Arbeitskraft 라는 술어 대신에 Arbeitsvermögen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본론』 제1권에서는 이 두 술어를 맑스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Unter Arbeitskraft oder Arbeitsvermögen verstehen wir der Inbegriff der physischen und geistigen Fähigkeiten, die in der Leiblichkeit, der lebendigen Persönlichkeit eines Menschen existieren, und die er in Bewegung setzt, so ofter Gebrauchswerte irgend einer Art produziert"(독어 제4판, p. 130). 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력 또는 노동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 유기체 속에, 즉 산 사람 속에 존재하는 또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에는 언제나 발동시키는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5년, p. 237)

우리말로 "노동 능력"이라는 표현은 독일어의 "Areitsvermögen"이라는 술어를 충분히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다. 독일어 "Vermögen"은 우리 말로 "힘"이라는 말로도 번역된다. "노동력"이라는 술어는 일반적으로 "노동 능력"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Arbeitsvermögen"이라는 말의 뜻을 전한다. 그러므로 본 판에서는 "Arbeitsvemögen"이라는 술어를 어디서나 "노동력"이라는 술어로 번역한다.

14. "자본 일반"에 관한 연구의 제2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본론』 제2권으로 되었다. 『자본론』제2권의 제10장(「고정 자본 및 유동 자본에 관한 제 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스」)에서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에 관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가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총 자본의 재생산과 유통」편에는 제19장 「대상에 관한 종전의 제 서술」에서 중농주의자들에 관한 특별한 절이 있다.

15. 맑스는 자기 원고의 두 번째 노트의 58~60페이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라는 편, 「전화 과정의 두 구성」이라는 절).

16. 맑스는 자기 원고의 노트 제Ⅲ권, 105~106페이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겸해서 중농주의자들에도 언급하고 있다(「절대적 잉여 가치」라는 편, 「잉여 노동의 성격」이라는 절).
17.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에서는 중농주의자를 "경제학자"라고 불렀다.
18. 제르멩 가르니에가 불어로 번역한 A. 스미스의 『국부론』제5권에는 "역자의 주" 즉 제르멩 가르니에의 주가 들어 있다.
19. 노(老) 미라보는 그 생존 시에 그의 한 저서의 명칭에 따라 "L'Ami des hommes" ("인간의 벗", "인류의 벗")라고 불리웠다.
20. 원고에는 이 단락이 세 단락 아래에(동일한 241 페이지에서) 있다. 이 단락은 앞뒤 단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횡선을 그어 앞뒤 본문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판에서는 이 단락을 그것이 내용 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p. 240의 마지막에 옮겨 놓았다.
21. 위에 있는 본문 11페이지와 이 부분에 대한 주 14를 참조하라.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맑스는 『케네의 경제표』라고 제목을 단 방대한 "보론"이 있는 노트 제Ⅹ권에서 중농주의자들을 다시 논하고 있다(이 책 343~383를 보라).
22. 데마고그-신성 동맹 시기 독일의 반동 분자들은 독일에서의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운동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불렀다. 1819년에 전 독일 국가에서의 "데마고그들의 음모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마인쯔에 설치되었다.
23. 쉬말쯔의 이 책의 독일어 원문은 1818년 베를린에서 『국가 경제학. 독일 황태자에게 드리는 서한』(제1부 및 제2부)(*Staatswirtschaftslehre in Briefen an einen deutcshenErbprinzen*, Teil Ⅰ und Ⅱ)이라는 표제로 출판되었다.
24. 지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에 있는 중농주의적 요소를 맑스는 노트 제ⅩⅡ권, 628~632 페이지의 「스미스의 지대론」이라는 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기 「중농주의자들」이라는 장 pp. 64~68 참조.
25.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칼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p. 47~48를 보라.
26. 리카르도의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1장 제1절을 두고 말한다.
27. 노트 제ⅩⅢ권과 제 ⅩⅣ권, 「맬더스」에 관한 장(pp. 757~781)에서 맑스는 가치 문제와 잉여 가치 문제에 대한 맬더스의 견해에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28. 맑스는 『철학의 빈곤』 불어 제1판(파리-브뤼셀, 1847년)을 인용하고 있다.

맑스 엥겔스 전집, 제4권, 러시아어 판, 1955년, p. 88(칼맑스『철학의 빈곤』,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8년, 53페이지) 참조.

29. 맑스는 자기의『발췌 노트』즉 그가 읽은 문헌들에서 발췌한 노트들 중의 하나를 인용하고 있다. 발췌 노트 제Ⅶ권 p. 173에서(노트 제Ⅶ권의 이 부분에 있는 신문 발췌에 의하여 판단하면 p. 173은 1860년 1월에 집필되었다) 맑스는 스미스의『국부론』제1부 제6장에서 인용하고 거기에 비판적 주를 달았는데 거기서 맑스는 이윤을 "기업가의 모험"에서 이끌어 내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이윤에 대한 변호론적 설명에 관한 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맑스는 "자본 일반"에 관한 자기 연구의 제3부를 위하여 그것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1861~1863년의 원고 노트 제ⅩⅣ권(p. 777)에서 맑스는, 집필해야 할 장인「자본과 임금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변호론적 설명」이라는 장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윤을 "모험에 대한 상금"으로 보는 부르조아적 관념에 대해서는 맑스는 1861~1863년의 원고 노트 제Ⅹ권에서 케네의「경제표」를 분석할 때에도 비판하고 있다(이 책 350~358를 페이지를 보라).

30. 기업가의 소득을 "감독 및 관리의 노동"의 보수로 자본가가 받은 임금이라고 보는 변호론적 견해에 대하여 맑스는 램지에 관한 장(노트 제ⅩⅦ권)과 보유「소득과 그 원천, 속류 정치 경제학」(노트 제ⅩⅤ권)에서 비판하고 있다. 또『자본론』제1권, 제1분책, 조선 노동 출판사, 1955년, 제11장 pp. 475~478와 제3권, 제1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8년, 제23장, pp. 509~521를 보라.

31. 자본의 "보다 낡은 형태" 문제에 대하여 맑스는 보유「소득과 그 원천. 속류 정치 경제학」(노트 제ⅩⅤ권 pp. 899~901)에서 고찰하고 있다. 또『자본론』제3권, 제36장,「전 자본주의적 제 관계」를 보라.

32. 앞의 주 27를 보라.

33. 앞의 주 12를 보라.『잉여 가치 학설사』의 저작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맑스는 이윤에 대한 리카르도 학파의 견해에 대하여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1861~1863년의 원고의 노트 제ⅩⅨ권의『리카르도 학파의 붕괴」라는 장에서 맑스는, 리카르도 학파인 제임즈 밀이 리카르도의 이윤론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에 이용한 스콜라 철학적 방법과, 이윤론과 임금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리카르도의 명제를 가치론에서 직접 도출하려고 한 존 스튜어트 밀의 헛된 시도에 대하여 특별히 상세히 논하고 있다.

34.『자본론』제3권 8, 9, 10장을 보라. "평균 가격"이라는 술어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를 보라.

35. 맑스는 "비용 가격"(Kostenpreis)이라는 술어를 1861~1863년의 원고에서 "평균 가격"(Durchschnittspreis)이라는 술어 및 "생산 가격"(Produktionspreis) 이라는 술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생산 가격에 대한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맑스는 때로는 이 술어들을 꼭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노트 제XI권 p. 529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von den values selbst verschiedne Durchschnittspreise—oder wir wollen sagen—*Kostenpreise*" (가치 그 자체와 구별되는 평균 가격 또는 달리 말하면 비용가격). 노트 제XII권 624페이지에서는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der Preis, der nötig ist für die supply der Ware, nötig, damit sie überhaupt wird, als Ware auf dem Markt erscheint, is of course ihr *Produktionspreis oder Kostenpreis*"("상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가격, 일반적으로 상품이 생산되고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데 필요한 가격은 물론 상품의 생산 가격 또는 비용 가격이다."). "비용 가격"은 엄밀한 과학적, 맑스주의적 의미에서는 지출된 자본에 평균 이윤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나 『잉여 가치 학설사』 원고 중에서 "비용 가격"에 관한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맑스는 "비용 가격"이라는 술어를 간혹 스미스-리카르도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맑스는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비용 가격"을 상품의 가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6. 맑스의 원고 중 노트 제XI, XII, XIII권을 차지하고 있는 리카르도에 관한 방대한 편에는 「리카르도와 A. 스미스의 비용 가격론(반박)」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 맑스는 스미스의 "자연 가격"의 개념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노트 제XI권 pp. 549~560).

37. 지대가 이윤 및 임금과는 다르게 생산물 가격의 구성에 들어 간다는 스미스의 명제를 맑스는 노트 제XII권, p. 620 「스미스의 지대론」이라는 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부터의 맑스의 인용은 가닐의 저서 『정치 경제학 체계』(*"Des systém es d'économie politique*)(파리, 1821년, 제2권, P. 3)에서 취하였다.

38. 앞의 주 12를 보라.

39. 여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맑스는 『자본론』제3권, 제49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노동자는 그의 임금으로써, 자본가는 그의 이윤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그의 지대로써 각개가 이 구성 부분들의 하나 뿐만 아니라 셋 전부를 포함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임금, 이윤, 지대의, 따라서 세 소득 원천을 합한 것의 가치 총액이, 이 소득들

을 받는 자들의 총 소비로 들어 가는 상품들—이 세 가지 구성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여분의 가치 구성 부분 즉 불변 자본을 포함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들은 세 부분의 가치로써 네 부분의 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가?(『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p. 516~517) 계속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분석은 제2부, 제3편에서 주어졌다"(같은 책, p. 518). 이것은 "사회적 총 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이라는 편을 말한다(『자본론』 제2권,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7년, pp. 459~694).

40. "포르카드, 프루동"이라는 단어는 맑스가 원고에 연필로 기록한 것이다.

『자본론』 제Ⅲ권, 제49장 주 53에서 맑스는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생산비에 첨가되는 이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프루동의 황당무계한 정식화를 비판하고 있다. 맑스는 여기서 또한 "자본의 성장에 관한 무의미한 문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류 경제학자 포르카드 씨의 시도가 황당무계함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는 이 시도를 "경솔한 부르조아적 낙관주의… 표본"이라고 낙인 찍고 있다(『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 517).

41. 이하에서 맑스는 위에서 인용한 숫자를 그대로 두고 생산 분야의 문자 표식을 바꾸고 있다(A는 제외). 기호 B와 C 대신에 맑스는 B^1–B^2(또는 B^{1-2})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 D, E, F, G, H, I 대신에 기호 C^1–C^6(또는 C^{1-6})을, 기호 K^1–K^{18} 대신에 기호 D^1–D^{18}(또는 D^{1-18})을, 기호 L^1–L^{54}대신 기호에 기호 E^1–E^{54}(또는 E^{1-54})를, 기호 M^1–M^{162}대신에 기호 F^1–F^{162}(또는 F^{1-162})를, 기호 N^1–N^{486}대신에 기호 G^1–G^{486}(또는 G^{1-486})을 사용하고 있다.

42. 'B'와 'C'라는 기호를 여기서 맑스는 p. 87 이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주 41을 보라). 여기서 맑스는 새로 첨가된 노동이 1노동일인 두 개 생산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 A, B 및 C분야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의 총계는 3노동일이다. 즉 A분야의 생산물에 체화된 노동과 같다.

43. 맑스는 여기서 문자 기호 'B'와 'C'를 두 개 생산 분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 그 생산물은 도합 6노동일에 불과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 노동일이다. 그러나 맑스는 이 기호를 역시 B^1–B^2와 C^1–C^6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여기서는 B^1–B^2는 두 개 생산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을 의미하며 C^1–C^6은 여섯 개 생산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이 8개 생산 분야의 총 생산물은 24노동일이다). 여기서 맑스는 여섯 개 생산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총 생산물은 18노동일이며 따라서 D^1–D^{18}에서 새로 첨가된 노동(역시 18 노동일이다)과 교환하며 양도될 수 있다.

44. 괄호에 넣은 부분은 맑스의 전 사고과정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맑스의 계산에 의하면 다음에 계속되는 각각의 생산 분야 그룹에서는 생산 분야의 수가 선행하는 전체 생산 분야의 총수의 2배로 된다. 예컨대 18개의 생산 분야를 포괄하는 D^1–D^{18} 그룹에서는 선행하는 전체 그룹의 총체에 비하여 생산 분야가 2배가 된다(A–1개 분야, B^{1-2}–2개 분야, C^1–C^6–6개 분야, 총계–9개 분야).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D^{1-18}이라는 기호 다음에 괄호 안에 2×9라고 쓰고 있다.

45. 여기서 맑스는 가르니에의 번역 판에서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맑스가 괄호 안에 넣어서 지적하고 있는, dealers라는 술어에 대한 설명은 가르니에의 것이다.

46. 맑스는 스미스와 투크의 이 그릇된 명제에 대하여 pp.153~54와 pp. 275~76에서 각각 비판하고 있다.

『자본론』 제2권, 제20장에서 맑스는 "연 소득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는 연 총 생산물의 유통에도 충분하다"는 스미스와 투크의 견해가, 사회적 생산물의 총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키는 스미스의 도그마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자본론』, 제2권,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7년, pp. 627~629). 또 『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제49장, pp. 515~516을 보라.

47. 이 때까지의 계산에 의하면 $5^1/_3$엘레의 아마포는 방적업자와 방직기계 제작업자의 총 불변 자본을 표시한다. 따라서 아마 재배업자의 몫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5^1/_3$엘레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양의 아마포를 출발점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맑스는 이 부정확성을 시정하고 방적업자의 불변 자본은 전체로서 4엘레의 아마포로 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48. 맑스는 여기에서 "다양한 실업가들 간에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는 실업가와 소비자 간에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를 결코 초과할 수 없다."는 스미스의 명제(투크가 이것을 받아 들였다)를 비판하고 있다. pp. 135~136을 보라.

49. 맑스는 153페이지에서 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이윤 중에서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있다.

50. 『자본론』, 제2권,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7년, pp.555~559를 보라.

51. "한편에 대하여 자본으로 되는 것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는 소득으로 되며 또 그 반대로 된다"는 부르조아적 개념을 맑스는 『자본론』 제2권,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7년, p. 577~578에서 비판하고 있다. 또 같은 책, pp. 496~505, 511

~514와 『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 515 참조.

52. 괄호 안에 넣은 단편은 원고에서는 제Ⅳ장에 속하는 p. 304에 있다. 이 단편의 첫 머리에 있는 "300페이지에로"라는 맑스의 지적에 따라서 이 단편을 제Ⅲ장에 옮겨 놓았다. 원고의 p. 300에는 "선행자들에 대한 보충"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세이에 관한 단편이 있다. 이 단편들을 대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즉 p. 304에 있는 단편은 "판매되는 생산물의 가치가…어떻게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서 끝나고 있다는 그것이다. 세이에 관한 단편의 마지막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답 즉 "오직 첨가된 노동으로써만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이… 이 생산물의 대가를 지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p. 304에 있는 이 단편을 제Ⅲ장의 10개 절의 결론적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세이에 관한 단원의 앞에 놓았다.

53. 앞의 주17을 보라.

54. 맑스는 "임금의 자연율"이라는 스미스의 개념에서의 악순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맑스가 이미 위에서 논하였다(p. 103를 보라.)

55.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52 이하를 보라.

56. 스미스의 모순들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하는 단편은 본 판에서는 결론적 지적으로서 제Ⅲ장의 마지막에 놓았다. 이것은 이 단편이 맑스의 원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합치하는데 이 단편의 바로 뒤에 다음 장의 첫 행이 있다.

57.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은행업자들과 그들의 기생적 역할에 관하여는 『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p. 21~22. 58, 66~67, 115~116을 보라.

58. 노동 생산성 증대의 처음 조건으로서의 자본의 집적에 관하여 맑스는 자기의 원고 노트 제Ⅳ권, pp. 171~172에서 언급하고 있다.(「상대적 잉여가치」라는 편, 「분업」이라는 절).

59.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1961년 국역 판에는 맑스가 상기시키고 있는 페티의 말의 인용이 p. 123, 129에 있다.

60. 영국 작가 맨더빌의 풍자 작품 『꿀벌 이야기. 또는 사적 죄악과 공적 이익』(*The Fable of the Bess, or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을 말한다. 이 작품의 제1판은 1705년에 나왔고 제5판은 1728년에 나왔다.

61.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의 번역은 맑스가 자기의 발췌장에서 대비난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킨 것이다. 본문에 있는 대비난트로부터 모든 인용문은 이 발췌장에서 취하였다(이 발췌장의 표지에는 『맨체스터, 1845년 7월』이라고 맑스가 쓴 것이 있다).

62. 맑스는 여기에서는 윌리암 페티의 『조세와 공납에 관한 논술』을 샤를 가닐의 저서 『정치 경제학의 제 체계』(*Des systèmes d'économie politique*) 제2권, pp. 36~37 (파리, 1821년)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이 가닐의 불어판으로 인용되어 있었다. 이 발췌문의 불어판 본문은, 맑스가 자기의 원고 노트 제ⅩⅩⅡ권에서 영어로 인용하고 있는 영어 원문과 약간 다르다(이 책, p. 399~400).

63. 원고에서는 가르니에로부터의 이 인용문 다음에 본론에서 떨어진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방대한 부분(원고 pp. 319~345)과 맬더스에 관한 짤막한 지적(pp. 345~346)과 페티에 관한 짤막한 보유(pp. 346~347)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되고 있다: "가르니에의 견해를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서 에피소드적으로[즉 보유로서] 위에서 언급한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하여 약간 서술하자. 여기에서 내가 언급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리카르도의 잉여 가치론을 취급하게 될 나중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아직 A. 스미스를 고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노트 제ⅩⅣ권의 내용(이 책 p. 38를 보라)과 또한 이 노트의 본문 자체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부분은 「리카르도 학파의 붕괴」라는 장 속에 들어 있다. 이상 모든 것에 근거하여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보유는 본 판에서는 『학설사』 제3부 속에 들어가는 상술한 장에 옮겨 놓았다. 맬더스에 관한 지적은 맬더스에 관한 장에 옮겨 놓았고 페티에 관한 보유는 pp. 212~214에 넣었다. 원고에서는(노트 제Ⅶ권, p. 347) 이상과 같이 본론에서 떨어져서 서술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이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자. 가르니에. 노트 Ⅶ권, p. 319를 보라". 그 다음에 pp. 199~200에 수록한 가르니에의 견해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64. 지금까지 맑스는 x라는 문자로 사용 가치라고 보는 생산물을 표시하였으며, z라는 문자로 생산물의 가치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맑스는 문자 표시를 바꾸고 있다. 즉 그는 x로는 가치를, z로는 사용 가치를 표시하고 있다. 본 번역에서는 어디서나 맑스가 처음에 채택한 문자 표시를 쓴다.

65. 이 구절은 제르멩 가르니에에 관한 절에 대한 추가인데, 노트 제Ⅸ권에서 취하였다. 거기에서는 가르니에에 관한 절이 세이에 관한 절과 데스튜트 드 트라시에 관한 절 사이에 있다. 맑스는 가르니에의 책 『정치 경제학 원리 개요』(*Abrégé élémentaire des principes de l'économie politique*)를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책 『이데올로기의 제 요소』 제4부 및 제5부(*Elémens d'idéologie.* Ⅳ-e et V-e parties), pp. 250~251에서 인용하고 있다.

66. 「쉬말쯔」라는 공통된 제목 하에 있는 네 개 구절은 노트 제Ⅸ권의 맨 마지막에 들어 있는 추기이다. 그것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같은 노트 400페이지(이 책 pp. 220~222을 보라)에 있는 가르니에에 관한 보충적 지적에 대한 추가이다.

67. 부에 대한 카나르의 이 규정을 맑스는 가닐의 책 『정치 경제학의 체계』(*Des systèmes d'économie politique*) (제2판, 제1권, p. 75)에서 인용하고 있다. 카나르의 책에는 이 규정이 4페이지에 있다.

68. 가닐의 이 주장은 그의 저서 『정치 경제학의 체계』(제2판, 파리, 1821년) 제1권, p. 213에 있다.

69. 엄밀히 말하면 기계의 가치는 그것이 460파운드 스털링(150+310)과 동등한 나머지 자본 부분의 4배라는 전제 하에서는 1,840파운드 스털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계산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약 1,6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숫자를 취하고 있다.

70. 맑스는 여기서 리카르도의 『원리』 제26장에 대한 세이의 주를 가닐의 책(제1권, p. 216)에서 인용하고 있다.

71. 앞의 주 17을 보라.

72. 맑스는 가닐의 책 제1권의 페이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이 책에서 리카르도의 『원리』 제26장을 인용하고 있다(콘스탄시오의 불어판으로). 그 다음에 즉 원고 377 페이지에서 맑스는 리카르도의 『원리』에서 같은 곳을 다시 인용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영어로(영문 제3판에 의하여) 또 더 완전한 형태로 인용하고 있다(이 책 p. 249를 보라).

73. 맑스는 여기서 리카르도의 『원리』의 제26장에서 처음으로 콘스탄시오의 불어 번역으로(가닐의 책, 제1권, p 214에서) 인용하고 다음에 영어 원문으로(제3판, p. 416에서) 인용하고 있다.

74. 원고에는 그 다음에, 연필로 지운 4½ 페이지(pp. 372~376)가 있는데 거기에서 맑스는, 리카르도가 인용한 "2만 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을 가진 사람"의 실례에 있는 숫자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맑스는 이 숫자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경우에는 2만 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의 소유자가 100명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생산된 상품을 1만 파운드 스털링에 판매한다. 다른 경우에는 그가 1,000명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생산된 상품을 2만 파운드 스털링에 판매한다. 리카르도는 이 두 경우에 2만 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의 이윤은 동일하게 2,000파운드 스털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맑스는 세밀한 계산

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명제를 내놓고 있다:"설명하기 위한 실례에서의 전제는 자체 모순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 전제는, 현실적인 전제, 현실적인 가정으로 되고 전제로 된 불합리성, 가정적인 비현실성 및 불가능성으로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p. 373). 리카르도가 인용한 실례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또한, 이 실례에서는 다만 채용된 노동자의 수만이 지적되고 두 경우에 생산되는 총 생산물의 양은 지적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경우를 좀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맑스는, 노동자 수와 생산된 생산물의 양을 표시하는 보다 적합한 숫자를 선택하고 해당의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두 경우 중 각각의 경우에 노동자가 임금의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량의 계산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계산하기를 중지해 버렸다. 원고에서 지운 부분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p. 376에서):"이런 계산은 집어 치워야 한다. 이런 리카르도 식의 어리석은 짓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75. 맑스는 앞으로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10이라는 개략적 숫자를 취하였다. 본문에서 취한 숫자에 있어서(14개의 상이한 형태의 고정 자본의 회전 기간 총계로서의 110년) 고정 자본의 평균회전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면 (전체 14개의 상이한 형태의 고정 자본이 그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10년이 아니라 7.86년에 불과하다.

76. 이 "간주곡"에서 언급된 문제들 중 몇 개 문제는 맑스가 케네의 "경제표"를 분석할 때에 자기의 원고노트 제Ⅹ권에서 다시 취급하고 있다(이 책 제6장을 보라). 위에서 제기된 두 개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대답은『자본론』제2권(특히 제20장, 제10절「자본과 소득, 가변 자본과 임금」과 제21장「축적과 확대 재생산」)에 있다.

77. 앞의 주 12를 보라.

78. 다음의 부분을 말한다:"어떤 나라에 유통되고 있으며, 그 토지와 노동의 연생산물의 유통 수단으로 되며 또 적당한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되는 금과 은은 개별적 상인의 현금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본이다. 나라의 이 가장 귀중한 자본 부분은 나라를 위하여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1935년, 제1권, p. 270).

79. 맑스는 자기의 원고 노트 제ⅩⅣ권(이 노트는 본판 제3부에 들어있다)에서

맬더스의 견해를 분석한 다음 두 개의 익명의 저작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리카르도학파적 입장에서 맬더스를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리카르도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맬더스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 첫째 책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최근 맬더스씨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그 원리로부터 세금과 비생산적 계급의 유지는 부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런던, 1821년(*An Inquiry into those Principles, respecting the Nature of Demand and the Necessity of Consumption, lately advocated by Mr. Malthus, from which it is concluded, that Taxation and the Maintenance of Unproductive Consumers can be conducive to the progress of Wealth:*, London, 1821)(문헌 색인을 보라). 둘째 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정치 경제학 개론』, 런던, 1832년(*Outlin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32).

80. 맑스는 레싱의 『함부르그 극문학』(1767~1768)에 있는 볼테르에 대한 레싱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81. 『앙리아드』—프랑스 왕 앙리 4세에 관한 볼테르의 서사시. 1723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82. 승려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본론』, 제1권, 제23장, 주75를 보라.

83. 이 장에서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일반 이론적 견해를 고찰하고 있다.

84. 맑스는 자기의 저작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의 「화폐 퇴장」이라는 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페티의 『정치 산수』에서 인용하고 있다. 맑스는 이 책 pp.188~189에서 이 인용에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스미스가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자의 견해로 돌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85. 맑스는 스미스의 『국부론』, 제2권, 제3장의 마지막 6개 단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스미스는, 소득의 어떤 지출 형태가 사회적 부의 성장을 많이 촉진하며 어떤 것이 적게 촉진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것은 소비품의 각종 성질에 의존하며 그 견고성의 정도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미스의 이 견해에 대하여 맑스는 위에서 즉 p. 298, 데스튜트 드 트라시에 관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86. 노트 제V권, 원고 p. 181(제1장, 제3절:「상대적 잉여가치」와 「분업」이라는 소절)에서 맑스는 렝게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들"(날품팔이 노동자들)"불안스럽게 주시하는 탐욕스러운 관리자는 그가 조금만 쉬어도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또 만약 그가 잠깐이라도 휴식하면 제 것을 훔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S. N. 렝게, 『민법 이론』, 런던, 1767년

(S. N. Linguet, 『*Théorie des Lois Civiles*』, Lcndres, 1767) 제2권, p. 466].

바로 이 부분을 맑스는 노트 제X권, 원고 p. 439, 렝게에 관한 장(이책 p. 389을 보라)에서 인용하고 있다. 『자본론』제1권에서는 이 부분이 축소되어 제8장의 주39로서 인용되고 있다(『자본론』, 제1권, 제I분책, 조선 노동당출판사, 1955년, p. 329을 보라).

87. 맑스는 렝게에 관한 장을 네케르에 관한 장 다음에 놓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시간으로 보면 렝게의 저서 『민법 이론』(*Théorie des Lois Civiles*)(1767년)은 여기서 맑스가 고찰하고 있는 네케르의 두 저서 즉 『곡물법과 곡물 거래에 관하여』(*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1775년)와 『프랑스의 재정에 대하여』(De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de la France)(1784년)보다 앞서고 있다. 맑스가 자료를 이렇게 배열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격을 이해하는 면에서 렝게의 저서는 네케르의 상기 저서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88. 맑스는 여기서 쉬말쯔, 『정치 경제학』, 앙리 쥬프루아에 의한 독일어에서의 번역, 제1권, 파리, 1826년, 329페이지에 있는 "경제표"의 서술을 이용하였다.

맑스는 노트 제VI권, pp. 241~242에서 쉬말쯔의 견해를 비판하였다(이 책 pp. 72~74을 보라).

쉬말쯔의 저서에서 인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노트 제IX권의 맨 마지막 p. 421에 있다(이 책 pp.220~222을 보라). 원고의 그 다음 페지(노트 제X권 p. 422)에서 맑스는 케네의 "경제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보론"으로 넘어 갔는데 맑스는 그것을 쉬말쯔의 책에 의하여 주고 있다.

거의 모든 "보론"(원고 pp. 422~437)에서 맑스는 자기가 언급한 저자의 저서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보론"의 마지막 페이지(p. 437)에서 스미스를 인용하고 또 프루동으로부터의 발췌가 있을 뿐인데 이 발췌는 원고에서 프루동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p. 428)에 해당한다고 지적되어 있다(맑스의 이 지적에 따라서 프루동으로부터의 발췌는 이 책에서는 424페이지에 수록되었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 맑스가 "보론"을 집필할 때에 그의 수중에는 케네와 기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저자들의 저서가 없었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다. 거의 모든 "보론"(437페이지에 있는 스미스와 프루동으로부터의 인용 이전의)은 1862년 4월 맨체스터에 있을 때에 집필하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노트 제XXIII권, pp. 1433~1434:에 있는 중농주의자에 대한 보충적 지적에서 맑스는, 케네의 저서 『경제표 분석』(*Analyse du Tableau Economique*)에

있는 형태대로 『경제표』를 인용하고 있다(이 책 p. 424를 보라). 1863년 7월 6일 자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맑스는 이와 꼭 같은 형태로 『경제표』를 인용하고 있다.

89. 맑스가 여기서 사용한 문자 기호(와 문자에 붙은 부호)는 쉬말쯔에게도 케네에게도 결여되어 있는 명료성을 이 『표』에 부여한다.

두 문자(ab, ac, cd 등등) 간의 매개 선의 표시는 그 선의 방향을, 즉 이 선이 어느 계급에서 어느 계급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그 방향은 그 문자의 알파베트 순에 따라 결정된다. 즉 ab, ac, cd…). 예컨대 선 ab는, 토지 소유자 계급과 "생산적 계급"(차지 농업가) 간의 유통이 소유자 계급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소유자 계급은 식료품을 차지 농업가에게서 산다)는 것을 표시한다.

두 문자 간의 매개 선의 표시는—그 선의 시초와 그 종말에서—동시에 화폐의 운동과 상품의 운동을 표시한다. 예컨대 선 ab는 화폐의 운동을 표시한다(토지 소유자 계급은 10억의 화폐를 생산적 계급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본 이 선(ba)은 상품의 운동을 표시한다(생산적 계급은 소유자 계급에게 10억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양도한다).

절선(折線) abcd는 다음과 같은 고리들로 이루어진다:1) ab 부분, 토지 소유자들과 생산적 계급 간의 유통을 표시한다(소유자들은 10억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차지 농업가에게서 구매한다); 2) ac 부분, 소유자들과 비생산적 계급인 공업가 간의 유통을 표시한다(소유자들은 10억에 해당하는 공업 제품을 공업가에게서 구매한다); 3) cd 부분, 비생산적 계급과 생산적 계급 간의 유통을 표시한다(공업가는 10억에 해당한 식료품을 차지 농업가에게서 구매한다).

선 a′b′ 는 생산적 계급과 비생산적 계급 간의 유통을 표시한다(차지 농업가는 10억에 해당한 공업 제품을 공업가에게서 구매한다).

선 a′b′는 비생산적 계급과 생산적 계급 간의 종결적 유통을 표시한다(공업가는 10억에 해당하는,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차지 농업가에게서 구매한다).

90. 맑스는 노동력을 유일한 상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첫째의미에서의 상품 소유자" 즉 "노동력 자체와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상품 소유자에게 대립시키고 있다(p. 181 및 p. 185 참조).

91.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 제2장, 제3절 「화폐」의 첫 두 단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p. 120~122를 보라).

92.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

다:"상품 소유자가 구매자로서 지출한 화폐는 그가 새로 상품판매자로서 나타나자마자 그의 수중으로 돌아 온다. 그리하여 상품 유통의 부단한 갱신은 화폐가 부르조아 사회의 전 표면에서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부단히 옮아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다수의 다양한 소순환을 그리면서 무한히 다양한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일한 점으로 복귀함으로써 새로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데에 반영된다"(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94)

93. 이 책 pp. 296~311. 또 『자본론』, 제2권 제13절,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론」을 보라.

94. 브레이에 관한 절은 노트 제Ⅹ권, 원고 pp. 441~444에 있다. 이 절은 완결되지 않았으며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화폐 유통 문제에 관한 브레이의 견해는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화폐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브레이의 견해에 관하여서는 맑스의, 1847년의 원고 『임금』(『맑스-엥겔스 전집』, 러시아어판, 제2판, 제6권, p. 584):『정치경제학 비판 개요』(*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모스크바, 1939년), p. 55, 690, 744:1858년 4월 2일 자 엥겔스에게 보내는 맑스의 편지; 『정치 경제학 비판』(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78)을 보라.

95. 그다음에 노트 제Ⅹ권, p. 428 및, p. 437에서 맑스는 이 문제에 관한 프루동의 견해를 간단히 특징 짓고 있다(이 책 p. 362을 보라).

96. 괄호 안에 넣은 말은 맑스가 후에 전개하려고 예정한 사상을 기입한 것이다. 맑스는 틀림 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 문제에 대한 케네의 변호론적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들의 선조가 처녀지를,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었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맑스가 집필한 『반 듀링론』, 제2편, 제10장에서 중농주의자의 이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자연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의 본래의 직능은 바로 '그들의 상속분의 양호한 관리와 이것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avances foncieres, 즉 토지를 준비하고 차지 농장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정비하여 차지 농업가로 하여금 자기의 전 자본을 오직 본래의 농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출에 있다"(『반 듀링론』,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5년, p. 330).

97. 노트 제ⅩⅤ권, 원고 pp. 935~937에서 맑스는, 프루동이 "신용의 무보상성"에서 전개한, 화폐 자본의 역할과 이자의 본질에 관한 그의 비속한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또 『자본론』, 제3권, 제1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8년, pp.

459~462를 보라.

98. 맑스는 이 문제를 『자본론』, 제2권—제17장:제20장, 제5절 및 제12절:제21장 (특히 제1절, 1) 「화폐 퇴장」에서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99. 바로 위의 주를 보라.

100. 맑스는 케네의 책에 등장하는 세 계급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즉 P—토지 소유자 계급(classe des Proriétaires), S—비생산적 계급(classe Stérile), 공업가, F—차지 농업가, 생산적 계급(Fermiers, classe productive).

101. 앞의 주 89를 보라.

102. 앞의 주 89를 보라.

103. 맑스는 여기서와 또 그 이하에서, 농업 총 생산물의 5분의 1만이 유통에 들어가지 않고 "생산적 계급"에게 현물 형태로 이용된다는 케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맑스는 노트 제ⅩⅩⅢ권, 원고 pp. 1433~1434와 또 그가 집필한 『반 듀링론』, 제2편, 제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하고 있다. 이 장에서, 농업에서의 유통 자본의 보상에 대한 케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특징짓고 있다 :"따라서, 50억의 가치의 총 생산물은 일체 생산 계급의 수중에 있다, 즉 우선, 100억의 고정 자본에 대응하는 연 20억의 유동 자본의 지출에 의하여 이것을 생산한 차지농업가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유동자본의 보상을 위하여, 따라서 또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 생활 자료나 원료 등은, 현물로(in natura) 총 수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새로운 농업 생산에 지출된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가격에 변동이 없고 또 단순 재생산이 어떤 일정한 규모의 것이라고 가정되고 있으므로, 총 생산물 중에서 미리 제외된 이 부분의 화폐 가치는 20억 리브르에 상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반 유통 가운데는 들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유통은 그것이 매개의 개별적인 계급의 한계 내에서만 행해지고 계급과 계급 간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한, 경제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반 듀링론』,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5년, p. 326).

104. 맑스는 보도의 해설서 「경제표 해설」(Explication du Tableau Economique) (E. 데르의 서론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2부, 파리, 1846년, pp. 822~867에 수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

105.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부를 말한다.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101를 보라.

106. 케네의 경제표에 있는 10억 뚜르 리브르 대신에 맑스는 여기서 단순히 수천 화폐 단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107.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94를 보라.

108. 앞의 주 93을 보라.

109. 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94를 보라.

110. 앞의 주 98를 보라.

111. 노트 제XIV권 및 제XV권(원고 pp. 852~890)에는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치 경제학자들을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에서 반대한 사람들"이라는 장이 있다. 바로 이 장에 속하는 것이 완결되지 않는 노트 제X권 (pp. 441~444)와 브레이에 관한 절과 노트 제XVIII권(pp. 1084~1086)의 호지스킨에 관한 절의 마지막 부분이다.

112. 렝게, 『민법 이론, 또는 사회의 기본 원리』(*Linguet. 『Théorie des Lois Civiles. ou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Société』*)(런던, 1767년) 제1권, p. 36.

113. 페티의 일부 견해에 관하여서는 맑스가 이미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장에서, 즉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별하려는 초기의 시도에 언급한 바로 그 부분에서 말하였다.(이 책 pp. 195~197를 보라).

114. 『자본론』, 제1부의 마지막 장인 제9장을 말하는데 그것은 노트 제XVIII권 1140 페이지에 대강 적어 놓은 맑스의 계획에서 예견되었었다(이 책 p. 462의 『자본론』 제1부의 계획을 보라).

115. 1662년 처음으로 출판된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116. 노스의 『무역에 관한 강의』(*Discourses upon Trade*)와 로크의 『이자의 인하 및 화폐 가치의 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을 말한다. 이 두 저서는 1691년에 집필되었고 런던에서 출판되었는데 첫째 책은 1691년에, 두 번째 책은 1692년에 출판되었다.

117. 이 저서는 『이자의 인하 및 화폐 가치의 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1691년)이라고 불리운다.

118. 맑스는 여기서 로크를 매시의 저서 『자연적 이자율을 결정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An Essay on the Governing Causes of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pp. 10~11 에서 인용하고 있다. 로크의 저서 1768년 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2권 p. 24에 있다.

119. 맑스는 1861~1863년 원고의 「보충 노트」(Beihefte)의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1863년 5월 29일 자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쓴 바와 같이 1863년 봄에 그의 저작의 "이미 집필된 부분과 관련된 정치 경제학 문헌사에 관한 발췌를 하였다."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보충 노트 A, B, C, D, E, F, G, H이다. 노스의 저작으로부터의 발췌는 보충 노트 C의 pp. 12~14를 차지하고 있다.

120. 원고에서는 여기에 적용하는 "1688년으로부터"라고 씌여 있었으나 그 다음에 1688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자기 원고 노트 제XI권 pp. 507~508에서 맑스는 1641년 이래의 밀 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1641~1649년의 밀 평균 가격이 1쿼터당 60실링 $5^{2}/_{3}$페니였으나 17세기 하반기에는 평균 가격이 44실링 $2^{1}/_{3}$페니로 저락되었고 18세기 상반기에는 1쿼터당 35실링 $9^{29}/_{50}$페니까지 떨어졌다.

121. 아마 맑스는 페티의 『정치 산수』(1676년) 제9장 중에서 로드베르투스에 관한 절(원고 노트 제XI권, p. 494)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 272의 다음과 같은 부분 즉 "페티와 대비난트의 시대에는 개량 및 개간에 대하여 농촌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의 원성이 있었다. 좋은 토지에서의 지대의 감소…"를 보라.

122. 이 인용문은("거지로부터 시작하자"라는 문구로부터 시작하는) 1861~1863년의 원고 노트 제XXIII권 p. 1419의 맑스의 지적에 따라서 보충 노트 C,pp. 12~13에서 취하였다.

123. 보충 노트 C의 p. 14에는 노스의 저서에서의 발췌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스는 나라의 화폐 유통에서의 "간만(干滿)"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맑스는 이 발췌들 중의 하나를 『자본론』 제1권, 제3장 주95에 인용하고 있다.

124. 이 앞에서 매시는 페티의 『정치 산수』 및 로크의 『이자의 인하 및 화폐 가치의 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에서 인용하고 있다.

125. 맑스는 여기에서(약간 압축하여) 경제표를 케네의 『경제표 분석』(*Analyse du Tablear economique*) (데르 판, 제1부, p. 65)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인용하고 있다.

126. 앞의 주 103을 보라.

127. 이 견지를 중농주의자 보도는 자기의 「경제표 해설」(Explication du Tableau Economique), 제3장, 12절(데르 판, 제2부, pp. 852~854)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128. 이러한 표제 하에서 데르 판 제1부에서는 케네에 속하는 두 개 대화 즉 「상

업에 관하여. H 씨와 N 씨 간의 첫 대화」(Du Commerce. Premier dialogue enfre M. H. et M. N.)와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하여. 둘째 대화」(Sur les travaux des artisans. Second dialogue)가 결합되어 있다. 맑스가 인용한 것은 첫 대화에서 취한 것이다.

129. 맑스가 인용한 인용문은 듀퐁 드 네무르의 『새로운 과학의 기원과 성과에 관하여』(*De l'origine et des progrés d'une science nouvelle*)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이 책에 속하는 『케네박사의 명제. 또는 그의 사회 경제학 기본 원리 개요』(*Maximes du docteur Quesnay, ou Résumé de ses principes d' économie sociale*)에 있다.

130. 이 인용은 케네의 『상업에 관한 대화』(*Dialogue sur le commerce*)에서 취하였다.

131.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한 대화』(*Dialogue sur les travaux des artisans*)에서.

132. 『케네 박사의 명제』(*Maximes du docteur Quesnay*)에서

133. 맑스는 리카르도의 『정치 경제학 원리』, 제26장(총 소득과 순 소득에 관하여)을 염두에 두고 있다.

134. 맑스는 보충 노트 A(앞의 주 119를 보라) pp. 27~32에 있는 듀 뷰아의 저서로부터의 자기의 발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맑스의 그후의 인용에서는 보충 노트의 페이지를 지적하지 않고 듀 뷰아의 저서 그 자체의 페이지를 지적하고 있다.

135. "잉여 가치의 광신자"인 영에 관하여서는 『자본론』, 제1권, 제7장 주34를 보라.

136. 앞의 주 133을 보라.

137. 맑스가 여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익명의 저서의 저자는 존 그레이(John Gray)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후에 판명되었는데 그의 생존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1802년에 이 저자는 런던에서 소득세에 관한 책을 또 발표하였다.

138. 맑스는 자기의 보충 노트 H(앞의 주 119를 보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 보충 노트 H의 pp. 32~33에 있는 익명 저자의 저작 p. 6으로부터의 발췌는 거의 전부 본문의 다음 단락에 있다.

139. 영국의 익명 저자가 "매뉴팩처리스트"(manufacturers)라고 한 것은 매뉴팩처 노동자(그는 이것을 때로는 "labouring manufacturers"—"노동하는 매뉴팩처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다)의 의미로도 또 산업가—기업가(그는 이것을 때로는 "masters employers"—"주인—기업가"라는 술어로 표현하고 있다)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수공업자"(artificers)라는 술어는 이 저자에 있어

서는 임금 노동자와 본래의 의미에서의 수공업자를 다 포괄한다.

140. 앞의 주17을 보라.

141. 크라운은 5실링의 주화이고, 파싱은 1/4페니이고, 기니는 21실링이다.

142. 보충 노트 H의 pp. 36~37에는 익명 저서의 pp. 31~33에서 한 발췌가 있다.

143. 보충 노트 H의 pp. 38~39에는 익명 저서의 pp. 51~54에서 한 발췌가 있다. 맑스의 그 후의 인용에서는 보충 노트의 페이지를 지적하지 않고 익명 저서 자체의 페이지를 지적하고 있다.

144. 맑스는 자기의 원고(노트 제XXIII권) 1446페이지에서 중농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베아르데 드 라베이의 저서 『세금 폐지 방법의 연구』(암스테르담, 1770년)(『*Recherches sur les moyens de supprimer les impôts*』, Amsterdam, 1770)에 언급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한 발췌한 보충 노트 H의 pp. 10~11에 있다.

145. 이 마지막 두 단락에서는 맑스가 분석하고 있는 저서(이 책의 pp. 38~39)에서 한 인용문에 가한 그의 몇 개의 삽입문의 배열을 약간 변경하였다. 맑스는 압축된 형태로 인용하고 있다. 생략된 말들은 인용된 저서에 의하여 재생하였는데, 그것이 없이는 익명 저자의 논의에 대하여 가한 맑스의 비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6. 『아일랜드의 차지권』에 관하여서는 1858년 7월 11일 자 신문 『뉴욕연단』에 실린 맑스의 논문을 보라(맑스-엥겔스 전집, 러시아어판 제2판, 제9권, pp. 161~167).

147. 맑스는 「자본의 생산성.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절의 바로 앞에 있는 「자본에 관한 노동의 형식적 및 실제적 예속. 과도적 제 형태」라는 절(노트 제XXI권; pp. 1306~1316)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및 실제적 예속에 관하여는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6년, pp. 184~187 및 pp. 497~499를 보라.

148. 맑스는 이미 자기의 저작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1859년)에서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생산 관계의 신비화가 특히 화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 귀금속 형태의 물신(物神)으로서의 부의 결정화가 부르조아적 생산에 고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1년 p. 39 및. 159를 보라). 맑스는 부르조아적 사회 관계의 물신화 과정을 노트 제XXV권, pp. 891~899과 pp. 910~919에서 분석하고 있다.

149. 『자본론』, 제1권, 제13장의 주 108에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본가

가 과학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자본은 그것이 타인의 노동을 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과학을 점유한다. 그러나 과학이든 물질적 부이든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점유와 '개인적 점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유어 박사 자신 기계를 사용하는 그의 친애하는 공장주들이 기계학에 관하여 도무지 견식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였으며…"

150. 맑스는 1861~1863년의 원고의 1318페이지를(마지막 9행을 제외하고) 노트 제XXI권에서 잘라 내어 『자본론』 제1권의 마지막으로부터 두번째 대안의 원고 p. 490에 첨부하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마지막으로부터 두 번째 대안의 제6장은 『맑스 엥겔스 문고』, 제2권(7), (1933년)에 발표되었다]. 그 이후의 본문 p. 1318, p. 1319와 그리고 p. 1320의 절반을 맑스는 이윤에 관한 절에 이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원고의 여백에다(p. 1318 마지막과 p. 1320 처음에) 두 차례 "이윤"이라고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151. 수학에서 증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희랍 문자 Δ를 맑스는 여기에서 잉여 가치를 표시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본문에서 맑스는 라틴 문자 h를 그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52. 여기에서와 또 그 이하에서도 맑스는 잉여 가치를 표시하는데 라틴 문자 *x* 를 사용하고 있다.

153. 맑스는 「자본과 노동 간의 교환. 노동 과정. 가치 증식 과정」(노트, 제1권, pp. 15~53)이라는 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의 통일(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pp. 49~53)이라는 장이 있다.

154. "노동력의 가치. 임금의 최소한, 또는 평균 임금"(노트, 제1권, pp. 21~25)과 "임금과 노동력간의 교환"(같은 노트 pp. 25~34)을 말한다. "노동의 가격"에 관한 문제를 맑스는 노트, 제XXI권, pp. 1312~1314에서 다시 논하고 있다.

155. 로마법에 관한 계약 관계의 네 가지 공식. 『자본론』, 제1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6년, p. 228 참조.

156. 맑스는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1327" 대신에 "1328"이라고 썼다.

157. 앞의주 133을 보라.

158. 칼 맑스, 『자본론』, 제3권, 제2분책,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9년, pp. 493~509를 보라.

159. 공장에서의 막노동자의 노동에 관하여 맑스는 같은 노트(제XXI권), p. 1308에 쓰고 있다.

160. 『자본론』, 제2권 제6장과 제3권 제17장을 보라.

161. 맑스는 이 계획 초안을 1863년 1월에 썼다. 그것은 1861~1863년 원고 노트, 제XVIII권의 세르블리에와 리처드 존즈에 관한 장 중에 있다.(이것은 원고에서는 굵은 꺽괄호로써 본문과 구별되고 있다).

162. 『자본론』의 세 개 이론 부분을 맑스는 처음에는 "장", 다음에는 "편", 마지막으로는 "부"라고 칭하였다. 앞의 주 12참조.

163. 이 계획을 집필할 때에는 『자본론』, 제3부, 제1장은 이미 1861~1863년 원고 노트, 제XVI권에 그 초고가 씌여 있었다. 제3부, 제1장의 제목은 노트 XVI권에 "잉여 가치와 이윤"이라고 정식화되어 있다.

문헌색인

가닐, 『정치 경제학 이론』, 제 I 및 제 II권, 파리, 1815년.(Ganilh, Charles. 『*La théorie de l'économie politique*』. Tome I et II. Paris 1815). –213

가닐, 『정치 경제학의 체계, 그 학설들의 가치 비교, 그 중 부의 성장에 가장 유리한 학설에 관하여』, 제2판, 제1및 제2권, 파리, 1821년. (Gahilh, Charles. 『*Des systèmes d'économie politique, de la valeur comparative de leurs doctrines, et de celle qui paraît la plus favorable aux progrès de la richesse*』, Seconde èdition. Tome I et II, Paris, 1821).–203~12, 215, 220~23, 229~30

[가르니에] 『정치 경제학 원리 개요』, 파리, 1796년. ([Garnier, Germain] 『*Abrégé élémentaire des principes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1796). –202

가르니에, 「역자의 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제르멩 가르니에의 주와 평주가 붙은 새 번역. 제5권, 파리, 1802년. (*Garnier, Germain.* 「Notes du traducteur」. In : Smith, Adam. 『*Recherches sur la nature et les causes de la richesse des nations*』. Traduction nouvelle, avec des notes et observations, par Germain Garnier. Tome cinquième. Paries, 1802).–63~64, 183~87, 198~202, 265

[노스] 『동인도 무역에 관한 고찰』, 런던, 1701년. ([North, Dudley.] 『*Considerations upon the East-India trade*』, London, 1701).–179

[노스] 『무역에 관한 강의』. 런던, 1691년. ([North, Dudley.] 『*Discourses upon trade*』. London, 1691).–368~71

네케르 「곡물법과 곡물 거래에 관하여」 (1775년). 『네케르 전집』(제4권, 로잔느, 1785년) 중에 수록. (Necker. 「Sur la lè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1775). In : 『*Oeuvres de Necker*』 Tome quatrième. Lausanne, 1786).–305, 307

네케르「프랑스의 재정에 대하여」(1784년). 『네케르 전집』(제2권, 로잔느 및 파리, 1789년) 중에 수록. (Necker. 「De l'administration des finanes de la France」, 1784. In : 『*Oeuvres de Necker*』. Tome deuxième. Lausanne et Paris, 1789).–305~307

『동인도 무역론』–[대비난트]의 『동인도 무역론』을 보라.

듀퐁「새로운 과학의 기원과 성과에 관하여」(1767년). E. 데르의 서문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 (Dupont de Nemours. 「De l'origine et des progrès d'une science nouvelle」, 1767.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ère partie Paris, 1846). –380

듀퐁「케네 박사의 명제. 또는 그의 사회 경제학 기본 원리 개요」. E. 데르의 서문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 (Dupont de Nemours. 「Maximes du docteur Quesnay, ou Résumé de ses principes d'économie sociale」.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ère partie. Paris, 1846).–380

[대비난트]「동인도 무역론」(1697년). 『사회적 소득과 영국 무역에 관한 고찰』, 제2부(런던, 1698년)에 수록. ([Davenant, Charles.] 「An Essay on the East-India trade」(1697). In : 『*Discoures on the public revenues, and on the trade of England*』, Part Ⅱ, London, 1698)」–178~79

[대비난트]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술』, 런던, 1699년. ([Davenant, Charles.] 『*An Essay upon the probable methods of making a people gainers in the ballance of trade*, London, 1699). –178

[대비난트] 『사회적 소득과 영국 무역에 관한 고찰』, 제1부 및 제2부, 런던, 1698년. ([Davenant, Charles.] 『*Discourse on the public revenues, and on the trade of England* 』, Part Ⅰ and Ⅱ, London, 1698).–178~79

데르,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에 대한 서론」, 『중농주의자들』,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 (Daire, Eugène, 「Introduction sur la doctrine des physiocrates」.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ère partie, Paris, 1846).–53

데스튀트, 『이데올로기의 제 요소』, 제4부 및 제5부 : 「의지와 그 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1823년에 『이데올로기의 제 요소』 제4부는 「정치 경제학 개론」(Traité d'économie politique)이라는 표제로 파리에서 따로 출판되었다]. (Destutt de Trac-

y, le comte. 『*Eléments d'idéologie*』. Ⅳ-e et Ⅴ-e parties : Traité de la volonté et de ses effets. Paris, 1826). –269~81, 283

로크, 「이자의 인하 및 화폐 가치의 인상의 제 결과에 관한 약간의 고찰」(1691년). 『존 로크 저작집』, 2절판, 1740년, 제2권에 수록. (Locke, John. 「Some consideration of the conseq-uen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 1691. In : 『*The Works of John Locke*』, Folio edtion, 1740. Vol. Ⅱ).–367

로크, 「정부에 관한 두 논문」(1690년). 『존 로크 저작집』, 4권, 제7판, 제2권(런던, 1768년)에 수록. (Locke, John 「Two treaties of government」(1690). In : 『*The Works of John Locke*』, in four volumes, The 7th edition. Vol. Ⅱ. London, 1768).–365~67

로씨, 『정치 경제학 강의』(1836~1837년)(파리 판, 2권). 브뤼셀, 1842년. (Rossi, P. 『*Cours déconomie politique, Année*』 1836~1837(Contenant les deux volumes de l'édition de Paris). Bruxells, 1842).–292~98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Ramsay, George.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Edinburgh, 1836).–104~05, 107~08

로더데일, 『국부의 본성과 기원, 그 증대의 수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에딘버러 및 런던, 1804. (Lauderdale, the Earl of.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origin of public wealth, and into the means and causes of its increase*』, Edinburah and London, 1804).–93, 264~65

로더데일, 『국부의 본성과 기원, 그 증대의 수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E. 라장띠 드 라바이세에 의한 영문에서의 번역, 파리, 1808년. (Lauderdale, le comte de. 『*Recherches sur la nature et l'origine de la richesse publique, et sur les moyens et les causes qui concourent à son sccroissement*』. Traduit de l'anglais par E. Lagentie de Lavaïsse. Paris, 1808).–93, 264~66

리카르도,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2판, 런던, 1819년. (Ricardo, Davi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2nd edition. London, 1819).–60

같은 책. 제3판, 런던, 1821년–177, 226~27, 381

리카르도,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콘스탄시오 역, J. B. 세이의 평과 주해가 붙음. 제1및 제2권. 파리, 1819년. (Ricardo, David. 『*Des principes de l'économie politique et de l'impôt*』. Traduit de l'anglais par Constancio, avec des notes explicatives et critiques par J. B. Say, Tome Ⅰ et Ⅱ. Paris, 1819).–221, 222, 224, 226

[렝게] 「민법 이론. 또는 사회의 기본 원리」, 제1 및 제2권, 런던, 1767년. ([Linguet.] 「*Théorie des lois civiles, ou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société*」. Tome premier et second. Londres, 1767).–345~50

맬더스. 「정치 경제학에서의 제 정의」, 신판, 존 케이즈노브의 서문이 붙음. 런던, 1852년. (Malthus, T. R.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A new edition with a preface by John Cazenove. London, 1852).–74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제1분책, 베를린, 1859년. (Marx, Karl.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s Heft. Berlin, 1859).–70, 151, 174, 303, 322, 341, 342, 389

맑스, 「철학의 빈곤.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파리-브뤼셀, 1874년. (Marx, Karl. 「*Misère de la philosophie. Répones à 〈la Philosophie de la misère〉 de M. Proudhon*」. Paris-Bruxelles, 1847).-74

몽테스큐 「법의 정신」(1748년). 제1~제4권, 파리, 1820년.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1748). Tomes I-IV. Paris, 1820).-304

「무역에 관한 강의」-[노스, 더들리]의 「동인도 무역에 관한 강의」를 보라.

밀, 「정치 경제학의 몇개 미해결 문제에 관한 논문」. 런던, 1844년. (Mill. John Stuart.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4).–182

[매시]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서 윌리엄 페티와 로크 씨의 의견의 고찰」. 런던, 1750년. ([Massie, Joseph.] 「*An Essay on the governing causes of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 Wherein the sentiments of Sir William Petty and Mr. Locke, on that head, are considered*」, London, 1750). –373, 375~77

[맨더빌] 「꿀벌 이야기. 또는 사적 죄악과 공적 이익」, 제5판, 런던, 1728년(초판은 1705년에 발행되었다). ([Mandeville, Bernard de.] 「*The Fable of the bees, or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 」. 5th edition. London, 1728).–176, 388

[메르시에] 「정치 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제2권. 런던 및 파리, 1767년. ([Mercier de la Rivière.]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Deux volumes. Londres et Paris, 1767).–62, 65

바스티아, 「신용의 무보상성, 바스티아 씨와 프루동 씨 간의 논쟁」. 파리, 1850년. (Bastiat, Fr. 「*Gratuité du crédit. Discussion entre M. Fr. Bastiat et M. Proudhon*」. Paris, 1850)–325

바튼, 「사회의 노동 계급의 처지에 영향을 주는 제 사정의 고찰」. 런던, 1817년. (Barton, John. 「*Observations on the circumstances which influence*

the condition of the labouring classes of society」. London, 1817)–154~55

버클리, 「질문자. 공중의 토의에 붙이는 몇 가지 문제들」, 런던, 1750년 (초판은 1735~1737년에 더블린에서 발행되었다). (Berkley, George. 「*The Querist, containing several queries propos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public*」, London, 1750).–372

보도, 「경제표 해설」(1776년). E. 데르의 서론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2부(파리, 1846년)에 수록. (Baudeau, l'abbé. 「Explicaion du Tableau économique」(1776).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Deuxième partie. Paris, 1846).–333, 379

뷰캐난, 「스미스 박사의 〈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취급된 문제에 관한 고찰」 에딘버러, 1814년. (Buchanan, David 「*Observations on the subjects treated of in Dr. Smith's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ndurgh, 1814).–289

[뷰아] 「정치의 제 요소, 또는 사회 경제의 진정한 제 원리의 연구」. 제1~제6권, 런던, 1773년.([Buat, du.] 「*Eléments de la politique, ou Recherche des vrais principes de l'économie sociale*」. Tomes Ⅰ~Ⅳ. Londres, 1773).–381

블랑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유럽 정치 경제학사」. 브뤼셀, 1839년. (Blanqui, Adolphe. 「*Historie de l' economie politique en Europe depuis les anciens Jusqu' á nos jours*」. Bruxelles, 1839).–62, 64, 174

베리, 「정치 경제학에 관한 고찰」. 「이태리 고전 정치 경제학」 중의 현대편. 제15권(밀라노, 1804년) 중에 수록. (Verri, Pietro. 「Meditazioni sulla economia politica」(1771). In :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Parte moderna. Tomo XV. Milano, 1804).–60, 67~68

벨러즈, 「빈민, 제조업, 상업, 식민지 및 비도덕 등등에 관한 논술」, 런던, 1699년. (Bellers, John. 「*Essays about the poor, manufactures, trade, plantations, and immorality…*」. London, 1699).–370~71

슈토르흐, 「국민 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정치 경제학 강의」, 제5권). 파리, 1824년. (Storch, Henri. 「*Considérations sur la nature du revenu national*」 (tome V du 「Cour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24).–103~104

슈토르흐, 「정치 경제학 강의. 또는 제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제 원칙의 서술」. J. B. 세이의 평과 주해가 붙음. 제1~제4권, 파리, 1823년. (Storch, Henri. 「*Cours d'économie politique, ou Exposition des principes qui déterminent la prospérité des nations*」.

Avec des notes explicatives et critiques par J. B. Say. Tomes Ⅰ-Ⅳ. Paris, 1823).–284~87.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2권, 런던, 1776년.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Two vols. London, 1776).–43, 61, 87~88, 97, 199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맥컬로크에 의한 저자의 전기, 서문 및 주해가 붙음. 4권. 에딘버러, 1828년.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ith a life of the author, an introductory discourse, and notes by MacCulloch. in four volumes. Edinburgh, 1828). –69~70, 83, 84~85, 155~56, 159~60, 161, 300, 303

스미스,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르멩 가르니에의 주와 평주가 붙은 새 번역. 제1권~제4권. 파리, 1802년. (Smith, Adam. 『*Recherches sur la nature et les causes de la richesse des nations*』. Traduction nouvelle, avec des notes et observations, par Germain Garnier. Tomes Ⅰ-Ⅳ. Paris, 1802).–69, 71, 73~77, 78~79, 81~83, 84, 89~90, 91, 93, 94, 97~102, 125, 162~163, 168~70, 173, 253~64, 265~66, 280, 302, 343

스펜스, 『상업에 의존하지 않는 영국』. 런던, 1807년. (Spence, William. 『*Britain independent of commerce*』. London, 1807).–382

스튜어트, 『정치 경제학 원리 연구』. 2권. 런던, 1767년. (Steuart, Sir James.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in two volumes. London, 1767).–43

스튜어트, 「정치 경제학 원리 연구」, 『서 제임즈 스튜어트 저작집』, 그의 아들 서 제임즈 스튜어트 장군 편찬, 6권 중의 제1권(런던, 1805년)에 수록. (Steuart, Sir James.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In : 『*The Works of Sir James Steuart*』, collected by General Sir James Steuart, his son, in six volumes, Vol Ⅰ. London, 1805).–41~43.

같은 책, 제3권, 런던, 1805년.–43

시니어, 『정치 경제학 기본 원리』. 출판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N. W. 시니어씨의 강의록 중에서 쟝 아리바베네 백작이 발췌한 것. 파리, 1836년. (Senior. 『*Principes fondamentaux de l'économie politique*』, tirés de leçons édites et inédites de Mr. N. W. Senior par le c-te Jean Arrivabene. Paris, 1836).–287~89, 290~92

쉬말쯔, 『정치 경제학』. 앙리 쥬프루아에 의한 독일어에서의 번역. 제1권 및 제2권, 파리, 1826년. (Schmalz. 『*Economie politique*』. Ouvrage tra-

duit de l'allemand par Henri Jouffroy. Tome I et Ⅱ. Paris, 1826).–67, 202~203.

존즈, 「부의 분배 및 조세 원천에 관한 논술」, 「제1부 : 임료」. 런던, 1831년. (Jones, Richard.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on the sources of taxation*」, part Ⅰ : Rent. London, 1831).–48

「중농주의자들」. E. 데르의 서론과 주해가 붙음. 제1부 및 제2부. 파리, 1846년.–보도의 「…해설」, 데르의 「…서론」, 듀퐁의 「기원…에 관하여」, 듀퐁의 「…개요」, 케네의 「…분석」, 케네의 「…대화」, 케네의 「…원천」을 보라.

「중농주의. 또는 인류에 가장 유익한 자연적 통치 제도」. 듀퐁에 의하여 출판된 [케네의 저작집]. 라이덴 및 파리, 1767년. (「*Physiocratie, ou Constitution naturelle du gouvernement le plus avantageux au genre humain*」. Recueil [d'oeuvres de Quesnay] Publié par Du Pont, Leyde et Paris, 1767).–230

「제 국민의 부의 기본 원리. 박사 아담 스미스와 기타의 약간의 그릇된 학설을 반대하여」, 런던, 1797년. (「*The Essential priciples of the wealth of nations, illustrated, in opposition to some fales doctines of Dr. Adam Smith, and others*」, London, 1797).–382~86

챌머즈, 「사회의 도덕적 상태 및 도덕적 전망과 관련된 정치 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글라스고, 에딘버러, 런던, 1832년, (Chalmers, Thomas. 「*On political economy in connexion with the moral state and moral prospects of society*」, Second edition. Glasgow, Edinburgh and London, 1832).–299

「최근 맬더스 씨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그 원리로부터 세금과 비생산적 계급의 유지는 부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런던, 1821년. (「*An Inquiry into those principles, respecting the nature of demand and the necessity of consumption, lately advocated by Mr. Malthus, from which it is concluded, that taxation and the maintenance of unproductive consumers can be conductive to the progress of wealth*」, London, 1821).–61, 283

파올레티,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수단」(1772년). 「이탈리아 고전 정치 경제학」, 현대편, 제20권(밀라노, 1804년)에 수록. (Paoletti, Ferdinando. 「I veri mezzi direnderfelici le società」, 1772. In :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Parte moderna. Tomo XX. Milano, 1804).–60

프루동, 「경제적 모순의 체계. 또는 빈

곤의 철학』. 2권, 파리, 1846년. (Proudhon, P. J. 『*Système des contradictions économiques, ou philosophie de la misère*』. Deux volumes. Paris, 1846).–64

프루동, 『신용의 무보상성』–바스티아, Fr. 『신용의 무보상성. Fr. 바스티아 씨와 프루동 씨 간의 논쟁』을 보라.

페리에, 『상업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정부』, 파리, 1805년. (Ferrier, F. L. A. 『*Du gouvernement considéré dans ses rapports avec le commerce*』 Paris, 1805).–252~53

페티, 「정치 산수」(1676). 페티, 윌리엄 『정치 산수 중의 약간의 논술』 (런던, 1699년)에 수록. (Petty, William. 「Political arithmetic」(1676). In : Petty, William, 『*Several essays in Political arithmetic*』, London, 1699).–174, 180, 181

[페티]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 런던, 1662년. ([Petty, William.] 『*A Treatise of taxes and contributions*』. London, 1662).–181~82, 364

같은 책, 런던, 1667년.–354~62

같은 책, 런던, 1679년.–181

페티, 『화폐에 관한 소론』, 1682년. 런던, 1695년에 인쇄. (Petty, William. 『*Quantulumcunque concerning money*』, 1682, London, Printed in the year 1695).–363, 364

페티, 「현자에게 한 마디」(1665년). 페티, 윌리엄.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런던, 1691년)에 수록. (Petty, William. 「Verbum sapienti」, 1665. In : Petty, William. 『*The Political anatomy of Ireland*』. London, 1691).–362

페티, 「인류의 증가에 관한 논술」(1682년). 페티, 윌리암. 『정치 산수 중의 약간의 논술』(런던, 1699년)에 수록. (Petty, William, 「An Essay concerning the multiplication of mankind」, 1682. In : Petty, William. 『*Several essays in political arithmetic*』. London. 1699).–362

페일리,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 런던, 1785년. (Paley, William. 『*The Principles of moral and poltical philosophy*』, London, 1785).–283

페일리,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 J. L. S. 벵상에 의한 영문 제19판의 번역. 2권. 파리, 1817년. (Paley, William. 『*Principes de philosophie morale et poltitique*』, traduits de l' anglais, sur la 19-e édition par J. L.S. Vincent. Deux volumes. Paris, 1817).–283

『하원의 건의안에 첨부한 보고』, 1861년 4월 24일 자(1862년 2월 11일 출판). (『*Return to an Address of the Honourable The House of commons*』, dated 24 April 1861.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11 February 1862).–201

호지스킨, 「통속 정치 경제학. 런던 역학연구소에서 한 네 강의」, 런던, 1827년 (Hodgskin, Thomas. 「*Popular political economy, Four lectures delivered at the London Mechanics' Institution*」, London, 1827). −88, 406

홉스, 「리바이어던 또는 교회 및 시민국가의 내용, 형태 및 위력」(1651년.) 「토마스 홉스 영문 저작집」 몰즈워스 편찬, 제3권 (런던, 1839년) 중에 수록. (Hobbes, Thoma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 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1651. In: 「*The Engilsh Works of Thomas Hobbes*」, now first collected and edited by Molesworth. vol Ⅲ. London, 1839) −353, 365

흄, 「이자에 관하여」 (1752년). 흄, 「약간의 문제에 관한 논설집」(2권)에 수록. 제 1권은 도덕적, 정치적 및 문학적 논설들을 포함. 신판. 런던, 1764.(Hume, David. 「Of interest」, 1752. In: Hume, David. 「*Essays and treatises on several subjects*」. in two volumes. Vol. Ⅰ, containing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a new edition. London, 1764) −373 ~75

흄, 「상업에 관하여」(1752년), 흄, 「약간의 문제에 관한 논설집」(2권)에 수록. 제1권은 도덕적, 정치적 및 문학적 논설들을 포함, 신판, 런던,. 1764. 년. (Hume, David. 「Of commerce」 (1752). in: Hume, David. 「*Essays and treatises on several subjects*」 In two volumes. Vol I, containing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A new edition, London, 1764).−373

카나르, 「정치 경제학 원리」, 파리, 1801년 (Canard, N. F.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01).−204.

[캉띠용] 「상업 일반의 본성에 관한 논술」, 런던, 1755. ([Cantillon, R.]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Londres, 1755).−73

케네, 「경제표 분석」(1766년). E. 데르의 서론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 (Quesnay, François. 「Analyse du Tableau économique」(1766). In: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ére partie. Paris, 1846). −54, 378

케네, 「농업 국가의 경제 정책의 일반적 원칙」(1758년), E. 데르의 서문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 (Quesnay, Francois. 「Maximes générales du gouvernement économique d'un royaume agricole」(1758). In: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ére Partie. Paris, 1846)−64, 65.

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

한 대화」(1766). 「상업에 관하여, H. 씨와 N. 씨 간의 첫째 대화.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하여, 둘째 대화.」 E. 데르의 서문과 주해가 붙은 「중농주의자들」 제1부 (파리, 1846년)에 수록. (Quesnay, Fracois 「Dialogues sur le commerce et sur les travaux des artisans」, 1766. 「Du commerce, Premfer dialogue entre M. H. et M. N. Sur les travaux des artisans. Second dialogue」 In:「*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ére Partie, Paris. 1846).—380

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1766년) 「튀르고 전집」. 데르에 의한 신판. 제1권(파리, 1844년) 중에 수록. (Turgot. 「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1766). In:「*Oeuvres de Turgot*」 Nouvelle édition par M. Eugène Daire. Tome Premier. Paris 1844)—43, 54~59, 62, 64

시스몽디, 「정치 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부와 인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제2판, 제1권 및 제2권, 파리, 1827년. (Sismondi, Simonde de. 「*Nouvè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Seconde édition. Tome I et Ⅱ. Paris, 1827). —177, 282

세이, 「정치 경제학 개론」. 제1권 및 제2권. 파리, 1803년. (Say J. B. 「*Trait é d'économie politique*」. Tome I et Ⅱ. Paris, 1803).—229, 266

같은 책, 제3판, 제1권 및 제2권. 파리 1817.—103, 150, 266~69

아른드, 「독점 정신과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자연적 민족경제학」, 하나우, 1845년 (Arnd, Karl. 「*Die naturgem ässe Volkswirtschaft gegenüber dem Monopoliengeiste und dem Kommunismus*」 Hanau, 1845)—48

* 이상의 페이지 수는 영어판 페이지임

인 명 색 인

ㄱ

가닐 Ganilh, Charles(1758~1836) 프랑스의 부르조아 정치가, 속류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추종자-158, 203~209, 211, 212, 215, 218, 220, 222~223, 225, 229~30, 266, 297, 299.

가르니에 Garnier, Germain(1754~1821) 프랑스의 경제학자. 군주주의 정치가. 중농주의 학파의 추종자. 아담 스미스의 저서를 번역, 비판하였음-63~64, 73, 78~79, 83, 99~100, 168~70, 176, 183, 185~87, 198~203, 253, 258~61, 265~66, 267, 280, 284, 285, 297, 299, 301, 302, 344.

고드윈 Godwin, William(1756~1836) 영국의 소부르조아 소설가, 정치 평론가. 합리주의자, 무정부주의의 창시자 중 한사람-345.

ㄴ

나폴레옹1세 Napoleon I (Bonaparte) (1769~1821) 프랑스의 황제(1804~14, 1815)-252.

네케르 Necker, Jacques(1732~1804) 프랑스의 정치가, 경제학자. 1770년대와 1780년대에 수차례 재무장관을 맡아 부르조아 혁명의 전야에 일정한 개혁을 시도-37, 305~07.

노스 North, Sir Dudley(1641~1691)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최초의 대표자 중 한사람-364, 368~71.

니콜라이1세 Nicholas I (1796~1855) 러시아의 짜르(1825~55)-284.

ㄷ

대비난트 D'Avenant, Charles(1656~1714) 영국의 경제학자, 통계학자 중상주의자-178, 179.

데스튜트 Destutt de Tracy, Antoine-Louis Claude, conte(1754~1836) 프랑스의 속류경제학자, 감각주의

철학자, 입헌군주제의 주창자–184, 269, 271, 272, 280, 283, 323, 342.

데르 Daire, Louis-François-Eugène (1798~1847)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정치경제학에 관한 저작들을 출판하였다–53, 54, 380.

듀퐁 Dupont de Nemours, Pierre-Samuel(1739~1817) 프랑스의 정치가. 경제학자. 중농주의자–380.

ㄹ

라장띠 Lagentie de Lavaïsse–로더데일의 저서 「국부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연구」를 불어로 번역–92.

래븐스톤 Ravenstone, Piercy(~1830)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추종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맬더스주의에 반대함–39.

램지 Ramsay, Sir George(1800~1871)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고전학파의 최후의 대표자 중 한사람–38, 103~106, 107.

레싱 Lessing, Gothhold Ephraim(1729~1781) 독일의 위대한 작가, 비평가, 철학자, 18세기 계몽사상의 탁월한 대표자 중 한 사람–285.

렝게 Linguet, Simon Nicolas Henri (1736~1794) 프랑스의 법률가, 정치평론가, 역사가, 경제학자 : 중농주의와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봉건적 절대주의의 입장에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지의 자유와 재산에 관해 심오한 비판적 관찰을 하였다.–37, 305, 344~47, 349~50.

로 Law, John(1671~1729) 스코틀랜드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재정학자. 프랑스의 재무장관(1719~20). 은행권 발행과 관련된 모험적인 계획으로 유명하다. 결국 이 계획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59, 64.

로더데일 Lauderdale, James Maitland, Earl of(1759~1839) 스코틀랜드의 부르조아 정치가, 경제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92~93, 176, 230, 264~66, 297, 299.

로드베르투스 Rodbertus-Jagetzow, Johann Karl(1805~1875) 독일의 속류경제학자, 정치가, 프러시아의 부르조아지화된 토지귀족의 이론가. 반동적인 프러시아 "국가 사회주의"의 주창자–38.

로세르 Rocher, Wilhelm Georg Friedrich (1817~1894) 독일의 속류경제학자, 라이프찌히 대학교수,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이른바 역사학파의 창시자–387.

로씨 Rossi, Pellegrino Luigi Edoardo (1787~1848) 이탈리아의 속류경제학자, 법률가, 정치가, 오랫동안 프랑스에 거주–176, 230, 292, 294~96.

로크 Locke, John(1632~1704) 영국의 탁월한 이원론 철학자. 감각론자 : 부르조아 경제학자, 명목화폐론과 금속화폐론 사이를 동요–93, 302, 365

~67, 368~69, 373, 375, 382.
뢰드레르 Roederer, Pierre-Louis, comte (1754~1835) 프랑스의 부르조아 정치가–66.
루터 Luther, Martin(1483~1546) 종교개혁의 지도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주의(루터교)의 창시자. 독일 시민의 이데올로그 : 1525년 농민전쟁시 농민과 도시빈민에 등을 돌리고 군주의 편에 섰다.–39.
르 트론느 Le Trosne, Guilleaume François (1728~1780)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농주의자–379.
리스트 List, Friedrich(1789~1846) 독일의 속류경제학자. 보호주의의 주창자–252.
리카르도 Ricardo, David(1772~1823)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지도적 대표자.–38, 52, 61, 71, 73, 81, 82, 88, 89, 92, 97, 98, 104, 105, 151, 176~77, 204, 205, 221~28, 381, 406, 415, 416.

ㅁ

매시 Massie, Joseph(~1784)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대표자–369, 373, 375, 377.
맥컬로크 McCulloch, John Ramsay (1789~1864)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이론을 속류화시켰다. 자본주의의 열렬한 옹호자–38, 69, 83, 156, 179, 300, 303.
맨더빌 Mandeville, Bernard(1670~1733) 영국의 저술가, 경제학자–388.
맬더스 Malthus, Thomas Robert(1766~1834) 영국의 신부, 경제학자, 부르조아지화된 토지귀족의 이데올로그, 자본주의의 옹호자, 염세적인 인구론을 추구했다–38, 73, 74, 88, 154, 157, 176, 212, 281, 299, 354, 415.
메르시에 Mercier de la Riviere, Paul Pierre(1720~1793)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농주의자–62, 65.
멘델스존 Mendelssohn Moses(1729~1786) 독일의 반동적인 부르조아 철학자. 이신론(理神論)자–287.
몰즈워스 Molesworth, William(1810~1855) 영국의 정치가, 홉스의 저서를 출판–353.
몽테스큐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ede et de(1689~1755) 프랑스의 탁월한 부르조아 사회학자, 경제학자, 저술가. 18세기 계몽사상의 대표자. 화폐수량설의 옹호자–301, 302, 345.
뮐너 Müllner, Amadeus Gottfried Adolf (1774~1829) 독일의 저술가, 비평가–387.
미라보 Mirabeau, Victor Riqueti marquis de(1715~1789) 프랑스의 경제학자, 중농주의자, Honorè Gabriel Mirabeau의 아버지, 18세기말 프랑스 부르조아 혁명의 지도자–47, 50, 66, 343.
J.밀 Mill, James(1773~1836) 스코틀

랜드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철학자. 리카르도의 이론을 속류화한 동시에 이 이론에 기초하여 몇몇 급진적 결론에 도달했다–38.

J.S. 밀 Mill, John Stuat(1806~1873) 스코트랜드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실증주의 철학자, 정치경제학의 고전학파의 추종자. J.Mill의 아들–38, 182.

밀튼 Milton, John(1608~1674) 영국의 위대한 시인, 저술가. 17세기 영국혁명에 참여했다–401.

ㅂ

바스티아 Bastiat, Frédéric(1801~1850) 프랑스의 속류경제학자 : 부르조아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이익의 조화에 관한 이론을 주창–325, 404, 407.

바튼 Barton, John(18C말~19C초)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의 대표자–38, 155.

반덜린트 Vonderlint, Jacob(~1740) 영국의 경제학자, 중농주의의 후계자, 화폐수량설의 초기 대표자–382, 386.

배베이지 Babbage, Charles(1792~1871) 영국의 수학자, 기계공학자. 부르조아 경제학자–388.

버클리 Berkeley, George(1685~1753) 영국의 반동적 철학자, 주관적 관념론의 결출한 대표자, 주교 : 중상주의의 반대자 : 노동을 부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 : 명목화폐론의 대표자–372.

베리 Verri, Pietro(1728~1797) 이탈리아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농주의 이론을 최초로 비판한 사람 중 한 사람–60, 67~68.

베르길리우스 Virgil(Publius Vergilius Maro) 로마의 위대한 시인–225.

베아르데 Béardé de l'Abbaye(1704~1771) 프랑스의 경제학자, 농학자–385.

벨러즈 Bellers, John(1654~1725) 영국의 경제학자. 부의 창조에 노동이 맡는 부분을 강조 : 사회개혁에 관한 몇몇 이상주의적 계획의 작성자–370.

보도 Baudeau, Nicolas(1730~1792) 프랑스의 신부, 경제학자, 중농주의 학파의 대표자–333, 379.

볼테르 Voltaire, François Marie(본명은 Arouet) (1694~1778) 프랑스 이신론(理神論)철학자, 풍자가, 18세기 부르조아 계몽주의의 걸출한 대표자. 절대주의와 카톨릭주의와 투쟁–285.

부아길베르 Boisguillebert, Pierre(1646~1714)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스의 고전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창시자. 중농주의의 계승자–50.

뷰아-낭세 Buat-Nançay, Louis-Gabriel comte du(1731~1787) 프랑스의 역사가, 경제학자, 중농주의의 추종자.–381

뷰캐난 Buchanan, David(1779~1848) 영국의 정치평론가, 부르조아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추종자 겸 해설

자–49, 289.

브레이 Bary, John Francis(1809~1897) 영국의 경제학자, 공상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웬의 추종자, 노동화폐이론을 개발–37, 38, 323.

브룸 Brougham, Henry Peter, Baron (1778~1868) 영국의 법률가, 문인, 1820년대와 30년대 휘그당의 열성당원–176, 230.

브리쏘 Brissot, Jean Pierre(1754~1793) 18세기 후반 프랑스 부르조아혁명의 걸출한 인물, 혁명 초기 자코뱅당의 일원이었다가 이후 지롱드당의 지도자 겸 이론가로 됨–345.

블랑키 Blanqui, Jérôme Adolphe(1798~1854)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정치경제학 교리의 역사』를 집필, 속류 정치경제학의 대표자–62, 64, 174.

ㅅ

세이 Say, Jean-Baptiste(1767~1832)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속류경제학의 대표자–103~104, 150, 176, 221~23, 229, 234, 266~69, 281, 284, 404.

세르블리에 Cherbuliez, Antoine Elisée(1797~1869) 스위스의 경제학자. 시스몽디의 이론을 리카르도의 이론의 몇몇 요소와 결합시킨 시스몽디의 추종자–38.

세익스피어 Shakespeare, William(1564~1616) 영국의 위대한 작가–375.

소포클레스 Sophocles(BC 497~BC 406) 고대 그리이스의 유명한 극작가, 고전적 비극의 저자–387.

쉬말쯔 Schmalz, Theodor Anton Heinrich (1760~1831) 독일의 법률가, 경제학자. 중농주의의 추종자이며 초반동적 인물–67, 202~03.

쉴러 Schiller, Friedrich(1759~1805) 독일의 위대한 작가–387.

슈토르흐 Storch, Andrei(Henri, Heinrich) Karlovich(1766~1835) 러시아의 경제학자, 정치가, 역사가. 페테르스부르그 과학원 회원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의 추종자–113, 174, 176, 230, 284~86, 291, 292, 297, 299, 408.

스미스 Smith, Adam(1723~1790)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고전학파의 위대한 대표자–37, 38, 43, 44, 47, 49, 60, 61, 63, 69~104, 106, 150~51, 152~57, 159~64, 167~77, 182~87, 199~204, 210, 212, 223, 225, 226, 251, 253~58, 260, 262~67, 269~71, 278, 281, 283~85, 287~93, 295~96, 298~300, 302~304, 306, 343~44, 360, 381, 382, 384, 415.

스털링 Stirling, Patrick James(1809~1891) 영국의 속류경제학자–38.

스튜어트 Steuart, Sir James(1712~1780)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최후의 대표자 중 한사람

–37, 41~43, 48, 50, 79.

T.스펜스 Spence, Thomas(1750~1814)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토지의 사적 소유의 철폐와 농촌사회주의의 건설을 주창–382.

W.스펜스 Spence, Willam(1783~1860) 영국의 곤충학자, 경제학자–382.

시니어 Senior, Nassan Willam(1790~1864) 영국의 속류경제학자, 자본주의와 옹호자, 노동시간의 감축에 반대.–176, 230, 287, 289~92, 383

시스몽디 Sismondi, Jean-Charles-Léonard Simonde de(1773~1842) 스위스의 경제학자, 자본주의의 소부르조아적 비판가. 경제적 낭만주의의 걸출한 대표자– 177, 282, 415.

ㅇ

아른드 Arnd, Karl(1788~1877)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속류경제학의 대표자–48.

아리바베네 Arrivabene, Jean(1787~1881) 이탈리아의 정치적 망명자. 시니어의 저작을 불어로 번역하였다–287.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BC 384~322) 위대한 고대 철학자.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에서 동요. 노예제 사회의 이데올로그, 노예제 자연경제를 주창. 최초로 가치를 분석하였음–287.

앤 Anne(1665~1714) 대영제국의 여왕(1702~14)–383.

앤더슨 Anderson, James(1739~1808) 차액지대이론의 원초적 형태를 부여한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382.

에피쿠로스 Epicurus(BC 341~270) 고대 그리이스의 탁월한 유물론 철학자. 무신론자–66.

영 Young, Arthur(1741~1820) 영국의 농학자, 부르조아 경제학자–381, 385.

웨이크필드 Wakefield, Edward Gibbon (1796~1862) 반동적인 식민지건설이론을 추진한 영국의 정치가, 경제학자–38, 414.

유어 Ure, Andrew(1778~1857) 영국의 화학자, 속류경제학자.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몇몇 저작을 집필–391.

ㅈ

존즈 Jones, Richard(1790~1855)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최후의 대표자 중 한사람–39, 48.

쥬프루아 Jouffroy, Henri–1820년대와 40년대에 출판된 정치경제학과 법률에 관한 몇몇 논문의 저자, 번역자, 프랑스출신–67, 203.

ㅊ

차일드 Child, Sir Josiah(1630~1699) 영국의 경제학자, 중상주의자. 은행

가, 상인-368.
찰즈2세 Charles Ⅱ(1630~1685) 대영제국의 왕(1660~1685)-368.
챌머즈 Chalmers, Thomas(1780~1847)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부르조아 경제학자, 맬더스의 추종자-299.

ㅋ

카나르 Canard, Nicolas-François(1750~1833) 프랑스의 경제학자, 수학자-204.
캉띠용 Cantillon, Richard(1680~1734) 영국의 경제학자, 중농주의의 선구자-73.
컬페퍼 Culpeper, Sir Thomas(1578~1662)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지지자-368.
케네 Quenay, François(1694~1774) 프랑스의 위대한 경제학자, 의사. 중농주의 학파-37, 50, 54, 64~65, 203, 230, 308, 312, 327, 328, 329, 332~33, 335, 343~44, 378~80.
케사르 Caesar(Gaius Juius) (BC 100~44) 로마의 저명한 군인, 정치가-287.
케어리 Carey, Henry Charles(1793~1879) 미국의 속류경제학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이익의 조화라는 반동적 이론의 저자-175, 415.
케이즈노브 Cazenove, John(19세기) 영국의 속류경제학자, 맬더스의 추종자-74.
코크 Kock, Charles-Paul de(1794~1871) 프랑스의 부르조아작가. 몇몇 시시한 통속소설을 썼음-402.
콘스탄시오 Constancio, Francisco Salano (1772~1846) 포르투갈의 의사, 외교관, 작가, 영국 경제학자의 논문들을 불어로 번역하였음-221, 222.
콜베르 Colbert, Jean Baptiste(1619~1683) 프랑스의 정치가, 재무장관. 절대군주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구했음-59, 66.
쿠스토디 Custodi, Pietro(1771~1842)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의 저작을 출판했음-60, 67.
킹 King, Gregory(1648~1712) 영국의 수학자-178.

ㅌ

토렌즈 Torrens, Robert(1780~1864)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경제원리를 속류화하였음.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노동가치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38.
토끄빌 Tocqueville, Alexis Charles Henri Maurice Clérel de(1805~1859) 프랑스의 부르조아 역사가, 정치가, 정통주의자, 입헌 군주제의 주창자-230, 266.
투크 Tooke, Thomas(1774~1858) 영

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정치경제학의 고전학파에 속함. 리카르도의 화폐이론을 비판. 「가격의 역사」라는 방대한 저작의 저자–125, 251.

튀르고 Turgot, Anne-Robert-Jacques (1727~1781) 프랑스의 경제학자, 정치가 : 중농주의 학파의 탁월한 대표자, 재무장관(1774~76)–43, 47, 50, 54~55, 57~58, 62, 65, 66~67, 344, 358.

ㅍ

파올레티 Paoletti, Ferdinando(1717~1801) 이탈리아의 성직자. 중농주의자–60.

페일리 Paley, William(1743~1805) 영국의 신학자, 철학자, 경제학자–283.

페리에 Ferrier, François-Louis-Auguste (1777~1861) 프랑스의 속류경제학자. 중상주의의 추종자–230, 252~53, 266.

페티 Petty, William(1623~1687) 탁월한 영국의 경제학자, 정치가. 영국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고전학파의 창시자–174, 178~82, 303, 354~62, 364, 368, 369, 373, 375.

포르카드 Forcade, Eugène(1820~1869) 프랑스의 부르조아 작가, 속류 경제학파–112.

폼페이우스 Pompeius(BC 106~48) 로마의 장군, 정치가–348.

프레보 Prevost, Guillaume(1799~1883) 스위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이론을 속류화시켰다–38.

프루동 Proudhon, Pierre-Joseph(1809~1865) 프랑스의 정치평론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소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그, 무정부주의의 창시자 중 한사람–64, 112, 278, 323, 324.

ㅎ

호라티우스 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8) 로마의 탁월한 시인–176, 269.

호머 Homer–고대 그리이스의 신화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저자–285, 298.

호지스킨 Hodgskin, Thomas(1787~-1869) 영국의 경제학자, 언론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공상적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 리카르도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결론을 내림–39, 88, 406.

홉스 Hobbes, Thomas(1588~1679) 영국의 탁월한 철학자, 기계적 유물론의 대표자, 홉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매우 반민주적이었다–75, 353, 354, 365.

흄 Hume, David(1711~1776) 영국의 철학자, 주관적 관념론자, 불가지론자 : 부르조아 역사가,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반대자, 화폐수량설의 초

기 대표자 중 한사람– 373, 377.

* 이상의 페이지 수는 영어판의 페이지임

아침새책 27

잉여가치학설사

K. 마르크스 지음

초판발행일—1989년 1월 28일

재판발행일—1991년 1월 28일

발행인—천양선

발행처—도서출판 아침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4－31

☎ 587～2987, 587～2988

FAX : 582～9056

등록번호—서울 제21－27호

등록일—1988. 5. 31.

값 8,000원



잉여가치학설사

"맑스의 이 저작은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분쇄된 지 오랜 사이비 개념들을 소생시켜 그것들을 낡아빠진 자본주의 제도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의 인간 중오 체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더러운 일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부르조아 반동의 현대 대표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러시아어판 편집자 서문)